2023 년 11 월 28 일,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연명에 동의한 25,511 명의 시민들 중

9,429명이 작성한 의견 모음

번호	**넥슨에 전하고 싶은 의견**
1	당장의 이득을 위해 억지논란에 굴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기업의 모습이네요
2	집게손 따위에 남성혐오 운운할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부각해서 팔아먹는 여성혐오에 절여지다 못해 쩐내날 지경인 디자인부터 개선하라!!!!!! 나도 맘 편하게 게임좀 하자!!!! 아오!!!!! 누가 누구보고 혐오래 진짜!!!!!
3	인셀의 실체화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해라
4	게임업계는 악성 고객의 상식에 반하는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5	인셀이나 게임업계나 다를바 없는 사람들이라는것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그들의 주장 또한 헛소리라는것도 알았네요. 인셀들의 논리라고는 없는 "기분" 맞춰주신다고 매번 수고하십니다.
6	남초 인셀들 억지 의견 하나하나 굽신거리며 받아주거 그런 모습 고래고래 공지로 뽐내고 싶으시다면 게임은 문화니 어쩌니 입도 벙끗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여성차별적인 모양새가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들과 게임업계가 생각하는 게임 문화인가요? 글로벌 수익도 많이 얻으시던데, 글로벌하게도 우리 페미 잘라냈다며 당당하게 뽐내 주시길 바랍니다!
7	게임업계를 희망했던 사람으로서, 애니메이터로 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빠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을 먹이로 던져주는것이 쉬웠기때문이겠지만 남성 직원이었어도 던져주셨을까요? 굉장히 무력해지고 슬픈 소식입니다. 타인이 꿈꾸던 앞날을 짓밟지말아주세요.
8	역사는 이 순간을 훗날 한국 게임문화의 종말로 기억하겠죠, 혐오자의 손을 들어주며 자멸하는 순간으로.
9	넥슨이 업계에 2016 년에 씨앗을 뿌려 키운 업보입니다. 7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업계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십쇼.
10	넥슨 여성혐오을 당장 멈춰라 존재하지도 않는 망상에 답해주고 여성혐오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짓를 그만둬라. 사상이나 인권에 그렇게 예민했으면 왜 일베문구를 공식 커뮤니티에 그대로 사용하고 여성캐릭터를 성적대상화 할때는 가만히 있었는 가 저열하고 본인 회사들이 성차별주의자들의 낙원이라는 걸 광고하는 꼴이다.
11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손모양을 억지로 혐오 상징 취급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몹시 저열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입니다. 국내 게임업계에 상식다운 상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2	당장,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라
13	개선 좀 해라 대체 몇년째 그대로냐
14	넥슨은 정신차려라.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인셀남들의 의견에 동조할 것인가.
15	하... 혐오를 멈춰 주세요
16	경청하세요.

17	서든어택2 여성 상품화, 클로저스 미성년 여성 상품화 등등의 기획이 실현되는 회사의 문화 상태가 염려됩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여성유저들은 넥슨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넥슨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도록 하게될겁니다.
18	페미들도 너네 게임한다구요~ 정신 차려라~
19	여성혐오를 당장 멈춰라!
20	솔직히 저 논란이 억지라는 점은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나 싶습니다.
21	넥슨 유저에 여성도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죽이고 검열하지 말라!
22	넥슨은 마녀사냥에 굴복 말라!
23	여성혐오 조장하는 넥스 및 게임업계 규탄한다!
24	혐오자들의 편을 드는 행위를 멈추세요.
25	페미니즘 더이상 악용말라
26	넥슨의 사상검증에 규탄하고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멈춰주십쇼
27	이게 이럴 일입니까
28	이게 최선입니까 넥슨
29	오래 가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좀
30	사상검증을 그만두고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
31	게임업계는 페미니스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라
32	인종°성별°사상 차별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앞서가겠다는 모습 대단합니다. 방구석 사회단절 인셀들의 그지같은 사상이 넥슨 회사의 기본사상임을 깨달았고 모두 차별을 금지하는 이나라의 헌법을 거부하시니 이나라에서 나가주길 바랍니다
33	넥슨은 국내 최고 게임사라는 격에 맞게 공과 사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34	억지스러운 의견에 계속해서 말을 들어주는 게임 업계가 부디 현명한 대처를 하길 바랍니다.
35	인셀한테 지는 게임을 만들 거면 만들지 마십시오
36	넥슨 및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상 검증 및 하청 갑질을 당장 멈춰라.
37	안티페미니즘 광풍에 휩쓸리지 마라! 성평등한 게임업계를 바란다!
38	게임 좀 맘 편하게 하자 진상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는 좀 선 그어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이 없냐 먹금이라는거 할 줄 모르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도 저 모지리들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냐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나는 고객도 아니야? 내 돈은 돈도 아니야?
39	여성 게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하면 뒤에는 다른 인권적 부분도 후퇴될 겁니다
40	게임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 가는 시대에서 편향적인 태도로 한국 게임업계를 오염시키는 넥슨과 게임업계, 당신들이 진정한 혐오자이며 다양성과 평등의 시대에 남은 오명이다. 모두가 게임을 모두를 위한 것이라 외칠 때, 당신들만 게임은 페미니즘 혐오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국 게임업계가 죽는다면 그건 집게 손 때문이 아니라, 집게 손 때문에 노동자를 탄압한 당신들 때문이다.

41	현명하지 못한, 기울어진 사고로 판단해서 외주처의 작업물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직시해주셨으면 합니다.
42	2016 년 클로저스 사태 때 넥슨은 첫 대응의 단추를 잘못 끼워 인셀과 트롤들의 놀이터로 게임계를 전락시키며 업계 전체를 망쳤고, 지금도 그 선봉에 서있습니다. 넥슨은 이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에 동조한 게임업계도 자정과 반성을 이루어 올바르고 건전한 '문화'로 게임과 게이머가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43	게임업계는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44	페미니즘이 뭔지 알아요? 검색해봐요. 폐쇄적인 특정 사이트의 말만 듣고 보지 말고요. 그리고 사상검증하고 그걸로 해고해도 안되는거 알죠?
45	인녕하세요. 넥슨게임을 즐겨하던 유저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넥슨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게임이 아닌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온 게임 공지들에 대해서 본사에서 총괄적으로 내려 온 것인지. 또한, 하청 업체였던 스튜디오 뿌리에서 관련된 담당자를 축출 및 관련 컷을 삭제 하기로 했음에도 M 게임에서 혐오라고 이야기하며 관련 회사에 대해 평판을 깍아내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밖에도 D 게임에서 올라온 운영진이 정리한 프레임 초당 캡처 공지글, 연이은 공지까지 넥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일을 처리하실 건지. 또한 넥슨 노조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만약 이것이 그저 여성 일자리 끊기, 장난식으로 끌어낸 성혐오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46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 혐오 사상이 아닙니다. 여성이자 페미니스트라고 배척당한다면 20 년간 넥슨 게임을 이용해온 소비자로서 이에 응하는 강경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7	악성민원에 굴복하여 성실히 작업을 완수한 작업자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임업계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48	근시안적인 꼬리 자르기식 태도로 글로벌 사회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물 안 개구리인 티 그만 내세요.
49	본 사안에 대해 해외지사를 설득할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입장표명 바랍니다.
50	적당히 해라 진짜
51	직원을 보호하십시오.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52	게임업계에 만연한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여성도 고객으로서 같은 대우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을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모든 처사에 반대합니다.
53	여성 유저는 유저도 아니라는 의견 잘 보았습니다. 사태의 시발점인 인벤 사이트 및 인게임에서 각종 여성혐오적 표현을 남발하는 유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합니다.
54	혐오와 차별을 생산 및 방조하는 업계는 문화를 다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55	실제 유저인지도 모르는 익명 사이트의 말을 듣지말고 실존하는 여성 유저의 말을 들어라
56	소수의 유해 게이머들이 만들어 낸 트집과 모함에 휘둘려 게임 업계 전체에 해로움을 남기는 선택보다는 공정한 판단으로 업계 전체에 이로움이 남을 선택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57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게임을 좋아해서 돈과 시간과 애정을 들이는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성을 배제하려는 갑질을 그만두고 사과하세요.
58	저는 클로저스 성우가 강제로 하차당하던 시기에 '지금의 행동이 독재정권 시절 사상검증을 하던 들개와 같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중계에서 하차당하고 그러고도 6 년이 넘게 사이버불링에 시달려야 했던 전 게임캐스터 ***입니다. 페미니즘을 지지했단 이유로 무차별하게 공격해 정신적, 커리어적으로 피해를 입히던 광적인 행동은 이제 오락수단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에 트집을 잡기 위한 행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직접적으로 지지했단 이유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을 팔로했단 이유로, 점점 그 이유는 의미가 없는걸로 변해가더니 기어코 프레임단위로 쪼개어 당연히 지어지는 손모양을 핑계로 괴롭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진상짓에 엄정히 대처해야하는 게임업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창작자의 커리어를 붕괴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고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7 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거란 생각에 업계에서 도망치듯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괴롭고 슬픕니다. 부디 이런 참극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멈춰주세요. 부탁입니다
59	여성혐오를 즉시 중지하라
60	시대착오적이며 성차별적인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한국게임계가 부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꼭 망해주세요. 두 번 다시 볼 일 없게요.
61	일부 인셀 유저의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징징대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질 유저층을 잃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십시오. 게임업계 내에서 귀사의 입지를 생각하고 현대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62	힘을 풀고 지낸다면 언제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손가락 모양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손가락 모양 가지고 헐레벌떡 한다는 것은 혐오를 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63	평등과 혐오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64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서비스 시작할 때 이용약관에 해당 게임사는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여성을 혐오한다고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클린한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65	진상은 먹금이 답이다. 직원 보호가 우선이다.
66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67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자존심을 채우려는 악성 유저들과 이익만을 쫓기 위한 기업의 불합리한 선택으로 어릴적의 추억을 잃고 정말 좋아하던 것을 내려두어야만 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면 악성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외치는 행위부터 그만둬주시길 바랍니다.

68	넥슨은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일부 악성 유저들의 억지에 손을 들어주어 언제든 직원의 SNS 를 유저가 사찰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직원을 보호해야할 회사가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69	오랫동안 넥슨 게임을 즐긴 유저입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작인 집게손가락에 굳이 혐오적 의미를 부여하고 검열하는 것으로 인해 게임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언제든 이런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게임을 해도 즐겁지 않아서 아이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세요.
70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71	외주업체직원의 개인 SNS 검열은 옳지 못합니다.
72	누군가의 즐거움 때문에 개인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 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73	상식을 가져라
74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나? 제발 말도 안되는 건수로 멀쩡한 직원을 작업물을 없애지 말아달라. 정말 부탁이다. 전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75	게임과 관련이 없이, 여성 창작자를 공격하기만을 위한 억지 논란에 대한 대응을 멈추고, 사이버 불링 및 신상을 위협받는 창작자를 보호해 달라.
76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 노동자 부당대우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사상검증도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특정 집단의 극단적인 주장 및 사이버불링에 굴복하는 넥슨측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77	이 사안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조직을 재구성 해야할 신호입니다.
78	악질 민원인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며 여성의 일자리와 생계를 넥슨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온 가족, 온 세대, 온 세계가 즐기는 게임을 서비스합니까?
79	넥슨은 클로저스 사태부터 혐오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며 한국의 게임 문화를 망치는 데 일조했습니다. 넥슨의 파괴적이고 혐오적인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80	누가 보아도 억지고 이상한 짓거리인데 동조해주는 것을 넘어 심화시키는 주체가 대기업 넥슨이라는 점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81	게임 속 페미니즘 혐오 규탄한다!!!
82	노동자를 보호하고 상식적인 운영하라. 집단 테러, 괴롭힘에 동조하지 말아라.
83	적법하지 않은 넥슨의 조치를 규탄합니다.
84	업계 내 사상검증과 페미니즘에 대한 악의적 곡해를 그만두고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라
85	누군가의 생계를 이런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한순간에 끊어버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86	비상식적인 요구에 응답해주지 말고 여성 성우나 여성 작가들을 지켜줘라!!

87	확률조작, 유저 기만적인 운영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말도안되는 여성혐오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대대적인 사상검열을 행하는 넥슨은 감히 게임은 문화산업이다 따위의 망발을 입에 올릴 수 없다. 넥슨은 그저 도박과 여성혐오로 돈을 버는 쓰레기 기업일 뿐이다. 억지 젠더 갈등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그에 동조하는 넥슨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업계에서 꺼지길 바란다.
88	이런 꼬투리 잡기에 계속 응해주는건 자사의 경쟁력 깎아먹기밖에 안된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89	애초에 무언가를 잡는 행위를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 동작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힘든 과거 일베 손 모양 제스처와 동급 취급을 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신들은 평소에 검지와 엄지를 써서 무언가를 잡거나 들지도 않는가?
90	무분별한 여성혐오, 여성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91	프로젝트문 사건의 원조라고 할수있는 넥슨사태가 클로저스 성우 사건 이후로 또다시 재발한 꼴을 보니 비위가 상해서 게임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편협적인 시각으로 남자들의 의견에만 귀기울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92	넥슨은 남성 게이머 커뮤니티의 비합리적 민원을 여성 노동자를 희생해 무마하는 여성혐오적 의사결정에 사과하고 피해자의 작업물을 원상복구하십시오.
93	21 세기에 페미니즘 혐오사냥이 말이 됩니까...
94	넥슨은 2016 클로저스 사건때 이후로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임전반에 걸친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와 사이버불링을 멈춰야 합니다
95	작금의 상태가 정말 통탄스럽고 자신들의 무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96	억지논란 악성민원을 들어주며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앞장선 넥슨은 사죄하라
97	집게손을 싫어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남자들이 하루이틀 예민한것도 아니고... 그러나 회사가 그 억지논란에 순응하고 작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것은 대기업의 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98	일부의 이상한 유저들과 같은 사상에 동조해 게임에 대해 또다시 피로를 만드는 멍청한 행동을 제발 멈추세요. 내가 선택한 게임 내가 편하게 플레이 하고싶습니다.
99	티셔츠 때는 규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 생각하고 등만 돌아섰다. 이번에는 다르다. 계속해서 트롤 들의 말만 들어주며 하청업체와 프리랜서 그리고 직원들을 쥐어짜내는 넥슨을 규탄한다.
100	업계 전체와 다수의 제정신인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짓 좀 그만 하세요 쪽팔려 뒤지겠음 진심
101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손모양 가지고 트집 잡는 행동을 수용해 주는 건 한국 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102	계속 그럴거면 회사 홈페이지에 '이 기업은 페미니스트를 혐오합니다'라고 한글/영문으로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103	악성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받아들이시오
104	갑질 진상에 굴복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105	그림 손가락 말고 다퉈야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06	어처구니없고 부당하다못해 요구조차 못 되는 떼쓰기에 그만 응답하십시오.
107	일부 유저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채택하는 대신 성평등한 게임 문화를 이끌기를 촉구합니다.
108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109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노동자의 정상 업무를 폄훼하고 낙인 찍지 말아주십시오
110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는 게 어려우면 올바르게 행동하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111	2016 년 성우 교체부터 시작해서 넥슨이 당시에 쉬쉬하고자 넘어갔던 사건이 큰 사회적 돌덩이가 되어 굴러왔습니다. 이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12	페미니즘을 게임에서 깔끔하게 걷어내겠다는 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해라
113	이런 집단 망상 떼쓰기를 대체 언제까지 들어줄겁니까 제발 사람답게 좀 사세요
114	1 초도 되지 않는, 고작 1 프레임의 애니메이션 동세의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악성 민원을 받아들인 선택으로 인해 현재 해당 작업자는 단 하루만에 일자리를 부당하게 잃었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이버 불링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은 수많은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입니다.
115	넥슨이 한국의 닌텐도같은 게임회사가 되고 싶다더니 타겟층은 전혀 그렇지 못하네요 이럴거면 약관에 저희는 페미니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두세요
116	페미니즘 혐오와 무지한 억지논란에 넥슨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117	게임의 재미가 인권 탄압, 사상 검증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썩은물의 큰 착각이다
118	이 이상의 마녀사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9	게임업계는 남성 유저들의 혐오적인 집단적 착각에 더이상 힘을 실어주지 마라
120	개인 sns 사용 및 내용을 근거로 작업 결과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인 해석에 의해 작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멈춰주세요. 다른 기업들이 esg 경험을 하고 기업 윤리를 지키고자 앞장설때 게임업계는 일부 악성 소비자들의 말만 듣고 기업 윤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21	비상식적인 행태에 문제의식조차 없는 당신들이 과연 사회에 존재해도 되는가
122	여성혐오,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123	외부인의 억지에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은 필요 없습니다.
124	규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125	게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여성 노동자를 악성 유저의 먹이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126	지금이 2023 년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욕심일까요?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주시지 않는다면 다시는 넥슨 및 한국 게임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시고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27	넥슨사의 행보를 보며 많은 실망과 상실감이 드네요 국내의 큰 게임 업체로서 앞으로도 블랙컨슈머의 횡포에 어떤 태도로 일관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128	근거도 없는 주장에 선동되어 한국 사회 문화 전반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철폐 바랍니다
129	게임업계는 사업체로서 질 수 있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이를 업계인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130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인터넷 안티페미 집단과 그에 동조하는 게임사가 아무리 짖어봤자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이라는 역사의 고고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
131	사상검증 및 혐오 확산하는 넥슨과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132	혐오 발언을 하는 단체를 옹호하면서 혐오 근절을 한다는 입장이 어이가 없습니다. 게임업계 발전을 위해 본인들의 행적을 제대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3	억지논란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134	사상검증을 멈춰라
135	억지 논리로 노동자의 밥줄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맥도날드도 비슷한 논란 있었는데 반응 안했더니 조용해졌습니다...
136	귀사가 모든 종류의 혐오에 반대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지극히 혐오사상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인터넷상 집단 괴롭힘을 차단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37	게임업계에서의 사이버불링과 사상검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138	피해망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139	우리도 게임 유저다 몇년, 어쩌면 시작되었을때도 함께했을 유저들이다
140	성우님 사건 이후로 몇면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업계는 반성은 커녕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가네요. 제발 좀 멀쩡하게 살아주세요…
141	넥슨과 한국 게임업계는 여성혐오적 마녀사냥을 그만 두라
142	난 너희를 오래 사랑하고 싶어 협조 좀 해
143	이제와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느껴지지않는 편입니다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한국 게임업계가 잘되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더이상 사상검증같은 말도 안되는 행태에 영향이 없기만을 기원합니다
144	게임업계의 한 소비자로서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과 혐오몰이가 끝나길 바랍니다.
145	넥슨은 여성혐오에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146	실망했지만 또 실망했습니다.
147	억지부리는 것, 억지를 받아주는 것 모두 그만하세요.

148	게임업계 특수성이라고 얼버무리며 노동자를 싸이버불링, 사상검증, 갑질이 만연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수성이 아닌 엄연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노동자 탄압 입니다.
149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일부 블랙컨슈머의 얼토당토않는 요구에 수긍하며 여성 소비자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업의 만행에 대하여 한 명의 게이머이자 여성으로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기업이라면 음모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하며, 적어도 최소한의 경영윤리를 지켜야하는 것이 21 세기 현대사회에서의 사회적 규칙입니다.
150	분탕은 먹금하라고
151	게임 산업이 어렵다면 누구 돈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 돈은 돈이 아닙니까?
152	넥슨은 진상고객의 억지 요구를 단순히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및 프로 일러레의 생계를 건 협박으로 똑같이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넥슨이 게임산업 전체를 망치고 있다. 이를 규탄한다.
153	여성유저로서 게임을 즐긴다는 건 항상 불합리한 대우와 차별에 노출된다는 의미와 다름 없다. 게임에 대한 애정으로 눈가리고 아웅해준 결과가 안티페미니즘과 갑질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154	잠시의 수익성을 위해 업계의 신뢰도를 깎지 마세요. 기업으로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제대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55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넥슨과 게임업계의 행보에 화가 납니다. 반복되는 사상검증으로 갑질과 압박을 자행하는 넥슨뿐 아니라 꼬리자르기식으로 부당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2023 년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하며 악성 민원자에게 굽히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는 쪽을 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56	게임업계 사상검증 규탄한다
157	제발 얼토당토 않은 의견 들어주지 말고 상식적으로 행동해주십시다
158	억지스러운 요구에 심각성을 부여하여 실제 게임 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본질을 흐리고 산제물을 바치듯 사람을 내치는, 노동자와 유저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탄압을 그만두십시오.
159	페미니즘을 반대한다고 하지말고 간단하게 "난 성차별주의자다." 라고 하세요. 글로벌 서비스 게임은 영어로도 안티페미니즘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박아주셔야 성차별주의자들이 안심하고 게임하지 않겠습니까?
160	여성에 대한 비도덕적이며 비상식적인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
161	혐오범죄에 먹이를 주지 마시오.
162	디씨,루리웹,펨코좀 끊고 현실사람과 만나서 대화좀해봐
163	논리 없는 인셀들의 스포츠성 혐오몰이에 편승하지 말고 상식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164	이런 혐오발언 좀 그만 들어주세요. 개소리도 들어주니까 사람말 같잖아요.

165	게임관련 문의는 매크로 답변, 그런데 고작 손가락 창조논란으로 일부 커뮤니티가 물타기식으로 항의하기 시작하면 몇시간만에 사과문과 디렉터의 라이브 방송.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세상에서 고작 손가락 모양으로 사람 밥줄 끊어먹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겁니다.
166	애니메이션의 동화 동작 도중에 인셀들이 주장하는 손동작은 단 1 초도 보이지 않고 순간 스쳐지나가는 동화 동작입니다. 정말로 애니메이션 속 손 동작이 문제가 되어 사람이 잘리는게 맞나요? 직원 개인의 sns 에서 성평등 발언을 하는 것이 인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동작을 주장으로 여성을 괴롭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167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걸 멈춰라!
168	블랙컨슈머들의 억지논란으로 노동자에게 갑질을해도되는겁니까?
169	메이플스토리 인벤은 모든 유저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일에 대하여 혐오와 차별적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하신다고 하셨던 만큼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 인벤 유저들이 행하고 있는 혐오도 차별없이 걸러주시고 막아주십시오.
170	혹시 이런 억지 땡깡을 발생하는 내내 사과할 건지? 꼬리만 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처 논란에 늘 선두로 나오고 싶은지?
171	어릴 적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한 추억이 많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여러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고 발달시키기에 아주 좋은 사회적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그 점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를 게임 향유자의 주 컨텐츠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임을 즐겨하는 향유자들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즐거움은, 타인에 대한 혐오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172	과거 사상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고치려는 태도나 노력 없이 과오를 반복하는 모습은 실망이라는 감정 소모조차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게임업계가 콘텐츠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기분'만 부르짖는 악성 민원자들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지 않는 건강한 산업체가 되길 바랍니다.
173	시대에 역행하지 마라. 넥슨.
174	지금은 한국 게임업계탑이지만 이 사안을 마냥 그렇게만 넘겨짚을 시 후발주자에게 넘기시게 될 것 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175	정확한 근거없는 주장에 기업들이 휘둘려 상관없는 타인이 피해받는 일이 없음 함.
176	페미니즘은 인간이라면 지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여성을 괴롭히는 인셀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177	게임을 즐기는 한 여성유저로서 성평등한 게임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 집단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걸린 것과, 그 주장의 편협함을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게이머로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사안입니다. 이런 주장들로 인하여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직원,창작자들이 사상검증을 당하고 설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178	페미니스트에 대한 사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 부탁드립니다.

179	글로벌 시류에 뒤쳐지는 운영을 멈추십시오. 전 세계 게임업계가 이 사안을 비웃고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넥슨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썩을 셈입니까?
180	개인의 sns 와 종교, 성별은 사측에서 검증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동법을 준수하여 사측은 사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십시오. 그대들의 선례가 후대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십시오. 수 많은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키워나갈 꿈을 막지 마세요.
181	혐오몰이에 왜 동참하는 지 이유를 알고 싶음
182	아직 업계인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게임제작과 서비스 등에 배우고 나중에 게임 업계에 취직하게 될 여성입니다. 저를 포함한 함께 배우는 학우들과 같은 업계 지인들의 간절한 꿈을 가로막는 것이 제 실력부족도, 금전도 아닌 일부 유저들의 혐오몰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183	한국 게임을 질병이 아닌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할 것이다. 넥슨과 게임 업계는 인셀적 사고에서 벗어나 부당한 노동자 탄압을 멈춰라.
184	집게 손 시비는 걸면 걸리는 코걸이 같은 거예요. 그런 수작에 부화뇌동하지 맙시다.
185	일부 유저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아무 생각없이 들어주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186	집게 손이 남성 혐오의 제스처라고 치더라도 손이 의도적으로 그 자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넥슨이 해당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저 악성 민원 달래주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어째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되어야 할 사상인가? 그것과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제스처(심지어 그저 통상적으로 적음에 의미로 사용되는 바디랭귀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게임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동시에 올리던 해외(영어) 공지를 올리지 않는 이유 역시 그들이 떳떳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번 기자회견은 해외 게임 유저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대하고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7	일부 트롤들에 굴복한 게임업계 규탄합니다
188	게임업계 내에 여성혐오몰이와 사상검증으로 인한 해고를 규탄한다!
189	노동자에 대한 생계박탈 압박을 '놀이'로 여기는 유저들, 그에 '사과쇼'로 응답하는 넥슨은 부끄러운 줄 알라
190	확증편향을 근거로 삼은 혐오와 괴롭힘에 동의하지 마라.
191	게임업계는 과대표된 톡식한 인셀 무리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노동자의 해고 즉,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의 의견은 물이 해악이니 공기중에서 수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르지 않다. 시발점도 틀렸으며 전개도 결론도 맞는 것이 하나 없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노동자를 자르는 것으로 인셀들의 의견에 동의를 보내고 그들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엔 성우,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애니메이터다. 다음은 3D 제작자나 시나리오 라이터까지 자를 것인가? 우리는 그만 이 악순환을 끊고 인셀과 적정 거리를 지켜야 한다.

192	도대체 왜 "진상 고객"의 "악성민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겁니까? 개인적 공간에서 발설한 개개인이 가진 생각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여 공격하는 세력들의 말을 들어주자고 잘려도 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193	기울어진 쪽의 편을 들며 혐오금지를 외치는 넥슨 및 김창섭 디렉터의 인성이 통탄스럽습니다.
194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말이 안된다 직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 인셀종자들에 대해 법적조치치를 취해라
195	여성 게이머가 여기에 있습니다.
196	여성 종사자를 괴롭히기 위한 일부 게시판 유저의 악성 민원에 해당 여성 종사자를 희생양으로 내어놓고, 실질적인 게임의 밸런스 문제와 그로 인한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의 도돌이표를 그만두길 바란다. 그렇게 여성 종사자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지켜보는 여성 유저들의 사회적 상식선을 붕괴시켜 조롱하면서, 마치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척하는 가증스러운 발언도 그만두길 바란다.
197	한심하다
198	게임 운영의 안이함과 방만함에 대한 항의를 사상검증으로 돌파할 시도를 멈춰라
199	다른 민원은 듣는둥 마는둥 하시더니, 말도 안되는 혐오성 민원엔 두팔 걷어붙이고 열렬히 환영하는 듯한 모양새가 아주 가관입니다. 배제하고 차별하는 세계를 닮은 게임은 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200	말도 안 되는 사상검증으로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201	억지스러운 논리를 들어주느라 노동법을 위반하지마세요
202	게임을 즐기는 여성유저들을 언제까지 무시하고 없는 척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인셀들과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203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억지 논란 멈춰주세요
204	넥슨 왈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이어진 디씨를 비롯한 각종 커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혐오성 발언 등등에 대해서는 왜 정확한 발언을 회피하는지. 정말로 혐오에 반대한다면 해당 커뮤를 정확히 지정해서 마찬가지로 반대한다고 한마디 할 수 있냐고 물었으면 합니다.
205	블랙 컨슈머들의 억지 요구에 대한 굴복을 멈추고, 페미니즘을 이용해 유저들의 불만을 싼 값에 치우려는 방만한 대처도 당장 중단하라!
206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을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207	억지 사상검증 out
208	페미니즘에 무지한 자들의 어이없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소속 노동자를 보호하라
209	사상검증으로 인한 현대판 마녀사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페미니즘이라는 성평등 의식을 악마화하는 짓도 그만두어야 한다.
210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11	게임 내 불만사항은 겨우겨우 간담회까지 열어서 얘기 나누면서 겨우 손가락 모양 하나만으로 바로 조치해주는게 정말 같잖네요. 그동안 넥슨게임 하면서 쓴 돈이 아까울지경입니다.

212	게임업계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과 혐오로 얼룩진 주장들에 순응하여 또 다른 혐오를 낳는 행위를 멈추고, 직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라
213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네요.......... 여성 유저들도 얼마나 많은데 저런 정신나간 남자들 말만 들어주는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게임 업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덜떨어진 '일부'남자들 말만 듣는다는 것은 이 인간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치부해야죠 뭐. 제정신인 여자들은 이제 넥슨게임 안하겠죠... 그냥 스팀으로 빠져야지 뭐
214	귀사가 문제시하고 사과한 그 동작이 과연 실제적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던 표상인지는 뒤로 밀어두고, 그 집게손동작이 정말 남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엄지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작이며 자연스러운 손동작 표현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던가요? 인간 신체의 자연스러움을 검열하고 표현을 제어하면서까지 억지 논란에 힘을 실어준 이유가 뭔가요?
215	페미몰이 할시간에 운영이나 열심히 해주세요
216	사상검증은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217	넥슨의 갑질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218	남자들의 억지 논란 받아주지 마십시오. 받아주니까 저러는 겁니다.
219	여성 차별과 사상검증을 멈추고 부당해고 또한 멈춰라
220	넥슨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중소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게임 외적 요소로 인한 갈등을 기업이 조장하면 안 됩니다.
221	무엇이 두려우신건가요?
222	게임 업계의 비상식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사상검증 규탄한다
223	집단 괴롭힘과 혐오몰이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224	이런 일이 계솝 반복된다면 여성은 게임업계에 일할 수도 게임을 즐길 수도 없다 남성들의 계속되는 여성유저 비하발언 및 게임업계에 이어지는 성차별적인 사태를 규탄한다 게임업계 전반의 여성유저 차별과 혐오 그리고 남성유저 중심적 운영에 환멸을 느낀다
225	넥슨을 비롯한 게임 업계는 폐쇄적 커뮤니티의 편향된 의견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직원과 하청 업체의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26	회사명 달고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쌍욕하고 다니는 남자 사원이나 관리하십시오.
227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228	문제의 원인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악성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하청업체와 직원에 대한 갑질을 자행하지 마십시오
229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남성들의 사이버불링에 동참하여 2 차 가해를 하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페미니즘을 반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음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30	여성유저 탄압하지마라 사상검증이라쓰고 마녀사냥하지마라
231	제발 억지 의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232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로 여성 노동자 및 여성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그만둬라.
233	게임 업계의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시대와 발맞춰 가라.
234	게임업계는 일부 악성사용자의 말만을 믿고 잘못된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라.
235	게이머 아래 성별 없다
236	꼭 밥줄 똑같이 끊겨서 벌받았음 좋겠네요
237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가 가족게임이 되시길 원하였지만 그 속에 여성은 없는걸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남성분들과 행복하시길
238	게임 업계 내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239	일부 여성혐오 커뮤니티에 편승해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넥슨의 행보를 규탄한다
240	이상한 음모론에만 귀기울이는 한국사회의 단편
241	게임업계에 만연한 성차별 행태와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242	그 주장이 본인들 그자체라 그런건지… 집게손가락이 뭐라고 참 황당하네요. 펜은 어떻게 쥐나요?
243	악성 민원과 유독한 유저들의 억지 요구에 순응하며 게임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망치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며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이후 게임업계에도 최악의 선례를 남겨 게임을 문화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회사는 규탄해야 마땅하다. 넥슨의 대처에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져 한국 게임업계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244	모든 혐오를 반대하고 했으나 실상은 혐오를 하며 나몰라라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춰주세요. 그들의 행동은 억지고 잘못된 것이다 말해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혐오고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245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라.
246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에 동의해주는 게임 회사는 그 수준이 보입니다. 넥슨이 그 무리들과 같이 저급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으며 게임을 플레이하고 당사가 파는 캐시아이템을 팔아준 유저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합니다. 넥슨은 하루라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공지와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247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248	악의로 가득찬 억지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249	이번 사건은 악성이용자들의 집단광기와 다름없는 행패이며 이들의 생떼를 들어주는 것은 21 세기라고는 믿기지 않을정도로 비상식적인 미친짓입니다. 억지논란으로 여성창작자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250	2015 년 성우 교체 사건부터 변한 것이 없네요. 그 이후로 쭉 불매중입니다. 변하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251	페미니스트는 디시 및 일베와 같은 혐오주의자가 아닙니다.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분들을 단순 고인모독과 성별혐오를 하는 자들과 똑같이 검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엄연한 차별입니다.

252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2023 년에 일어날 일인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페미니즘이 반사회적 혐오 사상이라고 당당히 주장하신다면, 게임 메인 페이지에 당신 회사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문짝만하게 걸고, 홍보문구에도 필히 포함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반사회적 혐오 사상이라 주장하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알아서 피하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못 하시겠나요?
253	2016 년 클로저스 때에서 2023 년까지, 7 년이 흘렀습니다. 그 7 년 동안 게임업계에서 여성 노동자 혹은 여성 유저 배제는 끝없이 발생해왔습니다. 당장 금년 7 월에 발생한 모 인디게임 회사의 계약종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7 년 동안 조금의 반성도 없었는지 넥슨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애정을 쏟아왔으나 이러한 넥슨의 행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54	사상을 불문하고 일부 커뮤니티 유저의 의도적인 악성민원에 굴복해 직원의 생계를 지워버리는 게임회사의 행보에 대해 미래가 걱정됩니다. 넥슨을 포함한 모든 게임업계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해야합니다.
255	끝이 없는 악성 유저 민원 받아주기 게임산업을 당신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256	혐오를 빌미로 주장하는 '집게 손' 논란을 국내 게임 업계의 선도주자, 넥슨이 받아들이면 이를 근거로 추후 다양한 억지 논란이 국내에 꾸준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그들의 주장에 수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확실하게 혐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억지 논란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넥슨 회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7	게임 커뮤니티의 악성 유저들이 모든 유저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넥슨의 선택적인 '소통'은 소통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여지껏 용인된 심각한 차별적 언행과 괴롭힘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258	지금 게임업계가 하는 행동은 여성유저들의 무시하는 행동이고 더불어 게임산업의 미래까지 스스로 망치는 꼴이니 잘 생각하여 행동하길 바랍니다
259	제발 아이의 떼쓰기와 같은 억지 뿐인 남성들의 페미니즘 혐오에 동조하지 말아주시고, 노동법에 위반하는 사상검증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260	억지논란을 통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성평등은 지탄받아야 할 '사상'이 아니며 억지 논란을 만들어 실제 피해자와 피해사례를 만드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261	당당하면 외국어로도 공지를 올리라고 전해주세요 외국인들에게 세세하게 뭐가 어째서 어떻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말 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 생각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62	21 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현대인 다운 행동을 합시다. 하는 행동만 보면 무슨 19 세기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색이 없네요.

263	겨우 집게 손가락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트를 만들기 위해 애니메이션 과정에서 생긴 집게 손가락 모양인지도 불분명한 장면으로 공식이 사과까지 해야하는 논란이 일어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게 손가락 노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신다면 집게 손가락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공식 입장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 설명문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문을 낼 수 없다면 이번 논란에 사과문을 낸 것을 취소하고 모든 게임 유저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올려주십시오. 저는 즐겁게 게임을 하고 싶은 유저입니다.
264	페미 자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제발 그만해주세요.
265	억지논란에 발맞춰서 혐오사상 전파를 멈추고 올바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길 바랍니다
266	애먼 애니메이터와 일러레 그만 잡고 올바른 스탠스를 보여라!
267	본인들의 게임 문제를 사람, 업체, 성별 괴롭히기로 얼버무리지 말았으면
268	게임 업계 내 무분별한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269	억지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주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해당 진상 행위에 반응하여 업체가 유저가 가진 게임 내의 운영 불만을 해당 페미니즘 이슈로 눈 가리고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그 커뮤니티 "일부 유저"의 생각에 업체도 동조하는 건가요?
270	가슴에 손을 집고 이게 정상인지 말해보세오.
271	넥슨은 한국 게임업계의 주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자각을 가지고 건전한 게임업계 문화와 차별없는 태도가 무엇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을 받아들이며 혐오를 퍼트리는 넥슨은 반성하라
273	지들만 게임하나
274	억지논란에 발맞춰주다가 꼬리자르기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길로 보이시겠죠. 직장에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듯이 사상검증을 위해 sns 를 쥐잡듯이 들춰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75	사상검증을 핑계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창작 행위를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276	저 또한 판교에서 근무하고있는 여성 직장인이고 애니메이터로 종사하고있는데 이런 이슈가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개인의 커리어를 지울 수 있는건가요? 일부 유저들에게는 기분상하는일이었지만 종사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277	페미니즘 공부좀 하세요
278	한국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특정 커뮤니티의 악성이용자들의 되도 않는 음모론에 휘말려 실재하는 여성의 일자리를 자르고, 나아가 해당 게임을 아끼고 응원했던 여성 게이머들을 기만하는 듯한 행위를 이어나가는 현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5 년 전, 클로저스 사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규모 게임사의 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79	한심하다.

280	게임은 계속 남자들의 전유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게임은 남여모두에게 차별없이 돌아가야 할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게임업계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유저의 차별점을 두고, 남성유저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란을 받아주며 여성유저의 취미를 빼앗고 게임업계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 심볼인 '집게 손가락' 모양은 게임 영상 퀄리티나 인게임의 시스템, 그리고 그 게임의 운영을 위해 일하는 사원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집게만 보면 마치 칼 든 강도를 보는 것처럼 발작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사람을 내쫓는 논리적인 이유를 대기는 커녕,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이용 하려는 남성 유저들의 생 떼를 왜 받아주고 계십니까? 그들의 억지불평을 달래주려 새벽에 직원들을 출근시켜 모든 외주 영상을 1 프레임씩 돌려가며 어느 영상 몇 분 몇 초에 페미니즘 심볼이 나왔다고 표까지 제시하는 ;모'게임은 소름끼치기까지합니다. 노동법과 헌법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기업이 게임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올 줄 몰랐기에 속이 메슥거립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태로 악의적인 모욕과 혐오를 담은 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리고, 피해본 당사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직시하세요. 또한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던 메이플 스토리 김창섭 총괄 디렉터는 여지껏 일부 남성 유저들이 쓰는 퐁퐁섭, (캐릭터명)~~년 등 게임내에서 쓰이는 혐오표현에는 왜 그렇게 관대했는지, 또한 본인이 한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편향적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281	이 사안은 단순한 젠더갈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강자가 돈과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고 압박해 생계를 위협한 악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슨과 이에 동조하는 모든 게임업체들은 한국의 게임업계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기업들이 돈 몇 푼이 아까워 업계를 망치고 존속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십시오.
282	한 명의 게이머로서,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패키지, 콘솔 게임을 더 즐겨왔기에 P 의 거짓, 산나비 등의 한국산 수작 게임들의 탄생을 보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저 솎아내기와, 노동자와 노동법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 운영 방침과 게임 버그, 과금 시스템 등의 문제는 나몰라라하며 가상의 '페미'를 잘라내는 식으로 불만을 덮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세태를 보면 그저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한국 게임은 오랜 세월 '문화'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야 겨우 '대중문화'의 영역에 들어선 한국 게임이었으나, 최근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한국 게임은 '문화'의 자리를 얻었을 때 가장 문화적이지 못하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회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게임업계가 이토록 반사회적인 하우스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니 우습습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임이 스스로의 격을 낮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283	게임업계 일부 유저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상검증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284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 괴롭힘에 동조하기로 결정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당장에 특정 유저들의 지지는 얻을지언정 결코 옳은 판단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방면에서도, 컨텐츠 문화 전체적으로도 좋을 리가 없지요... 일상적으로도 흔히 나오고 자주 그려지는 그 손모양에 '문제가 있다'고 대기업들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요. 또한 아트직군이 게임의 얼굴을 만들기 때문에 더 표적이 되기 쉬움에도 큰 회사이면서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은 오랫동안 아트 및 애니메이션 작업자들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종은 아니나 그림 작업을 하는 이로서 갑갑한 마음입니다.
285	상식적인 행동이 어려울정도로 유저가 무서우신줄 이때껏 몰랐습니다. 때를 기다리기라도 하신것처럼 누군가를 짓밟는데 열심이신점에 또한번 놀랐어요. 잠시라도 생각이라는걸 해보았더라면 좋았을텐데요.
286	억지논란과 사상검증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갑질회사에 대해 엄중히 규탄합니다
287	극성 악성 커뮤니티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커뮤니티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이라면 현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하여 일방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 한국의 게임업계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88	제발 이상한 의미 부여로 남 직장 자르는 짓 그만해요 21 세기인데 특히 그 엄지+검지 자세는 뭘 집었다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짝 밖에 없습니다
289	억지주장에 굴복하지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290	여성 직원 보호를 원한다
291	정말 해당 손 동작에 특정한 '사상'이 들어가 있으며 이것이 일베의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과 같은 수준의, 남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진심으로요?? 메갈리아등을 떠나 단지 그 영상의 1 초에 그 뜻이 내포되어있다 생각하십니까??
292	페미니스트라는 점이 어째서 혐오 사상인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293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294	메갈리아의 손동작이라고 주장하는 집게 손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평범한 사람들도 취할 수 있는 손 모양입니다. 또한 메갈리아는 사라진지 오래이고, 지금까지도 뚜렷한 행적이 없는데 어째서 집게 손 모양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만든 애니메이션을 비공개 처리하고 외주 회사에까지 피해를 입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페미니즘을 하는 여성들로 인해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오롯이 페미니즘을 악행이라고 생각하고 프레임에 갇힌 일부 사람들의 억지로 인해 생겨난 문제입니다. 미안하지만 인터넷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집게손을 취하는 사람을 보고 남성 혐오를 연상하지 않습니다. 남성 혐오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집게손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드러내고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는 사람들 입니다.
295	이 굴레를 끊어내야합니다!

296	인셀의 기분권 위해 인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지주장으로 부당해고가 이뤄지지 않아야 합니다.
297	사상검증이라는 허울좋고 그럴듯한 말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허상의 집단을 향해 공중에 발길질을 하는 무리로부터 제작자를 지키지 못해 한낱 제작자 개인에게 무책임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책임과 고용에 대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8	넥슨 불매합니다.
299	억지논란에 휩싸여 직원 및 외주업체 꼬리자르기 시도말라! 노동자 인권 보호하라!
300	기가 막힙니다 이건 유저뿐만이 아니라 운영층도 여성혐오에 찌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찌들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법과 사회가 막아야합니다.
301	불합리한 페미니즘 혐오를 멈추세요. 떼쓰는 아이를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할 망정 언제까지 어르고 달랠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비상식적이고 집단적 착각에 빠져 억지를 부리는 유저들에게요? 올바른 생각과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302	기업이 고작 어이없는 자존심 싸움을 위해 억지를 부리며 돈과 인력까지 낭비하여 개인을 괴롭히고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303	취객을 오냐오냐해주는 가게는 취객 소굴이 된다고들 합니다. 게임업계 악성민원과 검열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낼 때입니다.
304	인간이 제일 쉽게할 수 있는 손동작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한 노동자를 억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선 직원 보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05	2023 년에 개인 SNS 계정까지 검열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게 단지 몇초가량 스쳐지나간 손 모양 제스처 때문에 일어난 일이맞는지 실감이 되질 않아요. 게임을 스트레스를 푸는 가벼운 오락거리, 취미로 즐기고 싶은데 이런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니 오히려 피곤합니다.
306	사상검증 OUT, 게임 업계는 노동권을 보장하라
307	게임업계 내 여성차별 금지, 노동자 보호
308	내가 게임을 좋아했던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지 마라 직원도 사람이니까 니들 받고싶은 대접만큼 대우해줘라
309	누구든지 자폭하라!
310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긴급라이브 방송에서 남녀노소 가족들 모두가 즐기는 메이플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하청업체에 교묘한 떠넘기기 및 여성 작업자 꼬리자르기와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유저 의견 묵살로 자신이 말한 모두의 메이플스토리라는 말을 없던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일부의 극히 적은 악질민원인에 동조해 업계의 폐단을 생성말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게임업계 환경 조성에 일조해주시길 바랍니다.
311	좋아서 취미로 즐기는 게임을 하면서도 언제 논란이 닥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운영을 해주세요
312	혐오를 배제한다면서 여성혐오와 폭력의 온상인 사상검증 전수조사는 진행한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시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13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혐오'가 아니며, 여성에게 피해의식을 가진 일부 남성들이 창조해낸 논란이다. 그러나 넥슨을 비롯한 수많은 게임업계의 업체들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고, 여성의 해명 혹은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을 외쳐봤자 불평등일 뿐이요, 나아가 운영미숙 등 운영진의 문제도 '여성을 사이버불링할 수 있는 명목'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것을 '여성의 탓'으로 취급하여 함구시킨다. 유저, 직원, 나아가 여성 전체에 대한 멸시를 묵인하고 수용해주는 넥슨, 나아가 이러한 풍조를 묵인·재생산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314	게임 문화의 퇴행을 규탄합니다
315	예전 인터넷에서 화제가되었던 일루미나티처럼, 특정 유저들이 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지정하고 게임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자주 보이는데요. 게임사들은 그들의 주장이 악성민원인지, 아니면 받아들여마땅한 발언인지 제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게임계에서 메이저에 속하는 기업인 넥슨이, 몇몇의 이런 이해할수없는 주장에 쉽게 휩쓸려서 타 회사를 압박하며 해명을 요구했다니... 지금 상황이 정말 현실인가 싶네요.
316	정신차리세요...
317	저는 클로저스 오픈베타 유저로 2016 년 여름, 김자연 성우 해고 사건이 있을 때까지 클로저스를 열심히 플레이하던 여성 하드유저입니다. 당시, 나딕게임즈 및 넥슨의 낮은 성평등 의식과 도태된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여 문의도 여러차례 넣었으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넥슨 소속 게임 클로저스에서 발발된 사건은 거의 1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게임업계에 안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사례요. 이에 대해 사회구성원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도태된 생각으로 인해 세상은 더욱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사례는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무지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게임은 재미있기 위해 플레이하는 게 아니던가요? 이제는 페미니즘 지지조차 아닙니다. 집게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사람 하나를 매도하고, 몰아내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을 과연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여성 유저들이 구매력이 없으니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건 궤변입니다. 이쯤되면 넥슨측에서는 그저 여성 유저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싶을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매번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여성 유저가 어떻게 마음 편히 당신들에게 지갑을 열 수 있겠습니까?
318	악질유저의 주장으로 아무죄없는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지말아라
319	게임업계에 무수히 많은 여성작가와 여성 유저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320	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도 시대착오적인 여성혐오적 컨텐츠를 생산하며 여성을 배제하는 시장은 기형적일 뿐더러 남성의 목소리만을 목소리로 인지하는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성차별적이다
321	사상검증 으로 인한 여성의 일자리가 단절되지안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
322	언제까지고 남초커뮤의 억지주장에 맞춰 직원들을 희생시킬건가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내의 비상식적 문화 자정이 필요합니다

323	게임사들은 비겁하고 비굴한 운영을 그만두십시오. 아무리 당신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실은 모두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사규 없고, 인권 위에 기득권 심기 살피기 없습니다!
324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집단적 착각에 의한 생계권 위협을 그만 받고 싶습니다.
325	게임업계전반은 사상검증으로 대변되는 악성민원을 이용해 조직내 구성원,협력인원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시오
326	애초에 집게 손가락은 페미니즘의 상징이 아닙니다
327	직접적으로 그 업계 안에서 일하고있는 종사자로서...진짜 그냥..참담하기만하고... 사실 남길 말도 없고 탈력감만 듭니다..
328	넥슨이라는 거대 게임사가 이런 식의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329	게임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문화로 만들고 싶다면서 여성을 쫓아내지마세요
330	검증 되지 않은 네티즌의 여론 몰이로, 하청 업체라 하지만 업계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섣부른 사과문을 게재한 것은 여성 성차별 뿐만 아닌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331	게임커뮤니티의 악성민원 광풍이 어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332	자사가 추구하는 유저들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세상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하겠다 하였는데 그 유저에 속하는 이들은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유저들뿐인지 의문이 듭니다.
333	이전에도 사상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한 규탄이 필요합니다.
334	슬쩍 봐도 억지임이 명백한 일부 악성유저들의 되지도 않은 투정에 반응할 시간에 게임 기술력 연구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여성은 누구에게나 손쉽고 편하게 먹이감으로 던져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혐오를 넘어 오락화 되어버린 혐오의 정신을 버리지 못하는 한 한국 게임의 더 나은 미래는 없을 것이다
335	한때 게임업계에 일하던 여성 개발자이자 노동자로써 불안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업계를 떠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직업을 포기했지만 앞으로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들이 불안감과 해고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36	제발 인셀에 관심을 주지말고 편들어주지 말아주세요

337	이 일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직장에서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밖에 다른 성별이든; 페미니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반대하든; 혹은 성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냈거나, 침묵했거나, 관심없었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파시즘적 통제권력에 심취한 그들은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당신을 매장시키거나, 당신의 가족이나 동료, 동반자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당신이 성평등을 말하거나 그들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페미'로, 만일 당신이 남성이었다면 '남페미'로, 심지어 당신이 남성인데다가 안티페미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첩자'로 몰아 파멸시키려 들 것입니다. 게임업계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GS25 의 손가락 사건의 여파가 게임업계까지 번진 것을 보면 이는 명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직업군도, 어느 직장도,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평등을 말하고 추구하는 사회적 동력이 위축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때입니다. 여기서 더 밀린다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8	과대표된 악성 민원 유저들의 "창조논란"을 실제 논란거리로 만든 건 결국 회사입니다. 집게손은 어떠한 사상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없으며, 페미니즘은 차별을 반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움직임일 뿐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티셔츠게이트 이후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발전이 없는 게임업계에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악질 유저들에게 확실히 대응하고 작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39	정말 넥슨에서부터 시작된 게임업계의 사상검증때문에 한국게임이라면 마음편히 할수가없어요 어떻게 매번 사상검증 운영이슈때문에 유저들의 개인 sns 까지 검열하는게 어디 상업계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고객 개인정보 확인하나요? 아니면 구글에서 직원의 사상검증을 하나요?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사상검증 다른업계에 퍼져나가기전에 끊어버려야합니다
340	제 손가락을 모두 잘라내고 싶습니다.
341	평범하게 게임을 잘 해오던 넥슨 유저입니다. 갑자기 얼토당토 않은 문제(이걸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가 대두되어 찾아보니,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손동작에 의해 논란(이게 논란이 되는 것도 이상합니다...)이 불거졌다고 하더랍니다. 평소에도 잘 쓰던 손 동작과 모양을 갑작스럽게 문제 삼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게 도저히 정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집게 손이 무엇이 문제이며, 그렇다면 해당 손동작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평소에 작은 물건을 집거나 감자튀김을 먹을 때 그런 손 모양을 의식해가며 결단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즐겨오던 게임이 억지 논란으로 인해 시끄러워진게 허탈하고 속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넥슨이든 게임 업계 종사하는 '정상인,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집게 손'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황당하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해당 게임 유저인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쯤이면 일베, 디씨같은 사이트만 하며 눈에 보이는 게 '혐오' 밖에 없는 일부 유저들이 말하는대로 언제까지 끌려다닐 건지 궁금합니다.
342	정신 차려라
343	넥슨은 여성 혐오에 앞장 선 행위에 대해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344	모든 혐오를 반대한다면 제발 SNS 뿐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또한 한 번씩 훑어보고 와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게임업계는 모든 혐오를 반대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345	0.1 초의 프레임때문에 이 사단이 난게 이해가 안가고 정말 이게 맞나 싶네요.
346	넥슨 및 한국 게임 업계는 게임문화 속 여성혐오 몰아내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혐오세력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
347	이러한 행보가 결국 게임이 문화이자 예술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348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 멈춰라 그것에 동조해서 혐오에 동조하는 업계를 규탄한다
349	억지남혐으로 사이버불링 일삼는 인셀 집단과 똑같은 행동으로 무고한 작업자 괴롭히기 관둬라
350	넥슨은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게임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의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만 확대해석하지 말고 전세계의 페미니즘 동향과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셀들의 평가를 인식하기 바랍니다.
351	제발 인셀들이 부리는 억지를 이해하지도 말고 선해하지도 마십이오
352	다른분들이 많이 말씀 남겨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정을 당장 소비하기에도 너무 벅차 줄입니다.
353	정말 다양한 넥슨 게임을 즐겨하던 한 여성입니다. 메이플스토리 환불 조작 사태 때도 메이플스토리를 비롯 다양한 게임들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해 다시는 넥슨 게임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여성들을 차별하고 없는 듯 행동하지 마십시오.
354	일부 인셀남들에 의한 억지 논란에 굴복한 넥슨이 이러고도 대기업입니까? 외신에 제보가 난다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355	넥슨은 남자들의 억지논리만 받아들여 여혐과 부당해고를 옹호하지 말고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하라
356	24 프레임 풀 뮤비중 고작 1 프레임 동화 한 장으로 사죄를 하는게 과연 정상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가 더 걱정됩니다
357	땡깡 좀 들어주지 마세요.
358	특정 사상을 동조하며 비방한다고 몰아가는 일부 특정 집단의 여론 선동을 잠재우거나 무시하지 못할 망정 용인하며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작업물을 폐기 처분 및 생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업계의 돌린다고 명시하고 시행 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해당 내용의 명확한 근거도 없고 오롯이 본인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명 뇌피셜을 증거로 사실 확인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내팽겨치는 행위가 노동법의 어긋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해당 만행을 철회하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0 의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359	게임 업계는 불필요한 선동과 날조로 날뛰는 인셀들 무시하고 직원보호에 더 힘써라
360	진짜 억지 쓰는 것을 작작 들어줬으면 이제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361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사로잡혀 성차별 및 사상검증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게임업계에서 대기업으로 손꼽히는 넥슨의 이번 행태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유감을 표합니다.

362	일부 억지논란에 동조하는 게임 문화 자정 부탁드립니다.
363	기업은 기업답게 말도 안되는 건에 대해 반응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편을 들어달라는게 아니라 멍청한 소리를 좀 걸러서 들어주세요
364	억지 요구에 손을 들어주다보면 나중에는 요구하는 이상한 사항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텐데, 정말 감당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업계의 지속을 위하여 억지 요구에 대한 거절과 사원 보호를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365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초부터 옳지 못한 일도 아니며, 공적인 일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로 일방적으로 사상검증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최악의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합니다.
366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면 눈 앞의 외침에 급급해 꼬리자르기로 작업자를 희생 시키는 것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367	게임 운영에서 유저 비위를 맞추는게 중요한 것은 백번 동의하나, 그게 멀쩡하게 일하고 있던 인력을 해고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68	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직원 보호하라.
369	헛소리에는 무시가 답. 왜 넥슨은 사서 일을 키우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손가락에게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따진다면 엄지와 검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혐오자냐
370	게임 업계의 여성 유저, 여성 직원 배척을 규탄한다
371	본인들도 얼토당토않는 억지인거 알고 있을텐데 왜 찡찡거리는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사회악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372	통칭 '집게 손가락 논란'은 오직 논란을 위한 논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 판단이 아닌, 오락성으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고 타 게이머들의 안전까지 침범하는 악질적 사이버 불링 행위입니다. 넥슨은 이 악질 집단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고개 숙임으로 인해 대한민국 노동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으로서 부당한 사과를 철회하고 해당 논란에 앞서 노동자와 업계를 보호하는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373	대기업의 위치에서 일부 혐오 조직의 테러에 동조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374	같지도 않은 의견을 무슨 큰일인것처럼 과민반응하니 자꾸 별의미 없는저런 손모양을 미치광이 처럼 찾고 항의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반응합시다
375	게임 내 대기업인 넥슨이 일부 악성 유저의 억지논란으로 직원 및 하청업체에 대한 사상검증이라는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76	지금이 2023 년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상집단이 아니라 비정상집단의 말도 안되는 생때를 들어주는 대기업이라니 앞으로 쭉 불매하겠습니다.
377	이번 사태에 관해서,정확히 입증된 자료가 아니라면 일러 검토를 멈춰주세요.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말아주세요.
378	더는 사상검증이라는 언어조차 적합하지 않은 여성 노동자 탄압 및 여성 혐오를 끝내라. 그러지 않는 한, 한국 게임 업계에 미래는 없다

379	그저 단순 손동작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여성 작업자들의 생업을 끊게 만드는 마녀사냥식 몰이가 2023 년에도 자행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80	혐오와 차별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381	게임업계는 단순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 여론몰이에 휘둘리며 일부 몰지각한 게임유저들의 억지를 들어주어 한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382	페미니즘이란 단어의 오용을 멈추고 여성혐오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383	인터넷속 여론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384	마녀사냥 그만!
385	원칙대로 블랙컨슈머 대응하십시오
386	실체없는 남성혐오를 가장하여 역으로 행해지는 페미니즘 및 여성혐오를 멈춰라
387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기 바랍니다.
388	확률 조작 등 각종 논란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일부 유저들의 말 같지도 않은 억지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성혐오를 방패로 삼아보자는 얄팍한 수작이 아닌지? 그 행동으로 인해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혀 공격 당하고 직업을 잃는 여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 여자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 인셀 행위에 동조하는 인셀 기업!
389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 남성혐오 애니메이션이라고 우기는 억지주장을 왜 들어주는가 정신차려 제발..
390	마비노기 오픈때부터 유저였지만 다시 넥슨 게임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391	집게 손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 모양이며 이를 가지고 사상 검증은 억지스러운 의견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392	노동권 침해는 생존권 침해다. 여성 노동자를 평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사상검증을 멈춰라. 유저의 억지에 더이상 놀아니지 말고 마녀사냥당하여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와 고객에게 사죄해라.
393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외국 게임사들이 여성배제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거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한국게임 다 망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394	저는 게임을 만들어 제가 느꼈던 기쁨을, 힘든시간을 함께 해준 넥슨게임처럼 그런 게임을 만들고싶던 개발자 지망생입니다. 지난 프로젝트문 사태에 이은 넥슨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에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손모양이 남성혐오를 부추긴다는 모 커뮤니티의 추측성 발언을 실제로 인정하듯 그 에니메이션을 잘라내고 심지어는 스튜디오 뿌리에도 책임을 묻게 할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임및 에니메이션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것은 그저 에니메이션의 프레임을 부드럽게 하기위한 장치로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다는 추측성발언으로 인하여 스튜디오 뿌리는 압력을 받았고 스튜디오 뿌리는 결국 그 직원을 해고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가지 양상을 보았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부리는 갑질이라는것을요. 눈에 너무 선명히 보이는 이 행동은 하청업체를향한 갑질 뿐만 아니라 여성 개발자들의 입지를 없애는 행동이였습니다. 저같은,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누군가를 위해 게임을 만들고 싶던 그 누군가들은 자신의 꿈이 무력히 꺾이는 기분이였을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SNS 를 통해 들었으며 저는 참담한 감정을 느낄 수 밖엔 없었습니다. 그 어떤 혐오적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언제든 모 커뮤니티가 주장하듯 남성혐오자로 몰려 인신공격과 사이버불링,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뼈에 새겨질정도였습니다. 참담하고 암담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꿈꿔온 꿈이 사라져 없어져만 가는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없어져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위의 두 사태로 인해 친하다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사상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게임을 그만두었는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저에게 물으며 저의 말이 하나라도 틀리면 금세 꼬투리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저 무언으로 답했고,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러는데, 회사에선 얼마나 더 할까. 그런 생각만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적는걸 친구들이 알게되면 전 모커뮤니티가 말하듯 남성혐오자가 되어 학교에서도 따돌림 혹은 사이버불링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발자를 몇년간 꿈꿔왔고 곧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게임업계가 이런 상황이라면 전 꿈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이유를 찾았던 제 꿈이 부디 밟히지 않게 해주십사 요청합니다. 두번 다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395	게임업계는 남초커뮤니티로 대표되는 여성혐오성 악성 민원에 일절 대응하지 말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나가기위해 앞장서야합니다.
396	회사로서 최소한의 중립은 지키세요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한국 게임업계를 더더욱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397	트집 잡는 행동에 힘 좀 그만 실어라~!!
398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행패에 휘둘릴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399	한국 게임 업계가 쪽팔립니다. 넥슨에 가입한 적이 있단 것조차 후회스럽다.
400	게임문화는 남녀 모두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어째서 소수의 억지주장만을 믿고 여성 유저들을 내쫓는듯한 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401	말도안되는 억지를 멈춰라 사이버불링 멈춰라

402	여성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마세요. 사상검증은 부당해고입니다.
403	망상도 그정도면 병이니 단체로 병원에나 가라. 일루미나티도 실존한다 하지 그러냐.
404	정떨어져서 PC 게임은 아예 접었긴했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보니 미리 접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네요 억지 논쟁에 대응하지말고 정신 좀 차리길
405	일부 수준 낮은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다보면 제일 먼저 여성유저들이 떠나가고 이는 정상적인 남성유저마저 발길을 돌리게 해 수준 낮은 남성들만 고객층으로 남음으로써 게임업계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리텔의 선례를 보십시오.
406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인권에서 눈을 돌리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사 중 하나라면 천박해지는 대신 더욱 품위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슨돈슨 하니까 돈이 인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7	혐오놀이를 일삼는 유저의 말만 듣지 말고 기업다운 행동을 보이길 바랍니다.
408	아무런 타당성 없는 억지 여론에 휩쓸려 하청업체나 힘없는 여성노동자 꼬리자르기 하지 말고 게임 개발 자체에나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409	어떤 발전적 결과도 낳을 수 없는 감정적인 징징거림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게임을 위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억지요구를 하고 그걸 상대가 굽신거리며 들어주는 효용감, 우월감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대로 들어주어봤자 그들은 흥미를 잃고 떠나 다른 장소에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할 뿐입니다.
410	진짜 욕밖에 안나옵니다.
411	게임업계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7 년동안 업계에 복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넥슨이 7 년 전, '김자연 성우의 목소리를 지우지 않았더라다면' 이라는 생각만 몇번 째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내 여성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검열해온 넥슨의 자성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깨어계신 분들의 힘을 합쳐 넥슨의 국정감사 및 이번 페미니즘 사상검증 관련인들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412	넥슨 사는 타 기업의 절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타 기업도 썩잘하는 편은 아닌데... 보고 있으면 본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창작을 업으로 두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적인 소양이 전무하며, 그 결과 천반한 자본 만능주의가 게임 속에서 제공하는 모든 맥락에 드러나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고 있음. 본인들의 경쟁력은 집게손 교체가 아니라 이러한 인문적인 소양의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인문적 소양이 첫번째로 향해야 할 방향은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기본적인 권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 사람이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 상대방이 억울해서도 안 됩니다. 넥슨 사는 애니메이터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그리고 애니메이터가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받을 환경을 고려하였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게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억울하게 집게 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애니메이터 또한 사전에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았다면 넥슨 사에서도 진작 존중받았을 권리입니다. 부디 타인의 권리와 나의 권리는 늘 동량이라는 걸 기억해두시고, 사내 직원들에게도 이 점을 강조하시어 자사 직원들이 외주 업체나 협력 업체의 직원들을 모욕하는 말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413	직원 및 외주처에 대한 부당 대우로 인해 노동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게임 산업이 퇴보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14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게임사가 시대에서 퇴보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415	개인의 사생활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여성노동자의 해고 및 징계를 정당화하는데 그 피해라는것 부터가 일부집단의 억지주장에 의한 것이며 그런 억지를 받아주는게 기업과 개인 모두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
416	일부 악성 유저들의 말만 믿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생계를 망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417	상식적을로 운영하라.
418	노동자의 인권 보호, 사상검증 규탄
419	사리분별 제대로
420	일부 남성 유저들이 게임의 홍보물 등에 '집게손을 보니 페미다', '페미를 걸러야 한다' 등의 악성 민원을 재기하는 것은 게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과연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한 일종의 스포츠 놀이입니다. 애시당초 '집게손'이 페미니즘의 심볼이 맞다 할지라도 개인의 신념 때문에 수백 명의 익명인으로부터 사이버 불링 당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 할 이유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인권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넥슨의 rpg 게임들을 즐겨오며 자란 세대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넥슨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추억과 함께한 게임사이니만큼 이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업계 최상위 기업인 넥슨의 결정은 그 자체로 타 게임사와 업계인에게 강요이자 압박이 됩니다. 부디 한국 게임의 대표주자라는 타이틀의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421	인셀들의 혐오 발언에 설설 기지 마십시오 정신 좀 차리세요 타인의 생계를 악의적으로 좌지우지 하려는 억지 발언에 동참하여 사회적 약자 좀 그만 괴롭히란 말입니다
422	반페미니즘 소비자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 게임업계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423	2016 년에 넥슨에서 시작된 노동자 사상검증이 다시 넥슨으로 인해 불타올랐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동안 전혀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게임계 내 사상검증 뿌리뽑길 바라요.
424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심각한 사상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상도 존중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그저 방구석에서 손가락 타자만로 억지 논란을 주장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의 일자리를 뺐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으며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작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임금의 당나귀같이 휘둘린 모습이 참 보기가 .....^^ 그렇네요 라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5	페미니즘은 특정 사상이 아닌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입니다
426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위인 손가락 모양에 누구보다도 집착하는 심각하게 멍청한 몰이방식이 옛날 빨갱이 몰이 놀이를 보는듯 합니다. 아니면 몸에 상처가 있다던가 혼자 살아서 수상하다며 화형까지 시켰다던 마녀사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사회인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 놀이인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몰아가더라도 업계측에서 상식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됐을 텐데 계약서나 노동권은 게임 업계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인가 싶습니다. 한국 게임업계가 망해가는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인재와 소비자 유출을 막기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뒷처리라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427	많은 분들이 정제된 언어로 의견을 주셨을테니 부족한 의견 더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내 여성혐오 정서가 깊어지며 몇년 전부터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에 목소리를 내주시어 감사합니다.
428	게임회사의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29	성차별과 사상검증을 중단하십시오. 과대표된 혐오자들의 도 넘은 요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430	더 이상 일부 커뮤니티의 억지 악성민원에 굴복하여 일자리를 잃는 여성이 없었으면 합니다.
431	이런식으로 운영하며 게임하실거면 아예 여성유저의 가입 및 플레이 절차를 막으시고 오직 남성으로만 구성하십시오ㅗ.
432	넥슨은 혐오를 반대한다고 하며 남초 여론에서 제일 화제가 되기 쉬운 페미니즘을 장작 삼아 더 큰 혐오와 사상검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여론의 먹이로 주며 본인들의 문제를 덮고 남성 유저들의 사이버불링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433	게임업계는 디씨인사이드 같은 특정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의 의견에 휘둘리지말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혐오 조장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을 들어주고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한국 게임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이들은 누굽니까?
434	고작 일상적으로도 쓰이는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작업물과 직원을 내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정말로 법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밖에 안보여요

435	정말 지치고 염증이 납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엔터테인계에서 저희 여성들은 멸시와 조롱 그리고 핍박의 대상으로 몰려야하는 겁니까? 저희도 한 사람의 유저이고 제작자입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업계인이고 동료입니다. 저희도 이 업계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싶습니다.
436	게임업계는 일부 악성 진상들의 억지논란을 사실인양 받아들여 마녀사냥을 하지마라
437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상검증과 탄압을 멈춰라!
438	인터넷 분탕종자의 의견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성직원을 향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멸시, 공격에 앞장서서 대응하기 바람.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439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고개를 숙이다니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440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가까운 낭설을 진실로 받아들여 일부 톡식 유저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게임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게임성을 해치게 만들뿐입니다. 현명한 대처 바랍니다.
441	일부 유저들의 말만 듣고 운영하지 마세요. 게임을 잘 즐기던 유저로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며 한 여성의 일자리와 이후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와 애니메이터들의 앞을 막는 짓을 하는게 제가 정말 좋아하던 게임의 운영진이라는게 수치스럽습니다.
442	시대착오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 한국 게임업계가 전세계 시장에서 도태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인재를 부당해고하고, 쓸데없는 장면 수정에 자원을 낭비하지 마세요. 중국처럼 강력한 게임산업 다크호스를 두고도 쓸데없는 사안에 인력을 투입하는게 한심합니다
443	유저 컴플레인 상황 모면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세요
444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
445	아시안게임에서 LOL 로 금메달, 속칭 롤드컵에서는 한국 팀인 T1 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거머쥔 이 시점에 정작 게임업계는 이런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다니 정말로 착잡합니다. 이스포츠 강국이면 뭐합니까? 한국 게임 제작 업계의 상황은 이런데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회사라는 곳이 이런 판단을 내리다니 부끄럽습니다. 블라인드에서 넥슨 사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익명으로 초면인 사람에게 쌍욕을 내뱉고 비난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넥슨 사원분들은 인터넷 에티켓도 갖추지 않나 봅니다. 넥슨은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고요. 헌법 제 32 조 4 항, 헌법 제 34 조 3 항 위에 있는 한국 게임 문화 잘 봤습니다. 이젠 헌법도 메갈이고 페미겠네요.
446	남성의 크기를 조롱한다는 손짓은 남초커뮤니티에서 만든 것인데 어째서 여성을 공격하나요? 모든 여성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차라리 여성, 페미니스트에게는 게임을 권하지 않는다는 공지라도 띄워주시죠
447	집게 모양 표시가 남혐이라고 우기는 분들때문에 디자이너 분들이 집게 모양 표시가 되지 않게 손가락을 우습게 그려야 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수용하고 디자이너를 향한 마녀사냥을 부측이는 사측 대응도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448	남직원들이 감자튀김 집어먹을 때 엄지검지 쓰면 전부 퇴사시켜라

449	억지를 들어주시 마세요.집게형태의 손형식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쓰는 손모양 이며 과자를먹을때도 그손이며. 천년전 불교 그림에서도 집게손인 그림이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페미손이다 페미겜이다 라며 멀쩡히 잘있던 게임을 하트 반쪽짜리 손가지고 페미의 손가락이라며 혐오몰이식으로 몰아가며 비슷한형태의 손조차도 다뽑아와가지고는 빼박이라며 몰아가는겁니다. 애초에 일상생활에도쓰는 손모양의 형태인데 혐오몰이 규탄해주세요 제발
450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이상 벌어지질 않길 바라며 넥슨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중에는 여성도 있으며 그 수도 적지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주길 바라는 바 입니다.
451	이런 짓 좀 하지마라.
452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쪼개면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검증하려 든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모양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애초에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여론몰이에 선동당해 자연스러운 손동작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나. 특히 영상의 경우,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외 일러스트 등에서도 당연히 익숙하게 쓰는 손동작을 검열한다면 누가 편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사상 때문에 생업이 위협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여론에 휘말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45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54	오랫동안 게임을 사랑해온 게임 유저로서, 몇년째 반복되는 게임업계의 여성혐오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인셀 여성혐오자들의 말도 안되는 트집을 빌미로 애꿎은 여성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SNS 를 검열하는 짓을 저지르면서 게임 속 여성혐오적 표현들과 여성 유저 대상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남성 유저들에게는 동조하는 한국 게임업계는 최소한의 도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법과 윤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길 바란다.
455	말도 안되는 악성민원으로 직원들의 사생활이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456	일부 유저의 몰이 여론에 휩쓸리지말고 줏대있는 운영을 바랍니다.
457	그냥 이 기회에 망해라 사상검증의 시초야. 갈때 프문이랑 데브시스터즈랑 기타등등 데리고 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
458	세상을 넓게 봅시다
459	게임업계는 여성인권 및 노동인권 증진은커녕 후퇴에 일조하고 있음을 깨닫고 통렬한 반성과 법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혐오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를 지키십시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십시오.

460	왜 항상 여자들만 검열 당하고 검열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7 년 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티셔츠 한 장 때문애 여성 직원을 해고하던 회사는 7 년 후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는 한 프레임 때문에 외주업체 직원을 비난하고 있네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461	쌩투정 그만 받아줘라
462	모든 혐오표현을 지양하겠습니다는 개뿔 지금 하는 억지 사상검증이야말로 여성혐오다
463	악성 누리꾼들의 억지 논란에 고개 숙이는 기업들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들의 대응 때문에 성실하게 근로하던 노동자의 밥줄만 끊기는 현 상황은 몹시 부당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464	메이플스토리 5 년차 유저입니다. 최근 사업방향성이 ip 위주의 대중겨냥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에 굴복하는걸 보며 사실은 넥슨 개발자 및 담당부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많은 대중에게 어필하는 사업을 꾸리면서 페미니즘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무서운 단어이고 여성혐오는 당연한 것인가요? 스스로와 게임에 큰 의구심이 들어 그 날 이후로 게임에 아예 접속하지 않습니다. 고작 손가락 모양이 진심으로 문제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거라 믿습니다. 그냥 원래도 성평등을 실천하고싶지 않고 여성혐오를 뿌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적절한 핑계가 생긴거겠지요. 이런식으로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뜻이 있는 여성유저를 전부 몰아내고 나면 남성유저는 남아있을것같습니까? 후속 대처를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넥슨 게임을 즐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20 년을 지켜온 IP 와 게임의 가치를 자살시킨거란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465	사상검증을 할거면 전 직원 소아성애/여혐/전과자 여부를 따지던가 왜 여성작업자에 한해서만 하는지 이해불가. 이번사태는 작업자가 불난 논란에 기름 부을을만한 행동(공계에 자가신고함)+ 결과적으로 여러 단체에게 피해를 남겼긴 했으나 애초부터 이걸 논란화 한 사람의 책임은 누구도 묻지 않고 여섬혐오만 조장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아이들〉도 하는 게임에서 누가 게임에 돈을 더 소비 못하는 유저를 버려도 되는 쓰레기 취급하는 유저의 발언 또한 가관이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늘 불법 해킹툴로 여성작업자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해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상대가 남성이면 사상검증 프리패스인 점도 아이러니하다. 이럴거면 콘솔게임을 내는 게 맞다. 온라인을 접어라. 소통창구도 접어라.
466	트집잡기와 마녀사냥에 불과한 이들의 편향적 잣대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분명 더 큰 피해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제발 업무와 무관한 건의사항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467	단순히 순간의 쾌락과 분탕을 위해 떼쓰는 블랙컨슈머들 말 좀 그만 듣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성숙한 기업의식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468	제발 기업은 기업답게 먹금하시고 줏대있게 운영해주세요. 적은수의 인셀들의 말에 굴복하여 멀쩡하게 다니던 여성분들의 생계를 한순간에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당신들이 직원을 지켜야하는데 기업이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회사를 다닐까요?
469	정신차려라 도태되지 않으려면
470	고객의 의견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고객의 의견인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 사유를 빌미로 누군가를 굴복시켜 본인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운팅 행위인지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471	작작해라진짜 뭐가 혐오인지 판단좀해라
472	한국 게임업계의 수준이 이정도 였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외국 게임사는 최소 차별을 하지말자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박혀있는데 e 스포츠 강국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업계는 정말 기본조차 모르는 덜떨어진 사람들의 집합소인가요?
473	2016 년도 이후 단 한치도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 주장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474	한국에서 집게손가락으로 문제삼는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소수의 의견만 듣고 행동하지 마세요.
475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사용되는 집게 손이 정말 사상검증에 필요한 것인가요?
476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넘어 글로벌하게도 부끄럽지 않고 올바름을 선구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477	진실로 이런 손가락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478	집게손은 결국 핑계일뿐, 본질은 '페미니스트면 회사를 잘라라' 라는 요구며 게임 회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에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수있다는 그들만의 룰이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게임업계인들은 악성민원인들에 의해 어쩔수없이 해고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한프레임 한프레임 멈춰가며 찾아낸 그 모든 집게손이 진심으로 누군가 페미니즘을 전파하려 넣은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집게손은 무엇을 하든간에 자연스럽게 어느 동작에서든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작업자가 페미냐, 남성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형국입니다. 집게손 작업자가 남자면 넘어가고, 여자면 남혐자로 몰아 사이버 불링 후 해고까지 시켜버리는 지금 사태가 진심으로 정의롭다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479	말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싶다 당장 자신의 손을 가만히만 둬도 엄지와 검지는 그 모양일 수 밖에 없다는 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당장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타자를 치는 내 손모양 또한 같은 모양새다 문제라던 그 손모양은 이미 무수히도 많은 매체를 통해 보여져왔고, 그건 곧 자연스러운 모양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그게 혐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대놓고 혐오 표현을 써왔던 유저들에 대한 문제도 짚어야한다 혐오는 용납할 수 없다던 그 말 그대로 넥슨 내 유저들이 내비친 혐오 발언과, 넥슨에 문제를 야기했던 디씨 유저들이 평소에 몇 십개도 내뱉는 혐오에 대해서도 다룬 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맞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넥슨은 여성 유저는 유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과 같으며, 게임업계는 물론 애니업계까지 피해를 끼쳤다 이제는 디씨 인셀들의 발언 앞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남자들만 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넥슨이 바라고 타 게임업체들이 바라는거라면, 이 문제에 불쾌함을 넘어 반발하고있는 여성들은 앞으로 절대 이 문제에 포함된 게임사들의 게임을 하지 않을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 디씨 인셀들은 여성 유저들은 돈을 쓰지 않으니 매출에 큰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꺼져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디씨 유저들이 빠져나간 유저들만큼 돈을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매출이 조금이라도 하락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를 바란다
480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귀사의 게임과 함께했던 내 어린 시절 추억을 모욕하지 마세요.
481	일부 남성의 억지 떼쓰기에 노동자 해고를 사탕으로 흔들어 주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그 일부 남성만이 게임 업계의 고객인가? 정상 고객 모두를 기망하는 사상검증 즉각 중단, 철회, 사과하라!
482	말도안되는 블랙컨슈머의 요구 수용을 중단하라. 기업의 품위를 보여라
483	그렇게까지 '집게손'에 대해 규탄을 원하신다면, 이전까지 피싸개, 퐁퐁섭 등 게임 유저 및 게임 자체에 대한 비하 워딩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박에 굴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피해망상에 빠져계신겁니까?
484	말도 안되는 우기기보다, 우기기를 수용하고 동조하는 게임업계가 더 문제라 자성 바랍니다.
485	페미니즘을 혐오 몰이로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즉각 중단하라
486	게임에 돈을 주는 사람은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487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여성근로자 괴롭힘 문화 규탄한다.
488	넥슨 게임에 많은 추억이 있는 유저는 남성 유저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오놀이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적인 판단만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489	개소리 들어주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490	글로벌을 시장으로 삼을 생각이 있다면 글로벌표준이라도 맞춰주세요 외국인한테 창피해서 어케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91	문제의 시발점이 된 메이플스토리의 영상 속 손 모양은 일부러 해야만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 일상적인 제스쳐로도 많이 취할 수 있는 손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저들의 억지 요구를 들어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는 추후 대처를 현명하게 하길 바랍니다.

492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손모양, 흔한 이모지로 컴퓨터 핸드폰 가릴거 없이 기본 등록되어있는 모양이 언제부터 어떻게 혐오표현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서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근거없는 억지 검열과 생계위협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493	헛짓거리 하지마시고 상식적으로 운영하십쇼
494	2023 년에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위가 또다시 넥슨에서 벌어졌다는게 참담합니다. 게임업계는 글로벌 서비스를 의식하며 불미스러운 일, 논란 따위의 표현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본인들은 성평등에 반대한다고 말하길 바랍니다.
495	별 인간같지도 않은 인셀을 편 들어들어주면서 멀쩡하게 잘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496	단체로 찌질한 짓거리 좀 그만하십시오.
497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페미니즘의 정의는 알고 그런 답변을 내놓은건지... 이참에 게임에 들어있는 여성혐오에 대해 교육 한번 들어가셨으면좋겠네요.
498	1 차원적인 생각을 하지말고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보길..
499	여성유저도 소비자다
500	블루아카이브 일본서버 이용자로서 한국인이라는 국적보다 게임속 세계에 정체성을 더욱 느낄 정도로 이 게임을 사랑했습니다. 이번 일로 블루아카이브의 20% 가까이 되는 여성 유저들이 버려졌으며, 이는 국제적 요구에 따라 만인에게 열린 길, 더욱 자유로운 길을 지향해야 할 한국의 서브컬처 게임 장르의 미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넥슨은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게임 서비스 사업자로서, 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목소리를 듣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501	집게손가락 논란에 대한 공지를 꼭 해외에도 번역해서 돌려주세요
502	앞으로의 한국 게임 산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503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이라고 왜 말을 못하는지 입장문부터 명확하게 쓰시길 바라고, 한국게임이 왜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504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고 운영합시다.
505	단지않은 이슈에 하나하나 대응하며 사상검증으로 기업이미지를 말아먹지마세요
506	적어도 한 업계를 대표하는 큰 기업이라면, 이상한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507	억지논란 들어주는 거 제발 그만하세요....
508	여성혐오를 당장 멈춰라
509	개인의 sns 를 뒤져서 정보를 캐내고 과거 발언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게임계는 무너져야한다.
510	일부 악성 유저에 의한 컨텐츠 변경과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공격 지긋지긋합니다

511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극적이면서도 과격한 여성 혐오를 보이면서 도리어 페미니스트에 뒤집어 씌우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한국 게임계는 망했다는 사실을 다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이런 편향적이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업계의 끔찍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512	사과문과 디렉터 유튜브 라이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넥슨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13	도덕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편파적 운영을 중단하십시오.
514	일부 악질유저들의 선동에 넘어가 페미몰이놀이에 합세하지말고 멀쩡한 게임이나 잘 운영하세요.
515	넥슨 및 게임업계의 잇다른 선택적 불평등 대응이 한 사람의 유저로서, 또 창작자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란을 조장하는 악성 유저에 대응하는 분명한 규제를 가지고 깨끗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지는 일대다수의 상황에서 직원 및 협력 인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516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이 몹시도 실망스럽습니다. 넥슨만큼 큰 기업에서 근거도 논리도 없는,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징징거림에만 귀를 기울이니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가 참 밝네요. 억지 징징거림에 어디까지 달래줄 생각인가요?
517	넥슨 및 게임업계는 억지 논란에 동조하여 2 차 가해까지 파생하는 혐오행위를 조속히 멈추어라.
518	넥슨은 여성 노동자 괴롭힘에 가담하지말고 근로자를 보호하라
519	집게 손이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걸 뜻한단 억지를 진심으로 믿어서 피드백 해주는 건가요?
520	정신좀차려라
521	손가락 제스쳐를 정말 혐오표현으로 생각했나요? 그동안 숱하게 나오던 여러 문제점은 쉬쉬하더니 정작 이 이슈에는 앞장서서 말도안되는거까지 잡아내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말도안되는 이슈에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대처에 대처할 수 있는 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522	나아가는 세계와 정 반대로 후퇴하는 한국 게임업계의 모습 잘 봤습니다. 개선할 생각이 없다면 그대로 쭉 백스텝해서 아예 꺼져주길 바랍니다.
523	게임업계를 망가트리고 말도안되는 사상검증으로 사람 인생을 망치는 지금의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524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야하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면 안됩니다. 현재 넥슨 및 게임업계에선 일부 집단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죄없는 직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그 직원을 그들이 욕하는 대상으로 방치되게끔 던져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국내 게임업계가 너무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이러한 악순환이 끊어지길바랍니다.
525	법적 처벌 좀 받아라. 언제까지 이렇게 상식 이하의 꼬라지를 보고 살아야 하나?

526	폐쇄되어 실존하지 않는 사이트와 심볼에 선동된 일부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의해 사이버불링 및 협박 위협을 받는 직원 및 유저가 실존하는데 반해 넥슨의 대처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게임을 만든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지를 정정하고 '집게 손가락'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집게 손이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유저들이 도리어 다른 유저들을 지나치게 혐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써의 현명한 대처 바랍니다.
527	억지스러운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춰주세요.
528	페니미즘을 억압하고 검열하는 저열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
529	게임쪽엔 어그로 먹이금지란 말이 있죠 게임업계도 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생떼를.그렇게 매번 들어줘야 겠나요?
530	본 사안이 2023 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혐오표현이라 주장하는 것이 동일한 모양새도 아니기에 근거의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그 때문에 기업이 과도한 불링, 인격모독을 당하고 새벽에 나와서까지 일을 처리해야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같은 소비자층에게 향유되는 모든 업계의 선례로 퍼질 것입니다. 정말 가치있는 선택이었을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531	몇년안에 망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오
532	이대로 헛짓거리 계속하면 정치권에서 게임계 압박할 빌미만 늘어나는겁니다 현명한 처신 부탁드립니다.
533	긴말하지 않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534	실제 페미니스트라 할 지언정 문제가 되선 안 되지만,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 순간 캡쳐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이, 그리고 넥슨이 그에 동조하여 한껏 격양된 얼굴로 '모든 혐오를 지양한다'며 사상검열을 자행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라. 그동안 게임 내 고확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진 섹드립이나 타 서버 비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는 게임회사가 '모든 혐오를 지양한다'니 우습기 그지없다.
535	손가락 모양 하나 가지고 혐오 표현이라 우기며 해고시키는 상황에 대해 외국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536	넥슨사의 결정권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일부 플랫폼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당위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린 결론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만큼 해당 사항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페미'라 일컫는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의미를 회사 제품에 내재하고 작업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등 명확하게 내용을 증빙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러한 부분은 소위 '일베'라 말하는 남성집단에서 발생하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해당 집단들이 사고하는 대로 '페미' 또한 동등하게 행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가합니다.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오픈 시작부터 현재까지, 20 년간 사랑하며 즐겨왔던 유저로서 금번 사태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금번 사건은 단순한 극단적 성향을 게임 내에서 베제시키는 사항이 아닌, 여성게임유저로서 인게임에서 컨텐츠 제공사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0 여년 간 함께했지만, 더이상 넥슨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정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당신들이 공격한 대상은 남성을 혐오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회사 업무에 타격을 입힌 이들이 아닌, 메이플스토리가 보여주는 여성캐릭터의 서사를 좋아했던 이들입니다. 도리어 넥슨이 편들어준 이들이 어실질적으로 회사 매출과 존폐에 이득을 주는 이들이었는지 해외 반응과 타 포털사이트의 반응을 통해 직접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537	여성에 대한 억지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멈추세요
538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없이 그림 어떻게 그릴건데
539	노동법은 개나 준 혐오에 물든 뇌로 다른 사람을 혐오자로 낙인 찍는 짓 그만둬라
540	철회 전까지 불매합니다
541	인터넷에서 그저 믿도끝도 없는 재미와 남을 무너트리기 위한 악의만을 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는 반응도 해주지 말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되찾길 바랍니다. 커뮤니티에 하루종일 앉아서 유명무실한 '집게 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탕충이지,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는 게이머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542	일부 커뮤니티 남성의 억지 횡포에 귀 기울이는 행위를 당장 멈추세요. 트럭 몇 대를 보내야 겨우 유저간담회 한 번 열던 운영진이 일부 남성의 억지 횡포에 바로 꼬리 내리는 모습 정말 눈물겹습니다.
543	세계적으로 성별은 무관한 것이고 능력주의적인 세대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혐오속에 갇혀 타인을 멸시하며 스스로 뒤쳐지고자 한다.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반복할 것인가?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었으나 몇 년을 흘려보내도 변함없는 부당한 노동자 탄압에 더는 응원하지 못한다.
544	자사 게임에 대한 유저의 불만을, 인셀에게 무고한 여성 노동자를 찢어발기라고 내던져주는 값싸고 편리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걸 그만두라. 이런 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당신들은 여성의 강제적 희생에 기대어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다.
545	상식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46	과대표된 일부 혐오주의자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그들이 재미로 만드는 억지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람
547	정신나간 반페미몰이에 미쳐서 같이 날뛰는 넥슨은 문닫아라

548	억지를 더이상 들어주지말고 먹금 해라.
549	게임업계는 여성게이머를 여성이 아닌 게이머로 인정하라.
550	법 위에 손가락 없습니다
551	억지 논란에 장단 맞추어 외주사의 노동자 부당해고를 종용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등해야한다는 페미니즘이 그릇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기본 가치관부터 뜯어고치십시오.
552	몰지각한 악성유저들의 억지주장, 혐오몰이를 땔감으로 태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합당한 요구사항을 묵살하는 게임사들은 스스로 한국게임산업의 잠재력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553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한 성차별적 행태와 페미니즘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몰이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임업계의 안일하고 편협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554	반사회성 커뮤니티에 동의하고 사상검증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게임 시작전 해당 문구를 기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게임사에 시간을 할애하고싶지 않습니다.
555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556	혐오표현이나 사상이 존재하지 않아야한다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동안 계속 남성 유저들이 여성 캐릭터 또는 여성 유저로 성희롱하고 누가봐도 성적인 묘사를 하는것,여성혐오는 신고를 해도 무시하셨나요 혹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적 모욕,여성혐오 표현은 타인에 대한 혐오가 아닌건가요?
557	소수 남성 유저의 마녀사냥 스포츠에 가담하는 행위는 자본주의적 선택조차 못 됩니다.
558	진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559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유린하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왜 여태 있어왔던 수많은 혐오발언(리선족, 리장연, 단퐁회, 피싸개 등)들은 묵인해왔나요?
560	말도 안되는 논란에 반응해주지 마시오
561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562	페미니스트인게 문제라면 넥슨 본사는 성차별을 지지하는 집단인가?

563	논란 속의 '집게 손'은 일상적인 손 동작에 불과하다.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넥슨측에서는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집게 손'이라는 만들어진 차별을 옹호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논란 이후, 메이플 스토리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렉터가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메이플 게임을 유린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체 타인에 대한 혐오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넥슨과 메이플 스토리를 유린하고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을 갖길 바란다. 창작자의 작업물에 창작자의 사상이나 개인의 견해가 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 인의 범위로 진행되는 창작이 아닌, 기업과 회사 단위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기업과 회사의 사상과 견해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의 영상물,아트워크 등 모든 창작물은 1 인의 기획,완성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팀조직 내에서의 회의와 결재과정을 통하여 창작물이 공개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완성된 작업물에 대하여 논란 및 수정방향이 생긴다면 창작자 1 인에게 모든 짐이 떠넘겨지는 것이 아닌, 회사가 창작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만들어진 혐오로 인해 정말 혐오몰이를 당하고, 부당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여성이며 개인 창작자 라는 점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564	사상검증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법을 위반한 사안이며 게임으로 장사할 거면 그 게임 만드는 직원들을 좀 보호하세요. 외주라도 게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죠. 대기업이 이러면 중소 회사들은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법치국가면 법 좀 지키고 불합리한 옛날 관습 좀 버리세요.
565	방구석에서 혐오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들의 억지 논란을 받아주지마세요
566	손 모양이 문제라면 과자만 집어먹어도 모두 공격당해야 하는 세상이 될텐데 진심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악성 이용자들의 말을 너무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67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자 탄압 및 여성탄압을 중단하세요.
568	2016 년에도 정신 못차리더니 지금도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심히 실망스럽다.
569	비슷한 사안으로 여러번 실망하여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다. 마녀사냥을 그만두어야 한다.
570	일부 몰지각한 유저의 억측에서 비롯된 말도 안되는 논란에 사과한 행위 자체가 유저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통탄스럽습니다.
571	소수의 트롤러들이 마치 유저 전체를 대변하듯 주장하는 악성 민원을 자꾸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 주제에 관심이 없던 그외 다른 유저들은 게임사의 반응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572	페미나치라고하면서 본인들이 나치가 되면 어떡합니까
573	실체가없는 단체를 향해 혐오를 방지한다며 더한 혐오로 대응하며 성실히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것 이 정당한 대처방안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행동해주셨으면합니다.
574	일부 유저들의 근거없는 마녀사냥에 직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사측의 의무대로 직원을 보호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길 바랍니다.

575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을 철폐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정립이 필요. 본인들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게임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재고가 필요함.
576	일부 남성들의 억지 민원을 수용하여 한 사람의 직장인을 부당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여성 게이머의 입지를 좁히는 한국 게임사의 지리멸렬한 행동을 규탄한다
577	억지논란을 멈춰라
578	개인의 사상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게 문제라면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잘라 내야 이번에 넥슨에서 보여준 판단이 정당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넥슨은 사기업이니 사원 개개인이 사상을 가지는 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사기업과는 연관이 없는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계약을 무단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당신들은 법을 따라야 하는 사기업이지 특정 사상을 공격하는 이들의 따가리가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579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따라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580	집게손가락으로 뭐라하는 건 역시 억지부리는거라 생각합니다
581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582	억지 논란에 장단 맞추는 짓 그만해라
583	진정 혐오발언을 옹호하고 있는 게 어느 쪽인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84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여성혐오를 멈추지 않는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
585	그들의 집단적 떼쓰기만을 들어주는 게임업계에서 여자가 발 들일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갈수록 도태될 뿐이다.
586	과대평가된 소수 악성 유저에게 휘둘리지 않는 회사가 되십시오.
58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88	넥슨측에 지속해서 페미척결을 주장하는 커뮤니티의 실체를 똑바로 봐주세요.
589	게임업계에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한곳의 변화는 곧 주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에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겨 사회에 해악을 퍼트리기도 했던 회사고 업계지만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좋은 사례를 다시 남길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90	넥슨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사상검증을 멈추고,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중단하라.

591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 게임은 해롭지 않고 게임중독은 질병이 아니며, 게임은 아트이자 문화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작금의 그대들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인셀을 위시한 일부 분탕 종자들과 극우 남성우월주의자들이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부모안부를 묻고 키보드를 깨고,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해악한 존재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페미"들은 멸절당해야 한다고 협박과 살해 위협을 가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제 1 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당신들의 언행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가 "극악무도한 페미"이고 "멸절해야 하는 극단적 과격 분자"인가 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평등을 외치면 업계에서 배제하겠다는 판에 게임이 문화 운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뜩이나 가챠 등 과금 요소로 게임이 유사 도박이라고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가 국내외의 일반 대중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때 귀사의 게임을 좋아했던 일말의 추억을 짜내서 말하건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비상식적인 자해 행위는 그만두십시오.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당장 멈추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잘못을 사과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 정도로 복귀하십시오.
592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593	얻을 것 없는 억지 여성 혐오 논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594	한심해서 한국 게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작 손가락 모양 하나로 업계 전체가, 나라 전체가 들썩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직업이나 목숨을 잃은 남성이 있나요?혐오몰이하는 남성들과 언론에 의해 직업과 목숨을 잃은 여성분들은 존재하고요 이런 일이 기사화되는 사회사 통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595	마비노기를 재밌게 플레이하는 유저로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ㅠㅠ
596	집게손을 핑계로 하는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ㅠㅠ
597	게임업계에서 한때뿐인 진상을 내부 직원보다 소중히 여기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598	도데체 어디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혐오를 조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절반은 가는 상황에 이런 결정을 하시는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혐오를 반대한다 하시는데 혐오물이를 더욱 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많은 여성분들도 게임을 사랑합니다. 게임을 사랑할수있게 해주세요.
599	누구보다 성차별에 앞장서고 있던 게임사였으면서 11/26 에 진행했던 모디렉터의 라이브방송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혐오도 지지하지 않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게임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여성혐오에는 방관했던 성차별주의적인 넥슨이라는 게임사는 이번사태에 반성하고 돌아보길 바라며 이 기회를 버리는 우매한 행동만은 하지 않길 바립니다. 당사의 게임을 즐겼다는 걸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600	말도 안되는 피해망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그만둬주세요.

601	한국 게임의 발전을 기대했던 한 유저로서 이런 퇴행적 관행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사원을 보호하는 상식있는 모습을 기대한것이 잘 못되었나요?
602	넥슨아 정신차려라
60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04	일부 인셀의 악성민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605	게임 업계에서의 여성들의 입지가 충분히 탄탄하다는걸 입증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순간 게임 업계는 발전 없는 도태의 길만 있다는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606	일부 극성 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대체 왜 편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저희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아 이번 pv 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1 프레임의 집게손 동작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나 있습니까? 당사도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임을 알고있을텐데요. 여성유저들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게임업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해 개인의 사상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불특정 다수가 일방적으로 개개인의 사생활과 과거 기록을 파헤쳐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 게임사가 직원을 응당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607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노동자의 생계가 끊기는 일을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608	넥슨은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성차별과 노동자 희생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609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외주사 및 직원들의 사상검증을 멈추십시오. 넥슨 관리자들은 혹시 그들과 사고방식이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까.
610	이런 상황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을 괴롭히며 알량한 만족감을 채우려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망상을 키워가는 그들을 멈춰주세요.
611	어디까지 받아줄 생각 입니까 해외 보도하기에 부끄러운 사안이라면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612	게임업계는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그만하십시오
613	넥슨 게임을 하는 게 부끄럽다
614	일부 남성 유저의 억지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유저를 제대로 고려하는 게임 산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15	더 이상 억지 부리는 진상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말고 직원보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16	넥슨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억지주장을 받아줌으로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사이버불링과 스토킹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조장하고있다
617	유소년, 청소년기를 넥슨을 비롯한 한국 게임과 함께 보냈습니다. 비록 중국 자본에 밀리더라도 한국만의 게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반지성적인 혐오를 품은 게임업계에서 결코 좋은 문화가 비롯될 수 없을 거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게임이 아닌, 혐오자들만의 '너네 게임'으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618	게임업계가 점점 사행성을 조장하고 심각한 여성혐오와 배제, 성적대상화를 당당하게 표현해도 그저 침묵했지만 더이상은 안되겠네요. 국내의 게임문화 수준이 뒤떨어지다 못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통탄스럽습니다.
619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닙니다.
620	인셀 테러에 대한 동조와 미흡한 대처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살 낸 넥슨을 규탄합니다.
621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주는 일은 근절 바랍니다.
622	여성혐오를 멈추고 여성혐오하는 소수의 남성 유저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브랜드 이미지만 나빠지고 글로벌 웃음거리에요.
623	일부 유저의 확증편향을 강화하며 타인의 직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을 회사가 방조/지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624	여성유저 역시도 게임에 돈을 쓰며,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관련 업종을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업계로 진출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손동작 하나에 해당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의 여론몰이로 '극단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 역시도 넥슨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의 게임을 좋아하면서 즐겨하는 여성유저로써 이러한 게임업계의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애니업계 측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큰 갈등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의견을 남겨봅니다.
625	성차별적인 기업문화,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뒤쳐진 움직임은 곧 당신들의 가족, 자녀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 입니다. 미래를 위해 올바른 사고와 대응 부탁드립니다.
626	진로를 잡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게임업계가 썩어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넥슨과 기타 게임사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627	게임업계는 여성노동자 탄압을 멈추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8	무지성 페미 몰이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넥슨이 클로저스 사태 때부터 시작된 '페미 찾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일을 반성하지 않고 더 심한 혐오몰이를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길 원합니다.
629	팩트를 외면하고 마녀사냥에 몰두한 미치광이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사회생활 중인 성인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630	도태된 한국 남자 의견에 동조하지 마라
631	바보입니까? 바보인건 알겠는데 바보를 멈춰주세요
632	여성들의 노동권 보호 및 게임업계 전반의 무분별한 마녀사냥 철폐를 위해서라도 이런 혐오몰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633	헌법상 보장될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교묘하게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멈춰라.

634	제발 억지스러운 의견 들어줄 시간에 유저들의 건의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시고 사내 직원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635	해당 손가락 모양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폭력,살인등) 내부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해당 손가락 모양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당 논란이 있기전 게임운영에 관한 이슈로 이런저런 말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이슈를 다른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 이번 논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6	업계 공멸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부당해고 및 사이버불링 조장을 멈추십시오.
637	말도 안되는 궤변 수용 하지 말았으면
638	억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속도를 보면 본인들도 그 억지 의견에 격히 동조를 하기 때문이겠죠.
639	넥슨 게임 유저들의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모함 및 테러 행위, 넥슨 사측의 애니메이션 외주 스튜디오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갑질에 대해 규탄합니다. 넥슨의 여성혐오주의자들은 대기업의 네임밸류를 등에 업고 본인의 혐오 사상을 강요하거나, 협업하는 애니메이터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 계약 변경 및 무리한 수정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넥슨의 이번과 같은 선택은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어 "한국 게임 업체와의 협업은 거대한 리스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남겼음을 명심하십시오. 애니메이터들은 여성혐오주의자에 의한 이번 사건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640	게임업계가 특정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수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641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논란을 계속해서 들어주면 끝도 없을 것 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건 억지라고 딱 잘라 끊어내주었으면 합니다.
642	미래를 생각하세요
643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기 위한 일부 악성유저의 거짓 논란을 수용하지 마라. 넥슨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사상검증과 사이버 불링에 노출되었고 전반적인 게임업계의 노동자 인권이 후퇴하게 되었다. 기업윤리를 따르지 않는 넥슨은 이를 책임지고 사죄하라
644	게임 업계는 만연한 혐오정서와 근로자의 권리 위반, 업계의 신뢰를 박살내는 갑질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
645	모든 혐오를 부정한다면서, 혐오발언을 일상처럼 하는 커뮤니티에서 나온 억측을 우선 수용하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646	이걸로 논란이되는게 말이되는.. 주제인가...
647	여자들도 아무생각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제발
648	넥슨을 비롯한 게임 업계는 운영 부족과 게임사 역량 부족의 문제를 소위 인셀 유저들의 허무맹랑한 생떼 들어주기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649	그렇게 다 잘라내다 무엇이 남을것 같습니까? 당신의 집게도 엄지도 다 잘라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650	자신들이 혐오에 물들어서 마녀사냥하고 있다는걸 똑똑히 알았으면

651	페미니즘은 검열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며 일부 남성 인셀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측 회사원을 보호하지 않고 내치는 모습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동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를 누가 믿고 다니겠습니까? 클로저스 사태때부터 넥슨은 이러한 남성 인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페미니즘을 평등이 아닌 혐오라고 재단하는 매우 잘못된 인식에는 순응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욕하며 혐오하는 몰상식한 유저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는 것이 넥슨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페미니즘은 지탄받아 마땅할 사상이 아니며 평등을 지향하는 응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 일부 남성들이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욕하며 항의하는 것에 게임사가 받아들이면 노동자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평등과 인권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1 프레임 단위로 검열해가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인셀들의 주장을 들어주며 그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넥슨에서 그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심히 유감이며 퇴보적인 생각과 행동이라 말하겠습니다. 게임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아야하는 것이며 젊은 층 남성 게이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글로벌 사회에서 더 이상 오래되고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후진적인 생각에 갇혀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652	저번 던파 팬행사에서 여성 팬아터들에게 무차별 사이버 스토킹과 익명뒤의 폭언, 범죄 예고에도 아무 처벌도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관한사실 알고있습니다. 넥슨이 여성업계 종사자와 페미니즘에 대한 말도안되는 사상검증을 시도한게 처음이 아님을 알고요. 노동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나라에서, 고작 방구석 키보드 두드리는 트롤러들이 무서워 정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653	억지논란, 창조논란에 놀아나지마세요. 왜 말도 안되는 요구에 말도안되는 리액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54	인셀에게 동조하며 게임의 불만을 페미몰이로 잠재우려 하지 마라.
655	여게이머도 게이머다. 그렇게 할 거면 여게이머의 돈도 받지 말아야지
656	노동자는 언제 어떤 말도 안되는 비논리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될 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소비자는 하루아침에 애정하던 게임으로부터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겠다는 공지를 받게 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하고 콘텐츠 시장이 존속될 수 있습니까? 사건과 소비자, 그들의 애정을 돈이 아닌 그 자체로 보고 스스로 생각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57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멀쩡한 개인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58	억지들어주기도 정도가 있다.
659	내가 사랑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660	인셀들 징징대는거 들어주는것 좀 작작해라
661	사상검증 및 마녀사냥 out
662	억지혐오를 그만두십시오. 힘없는 노동자의 일자리 뺏기를 그만두십시오.

663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도덕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안을 바라봐 주시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경영진이 되길 희망합니다.
664	극단적 차별주의자들의 말에 귀기울일수록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는 불분명해집니다. 정신차리십시오.
665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이번 건에 대한 갑질, 사상검증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은 라이브방송에서 얘기한 사람들처럼 귀기울여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666	제대로 된 검수에 들어간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작업자의 의견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에 무척 화가 납니다. 여론의 물타기로 인해 있지도 않은 의미를 있다고 단정하는 모습이 어엿한 한 기업의 대응이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667	넥슨은 기업윤리의 책임을 지고 구시대적인 발상에 기거한 혐오를 일삼는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멈춰라. 왜 일부 집단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스스로 만든 작품을 보호조차 않고 이상한 인식이 박히게 두는 건지? 쓸데없는 인력을 쓰게 만드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 덕분에 타게임사들도 모두 인셀의 무의미한 협박과 압박에 몸을 사려야하고 생계를 잃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2023 년에 살고 있다면 인권과 성차별 문제에 귀를 기울여라.
668	혐오몰이 사상검증 규탄합니다.
669	페미니즘은 비밀 메시지 따위에 몰두하지 않는 인권운동이다
670	사상검증, 억지 논란 만들기에 규탄합니다.
671	일부 유저들 때문에 대다수의 유저에게 등 돌리는 행위가 참 안타깝다
672	남유저들의 수준이 점점 처참해집니다. 여자도 게임을 합니다. 여자들을 배척하는 테러하는 넥슨의 일처리를 규탄합니다.
673	PC 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노동법이랑 상식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악성민원은 범죄고 피해 노동자는 보호 대상입니다.
674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인셀남들이 어떻게든 물고뜯어 떨어뜨리기 위해 말도 안 돼는 억지스러운 논리를 계속 펼쳐대서 다른 게임 업계의 회사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손을 들어주는 순간 게임 업계 쪽은 점점 더 후퇴할 것이고 게임 업계로 발을 들여 근무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며 더는 이 행위에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됀다 돈을 벌고 싶다면 말도 안 돼는 억지논리에 편을 들어주지 말고 인간성에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넥슨의 이런 행위는 인간성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닌 돈의 손을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 과정과 결과를 봐온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잘 알 것이다 인간성에 손을 잡지 않는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잃을 것이다
675	일부 진상 고객의 억지에 휘둘리면 기업 이익에 더 큰 손해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디 합리적인 판단 하세요.
676	인셀 편좀 그만들어라 세상의 반이 여자다
677	게임업계에서 큰 규모를 가진 회사에 해당하는 넥슨이 먼저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력의 말에 귀기울여 버리면 다른 회사들도 이 같은 일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만큼 신중한 행동과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잘못하지 않은 일로 여성 사원들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건 부당합니다.그들을 보호해주세요

678	살인예고 올라오는 사이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니. 예비살인기업아닌가요?
679	추하다 넥슨
680	창조논란으로 투명페미한녀를 만들어 억지로 패지마라
681	성차별적 문화를 조장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일부 혐오주의자 유저들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상검증 및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넥슨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성별로 차별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평등 이념인 페미니즘을 터부시하는 분위기 조장에 일조하는 판단을 철회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682	일부 몰상식한 남성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 여성들을 부당해고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683	게임회사 노동관 한심한 수준인건 알고있었는데 이제보니 한심한 수준을 넘어서 전근대적이네요 21 세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각한 노동권침해며 하청업체를 괴롭히는 갑질이라고 봅니다.
684	인게임내에서 현재도 진행되고있고, 여태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되어왔던 여성혐오에 대한 사실은 묵인한 채 여성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참담할따름입니다. 현재 국내 지상파미디어 또는 영화만 보아도 여성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늘어나고있고, 넥슨이 그렇게 진출하고싶어하는 해외에서마저도 여성인권을 중요시생각하고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여성으로써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한국 게임업계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할 수 밖에 없네요.
685	회사가 직원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회사입니까
686	혐오를 규탄합니다.
687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악성고객과 생각이 같아도 문제요 허깨비에 굴복해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산 게임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688	언제까지 여자가 관계된 부분에 꼬투리 잡고 휘두르기에 혈안이 된 억지 주장들에 맞장구쳐줄것인가?
689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멈춰!
690	여성 유저의 존재를 지우고 일부 유저의 음모론을 무비판적으로 사실화한 넥슨을 규탄한다
691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려고 사람 밥그릇 잘라가며 총알받이로 써먹는 일은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게임도 문화라고 주장할 땐 언제고 어떤 문화가 일부 커뮤니티 사용층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팽합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692	일부 남성들의 어처구니없는 망상을 현실로 만들고 실제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것은 '어둠의 페미니스트'들이 아닌 넥슨과 게임사 측이다. 망상의 페미사냥에 빠져 현실의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중지하라.
693	말도 안 되는 트집을 허용하지 말라.
694	손가락 갑질에 굴복하는 게임업계 규탄한다
695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한 갑질 중단하라 게임업계 사상검증 원조로서 책임지고 문제 해결하라
696	모든 캐릭터의 손가락을 도라에몽화 할거 아니면 억지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멈추세요

697	회사가 게임 버그나 불만 사항은 대답을 피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만 중요 사항 면피용으로 보여주기식 사과문 올리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98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699	대기업이 시작하면 중소기업이 따라한다
700	넥슨 포함 게임업계 남자들의 수준이 진지하게 의심스럽습니다. 단체로 사이비 마냥 세뇌 당한 것 같습니다. 일개 커뮤니티 유저들이 한 노동자의 개인 SNS 를 사찰하고 사이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페미니즘이 남성분들에게 대체 뭔가요? 페미니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전혀 없지만 넥슨이 받들어 모시는 디시인사이드 인셀남들은 바깥에서 칼부림이나 하고 우울증 걸린 여성을 성착취하고 이 외에 많은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무능하고 무지성해도 정도가 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로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망상적인 사고로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퍼트리면서 한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유로 마녀사장 하고 게임 작업물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해외 게임 업계들이 비정상인 걸까요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비정상인 걸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머리 큰 대기업 게임 업계가 돼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이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01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준수하라
702	채팅에서 친구에게만 들리도록 설정해두고 해당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가 메이플 인벤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저레벨 찍먹 유저"인것도 아니고, 메이플을 좋아하는 만큼 돈을 제법 쓰던 고스펙 고레벨 유저였습니다만, 돌아오는 반응은 "페미가 저 스펙인게 말이 안되는데 (뉘앙스적으로) 화류계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지른거 아니냐"는 조롱이었구요. 이후 아이템을 정리한다는 디스코드 글에도 ⊠ 이모티콘이 달리고, 실시간으로 "그 비숍 근황" 이라면서 제 아이템을 판매하는 글을 찍어 조롱하거나, 판매를 위해 열어둔 오픈카톡 채팅방에 들어와서 "백수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템 맞춘거임? 투력 말이 안되는데 설마...? ㅎ" 같은 식으로 조롱을 하고 갑니다. 넥슨에게, 그리고 디렉터님인 김창섭님한테 묻고싶네요. 진짜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건 어느 쪽인가요?
703	한국 게임계에서 여성의 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704	정신 좀 차리세요.,.
705	게임은 더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의 다양성을 보장하라.
706	게임을 즐기는 유저를 갈라치기하고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부분의 시정 바랍니다. 전체이용가 게임을 표방하면서 하는 행동은 정 반대이며 넥슨 사의 게임을 좋아해온 여타의 사람들에게도 이번 일은 큰 무례와 오판입니다.
707	게임업계에서는 "어떤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용하는지, 그 사이트가 혹시 여성을 보지라 지칭하며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등의 여성 혐오 글이 최다 추천을 받는 사이트가 맞는지, 유저 대부분이 여성 혐오에 동조하는 사이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708	2016 년부터 게임업계에 이어져오고 있는 일부 남성유저들의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그 사상 검증을 위해 허위사실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여 일부 남성 유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사상 검증으로 치부하여 멀쩡히 일하던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일부 남성 유저들의 말에 휘둘려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자세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단순한 재미를 위해 허위와 날조를 섞어 유포하는 발언에 대고 저자세로 굽히며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일부 남성유저들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외국에서는 이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709	자신들도 해외에는 알리기 부끄러운지 GMS(글로벌메이플스토리)에는 공지를 올리지 않더라구요.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임업계인으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일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10	우연의 일치일뿐인 1 프레임때문에 여성몰이 하는걸 멈춰주세요
711	기업이라는 것은 여론과 소비자들로부터 직원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불거지는 여론과 불매 운동에 의한 타격을 걱정하는 것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먼저 억지 논란에 허리를 굽혀 버리면 해당 사항이 의도적이 아님을 밝히고 충분히 논리적인 설명을 곁들였음에도 여전히 공격을 받는 창작자들은 누가 보호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휩쓸려 허리를 굽히면 이와 같은 일은 계속해서 이 업계에 뿌리를 잡을 것이고 당연시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의 발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기업이 억지 논란을 합리화 시켰을 때의 파급력이 과연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올지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12	사상검증이란 마녀사냥으로 여성을 학대하고 직업을 잃게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범죄입니다.
713	무엇이 진정한 혐오인지 인식 하고 창작자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714	당장 눈 앞에 있는 악성 유저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에 대한 댓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715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표현임에도 그것이 남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일관성 없이 꼬투리를 잡고 페미니즘, 여성의 안전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을 못하게 막고 위협을 가하는 일부 한국남성들의 작태와 거기에 고개 숙이고 노동자를 보호하기를 포기한 넥슨 외 게임업계에 각성을 요구합니다.
716	말도 안되는 항의를 받아들여 여직원들의 생업을 위협하지 말아주십시오.
717	사이비 광신도급의 음모론에 진지하게 대응하여 개인과 하청업체를을 불링에 노출시키는 넥슨 및 게임업계야말로 사회의 음모 집단과 다름 없음
718	혐오 표현과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 뒤에 숨어 여성을 혐오하고 사상검증하는 짓거리 그만 보고 싶습니다.
719	게임업계를 응원하고자 많이 구매하고 플레이하기도 했었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에게 심폐소생술 해봐야 의미가 없었다. 난 유저가 아니라는데 어쩌겠나.

720	억지 논란에 굴하지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721	말도안되는 억지 논란에 휘둘려서 여성을 억압하지 마세요. 스스로 후퇴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722	이 사태는 극성 진상인들의 고집이고, 혐오입니다
723	이전의 선례중에 남자들의 여혐프레임으로 인한 논란에 굴복하여 실적이 감소하여 망한 게임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배운점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724	직원보호를 보호하고, 억지논란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725	게임계는 노동자의 생업과 사회적 혐오를 이용자 불만의 방패로 삼지 말라!!
726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특정사이트집단의 생떼를 받아주려고 개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 행위를 멈춰라
727	게임업계는 페미니스트 때문이 아닌, 억지논란을 일으키는 유저들과 그것을 오냐오냐해주는 게임사때문에 자멸할 것이다.
728	억울한 마녀사냥은 멈춰주세요. 인터넷 여성혐오놀이에 업계에서 큰 회사가 앞장서서 혐오에 동참하는 모습은 옳지 않을 뿐더러 후에 게임업계가 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 입니다.
729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 있는 손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억지 논란을 만든 소수의 의견만을 듣고 게임 운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동작인데, 책임을 하청사에 전가하는 듯한 행위도 나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730	고객을 가려받는 산업이 언제까지 찬란할까요?
731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라는 게 맞는지 지금으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732	더 이상 일부 남성의 말에 휘둘려서 애먼 사람들을 부당해고 하지 마십쇼
733	받아들일 의견, 무시할 의견의 분별은 확실히 하십쇼.
734	지금 게임사에 문의를 넣고 있는 집단은 사리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 여론을 좌지우지해서 망하게 하려는 악의를 가진 사람과 그에 선동당해서 목소리 키워 외치고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단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게임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숙고해주세요.
735	정신 좀 차리세요
736	여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옹호하면서 여자 괴롭히는 걸 즐기는 산업은 도태되어 망하는 결말만 있다.
737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만 이런 사고방식을 지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스포츠로 행해도 될 것이 있고, 안될 것이 있습니다.
738	혐오를 검열하는 척 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739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많은 애정을 가졌었는데 여성유저들의 추억과 애정은 넥슨에게는 쓸모없는것인가봅니다 가족들이 할수있는 게임이되고싶다하셨는데 인셀남들이랑 잘해보세요
740	찌질한 여성혐오 집단, 게임 업계 여성 부당해고의 시발점. XX 들을 위한 게임 회사. 된장녀 김치녀 운운하던 10 년 전 여성 혐오 사상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여성관. 한국 게임 업계의 수준은 집게손 사이즈 밖에 되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
741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습니다

742	게임업계는 여성혐오 및 톡식한 악성민원유저에게 휘둘려 자사 직원 및 협력, 하청업체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743	마우스 어떻게 쥐시는지 궁금합니다
744	페미니즘을 혐오라고 규정한것, 자연스러운 손동작에 의미를 부여하는 악성민원에 동조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 등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745	게임을 스스로 음지문화로 만들지 마십시오....
746	아니이걸왜... 이런 일이 2023 년에 왜...
747	여성에 대한 과도한 탄압과 억지 논란으로 여성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모든 여성 혐오, 사상검증 행위를 멈춰라.
748	일부 유저들의 억지분탕질만 고객의 소리라며 들어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게임 내에 만연한 진짜 혐오를 퇴출하는데에 힘써달라. 아울러, 하청 및 자사 직원들의 신상과 고용보호를 보장해라.
749	남성 커뮤니티의 억지로 여성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
750	억지논란 중지하라!!
751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752	게임업계 정신차려라 다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753	당신들이 말하는 온 가족의 유저에 여성은 없나봅니다 그대로 도태되어 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54	여성혐오의 시발점으로써 이 사슬을 끊어낼 책임이 있다
755	상식에 퇴행하는 일부 커뮤니티의 행보에 동조하며 게임 문화를 퇴행시키는 넥슨 및 일부 업계를 규탄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데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756	근거도 없는 일부 유저들의 논란만들기에 반응을 해주면 나중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757	집게손은 프레임 단위로 뜯어본다면 단순한 행동을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날수 있는 행동이며 손하트뿐만 아닌 OK 사인을 하는 도중 프레임을 멈추었을때 나타날수 있는 동작이기도하고. 무언가를 집는것뿐임에도 나타날수도 있으므로 해당사항은 억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758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혐오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일부 유저들은 숨은집게찾기놀이를 하며 혐오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억지 논란을 멈춰주세요
759	업계로부터 작업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입니다. 해당 작업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고 작업 목록을 나열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작업물은 회사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어째서 책임은 귀책사유조차 없는 개인이 져야 하는지요? 업계가 업계를 위한다면 함께 작업하는 노동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주세요.
760	성차별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는 필요없다.
761	16 년 성우부당해고 사태이후 변하기는커녕 더 심각해진 넥슨의 노동인식에 실망했습니다

762	악성 민원과 억지스러운 피해 망상적 주장을 무시하거나 끊어내는 대신 수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논란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잘 운영 중인 사례가 있음에도 페미, 여성과 관련된 사안에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윗선에 있다는 뜻 아닌가요.
763	악의를 지닌 집단의 억지 논란과 요구를 언제까지 들어줄 생각입니까? 그들은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업계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휘둘리는걸 즐기고 괴롭히고 싶을 뿐입니다. 이처럼 논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에 일일히 반응하며 그들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의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64	혐오를 문화로 둔갑시키려 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반사회집단이다
765	sns 에 한국게임, 한국겜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덕분에 게임 자체에 손 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혐을 통해 여가부 철폐 주장 정권을 지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하는데 말이죠. 그들의 주장대로 게임 업계 축소에 큰 손 거드셨네요!
766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767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성 및 약자를 괴롭히고 악의적 행동을 하는 일부 남성들의 편에 서려는 넥슨은 문화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768	시대를 직시하지 못하는 방구석 진상들의 억지요구에 복종하느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멋대로 침해하는 일을 규탄한다
769	개인의 사상을 규탄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집게손'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상을 표방한다고 어림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770	말도 안되는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 그만하세요 당신들이 바로 혐오주의자이고 가해자입니다
771	게임업계의 부당한 여성노동자 처우에 반대합니다
772	하청에 갑질하지마십시오
773	현 상황은 말도되지않은 테러이며 테러 내용 중 해당 손가락행위가 그런 혐오표현이라할지라도 노동자를 일선에서 배제하고 검열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입니까 그 누구도 동의하지못할 내용입니다.
774	혐오차별주의자의 무분별한 억지를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 여성 노동자를 당장이라도 잘라도 아무 이상 없는 부속품으로 인식하고 성희롱, 악성민원인의 제대로 되지 않은 억지 논리로 업무 참여 배제 및 퇴사 압박을 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심지어 페미니즘이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서 혐오론자로 낙인찍고 차별주의자로 모는 행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여성혐오차별주의자들의 의견만을 유저의 의견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게임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775	넥슨의 성차별 규탄한다! 억지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멈춰라
776	전세계에서 이번 사태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죠.
777	남성성이 아닌 말도 안되는 손가락 논란에 놀아나는 넥슨과 임직원부터 정신차리세요.
778	악성민원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에 반응해야 하며, 이런 현상은 다른 곳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779	정신 좀 차리세요

780	개인의 특정 성별 혐오나 사회의 양성평등 사상이 귀사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781	여자도 유저이고 고객인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혐오적 발언을 일삼는 피해망상증 집단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정말 혐오를 하는 건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시고, 욕설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보호해주세요.
782	페미니즘은 불온한 사상이 아니며 그들이 주장하는 억지들이 업계의 여성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권력이 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게임은 더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소비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성 창작자들의 창작활동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억지를 받아주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783	억지논란에 동조하고 부당해고 일삼는 행위를 멈춰라
784	단순한 손동작을 혐오로 본인들이 상징하여 정의하고, 이를 찾아내는 집단 놀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성별 혐오를 더 크게 조장하는 세태에 동조하는 업계 상황이 암담합니다.
785	그만좀
786	언제까지고 혐오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겁니까? 특정 남성 커뮤니티의 여성혐오 발화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그 남성 커뮤니티와 똑같이 행동하는 넥슨은 구시대적 혐오자이며 도박적 과금 모델로 도박 중독자를 양성하고 여성 혐오로 중독자들을 달래는 사설 카지노 회사에 불과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게임은 문화가 아닙니다.
787	클로저스 메갈의심 사태로 성우를 자르고 어영부영 넘어가 시간 저편으로 진실들이 묻혔으나 프로젝트 문 사태이 이어 디씨 인셀남들의 억지 논리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여성유저는 유저가 아닙니까? 일베디씨펨코 하면서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작업자들은 방치하면서 억지 논리에 대하여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셔야하는겁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아쉽습니다. 이번 사태는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와 여성혐오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준 넥슨의 사상적 동의이며 그대들은 여성혐오 회사라는걸 인정한겁니다.
788	역사의 잘못된 방향에 서지 마세요.
789	인셀의 억지 논란을 들어주는 것은 게임업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하나의 사상이며 페미니즘을 하고 그것을 매체에 표현하는 것이 작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어떤 근거도 되지 않는다.
790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축약한다면, 넥슨의 행동이 앞으로의 게임 업계 종사자 여성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건 확실하네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791	의미없는 손동작을 문제삼는 일부 인셀유저가 문제다. 이에 동조하며 사상검증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고하지 말라
792	기둥 두개는 해드린것 같은데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저희는 게이머아닌가요
793	여성유저는 유저 아닌가요? 남성유저들 쓸데없는 트집 달래줄 시간 있으시면 인게임에서 남성유저들이 여성혐오적 표현 남발하거나 여성유저 무시하는거부터 어떻게 해보시지 참 안타깝습니다.
794	이상한 유저들의 이상한 말 좀 걸러 듣고, 올바르게 발전하세요.

795	억지논란 및 성차별 문제점을 부디 제대로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796	악성 유저의 의견을 걸러듣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 실망했습니다. 비단 넥슨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97	억지 주장하는 일부 남성 집단의 요구를 수긍하지 마시고 응당히 해야할 대처를 하고 근무자를 보호하십시오.
798	부끄러운 줄 알아라
799	지금껏 어디 가서 게임한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랜 시간 해왔던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800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가 받아들어져 여성의 직업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801	기업들은 진정 혐오란 무엇인가 본질부터 깨달아라. 무지성한 대처와 방관에 지금도 여성들은 '그' 혐오에 다치고 죽는다. 내로라하는 기업과 게임에서 뱉은 사소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혐오를 생산하는지 깨닫고 반성하라.
802	시대가 1923 년인 줄
803	당장의 논란에 눈이 멀어 해선 안될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804	2016 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넥슨의 페미니즘 혐오몰이 방치 및 동조는 작은 동물을 공격하는 개를 훈육하기는 커녕 잘한다며 칭찬해서 결국엔 사람을 공격하는 개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줄도 채우지 않아 아무나 공격하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805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근무시간에 인벤 그만보고.
806	게임업계는 이미 망조에 들어선 지 오래다 정신차려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늬들만 모른다
807	일부 남성들의 놀이처럼 번진 '사상검증 및 혐오'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커녕 기름을 붓는 꼴을 만드는 넥슨은 현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과하라!!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를 인정하고, 인셀들의 억지 주장 논리, 떼쓰기를 받아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상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를 중단, 철회하라!!
808	억지 트집에 대응할 시간과 인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게임 내 문의와 버그 수정에 더 힘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억지 트집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부당한 업무 배제 및 불필요한 주말 출근 등)
809	검지와 엄지를 세워 만드는 단순한 제스쳐가 '페미니즘'을 의미한다는 억지를 진지하기 받아들이고 인터넷상의 '악성 소비자'를 살찌우는 일을 제발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검열하고 압박해야만 하는 어떤 생각이라고 여기고있는듯한 행보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고정관념 및 성차별에 의한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바라는 페미니스트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810	아 잘나가는 척 하지 마세요 미국 일본도 모자라 중국한테도 밀리면서 왜 잘나가는 척 하는거?

811	여성의 인권신장에 대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변화해나가고있는데 어째서 한국은 점점 도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남성들의 근거없는 트집과 여성 개개인의 일상을 사찰하여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행태를 묵인, 굴복하고 한 기업과 개인을 매장시키는 것이 과연 기업으로써 할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넥슨과 모든 게임업계는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실 생각이시라면, 한국뿐만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서 여성혐오사상을 옹호하며 여성을 배척할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공지하셨으면 좋겠네요.
812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 만큼 아트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텐데 주장하시는 "집게손"이 아닌, 기본적인 동화작업으로 나오는 손동작인것을 정말로 모르시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모든 캐릭터의 손가락은 벙어리 장갑처럼 묘사되는 상황이 나오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주세요.
813	자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814	넥슨이 11 월 26 일 행한 행위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고 온가족 누구나 즐기는 게임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차별적, 인신모독성 신고와 행위를 모두 묵인하여 온데다 사행성, 도박성 짙은 BM 으로 과금을 유도해온 넥슨의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고, 배척당하는 여성과 자라나는 청소년이 접근해선 안 되는 유해매체로 나아간 것일 뿐입니다. 하청업체에 행한 갑질은 역겹기까지 합니다. 이런 반인륜, 반노동법적 행태에 엄벌이 처해지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815	일부 인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고개숙이는 당신들이 사회 악입니다.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816	예전에 같은 넥슨사의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에서도 해당 게임의 일러스트레이터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여러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퇴사 혹은 권고사직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평등한 인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토록 억지로 검열하는 행위는 옳지않고 세계적인 게임사가 시대에 뒤쳐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 입니다.
817	참담한 심경입니다.
818	일부의 말도 안되는 소리에 답하지 마십시오
819	성우교체 사건 이후로 정말 아무 것도 배우고 깨닫고 발전한 게 없는지요. 당신들의 정상성이 한없이 기울어져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성차별적인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820	마녀사냥을 하나의 스포츠처럼 일삼아 말도 안되는 지적을 하는 그들의 우매한 고집을 마치 갓난아이 어르듯 게임업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거르거나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러울뿐입니다. 누군가가 재미로 부린 억지가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게임문화의 건전성을 위협하는데 작금의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넥슨 및 게임업계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당신들은 어른이자 사회인이며, 회사이지, 나이만 먹었을뿐 전혀 발달하지 못한 공감능력을 가진 소수유저의 생떼를 모두 수용하고 받아줄 베이비시터가 아닙니다.

821	그저 트집잡는 악성 민원에 왜 귀를 기울이는지?
822	여성혐오와 약자멸시를 일삼는 집단이 도리어 성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즘을 혐오집단이라 명명하는 작금의 사태와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823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824	말같지도 않은 집게손음모론에 더 이상 휘둘리지마십시오. 특정 커뮤니티 여론 따위에 쟁쟁한 기업들이 놀아나고 있다는걸 왜 모르십니까? 제발 그만 휘둘리시고 헛된 인력 낭비 마십시오.
825	확률아이템 문제에는 한달 넘게 이야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렇게 빠른 반응도 보일 수 있었구나
826	게임을 남자만 하냐
827	일부 이용자의 억지 주장에 한없이 낮게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들만이 당신네 고객인 게 아닙니다. 무고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828	악성 민원과 같은 극단주의자 인셀집단의 말에 휩쓸리지말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829	게임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만의 하위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종합예술입니다. 사람의 손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이며 관절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었을 때 엄지와 검지가 서로 구부러져서 만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을 어떤 신체 부위가 '작다'고 특정 집단을 조롱하고 혐오하려는 의도라고 망상한다는 것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초 성향의 게임업계가 이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서 손가락이 부자연스럽게 펼쳐진 기괴한 자세로 수정한 일러스트가 급증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니 여성혐오적인 남초 게임 커뮤니티가 개인의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체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우려합니다. 또한 '급진 페미니즘 또는 남성혐오' 성향을 갖고 있다고 지목되어 해고당한 화가들의 과거 '급진 페미니즘 또는 남성혐오' 발언 내역을 살펴보아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지극히 아무 문제 없는 발언뿐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발언이 문제라면, 남초 커뮤니티의 입맛에 맞도록 스스로의 평소 정치 성향을 억압하고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도 분노하지 않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가볍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성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손가락을 곧게 펴야 하는' 것과 '여성이 당하는 폭력을 못 본 척 해야 하는 것'을 모두 단호히 거부합니다.
830	해외 공지를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게 맞다
831	각성하거나 멸망하라
832	그들이 주장하는 혐오표현이 진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었단 심증이 아닌 물증을 제공하라, 주장은 증거가 아니다. 비슷한 일이라고 표현되는 일베 표현 검열건은 유저의 인증글이나 우연으로 보기 만들기 힘든 동작과 고인능욕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검열된거지, 심증만으로 검열된 것이 아니다.

833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흔한 제스처이고 애니메이션업계에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억지주장에 굳이 손을 보태주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정도로 오래 사랑했던 게임인 만큼 용서하기힘듭니다.
834	저 포함 많은 여성 개발자 지망생들이 게임 업계를 포기하게된데는 현 업계의 차별적 구조가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소속 직원이나 하청 업체들을 보호할 생각도 없고 사이버불링에 적극 노출 시키는게 2023 년에 일어난 일이라니요.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에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835	그동안 게임업계에서 묵인해온 수많은 여성 성적 대상화와 여성 비하, 혐오를 끊어낼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836	게임은 문화다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귀사가 제작하는 그 어떤 게임의 메세지도 이젠 와닿지가 않네요
837	이런거 했다고 유저간의 소통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함
838	오답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랍니다
839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컴퓨터로 몇자 타닥타닥 입력한 말도 안되는 불만에 누군가는 잘리고 작업물이 내려간다는게 정상인가요? 일베논란은 먹금하면서,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에는 응대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840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충족시키기위해 억지 혐오주의를 내세우며 본질을 흐리는 일부 사용자의 말만 듣고 부당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탄해야합니다.
841	그 주장을 하는 메신저들이 평소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인지 게임회사가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확대하는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42	이것은 사상검증 축에도 못 끼고 일방적인 여성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며, 여성혐오이자 노동자 권리에 대한 탄압입니다.
843	시대에 역행하는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844	싸이버 불링과 개인 sns 털이를 이용해 얻은 정보와 억지로 의미 부여를 진행한 스포츠 같아버린 사상 검증으로 인해 외주업체에 대한 행위는 대기업의 갑질로도 보일 수 있는 행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면 게임업계는 여성 유저 뿐만 아니라 여성 업계인들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진심로 세상 모든 여성들을 유저와 업계인으로써 제외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된 절차와 상식을 기반으로한 사업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계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있을때 그와 같이 행하는 지 파악하고 직원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로 가는 것이 게임업계를 위하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845	영원한 불매만이 있을 뿐. 끝까지 가봅시다.
846	상식이없냐
847	페미니즘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848	집게손가락이 혐오라면 당신들이 그런 사상과 열등감을 가진 겁니다. 집게손가락이 불만이면 지금 손을 들어 당신의 엄지 검지를 자르길 바랍니다.
849	정말로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넥슨에서 애플도 불매하셔야 겠군요.

850	이번 논란이 된 손 모양은 평소 일상 생활에서 편히 쓰는 손동작 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고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해당 손동작이 '아예' 나오지 않는 곳은 없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든 집게 손동작을 찾아내서 규탄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한 번 허용되면 이후에도 '누군가를 치우고 싶을 때' '흔한 집게 손동작'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행위는 반복될 겁니다. 더불어 페미니즘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같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양성평등을 지지한다는 생각 정도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일에 일베가 자주 비교되고는 하는데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일베의 손동작은 일상에서 표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두번째, 일베는 실제로 유사 범죄가 일어났던 사이트라 특정인들을 가려낼 수 있지만,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혐오표현을 지지하는지, 범죄에 참여했는지 등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 이번에 논란이 된 손동작은 굉장히 일상적이라,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모든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페미니즘은 규탄 대상이 아닙니다. 워마드나 일베처럼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문제 삼으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개인의 가치관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851	말도 안되는 요구를 빙자한 협박을 일삼는 소비자들에게 쉽게 휘둘리고 조종당하는 업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852	말도 안되는 억지에 휘둘려 아무 잘못없는 직원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짓을 그만두세요.
853	개인의 생각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54	확률조작등의 중요한 사항을 블랙시 컨슈머의 난동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55	양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노동권 교육 좀 받아야 될듯
856	하루 빨리 비정상적인 업계가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857	집단으로 괴롭히면서 노는 짓은 초등학교에서 졸업하셨어야죠.
858	여성을 프레이밍하는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859	넥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넥슨에는 이제 누가봐도 이상한 사람들만 남을 것입니다. 여자를 혐오해도 신경안쓰는 여자들, 여자혐오에 앞장서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남자들. 이제 이 둘을 만족 시키기 위해 넥슨은 앞장서서 더욱 여자를 혐오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저들에게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으로 난리지만 나중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열이 들어갈것이며, 별 것도 아닌것에 페미다 남혐이다 드러눕겠죠. 그러는 와중에 서서히 정신차린 유저들은 넥슨을 떠날 것이며, 넥슨의 컨텐츠는 더더욱 음침해질 것입니다. 앞으론 넥슨 게임하는 사람 = 제정신 아닌사람이 될것입니다. 세상에 게임이 넥슨 게임만 있나요? 예전엔 그랬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넥슨을 대체할 게임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탈퇴하는 유저들을 붙잡기엔 늦었습니다. 이대로 점점 침몰해가십시오.

860	얼마 전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야 했던 편의점 폭행 사건과 작금의 상황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논란에 대한 게임사의 대처가 오히려 저런 혐오를 기반으로 한 망상집단의 마녀사냥에 더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지요.
861	나는 페미니스트 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각 성별간의 격차를 줄이고 혐오에 반대하며 인간이 응당 추구해나가야할 가치를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한국 일부 집단들의 폭력적이고 말도안되는 지적에, 한국게임업계로서 대한민국인이라면 무릇 가져야 할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지 않고서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무고한 이들의 직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있는 건 사상검증이 맞습니다. 그 무게를 똑바로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은 일베, 디씨질(성희롱, 상습적 아청법 위반, 사이버불링, 고 노무현 대통령 모독) 같은 폭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하나의 뜻깊고 의미있는 폭력적이지 않은 정상적 가치를 검증함으로서 오히려 가해를 하고 있는 범죄자임을 자각하십시오. 부끄러워하십시오.
862	억지 논란에 굴복하여 또 하나의 어리석은 사례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863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탄압을 멈추고, 하청업체 꼬리자르기식 처리를 하고 있는 넥슨과 넥슨 김창섭 디렉터는 반성하고 여성 소비자에게 사과문을 써라
864	게임 플레이어 중에는 여성 유저도 분명 존재합니다. 남성 유저의 의견만 듣지 말고 여성 유저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스스로 여성 유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865	혐오에 놀아나는 게임회사, 넥슨은 재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866	애써서 그 표시로 손가락을 넣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867	개발자분들의 손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안으로 구부러지는지 밖으로 구부러지는지 자연스레 어느쪽으로 구부러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안으로 구부러지는게 사람의 손은 자연스러운건데 그렇다면 개발자분들도 본인들이 페미라는걸 수용하셔야해요 말도 안되죠? 저도 설마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해고하는 칼처리 할줄 몰랐네요 무려 넥슨이라는 대형 게임회사가 말이죠 고작 그 손동작으로 인해 sns 를 털어 사상검증을 하는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드네요 그리고 내부직원들도 사상검증 하겠단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이들이 넥슨에 취직을 하고 어떤 분야가 외주를 받고 싶어하겠어요? 분명 수틀리면 사상검증할게 뻔한 회사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비상식 고리타분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해외진출은 더이상 어려울겁니다 물론 주고객층이 남자라 생각하니 그랬겠지만 그 새벽에 급히 출근해 손모양 1 프레임 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이상하단 생각을 안했다는게 제일 놀랍네요 저도 오랫동안 마비노기 엘소드를 해왔던 유저로써 넥슨에 지른돈도 만만찮은데 참 허무감 드네요
868	2016 년 클로저스 사태로 시작해 당신들이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 부당해고의 포문을 열었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노동할 권리를 유저들 항의만으로 짓밟는 게임업계 고용 노동 문화를 생성하고 2023 년에도 지속한 책임을 져라.
869	한 쪽 편에 서서 혐오를 재생산하고 인정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870	넓게 보세요

871	당당하면 현재 한국어로 낸 공지 그대로 영문 및 각종 외국어로 번역해서 공지 내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가려고 하기는 커녕 인셀들과 같이 놀아나는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872	넥슨 게임을 오래해왔고, 그 만큼 애정도 있었던 유저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귀하의 회사에서 보여준 행보에 실망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운영진 살해협박, 성희롱 문제에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 논란에만 신속하게 대처하다니요. 심지어 환불사태라고 불리는 확률 조작사태때에도 입 다물고 있다가 후에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이번 사태때는 이리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그리도 여성 노동자가 우습게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873	0.1 초의 순간캡쳐에서 대단한 것도 아닌 손모양으로 뭔가를 찾아냈다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야말로 게임에 대한 애정이 없는 트롤링인데, 이걸 다 들어주다 못해 직접 사내직원보호를 포기하고 작업물에서 일일이 찾아내는 자원낭비를 하고 있다니 정말 넥슨 측에 이성적인 상식이라는게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네요. 이미 성우분 티셔츠 하나로 해고했을 때부터 그런 건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넥슨의 구질구질한 행보가 국산게임 전체에 남긴 먹칠이 아주 진하다 못해 악취가 진동하는데 게임유저들이 한국게임 등돌리는 게 놀랍지도 않고 당연하네요.
874	누군가의 생업에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은 필요없다.
875	집게손 피해망상을 실체화하는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876	넥슨은 애초에 메이플 같은 게임은 여성이나 아이들도 쉽게 게임을 접하며 게이머들의 확장을 원했기 때문에 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넥슨에서 하는 행보는 기껏 늘려놓은 자신의 게임시장을 다 갉아먹고 수익율을 강등시키는 일이다. 기업으로써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수익을 포기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성의 돈은 본인들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 돈을 원한다면 하다못해 모든 수익대상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기업으로써의 자세조차 망각한 실패한 잣대이자 행보이며 기업으로써의 정체성 마저 상실한 이도저도 아닌 돈 먹는 거머리로 변했을 뿐이다
877	클로저스 때부터 몇 년이 지났음에도 바뀐 것 없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최근 게임계에서 일어났던 림버스컴퍼니 여성 차별 등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한국 게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넥슨 측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닐 텐데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건전하고 차별 없는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오히려 넥슨 측에서 현재도 게임계에 만연했던 성차별을 부추긴 화근이 된 것은 아닌가요? 앞으로 게임을 제작하면서 외주를 넣게 될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도 이런 터무니 없는 근거를 주장으로 평범한 애니메이션의 동화를 제한하실 건가요? 펜을 쥐실 때, 밥 먹을 때, 젓가락질, 물건을 집어 올릴 때조차 스스로 인지하는 메갈이다, 차별이다 뭐니 하며 새끼손가락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 매우 통탄스럽다 말씀드리며 넥슨 측에서는 부디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78	어린애 때쓰는 것도 아니고 억지부리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넥슨 탈퇴했습니다.
879	페미몰이하며 즐기는 일부 네티즌의 생트집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 영업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대응해주기 바란다

880	인간이 손에 힘을 풀거나 다른 동작을 해야할 수 밖에 없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동작일 뿐더러 창작에 있어 미감을 고려해 나오게 된 동작에 대해 '유해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여성 및 페미니즘을 혐오를 부추기게 된 판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라. 해당 손동작은 사싱의 표현수단이 아니며 그와 동시에 페미니즘은 인권을 위함이지 혐오사상이 아니다.
881	쿠키런에서 작년 페미니즘 사상검증 및 불이익, 2 차 가해와 사생활침해를 당한 장본인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위협하는 게임업계 결정권자들과 안티페미니즘 유저들은 이런 행위를 멈춰야합니다.
882	게임을 문화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문화에서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윤리 위에 자본이 있지 않습니다.
883	여자도 직원이고 유저다
884	커뮤니티 분탕질이 무서워 실무자를 자르는데 힘을 실어주는 회사에 무슨 문화가 있고 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그간 홍어니 뭐니 온갖 일베, 디씨발 발언이 판을 칠 때에는 이렇다 할 메세지가 없더니 혐오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도 놀랍고요. 커뮤니티 한 번만 둘러봐도 정말로 그게 들어줄만한 억지인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부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885	얼마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정신 못차리는 게임 회사는 이제 좀 정신차리길...
886	21 세기에 좀 사세요 제발 게임을 관두는 이유가 오롯이 게임의 컨텐츠에 흥미를 잃음 하나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87	게임업계 고위관계층 여러분.. 제발 유해한 억지논란에는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888	게임업계는 직원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려줘야 합니다. 게임의 특성상 소비자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만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첫번째로 중요시해야하며 개인의 사상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게임업계의 혐오재생산과 게임을 하는 나이대에 맞지않는 야한 코스튬과 같은 것에대한 고민은 하지않은채 더 자극적인 것만 원하며, 게임의 발전을 막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여성혐오를 규탄합니다. 게임업계는 소비자의 의견을 잘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라는 단어를 오염해서 쓴것에 대한것도 사과하셔야합니다.
889	페미니스트가 대체 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기의 범죄자 집단도 아니고 서로 잘 살아보자고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뿐이지 않습니까? 이번 넥슨사태로 제 어린시절 추억이 더럽혀졌습니다.
890	작작했으면좋겠네요
891	정말 작은 듯
892	얼토당토않은 인셀남들의 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 부당한 차별과 억지 혐오에 동기화하는 것은 당신도 그들과 같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893	일부 인셀들의 그 어이없는 불만때문에 여성노동자가 일자리를 뺏기고 사라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894	시대에 역행하는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895	인셀 억지에 알아서 몸을 굽히며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선두로 실천 하는거 그만하세요

896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이다.
897	악성민원에 굴복함으로 여성혐오에 동조하고 부추기지마라 여자는 유저가아니냐
898	일부 유저들의 억지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899	노동자를 보호하고 즉각 노동자에 대한 사상검증을 멈춰라
900	게임이랑 상관없는 개인의 사상을 통제하는게 악성민원이라는 말 하나 못합니까? 똑바로하세요.
901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나 혐오주의가 아닌 인권사상이며, 귀하가 모호하게 주장하는 혐오적 표현과 관계가 없습니다. 용돈을 모아 재밌게 하는 넥슨게임을 위해 쓴 초등학생시절부터 직장인이 되어 퇴근 후 여가시간을 친구와 함께 게임에서 보낸 시간과 마음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대처로 다가와 크게 안타깝고 마음이 상합니다. 여성유저를 남성유저나 게임사의 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소통하는 유저로 보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게는 이번이 마지막 바람일 것 같습니다.
902	게임 업계가 대한민국에서 '업계', '산업'으로 남고싶다면 여성들만을 향한 의도적이고 비이성적인 악성 민원을 받아들이는 행태를 그만두어야한다. 넥슨과 게임 기업들은 전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성인지 교육과 국가에서 규정하는, 곧 새로 입법될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처벌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903	더 이상 업계 트롤러 및 블랙컨슈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904	첫번째, 사측/게임유저가 해당 회사 직원의 개인 SNS 를 사찰하여 검열을 통해 인사에 반영되는것이 과연 옳은것입니까? 해당 인사반영 혹은 징계건은 내부 규정에 기재되어있는 부분인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sns 내용을 확인 진행한 부분인가? 두번째, 집게손가락이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건을 집을때 그리고 손을 반쯤 펼칠때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쓰이는 자세이고 이는 수많은 일러스트 및 애니메이션 내에서 정말 자주 쓰인다. 억지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유저의 의견에 이렇게까지 신경쓰고 힘을 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세번째, 직원이 성소수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아이엄마이거나 미혼모이거나 그런부분이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것에 있어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직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네번째, "메갈리아 라고 불리던 커뮤니티 사이트는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아직까지도 운영중인 일간베스트 (속칭, 일베)와 관련하여서도 동일 사안을 적용한 이력이 있거나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905	억지논란 창조논란 멈춰라 내가 부끄럽다
906	기업이라면 마땅히 직원을 보호하라! 그리고 외주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907	바닥에 드러누워서 떼쓰는 몇몇 진상들 피하려고 했던 선택이 게임 업계를 비롯해 타 업계까지 얼마나 망쳐놨는지를 좀 보세요…
908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금'을 뜻하는 바디랭귀지가 대체 왜 한국 남성유저들 사이에선 남성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상징이 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세계의 사회적 합의인 바디랑귀지를 그들만의 망상으로 오염시키고 프레임 분석을 하고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시키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909	거의 평생을 넥슨과 함께하고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프로젝트문과 보낸 사람입니다. 게임도 오래 하고 과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저도 소비자층도 아닌가요? 저희는 멀쩡한 유저로 존재합니다.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910	넥슨은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추고 게임업계의 대기업으로서 상도덕을 지켜라
911	사상검증을 멈추고 기업으로서 취해야할 올바른 태도를 취해라
912	별 같잖은걸로 사람 일자리 그만 뺏고 성평등이나 실현하라
913	한국 게임이 중국 게임, 일본 게임에 밀리는 이유가 아주 자명한데 본인들만 모르셔서 안타깝습니다~
914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넥슨 게임과 함께 컸는데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걸 진지하게 받아주는 윗선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아둔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지... 한국의 게임 업계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게임을 좋아해 항상 한국 게임 시장을 응원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럴 가치가 없네요.
915	성평등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직원 보호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후진 기업은 사람들의 많은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916	게임문화를 양지로 끌고나오고 싶다면 본인 업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917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다 훨씬 더 중요한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것은 기업의 윤리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918	페미니즘은 성별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성별우월주의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919	언제까지 사회에 적응 못한 나쁜놈들 때문에 일반시민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 넥슨은 생사람 그만 잡고 올바르게 일해라
920	갈등을 조장하는 억지 논란을 멈춰라 뭐 눈엔 뭐만 보이냐
921	1. 일부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실재하는 현상이 맞는지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판단력을 기르세요. 2. 헌법, 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을 존중하고 준수하세요. 3. 2023 년의 한국은 성별, 성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지양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인권의식, 시민의식을 기르세요.
922	확률조작 등 실질적으로 유저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으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떼쓰기에 불과한 억지는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운영능력이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923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들어주고 해명한 자체가 게임업계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924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925	곧 망하길 기도합니다
926	억지논란에 굴복한 넥슨을 규탄한다.
927	대한민국을 가부장 독재 사회로 만들 겁니까? 부당한 사상 검증을 멈추십시오!
928	귀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귀사에서 나오는 모든 게임은 남자전용게임이라고 밝히고 런칭 하시길 바랍니다.

929	억지로 논란 만들어 사람 쫓아내는 꼴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화가 납니다. 유저들 돈으로 한다는 게 갑질인가요? 이번 논란은 게임 외적 홍보 컨텐츠였으나, 이 업계에선 대기업조차 일부 유저의 의견에 갈대처럼 흔들려 게임 컨텐츠까지 바꾸는 게 일상다반사니 저 같은 여성 유저들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가 제 돈 내고 게임을 하는데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요. 일부 진상의 의견만 중하던가요.
930	이 건은 명백하게 남성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시킨 여성혐오 사건이다. 여성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게임업게 규탄한다.
931	어린시절부터 즐겨하다 최근에 제대로 하게되어 유니온 8600 이라는 숫자도 찍고 상위보스라고 부르는 듄켈까지 갔는데 손하트를 하다가 나온 우연한 행동으로 사죄를 하며 굽히다니요.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빼큐 손가락욕은 모든사람이 의미를 할지만 집게손에 대한 의미를 저는 이번일로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대중성이없다는 뜻이지요.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만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라며 이슈라며 하는건 하나의 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932	게임업계의 당연시 되는 사상검증 및 직원 괴롭힘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업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933	사상 검증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노동자를 탄압하지 마라.
934	게임 업계는 안 그래도 좁고, 폐쇄적이고, 끔찍하게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책임감도 없고, 여성 사원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미성숙함까지 갖춘 비정상적인 업계와 기업이 된 것에 대해 축하하는 바임.
935	한국 게임업계 현실이 정말 한심합니다
936	집게 손에는 특정한 층을 비난하는 의도가 아닌 전세계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집는 자세중 하나이며 페미니스트들의 사상 강요의 도구가아닙니다
937	넥슨은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 제대로 처신하세요
938	오히려 페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악용해서 여성을 억압하려는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넥슨은 남녀차별을 지지하는것인가요?
939	성별과 관계없이 마음 편히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940	인셀들의 억지에 선동됐건 미흡한 운영에 대한 제물이건 이럴 거면 처음부터 여성 유저 안 받는다고 하세요.
941	페미니즘의 본래 의미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길 바라는 사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으로, 사상으로 바뀐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이번 집게 손과 비슷하게 억지로 밀어 붙여 그 의미가 변질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말 자신이 모든 인간의 평등을 지지하는 지성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남성의 인권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뿐, 그것이 남성의 인권을 낮추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집게 손을 남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불거졌던 허버허버, 오조오억번과 같이 터무니 없는 해석으로 탄생한 억지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논란을 천천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추는 걸 시작으로 다시는 같은 억지논란이 나올 수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42	특정 한 집단에게만 치우치지말고 운영을 해달라
943	말도 안되는 선동으로 여성의 생계를 위협하지마세요.
944	어릴 때부터 게임은 문화예술이다 라는 말을 가슴속에 품고 십몇년을 살았는데 지금 저 목소리만 크게 내서 억지를 부리고 게임 유저와 회사를 말려죽이는 메뚜기떼같은 집게손 집착꾼들 때문에 게임은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모욕과 억지 사상검증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메뚜기떼같은 인간들은 심심하면 게임개발자들을 괴롭혀 말려죽이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게임과 문화예술을 고깝게 보고 게임은 질병이며 사회악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게임계 탄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사람들과 일부 진상 트롤러들에게 먹이를 바치고 선량하고 악의없는 작업자 동료들을 욕받이로 내모는 건가요? 넥슨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945	성차별 문화 개선해주세요
946	사상검증 철폐하라
947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의 미래는 없다
948	천지분간없이 휘둘러지는 여성혐오가 모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한시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949	남초커뮤니티 유저들의 애니메이션 동화 1 초도 안되는 프레임 단위로 멈춰가며 하는 억지주장을 더이상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억지 우기기를 스포츠처럼 즐기면서 여성종사자만을 겨냥해서 혐오할 뿐이며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결국 게임업계를 망하게 만듭니다.
950	이렇게 일방적이고 억지 주장에 흡사 번개와 같은 속도로 새벽에 공지를 내고 라이브 방송을 할 시간에 필수적인 오류나 기타 문의사항에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대처하길 바랍니다.
951	방구석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이들의 망상을 들어주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자신들을 위해 일해주는 이들을 감싸주지 못하는 법인은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952	정신차리세요
953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는 현 사회의 주범 넥슨답네요.
954	넥슨의 무식함에 놀랐습니다
955	대처가 매우 실망이다 넥슨 게임 어려서부터 많이 했는데 퇴물된거 같다
956	넥슨 대표는 사퇴하라
957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것은 자신이 성차별자라는 뜻입니다. 게임업계는 실체없는 페미몰이 성차별을 멈추길 바랍니다.
958	게임업계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노동자 보호릉 철저히 하십시오.
959	13 살때부터 넥슨 게임과 함께한 여성 유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집게 손가락이 문제'라며 새벽에 직원들을 출근시켜 일일히 지우게 하고 문제되는 장면을 들어낸 당신들의 노동자 취급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게임업계에는 노동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돈을 벌기위한 생체 도구만 존재하는 모양이군요.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의 암담한 미래가 너무나도 착잡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마세요.
960	일부 인터넷 악성유저한테 그만 좀 휘둘리세요 없어보입니다

961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채 외주 작업자,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협력 업체 등 취약한 대상을 제물로 바치는 꼬리자르기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녀사냥이며, 현재는 2023 년입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으시다면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이밍 대신 정확하게 '페미니즘'을 언급하시고 그 입장을 글로벌 시장에도 표명하세요.
962	집게 손가락 모양에서 억지스러운 주장에 맞춰 노동자를 억업하는 기업에 개탄합니다. 나아가 이것을 빌미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의견을 남깁니다.
963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주제가 아니며 여성의 인권을 하대하지 마세요
964	국제적으로 한국 게임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현재 국제적 흐름과는 반대로 성차별주의자들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 망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965	더 이상 억지논란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며 앞으로의 게임 산업을 위해서도 이 논란을 받아드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966	한국 게임은 여자를 사람취급도 하지 않으니 한국 게임은 소비하지 않겠음.
967	해당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11/25 까지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하던 여성 유저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만들어진 이슈와, 성평등을 혐오주의 사상으로 인식하는 운영진들의 판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더는 넥슨 게임을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968	지금의 사태는 지난 7 월 다른 게임 회사(프로젝트 문)에서의 부당 해고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일자리를 앗아가는 몰염치한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그럼에도 넥슨을 포함한 여러 게임 업계는 사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압박을 가하는 공지가 당연하다는 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사태를 키워낸 커뮤니티의 남성들은 애니메이터 다음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성우, 게임 행사 관계자, 서브 컬쳐와 관계된 직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밤 늦게 게임 업데이트와 관련 없는 공지를 올렸던 넥슨은 필히 이 사태의 여파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9	2016 년 이후 7 년이 지났습니다. 대체 왜 아직도 그대롭니까. 진짜 중요한 목소리는 듣지도 않으면서, 근거 없는 악성 민원에만 반응하는 것. 그래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업계는 다르지만 프리랜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쯤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다 사람 죽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진짜.
970	여성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업계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971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972	일부 유저들의 망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혐오 조장 행위입니다.
973	여성유저들을 무시하고 운영하면 시대에 뒤쳐지고 도태된 게임업계가 될 것이다.
974	이번 집게 손 억지 논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평생 치킨과 과자와 기타 집게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일절 먹지 아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975	그 성별의 기분을 어디까지 이해해줘야합니까

976	집게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며 제시된 사진들은 집게손조차 아니었습니다. 이런 억지를 받아준 것이 황당할 뿐입니다
977	일부 악성 유저의 억지뿐인 손가락갑질에 기업이 굴복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림버스컴퍼니 사태로 게임업계 특별근로감독이 예고된 지금의 상황이라면 더욱이요
978	부끄러운줄 아세요.
979	없는 논란을 만들어내 테러를 하는 쪽은 열심히 작업한 작업자가 아닌 디시와 일베와 축을 함께 하는 남성들임을 확실히 하길 바람.
980	모든 종류의 혐오에 반대한다는 넥슨이 왜 현재 일어나는 여성유저에 대한 혐오는 눈 감고 무시하십니까? 그 손가락이 억지라는 것을 아시는 데도 굳이 일부 남성들의 물타기 여론에 동조하는 것은 넥슨 또한 그 일부 남성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981	일부 남성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들어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982	지금 이 행태를 외국에도 알릴 수 있을정도로 떳떳하신가요? 스스로 이 모든게 논리적인 흐름인지 자성해보시길 바랍니다.
983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으면 좋겠네요. 한 두번도 아니고.. 게임하는 유저가 남성밖에 없다, 게임에 돈 쓰는 건 남성 뿐이다 라는 생각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게임에 돈 쓸 때는 일시적으로 남성이 되나요? 여성들도 편하게 게임하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남성 유저들 때문에 불편한게 한 두개가 아닌데, 게임 업계 직원들까지 이러니 정말 게임에 정떨어져요.. 제가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 좀 남겨주세요.
984	평생 이용 할 일 없습니다
985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넥슨과 현 게임업계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당한 처우는 대한민국 게임업계 전체에도 악영향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피해망상과 혐오에 사로잡혀 무고한 직업인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986	페미니즘 백래쉬를 멈춰라. 과대표된 억지주장에 끌려다니지 마라.
987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988	여성혐오적 캐릭터 디자인, 대사, 스토리만으로도 끔찍한데 여성유저 멸시에 이어 여성 업계인 사상검증까지 이어진다면 한국 게임을 플레이할 여성 게이머는 없다
989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검열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혐오가 이루어지는 게임업계의 문화를 바꾸고 상생하는 게임업계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990	넥슨에서는 인셀들 0.1 초 억지 트집 하나면 노동권 무시하고 사람을 자를 수 있나 보네요. 방구석에서 그림찾기 한번이면 기본권리도 무시하고 사람 밥줄끊는거 보니 넥슨 최고 권력자는 인셀이군요!
991	남성 우월주의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업계의 유치하고 우스운 뻘짓 이제 그만할때입니다
992	게임업계는 비합리적인 공세에 맞서 노동자를 보호하라

993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사과하고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 운영 문제(게임 내 성범죄 방조, 아이템 사기,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괴롭힘등)에는 무응답이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논리적으로도 맞지않는 억지에는 총알같이 응답하시네요. 여성 유저도 유저고, 여성 개발자도 자회사에서 보호해야할 직원입니다. 더군다나 게임업계 대기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도 모자랄판에 직접 나서서 억지 주장에 손을 들고 있으니 이제 여성이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겠네요.
994	몇몇 몰지각한 유저들에게 놀아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고 말 겁니다. 전세계의 게이머와 시민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지켜 본다구요.
995	하루이틀 바라보고 이 업계 선도 하나봐요?
996	성차별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 한 불합리한 악성 민원에 굴복하여 소중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도태되어 스스로 업계의 위신을 떨어뜨린 그 행태를 규탄한다.
997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사내 성차별과 그로 인한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행위를 멈추시오
998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손놀림에 노동권이 불법적으로 유린되고 박탈당하는 현 상황에 비참함을 금할 길이 없다.
999	애니메이터 지망생이자 현직 애니메이터들을 주변에 둔 사람으로서 말도 안되는 논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손모양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든 없든 간에 의도되었다 라는 전제부터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요? 자그마치 10 년전 20 년전 어느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찾아봐도 비슷한 손동작은 있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해외 타 게임의 애니메이션에도 비슷한 손동작은 분명히 있었는데 스튜디오 뿌리에게 잘못을 묻는건 명백히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1000	억지 주장에 손을 들어줄수록 한국 게임업계는 퇴보할 것이다.
1001	기업으로서 사원 보호에 앞장 서고 되도않는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합니다.
1002	디시일베에 휘둘려 여성혐오를 일삼는 넥슨은 시정하라
100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몰아가는 사상검증과 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넥슨은 정신 차려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004	메이플 인벤에서 게임 내 여성 npc 및 캐릭터들을 상대로 성적 희롱이 가득한 그림은 왜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1005	여자를 사람으로 안 여기는 나라와 사회는 망해야합니다.
1006	혐오에 가장 앞장서는 회사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1007	2023 년에 마녀사냥이 말이 되나요.
1008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을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잠재울 생각 마세요. 상식인은 해당 손동작을 의도된 동작으로 착각하지 않는걸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당장 림버스 사태를 보더라도 비상식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곧 회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자살행위입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1009	억지 논란을 계속 들어 주고만 있는 넥슨의 행동이 성차별을 더욱 더 공고하게 한다

1010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혐오몰이자들의 말을 왜 들어주는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집게손’에 문제를 삼는건가요? 모든 집게손을 삭제하고 주먹만 쥐고 다니시길.
1011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노동자 권리 침해일 뿐더러 회사도 손해다. (집게 손가락 검증 등 불필요한 인력 낭비)
1012	억지논란을 수용해 사상검증, 노동자 탄압을 하는게 넥슨을 포함한 게임업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처방법인가요?
1013	사상검증에 의한 부당해고 및 부당한 징계를 규탄합니다.
1014	못 알아듣겠지만, 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면 작작하세요.
1015	억지논란 그만두고 사상검증 중단해라!!
1016	억지논란이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주장 해야한단 사실이 비극스럽습니다.
1017	게임업계는 혐오의 정수이자 사회에 혼란을 조장시키는 인셀의 말에 귀기울여주지 말아라 그들의 기분이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1018	게임업계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동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1019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의미한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혐오를 스포츠처럼 자행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1020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걸 빌미로 직원의 일자리를 자르지 마세요
1021	어째서 그림관련직업군에종사하는사람들이 전부 힘들어질걸 알면서도 그런짓을하셨습니까?
1022	인셀들의 항의가 전부 옳지 않습니다. 클레임이 들어온다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1023	여성혐오 그만해라
1024	글로벌 서비스가 하고 싶으시면 글로벌 트렌드라는 걸 파악하십시오. 언제까지 지금같은 치졸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화제를 돌려막기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1025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실체없는 주장에 근거한 혐오문화를 근절해야한다.
1026	개인의 사상을 빌미로 이뤄지는 부당해고에 대해 규탄합니다

1027	이런 식의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취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전에 있던 림버스 컴퍼니 게임 건도 정작 이슈가 되었던 (일명 메갈리아 손가락 그림자를 넣어 사상을 어필했다는) 일러스트는 남성이 작업했다고 하니 다른 사람을 찾아서 스토리 일러레분을 끄집어내 불법촬영시위 트윗에 태그 됐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것과 저는 크게 결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넥슨은 기업이고 무분별한 테러에는 적당히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잖아요. 분명 클로저스라는 뼈아픈 선례를 겪고도 왜 바뀌는 게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차라리 아예 대응을 안 했다면 우마무스메나 뱅드림처럼 조용히 지나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대응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응 해주는 기업들에게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게임 시장에서 있던 일이 지금 애니 시장에도 퍼진 것이기에 이런 악성 논란을 우리의 추억으로 가득찬 게임을 개발 해주던 넥슨이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028	손가락그림으로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는 유저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일을 당장 멈춰야한다.
1029	게임업계에서 여성노동자를 페미니스트라며 부당해고 하는거야말로 잘못된 사고방식
1030	근거없는 혐오몰이 및 논란제조를 멈추세요.
1031	개인의 사상의 문제로 직업을 그만두게 하고, 정당치 못한 일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수 없는 게임업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032	1 프레임 나노에 사상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로 그게 페미니즘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들의 사상이 투영된거 아닐까요? 어째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시는지 그럴 권한이 있다고 봅니까
1033	사상검증 철폐하라
1034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상도 탄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1035	클로저스 성우분 교체 이후 넥슨의 행보에 실망하고 탈퇴했는데 여전히 변한점이 없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넥슨 산하의 게임은 소비하지 않을것이며 주변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널리 알리겠습니다.
1036	일부 남성 유저의 여론몰이로 여성 유저와 창작자, 직원을 향한 불합리한 처사를 멈춰 주십시오.
103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1038	남성유저의 의견은 바로 들어주면서 여성혐오 관련한 것들을 무시하는 넥슨은 반성하세요
1039	망상으로 제기한 악성민원을 받아주고,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을 사실처럼 만들며 혐오를 부추겨 양상하는 짓을 회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0	실상 대규모 게임업체측에서 페미니즘에만 사상검증에 동의한 사례가 있다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보다 작은 기업인 스튜디오 뿌리에서 낸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인간으로서 상대가 가족, 친지라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41	제가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던 걸 좋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1042	클로저스 성우 강판 사건이 지난지 한참 지났음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하는 넥슨과 업계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네요...
1043	언제까지 이런 억지 주장에 휩쓸려 회사의 중요한 자원을 소모시킬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힘을 실어주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 색출해야 할 사상이 아닙니다!
1044	제발 정신 차려라. 일부 몰상식한 유저들에게 끌려다닌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1045	게임업계에 엄연히 여성 유저들이 소비자로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남성(인셀) 유저들의 의견만을 무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억지 의견을 남성혐오 표현이라 곡해하며 멀쩡하게 일하던 여성 창작자들을 해고하고 창작판에서 배척하는 것, 그러면서 엄연히 게임 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혐오 표현, 마케팅, 남성유저들의 성희롱, 패드립, 욕설 표현에는 방관하는 행위 모두를 규탄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성별이 중요합니까? 모든 유저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고, 일부 인셀 유저들의 무지성 억지에 더 이상 반응하지 마십시오!
1046	제발 정신차리시고 게임 좀 편하게 하게 해주세요.
1047	당신들이 편하게 운영하고 싶다고 어이없는 땡깡을 들어주고 사람을 함부로 자르는것이 몇번째 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쇼.
1048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도 어이가 없습니다. 고작 '놀이' 수준에 불과한 것을 논란으로 키우는 것은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이 아니라 바로 넥슨입니다. 성별에 관계 없이 함께, 동등하게 살자는 페미니즘은 검열의 대상조차 될 수 없으며, 설사 의도한 손짓이었다고 한들 그것을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성 제작자, 여성 유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남성 유저를 끌어들일 미끼나 물품처럼 취급해오던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한국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 넥슨이 고작해야 평등을 반대하는 찌질이 집단이라는 점에서 큰 유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여성들을 몰아내고서는 게임은 남자의 전유물이라 주장하는 머저리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1049	일부 남성의 피해망상적인 말도 안되는 민원이나 항의를 받아주는 최근의 게임사들의 행태에 한숨만 나온다.
1050	남유저들이 여자유저 조롱하는말은 해도 재제가 없다가 남유저들의 억지는 다들어주는가
1051	.
1052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고, 확증도 아닌 사안으로 쉽사리 여성들의 생활 환경을 파괴해버리는 야만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당신들이 재미로 하는 행위가 지금은 타겟이 여성이겠지만, 여성 다음은 누구일 것 같나요? 본인들이 언제까지나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선 당신은 반드시 약자가 된다는 걸 마십시오.

1053	언제까지 유아적으로 그저 떼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을겁니까. 게임과 관련없는 민원 및 그저 때려맞추기 식 악성 민원으로 노동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마시고 진정으로 혐오를 멈추지않는 집단에게서 유저들을 보호하십시오.
1054	일부의 세계를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055	그저 논란 잠재우기 용으로 인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라면 너무나 안일한 대처고, 정말로 동조하여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거라면 귀사가 성차별 기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적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1056	글로벌 투자기준에 맞지않는 시대역행적 행위 그만둬라 나 주주였는데 너희들의 반 esg 적 행태에 기관투자가 어렵다는점을 확신했다 금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않는 페미몰이 그만둬라
1057	한심합니다. 말도안되는 억지 부리며 여성 죽이기를 스포츠처럼 즐기는 꼴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058	넥슨을 비롯한 한국 게임 업계는 노동권과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게임 업계 전반을 파멸시킬 혐오 세력의 준동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1059	넥슨 및 게임업계가 악성 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귀기울이고 이를 즉시 반영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 악성 유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하청업계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업계의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악성 유저들의 손을 들어준 넥슨과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길 바란다.
1060	넥슨 및 게임업계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여성 유저도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1061	정신차려라
1062	무분별한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말고 여성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십시오. 그동안 게임 내적, 외적으로 있었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슈에는 중대한 사항이 아닌 척 잠자코 있던 게임 회사들이 여성혐오몰이에는 "빠른 피드백"을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1063	억지 논란으로 사상검증 및 페미니즘 혐오 부당해고는 명백한 범법행위 입니다. 이 유저들이 만들어낸 논란은 피해의식입니다.
1064	억지 좀 받아주지 마세요
1065	넥슨은 수년 전 티셔츠의 문구부터 시작해서 손 모양 따위를 문제 삼은 남성 커뮤니티 유저들의 억지스러운 악성민원들을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받아줌으로써 게임업계의 여성 창작자를 향한 검열이 만연하게 했다. 게임업계에 뿌리내린 이 악습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66	왜 제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거죠
1067	일부 커뮤니티 쪽의 억지 논란만 듣고 수용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68	도태남들 인셀남들의 진상을 받아주는 수준이 참담하다
1069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는 대기업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1070	손가락 문제를 제기한 일부 유저를 빌미로 넥슨이 여성 탄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여성 탄압 행동 규탄한다.

1071	직원의 존망이 유저의 억지 논란에 의해 흔들리는 업계에 두려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1072	논란이라는 말로 혐오에 편승 말라!
1073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에 제대로 사과한다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저 아직 이 게임들 사랑해요 저의 어린 시절을 책임져왔습니다... 넥슨 게임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제발 판단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74	여성혐오적 일러스트 제작을 중단하라
1075	명확하지도 않은 고작 인터넷에서 떠도는 허위망상글로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더 나아가 잠재적 여성인력들에게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게임업계의 태도 잘 보았습니다. 21 세기의 나라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회사의 행보가 전세계적으로 옹호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1076	게입 업계면 재밌는 게임을 만들지 저들의 '여성을 공격하는 게임' 에 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1077	게임업계를 포함하여 모든업계에서 사상검증으로인한 사이버불링과 부당해고는 없어야합니다.
1078	사상검증 반대
1079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사과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게임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있으면 저랑 다른 상식을 가진 다른 세상인거 같아요
1080	과다표출된 소수 소비자의 의견에 휘둘려 고용노동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는 그만하세요. 줏대도 없습니까? 한심해요.
1081	기업은 기업답게 적정유지라는게 필요합니다. 일부 유저에 말도안되는 혐오 몰이에 휘말리지말아주세요.
1082	게임 업계는 사내에서 성평등 교육과 사회공동체 교육을 받지 않는 건가요? 논란이 생겼다면 그 논란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여성이라고 목소리라고 단지 그림 몇개라고 바꾸는 값이 더 싸다고 여겼다면 그 어쭙잖은 억지논란에 다음은 남성 동료를, 팀장을, 다음엔 사장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억지 논란에 대해 피해입은 분들에게도 제대로 사과하세요. 당신들이 어쭙잖은 억지 논란으로 AGF 게임 행사에서 급하게 빼버린 모델 한분은 지금 당신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된다는 사회적 증명서를 발급해준 덕분에 자신의 팬카페에서도 디씨일베 유저들에게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들어와 신나하며 인신공격 욕설과 2 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1083	한국내 인셀들과 손잡은 넥슨은 여성혐오 범죄를 선동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향한 혐오범죄를 부추기는 넥슨에 대한 국가작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1084	문제는 손가락 모양이 아니라 애먼 데에 의미 부여하면서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우기는 쪽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음. 관련 일로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길 바람.

1085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양성평등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페미니스트를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단순한 놀이 혹은 빈약한 자아를 위로하기 위해 무고한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은 더더욱 현대사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이 상황을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게임업계 내부의 천박한 사상을 가진 남성 근로자들 역시 동조하고 있으니 이 사회의 정의가 우려된다. 각성하라. 사죄하라. 보상하라.
1086	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 장난으로, 마녀사냥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에선 계약이 파기되고 직장인이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사안입니다.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대응한 여타 게임들은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1087	사상검증은 여성혐오다
1088	넥슨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인권평등적 사상을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아카라이브 등 일부 극단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곡해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기한 커뮤니티의 주장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의 것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조롱을 페미니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대 시민으로서는 너무나도 짧은 식견과 부족한 지식의 폐해입니다. 20 년이 넘은 긴 시간동안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의 입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기업 중 하나인 넥슨이 편협한 사고를 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1089	페미니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수용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1090	진심이냐...... 엄지 검지로 하는 흔한 동작이 남혐이라고 생각하냐..... 돈 때문에 정의도 노동법도 버리냐....
1091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굴복하여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받아주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모양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모양이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사상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을 멋대로 판단하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개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가 아닌가요?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참담합니다. 어쩌면 헌법 2 장 11 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1092	넥슨 메이플스토리는 여성혐오를 멈춰라
1093	넥슨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고용자의 생업을 쥐고 흔드는 만행을 멈추기 바랍니다
1094	넥슨은 검열을 멈춰라
1095	여성을 혐오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악을 쓰고 트집을 잡아봤자 결국 여러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에서도 낙오될 뿐입니다
1096	여성혐오와 사상검열이라는 업계의 걸림돌 선례를 남긴 것을 규탄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국 게임계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1097	게임내에 여성혐오적 발언이나 행동은 무시한채 지내오면서 이번 말같지도않은 집게손가락(하트를표현한) 등 의 남성유저의 진상문의를 진상이라 하지못하고 받아 들인것에있어 여성게임유저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1098	진심으로 집게손이 페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의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싶네요
1099	진상집단의 테러놀이를 수용하는 행태는 해악일 뿐입니다. 테러 집단의 진상짓을 고객의 소리인 것처럼 받아줘 여성 및 노동자의 권리를 해치는 게임을 어떤 유저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핑계로 언제 사이버테러를 일으켜서 서비스에 제약을 걸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또 직원을 자르고 업무를 정지시키고 올렸던 창작물에 일일이 의미없는 수정을 반복할건가요? 그런 광경을 계속해서 봐야합니까? 진상은 고객이 아니고 유저가 아닙니다 진상짓을 수용하지 마세요. 테러놀이에 동조하지 마세요.
1100	더이상 이런 비논리적인 사상검증 및 색출을 그만 보고싶다.
1101	2023 년에 아직까지도 이런 시대퇴보적인 사태가 버젓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게임계 대기업의 작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은 유저들끼리 행복하길 바랍니다.
1102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도, 정상적인 대처도 미흡한 기업의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비단 성평등에 반하는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닌 모두 어우러지는 사회에서 구성원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처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더 ㅚ악의 길을 걷기 전에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응답하세요.
1103	비정상적이고 근거 없는 억지 논란에 무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노동자를 탄압하며 갑질하는 행태가 끔찍합니다. 제발 상식적인 사고로 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억지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주십시오.
1104	게임의 진짜 문제를 덮기 위해 집게손 몰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멈추고 게임의 진짜 문제점들을 고치길 바랍니다. 자극적인 이슈로 게임의 문제점을 흐지부지 덮어두기만 하는게 뻔히 보입니다. 작작해라.
1105	게임업계와 남초문화가 아니었으면 응당 일어날리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에 대해 확실한 입잡표명과 상식적인 대처 바랍니다
1106	억지스러운 의견을 받아들이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동자를 마녀사냥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1107	여성 혐오, 여성 차별을 멈춰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 공부 좀 해라. 게으른자들아

1108	차별과 혐오를 규탄합니다. 현재 넥슨에서 취한 조치를 비롯하여 타 게임사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사실상 일부 유저들의 혐오 행동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김창섭 디렉터는 모든 혐오와 차별이 없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것이란 발언을 하였는데, 발언 자체는 좋은 문장이나 사용한 상황은 너무나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누구보다 차별에 앞서는 일부 유저들의 목소리만을 듣고 그에 따르면서 차별을 운운한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며, 또한 이미 게임 내에선 외국인 차별, 성별 차별적인 발언이 만연해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무런 제지 없었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차별에 반대하고 공평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본인들의 대처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후 게임 내에 만연한 차별 발언 및 게임 용어부터 고쳐나가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또한 게임 업계에 전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게임 업계도 변해야합니다. 예전처럼 여성 차별적인 발언, 외국인 혐오,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이 만연한 시대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에 멈춰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겠다면 하다못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저들이 내뱉는 차별에 대한 비판과 혐오에 대한 지적을 경청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1109	넥슨이 일부 집단의 집단적 망상에 쉽게 휘둘리는 기업이라면, 메이플스토리가 그런 기업이 만든 게임이라면 나도 필요 없다.
1110	작작해…
1111	업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한국의 게임산업 선두주자 대기업이 지난 2016 년부터 7 년째 바뀐것 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어처구니없는 혐오표현을 무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마녀사냥을 하는 일이 업계 전반에서 일어난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감이 안옵니까? 혐오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준단말입니까? 이런 대처는 당신들 기업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은 한국게임의 해외진출을 어렵게 만들 뿐이며 한국게임업계의 고립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더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지목한 그들은 유저 대표도 아닙니다. 일개 커뮤니티의 의견을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만약 앞으로도 일련의 사태가 지속해서 일어난다면 넥슨의 내부에 혐오를 조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단체가 있는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명의 게이머로써 이 일을 절대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앞으로 한국 게임업계가 건전한 문화를 이룩하여 보다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1112	정신 차리고 바보같은 행동을 멈추십시오.

1113	일부의 의견이 과대표되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이머의 존재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논란 속에서 정당한 징계위원회의 발족 및 징계 절차 없이 무조건적인 소위 ‘꼬리 자르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노동상황 역시 규탄합니다.
1114	갑질 그만하고 악성민원의 떼쓰기를 그만 받아주고 게임업계 문화 자정에 힘써라
1115	게임 내 사상탄압 및 악성민원을 대응하지 마세요.
1116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1117	죄송하다가 불미스럽다고 한 그 손동작이 잘못되었다면 세계 각지에 있는 미디어 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동작도 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뿌리측에선 아니라고 했고 그 직원도 작업에 선택권도 없으며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아무리 그 직원이 그런 의도를 SNS 에 표출한 했다한들 상업적으로 내는 작업물과는 공과사를 구분지어 다르게 봐야하지 않는가!!
1118	"문제"를 문제로 접근하라! "생떼"를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적극적 검열을 일삼는 현 메이플 디렉터 김창섭과 네오플 임직원은 사과하고 해당 공지 수정하라!
1119	넥슨과 네오플은 유저와의 소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게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소통'인지, 그냥 비위를 맞추기 위한 친목인지 잘 모르겠네요. 소통은 유저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편들어주기를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님을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1120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자신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왜 옳은지는 설득하지도 못하는 악성 유저층들의 의견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마녀사냥 당하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21	한 때 메이플을 했었고 게임을 좋아하지만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이젠 넥슨게임은 제 아이에게 추천하도싶지않은 수준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정신차리세요
1122	소위 '페미몰이' 를 하는 악성 유저들이 여성 캐릭터가 노출없는 수영복을 입는 데 반발하거나, 작업물의 손가락 형태를 문제 삼거나, 개발 작업에 참여한 이들 개인의 사상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은 정말로 그것들이 나쁜 상징이거나 작업자 및 작업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본질은 넥슨을 위시한 게임회사와 업계가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작 깊은 고민과 성찰로 임해야 할 운영 이슈들, 확률 조작 논란이나 부실한 운영 등에 있어서는 대응을 회피하기 일쑤인 게임회사들이 유독 페미니즘 문제나 여성 작업자 해고 및 작업물 삭제 등의 문제에서는 헐레벌떡 굴복하기 바쁘다. 이러한 넥슨 및 게임업계의 태도는 자사의 제품(게임)에 대한 자부심이나 책임감도 없고, 게임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도 없으며, 글로벌 게임업계가 보여주는 다양한 존중의 방식과 구성원 보호의 태도와도 역행한다.

1123	일부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근거없는 논란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지금은 여성혐오, 페미니즘에 관련된 사안만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집요한 화제들이 거론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게임업계는 게임 유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몇몇 극성 커뮤니티 유저에 의해 운영,관리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는 지속적으로 게임업계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회사가 가져야 할 방침은 의혹과 논란으로 게임과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저들의 의혹과 논란이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게임업계는 스스로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의 비위를 맞춰주며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서비스의 주 사용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용자들도 이러한 논리에 물들게 되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립니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사직당할 수 있는 회사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기 좋아하는 악성 유저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쥐고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넥슨은 이러한 위치에서 자신들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줘여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줄수록 모든 사건이 실제로 문제로 남게됩니다. 논란이 되고, 부당해고 사례가 생기며, 인재와 리소스를 잃고, 갈수록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 1 위 게임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만큼, 각성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1124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주의이지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집게손가락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혐오하고 갑질하는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125	일부 이용자 층의 악성 민원을 수용해 실재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들은 짧게 스쳐지나간 캐릭터의 손가락 움직임에 신경쓰지도, 이를 빌미로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1126	여성혐오와 상품화를 멈춰 주십시오.
1127	별 것도 아닌 거에 난리피우고.. 소란일으키고.. 그걸 또 넥슨은 부둥부둥 받아주고.. 꼴깝대잔치 볼만 했습니다. 그딴식으로 운영하지마시구요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좋으면 남성전용게임이나 쳐만드세요ㅋㅋ
1128	어째서 일하는데 더 많은 노동력을 들여 스스로를 검열하고 남을 검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계속이 만연한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1129	성평등에 반대되는 결정 내리면서 인권운동 언어 뺏기 없기~~
1130	몇몇 관종들의 억지주장에 페미니즘 혐오 당장멈춰라!!!!
1131	눈 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정작 중요한건 보지 않는 최악의 게임업계는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1132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1133	넥슨 및 메이플스토리는 그동안 수도없이 혐오발언을 일삼아온(ex 메이플스토리 갤러리)여성혐오 유저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집게 손가락 모양 하나에 사과공지를 올리며 여성혐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여성유저들에게 박탈감과 허무감, 절망감을 준 걸 반성하라.
1134	덕분에 앞으로 국산게임을 할 일은 없다. 정신차리게 해줘서 고맙다.

1135	바르게 현실을 보시길
1136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게임의 몰입감을 위해 힘쓰는 작업물이 억지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37	제발 멍청한 짓 그만했으면 합니다.
1138	손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 움직이는 과정 중 프레임 하나를 잡아서 이런 손모양이 나왔다. 이 손모양은 남혐을 나타낸다라고 하는게 억지주장임을 한번이라도 그 손 제스쳐 따라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억지를 받아들이고 그 영상 작업한 여성의 직장을 노동법 어겨서라도 잘리게 하는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페미니즘이 어떻게 남성혐오적 사상인지 발표하라. 그리고 그렇게 당당한 의견인 만큼 다문어로 변환하여 공문하라.
1139	억지논란으로 여성노동자를 검열하지말고 보호하라.
1140	한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1141	쉐도우 복싱 좀 그만하시길
1142	넥슨 포함 국내 게임사 다들 정신 좀 차리자..
1143	피해망상 걸린 남초 집단의 생떼로 한 사람 생계 끊는 미친 짓거리 그만두고 정신 차려라.
1144	응원합니다.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1145	왜그렇게눈치보면서사세요?
1146	억지논란에 동조하지 말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1147	혐오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1148	집게손에 반대한다는 문구 달고 게임 출시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런 소모전 안 하지 싫어요?
1149	클로저스 티셔츠 사태로 젊은 여성 커리어 박살 내더니 지 버릇 못버리고 지금도 젊은 여성 죽이기에 앞장서는 넥슨의 모습 참으로 역겹습니다
1150	억지에 어디까지 맞춰주실건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성혐오를 하시네요 창피한줄 아세요
1151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일부 커뮤니티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수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 여성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성 유저들에게 까지 성차별적 행태를 일삼는 짓을 규탄합니다.
1152	특정 사상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종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상 지지자가 아닌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업에 심각한 지장을 입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153	확률조적 사건 환불 보상 조치는 어떻게 된건가요
1154	망상에 빠진 일부 남자사용자들을 위해 매번 이렇게 손가락때문에 사과하는것을 멈추세요
1155	하청을 향한 압박, 노동권을 우습게 보는 일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1156	쓸데없는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1157	이번 사태에 있어 굉장히 넥슨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게임업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알고는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158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 부당해고 및 직원보호의 의무 유기라는 것을 인지하세요
1159	성별간의 차별을 없애고 싶으면 그 집게손가락에 의미부여하는 멍청한 짓 하나로 영상들 다 내리는 쪼잔한 짓 하지마라 그냥 먹금만 해도 반은 간다 차라리!!!!!!
1160	혐오를 반대한다면서 여성혐오에 앞장서고있는 넥슨은 정신 좀 차려라 니들 인셀남자들 대상으로만 게임 운영할거냐
1161	아주 어릴적부터 넥슨 게임을 해온 입장으로써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없는 취급 한다는게... 본 기자회견에서 그저 가부장제같은 미소지니와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을 미워하는 여성 게이머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1162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억지주장에 휘말리는 기업의 행포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1163	실제 혐오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 생각하세요.
1164	업계 더이상 망치지마세요
1165	더는 억지 논란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66	정신차리세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1167	여러분이 여론몰이로 검증한 해당 동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보이는, 또 취하는 동작입니다. 이 모든 동작들을 검열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저 저능아 인셀집단과 같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될 겁니다.
1168	일련의 사태로 게임업계는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를 일삼는 블랙산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기업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1169	넥슨 및 게임업계는 악성민원에 응해 여성 노동자들의 사상검증과 부당해고, 작업물 삭제를 그만두십시오
1170	인셀들의 억지 요구를 들어주지 마세요. 해줘충들의 병입니다.
1171	대기업이면 대기업다운 현명하고 앞서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172	이미 게임제작자로써의 마음은 떴고 게이머로써도 마음이 없습니다. 유저들을 우롱하기 위해 게임을 만든겁니까? 게임은 더이상 "남자들 만의" 하위문화가 아닙니다. 목청껏 외친 게임은 문화다란 말로 남녀노소를 다 포용했다면 남녀노소가 게임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세요
1173	방구석 도태남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들은 넥슨정도 다닐정도면… 개가 짖는다고 같이 네발로 엎드려서 배를 까뒤집으시면 어떡합니까 멀쩡히 직장다니는 사람으로써 저 대낮에 할일없이 캡쳐질이나 하는 무직오타쿠들에게 납작 엎드리는게 자존심도 안상하십니까?
1174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운 장면전환에 들어간 단 한 컷, 그것도 0.1 초 그 찰나의 순간을 캡쳐해서 이 사태를 일으킨 넥슨 및 게임업계는 창피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태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파악 좀 하시고요.
1175	정신차리세요.

1176	1. 여성 게이머도 게이머의 범주에 들어간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들도 한 명의 게이머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에 기반하여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차별적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난리 친 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2. 이번 원인이 된 건 애니메이션에서 행동과 행동을 연결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일부 유저들이 트집 잡아 생긴 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업계에 혐오를 기반으로 하여 갑질을 하는 유저들에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최근에 잇따라 터진 사상검증 사례는 게임업계에 만연한 불안정한 고용 이슈가 국내 게임문화의 여성혐오와 겹쳐져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실무자의 생활을 감시하고 스토킹하는 혐오성 검열 행동에 대해 자중해야 하며,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177	저 손가락이 뭐라고 저거에 반응해주는지 한심 그자체
1178	누가 한국게임을 망치고 있는 건지 깨달으시길
1179	누구든 이런 일로 직업을 잃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1180	눈이 있다면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181	일부 단체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수용하는 넥슨의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1182	억지논란에 휩쓸려 여성 게이머와 여성 업계 종사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1183	일부 몰상식한 남자들에게 선동당해 부당한 사상검증을 하고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장 멈출것을 바라며, 피해당한 이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디 사안을 공정히, 냉정히 심사숙고하여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남성의 멍청함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람.
1184	이러한 세태가 지속-심화되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이러한 검열해고가 남성 노동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1185	의미도 없는 손가락 때문에 창작자를 탄압하지 마십시오.
1186	당신들이 허락한 억지논리에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1187	한국의 게임업계는 자정작용할 힘을 완전히 잃었다. 입으로는 글로벌, 세계화를 외치면서 국제정세 역행하는 행보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
1188	되도않는 억지에 장단 맞추지마시오
1189	고작 '집게 손' 따위에 그만한 의미 부여나 하고 있는 집단의 편을 들어 줘 봤자 똑같이 바보 같아질 뿐이에요
1190	악의가득한 일부 유저들에게 큰 기업들이 휘둘리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상검증을 그만두고 직원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1	집게 손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인데, 왜 그 주장에 반응을 하고 인정하는가 그리고 이 일로 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가
1192	DC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말도 안되는 억지의견은 그만 수용하고 직원보호 좀 해주세요.

119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194	논란이 될 수조차 없는 사안을 논란으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페미니즘은 반사회주의적 혐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걸까요. 심지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페미니즘의 표명도 무엇도 아닌 단 1 프레임짜리 동화입니다. 프레임에 갇혀서 타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자아효능감을 느끼는 집단은 과연 어느쪽입니까?
1195	앞으로는 집단의 남성혐오 어쩌구를 염불외지마시고 그냥 페미니스트와 여성을 반대하는 기업이라 말해주시길.
1196	애당초 말이 안되는 논란으로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었는데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부당해고 하며, 오히려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아 영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197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패미니즘이 곧 여성이며 페미니즘 혐오는 여성혐오입니다.
1198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199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1200	억지주장에 힘 실어주는 게임업계 규탄한다!
1201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들을 받아들이며 혐오를 퍼트리고 여성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혐오몰이 규탄에 함께하겠습니다.
1202	이건 그냥 '괴롭히기'입니다. 넥슨은 괴롭힘에 동조하고 있는겁니다.
1203	억지 논란, 진상 갑질에 굴복하여 모든 창작자라면 당연히 유념해야 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윤리의식을 내버린 선택에 유감을 표합니다.
1204	다른 분들께서 더욱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주실거라 생각하여 적지 않는 대신, 해당 시위를 주관해주시는 모든 단체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205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억지를 부리는 특정 진영만이 유저로 여기는 이유가 진심으로 알고싶습니다. 무시하고자 했다면 분명 무시했을 수 있고, 어떤 진영도 떠나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구태여 억지를 들어준 까닭을 정말 알고싶어요.
1206	넥슨은 왜 업계 전체에 악영향이 갈 억지 요구를 들어주어 일부 악성 유저들의 억지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비춰지게끔 만드는가? 넥슨 게임을 오래 해온 유저이기에 이번 사건에 충격이 더욱 크다. 나는 넥슨의 잘못된 방식을 옹호할 생각이 없으며 불매로 대응할 것이다.
1207	말도안되는 억지와 피해망상으로 작업자들을 검열하고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을 그만해라 이걸 들어주는 넥슨 및 게임사들도 똑같은 가해자다

1208	정확히 페미니즘의 남성혐오 표현이라는 증거도 없는데다가 손을 쥐었다 펴면 나오는 너무 흔한 동작에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페미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는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를 하기위한 발악이라고 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여기에 계속 사과를 하고 받아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처럼 더더욱 혐오에 소리내고 더더욱 여성들을 까내리는 문화에 동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그 고작 0.1 초 지나가는 영상에 남성혐오 손동작을 넣어서 얻는게 대체 뭔가요?
1209	억지부리는 무리에게 선동되지말고 하던 본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지 사사로운 억지주장까지 포용하는게 옳습니까?
1210	현대판 마녀사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1	국내 사업만 할 거면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1212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을 악의를 담고 억지로 끼워넣고 있다는 망상적 믿음을 버려라
1213	디렉터의 자기소개 발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비난은 신랄하게 하면서 주어는 말을 못한건지, 영상도 비공개로 한건지 앞뒤가 안맞는 행동도 추하고요
1214	기업의 장래에도, 상식에도 역행하는 이와 같은 악성 민원에 왜 호응하시는 건가요? 법무팀은 장식인가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거라면 악성 민원인들을 고소고발하여 이런 억지를 두번 다시 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1215	넥슨이 성차별주의자들의 성차별적 음모론에 찬성하고, 성차별주의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면 글로벌적으로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차별적 혐오를 지지하는 그룹이 되고 싶지 않다면, 더이상은 한국의 성차별주의자들의 혐오발언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1216	억지 주장에 동조하며 여성혐오에 찬성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1217	갈등을 조장하는게 누구인지 진심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218	억지 논란을 멈춰라
1219	넥슨 및 게임업계는 억지를 써가며 여성혐오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이 표식이 남성혐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현재 인셀들은 이 페미몰이를 스포츠 행위하듯 즐기는 것이고, 그쪽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조하여 즐긴 것이거나, 겨우 그런 억지에 무릎을 꿇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
1220	악의적 음모론에 굴복한 것이든 그 음모론을 직원 길들이기에 이용한 것이든 이런 근시안적 결정은 결국 귀사(들)에게 독이 될 것임을 알길 바랍니다
1221	게임 업계는 반페미니즘 행위를 중단하라
1222	대기업이 기초적인 판단과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1223	저도 남자지만 저런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걸 받아주는 넥슨도 전부 이해가 안되었고 한 외주회사를 그리고 그 회사의 한 직원을 철저하게 무너트리려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뿌리는 외주회사입니다. 일감이 끊기면 할 수 있는것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측의 대응을 보았을때 직원을 작업에서 뺀다는 판단을 한 것이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넥슨측은 스튜디오 뿌리가 대응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슈가 일어난지 고작 몇시간만에 영상을 전부 내려버리고 사과문을 썼습니다. 현제 게임업계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칙은 노동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그 누구라도 자신의 사상에 의해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1224	말도 안 되는 억지는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25	옳지 않은 일에 '옳지 않다',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분명히 존재하는 여성 유저의 의견을 무시하며 정당함을 떠나 남성 유저의 '기분'만을 고려하여 비위를 맞추는 모양새가 정녕 한국 게임계 대기업의 입장이 맞습니까?
1226	그럴거면 앞으로 모든 캐릭터 손모양이 안나오게 졸라맨으로 통일해라
1227	진짜등신같음
1228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여성의 인권 및 노동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도 정말 당신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임의 즐거움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까? 누군가의 인권을 밟고 만들어진 게임은 그 누구도 즐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과 노동자를 죽이는 게임은 즐거운 게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혐오 세력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외주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1229	멍청함
1230	이게 2023 년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에 동의한다고 잘리는 것도, 페미니즘과 아무 상관없는 집게손 모양에 말도 안되는 핑곗거리 붙여서 여성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제정신이면 이런 과대망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1231	남성들의 의견만 의견입니까? 생활하면서 집게손가락 안 쓰나봐요??? 넥슨이 이딴 사례 만들어놔서 이제 앞으로 다른 곳들에서도 그럴텐데 이름 있는 곳이면서 후폭풍 생각 안했어요? 클로저스 이후로 성장이란 게 없네 넥슨은...
1232	넥슨같은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대놓고 성차별 행보를 보이는곳은 전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 뿐이다. 입장표명에서 자기들도 떳떳하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던데 부끄러운줄 알았으면.
1233	페미니즘은 보편적 가치이며, 논란 자체가 될 일도 아닙니다. 작금의 혐오몰이는 일부 유저의 게임에 대한 불만과 이를 여성노동자에게 사이버불링으로 표출하는 것이 합쳐져 발생한 사태입니다. 넥슨과 게임 업계는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는 억지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격 대상이 되는 컨텐츠와 근로자, 하청 업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1234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니거니와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에 어울려주는 모습 잘 봤습니다 업계 이미지를 누가 추락시키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235	인셀들이 발생시킨 억지논란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혐오에 동조하고 여성노동자의 커리어를 위협한 게임사들은 공지를 철회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라.

1236	억지논란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혐오의견 수용, 차별행위 철폐하고 고용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부당행위를 멈춰라
1237	매번 여자유저는 없다는 둥 편견애 휩싸여 있는 사람 지우지말고 여혐단어는 조장하면서 남혐 단어라며 트집잡고 차별하지 마라!
1238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어떤 방향이 옳은지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판단력조차 없진 않으시겠죠.
1239	ESG 경영의 시대입니다. 남녀고평법 하나 준수하지 못하며 글로벌 경영 흐름에서 굳이굳이 퇴보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넥슨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1240	언제까지 일부 남성들이 명명하는 남성혐오 라는 프레임에 두려워하여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을 위해 피흘린 분들을 모욕하고 나아가 누군가의 생계를 쉽게 자를 예정이신가요?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넥슨에서 간편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일부 남성들의 편을 들어 운영 이슈를 잠재우려 하면 앞으로 발전해야할 게임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1241	앞서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저지해주세요.
1242	한때 게임업계쪽 취업을 희망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나네요. 정말 그런 헛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외주업체를 압박하는 데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없을거라면 사업 접으세요. 절이 싫어 중이 떠나는것도 지친다진짜
1243	메이플디렉터는 디렉터할 자격 없습니다.라방에서 혐오에 대해 강력대응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여성혐오를 일삼던 남성유저들의 편을 들어준것만으로도 혐오를 동조한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근거없는 억지 논란에 손들어준거부터 이미 답이 나왔죠. 게임계의 대기업의 횡보 잘봤습니다.
1244	넥슨은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회사 중 한 곳입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개인으로서 그런 넥슨이 2023 년에 '일반적인 손모양을 과대해석하며 비합리적인 요구를 진행한 일부 블랙컨슈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임은 유해하지 않고 게임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언제나 믿고 주장하던 개인이었습니다만, 이번 넥슨의 행보를 보며 그러한 믿음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회사는 소속인원과 관련업계 종사자가 비합리적인 비난을 당할 때 보호하고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성별 간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동의되고 있는 주요 인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넥슨의 대응은 마치 게입업계가 남녀차별을 지지하며 업계 내 직원 보호에 대한 의향이 전혀 없다고 제 3 자의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사회에서 게임이 유해매체로, 게임업계가 일반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는 분야로 판단되지 않도록 향후 적절한 대응을 바랄 따름입니다.
1245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1246	여성 혐오에 동참하지마라
1247	게임 내 여성혐오는 버젓이 수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남자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손모양으로 부당한 협력업체에게 가하는 부당 행동 및 여성에 대한 테러 행위를 삼가시고 성평등적인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1248	진짜 유난떨고 계시네요. 후져요.

1249	개인 사상에 대한 불분명한 논란으로 손쉽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게임업계의 현실을 규탄합니다.
1250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원 개인에게 신념,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인의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사회는 결코 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1251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지 그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1252	기분권 위에 인권이 있습니다.
1253	당신들은 고객의 민원을 처리한 게 아니라, 혐오에 동참한 겁니다.
1254	후일, 게임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처럼 같잖은 이유로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1255	게임업계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전액삭감을 원합니다.
1256	1.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넥슨의 결정으로 한 중소기업이, 그중의 한 직원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업계와 전체 여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넥슨은 굉장히 무책임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 굉장히 비경제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굉장히 멍청했습니다. 3. 넥슨의 결정으로 인해 일부 줄어든 매출과 또 리소스 투입으로 인한 비용은 남은 유저들에게 전가되겠지요. 넥슨을 지지하는 소비자 또한 멍청했습니다.
1257	애니메이션과 교수인데, 정신차려 넥슨…1 프레임 캡쳐라니 디렉터가 미치셨나봅니다.
1258	일부 혐오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말고 상식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1259	여성혐오는 당연하고 손가락 좀 모여진 것 가지고 남성혐오라며 여성들에게 큰소리를 내십니까 흐린눈 그만하시죠
1260	업계 종사자로써 참담하기만 합니다. 일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요..
1261	게임 운영에 불만이 생기면 1:1 문의와 QnA 를 선택하기보다는, 매번 "페미"를 걸고 드러누워서 떼쓰는 유저층을 데리고 모쪼록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62	인셀 남자만 게임 하냐 멍청한 짓 작작 해라
1263	한국 게임업계가 진정으로 잘되길 바란다면 사상검증을 그만둬주십시오. 몇몇 소수의 인셀 유저의 억지를 들어주느라 죄없는 직원을 일자리에서 배제하고 여러 유저를 내친다면 게임 업계는 발전할 수 없고 폐쇄적인 집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셀의 악성문의는 들어주면 들어줄 수록 심해질 뿐입니다. 직원을 보호해주셔서 노동환경을 개선해주세요.
1264	잘못된 신념을가지고 게임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때마다 그 원흉을 여자직원으로 타겟을 삼으며 사이버스토킹해서 사상검증을 해가며 생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고소와 자사직원을 보호해도 모자를판에 악성민원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사 직원을 보호하지않고 먹잇감으로 던져 꼬리자르기에 급급하신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하청기업을 향한 갑질도 잘 보았습니다 정신차리세요. 현실은 게임커뮤니티에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노동법은 지키란말입니다.
1265	넥슨의 게임을 어린시절부터 해온 입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넥슨의 입장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시정을 촉구합니다.
1266	정신차리세요 넥슨

1267	여성 혐오살땐 가만히 있더니 부끄러운줄아세요
1268	게임을 취미로 삼은 한국인 모두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1269	게임 시스템 운영과 연관도 없는 집게 손가락 논란으로 다른 사람의 밥벌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사람이 잘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6 년 클로저스에서 김자연 성우님이 부당해고를 당하신 이후로,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어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1270	현재 넥슨 및 게임업계의 여성혐오를 일삼는 억지스러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잘못되었다. 악성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들어주고 노동자 개인을 탄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효능감을 주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성혐오를 옹호하는 행위를 멈춰라.
1271	단순 사상검증으로 일자리를 뺏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1272	넥슨 정신 차려라. 예전의 너가 아니다... 다른 듣보 게임업체들 개차반으로 굴어도 너는 정신 차려야지. 아이들이 카트라이더 하고 메이플스토리 하는데, 정말 미래 없이 이렇게 후지게 굴면 안돼....
1273	게임산업의 증진 및 게임 이용에 관계 없는 단순 여성 혐오적 맥락없는 혐오에 왜 게임업계는 사과를 하나요? 몇몇의 말도안되는 건의와 항의에 고개숙이는 모습에 한국 게임산업의 붕괴를 느꼈습니다.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74	해당 손가락에 대하여 억지 의미 부여하지 말고, 페미니즘 혐오 몰이에 동조하지 말아라.
1275	등신짓 그만 하라고 좀...
1276	게임계 사상검증이 일어난 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게임업계는 변하지 않은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넥슨처럼 영향력이 큰 회사가 먼저 페미니즘을 혐오사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소규모 회사들은 더할 것 입니다. 소위 남초 커뮤니티의 인셀들이 주장하는 집게손가락의 의미를 진심으로 믿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 또한 바보라고 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77	한국 게임업계는 일부 혐오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여성 혐오 범죄를 합리화하는 행패를 멈춰라!
1278	솔직히 말같지도 않은 억지 들어주는 거 이젠 멈춰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집게 달린 킹크랩 게장집 다 문닫을 때까지 이러실 건가요?
1279	억지논란 받아주니까 계속 지랄하는겁니다
1280	페미니즘 악마화를 그만하고 인셀의 분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1281	가치 판단을 할 줄 모르면 문화 사업을 접으세요.
1282	한줌도 안되는 이상한 사람들 주장에 동조하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세요.
1283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남초 커뮤니티의 고질적 여성 혐오와 폐쇄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소수 의견에 게임업계가 전반이 흔들리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리라 생각합니다.

1284	플레이어 기만을 멈춰주세요.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보고싶습니다.
1285	저의 추억이며 제가 사랑하던 게임을 손가락으로 억지부리는거 하나때문에 망치지 말아주십시오.
1286	내 주변에 김치녀 맘충 거리는 남자들은 있어도 집게손으로 꼬추길이 조롱하는 여자들은 아무도 없다. 일부 XX 들의 피해망상을 받아주니 사회가 요지경이다. 넥슨아 니네가 이런식으로 남성유저 목소리만 듣고 여성유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피해망상을 현실로 생각하는 자아 비대해진 XX 남들만 남아서 더 논란생기고 피곤해지는거다.
1287	현 게임업계에서는 일부 유저들의 시비를 전부 수용하고 직원들을 부당히 배제시키거나 해고하는 것이 회사와 수익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선택이라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288	언제까지 특정 집단의 생떼를 들어줄 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무고한 여성 노동자를 그들에게 먹이로 내어줄 겁니까? 수많은 여성 노동자 중 게이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성만이 소비자가 아니며 여성 역시 소비자입니다. 어떠한 혐오도 용납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여성 혐오는 혐오도 아닙니까?
1289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며... 제발 억울하게 직장을 잃거나 경력을 잃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90	티셔츠를 구매해서, 시위글을 알티해서, 책을 읽어서, 성평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문화입니까? 부적절한 요구와 억지스러운 주장을 거절하고 직원과 회사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의무입니다. 7 년전 고작 티셔츠를 구매했단 이유로 비난하던 것에 응해 담당성우를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검열을 당해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십시오.
1291	21 세기 마녀사냥을 멈춰라.
1292	무차별적인 여성혐오 및 차별을 멈추십시오.
1293	인터넷에 글 올라오는것도 데이터 아깝다, 이제부터 게임공지사항에 '여성혐오 게임입니다' 박고 시작해라.
1294	정신차리세요
1295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129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모두가 페미니스트여야합니다.
1297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넥슨은 예전에도 전적이 있던걸로 아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1298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직원을 괴롭히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부당해고하는 등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지하라.
1299	말같지도 않은 억지 논란에 굴복하지 말고 직원들을 보호하십시오.
1300	말도 안되는 의견으로 게임의 대부분을 수정하며 여성 유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회사의 직원조차 지키지 못할거라면 게임으로 장사하지 않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1301	한국게임업계 대기업 대응 수준에 탄식만 나옵니다
1302	게임 내외로 벌어지는 여성혐오는 눈감고있으면서 억지논란에는 누구보다 빨리 대처하는 게임업계는 반성 하시길

1303	게임업계의 오래된 여성혐오, 여성노동자 차별. 일부 유저가 만든 억지논란에 기업적 혐오몰이에 편승하는 태도를 규탄한다.
1304	억지여론몰이 멈추고, 여성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1305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생트집 잡아 드러누운, 목소리만 큰 일부 진상들 앞에 하청업체 직원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뒤로 숨어버린 대기업 넥슨의 행위 규탄한다
1306	특정 성별 집단의 억지를 사실의 여부 확인 없이 기업의 운영에 결부시켜 여성 노동자의 생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게임 업계는 반드시 반성해야 하며 범법 행위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307	페미니즘은 악이아니며 평등은 누구나 추구할 권리이다.사상검증이라는 괴변으로 자유와 평등을 게임이라는 놀이판에서 없애려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1308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그만 하세요. 화두가 된 손가락 모양은 엄지와 검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취할수 밖에 없는 동작입니다. 말도 안되는 남성 유저들을 주장을 그렇게 착실히 받아 온갖 사과문을 기재하기 전에 최소한 제대로 알아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어느 여성단체에서 그걸 남성혐오의 뜻으로 쓴답니까. 그게 정말 남성혐오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본인들의 엄지를 자르시는건 어떨까요? 총괄 디렉터님도 기사사진에서 이번에 난리난 ‘남성혐오 집게손모양’ 하셨던데 이번 기회에 엄지손가락을 잘라 미연에 방지하세요. 기껏 끌고 갈 남성 유저들 이탈하면 안되잖아요.
1309	수많은 노동자 일하고 있는 대기업임에도 당위보다 악성민원에 호도되어 하청과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것이 정말 꼴사납습니다.
1310	집게손 논란 혹시 진심이라면 피해망상으로 정신과 내원을 추천드립니다
1311	사상검증 반대
1312	집단망상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1313	억지 쓰고 분탕치는 건 소수일 뿐이라는 걸 회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14	여성 유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넥슨은 망하길 바람 남초커뮤니티의 억지 논란으로 하청 기업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넥슨은 망하길 바람
1315	말도 안되는 억지에 휩쓸리지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1316	노동자를 우습게 보는 넥슨은 본인이 절대자가 된듯한 착각을 버려라! 사회에 폐악만 끼치는 민폐 인셀들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게 무슨 문제라고 남을 깎아내려 죽이려드는 그 놀이문화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신차려라 사람답게 살아라!
1317	라이브에서 그렇게 외치던 혐오의 대상이 누구인지 재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
1318	한국 게임업계가 이처럼 비상식적인 억지가 받아들여지는 사회라는 점이 통탄스럽다. 굳이 입장을 내고 인게임 작업으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1319	

1320	여성 유저를 향한 성희롱은 못 본 척하고 남성유저의 억지는 성심껏 들어주는 모습이 우습다.
1321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이 일부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322	넥슨이 2023 년 한국에서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부활시켰다. 사람 하나하나 말로 때려 죽이며 히죽이는 핑계가 겨우 손가락이라는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현대사회 시민인지가 의심스럽다.
1323	여자도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하며 구매를 한다
1324	일부 남성들의 억지에 굴복하여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업계를 박살내는 선택은 더이상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325	넥슨은 일부 유저의 우기기식 말도 안되는 의견을 수용하며 혐오 조장에 앞장서는 행동과, 어쩔 수 없이 유저의 의견을 수용하는 양 회사차원에서 불법적인 사상검증을 시행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정하기 바랍니다.
1326	소위 인셀이라 지칭되는 올바르지 못한 젠더 개념을 가진 유저들의 의견이 과대표되어 게임사에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게임업계 또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식견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이전의 다수의 사례에서 쓸데없는 트집을 무시한 기업의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증가하였고, 인셀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라서 이윤 추구를 위해 부정의한 젠더 개념을 옹호했다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게임업계의 결정권자들이 부정의한 젠더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1327	같은 그림도 남자가 그리면 패스, 여자가 그리면 업무배제 또는 해고. 말이 됩니까? 혐오표현이라는 트집으로 공공연한 마녀사냥이 당연시되는 게임업계 이러니까 글로벌시장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1328	넥슨 포함 게임회사들은 정말 손가락 모양 가지고 생떼부리는 유저들이 정말 '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억지에 놀아날수록 민심 나락 가는 거 제일 잘 아시면서..빨리 이 억지논란과 손절하십시오
1329	정신 차리세요
1330	넥슨은 시대에 역행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1331	게임을 인셀의 전유물로 만들어주는 건 상식적으로 자폭이잖아요. 이상한 물타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1332	그냥 겜하고 관련없는 내용이라하고 먹금하면 되지 왜 일일이 반응하세요. 반응하니까 더 그러는겁니다.
1333	게임을 문화로 인정받고 싶으면 반여성적 주장을 배격하고 성평등적 운영을 하라
1334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게임업계 규탄한다
1335	창조논란에 동조하지말라
1336	몇년간 작업을 이뤄오던 회사는 못 믿고, 인터넷 익명 억지주장에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넥슨 규탄한다
1337	도대체 손가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거죠? 손가락은 손가락입니다!
1338	일반 게임 소비자는 극단주의적 여성혐오자가 아닙니다.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339	다년간 함께 해 온 작업자들을 악질 유저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신공양하는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벤과 디씨 등의 커뮤니티에 상주하는 소수 인원들 외에, 대다수의 일반 유저층이 바라는 것은 안티 페미나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여론을 핑계삼아 무고한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게임을 위해 함께 일하던 동료를 사이버불링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로써 저열한 만족감에 취한 게이머들이 운영 미숙으로 인해 갖는 불만을 잊으리라는 얄팍한 계산을 부디 내려놓으십시오. 부당한 사상검열에 휩싸인 창작자의 동료 시민으로서는 대단히 화가 나고, 십 수년간 메이플을 해온 유저로서는 무척이나 모욕적인 대처입니다. 게임 업계 내 사상 검증이 국감에서 오르내린 것이 바로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악성 게임 커뮤니티와의 그러한 약자 착취적 공생관계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성 싶습니까? 귀사께서 지금이라도 시류에 거스르는 반인권적 행보를 그만두고, 상식과 도리에 맞는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340	시대와 이치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341	몇년을 함께 일한 회사보다 인터넷 안티페미가 더 중요한 넥슨 뉴탄한다
1342	노동자와 여성탄압을 멈추어라
1343	여성 작업자들을 방구석 인셀들의 먹이로 던져주어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시대착오적이고 속보이는 발상이 치졸하다. 기업이 페미니즘의 뜻도 모르고 하는 일부 유저들의 인터넷 마녀사냥에 진지하게 동조하는 국제적 망신 그만둬야 한다.
1344	대기업 게임업계를 상대로 재미삼아 억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인셀 집단에 대한 과한 의견수용을 멈춰주세요.
1345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 하청 업체와 작업자에게 압박을 주고 작업물 지우기 하는 것을 철회하라
1346	넥슨은 진상소비자들의 우기기에 가장 쉬운 떡밥인 여성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문제를 외면하지 마라. 게임업계에서 양산한 인셀들을 재사회화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 사회와 타업계에 전가하지 말고 상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라.
1347	거기 노조는 뭐하나요
1348	억지 주장에 그만 휘둘리고 게임 업계 대표 회사 중 하나다운 자세를 좀 취해라.
1349	정신차려라..
1350	정상인의 판단을 하시오
1351	더이상 그들이 일부 남성들의 억지에 끌려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352	부당해고를 당연하게 괄시하는 업계에 누가 애정을 쏟을 수 있겠나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1353	여성 인권 하락에 주도하지는 마십시오
1354	억지에 기반한 창조논란에 왜 대응해주는지 모르겠고 페미니스트란게 부당한 해고를 당할만한 사유가 되는지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355	정신 차리고 삽시다

1356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업계가 되고싶으신가요? '진상 민원' 과 의견도 구분을 못 하고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누가 마음놓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의식 또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57	어떤 의도도 없는 손가락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거 알면서 굳이 그분들 위해서 공지 올리고 죄 없는 여성들 밥줄 끊지 마시고 게임 내에서 이상한 발언하는 사람부터 징계 내리세요 림버스 사태 때 어떻게 됐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 논란은 그냥 먹금하면 됩니다
1358	정신차리시길
1359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활동 및 개인 SNS 활동이 일부 유저집단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고 업무선상에서 배제시키는 등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유저집단은 이제 노동자들의 개인 SNS 에서 발설한 정치적 의견과 일상생활의 공유 역시 자신들의 기분을 해한다며 차별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하는 2023 년 11 월 27 일 오늘만 해도, FATE 그랜드 오더라는 모바일 게임의 한국 퍼블리셔인 넷마블은 12 월에 있을 AGF 행사의 여성패널이 개인 SNS 에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한탄하거나 '조립식 가구 후기 중 여성혼자서는 힘들 것 이라는 리뷰에 오기가 생겨 혼자 해냈다' 같은 일상적인 게시물까지 검열하고 해명하라는 유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패널을 행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스튜디오 뿌리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일부 유저집단이 문제라 주장하는 부분을 작업한 노동자들을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겠다 성명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논란 패악질에 휘둘려 순식간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작금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이 발전하길 바라기에 말씀드립니다. 사회와 시대의 발전에서 도태되는 선택을 멈추십시오.
1360	말도 안 되는 사상검열로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말고 대기업의 포지션으로 마땅히 취해야할 태도를 취하십시오. 장애인,소수자,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이 만연할 땐 눈 가리고 모르는 척 하다가 남성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며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혐오하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1361	제발 좀 정신좀 차리고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게 좀 정신좀 똑바로 차리지도 못하겠지 뭔 사람이 변하겠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눈치라도 봐라 쓰레기야 어떻게 지상파 공중파 다 뉴스 떴는데 그렇게 반응하냐 니네가 게임업계의 선도인 만큼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해라
1362	없습니다
1363	게임업계는 당장 차별을 멈춰라.
1364	악성 민원에 일일히 대응하지 말라 여성혐오에 동조하지 말라
1365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검증이란 허황된 말로 게임업계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일자리를 앗아가는 행위는 즉시 규탄해야 합니다.
1366	늪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그곳이 늪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늪이 마지막 숨을 거두러 올 때, 당신은 지난 걸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1367	넥슨 및 게임업계는 기업으로서 책임감도 없이 명백히 억지 논란인 것에 장단을 맞추고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에 사과하며, 일러스트레이터에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1368	이번 사태에 실제로 온라인 테러행위와 몰아가기를 시도하는 유저들은 극히 일부인것으로 보이는데 그 극히 일부 유저들의 의견을 편파적이고 적극적이게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369	일부 유저의 착각에 휘둘려서 말도안되는 여성혐오를 멈춰라
1370	기업이 받아준 악성민원인들의 행패는 나아가 사회문제가 되어 정치인들과 사회구성원들이 해결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즘 사상에 반대한다면 글로벌 시장에도 확실하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영어 및 각종 언어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하여 글로벌 서버 공지에 반드시 올리십시오.
1371	누구나 걱정없이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1372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에 장단 맞춰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멈춰라
1373	응원합니다
1374	이 사안은 반드시 규탄되어야 합니다.
1375	회사의 이익 일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 일부분 하나로 남녀평등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전해 듣기만 한게 아니라면 그 집게손이 집게손이 아니란거 알고 계시잖아요.언제까지고 모른척하실겁니까. 언제나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이지만 한국에선 변질되었단 생각 하나를 이유로 페미니즘 자체는 좋은것임에도 페미니즘을 편협한 생각으로 왜곡하며 무시를 하지않나...그냥 애초에 일부 이익에 때문에 들어주기 싫은거잖아요. 언제까지고 눈가리고 아웅 할 생각이십니까.또한 장기적으로 봤을땐 점점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남성유저의 의견만 계속 들으면 뭐 뻔하지않습니까...잘생각해보십쇼.물론 누군가는 여자는 게임에 돈안쓴다는말이 있는데 게임에 미쳐서는 인생을 바쳐서 게임에만 투자하는 수가 적을뿐이지 요즘엔 왠만해서 게임에 돈 씁니다. 또 전체로 봤을때 황금알 낳는 거위를 키워야하지 왜 자꾸 가르기만 하십니까...? 지금이야 황금알낳는거위가 많아 모른것이지 나중가면 눈에 띄게 텅텅비게될것입니다.
1376	게임계 사상검증, 여성혐오 멈춰라!
1377	억지논란을 멈춰주세요
1378	페미니즘은 혐오사상이 아니며,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일로 작업물을 삭제당하고,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1379	거짓된 여론으로 페미니즘을 혐오 사상으로 몰아가며 직원들과 하청업체까지 사상 검증을 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게임 기업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1380	업계 전체가 일부러 어떤 표식을 만들어 삽입했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생떼 쓰는 억지 주장에 휘둘리다니 부끄러운줄 알길 바랍니다.
1381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1382	게임업계는 인셀들의 억지 주장을 수용해 반 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을 멈춰야 한다.
1383	개소리를 왜 들어주냐 ..
1384	넥슨은 말도안되는 억지논란에 동조하지 말아라 일을 키우는 꼴이거나 본인들 수준도 그와 비슷하다고 비추어진다

1385	인게임 내에서 나오는 여성유저에 대한 기괴하기 짝이없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행위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었음에도(문의보냈었습니다.) 현 상황과 같은 사태에는 놀랍도록 빠른 대처법의 진행에 제 10 년이상의 추억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던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에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닌 '남성유저를 위한 게임' 이 아닌가요? 약속조차 번복하는 태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늘 이러시는 태도에 참담하네요.
1386	일부 극성 유저의 창조논란으로 인한 악의적인 작업물 삭제 및 계약관계의 종료는 명백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침해다. 넥슨은 블랙 컨슈머를 구분할 능력조차 없는 것인가? 여성 유저는 구매력도 약하고 어차피 게임은 남초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국내 대형 게임사의 이러한 선례는 결국 게임업계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한국 게임업계의 낯부끄러운 작태를 세계적으로 전시하는 꼴일 뿐이다.
1387	반짝 엎드려 돈 벌 속셈인 넥슨이 사회를 어떻게 망치는지 똑똑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인셀범죄가 늘어난다면 그 피해자들의 아픔에 당신들의 책임도 있단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388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1389	세상살이가 니들만 힘드냐 남들도 다 정신차리고 살고있다
1390	게임 업계의 여성 노동자와 여성 유저를 상대로 한 반지성적이고 불법적인 사상검증 더는 보고싶지 않다. 업계의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여성 혐오세력인 블랙 컨슈머에게 부적절한 대응으로 여성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여성 유저들은 웹상에서 불링을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겪는데, 이는 넥슨을 비롯한 모든 게임의 '고객 보호'라는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 넥슨과 게임 업계의 고객은 누구인가? 귀사들의 동료 직원은 누구인가? 게임 업계는 각성하여 여성 고객과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에 앞장서길 요구한다.
1391	(메이플스토리 관련) 남성유저들이 말하는 빛싸개(비숍 직업을 플레이하는 여성유저를 비하하는 말), 리선족(리부트서버에서 플레이하는 유저를 비하하는 말 리부트+조선족)은 차별과 혐오가 담긴 표현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에 잠깐 나온 집게 손가락은 차별과 혐오가 담긴 표현입니까? 해당 논란은 다른 게임에서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측은 무시로 일관 하였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논란은 알아서 잠재워졌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보면 이번에도 충분히 사그라들 수 있는 주제였고, 집단의 대부분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런 집단에게 디렉터는 애니메이터를 저격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사람의 생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논란에 빠르게 대응할 바에 그렇게 자주보시던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신의 부하 직원의 성희롱이 담긴 발언들에 대한 제재나 하지 그랬습니까...
1392	앞으로 이런 억지논란으로 더 이상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1393	일부 남초 커뮤니티만이 게이머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394	왜그러고 산답니까

1395	게임의 일부 남성이용자의 편집증적인 검열로 애니메이션의 1 프레임을 트집잡아 하청업체의 여성직원을 혐오자로 몰아넣고 존재하지 않는 남성혐오적인 핸드사인을 작업물에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넥슨 게임사 및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나는 성평등주의자로서 귀사의 게임을 이용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이에 회원탈퇴했습니다. 넥슨 게임사의 기업이미지는 성평등주의자들에게 반인권적인 비주류 문화가 될 것입니다.
1396	하청사를 항한 압박을 멈추십시오. 여성 노동자와 페미니스트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십시오.
1397	멍청한것도 도가있다. 아무리 게임만드는 회사라도 책을 읽어라
1398	분탕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마십시오 악성 유저에 대한 무시를 좀 하십시오 자꾸 들어줘보았자 일만 더 키우는거 알면서도 왜 모르는척 합니까?
1399	기업이면 책임감있게 상식을 가지고 대응하세요
1400	넥슨은 극우화된 일부 커뮤니티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멈추고 노동자를 향한 사상 검증을 멈추십시오. 그네들이 외쳐대는 '사상을 공적인 업무에 끼워넣어선 안 된다'는 발악은 어째서 인셀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넥슨은 기업으로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자각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과문을 즉각 철회하고 페미니즘의 부당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1401	응원합니다.
1402	여성혐오 범벅엔 아무 말 없다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인셀들 말만 듣는 게임업계들은 규탄되어야 합니다.
1403	대한민국 인셀의 힘을 앞장서서 키워주고 있는 넥슨
1404	본 사안과 같은 사상검증으로 인해 게임업계에서 부당해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이를 방치한 채로 국내 및 해외에서 게임산업을 이어갈 입장이라면 수년 이내로 이 나라 게임산업은 전보다 훨씬 퇴화하고 이 산업에 발들이고자하는 인재 또한 줄어들테고 외국으로의 진출도 어려울 것이며 내부에서의 성장 또한 어려울 것이니 부디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현명한 판단을 이어줄 것을 바랍니다.
1405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태가 단순 억지라는것을 알 수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십명의 비위를 맞추려 이따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분개하고있습니다. 넥슨 관계자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1406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 및 여성 작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논리적인 박해를 규탄합니다. 더는 가치없는 생떼에 굴복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사랑했고 사랑하는 세계에서 게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1407	넥슨의 행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는 또다시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도태되었다.
1408	제발 커뮤니티 기준이 아니라 범세계적 보편타당한 도덕과 기준을 바탕으로 일을 하십시오
1409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상은 일러스트레이터와 애니메이터가 아니라 메이플이고 논란을 일으킨 유저들이다. 게임업계에서 여성을 쫓아내지 말고 논란을 창조해내는 유저를 쫓아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침체된 게임업계가 되살아날 수 있다.

1410	일개 진상들의 여성혐오적 악성민원에 대한 비상식적 판단으로 자멸하지 마십시오
1411	혐오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1412	게임업계의 관계자 및 직원들이 사상검증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1413	대부분 안경 끼고 있을 거 같은데 님들 도대체 안경은 어떻게 잡고 살아요? 정상사고를 바람.
1414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넥슨 메이플스토리 애니메이션에 공정상 필요한 >>0.1 초<< 동안 나온 집게 손 모양으로 억지부린 것과 4 월경에 일어난 프로젝트 문의 림버스 컴퍼니 게임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작가님의 sns 에서 여성인권 글을 재게시 해서 일어난 부당해고 등 게임업계, 개인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여성들은 물론이며 게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무지성 혐오를 그만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끌어 내리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서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1415	억척스런 요구사항 다 들어주지 말고 제발 창작자 보호에 앞장서주세요. 대한민국 게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1416	진실로 본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신들의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이 그 시간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417	상식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의견에 귀기울이지 말아주세요. 혐오를 떠나서, 손가락 모양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418	노동법 위반입니다.
1419	말도안되는 억지 들어주다간 망한다
1420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억지 논란을 적극 수용하여 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업계 퇴출에 앞장서는 비정상적 기업 넥슨을 규탄합니다.
1421	페미니즘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 사상'이라고 밖에 말 못하는 저급한 의식에 치가 떨립니다
1422	정신차려라
1423	겜 벨런스 고쳐달랠 때나 획득률 표기해달랠때는 죽어라 입다물고 모르쇠하다가 페미얘기나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모습잘봤구요. 조용히 게임하던 여성유저들은 지랄맞은 남성 인셀유저들의 큰 목소리 땡깡만 들어주는 게임업계가 지긋지긋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걱정했다는 이유로 인셀남성유저들의 땡깡에 제물처럼 내주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너무 참담하고 이게 몇년째 되풀이되면서 염증으리 일으키고 결국은 게임업계에 등을 돌리고 싶게 만듭니다. 자성하십시오. 여성 게임 노동자의 사상검증을 그만두고 그들의 일자리로 인셀유저한줌단과 네도 ㅣ 고하지 마십시오.
1424	인셀들의 억지논란을 근거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검열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 페미니즘은 여자도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인권운동이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검열은 게임업계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여성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기업을 소비자로써 규탄한다. 사과하고 시정하라!
1425	해줄말은 앖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네요....
1426	일개 커뮤니티들의 말도 안되는 우격다짐에 굴복하여 개인의 사상을 검열하여 일자리를 자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427	넥슨 및 게임업계는 혐오몰이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진상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며 야비한 전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428	대한민국 헌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규탄받아 마땅함
1429	수치스럽다
1430	애니메이션 동화를 위해 필요한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장면을 0.001 초 단위로 일시정지해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점도 어이가 없으며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하겠다며 모든 영상을 검토하고 전면수정하겠다는 게임사의 의견은 더더욱 터무니 없습니다. 여초집단 사이에서도 해당 손모양을 사용하는 여성은 없으며 과거의 래디컬 페미니즘 손모양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들입니다.
1431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페미니즘이 왜 문제되는 사상이며, 집게 손 이슈는 페미니스트에게서 파생된 것이 아닌 안티페미니스트가 분탕을 위해 만든 것인데(조금만 알아봐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대체 무엇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건가요? 핵심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신장을 도모하고 성평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넥슨은 여성 인권 신장 및 성평등에 반대하는 것인가요? 일베는 너무나 명확하게 여성혐오 및 각종 혐오와 범죄로 점철된 집단입니다. 페미니스트와 일베발 신고, 어느쪽에 경중을 두는지 이번 일로 넥슨의 성향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아십시오.
1432	멍청이들에게 자꾸 오냐오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1433	개인의 사상만으로 인해 부당함을 겪어서는 안된다
1434	제발 상식적이고 평등한 대응을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면 영어로도 글로벌하게 공지를 올리시지요? 그렇게 못 한다는걸 압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보일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강행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입니다.
1435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며, 혐오 행위로 간주하는 자들의 말에 휩쓸리지 마라!
1436	0.1 초 근육의 연동에 움찔할 시간에 게임 퀄이나 높이세요 억지주장에 그만 부화뇌동하시고
1437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ㅋㅋ 집게손이 뭐라고. 한국남자들도 문제지만, 애초에 저런 소리를 넥슨 같은 게임업계 큰데서 받아주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저런걸 인정해주나요, 본인들의 위치를 생각 못하나봅니다. 산하로 일하는 스튜디오들은 또 무슨 봉변인건가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1438	여성혐오를 이용해 노동자를 억압하지 마라
1439	인셀 및 악성 유저들의 집단 망상과 괴롭힘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성 유저 지우기를 멈추십시오.
1440	억지논란을 부추기지 마라
1441	남자만 고객이고 유저가 아니다. 인셀들의 억지 논란에 여성 노동자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사상검증에 반대한다.
1442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원들의 사상을 검증해서 불이익 조치하는 기업, 공정 거래가 화두인 현 시점에 하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을 생각하세요.

1443	세상의 반이 여성입니다. 여아낙태 덕분에 반이 아닐지고 모르겠네요. 애는 누가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만든 여혐민국은 이미 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 포함 수많은 여성들이 역겨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문의할 때 분명 얘기했죠? 당신들 후회할 거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1444	페미니스트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만큼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매일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걸요. 우리의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러니 손가락 따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그만두길.
1445	제발 더 이상 여성인의 직업을 뺏지마라
1446	근거도 불충분한 억지 주장 좀 그만 들어주세요 그걸 핑계로 올바르지 못한 업계 문화 그만 만들어나가시구요 어른으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애들도 안 할 짓이에요
1447	이성과 논리를 찾으시길
1448	미래의 게임업계를 직접 스스로 망쳐가고있다는 자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1449	먼저,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동화 1 장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구요. 애초에 최종적으로 외주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은 회사 측입니다. 이로 인해 외주 업체나 내부직원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갑질이며 횡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는 지 궁금하며, 애초에 집게손은 남성혐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작다는 의미의 핸드사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핸드사인을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을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남자유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어조를 라이브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남자유저들은 이 핸드사인을 남성혐오, 페미니즘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넥슨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반대하시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넥슨은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회사가 맞습니까? 네 아니요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1450	2023 년에 여성차별 하지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 특정 사상이 될수있다는게 놀랍네요. 페미니스트들은 작업물에 집게손을 넣을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집게손 좀 넣는다고 여권이 신장되는것도 아니고...
1451	각성하라
1452	페미니즘은 남성혐오,여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집게손이 남성을 혐오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과 개인의 사상을 작업물에 반영했다라는 어거지 논란을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없는 작업물들을 문제화하고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마땅히 규탄받아야합니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꼭 각국의 언어로도 공지 부탁드립니다.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게임업계가 전세계에 널리널리 알려지길 바라니까요^^
1453	대기업이라는 곳이 커뮤니티의 억지 의견을 수용하며 여성을 지우는 모습 잘 봤습니다
145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아모스 2:6)
1455	21 세기를 살아갑시다

1456	수치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제발. 21 세기에 사상검증과 마녀사냥이라니.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하는 윤리와 도덕의 결여가 기업에게 적용되면 발생하는 사태에 참담함을 느끼고요. 페미니즘이 마치 나치라도 되는 것 마냥 구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 탑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하네요 이 모든 상황이.
1457	집게손 모양이 무슨 페미니즘의 상징입니까? 또한 페미니즘은 타도되어야할 불순한 사상도 아닙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일부 유저의 말에 휘둘려 실체없는 일로 여성직원들의 노동권을 탄압하는건 오히려 남성의 성권력을 이용한 횡포입니다.
1458	일부 커뮤니티의 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게임의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계를 입맛대로 끊어내고 명예를 훼손시키며 생활범죄에 노출되게끔 종용하는 이 말도안되는 사태를 고쳐야합니다. 사람이 장난감인가요? 무식해서 두고볼수가 없네요.
1459	넥슨의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한다.
1460	1 번이라도 사례가 생긴다면 그건 몇 십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남아서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 발표되는 모든 창작물에 대해 사건사고가 생겨 창작물에 대한 제한되는 사항만 증가하게 될겁니다. 또한 사건의 중심이던 손 동작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언제든 생기는 동작 중 하나일뿐이고 이에 대해 픽셀단위로 확인하고 과대평가하여 사건화하는 사람들에 대응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유저의 주장으로 인해 해외 sns 에 이 사건이 퍼져 결국은 국가망신으로 커지는 일이 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너무 오냐오냐하진 말아주세요. 키보드 하나로 회사잡는 권력이 생긴다는 착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림버스컴퍼니라는 게임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여 게임회사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이상의 비슷한 사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1461	근시안적으로는 하청업체 및 외주작가에게 논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싸게 먹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른 짓이겠지만, 결국 그 해악을 사회에 전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462	사상검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1463	이번 사태로 업계와 일부 남성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문제시 되는 손가락의 자세가 유별날 것 없는 평범한 동작임에도 문제가 된 것에는 작화를 담당한 노동자가 여성이며, 그분께서 과거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인것이 밝혀졌다는 것이 사측과 문제를 제기한 유저들의 주장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의 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란 말입니까? 페미니즘은 남성혐오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줄 것,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 것, 출산을 이유로 경력을 단절시키지 말 것, 성희롱과 성폭행을 하지 말 것 등등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두고 왜 이리도 과격하게 격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되먹지 못한 발언을 일삼는 이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대표하겠습니까? 개인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미흡해 벌어지는 언행들이 페미니즘을 표방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잘못과는 별개로 지나친 일반화와 사회퇴행적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상인가요? 장애인인권운동은 지지하지만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인권운동이 사회 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문제시 되는 손동작에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갈리아의 로고였던 그 손동작과 100% 일치하지도 않는데, 이러한 근거가 어떻게 당위성을 갖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80% 정도만 닮았아도 문제인가요? 50%는요? 1% 닮은 것은 괜찮은 겁니까?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손가락을 묘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할지도 모릅니다. 당사에서 부디 왜곡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성립되지 않는 근거를 들며 하청업체를 위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1464	넥슨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절대 못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전세계를 향해 특정 사상 및 혐오라는 두루뭉실한 말 말고 페미니즘을 거부한다고 정확히 말해주세요.
1465	게임이 남성의 전유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 년도에도 게임하면서 성별이 밝혀졌을 때 불리한 성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만들 때도 성별이 걸림돌이 되는 분야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어거지 논리로 작업자를 찾아내고 마땅히 보호해 할 기업마저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꼴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인권침해와 혐오범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1466	게임 내 여성혐오 문제와 사상검증을 빌미로 여성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위, 특정 혐오 사이트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기울어진 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1467	그 어떤 논란이든 직원,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468	좋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1469	한 단체의 잘못된 지적으로 시작된 마녀사냥과 같은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있어 애니메이터 양성이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학과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이 한국의 기업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객의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함이었더라면, 한쪽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옳았을거라 생각합니다.

1470	무의 상태에서 논란을 만든 곳이 남초이며, 그들이 칭하는 '페미'들은 남자에 큰 관심이 없을텐데 창조논란을 여기까지 끌고왔다는 사실과 이에 반응해준 기업에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1471	여성혐오 문화 척결하라
1472	이런 말도 안되는 생트집 객기에 계속 들어주는 게임업계도, 계속해서 떼를 쓰는 일부 악질남성유저들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남성유저만 자사의 고객이고 유저인가? 이런 식으로 차별할 것이면 처음부터 게임 타이틀 문구 바로 위아래에 큼지막하게 페미니즘을 반대합니다 라고 쓰던지 해라. 여성 유저들이 친히 그 게임사들을 피해 갈 것일테니. 1 프레임 단위로 검열해가는 악질남성유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과연 평화롭고 조용하게만 끝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앞으로도 더더욱 악질적인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말도 안 되게. 게임이라는 문화는 남녀노소 모두가 아무런 차별을 받지도 않고 함께 즐겨야하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해외로도 IP 진출하는 게임사들의 이런 행보를 과연 해외 유저들한테도 통할지 매우 흥미롭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상검증 즉각 중단, 사과 및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1473	그렇게 살지 마시길...
147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475	손가락 하나하나 잡을 시간에 게임 버그나 고쳐주세요
1476	기업이 앞장서서 당당하게 여성혐오를 하고 있는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
1477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똑바로 가르켜서 잘못했다고 해야합니다. 굴복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1478	게임업계의 대한민국 한정의 여성혐오적인 행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1479	모두가 즐기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본인의 발언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길 바람.

1480	남성혐오로부터 익명에 가린 극성 남성 유저들의 의견에 흔들리는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중요한 사안에 대해 투표나 유저와 소통없이 일부 커뮤니티 유저층의 의견에 따라 갈대같이 흔들리는게 옳습니까? 당신들의 혐오를 막겠다는 표현이 여성혐오 차별에 일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앞으로의 사상검증도 페미니즘을 남성혐오임에 동조하는듯한 자세도 문제입니다. 당신의 기업에 오래 기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어리석은 사상검증을 지속하는 한 평생도 각오하고 당신의 기업들에 속한 모든 게임과 다양한 사업에 불매하고자 합니다. 이번사태는 손가락 모양으로 트집잡은 익명에 가린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을 사이버불링으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게임업계에 감놔라 배놔라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당신들이 한 번, 두 번 굽신거리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여성혐오에 이용하고, 또 그러겠습니까? 당장 급한 불 끄려다 화마를 방치하는 꼴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손가락에 트집잡는 단체 피해망상인들의 기저에는 자신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 당신들 기업을 향한 분노가 있고, 페미=여성=남성극차별혐오자주의자의 문제를 긁어 부스럼삼고, 변모시키며 자신들을 피해자인냥 묘사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몰아가고 물타기하는 과정에선 현실에 임하는 많은 여성들이 가스라이팅, 사이버불링, 강제 해고를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얻는 수많은 사람들은 남성혐오자라고 프레임 씌워진 표면에 드러나 여성피해자들만 남는데, 당신의 기업은 이런 여성 피해자를 낳는데 일조하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 입니다. 이들은 기업과 여성들을 쥐락펴락하며 즐거워하는 절대 앞에서 나서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일뿐, 당신의 기업 유저가 아닐수도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기업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기업들에 먼저 손가락질한건 언제나 그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에 동조해서 페미니스트 여성인권운동을 극 남성혐오 성차별 인권운동취급인냥 다루지 마시고, 기업으로서 사상검증에 동차하는 행위 삼가시고 일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1481	기업으로서 사회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라
1482	게임 업계가 정신차리고 혐오종자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483	여성유저도 유저라는 걸 인지했음 좋겠습니다.
1484	반페미 세력에 굴복하는 건 범죄행위다!

1485	특정 손가락 모양이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혐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페미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처단'이라는 명목하에 시작된 일이었으나 지금은 더 나아가 일반 여성 유저들까지 검열하고 사상검증하려고 개인 SNS 를 색출하여 '메이플스토리 인벤' 사이트에 박제 중인 상황입니다. 메이플스토리 운영 측에서는 그 책임에서 완전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 타인을 혐오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하는데 명분을 실어준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1486	모든 혐오에 반대하신다면서 페미니즘엔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모순적입니다.
1487	게임 업계 망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게임 업계를 혐오로 물들이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보아라!
1488	한국 게임업계는 페미니스트 마녀사냥과 여성인권 탄압을 멈춰라
1489	김창섭 디렉터님께서는 메이플스토리가 타인을 혐오하고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일련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건 다름아닌 김창섭 디렉터와 넥슨을 비롯한 일부 남성 유저입니다. 게임업계의 탄압, 조직적인 집단 광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1490	부당해고 및 업무배제된 직원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작업물 또한 복원하세요.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옳지도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1491	인셀남 헛소리 그만 받아줘라. 한국게임 망하는 이유다.
1492	일부 악성 유저의 억지 주장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모든 유저의 말을 경청해라.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라. 법을 이기는 사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손동작을 트집잡아 작업자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악질 무리의 선동에 휘둘리지 마라.
1493	여성 유저 배척 그만하고 여성 혐오를 당장 멈추시오

1494	남성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들에게 잘못된 효용감을 주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매출이 떨어질까봐 무서우신가요? 게임이 외면받을까봐 무서우신가요? 진짜 두려워해야할 것은 남성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직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작금의 사태입니다 게임 산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 중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오락과 놀이, 시간때우기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급력이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서도 대기업이라고 할수있는 넥슨에서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줏대를 가지지 못하고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제대로 반박을 하기는 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굴복하는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작업물에 대해서 정해진 기획이 있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일텐데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조차 하지않는 모습에서 더더욱 실망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넥슨의 직원이라면 내 작업물이 이렇게 쉽게 갈아치워지고 수정되는 것을 보면서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넥슨과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유저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 조금 더 성숙한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넥슨 너무 꼴이 우스워요
1495	이런 억지 논란에 올바르지 못하지만 발 빠른 대처로 상황을 악화시킨 점, 넥슨은 부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496	한국 게임업계에 대표라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1497	게임 유저를 선별하는짓을 멈춰주세요.
1498	정신 좀 차렸으면
1499	인셀들의 혐오에 동참하여 하청업체 및 직원에게 갑질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1500	악성민원인 남성의 기분권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넥슨은 문화기업도 글로벌기업도 될 수 없다.
1501	사상검증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1502	침통한 심정으로,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피해자분들과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1503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창조 논란에 제발로 들어가는 꼴이 한심할 뿐입니다. 인셀도 문제지만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게임 업계도 문제입니다. 남초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그만하고 차라리 성차별을 적극지지한다고 공지라도 하세요 시작도 않게.
1504	한국의 3 대 게임회사라면 번거롭더라도 좀 괜찮은 선례로 남아라.
1505	남성 유저들의 말도안되는 억지에 자꾸 손들어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 마냐사냥하는 것을 막아달라. 여성 노동자를 지켜달라.
1506	이런 말도 안되는 작태를 그만두십시오
1507	여성혐오 재생산 규탄한다

1508	생전 처음 해본 온라인 게임이 넥슨게임인데, 그때 돈한푼 아껴서 피시방가던 유저가 지금은 30 대 중후반이 되어서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게임은 못하지만 버는 거 대부분을 게임에다가 쓰는 사람이 이제 한국게임에는 돈을 안 쓸거라는 걸 아셨으면 하네요. 맘편하게 게임하고 싶어요.
1509	좁은 식견에서 벗어나길
1510	페미니즘을 혐오적인 사상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남성위주의 기업은 필요없다. 이는 소외계층을 탄압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업들이 혐오에 앞장서는 꼴이다.
1511	악성 네티즌의 터무니없는 트집과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게임업계를 비롯한 미디어 컨텐츠 업계 전반에 악영향 끼치는 행위를 중단하라.
1512	성차별에 앞장서서 나가는 넥슨을 규탄합니다
1513	일부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동조하여 또 다른 혐오에 동조하며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14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1515	☒ 이 손가락에 대한 우스운 반응이 죽은 메갈이 산 한남 놀라게한다는 말의 증명이 될 뿐 저 손가락 사용하는 어둠의 페미단체가 있을거라고 진심으로 믿고있다면 메갈리아가 어디로갔는지 실존하는지, 어둠의 페미단체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건지 찾아서 보여달라고 하고 싶다. 못찾을걸? 그런 단체는 없으니까. ☒ 그렇다면 이 손가락은 어디서 많이 쓸까? 국제경기할 때 상대팀 국가들이 한국 smol pp 놀리겠다고 즐겨사용하던데... 이렇게 하나하나 반응 보일수록 한국남성 고추작다!!! 작은데다 거기에 자격지심있다!!! 라고 전 세계에 고래고래 홍보하는 꼴밖에 안 된다.
1516	여성혐오와 마녀사냥을 즉시 중단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를 존중하라!
1517	해당 사안이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없이 게임업계의 종사자의 일상을 무너뜨린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해야할 매체가 즐거움은 없어지고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스포츠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습니다.
1518	말도 안되는 혐오 발언을 받아들이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데 앞서는 넥슨을 규탄합니다.
1519	뒤틀린 인식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을 억압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1520	게임사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있으나 그럼 중립을 지켜 무시로 일관했으면 될 일을, 이 사태는 저 많은 게임사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긍정한다는 건가요? 너무 절망스럽다 이제 한국 게임을 하기가 싫어졌다. 그래도 자국민으로써 아끼는 마음으로 외국 게임은 멀리했는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졌다.
1521	노동자를 규탄하는 억지논란을 멈춰라
1522	애니메이션 사업을 망가트리지 마세요. 장애인 혐오, 여성 혐오를 방관하였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로 사람을 마녀사냥 합니까.
1523	주먹과 보자기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1524	가만히 있었으면 사그라들었을 어이없는 창조논란에 헐레벌떡 굽신거려서 스스로 일을 크게 키우시느라 참 바쁘시겠어요. 앞으로 게임에 페미니즘을 혐오한다고 꼭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525	게임계에서만 통용되던 여성혐오 행보는,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다른 곳도 같을 거라고, 또 그래도 된다는 식의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주세요.
1526	이 거짓 논란으로 무엇을 덮고싶으셨습니까?
1527	현 사안에 대한 한국여성민우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의 개선 바랍니다.
1528	정신차려라
1529	기업이란 많은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그런 책임을 져야할 곳이 경거망동 행동하여 수많은 이에게 상처입히지 말아주십시오.
1530	여론 몰이에 이용당하지 말고 원칙을 중시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31	이 업계에도 미래가 있다고 일말의 희망이나마 가지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1532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점점 퇴보하는 게임 업계에 신물이 납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온 가족이 즐기는 즐거운 게임'에서 저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나봅니다.
1533	여성을 향한 혐오몰이를 당장 멈춰라!
153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중단하라.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1535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인권, 윤리의식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넥슨같은 체급있는 기업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초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넥슨은 물론이고 타 업계이 악성 유저들에게 동조하며 개인과 단체를 위협하는 행태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게임업계에서 이뤄지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1536	이 모든 사건의 1 차적인 원인은 일부 악성 유저 민원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억지 논란을 실제하는 논란으로 받아들여 악성유저측에 사과하고,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 직원을 계약해지, 해고, 업무배제하는 것으로 악성 유저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만든 게임사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악성 유저들은 이런 여성혐오 사상검증 행위를 하나의놀이 문화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페미니즘 사상검증, 직원 보호 미비, 악질유저에 대한 관대한 대처 이제 근절해야합니다.
1537	남초 커뮤니티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 그만해라 김창섭 이원만 강원기
1538	사상에 대한 혐오로 노동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1539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살아가세요
1540	성평등 완성하라
1541	억지 논란에 휘둘리는 것 그만 하십시오. 도대체 그런 억지 논란에 휩쓸려 멀쩡한 직원 내치고 멀쩡한 협업회사를 압박하는게 말이 됩니까?
1542	각종 버그와 과한 유료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때 이보다 신속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익명 회사사이트에서의 넥슨 직원이 " 페미ㄴ들때문에 새벽에 불려간다."라는 글과, 어째서 손가락에 대한것이 페미니스트를 팃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에서 답글에 ㅆ발ㄴ아 물흘리지말라는등의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건에 지금처럼 속출해내실건지 묻고싶습니다.

1543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1544	억지 논란을 들어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넥슨과 모든 게임업계는 자멸을 향해 갈 것이다.
1545	악성 민원은 그냥 먹금이 원칙입니다. 제발 남자 게이머들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1546	뭔 의미를 담기 전에 손가락 모션 들어갔다고 혐오라는데 문제가 있다면 진짜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왜 남성 혐오인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전 정말 이게 왜 문제인지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 뭔 소리야 정말
1547	인셀들과 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21 세기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1548	메갈리아에서 처음쓰여진 것은 맞지만 사이트가 폐쇄된건 5 년이 넘었으며 본인을 포함한 한국남성들은 ⊠가 "한국남성 성기 6.9 센치로 작음을 표현함"으로 비하당하는 걸 보거나 당한 기억이 없을 것임 즉 편집증에 비견될만한 집단망상증이라는것임. 이런 집단망상증을 치료해주지 못할망정 폭주시키려 하는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1549	여성 게이머들을 고객으로 대우하고 여성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1550	업계의 관행이 되어가는 이러한 행태에 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외주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은 그간 비일비재했고 비상식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점이 답답합니다. 업계의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넥슨이 먼저 발벋고 나서 이러한 부당한 일에 거부를 해야합니다. 더이상 이런 억지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일상 생활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두렵다 느낄 게임 업계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1551	7 살 때 부터 어깨 너머로 구경하며 즐겼던 게임이었습니다...
1552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향방에는 무슨 가치가 남아있습니까. 돈만 들어온다면 다 괜찮은것인지요. 그러나 그곳에 돈마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적어도 퇴보는 하지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1553	여성도 개개인의 인간으로 존중해주세요.
1554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같잖은 자존심 세우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행동과 창작 범위에에 제한을 두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1555	말도 안되는 여성혐오에 찬동을 멈춰라.
1556	혐오의 주체와 대상을 똑바로 인지하라
1557	독성 문화에 굴복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이러고도 게임이 문화인가요?
1558	일부 과격한 반사회적 차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실존하지않는 논란을 이해관계 및 사실확인 없이 대처한 부분에 대해 넥슨 및 게임업계는 자신들이 어떠한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559	이페미니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좁힌 그 손동작을 사회 여기저기에 넣기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수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사과문같은거 쓰게 할 시간에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않고 넥슨 안에 있는 여성 노동자나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1560	건강한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억측과 선동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닌 직원의 보호가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561	여성 유저를 유저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위를 규탄하고, 한쪽의 편향된 의견만 수용하는 업계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또한 개인의 생각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및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여성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게임업계는 편향된 시선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소위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랍니다.
1562	문제가 됐던 동영상 봤습니다. 이게 여혐 남혐으로 끌고갈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넥슨이라는 대기업에서 이지메 노동자탄압하려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1563	소수의 악성 네티즌들의 의견만 수용한다면 업계 존재의 의의는 그 불만만 가득한 악질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1564	실체없는 혐오를 받아들인 최악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1565	일부 여섬혐오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여성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비이성적이고 비굴한 판단을 반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게임업계는 각성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1566	페미니즘은 혐오 사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마녀사냥하는 것을 스포츠로 삼고 즐기며 게임 업계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남성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영리적으로도 좋은 방향일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게임 회사라면 좀 더 넓은 시야로, 전 세계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해주세요.
1567	메이플스토리 여성 유저로서 현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여성차별 문제를 규탄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늘 고확으로 올라오던 여성 성희롱, 일베성 발언들을 잊지 못합니다. 이들이 진정 메이플스토리를 위협하는 존재 아닙니까? 왜 이들에 대한 경고 및 조치는 없는 건가요? 왜 출처도 모호한 '집게 손가락' 논란에는 일일이 대응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실질적인 혐오 문제는 피해가나요? 내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현상으로 왜 애꿏은 뿌리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단절돼고 왜 노래 부른 성우까지 사과하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혐오의 혐오를 낳는 유저들과 끝까지 함께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1568	혐오를 반대한다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불쌍해보입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를 내뱉는 삶을 사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569	참나 어이가 없어서
1570	난 또 유저가 아니야? 한국 게임을 하면서 항상 품게 되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도 소비자 취급 받지 못하는 게 디폴트라지만 존재조차 무시받는 건 유쾌하지 못하네요.
1571	(할많하않)
1572	과대표된 헛소리로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1573	혐오를 멈춰라!
1574	정신차리시길
1575	누가 봐도 억지인 사안에 당장 입막음, 회피식으로 논란을 받아들여주고 사과부터 시작하는 안일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자세 때문에 일이 커지고 날조 된 혐오가 마치 사실인냥 덮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576	무시하면 기억에서 잊히고, 들어주면 들어준 보람도 없이 팽당한다는 여러 전례가 있는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1577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생각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에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는 여성 혐오의 행태들에겐 눈과 귀를 막으면서, 이번 사태만 집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기업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1 등 게임 기업이라는 곳이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을까요? 억지에 가까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동자를 오히려 처벌하는 행위를 벌인 기업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 사태에 대해서 당사자성을 느끼는 저는, 기업에서 불공평하게 사상 검증을 한 행위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을 사과와 노동자의 조치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앞으로 넥슨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78	말도 안되는 주장에 인간성을 버리지 마시길
1579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해명을 하던 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봐도 그냥 억지주장인데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다 받아주시지 마시고. 어떻게 다른것도 아니고 손모양이 그렇다고 그 난리가 날 수가 있죠. 특정한 모양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나올수 있는 모양인데.
1580	제발 자승자박을 그만두세요 진상 유저의 억지를 무시히면 한순간은 불타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그들의 억지를 들어주면 온건 유저는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안좋은 선례만이 남습니다... 사실 모르고 이러고 있다곤 생각하시않지만, 기업답게 이익을 따라주세요.
1581	올바른 게임문화사업의 미래를위해 건전한 게임문화사업 발전에 힘써주세요
1582	게임업계는 무분별한 사상검증을 멈추고 자사 근로자의 보호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1583	협상에서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고마워하거나 만족하는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에 언제까지 휘둘릴 것입니까?
1584	한국 대표적 대기업 게임 기업이자 많은 유아 청소년층 유저들을 보유한 처지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1585	사상 검증 중단하라
1586	실체도 없는 억지논란을 받아주는 기업 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검열은 다른 검열을 만듭니다.
1587	저딴 말도 안되는 일을 꼬박꼬박 들어주는 멍청한 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다 받았잖아요 우리? 제발 생각을 하고 삽시다 혐오로 찌든 뇌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시고 존재하지도 않는 혐오가 있다고 조장하는 무리나 그걸 들어주는 넥슨 및 게임업계들이나 다 똑같이 멍청합니다. 그 멍청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1588	페미니즘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내 남초커뮤니티를 제외한 외국과 국내 다른 집단은 왜 이 사태를 조롱하는지 재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589	클로저스가 그렇게 망했는데 깨닫는바가 없는지. 본인들부터 생각 바꿔야할듯. 애먼 직원들이 사회부적응자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회부적응자라 전세계에서 규탄당하는걸 왜 아직도 인정 못하는지

1590	해당 사건이 시작된 메이플 인벤 커뮤니티를 예전부터 눈팅해왔던 입장으로 이번 관련 사건에 대해서 초기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엔젤릭버스터'라는 캐릭터의 능력치와 '보스 결정석값 하락' 등 게임 내 운영진들의 태도에 분노했던 일부 유저들이 '엔젤릭버스터' 캐릭터의 공식 영상에 참여한 애니메이터와 가수 '나래'의 SNS 를 뒷조사 하다가 김자연 성우의 리트윗, 대선 이후 (여성부 폐지 공약 관련) '페미니즘' 하겠다라는 발언을 캡쳐해와서 사상검증을 시작했고, 이후에 캐릭터 뮤비의 장면을 캡쳐해와서 해당 '집게손'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명백한 망상에 사로잡힌 무지성 우기기 논란이며 무대응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상대하고 공지하여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메이플스토리 운영진 및 넥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주말 출근 등에 대하여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에게 굴절혐오 하지말고 해당 억지 논란을 일으켜서 업무를 늘린 인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에펨코리아 등의 남성 유저들에게 분노를 하십시오.
1591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로 시작된 항의에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게임을 유린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 대응했지만, 타인에 대한 혐오가 아닌 남자 플레이어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 논란 만들기에 손들어주고 오히려 혐오에서 기반된 횡포를 지지하고 있는 넥슨과 게임업계 행태를 규탄합니다.
1592	이렇게 여성 동료의 노동권을 침해한 이상 당신들도 나중에 똑같이 당할 겁니다.
1593	다른 나라의 온라인 게임에서도, 집게손을 빌미로 혐오표현이라며 조장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안들을 무시로 일관하고 운영을 잘 지켜나가면서 여성유저와 남성유저 모두 즐겁게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넥슨은 한국 게임에서도 대기업에 축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규탄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젠더갈등을 극심화 시키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말만 듣는 행위또한 이해되질 않습니다. 누굴위한 게임인가요. 누굴위한 게임 업계인가요.
1594	실제로 어떠한 혐오와 문제가 있다면 얼렁뚱땅 바로 내릴 것이 아니라 법과 과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595	1. 페미니즘은 어느 한 성별 우월주의가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 그간 메이플스토리의 유저로서 해당 게임의 스토리상 npc와 플레이어블 할 것 없이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 캐릭터들과 비중과 서사 면에서 차별되는 부분이 없고 성별이 부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무척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방향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대단한게 페미니즘인 게 아닙니다... 페미니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온 넥슨은 하던대로만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억지스러운 인터넷 테러 행위에는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이 건전한 방향입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휘둘리실 건가요...?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1596	게이머들과 여성들의 의견은 여태껏 묵살해왔으면서 남초커뮤니티의 손가락몰이에는 바로 반응하고 전전긍긍하며 말도 안되는 행동만 이어나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1597	어이없는 행각에 전하고픈 의견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1598	사회악 넥슨은 망해라
1599	어릴때 해왔던 게임 중 하나였는데 추억이 날라갔네요. 좋아하던걸 쪽팔리게 만들었는데 책임을 어디다 물으시는건가요..ㅋㅋ;
1600	남초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클로저스 캐릭터 성우가 교체되는 사상검증 사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남초 커뮤니티에 소속된 것이 무엇이라도 된 듯 한 자아를 비대해지게 만든 데 실망이 매우 큽니다.
1601	많이 실망했고 그동안 쏟은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혐오 표현을 근절하자면서 여성 혐오는 방조하는 모습 그만 보고싶습니다.
1602	사상검증으로 인한 무분별한 마녀사냥과 그로인해 근로자의 부당한 대응은 없어져야할 사항입니다. 어느새 스포츠 문화처럼 자리잡은 마녀사냥, 페미낙인을 없애야합니다.
1603	페미가 무서우면 한국을 떠나라
1604	넥슨은 과거와 똑같은 행위로 직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해를 행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해명하고 정말로 혐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어느 쪽인지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1605	이러다 캐릭터 손가락 아예 안그리겠네
1606	저열한 여성혐오자의 말에 귀기울이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1607	할 일 없는 인간들이 프레임단위로 찾아내는 소위 '페미 증거'들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끝없이 수정하며 대체 내가 왜 헛소리에 귀 기울였나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림버스컴퍼니의 매출 변화도 함께 보셔도 좋겠네요.
1608	규탄합니다

1609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혐오도 아닌 단순한 손가락 제스처로 사람을 낙인 찍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심지어 페미니즘은 반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반페미니즘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게임업계 내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1610	게임은 질병이라는 말, 게임업계에 대한 탄압이라 주장하셨죠?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사는 사행성과 여성직원 인권, 노동권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은커녕 기피하면서 도박중독을 야기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회악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지요. 스스로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여 대중들에게 게임은 해롭고 사회악이며 질병이라는 편견을 심어준 것에 대해 부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척 탄압한다 징징대지 말고요.
1611	성차별 문화, 온라인 괴롭힘, 부당해고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게 게임이 정당하게 문화콘텐츠로 인정받을 길이 될 것입니다
1612	넥슨 및 게임업계가 한 일은 차별 철퇴가 아닌 단순 여성 노동자 억압이며 이는 본인을 오직 남성이라는 성별 하나만으로 우월주의에 빠진 시대착오적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1613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 유저가 한 회사의 직원을 자르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빌빌 기면서 기분을 맞춰주는 일은 없습니다. 마녀사냥에 혈안이 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페미니즘은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혐오 사상도 아닙니다. 노동자의 성평등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1614	일부 유저 집단의 착각과 집착에 굴복하여 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박탈하는 게임사들을 규탄합니다.
1615	게임업계는 일부 블랙컨슈머들과 침몰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1616	터무니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트집에 실제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단 사이버불링 행위에 희열을 느끼는 한심한 모습이 아닌, 제정신으로 현실을 살아가세요.
1617	넥슨 및 게임업계는 사상검증을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1618	여성 혐오 용인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망하려면 혐오하고 흥하려면 평등보장하라!
1619	언제까지 일부 몰지각한 유저들의 생떼를 받아주실 겁니까? 유저의 억지 생떼는 받아주고 일개 직원의 신변은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1620	초등학생때부터 게임을 즐기던 여성유저로서 이젠 2 등시민 취급도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장난감 인형처럼 사고 팔고 버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급할 때 미끼로 쓰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게임은 남녀노소 장벽없이 즐길 수 있는 미디어매체 아니었나요? 개발자분들은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게만 허락된 놀거리로 생각하고 만드셨던건가요? 아니면 여성 유저는 유저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셨던건가요? 그 목소리가 어느 무엇보다 커보였던건가요? 어렸을 때 부터 게임과 함께 자랐고, 저에게 정말 소중한 취미였었는데 이제 무엇을 좋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게임업계를 믿을 수 있을지, 국내 게임을 더 플레이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억지라는건 다들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게임이 그냥 생각없는 오락거리가 아니라 예술성있는 문화 매체로 인정받고 싶다면, 진정 게임을 사랑하신다면 떼쓰는 쪽 편들기는 그만둬주세요. 수많은 혐오표현을 자랑스레 말하는 쪽을 밀어내주세요. 혐오를 받아들일수록 더 큰 혐오가 될 뿐입니다. 게임업계의 거대한 종양을 떼어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세계가 보장받길 기대합니다.
1621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춰라.
1622	가족들도 할 수 있는 전체 연령가 게임 개발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기업이면서 어떻게 여성 혐오 사안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격 일처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넥슨 기업이 보여준 행태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은 고스란히 동종 업계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이 덤탱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넥슨의 이같은 행보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클로저스 성우 강판 사건)에서 규탄합니다.
1623	회사는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게임업계는 진상 유저들의 '작업물에 존재하는 모든 집게 손가락 모양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해당 직원을 축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넙죽 엎드려 사과를 한다는 최악의 행동을 저질렀다. 넥슨이 진상 유저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안 무려 직원들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침해당했고, 앞으로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나 하나 꼬투리를 잡아 억지를 부리면 먹힌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렸으며, 집단 망상에 빠진 자들이 넣은 악성 민원으로도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앞으로 진상 유저들은 기분이 상할 때 마다 직원들의 SNS 를 뒤지고, 해고하라고 협박하고, 회사에 침입하고, CCTV 를 털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페미니즘을 떠나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1624	26 일 진행된 라이브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메이플스토리를 유린하도록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만, 묻고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있는건 진정 누구입니까?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채 사지로 내몰리는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입니까, 프레임 단위로 손가락 모양을 검열하며 논란을 창조하는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입니까? 한 명의 여성이자 게이머로서 질문합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과 남성 게이머들이 아닙니까?

1625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주장하는 남혐 논란으로 무고한 성우, 일러스트레이터, 여성 직원을 자르지 않길 바랍니다.
1626	한국 게임업계는 시대의 흐름에 응하라
1627	성별을 떠나 건전한 게임문화 및 업계운영을 위해, 일부 악성유저의 억측으로 인한 대규모 마녀사냥을 방임함으로 악성유저측을 간접지지한 모든 조치를 철회하십시오
1628	현실을 사세요.
1629	단순히 무언가를 잡기위해 묘사된 집게손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척출하고 이러한 여성을 '미친*', '시**' 등의 저급한 욕으로 조롱하는 남성은 단순히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임업계는 망하는 것이 맞다.
1630	유저들의 억지논란에 동조하며 여성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계임업계에 대해 규탄합니다.
1631	여성 소비자들도 소비자입니다.
1632	페미니스트는 남성들을 혐오하기 위해 뭉친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일부 유저의 억지에 사과문을 내는 것은 넥슨 및 게입업계가 성차별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남성들만 게임 유저인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1633	어떻게 2016 년 이후 발전은 커녕 더 악화되기만 하는 건가? 왜 중립을 지키지도 못하고, 침묵조차 못하는가? 심지어 '그들'이 원하던 사과문이나 입장문을 올리더라도, 악성 인셀의 악행은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 및 모욕에 직원의 신상까지 캐내려고 한다. 넥슨 외에도 다른 업체 또한 사상검증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해라.
1634	노답
1635	제발 평범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1636	한국 게임은 망해야 한다
1637	비이성적인 의견에 휩쓸려 더 이상 여자들의 밥줄을 끊지 말아주십시오.
1638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 남성혐오를 바탕으로 한다는 후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두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여성들은 남성들의 성기 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1639	억지논란 혐오몰이는 이제 그만되어야합니다. 응원합니다 !
1640	인셀의 근거없는 주장에 힘을 싣지 마시길 바랍니다.
1641	게임업계 정신차리세요. 극단적 남초 의견에 맞춰주다가 e-스포츠가 아닌 e-일베 되고 싶습니까?
1642	본인들 전부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놓아보라. 당신의 손가락도 집게모양이다.
1643	소비자를 이해하는척 남성들의 되도않는 논리에 손들어주고 그러면서 여혐하는데 동참하지 마세요. 이로써 넥슨의 모든 게임을 불매하겠습니다.
1644	블랙 컨슈머의 억지 주장에 사과문까지 쓰며 정당한 작업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에 동의하는 게임 업계는 반성하라.
1645	일부 남성 유저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다른 유저들의 의견들 또한 들어주세요.

1646	게임업계가 유독 사상검증이 심하던데 해고를 그렇게 바로 해도 되나요? 불법 아닌가요?
1647	창조된 논란을 키울수록 결국 손해는 게임업계만 더 커질 것입니다. 여성혐오와 차별을 멈추세요.
1648	지난 2016 년부터 게임업계는 진상유저의 말도안되는 트집을 빌미로 여성 직원을 해고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림버스 사태와 넥슨의 경우에는 노동법을 무시하고 당일 해고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게임업계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않은 큰 일이지만 이 사례가 다른 업계까지 번지면 많은 여성 어쩌면 윗사람의 눈에 난 남자까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노동자인 저는 이번 기자회견에 적극 동의하며 다시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1649	이미 유구한 선례와 그에 따른 결과의 자료가 무구히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의견도 아닌 원색적인 땡깡을 수긍해줄 뿐인 회사의 똥고집을 규탄합니다. 이러한 사상검증의 시초 격인 회사가 반성은 커녕 똑같은 행보로 똑같은 검증을 하고있으니, 회사 내부 인원또한 인셀과 같은 의견 및 인셀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거겠죠? 같잖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무시를 택한 회사의 결과는 세상에 나와있으니까요. 회사 내부 팀이 아니라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그랬으면 그 분도 분명 직장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미 거의 비슷해졌지만요) 그저 성차별적인 관행을 유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낱 유저의 땡깡을 들어주는 한계가 깨졌기 때문에 회사 및 게임은 이제 아주 사소한 점이라도 들어줘야되게 생겼습니다. 뭐, 본인들이 자초하신거니 책임지셔야겠지만.
1650	정신좀 차려 진짜
1651	이번 여성혐오적 사태 해결 과정 속에 들어있는 성차별적 문화를 직시하고, 이것에야말로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1652	글로벌화는 포기해라 이제
1653	일베논리에 동조하는 모양새같습니다. 성차별반대의 반대, 남성우월주의가 일베논리입니다. 심지어 일베는 반대하며 깨어있는척 하면서 페미라는 성차별반대주의에 반기를 드는 무리들 또한 일베사상에 스며든 무리 같습니다. 일러스트리 작업시 무언가를 가르킬 때 집게모양으로 그리는게 일반적인데 실제 페미니스트를 나타나는 모양도 아닌 일반젓 모양을 페미로 규정하며 잣대를 삼는게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성장 실제 조롱의 의미로 달린 집게모양과 문구를 한 성인사이트 불매는 왜 안하는지 그것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설명될거라 여겨집니다.
1654	2003 년부터 시작한 넥슨 게임 마비노기를 어제부로 접고 넥슨도 탈퇴했습니다 그 게임에 담긴건 추억 정도가 아니라 저의 인생의 일부 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접는게 쉽지 않았어요 남의 밥줄 억지로 끊으려는 사람들의 말에만 특히 더 귀 기울여 주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만 하려 합니다

1655	사람이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모양을 문제 있는 모양이라고 억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정말 그것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모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은 전세계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사상인데 잘못된 것인냥 왜 낙인을 찍어서 매장 시키려하는지 궁금합니다
1656	더 이상 부당한 마녀사냥은 그만! 개발자를, 업계 구성원을 지켜주세요.
165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추십시오.
1658	나라가 망하는 꼴을 무력하게 보고있으니 통탄한 마음 뿐입니다.
1659	무분별한 인셀 남성들의 ‘내 기분이 나쁘니 받아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성차별적인 행위와 색출을 계속한다면 게임업계는 두 번 다시 회생할 수 없을 것이며 올바른 인식을 가진 게이머라면 한국 게임에 그 어떤 비용과 시간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1660	아직도 그들 집단이 거대해보이더냐.
1661	사상검증 철폐
1662	남성들의 쓸데없는 억지에 먹금해주셨으면 합니다
1663	넥슨 및 모든 게임업계 회사들은 여성들을 마녀사냥하는 짓을 멈추고 일부 남성들의 떼쓰는 것을 받지 말아야합니다. 여성유저도 유저란 것을 다시 머릿속에 심어야합니다.
1664	넥슨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며 여성을 차별하는 기업
1665	노동자 탄압을 멈춰라!
1666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의견으로만 좌지우지되는 현상황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1667	넥슨은 집단적 착각에 지나지 않는 손가락 논란을 무시하셨어야합니다.
1668	인게임내 가득한 여혐표현은 냅두더니 이상한 의견엔 먹금하고 서비스 퀄리티에나 힘썻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문화가 아니라 질병에 되감에 힘쓰고 있는건 업계아니신지?
1669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려는 남초의 집단적 광기와 악의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자기 검열을 함으로써 약자를 억압하고 배척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넥슨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성원들, 특히 악의로 가득찬 외부 세력의 타겟이 되고 있는 여성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670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천천히 직접해보십시오. 당신들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671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대착오적 판단입니다.
1672	일부 멍청한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그만 받아주고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복직시켜줬으면 합니다
1673	게임업계는 억지 논란에 순응하여 노동자를 해고함에 이어 다른 곳에서도 구직을 하지 못하게 낙인찍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1674	언제까지 그들의 징징거림을 다 받아주고만 있을건가요? 그들도 자신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주면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해외의 반응을 보세요. 한국 남성들을 스스로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추태입니다.

1675	게임업계의 큰 손인 넥슨이 성숙한 게임문화를 주도하진 못할 망정, 업계에 속해있거나 게임을 소비하는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고 공격받도록 방치하는 태도를 규탄한다. 지금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업계가 저지르는 행동들은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고 명백하게 부당한 행동이다.
1676	망상과 불통이 삶의 전부인 블랙 컨슈머들의 혐오 사상에 힘을 실어주는 방관/동조 행위를 이제 그만 멈추세요. 오늘의 대가는 고스란히 당신들과 당신들의 실제 소비자들이 치러야 합니다.
1677	피해망상에 휘둘려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1678	저는 여성혐오에 지쳐 게임업계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1679	오냐오냐 하다 개판난다 먹금좀
1680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사상검증하는 만행을 멈춰라
1681	반사회적인 성향을 띄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식의 혐오 놀이가 이젠 완전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1682	페미니즘은 남자혐오가 아니라 여남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뜻합니다. 넥슨 및 게임 업계 모두가 성차별자가 아니라면 작금과 같은 사태를 멈추십시오.
1683	언제쯤 이 억지놀음이 대해 단호히 대처할 건지 궁금합니다.
1684	그동안 여성혐오나 지역혐오 발언과 상당수의 욕에 대해서는 왜 제재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은 흐린눈 하면서 왜 창조논란에만 격하게 반응하였는지, 왜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도 못 하고 영문으로 입장문 내지도 못 할거면서 두루뭉술하게 발언하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어차피 창조논란을 일으킨 인셀들과 동일한 사상을 지녀서겠지만요.
1685	여자는 남자를 위한 급식기나 샌드백이 아닌, 사람입니다.
1686	마녀 사냥식의 여성 및 노동자 탄압을 멈춰라
1687	당장의 논란거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인셀 유저의 무분별한 사상검증에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없이 직원이나 유저, 기타 관련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인셀유저들은 전 유저의 대표인 것도 아니며, 놀이처럼 이어지는 사상검증에 전부 대응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본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오락처럼 무분별하게 사상검증을 시도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십시오. 비단 이것은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다른 업계에서 일어나는 사상검증 사건이나 성차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게임업계는 전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1688	악질 진상 민원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라
1689	정신을좀차리시길바랍니다제발 작업물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손가락 모양이 논란이라고 하청업체에 대한 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부터가 진짜 저능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남성혐오로 포장하지 마시고 모든 혐오에 맞서겠다는 모순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고성능 확성기에 여성혐오 욕이 필터링없이 올라올 때 한번이라도 이렇게 강경 대응 하신 적 있나요?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건 혐오에 맞서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엄연히 페미니즘에 대한 억압입니다
1690	7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것이 없네요

1691	페미니즘에 대한 인셀들의 오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여성 업계 종사자를 무분별한 혐오 표현 속에 방치하고,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넥슨 및 여타 게임업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692	언제까지 노동자 보호는 안하고 악성 유저들의 떼쓰기를 들어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1693	억지논란에 맞장구치며 여성업계인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만두어야합니다. 동화속에서 당연히만들어지는 아주 짧은 프레임 한컷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행위에 동조하고 사과한것 매우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1694	더이상 인셀남들의 억지부리기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를 좌시할 수 없겠습니다.
1695	형체도 없는 혐오론을 주장하는 일부의 말을 수용해 사상검증을 하고 성차별과 노동자를 협박하는 넥슨은 반성해라.
1696	사상검증으로 인해 존경하는 분들이 사이버불링에 시달리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게임사는 부디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셨음 좋겠습니다.
1697	재미를 위하여 억지 꼬투리를 잡혀 멀쩡한 직원과 회사를 꼬리자르는 넥슨과 게임업계 규탄한다. 악성유저를 단호히 대처하라.
1698	정신차리시길
1699	게임업계 특히 넥슨이 악성유저의 의견이 마치 중요한 것인 것처럼 취급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1700	답답하네요 무슨 사상의 문제가 있다고 페미니즘을 검증하고 거릅니까..? 전세계 망신..
1701	엄지와 그밖의 다른 손가락이 있는 사람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자세를 프레임 단위로 찾아내서 이게 페미니즘입네 뭐네 하면서 사상 검증을 할 시간이 있다면 게임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들이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직원 보호나 복지에 힘을 쓰든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생떼라는 것을 아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들어주겠다고 직원들을 휴일에 불러다가 프레임 단위로 손 모양 찾고 수정시키고 공지 올리라고 시키는 게 정상적인 회사가 할만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1702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억지스러운 떼쓰기에 동조하지 말아주세요
1703	그릇된 판단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하라!
1704	극히 일부 커뮤니티남들이 자신들이 만든 조롱을 자기들이 찾겠다며 무려 0.1 초 정도의 순간 지나가는 그림(동작과 동작을 이어주는 중간동작)에 의미부여하며 마녀사냥하는 이 상황이 통탄스럽다. 그런데 기업조차 이 커뮤니티남들의 손을 들어주며 여성혐오에 동참하고 있다. 결국 프로모션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는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다. 이게 과연 메이플 담당자가 말하는 혐오를 혐오한다는 것일까? 필자는 오히려 기업측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3 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다는 게 참담한 심정이다.
1705	진짜 좋은 게임문화를 위해 어떤 것이 옳은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706	헛된 것 신경쓰기 전에 게임이나 잘 만들어라
1707	부당해고 즉 위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

1708	그동안 많은 약자혐오들은 그냥 넘어갔으면서 오직 페미니스트에 대한 논란만 그것도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음침하게 대응하고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1709	당신들의 빈 머리를 김치 담그는 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 같습니다.
1710	게임업계의 여성혐오와 괴롭힘을 규탄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업계든 일부 악성 고객의 의견을 따라 무고한 여성을 해고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711	성 평등 교육 좀 해라
1712	반민주적이며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억지 창조 논란으로 여성노동자를 검열하고 생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713	확인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사람의 밥줄을 끊는 일을 멈추십시오.
1714	남성들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잘못 되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입장표명하십시오.
1715	게임 업계의 터무니 없는 악습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넥슨은 하청업체와 직원을 보호하고 혐오적 사상에 동조 및 조장하는 일을 즉시 멈추십시오.
1716	말도 안되는 억측과 비논리에 휘둘리는 게임 업계의 만행에 어이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혐오를 유발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 입니다.
1717	사상검증조차 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 괴롭힘을 멈춰라.
1718	터무니없는 억지 논란을 수용하고 굴복하며 그것이 곧 여성 혐오로 이어지고 결국 많은 여성 유저들이 떠나가면 종국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넥슨은 한 치 앞만 보고 미래는 전혀 내다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 논란에 먹금(먹이 금지) 했던 다른 기업들의 예, 그리고 해외 〈파타고니아〉 의 대처들을 되짚어 보며 얼마나 안일하고 어리석은 사죄였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1719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해온 유저인데 여성은 유저가 아닌듯 오로지 일부 남성들의 억지주장에만 손을 들어주는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성 직원도 여성 유저도 보호하지 못할거라면 처음부터 여성의 가입을 거부하고 여성의 돈을 받지말아야 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의 흐름에 타지도 못하고 도태되는 국내 게임 업계가 안타깝습니다.
1720	한국게임업계 내에 만연한 여성혐오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기고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맹세하라
1721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보세요.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조용해질 인셀들의 발언을 왜 들어주고 심지어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넥슨의 동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검증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세요. 이게 2023 년이라니 처참합니다.
1722	가족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서 암만 일개 유저의 발언이라고 해도 인게임 내 혐오 발언과 이번 사건의 대처에 대한 온도차가 너무 극명한것 아닌가요? 국내 게임업계 대기업의 대처가 이정도라니 유감스럽습니다. 이래봤자 전 여성 유저라 코빼기도 안듣겠지만요 ㅎㅎ
1723	성립되지 않는 사유를 바탕으로 민원을 응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데 일조하는 행위 규탄한다.
1724	계속 같은 이슈가 일어날 테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1725	손가락이 뭐가 어쨌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혐오를 규탄하고 가족이 즐기는 게임을 지향한다면서 게임 내 팽배한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단어 사용 희롱 등은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합니다
1726	표현방법에서 말도 안되는 생떼같은 주장까지 다 수용해서까지 게임업무 및 다른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까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컨텐츠 기다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입니다..
1727	인셀남들의 억지로 여성의 일자리를 뺏지 마라.
1728	페미 낙인과 여성에 대한 사상검증을 멈춰주세요. 여성혐오를 스포츠처럼 여기는 남초커뮤니티 및 일부 남성 게임 유저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1729	어린시절 오빠를 따라 메이플스토리를 시작한지 벌써 16 년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 제 어린시잘을 함께 성장해온 게임이었던 만큼 정이 깊었고 애정 또한 깊었는데, 일부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유저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말같지도 않은 억지 논란을 일으키고 타 회사에까지 피해를 주는 행태를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넥슨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입장을 무른다 하여도 그건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그간 제 추억을 책임져줘서 고마웠습니다.
1730	불법해고 부당 업무분배를 하지 마십시오
1731	노동자를 보호하고 처음 애니메이션을 캡쳐하여 넥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최초유포자와 그에 동조한 인물들을 엄벌해주세요.
1732	비사회적인 일부 소수 남자들의 요구에 넘어가는 회사가되지 않길 바랍니다.
1733	억지 논란을 멈추세요
1734	평생 여성 게이머, 여성 컨텐츠 작업자들을 배제한 채 남성사회에서만 살아갈 생각이시라면 아예 계정 가입도 남성 유저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1735	억지 논란 그만!!
1736	여자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1737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738	차별을 멈추고 그럴 시간에 게임 업데이트나 똑바로 하라고 전해주세요.
1739	억지 논란을 들어주고 사과하는것이 혐오에 손들어주고 있는 행위이며 문제 없는 작업자 및 작업물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행동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740	일부 유저들의 착각으로 인한 논란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페미 검열에 그만 동조하십시오.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마인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하십시오.
1741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것이 게임업계로부터의 퇴출로 이어지는 사태가 더는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1742	제대로 사고한다면 이번 일에 이렇게 대처하지 않을겁니다. 상식을 갖고 운영하세요.
1743	여성 노동착취를 멈추세요
1744	넥슨 정신차려라 페미니즘은 현대인의 기본적인 교양이다!
1745	페미니즘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지, 여성우월주위나 남성 혐오를 조장하는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이것이 파시즘 나치즘과 같이, 일베 사상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이에 관련된 논문과 서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46	진정한 혐오를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747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사람의 밥줄을 자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1748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1749	여성유저 그만무시하고 여캐 팬티 가슴에 그만 집착해주세요. 쪽팔려요
1750	혐오와 차별을 멈춰라
1751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1752	상식적'으로 애니메이팅에 필요한 장면을 특정 성별이 주장하는 억지 논란에 차별이라 화답하는 한심함을 이루말할 수 없다. 혐오이고 논란이라 주장하는 사안의 전체 흐름을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왜 논란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았다면 이것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당 프레임은 그들이 주장하는 논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애니메이팅의 한 부분인데 이제와 그것이 사상을 주장하는 논란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습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성별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기업도 하찮다. 이렇게 말을 해봐야 이미 그 우매한 주장에 물들어 진짜 차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알아들을까? 계속 그렇게 기업의 사상을 티 내어 소비하지않게 도움을 주어 오히려 감사하다.
1753	넥슨 게임 및 게임업계는 페미니즘(성평등)과 남성혐오를 동일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넥슨 게임 및 게임업계는 성평등을 반대하는가?
1754	넥슨 및 게임업계는 구시대적이며 여성혐오적인 악습을 멈추길 바랍니다
1755	부끄러운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서 해외에는 알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국산 겜 즐기고 만들러 온 여자들 다 자르고 배제해 남자만 남는 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인가? 당신들이 풀고 방조한 독이 게임계를 넘어 애니메이션계까지 도달했다. 이 지긋지긋한 독이 모든 문화에 퍼지기 전에 지금 막아야 한다. 여자를 고기방패로 내세우지 마라. 여성 노동자를 고기방패로 내세우지 마라!
1756	말도 안되는 사유로 노동자 및 하청업체를 탄압하는 짓들을 멈추길 바랍니다.
1757	페미니즘은 모두가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것을 성차별자 라고 합니다.
1758	손가락에 왜이러케 큰 의미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란 하나의 사상일뿐인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커리어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59	억지논란을 일으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걸 멈춰주세요! 게임 업계에서 이들에게 바짝 엎드린 결과는 머지 않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혐오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성차별주의자라고 당당히 외치지 마십시오. 억지논란을 핑계로 부당한 해고 근절하십시오.
1760	제발, 세계시민답게 살아갑시다.2023 년도에요!!

1761	주로 과금하는게 남성 유저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 세기고 2023 년입니다. 이게 정말 공식이 나서서 공지를 올려야하는 사안인가요?
1762	성평등한 게임 하고싶다
1763	넥슨은 게임업계 대표 기업으로 거론될만큼 몸집이 커진이상 노동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되도않는 악성민원을 받아들여 전방위한 업계전반에 노동권 침해가 퍼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당장 멈추세요!
1764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걸어나가세요 뭐하는 짓입니까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쪽팔려 죽겠네
1765	부디 상식적으로 사고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766	모든 혐오를 없애겠다 했는데 여성혐오는 그동안 왜 묵인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지논란에 휩싸인 개발자와 작업자보다는 애초에 여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듯한 대기업이야 말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1767	한국 인셀들 발닥개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한국 게임계는 그냥 끝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태인데, 요즘 사회적 문제인 20 대 남자들의 피해의식의 집합체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 줄도 몰라서,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와중에도 자기들끼리는 페미들을 제대로 혼내주고 있다며 통쾌해하고 있는 참 불쌍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현실을 알려주십시오. 더이상 보고 있으면 안됩니다.
1768	2007 년작 테일즈위버나 바람의 나라 비슈누석상에도 집게 손이 사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커뮤니티 글 놓치지 않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를 어떤 처지에 몰아 넣었는지 자각이 되십니까? 진심으로 합당한 근거가 갖춰진 논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12 년 의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유저들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설설 기는 게임사나 모두 동일한 사상을 공유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정신 차려라'와 같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수고하시라는 말이나 하고 싶네요. 본인들이 초래한 무한 피드백 굴레에서 열심히 일해 보세요. 자업자득이니까요.
1769	악성 사용자들의 민원에 따라 시대를 역행하지 말아주세요.
1770	국내 게임 업계는 혐오가 싫다면서요? 지금 보이는 행태가 바로 혐오입니다.
1771	말같지도 않은 말을 왜 들어줘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1772	사소하고 말이 되지도 않는 논란에 공식 입장을 내며 반응하여 힘을 키워주지 마십시오
1773	제발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 논란을 그냥 무시하십시오
1774	일부 유저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오냐오냐 들어주며 하청기업과 프리랜서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제발 그만두길 바랍니다.

1775	수많은 여성혐오 닉네임, 성희롱 등이 판 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니 극단적 일부 남자들의 억지에는 주말 새벽 24:00 부터 득달같이 달려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여성 유저를 유저로 취급하지 않었는지,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지가 느껴진다.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운 동작을 위한 공식처럼 느껴지는 손 동작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게 한국의 대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창피하다. 제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베우는게 있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여성을 배제했던 기업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데 뼈저리게 느꼈으면 한다. 같은 논란에 굴복하지 않았던 무신사와 맥도날드 등의 행보와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보고 제발 좀 배워라
1776	더이상 억지논란 창조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마세요. 사회악을 생성하는데 동조하지 마십시오.
1777	클러저스 사태 때부터 전혀 나아지지 않은 넥슨을 규탄한다 사상검증을 계속하며 업계를 망치는 것을 규탄한다 계속 그럴 거면 앞으로 게임 시작화면에 사상검증한다고 박아둬라 처음부터 하지 않게. 소비자의 돈을 받고 싶다면 떳떳하게 해라
1778	더이상 사측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억측을 근거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779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지않으신지..
1780	클로져스 부터 본 사태까지 여성들은 기억하고 있고 잊지않을것입니다.
1781	놀이로 혐오를 일삼는 집단이 어딘지 똑바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정도도 안 되는 회사라면 당신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782	여성혐오 창조논란으로 멀쩡한 여성의 밥줄을 지속적으로 끊는 악질기업들 평생 불매한다. 아이디도 전부 탈퇴했다. 성차별자 남성들 전부 끌어안고 망한 줄도 모를 만큼 조용히 침몰하세요.
1783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에요 정말😑
1784	근시안적인 영업방식으로부터 제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1785	억지를 들어주는 순간 결국 족쇄는 미래의 게임업계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입니다.
1786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유저 지우기를 멈춰라
1787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 21 세기야
1788	한남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는 회사 말고 진짜 게임을 좋아하고 위하며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789	이번 선택은 정말 나라망신입니다. 부끄러워 잠못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90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은 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멈춰주세요.
1791	인터넷만 하는 몇몇 남자들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사상검증 들먹이며 직원 및 하청업체 압박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억지 입니다.
1792	억지 논란에는 대응이 이렇게 빠른데 여성혐오 단어에는 왜 지금까지 대응을 하지않았죠?
1793	게임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애꿎은 여성/페미니스트 창작자를 희생양 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1794	넥슨의 성차별적인 회사 운영을 규탄한다. 혐오자들의 말에 확성기를 부여하지말라
1795	일부 유저들의 마녀사냥식 몰이에 기업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잘못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깊은 통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여성 유저를 향한 성희롱에는 동일한 대응은 하지 않고, 심지어 최근 캐릭터 일러스트에 잘못된 마냐사냥으로 여성 디렉터의 해고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크게 비교됩니다.
1796	인셀 남자 말 그렇게 고분고분 들어주면 안 쪽팔리냐?
1797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트집 잡기로 업계에서 내몰리는 부당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1798	일부 유저들과 소통한다는 이유로 얼토당토 않게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1799	게임계에서 도태되고싶은건지, 저게 문제이면 남성국회의원들의 손가락 모션또한 지적하게 되는건데, 그러면 현 국회의원들이 자진사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0	이런 개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1801	처신 잘하세요
1802	정신차리세요
1803	이렇게 남성의 억지 주장에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게임 더 이상 못 하겠다. 유년 시절부터 즐겨하던 게임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할 생각이 사라졌다. 넥슨 및 게임업계는 계속해서 억지 논란에 휘둘리며 여성을 억압하다 결국 자멸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페미니즘/여성 규탄을 그만하거나 그대로 망해라.
1804	여성 유저를 배제한다면 도태될수밖에 없을겁니다
1805	블랙컨슈머들의 억지 논란이 받아들여진 이후, 소위 그들이 말하듯 '혐오가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넥슨 게임의 여성 유저였던 저는 두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째, 여성 게이머를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정 sns 유저가 페미니즘 발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sns 유저의 게임 아이디를 낱낱이 아카이빙하고, 사이버스토킹하여 추적. 감시. 관찰하며 관련 자료를 남성 게이머 커뮤니티에 박제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여성 유저를 향한 모욕적인 조롱과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스토킹 및 집단 사이버불링이 그들만의 '놀이'처럼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여성 게이머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 제기에 지목된 담당자가 퇴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개인 신상정보를 스토킹하고 불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생계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외주 담당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한 종사자를 특정하며 꼬리를 자른 결과, 이 종사자는 홀로 모든 비방과 스토킹에 노출되며 크나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 넘은 그들의 행위가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악순환의 굴레가 멈출 수 있도록, 여성 게이머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게임업계 여성 종사자들이 더 이상 뚜렷한 법적 근거도 아닌 개인의 망상들을 근거로 하여 노동권리를 침해당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1. 넥슨은 이번 사태에 지금이라도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추고 반성과 관련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2. 여성 종사자들의 보호에 힘쓰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1806	글로벌의 흐름에 반하는, 넥슨 및 한국 게임업계가 스스로 자처하는 종말을 애도합니다.
1807	멍청한건지 모르는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808	악성 유저들의 악성 민원을 직원 해고로 대응한 넥슨은 이를 철회하라
1809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고 게임 업계는 물론 소비자층에서도 여성을 배제하는 행태에 넌더리가 납니다.
1810	말도 안되는 억지 들어주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1811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업계의 문제에 대해 말 얹어서 보복심으로 저러는거 같은데 어림도 없다. 온갖 여성혐오, 아동혐오, 노인혐오, 장애인혐오, 인종혐오를 일삼는 주제 남자들의 떼쓰는 망상에만 반응하는게 너무나 역겹다
1812	이익에만 기반한 불평등한 선택적 혐오, 그로 인한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1813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상검증을 멈추십시오
1814	일부 불량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언제까지 들어줄것입니까. 더 이상의 비이성적 행위를 멈추십시오.
1815	사상검증좀 그만!!! 한국겜좀 해보려하면 사상검즘 뒤지게 하네 진짜 페미니즘 잡는 짓으로 전대통령비하/지역혐오발언이나 잡던가!!!!!!
1816	더이상의 여성혐오 조장 멈춰라
1817	언제까지 떼쓰는 거 받아줄 거냐 같은 수준 인정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적당히 좀 해라 이제
1818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당신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1819	선택적 분노 중단해라
1820	억지논란을 가장한 넥슨의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821	자연상태로 손 놔두면 집게손이 되지 뭐가 되냐 우선 그거가지고 문제 삼고 심으면 본인들 손부터 자르시던가..
1822	당신들이 하셨어야 하는 대처는 해당 작업물에 관한 질문은 게임과 무관하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였습니다. 아직도 페미니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손가락문제 지적한 사람: 디시인벤 그것이 문제라고 답변한사람: 디렉터 본인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억지였습니다. 사람의 손은 관절이라서 힘을 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엄지는 다른 손가락들보다 앞에 있게 되고 그 손은 손에 힘을 빼는 순간 '자연스럽게' 되는 손모양 입니다. 설사 그것이 진짜 그 손모양이라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이 문제라고 언급하신 것 부터, 이미 문제 입니다. 페미니즘이 무슨뜻인지는 알고 계시는지, 그게 왜 문제인지, 진짜 페미니즘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글로벌에도 feminism 단어를 꼭 넣으셔서 영문 글로벌 공지를 띄워주세요. 외국 유저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무시하면 해결될 문제를 스스로 문제라고 터트리셨으니 과거 작업물에 관한 픽셀단위의 지적도 받게되실겁니다. 감당하세요. 본인이 내뱉은 대답에 따른 결과입니다. 과거 작업물 하나하나 수정하시고 직원들 사상검증하시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1823	말도 안되는 남자들의 억지에 하나하나 대응하며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마냥 해명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에 매우 실망스럽다.
1824	페미니즘은 남녀 모두 평등한 기회, 권리를 얻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논란으로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1825	게임업계는 정신차려라
1826	이게 바로 구조적 성차별이다!
1827	게임업계의 여성소비자 배제가 없어지지않는한 한국게임을 마음 편히 즐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28	혐오사상이라는 이유로 눈귀를 막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억지는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억지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 무조건 이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1829	여성 게이머로서 오래 전부터 게임계의 성차별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취미이자 문화가 되기를 바랐습니다.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에도 인내했습니다. 다른 여성 게이머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프로젝트 문 사태부터 도저히 상식적,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갑질 및 악성민원과 그를 수용하는 업계 내부의 관행에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도 대신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830	말도 안되는 것에 페미니즘을 붙여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이 현상을 두고볼수만은 없을 거 같네요.
1831	말도 안 되는 억지 계속 받아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영상 픽셀 하나하나 다 뜯어서 집게손가락 찾을 시간에 게임이나 열심히 개발해주셨음 좋겠습니다...
1832	넥슨 하는짓이 우매하기짝이없다..
1833	교묘하게 남성혐오사상이라하면서 외국에 팔아먹으려는거같은데 피싸개 퐁퐁남부터 시작해서 온갖 여성혐오 단어들이나 그런건 왜안거르셨는지? 남성혐오를 막겠다면 만연한 여성혐오 먼저아닌가—
183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1835	왜 억지논란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음.
1836	애니메이션 그 1 초 프라임 단위로 끊어서 그 인셀들이 말하는거 가지고 공지올리는거 너무 하남자 스럽습니다..
1837	정신차려
1838	한국 게임 업계는 정당한 요구는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에만 답을 해주는 지 의문입니다. 2023 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한다면 국내의 반응만을 보는 것이 수익성으로 옳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해외에도 게임을 출품하고 언제든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낮 우물 안에서 옳다고 해도 우물 밖에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무엇이 알맞은 길인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1839	일부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페미논란을 만들고 있는건 정작 본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840	이상한 의견에 휘둘리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1841	아무것도 안 하고 중립만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소수 극단적인 남성 단체의 손을 지속적으로 들어주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1842	게임업계 혐오몰이 시발점 넥슨은 반성하라
1843	혐오기업은 나가라
1844	혐오에 손들어 주지 말고 직원복지랑 확률아이템 완화나 신경써주십시오
1845	고작 손가락 모양 하나 조차 남성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의미를 부여하며 어처구니 없는 떼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여성 게임 유저로써 현 사태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1846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며 직원 보호조차 안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1847	이 일을 계기로 직원을 뽑을 때 사상검증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검증하실 건가요? 직원들을 시작으로 사상검증의 폭을 늘이실 거면 유저들에 대한 사상검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로벌 공지도 같이 올려주시나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번역하여 올려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에 따른 공지는 언제 어디로 올리실건가요?
1848	페미몰이를 빙자한 위계적 여성 노동자 괴롭힘과 하청기업 갑질을 중단하라.
1849	일부 악성 유저들의 말만듣고 회사를위해 일해왔던 노동원을 규탄하고 보호조차하지않는 회사라면 망하는 게 맞다.
1850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에 진지한 넥슨이라는 기업에 큰 실망하였습니다.
1851	고작 엄지와 검지 가지고 난리치는 넥슨은 들으세요, 당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인셀 도태남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으며 그게 얼마나 한심하고 창피한 짓인지 스스로가 꼭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에 하등한 비주류 집단의 외침을 지지하는 나라는 단언컨대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1852	정신 좀 차립시다 !!
1853	매번 특정 커뮤를 이용하는 악성 유저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회사가 좌지우지 되어 한사람의 노동자를 내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854	게임의 여자 캐릭터들을 선정적으로 구현하는것은 표현의 자유고 집게손은 남혐이라는 논리는 상식선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1855	억지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1856	일부 악성 유저들의 의견만을 편향적으로 수용하여, 실재하지도 않는 음모를 핑계로 여성 직업인을 부당해고하고 추후 커리어에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히 노동법과 인권을 모두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인권모독 범죄기업 넥슨을 규탄한다.
1857	일부 남성들의 억지 논란에 동조하여 여성 인권을 무너뜨리고 페미니즘의 본질을 훼손하고자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한국 게임업계가 통탄스러울 뿐이다.
1858	악성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동조하고 적극수용한다면 결국 업계 역시 악성이라는 뜻입니다.
1859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1860	팩트도 없고 체크도 없으며 공정도 없고 그냥 우는 남아 받아주는 꼴만 있다는 현실에 안타깝습니다. 평생 젓가락질도 못하고 마우스도 집지 못하겠군요. 이렇게 여성혐오를 하고 싶어서 여자를 욕하는 넥슨 및 게임 업계에 한숨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거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가 여성을 비하하였기에 대한민국은 점점 후진국이 되어갑니다.
1861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없이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있는 평범한 손모양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봐야합니다.
1862	게임 업계는 디씨 및 일베발 인셀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요구를 더 이상 듣지 말았으면 하며,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정확히 공부해주셨으면 합니다.
1863	여성들에게 사과해라
1864	인셀들 편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1865	온라인 여성혐오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1866	정신차리세요
1867	페미니즘에 대한 억측과 여성 노동자 억압을 멈추고 경쟁력있는 게임만들기에 집중해주세요
1868	메이플스토리를 포함한 한국 게임 업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혐오를 묵인해왔습니다. 메이플스토리의 전 디렉터 강원기는 직접 단퐁회라는 혐오단어가 포함된 게임 모임을 언급하기도 하고, 혐오 표현과 성희롱을 서슴치않는 인터넷 방송인들을 넥슨 공식 크리에이터로 등록, 유저들이 이용하는 캐시 금액 일부를 후원할 만큼 많은걸 묵인해왔는데 여성 작업자의 '페미니즘'이 관련되자마자 조치하는 것이 게임업계의 양성평등입니까? 현 디렉터 김창섭은 메이플스토리가 혐오에 유린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하였는데 공식으로 후원하던 메이플스토리 방송인들의 혐오발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핑계고라는 유튜브 컨텐츠에 자막으로 '유아차'라는 단어를 써서 많은 남성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핑계고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핑계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아무 일 없듯 컨텐츠를 진행 중입니다. 메이플스토리도 비슷한 과정에서 게임 프로젝트 문같은 선택을 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자연스러운 손가락 모양도 신경쓰면서 열심히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1869	썩어가고 싶지 않으면 같잖은 사상검증 멈춰라
1870	페미니스트가 게임에 사상을 숨긴다는 발상은 대체 누가 먼저 제기한겁니까? 일부 커뮤니티의 무근본 주장에 정작 가해한 적 없는 여성들이 직장을 잃고 피해를 보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선택적 집게검열이라니 너무 어이가없네요 그래놓고 한국 대표 게임이라 할 수 있나요? 넥슨의 행보 세계적으로 창피하고 한국 게임 업계가 부끄럽습니다 재미로 검열하는 일부 이용자의 말을 들어주다 이미지 망치지말고 부디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고 분별력있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1871	여성유저는 유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872	넥슨은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빌미로 페미니즘 억압, 하청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1873	일부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반응해주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이쯤되면 모든 캐릭 손을 구슬동자처럼 동그라미로 그려야 하는것 아닐지요?

1874	한국 게임업계가 쇠퇴하여 타국에 밀리는 이유를 모르고있는듯 해 참 답답하네요.
1875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림을 배우고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번 집게손 논란을 처음 접했을때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적인 손 묘사 기법에도 자주 등장하고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일 뿐이며 이를 트집잡는 것 또한 음모론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트가 그림자 속에 숨어 곳곳에 상징을 넣어둔다는 주장은 또 어떠한가요? 그러한 비밀활동을 추진하는 실체도 보지 못했고 자신의 말할 바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면 했지 암호처럼 숨길 이유도 냉정히 생각해보면 없는 것입니다. 어러한 코드 삽입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일간베스트와 같은 집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남성 청년이나, 따져보면 현 논란이 누가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논란에서 성대결과 갈등을 조장한 주체가 허상의 페미니스트입니까, 아니면 논란을 만들어내고 선동을 퍼뜨리는 일부 집단입니까? 본질적으로 소속감과 효용감을 미성숙한 방법으로밖에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남초 청년들의 소동에 가까운 것입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더욱 효용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1 의 반응을 해주면 종국에는 왜 10 은 해주지 않냐며 커지는 양상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반면 굳이 들어주지 않아 무의미한 논란이 수그러드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응하지 않고 유연하게 흘리는 대신 고개를 무작정 숙이는 것은 결국 자사의 일부 고객들을 선동자와 난동꾼으로 키우는 비극일 것입니다. 게임은 문화라는 슬로건이 공허한 간판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 문화산업의 축으로서 성숙한 태도 책임을 보여 더욱 선진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876	게임을 종합예술, 대중 문화로 만들고 싶다면 여성의 말도 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악성 남성 유저들의 패악질을 오냐오냐하면서 들어줄 셈인가?
1877	정신차리세요
1878	일부 억지 주장에 대해 타당한 의견인 양 힘 있는 답변을 얹는 행보가 실망스럽습니다.
1879	페미니즘은 혐오,범죄가 아닙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하지않고 사상검증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1880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자꾸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
1881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그동안 자행해온 수많은 소비자 기만(확률조작 등), 실제 일어나는 게임 채팅 속 여성혐오와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엔 반응하지 않았고, 그간의 남성혐오 몰이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조차 인셀들의 불매 협박이 매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응하지 않은 점을 간과했다는게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1882	인벤, 디씨로 불리는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여혐 단어(피싸개, 닭장, 젖소, 할카스)를 사용하는 유저의 남혐으로 인한 피해 호소를 들어주는 게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1883	이럴 시간에 게임 오류나 개선하세요
1884	혐오조장에 놀아나지마세여
1885	논리도 없는 억지 논란에 맞장구치는 짓 그만해라!
1886	지탄 받아 마땅한 처사였음을 본 넥슨사는 엄중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1887	적당히 하라. 비주류 비도덕 비인간적인 발언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동조하는 행위는 같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게임업계 멸망이 멀지 않은 비상식적인 사건.
1888	해당 혐오 이슈는 남초사이트의 페미몰이로 인한 마녀사냥이자 논리적 비약으로 시작된 사이트 내의 합당하지 못한 혐오 주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정말 익명에 기댄 주장들이 노동권을 침해할만한 합당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1889	톡식게이머의 유해성은 배제만이 답이라는 라이엇 게임즈의 2015 년 발표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톡식게이머를 감싸안아 산업자체를 후퇴시킵니까? 넥슨은 억지논란에 손을 들어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890	제발 사람좀 살게 해주세요
1891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조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일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받아주지는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1892	제정신이 아닙니다
1893	말도 안되는 집게손 논란으로 여성에게 부당한 프레임을 씌워 욕한 넥슨은 사과하라
1894	0.1 초 잠깐 지나가는, 그저 손의 움직임을 위한 순간의 동화임에도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어 억지로 우기는 유저는 정당한 소비자의 주장이 아닌 억지 악성 민원입니다. 외주 하청 업체라고 회사 간의 상호 존중도 없이 가볍게 꼬리자르기 하는게 우습네요.

1895	일부 특정 사상을 가진 특정 커뮤니티 남초 유저들이 오히려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내에서의 분쟁이 아닌 여성들의 현실 일자리 관련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사상에 편을 들어주다 보면 앞으로의 한국 게임 업계는 물론 다른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해외 진출은 물론 미래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기업인만큼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회사가 일부러 동종업계 '여성들'만 골라 괴롭히는 남초 유저들의 손을 들어주다니 정말 부끄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프문 사태를 모르리가 없으실텐데 그 사건으로 인해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으셨나요? 비키니를 그리지 않고 해녀복을 입혔다고 페미라고 욕한 그분들의 시발점 말입니다. 평등을 외치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하다뇨, 저희 여성들은 그저 남들과 평등하게 조용히 게임을 즐기고 현실 일자리 관련으로도 열심히 본업을 하며 생활에 섞여들고 싶을 뿐입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와 정치 성향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여성들의 앞날을 막는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할정도로 어떠한 명예적 훼손이라던지 중범죄를 저질렀나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내부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가는지,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지시하는지 모를 것 같으신가요. 사람들은 이제 넥슨이라는 기업을 대기업이 아닌 블랙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갈 x 년, 피 x 개, x 지라며 온갖 성희롱과 추잡한 말을 쓰는 남초 유저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단지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라면 저를 비롯한 한국의 여성들은 더더욱 그런 더러운 야망이 묻은 기업은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넥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녀 분들이 분명 있으실겁니다. 훗날에는 아들들이 부모 눈에 띄지 않는 sns 에서 여자를 보고 보 x 년이라 하고, 따님분들이 피 x 개 페미라고 불리며 특정 커뮤니티에 박제당하며 취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들 그런 미래를 원하시는건지 넥슨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가 원하는 평등의 정의입니까?
1896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멈추세요
1897	게임업계는 정신 차려라!
1898	남성 소비자들과 함께 여성혐오를 하며 게임업계에 여자들이 소비자로도 공급자로도 존재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1899	대기업으로서 악행을 차단하지는 못할망정 악행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 넥슨은 기업윤리에 대해 거찰해야할것입니다
1900	넥슨은 아니지만 게임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내 이벤트 이미지에서도 펜을 잡는 모양의 손가락 형태가 들어갔다고 교체를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의 모양을 억지로 트집잡는 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왜 들어주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노출에 대한 의견은 묵살하면서 프레임 단위의 손가락 이미지를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는게 정녕 국내 게임사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901	아무 의미 없는 형태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의미를 부여해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는 사람들의 수준이 통탄스럽고 부조리한 억지주장에 휘둘리는 넥슨도 똑같다.
1902	등신같이 노동자 탄압하지 말고 게임 운영이나 똑바로 해요.
1903	억지 논리에 휘둘리지 마라

1904	넥슨 자회사 직원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인 '남성혐오'의 억지 논란에 무고한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통탄스러운 현실과, 그저 눈앞의 이익에 눈 멀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조직의 행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로 따지고 보면 내부에서 검수 제대로 못한 회사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1905	정신차리길바랍니다
1906	억지논란에 하나하나 대응하지말고 도태남 눈치 보는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다
1907	엄지와 검지가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손동작을 모든 케이스가 아닌, 선택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손동작에 본인들끼리 의미를 부여하고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한다는 논란을 창조해서 남성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그렇게 해서 페미니즘이라는 무리를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알 수 없는 단체의식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생겨도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1908	인셀들 어거지를 의견이라고 받아주는 회사 극혐
1909	세상을 넓게 보세요. 공지 올리실거면 글로벌 공지도 같이 올리세요. 모든 상황을 디씨에서만 보고 판단하지마세요.
1910	하청업체와 직원들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1911	솔직히 본인들이 생각해도 논리가 없죠??

1912	몇년 전 부터 벌어진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과 대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쇼케이스, 소통 방송등에서 강조하셨던 운영진 분들의 지속적인 가치 추구, 게임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계속해서 유저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위시한 타 게임들마저, 일부 '악성민원자'의 '사실무근한 허위정보'에 기업이 동참하여 사상검증을 진행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벌어진 넥슨 게임 사상검증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메이플 스토리 운영진분들의 며칠 전 소통방송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반대하신다는 입장표명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소통 방송의 댓글, 인게임내 채팅과 서버단위 채팅창, 모니터링 하신다는 커뮤니티 및 넥슨 크리에이터즈 활동을 하는 개인방송인의 채널에서조차 눈살을 찌푸릴 만큼 가득했던 여성 유저 및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표현들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넥슨이 악성 민원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 그 악성 민원자들은 다음으로 어디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여성유저만이 아닌 목소리를 낸 일반 유저 대상으로도 사이버 스토킹 및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및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더불어 관련 사태와 연관이 없는 서브컬쳐 작업자들을 찾아가 사상검증 및 협박을 통해 대체 무엇을 위한건지 모를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사이버 불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과연 일부 악성민원자의 사실무근한 허위정보에 기업이 동참하여 사상검증을 진행한 이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넥슨측은 전혀 지분이 없다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모 직업자 대상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넥슨근로자 명패를 단 유저가 날것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관련 문제를 비판하는 유저에게 도를 넘는 비난을 한 행위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넥슨은 자정의 의사가 없으며, 혐오 표현을 일삼는 악성 민원자와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혐오몰이를 하고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넥슨게임을 플레이해온 유저의 입장에서, 좋아했던것이 빛 바래는 이 순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디 즐거움을 만드는 기업에서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을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1913	그냥 다 망하고 딴길이나 찾으면 좋겠네요

1914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와 징징거림을 기업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주는 이 사태가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될수록 정상적인 유저들이 점차 게임업계를 떠날 것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혐오에 뇌가 절여져 정상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1915	남자지만 손가락 보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916	진상남초집단에게 동참하는 혐오게임 불매!
1917	일부유저의 억지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바랍니다
1918	노동자를 뭐로 보는거냐 사상검증 어이없다
1919	모든 게임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유저와 고객 중에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
1920	남초의 선동에 휘둘리며 그들의 힘을 키워주고 여성유저들이 느낄 박탈감은 생각 안하는 행위는 멈춰주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날조로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재발하지 않았으면합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1921	일부 진상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노동자를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1922	억지 논란에 굴복하는 저열함
1923	여성혐오, 장애인혐오, 노인혐오 약자혐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 남성혐오에만 반응하는 태도 좀 고치세요
1924	제발 좀 쓰잘데기없는 사상검증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1925	여성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1926	인셀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마세요.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들을 무시하고 먹이를 주지 않은 맥도날드의 평온함을 보세요. 그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어준 다른 게임들이 결국 양측에서 외면받게 된 모습을 보세요.
1927	이런거 검열 할 시간에 캐릭터 노출도 검열 하십쇼
1928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 기업이란 있으면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시정하세요. 바로잡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929	정확한 정보만을 귀담아듣고 수용해주세요
1930	시대착오적인 사상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1931	최근 몇 년간 집게손과 관련하여 억지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있고 논란이라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있다. 논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과하게 되면 결국 이 논란에 관련된 사람 중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나는 이런 악습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1932	사실무근한 일부유저의 컴플레인에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사태는 중단 되어야 합니다.
1933	본 업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말에 전면으로 부정한 것을 축하하고 자초한 일에 대한 무게를 책임지십쇼.

1934	2000 년 중반 즈음부터 넥슨게임을 즐겨온 가입자입니다. 허황되고 망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악성 민원에 대해 이렇게나 빠른 수용을 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혐오표현이 서슴없이 나오는 남초 사이트 등지에서 대두된, 사실상 증거답지도 않은 증거랍시고 나오는 화두들은 앞뒤 자초지정을 알아볼 시간도 없이 주말 긴급 방송을 켤 만큼 수용할 중대한 사안이고, 아니라고 말하는 다른 유저들이나 당사자의 의견은 들을 일도 아니다 이건가요? 특정 사이트의 유저의 심증만이 증거인가요? 집게손가락 옆모습은 당장 실생활에서도 자주 보일 수 밖에 없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무언가를 집어올리는 동작을 모두 불온한 사상이므로 금지할 생각인가요? 손의 옆모습은 모두 쳐내고 정면샷만 그릴 생각인가요? 손가락의 각도 하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있는 대표부터 말도 안되는 망상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라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과 협력회사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1935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936	언제까지 억지 생떼에 휘둘리고 후퇴하고 눈치보며 겜 만들래요? 부끄러워요 진짜.
1937	여혐을 멈춰요
1938	오버워치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디자인팀 뿐만 아니라 게임을 창작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큰 제약을 안겨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롤드컵 우승으로 한국의 게임산업에 시선집중된 이때에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는 것은 한국게임콘텐츠 문화를 저해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끌고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게임콘텐츠를 지향하고 싶다면 당장 앞에서 징징거리는 이상한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39	일부 혐오세력 눈치 좀 그만보세요 꼴사납습니다
1940	게임 업계는 일련의 사태를 단순히 사상 검증으로 뭉뚱그려 표현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성 노동자를 갑의 위치에서 마녀사냥하고 협박하였으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신상에 위협을 준 행위입니다 타사 직원의 입사 전 sns 행적을 크롤링하여 부당 해고하여 국정 감사가 들어간것이 불과 몇주전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게임 업계는 치외법권에 해당합니까?
1941	억지논란을 멈추십시오. 사상검증 금지
1942	기업이라는 단체가 허황되고 억지스러운 혐오의견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 믿겨지지가않습니다.
1943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저 여성인권 퇴보를 위한 입막음용 억지 생떼 부리기에 불과한 주장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1944	가만히 있으면 비겁하게 중간이라도 갑니다.
1945	끊임없이 이런 억지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대처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모습이 한없이 우스워보입니다.

1946	프문이 넥슨짓한게 아니라 넥슨이 프문짓한것에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 혹시 넥슨은 '먹금'이라는 말을 모르는가? 말그대로 먹이금지, 억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참하고 머리를 조아리라고 요구하는 협박에 응하지 않을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 넥슨사가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아닌지 일개 유저이자 시민인 나에게 알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의 모순되고 엉망진창인 주장을 수용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채 외주 직원을 다 쓴 종잇조각마냥 버리고 모르쇠하는 꼴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이때까지 다른 곳에서(예를 들면 프로젝트 문)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 넥슨사도 욕 안먹고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넥슨에서는 집게손이 물건을 집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검지와 엄지를 동시에 들면 발작이 일어나는가? 고작 그런 손모양에어떠한 사상을 녹여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넥슨사는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외주업체와 '손절'하였다. 넥슨사는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관련자를 팽하는 의리를 가졌는가? 게임업계 전체에서 자행되는 사상검증이 왜 항상 여성을 향하는가?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 여성 유저 모두를 사상검증하여 본 사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싶다면 차라리 게임 시작할 '본 게임은 페미니즘을 지지 하지 않고 남성 우월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선택적 관대함을 보입니다'라고 설명해주십시오. 그쪽만 사상 검증할 수 있습니까? 유저인 나한테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십시오. 넥슨 및 게임업계 전체에서 '나는 차별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불편함을 못 느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라고 보이는 기백을 보이십시오. 주말 자정에 사람 갈아치우는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공지를 쓰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47	사내외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사내 인권교육을 요청합니다
1948	헛소리엔 무시가 답이다 정신 차려라
1949	여자도 게이머다
1950	비상식적인 대응을 멈추길 바랍니다.
1951	저는 2016 년 클로저스 성우 관련사태의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이후 다른 업계에서 일하고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이 행위가 끔찍하고 참을수없습니다 척결해야합니다
1952	정신차리고 각성하세요
1953	노동법에 반하는 여성혐오적인 사상검증과 여성노동자 해고 중단하라!
1954	이렇게 인셀남들 의견 들어주다간 결국 게임업계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 손들 혹여나 무의식적으로 집게모양 안잡도록 조심하시고요^^
1955	네이버 기준 커뮤니티 방문자 순위대로 방문했을 때 손가락 논란이 문제라는 의견과 황당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평소 어떤 소통 창구를 이용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주시고 손가락 표식이 문제라는 커뮤니티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그런 커뮤니티에서 평소(지금 현재까지도) 여성 혐오가 만연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페미는 문제지만 여성 혐오 사이트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956	인셀을 핑계로 작업자를 억압하지 말라!
1957	제발 대기업이라고 불릴 정도의 회사면 영양가 없는 유저 의견은 먹금 좀 하고 삽시다.

1958	실체없는 혐오에 당당히 목소리 높히며 동종업계인과 무고한, 당신들을 응원했던 이용자들에게 상처를 주지말고 실존하는 폭력과 괴롭힘, 혐오에 맞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이라도 수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959	21 세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세요
1960	사상검증 그만하라
1961	억지 논리에 대응하고 사과하고~~ 업계에서 도태되고싶다는 말을 그런식으로 표현하는겁니까~~~~?
1962	말도 안되는 억지 부리지마시길
1963	사소한 민원 다 들어줄 시간과 돈으로 컨텐츠 향상에 힘써라 계속 그렇게 받아주다간 도라에몽손밖에 못냄
1964	무슨 말도 안되는 어린애들도 하면 엄하게 혼날 그런 떼를 받아주고 있나요?? 생산적인 일에 힘쓰세요
1965	사사로운 징징거림을 말도 안되는 어거지에 반응하지 말라
1966	애초에 그런 억지는 대답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무슨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부리는 억지에 그래그래 네 말이 맞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노 단위로 캡처한 억까를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 보니 넥슨에 쓴 제 돈들이 너무 아깝고 제 시간들이 아깝네요 참 감사한 경험입니다^^
1967	게임업계의 말도안되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1968	한심한 짓을 멈춰주길..
1969	일베들이 자신들 문양을 어딘가에 숨기고 다닌것처럼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누구도 저런 손가락 모양에 의미부여한 적 없어요 무언갈 잡는 동작 또는 조금이라고 표현하는 동작이 왜 저렇게까지 혐오표현이 된다고 믿는건지 의아합니다.
1970	혐오는 당최 누가 하고있는 건지 게임업계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춰야 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혐오라는 사실을요.

1971	넥슨 귀사가 페미니즘의 목표가 일간베스트 회원들마냥 특정인을 타겟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 직업에서 남성과의 동등임금, 여성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여성의 외모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품평에 대한 반대를 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내용인데, 페미니스트라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것이 맞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를 바락바락 우기는 몇 유저들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확인, 정황도 없이, 곧장 여성 플레이어들과 동종업계 동료들을 내치는 것이 맞습니까? 고작 남성커뮤니티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손가락 모양 그림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직원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여성의 인권신장을 지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아가 여성의 인권신장을 지지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요? 성별간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자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주장이 아닙니까? 넥슨의 수 많은 스토리와 플레이들은 오직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처음으로 저 주장을 내세운 배경과 스피커의 신뢰성부터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1972	게임업계는 페미 검열을 멈춰라!
1973	페미는 혐오가 아닙니다 게임업계의 일련의 행동이 혐오이고 테러죠
1974	2023 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라에서 당치도 않은 사상검증과, 그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식의 두루뭉실한 표현 대신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을 통해 죄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상검증이라는 것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나치 혹은 일제시대 때의 사상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역시 '검증'을 통해 해고 시킬 것입니까?
1975	2030 남자들의 꼴값을 받아주는 운영진은 정신 차려라
1976	말도 안 돼는 이유로 트집 잡는 악성 민원들 들어준다고 실제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생계를 틀어막다니, 현 상황에 기함을 토할 정도입니다. 제발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1977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978	게임업계 성장이 무딘 이유 = 넥슨
1979	늘 뒤쳐진다던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던가 하는 소리만 듣기도 이제 지치지 않으십니까? 다른 분야에서 감탄할 만큼 앞서나갈 수 있는 업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980	지역혐오와 여성혐오는 방관했으면서 남성혐오(라고 일부 유저들이 착각한 것)에만 즉각 반응하다니 실망스럽습니다. 메이플의 대처가 과연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대처가 맞을까요?
1981	더이상 남초 집단의 비약적인 여론 몰이에 좌지우지 되지 않길 바립니다.
1982	허상의 혐오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건 일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다 들어주고있는 회사측입니다

1983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받아주는척 고용인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것에 적극 반대합니다.
1984	한국 게임업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모든 여성 유저가 이들의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행패에 순종하고 불법 촬영과 여성 살해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며, 성차별을 규탄하는 여성 유저는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러하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오랫동안 게임을 즐겨온 유저인 저는 더 이상 성차별에 동조하는 업계를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동안 넥슨 게임에 소비한 저의 모든 재화와 시간이 아깝기만 합니다.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소비한 것에 후회를 느끼게 만드는 선택을 할 정도로 악성 유저그룹을 사랑하신다면, 차라리 게임 가입과 판매 대상을 해당 악성 유저와 그 유저들이 뭉쳐있는 커뮤니티로 한정하고 여성 유저는 절대로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도록 하십시오. 2023 년이나 되었음에도 모든 성별이 평등하고, 혐오와 차별에서 보호받으며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자는 페미니즘을 나쁜 사상이라고 왜곡해서 퍼트리며, 자신들의 차별적 행태를 옹호하는 업계는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1985	직장은 다양한 의견과 배경을 포용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정 신념을 가진 개인을 해고 또는 그 작업을 지우려고 한다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직결된 중요한 원칙을 침해하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 바란다.
1986	이것은 사상 검증이 아니다. 여성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명백한 여성혐오다.
1987	업계의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1988	말도 안되는 억지에 왜 자꾸 비위를 맞춰주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성으로 게임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없이 요구할것이고 끝없는 피드백 지옥에 빠지게 말거고, 탄탄했던 지지층은 그 모습을 보고 떠나게 될텐데도요. 가끔은 단호하게 끊어내야할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9	제발 상식적으로 사시길 넥슨
1990	억지논란으로 업계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게이머들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1991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작인데 그 동작이 정말 혐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인모독, 혐오적인 단어를 포함한 닉네임 (ex. ㅇㅇ년, ㅇㅇ싸개, ㅇㅇ먹고싶다 등)은 지금처럼 빠르게 처리할 순 없었는지, 해당 닉네임들은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이라도 해당 작업물을 담당하신 분께서 강조되지도않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에 굳이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작업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992	상식적인 회사라면 0.1 초 지나가는 프레임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을겁니다. 넥슨에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1993	여성혐오를 두둔하는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
1994	제발 악성유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한줌미만유저들의 떼쓰기에 휘둘리는것을 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집단망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꼬락서니가 우습고 그래요..,
1995	본인들도 처음 게임 업계에 들어올 때 게임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살다보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옅어질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즐거움까지 파괴하고 있다는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게임을 즐겨하든 하지 않든 한국인으로 살면서 넥슨 게임 한번쯤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사태는 어안이 벙벙하고 한겨울에 얼음물로 따귀를 맞는 기분이 들어요. 자본주의? 뒤틀린 혐오? 개인의 잣대? 사상 검증? 누군가는 스포츠라고 하더군요. 그냥 이 문제에 발 들이기도 싫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게임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긴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혐오 정서 확대에 큰 일 하셨네요.
1996	여성혐오만 흐린 눈 하지 마세요.
1997	사회작 약자를 괴롭히고 하청회사갑질 등 무도한 행위를 규탄합니다.
1998	손가락 논란 자체가 일부 남성들의 억지 주장이며 페미니스트 여성을 색출하고 탄압하려는 혐오에 동조하지 않아야합니다.
1999	작은 아래엔 작은 마음이 담긴다 그 억지 계속 받아주다간 넥슨 니들 망할거다
2000	말도 안 되는 논란에 사과하지 말아주세요
2001	일본 미국처럼 걍 유저들말 들어주지 말고 소신껏 제갈길 가세요 제발 처음에 요구 들어주니 되도않는 손가락 합성에 진절머리 납니다.
2002	페미니즘 사상을 검열하며 밥줄 자른다만다 하는 작태를 멈춰주세요. 페미니즘말고 다른 사상으로 적용하면 당신들도 밥그릇 지키지 못합니다.
2003	먼저 게임업계 현직자로서 규탄시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 미안합니다. 그들만의 낙인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이 업계는 좁고, 남자가 대부분이니까요. 안그래도 쥐꼬리만한 게임업계 여직원들에게 성녀마녀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오늘 하루종일 같은 팀 남직원들이 이야기 꺼내며 은근슬쩍 떠보는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이딴 논란에 신경쓰고 대응하니 한국 게임이 발전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집게 손가락보다 엉덩이, 가슴 그림이 더 유해하고 불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	당신들은 여성유저를 아예 배제하고싶은건가요?
2005	유저 의견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행위를 그만두세요
2006	정신차려라

2007	애니메이션은 공동작업인데 한 사람이 작정하고 음모론마냥 숨겨서 그렸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이토록 말도 안되는 트집을 삼아서 사과문 올리고 사상검증 당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게임사의 횡포에 이젠 진절머리 난다!
2008	여혐기업 넥슨을 불매합니다 여혐기업 넥슨을 규탄합니다 여혐기업 넥슨이 망하길 바랍니다
2009	구시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2010	여성 노동자 핍박을 멈춰라
2011	불링 스포츠가 도덕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라고 해도 사람의 생계까지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2012	억지 부리는 것 보기 지겹습니다
2013	사상검증 규탄한다 니들은 손도 펴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따질거면 손가락 잘라라
2014	혐오몰이 억지에 줏대없이 휩싸인 대기업
2015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2016	억지 논리에서 직원,협력사를 보호하라
2017	게임업계 종사자입니다. 국내 게임업계 중 최고라는 기업이, 이런 행동을 앞장서서 보여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에 동조하는 대기업이라뇨.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2018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뺏지 마십시오.
2019	집게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루종일 인터넷에서 이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게손이 친일파 표시인가요?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인가요? 혹시 나치표시인가요? 한국여성남성 그 누구도 집게손의 의미따위는 모릅니다. 알고싶지도 않고요. 더욱히 한국남성성기를 의미하는 거라면..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다..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성기작다크다못생겼다잘생겼다 이런걸 생각하고 삽니까..이런 억지논란을 맞장구 쳐주는 넥슨도 웃기고 이런 이야기로 기사를 쓰는 것 또한 나라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처음엔 손가락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뭐가 될지? 문화를 선두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시각에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2021	억지논란에 맞장구쳐주는 기업이 문제를 더 심하게 야기시키는 것임을 알아주세요
2022	혐오가 싫다. 혐오에 반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당 기업(넥슨)과 그 외 기업들은 가장 먼저 혐오에 앞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생계, 커리어까지 단절시키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협박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을 앞서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하지 않습니다.

2023	이번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게임이 논란에 대한 타당성 검증없이 하루도 안지나 하청회사와 여성직원을 진상유저에게 먹이로 던져주기 급급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억지주장을 받아주는 것은 진상유저를 제외한 사람들과 해외에 한국게임업계와 문화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진상유저들의 돈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지만 한국 게임업계의 폐단이 사라질때까지 한국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4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논란 잠재우기를 위한 미봉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산업 전체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글로벌 업계 동향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행보를 보이길 바랍니다.
2025	정신 차리세요... 대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0.1 초 프레임 캡처에 굴복하는 게 정상적인 기업의 태도입니까? 사상이고 나발이고 정말 진심으로 저 일부 유저들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법 어기는 건 이런 억지 들어주는 당신들이죠.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에 똥을 뿌리고 있는데 게임업계 대체 왜 이렇게 민폐 심합니까? 이러니 해외시장에서 기도 못 펴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들에게 제발 그만 좀 똥 뿌리세요.
2026	일부 독성 유저의 억지 떼쓰기에 굴복하여 대한민국 게임 문화에 누를 끼치지 마시오
2027	한국게임계는 남초사이트들의 억지 논란을 그만 들어줘라
2028	진짜로 혐오하는 쪽이 어느쪽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남혐코스프레에 그만 놀아나고 정신차리세요.
2029	"악은 싹트고 꽃은 피되, 씨는 맺지 못한다" "남에게 미움을 사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에게 아첨을 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이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2030	억지 논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발
2031	정신을 좀 차려보십시오....
2032	넥슨은 이러한 부당갑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게임문화 개선에 앞장서라.
2033	정신차려라
2034	억지로 키운 논란을 받아먹는 것이 밖에서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지 알았으면
2035	페미니즘을 배우지 않는 게임업계는 도태될뿐이다.
2036	별 논란 같지도 않은 걸로 사과방송에 사과문에 별;;; 여혐이나 그런 사회적 이슈나 잘 처리하세요 머리 쓸 곳이 그렇게도 없나요?
2037	직원분들을 개개인의 사람으로 존중해주세요. 지금은 잠깐 수습일지도 모르지만 한 번 이렇게 넘어간 상황은 다음에 또 누가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 회사만이 아니라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결과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2038	페미검증, 사상검증은 노동자에겐 날벼락! 넥슨은 70 년대 학출 골라내던 공장인가!
2039	일부유저에 의견에 휘둘리는것이 아닌 객관성을 가진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40	일부 유저 때문에 사내든 사외든 피해볼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신중한 모습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41	근거없는 여성혐오 차별을 묵인 및 동조하지 마십시오
2042	보통사람이 보기에 이해 안 되는 이상한 트집에 휘둘려 자사/하청업체 괴롭히지 마시오.
2043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 키우지 말고 게임이나 제대로 만들어라
2044	직접 모든 혐오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여성혐오, 이주노동자 혐오가 판치는 메이플 커뮤니티 정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5	반사회적 여성혐오자 커뮤니티와 그들에게 적극적 동조하는 기업이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어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무법천지를 이제는 멈췄으면 합니다.
2046	진상조사도 없이 일부 유저들 말만 수용해서 노동자 부당해고하고 하청기업 죽이기 그만 하라.
2047	논란과 억지 논란 조차도 구분 하지 못하는 넥슨 및 게임업체는 반성하고 페미니즘 혐오몰이 동조를 규탄한다.
2048	안녕하십니까~ 이젠뭐... 게임회사들이 한 행동보곤 이젠 존댓말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의견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년부터 시작됬죠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검열이 그리고 시간이지난 2023 년 총 7 년(현제 이 의견을 쓰는 11 월 27 일기준 거의 8 년)이라는 기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도 자정작용도 안되고 개선도 안하고 이상한 일부 남초 유저(속된 말 인셀)의 말에 2023. 11.26 라이브에서여자들은 나가라는 늬앙스를 띄고 계셨죠? 그리고 한낱 애니메이션 중소 기업에게도 압박하고 고소 하겠다고 하고. 하던 행동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가 다 쓰다간 날이 지나가니 각렬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별근무감사」잘받으세요~
2049	지속적으로 억지 주장에 의한 사상검증 및 노동자 해고가 일어나게 되면 한국 게임 및 문화 컨텐츠 사업은 빛을 보기는 어려움. 작업자들의 해외 이탈이 주가 될 수 있다
2050	큰 대기업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 게임사가 일부유저들의 말도안되는 항의를 들어주면 타 게임사들은 대기업을 따라갈수 밖에 없고 그것은 모든 게임사가 이 단순한 손가락으로 인해 여성유저들을 잃게 되는 것이 됩니다. 신작이 발매되는 A 게임에서의 한국 신규 일러스트에는 보석을 잡고있는 손가락을 수정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해외판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문제라면 해외판도 함께 수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석을 잡을 땐 당연히 집게손가락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51	남초 커뮤니티에서 억지 부리는 거 무시 좀 하세요.
2052	페미니즘을 두려워하는 게 우습고 솔직히 그거 문제도 아닌거 알면서 그저 인셀들이 지들 권력 확인하고 싶어 발버둥치는데 화답하느라 애 쓰는게 우스울 뿐. 뭐합니까? 넥슨 수준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기업으로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도 안 해보는 건지?
2053	방구석 인셀남들의 손을 들어주고 인싸겜의 타이틀은 저버린 넥슨의 미래가 기대된다
2054	게임유저는 남성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전체 유저들을 농락한 가챠시스템보다 피드백이 빠른 것에 놀라움을 감출수없습니다.
2055	게임 내부의 논란을 페미니스트 탄압으로 잠재우지 마십시오

2056	1p 의 분석으로 의미부여 한다면 말 이 안된다고 생각들지 않나.
2057	2030 일부한남집단에 의해 이제 집게손가락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상으로 돌리고싶네요
2058	여성혐오로 인해 한사람의 생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2059	게임 업계는 당사의 직원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말도안되는 마녀사냥에 휘둘려 직원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60	페미니즘을 이유로 창작물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2061	더이상 일부집단이 창조해낸 억지논란에 귀중한 시간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2062	퇴보해버린 대한민국 인권의 실태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임사가 많아졌다고 해도 이 나라에는 닿지 않은 모양이군요... 유저 성별 차등 대우와 게임업계 노동자의 권리 추락에 처참한 기분이 듭니다. 게임을 즐겨하는 여성 청소년으로써, 미래에 대해 암담한 기분만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고 성명하신다면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2063	제발 게임과 관련없는 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2064	더이상 의미없는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2065	나라 먹칠 좀 그만하시길
2066	제발 상식선에서 행동해주세요
2067	여성혐오와 사상검증을 멈춰라.
2068	악질 유저들의 지속적인 사상검증 및 사이버불링 행태를 용인하며 자사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내 게임업계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69	페미니즘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를 마치 반사회적이 사상인양 규정하고 검열하려드는 비정상적인 블랙컨슈머의 말을 들어준다는것은 오히려 게임업계가 성인지 감수성을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니 당장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지마시길 바랍니다.
2070	여성유저에게 기만적 행태에 질렸습니다. 억지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올바른 운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71	게임업계가 일찍이 차단 했어야 하는 몇몇 고객들의 억지스럽고 망상적인 요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통탄스럽습니다. 넥슨 사는 억지 진상질로 자신들의 우위와 만족감을 차지하려는 블랙 컨슈머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귀 사의 노동자들과 협업하는 외주 노동자들을 보호하십시오. 게임업계만이 아니라 타 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악의 사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게임은 여성혐오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유저들만을 위한 문화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커리어를 위협하는 업계와 소비자의 행동이 근절되어 건강한 업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72	한국여성으로서 불매하겠습니다.

2073	고작 재미로 인신공격을 하고, 겨우 장난으로 타인의 생계를 끊고자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들로부터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직원 개인이 오롯이 홀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악성민원도 쳐내지 못해 직원을 희생양으로 바쳐야 한다면 회사의 존재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외부의 되도 않는 트집에 울타리 내 인원을 지키지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로 내칠 거라면 직원은 회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실이 어떻든간에 한 번 그렇다고 낙인이 찍히면, 그것도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제멋대로 규정한 것을 순순히 시인해버리고 토사구팽을 하는데? 무리 내 인원을 잠깐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결속력 약한 무리가 계속해서 존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그 어떤 시답잖은 이유로든 사람을 내칠 수 있는 집단에 불과하지 않나요? 직원은 먹고 살아가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지 적당히 쓰다 버리면 되는 부품이 아닙니다.
2074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도 짜증나지만 그거에 사과하고 있는 대기업 꼬락서니 참 알만하다
2075	정신차려
2076	결국 도태되는게 누구인지 생각해봅시다
2077	넥슨의 클로저스 사태(성우부당해고건) 부터 계속해서 암묵시켜오며 노동자를 배척하는 태도와 여성혐오가 빈번하고 문화가 된 게임업계가 제발 개선되길 바랍니다.
2078	이미 클로저스 사태 때 탈퇴했지만 다신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2079	이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게 개탄스럽다. 솔직히 이렇게 XX 같을 수가 있나 싶다.지금 낄낄거리며 동조할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현상이 정상적인건지 생각해보길 바랄 뿐이다.
2080	적어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81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선동에 휘말리시는 것을 보고 여성 노동자를 말도 안되는 사유로 죽이려고 하시는 것 잘 보았습니다. 여성은 게임업계에서 있으면 안될 존재인가요?
2082	시대에 역행하는, 말도 안되는 당장 멈추시오
2083	불필요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고 게임 시스템 운영에 집중하세요.
2084	게임업계는 직원을 보호하라
2085	나는 대한민국 인셀 집단들에 의한 서브컬쳐계의 남성카르텔에 반대한다.
2086	인터넷에만 사람이 있는게 아닙니다. 일부 유저의 주장에 놀아나지 말고 제대로 사안을 보십시오. 이건 혐오이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087	의견 같지도 않은 징징거림 받아주지 마십시오
2088	곧 50 대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상식밖에서 벗어난 음모론 만으로 과하게 대응하는 넥슨과 기타 게임 회사의 인지적 부조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세상은 음모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89	어린 시절, 다들 부모님 몰래몰래 새벽에 게임을 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가기라도 할까봐 담요를 덮어쓰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새벽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어른이 된 현재에 친구들과 떠드는 것도 일상의 낙일 테고요. 제겐 넥슨 게임이 그랬습니다. 그 추억이 대규모 업데이트마다 아, 복귀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게임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지요. 매번 복귀할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 해당 논란으로 빛 바래고 아픈 기억이 되어 무척이나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복귀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2090	도태남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듣는데 시간쓰지 말고 여성혐오 멈춰라
2091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혐오라고 몰아가는 넥슨의 일방적인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저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2092	한쪽의 편협한 의견만 수용하여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준것에 대해 어떤생각인지 알고싶습니다
2093	논란거리도 안될 트집에 왜 반응하는겁니까? 사과는 왜 하는거죠? 제발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2094	전 게임 업계가 여성만을 위한 게임업계를 만드는 것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성 유저들이 언제 남성유저들이 아닌 여성유저들만을 챙겨달라고 한 적 있습니가? 그저 이상한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을 사람처럼 평범한 노동자와 유저로 대해주는 것을 바랄뿐입니다.
2095	대국민게임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노인, 아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만 골라 괴롭히는 집단말만 듣다니요. 이게 대기업 게임업계의 현실입니까??? 21 세기에 페미니즘이 무서워서 부당해고하는 나라라니 공산당인 중국도 안 그래요 ㅠ 제발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시길
2096	남성우월주의자들과 함께 도태되는 한국 게임업계가 역겹습니다. 왜 여성 유저가 국산 게임을 안 하기 시작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있나요?
2097	마녀사냥과 사상검증으로 게임문화 스스로 망치는 기업은 국내 게임산업발전 저조한것에 비판할 권리 없다
2098	새로운 여성용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음에 부끄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조차 없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수용하는 것은 본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마시길.
2099	정신차리세요 제발
2100	해당 사안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업계 전체의 존속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당면한 미래 소비자 유치 및 미래 관점에서의 시장 확대, 접근성 확충의 문제에 있어서 혐오의 시선으로 일관하며 당장의 행동으로 특정 커뮤니티의 독성을 내재화한 채로 승리를 부르짖는다면 그 결과는 독성을 제거하지 못한 커뮤니티가 그 자체로 게임 산업 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시장 전반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넥슨을 비롯한 대형 게임사가 게임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무시하며 혐오를 재생산하는 행위는 그저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종합 체험 예술-종합 상업 예술이라는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큰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미래를 태워버리는 짓에 불과하니, 조속한 시일 내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정정과 임직원 교육, 더 나은 대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2101	많은 말이 있어서 여기에 쓰면 졸문으로 끝날 것 같네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기업들과 그 문화가 얼마나 병폐로 기능하는지 보고 있노라면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악에 기여하는 기업은 대체 왜 존재해야 할까요?

2102	집게손가락이 혐오표현이라는 생각은 일부 집단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집게손가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취할수 있는 모션이고 이에 특정 의미만을 담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혐오표현이라는 의견을 수용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게임업계와 애니업계 등에 독을 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넥슨은 26 일 새벽에 올렸던 공지를 취소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103	한남들의 노예처럼 평생 비위나 맞추면서 있다가게임업계에서 사장하세요ㅋㅋ어차피 한번 맞춰진 수준낮은 비위를 구렁텅이에 처박힐 일만 남았음요ㅎㅎㅎㅎ
2104	정말 실망입니다 대기업 타이틀 그렇게 쓰실거면 내려놓으시죠
2105	전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행동으로 한국 게임계가 점점 몰락할텐데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106	하고싶은말이 너무많아서 오히려 아무말도못하겠네요... 제발 억지주장 다들어준다고 사람좀 막자르고 작업물 막내리지마세요...
2107	이런식으로 굴거라면 우리가 쓴 돈도 페미묻은 돈이니 전부 돌려주길 바람
2108	오프라인 및 오프라인 그어디에서도 사용되지않고 있는 손동작에 대해, 게임업계가 지래 혐오의 대상이라 지칭하고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없는 일러스트레이터 및 그회사, 그리고 여성들이 혐오를 표현한다는 억측이 씌워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혐오부쟁을 일으키는 게임업계는 이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109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여성 직원을 희생양으로 점찍어 제물로 바치고 게으르고 비겁하게 대응하는 넥슨 규탄한다.
2110	사람답게 살자.
2111	게임캐릭터 다 주먹쥐게 만들 거에요??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들어주는 업계가 되세요.
2112	종북몰이같은 사상검증 불법해고를 멈춰라
2113	여성근로자, 여성이용자들을 배제시켜놓고 게임산업이 발전하고 흥하길 기대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음침하고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해줘서 아주 고오맙습니다^^
2114	혐오는 무지와 차별의 전형입니다.
2115	블루아카이브의 닌자 이벤트 타이틀 일러스트를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실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고 아동 그라비아를 트레이싱 하여 아동성애적 그림들을 그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묻고싶습니다
2116	집게 손' 이 페미니즘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부터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2117	이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저 찌질한 이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다는거 노릅니까? 제발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지마세요. 저런 논란에대해 오히려 강경하게 무시하고 대처한 기업들은.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이걸보면 느끼세요. 정작 저 논란을 제기한 사람들은 돈을 안쓰는 XX 들이란걸.
2118	본인들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단순 '엄지와 검지가 존재하는 형태'만을 가지고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추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넥슨은 3N 이라 일컬어지는 대형 게임업계 중 한 곳으로써 게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망정 게임 업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119	억지논란에 반응하지 마시고 게임 산업에만 집중해주십시오.
2120	너무나 노골적으로 여성혐오를 지지하고,더하여 쉽게 협력업체를 압박해 사과문까지 쓰며 직원을 배제하게 만든 결정에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상식 선의 대응-교차검증을 진행한 후 신중한 결정-을 바랐건만 그들은 일방적인 편을 들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 하더라도 두 번, 그것도 철저하게 협력업체와 협력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욕보인 그행위들은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꼭 업보를 돌려받길 바랍니다.
2121	안녕하세요 게임 원화가 지망생입니다. 게임은 남초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여성은 그에 굴복할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게임 소비자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있으며 ✌집게 손가락✌을 저들이 생각하는 의미로 남용하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멍청한 망상에 응해주는 멍청한 게임사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네요. 현 사태의 결과는 분명 여성 유저들 비중 만큼의 금전적 손실과 브랜드 명예의 실추일 것입니다. 그 사례가 올 해에도 있었습니다. 게임 업계는 제발 소비자들의 현 상태를 확인하세요. 일부 소비자들이 모든 소비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형태는 애진작에 변했는데 업계는 10 년 20 년 전에 머물러 있네요...
2122	억지논란을 멈추어주세요! 페미니스트 마녀사냥의 여파는 게임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성 차별 반대 또는 여성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폭행, 사이버불링등의 심각한 현실 범죄까지 이어지고있습니다. 범죄로 이어지기까지의 명목에 힘을 싣어주지 마십시오.
2123	당신들의 선택이 한국 게임 업계의 자살 선고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2124	일부 남성 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받아주기 위해 함께 작업해온 여성 노동자를 징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용납받아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성인 남성들의 말도 안 되는 생떼는 이제 그만 외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이버불링, 스토킹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연대해주세요.
2125	제발 시류를 읽고 블랙컨슈머에 놀아나지마십시오
2126	그 이상한 논란에 귀기울이면서 왜 소속된 직원, 같이 일하는 직원의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2127	악성민원에 대한 잘못된 응답과 사상검증 그만하고 직원 보호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2128	블랙컨슈머의 의견으로 직원을 징계하거나 부당해고 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29	이딴 식으로 운영할 거면 그냥 남자들한테만 게임 서비스해라
2130	집게손가락 타령하는 XX 들이랑 같이 게임하고싶지 않아서 한국게임 안한지 오래됐어요. 그네들끼리 어디 무인도에라도 짱박혀서 기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방구석에 XX 일텐데 부모 속 썩이지 말고 싹 다 모아서 처리하면 좋을텐데요. 어디서 집게손가락 타령하는 게임하고 있는 사람 만날까봐 겁나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디씨하느라 나오지도 않을테지만요!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멀쩡히 직장다니는 사람의 밥줄을, 그것도 재미삼아 잘라버리는 행위, 그 행위를 부추기듯 호응해주는 기업, 정말 신물이 납니다. 말도안되는 억지로 인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부당한 처사를 받는 이와같은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2131	정신차리세요

2132	게임은 어떤 사람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인의 오락입니다. 특정 커뮤니티들의 명확한 근거 없는 단순 불쾌감에 의한 보복성 괴롭힘, 그리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당연한 흐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33	손가락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고 수정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손가락이 뭐길래 페미니즘이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고 모조리 수정을 해야하나요? 그걸 들어주는 게임사도 이해가 안갑니다. 페미니즘으로 사람이 죽었나요? 남자를 죽였나요? 여자는 매일 이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고작 페미니즘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게임사가 수정을 하고 고용한 사람을 자르도록 한다고요? 이게 21 세기 대처 방안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2134	페미니즘은 디폴트야 ^^
2135	음모론에 의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규탄합니다. 넥슨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태도를 멈추십시오.
2136	억지논리에 동조하여 소속 직원이나 외주 업체의 직원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기업의 불합리한 행보를 규탄합니다
2137	거대 게임업체로서 미소지니적인 게임업계 풍토를 바로잡으려 솔선하기는 커녕, 일부 세력의 허황되고 억지스런 트집에 비굴하게 납작 무릎꿇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참혹하도록 부끄럽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성과 윤리를 좀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2138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해라
2139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택적 차별로 인해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지켜보겠다
2140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블랙컨슈머들의 논리에 의하면 '기업은 이성적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이익이 된다면 여자가 아니라 원숭이라도 뽑아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성들의 소비 금액은 그들이 말하는 기업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소비층의 성비가 5:5 에 가까운 상품(게임)에서도 말입니다. 이제 그만 솔직해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목소리 키워 나대는게 꼴보기 싫었는데, 마침 좋은 건수가 생겨 정당하게 팰 명분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저 내 손 더럽히기 싫은 성차별주의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본인 추한꼴은 자각하십시오.
2141	피흘려 쟁취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마구잡이로 훼손 시키고 있는 게임 업계는 반성하라
2142	억지주장에 동참하며 노동자를 괴롭히는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2143	페미니즘은 죄가 아닙니다. 숨겨야 할 사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게임에서 어이없는 낙인찍기와 억압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2144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게임사가 추억이 아닌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 함께 나고자란 여성 노동자들에게 총구를 겨누고있음이 실로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인터넷 익명에 숨은 사람들과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임업계에 의해 여성노동자는 물고늘어질 놀잇감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게임사는 페미라는 단어를 자신들을 향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값싸고 편안한 미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 사태만해도 실존하지않는 적 "남몰래 작업물에 악질적인 사상을 숨겨놓은 악마같은 페미"를 향해 분노한 스탠스를 보였죠. 멀지않은 과거(프문)부터 보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서도 만족하지못했는지, 오히려 더 혐오편파적인 자세를 취해 이러한 사태까지 일으킨 것은 결코 정상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억과 애정이 깃든 게임사들을 떠날 수밖에 없어 유감입니다. 여성들이 왜 게임을 하지않고 왜 쉽게 현질을 하지않는가. 남성유저를 편파적으로 감싸는 그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그들의 숙제가 아닐테죠. 헐벗은 여성캐릭터를 내는 것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게임 속에서마저 여성유저들을 도태시키는 게임업계가 올바른 걸까요? 연대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않기를 바랍니다....
2145	여성혐오는 불매로 이어진다
2146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까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공격 당한 사람들의 글을 봐주세요 불법촬영근절,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왜 자꾸 사람들의 억지를 들어주는 겁니까? 페미니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건지, 페미니즘을 왜 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147	이제는 이 인셀들의 광기를 시민사회가 멈춰야 합니다.
2148	억지주장 그만 들어줘라 하나만 알고 전체는 보지 못 하는 멍청하고 차별적인 무식한 기업 영원히 불매한다
2149	제발 스스로 생각좀해보세요
2150	상식적인 항의에 답변하지는 못할망정 억지논란에 사죄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2151	너무 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창조 논란을 만든 유저들도 그걸 받아준 게임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2152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마녀사냥을 수용하고 작가 개인을 단죄하기 급급한 게임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관행 규탄합니다
2153	한쪽의 의견 만을 듣는것은 절대 혐오를 근절할 수 없다.
2154	내가 올린 기둥 부숴버리기 전에 정신차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라이엇 발톱도 못 따라가는 거다.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진상민원인과 어떻게든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부패 기득권층에 애꿎은 청년 근로자, 프리랜서, 하청만 죽어나간다.
2155	왜 우리나라 게임기업만 저런 범죄도아닌 그저 선동을 일으키는 있지도않은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서 하는소리들을 다 받아주고있는지 저들의 말만믿고 직원을 부당해고 하는게 맞는지 이로써 얻는게뭔지 궁금합니다.

2156	소수 진상 고객층의 어이없는 요구를 만족시키겠다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좁고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만 성립하는 생떼는 그 밖에서 바라볼 때 어이없기 그지없는 공갈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대기업이 용인하면 반법치적, 반사회적 집단으로 인한 피해가 더 넓은 업계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2157	말도 안되는 인셀들의 억지논리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게임사의 행태는 장기적으로 한국 게임 업계의 문화를 암흑기로 이끌 것입니다. 직원과 회사 작업물을 제물로 바쳐 상황을 무마하고자 하는 자세는 누군가의 추억, 사랑을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떠밀고 배신하는 것 뿐입니다. 기업으로써 윤리적 규범을 등한 시 하고 줏대없이 흔들리는 것에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2158	클로저스 사태 때부터 시작하여 아주 사소한 것이 남성혐오라고 부풀려질 수 있게 인정해온 건 넥슨입니다. 넥슨은 지금 벌어지고있는 무작위 마녀사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오냐오냐 들어줬고 클로져스 사태가 선례가 되었기에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넥슨이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더이상 2030 남성들의 철없는 생떼를, 자신의 삶이 루저인게 여성 탓이라고 우기는 이들의 행동들에 고개숙이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여성들도 유저이며 여성들도 게임을 합니다. 여성들도 소비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행동할줄 몰라 안하는게 아닙니다. 옳지않기때문에 안한것입니다.떼쓰고 소리지르기에 뭐든 다 들어준다면 아직 덜 자란 미성숙한 인격들은 더이상 자랄 수 없게됩니다. 더이상 오냐오냐 하지마시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모든 발언을 철회하고 메이플과 던파 디렉터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2159	게임은 유해하지 않습니다. 게임 업계가 방치하고 조장한 인터넷 트롤러들의 문화가 유해할 뿐이죠. 이에 작은 기업도 아니고 업계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넥슨의 그릇된 행보는 더더욱 책임이 큽니다. 윤리적으로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이고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안 그래도 게임은 반사회적인 문화라는 낙인 때문에 게이머들은 항상 고통받았지요. 게임은 즐거움과 함께 예술을 표현하는 참신한 수단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 업계가 디씨인사이드와 같은 반사회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국내 게임 산업과 문화는 너무나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단 한번만이라도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잠시라도 떨어져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업계 바깥에서 이 산업을 얼마나 기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선은 꽉 막히고 보수적인 사회의 검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열과 무관한 일입니다. 트롤러들이 커뮤니티가 주는 알량한 소속감에 집착하는 동안 사회와 너무 멀어져버린 것뿐이죠. 그리고 이젠 트롤러들이 독재자처럼 기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검열을 하고 있죠. 게임은 죄가 없지만 게임 산업을 이끄는 여러분이 그런 트롤러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무수한 피해자를 만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로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보죠. 게임 산업의 주축이라는 기업들이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트롤러들에게 휘둘릴 정도로 격이 낮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업계 밖에서는 이미 게임 업계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악성 소비자를 진지하게 받아주는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곳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게임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하고 산업에 압박을 가하는 계기로 사용하겠죠. 세계의 게임 시장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더욱 넓고 개방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게임 산업은 아집에 갇혀 퇴보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게임 업계가 쌓은 폐쇄적인 성 안에만 있기를 택한다면 높은 벽에 가려져 무엇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더이상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시점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 주변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석상의 먼지나 닦으며 온세상이 당신들의 행보를 국내 게임 산업 역사의 치부라고 조롱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 하면서요.
2160	게임 업계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반응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사상 검증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집게 손' 이미지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만연하게 사용되는 제스쳐 중 하나다. 특히 '집게 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무언가를 집거나 잡을 때 흔히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제스쳐인데, 이를 사상 검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 사태에 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띄고 있는데, 게임 업계는 이런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단순히 극성 유저들의 비정상적인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해 억지스러운 요구를 수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생겨날 정상적인 사람들의 비판도 당연히 수용해야 함이 옳다. 게임 업계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사 직원 사상을 검증 하려는 유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혐오를 주도하는 회사로 낙인찍힐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무시한 채 정상적으로 게임을 생산해내는 회사로 남을 것인지.
2161	언제까지 인셀남들 억지논리에 휘둘리실건가요?

2162	스스로 불러온 재앙, 게임 내 캐릭터의 모든 손가락을 잘라내며 고생하세요~~^^ 꼭 넥슨 사과문에 동조하는 본사 직원들만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안그랬다가 또 페미묻으면 어떡해요! 이후에 넥슨게임 어디서든 엄지 검지 보이면 다 문의 넣을태니 화이팅하세요!
2163	넥슨의 부당해고 및 여성혐오 문화 동조에 규탄합니다.
2164	대체 언제까지 억지주장 들어줄지 지긋지긋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유저는 전부 버리고 가겠다,여성 개발자는 쉽게 팽할수있겠다는 인식 심어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말같지도 않은 주장 들어주는행위 작작들 하십시오
2165	혐오를 반대한다면서 그 대상에 여성은 왜 쏙 빠져있는지요? 총괄 디렉터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이 했던 말이 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던 건지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2166	좋은결과가 있길 바라고 거짓페미니즘논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시간에 다른 인게임 문제나 고쳤으면합니다.
2167	한국 게임문화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은 게임업계의 성찰 부재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이 생기면 노동자를 제물로 바치고 만연한 여성혐오를 답습하는 작금의 행태를 유지하는 이상, 국내 게임업계의 미래는 당장 다음 세대의 건승도 기약하기 힘들 것입니다. 창작의 동료인 노동자를 공격하는 업계, 물색없는 떼쓰기에 그대로 넘어가는 놀이문화를 왜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운영자의 사상(여성혐오 등) 리스크가 큰 게임과 '이 게임이 피추천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라고 믿을 수 있는 게임의 가치 차이는 큽니다. 다음 세대에도 향유하고 싶은 게임과 업계로 꼽히고자 한다면 이번의 무책임하고 유해한 대처를 재고하길 바랍니다.
2168	똑바로 침착하게 저 대처가 맞는 행동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제발 인권과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행보를 멈추세요
2169	차별에 동의하지 말아주세요.
2170	제발 방구석백수들에게 스피커 좀 대주지말고 본인들 회사 직원들 협력업체 인재들 사상검증이니 협박하면서 내쫓지마세요
2171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업계 종사자 적극 보호하라.
2172	더 심각하고 뿌리깊게 박힌 여성혐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보시길
2173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우스운지 부디 깨닫길 바랍니다.
2174	국격 낮추기 대회 1 등이십니다 대단합니다
2175	넥슨은 그렇다면 앞으로 캐릭터를그릴때 손가락을 전부 없애고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캐릭터가 움직이는 동화 0.1 초의 순간을 캡쳐해서 논란을 만드는 집단의 손을 들어주고 해외에서는 욕먹기가 싫어서 동시에 모호하게 차별을 규탄한다고 하시던데 아무 의미없이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한장면을 빌미로 욕하는집단의 손을 거대기업인 넥슨이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애니메이터들은 손가락을 어떻게 그려야하나요? 넥슨직원분들은 주먹을 쥐었다가 펴보시고 손모양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과정을 그려주시겠습니까? 다른 곳에까지 퍼지는 영향은 어떻게 하실생각이신가요? 넥슨의 발언은 여자들이 엄지와 검지를 잘라야한다는 의미인가요?

2176	공식 커뮤니티도 아닌 어떤 한 사상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나온 논란을 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논란과 혐오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놓고 들어주는 말이 어느 커뮤니티의 어거지 주장이라면 당신들이 한다는 모든 논란 혐오에 반대한다는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마녀사냥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참담스럽기만합니다.
2177	억지스러운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혐오를 조장하고 사상검증으로 노동자를 불합리하게 압박하는 현 게임 업계의 흐름에 강한 실망과 한심함을 느낍니다. 유저들은 이 일을 명확히 기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놀림감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일절 부끄러움이 없다면 계속 동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게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2178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왜 받아줍니까? 도대체
2179	정신좀 차리세요
2180	지금 국회에서 게임계 압박하고 손보려고 열심히 시동 거는중인데 눈치가 없어??? 망하고 싶어??? 정신 좀 차려
2181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어야한다는 가치가 사라지고 있네요. 세상의 트렌드와 정반대로 걷겠다는 의견 잘 알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잼민이, 여성은 피싸개, 돈을 안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그리 사회에서 많지 않음에도) 틀딱등의 남초식 혐오표현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의견만 의견이며 그들이 자초한 혐오와 억지를 받아주는 것은 혐오에 동참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182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와 실책은 넥슨과 게임업계에 있습니다. 그저 조롱,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는 운영과 시스템 등 혹은 재미삼아 진행된 역겨운 사이버불링에 편승한 넥슨과 게임업계가 가장 큰 가해자이자 죄인입니다.
2183	말도 안되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만 듣고 여성노동자 차별하지 마세요.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은 결국 당신들이 약자가 됐을 때 그대로 돌아올것입니다
2184	억지 논란에 매번 휘말려서 한국 게임 자체를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2185	☒ 이 손 모양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모든 그림을 다 다시 그리고, 삭제하고, 검열하나요...? 애니메이팅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 모양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일부 의견에 휩쓸려 '사상검증' 을 하겠다는, 사과라이브방송을 하는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네요.
2186	손가락이 왜 논란인지?
2187	넥슨 계산기 잘 두드리세요. 림버스 꼴 나고 싶지 않으면.
2188	그렇게 여자 캐릭터들은 벗겨놓는데 급급하더니 그 👌👌👌👌👌👌👌손가락 하나에 벌벌 거리면서 한국 남성들 눈치 보는 꼴이란 애잔하고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오직 자국 남성들을 위한 넥슨, 더이상 플레이할 가치도 없겠네요 이대로 사장되길 바랍니다
2189	단지 재미를 위해 혐오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에게 대답해주지 마십시오.
2190	할말이 많은데 그냥 정신좀 차리세요...
2191	일부 네티즌들의 억지 주장을 받아주시마세요
2192	언제까지 산업을 갉아먹는 일부 유저의 말도 안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2193	손가락 하나로 판단하는거 그만 좀 하시고 그거 징징대는거 들어주는거 그만 좀 하세요 들어주니까 더 그러는 거잖아요 말도 안되는걸로 우기면 다 들어줄겁니까?
2194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말아주세요
2195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사상검증을 하며 말도 안되는 의견을 수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196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다는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그럼 넥슨에서 출시한 수 많은 여성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 캐릭터 노출에 대한 심각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게임 속 채팅창 안 수 많은 여성혐오는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전수조사 후 처벌 하시겠지요?
2197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2198	게임업계의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적 사상검증은 없어져야 하며 업계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2199	훗날 역사로 거론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해주세요.
2200	쓸데없는 블랙컨슈머 의견 들어줄 시간에 게임이나 잘 만들어라
2201	쓰레기같은 의견에 사과하는 기업또한 쓰레기다
2202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억지만을 귀담아 듣는 넥슨 사의 미래? 몰락뿐이겠죠.
2203	억지 받아주는 것 적당히 하시오.
2204	넥슨은 과거 클로저스 김자연 성우의 SNS 내역을 들먹이며 부당해고를 강요한 악성 남성 유저들에게 굴복한 과거가 있다. 이들이 남긴 선례는 2023 년 7 월 26 일, 또다시 일부 악성 남성 유저들이 '림버스컴퍼니' 게임 개발 및 제작사 '프로젝트 문' 사에 여성 캐릭터에게 비키니를 입힌 일러스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 제작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의 과거 SNS 내역을 캐내어 부당해고를 강요하는 데에 큰 일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내 대형 게임사로 게임업계를 선두하고 있는 넥슨이 게임 운영 불성실에 대한 손쉬운 회피책으로 일부 악성 남성 유저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억지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장차 국내 게임업계에 지대한 손실을 미칠 것이다. 게임 유저 중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건강한 게임업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넥슨은 더 이상 일부 악성 남성 유저들의 악성 민원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205	창조논란에 대한 대응이 노동자권익침패인데 참담함을 느끼며 해당 논란을 제시하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의 음모론에 업계 전체와 같은 시각을 갖고있다멎 컨탠츠 맟상품판매시 해당 사실을 부디 명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206	여혐을 멈춰주세요
2207	넥슨은 일부 극단적 성향의 남성 유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착각 및 창조한 논란을 그대로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어이없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 여지껏 다른 크고 작은 논란들은 손쉽게 방치해온 주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거리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는가? 사과하고 바짝 엎드릴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닌, 오로지 그들의 망상과 착각 속에서 벌어진 일임을 표명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208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2209	그냥 망하길. 갱생의 여지 X
2210	분노

2211	근본 안티페미 어디 안갔구나...
2212	그렇게 살지 마세요^^
2213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게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회사 안에 "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여성 작업자들의 개인 SNS 를 뒤져 본 후, 악의적으로 편집해 논란거리로 만들어 이를 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및 마녀사냥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납작 엎드려 사과하고 해당 작업자를 해고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는 모습은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2214	어떤 의미도 없는 손동작에 저들끼리 의미를 부여하고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해선 안 될 언행을 하는 것들의 편을 드는 게 인간입니까? 그렇게 기분에 따라 살고 싶으면 나라를 떠나 짐승들 사이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215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일부 사이트가 행하는 창조논란에 필요이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피로도를 불러오지 말고 해당 의견에 대한 불필요한 사과 및 대응을 즉각 중단하라
2216	집게 손 억지 논란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받아주려는겁니까
2217	그렇게 가다가는 폐업밖에 없음
2218	제발 인셀들의 혐오노름에 놀아나지말라
2219	혹시 이번 사태를 외신에도 보도하고 이를 지지할 수단이 있을까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현실의 한국게임업계의 실태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사상도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지는 게임 운영진 본인들이 더 잘 알고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부당한 사이버불링에 동조하지 않도록 막아줄 사회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2220	말도 안 되는 인셀들의 망상을 들어주느라 여성 노동자를 괴롭히는 데에 동조하는 걸 제발 그만둬라.
2221	넥슨 탈퇴했어요
2222	게임업계는 성평등과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업계인가요? 저런 억지 논리에 일일히 다 대응하고 사과하고 부당해고하는 그런 모습에서 대한민국 게임업계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봤습니다
2223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224	제발 말도 안되는 의견에 허둥지둥 대면서 처리한답시고 저딴 놈들 말 들어주지 마세요.
2225	억측과 혐오를 멈추십시오
2226	과거에 머물다못해 침몰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고여있는 우물이 마르지않게 고군분투 열심히 하시길(응원아님)
2227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왜 받아주나요?
2228	넥슨은 엉터리 트집을 잡아 인신공격을 하는 집단의 일방적 날조와 선동을 용인한 대가를 치르기 바람. 대기업의 공개 갑질, 즉 인신공양의 구도가 기존의 내부인력 꼬리자르기에서 하청업체 떠넘기기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 점 또한 규탄받아 마땅함.
2229	여성혐오에 일조하지말라

2230	모든 혐오를 반대한다는 모순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인벤, 그리고 인게임내에 모니터링 활성화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5 분만 모니터링을 해도 여성 성적대상화,어린아이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대상화 게시글이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1 초 단위의 프레임이나 엄지와 검지만 있다면 자연스레 나올수 있는 동작들을 가지고 억지프레임을 씌우고, 성별을 떠나 한 사람을 매도하기 전에, 혐오는 누가 하고있는건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2231	헛짓거리좀 그만하세요 창피합니다.
2232	저질 몰이에 휩쓸리지 마세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정말 같은 한국으로서 창피합니다
2233	여성캐릭터 성적대상화 일러스트에 대한 각성도 반드시!
2234	넥슨 및 한국 게임업계는 인셀들의 억지 논란에 장단 맞추는 것을 그만둬라!
2235	누가봐도 억지논란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2236	개소리에는 정확하게 개소리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2237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여성 유저와 남성 유저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나 게임사와 일부 남성 유저들은 일부 남성 유저만이 '진짜' 유저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말만 듣는다. 혐오를 기반으로 해 여성 종사자를 괴롭히는 것이 한국게임업계의 문화이고 게임사가 기업으로서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조차 못하고 혐오세력에 동조한다면 한국 게임업계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 창조와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만이 남아서 사상검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2238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239	기업 내 옳지 않은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억지 페미니즘 혐오몰이 정서에 가담하는 것을 그만 두십시오
2240	여혐 멈춰
2241	억지논란으로 게임업계의 여성노동자들의 커리어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2242	억지를 들어주니 끝도 없이 뜻도 없는 징징거림이 계속 되는 것을 왜 본인들만 모르는지 궁금하다
2243	되도않는 트집을 잡는 이들로 인해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2244	여성도 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을 들어라.
2245	페미 낙인이 찍힌 직원을 해고하고, 외주를 준 협업업체를 페미 낙인 찍으면 뭐가 남나요? 정답은? 아 페미겜 안사요~ 로 끝납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던 유저들은 왜 친구들과 즐겁게 하던 게임을 놓아야 하는걸까요? 왜 인셀들은 몇년 전과 똑같이 사상검증을 통해 마녀사냥을 하고, 왜 회사는 그 행동을 받아주는 걸까요? 이런 행동들이 인센들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게임의 환경, 문화를 위한거라면, 게임은 질병이 맞습니다. 인셀들의 억지논란을 받아주는 게임 회사들은 질병의 온상이나 다름 없습니다. 넥슨에서 만드는 게임은 2015 년부터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즐기러 온거지 세균덩어리를 보러 온게 아니거든요

2246	말 같지도 않은 인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멀쩡히 업계에서 일 잘하고 있던 근무자들이 무더기로 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어디까지 들어주지 않아야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에 스피커를 대실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게임업계 다 망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 이미 이런 논란 때문에 다 외국으로 뜨고 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잡지도 못할 상황 만들지 말고 미리 바로 잡으세요
2247	게임업계종사자로써 매우 안타깝습니다 집단적 최면에 걸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남성유저의 말만 듣고 진실을 왜곡하고 믿기힘는 대처를 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2248	극소수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며 이건 차별 아닌가요?
2249	넥슨 및 게임업계는 본사의 노동자이자 한 개인을 보호하긴 커녕, 안티 페미 내지 혐오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내던졌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대신 쉽고도 간편하게 한 노동자를 내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모욕하는 것이며, 기업이 나서서 혐오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넥슨은 각성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이자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2250	억지 의견 좀 그만 들어주세요 이게 뭐야
2251	더이상 한국 게임회사가 악질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252	2023 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란 제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게 넥슨이라니 참 한심합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요?
2253	집단적 착각에 굴복하는 제스춰로 노동권 침해와 성평등주의에 대한 혐오를 그만두십시오.
2254	제발 여성직원들 밥줄 그만 끊으세요.........이러다가 사람 죽습니다......
2255	때로는 침묵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2256	더 이상 이런 억지 논란에 희생되어가는 여성 창작자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미니즘은 그른 사상이 아니며, 혐오 또한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에 굽혀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사태를 재발 방지할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257	말도 안되는 저런말좀 들어주지마세요
2258	한심한 도태남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걸러내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똑같이 도태된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넥슨 망해라 어떻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나? 정신차려라 도태남들아!
2259	넥슨은 여성을 상대로한 사상검증을 멈추라.

2260	페미니즘을 방패 삼아 무고한 여성들에게 부당해고 및 사이버불링 방조 등을 멈춰주세요.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제명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그저 악성 유저를 향해 사과만 한다면 게임업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 속 에서 미흡한 운영으로 생긴 논란들에 대해서는 침묵 하거나 늦은 대처를 보이면서, 이런 악성 유저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주말 야근도 서슴없이 시키며, 악성 유저에게 고개 숙이곤 무고한 직원들을 향해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정녕 옳은 행동인지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악성 유저와 관련된 일들 중 게임업계 내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공모전에 참가하였으나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유저 또한 사이버 불링을 당하며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게임제작사에게 보호를 요청하였은나 거절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던 애니메이션 회사 또한 게임 업계쪽에서 꼬리 자르기 방식의 대처로 인해 예고 없이 방문을 하거나, 개인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게임 업계에서 옳은 대처를 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일은 최근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닌 것은 게임업계 관계자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게임 '클로저스'의 성우 계약 해지부터 시작되어 온 악습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끊어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261	약자에게만 이상한 잣대로 이러는거 지긋지긋하네요.
2262	대기업이 의미없는 분노에 의해 징계처리 및 하청계약중단 하는 것은 타 서비스업계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됩니다.. 서비스중단급 오류사항도 아니고 하물며 외교적문제나 고인모독급 결함이 아닌데 주말출근 및 다급한 입장발표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2263	게임으로 즐거웠던 추억을 망가트리지 마라.
2264	환불 사태 때도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나게 해주시네요 ^^... 여성유저이기 이전에 한 명의 노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행태
2265	여성 노동자들이 일련의 사건으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번의 사태가 정말 피곤하고 한국 게임 업계에 대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2266	어째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그 집게 손 모양이 정말 페미니즘의 상징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논란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얼토당토 않은 논란으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넥슨이 진정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다면 악성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품격을 다섯살 배기 어린아이만 못하게 떼쓰는 이들과 동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2267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268	일부 인셀들 떼쓰는거 받아 주지 맙시다. 한국 게임 여캐는 가슴에 불알달고있다고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일부 인셀들 떼 쓰는거 받아줄 시간에 게임 기획에 좀 더 집중해주시길..ㅠ
2269	한심하다정말

2270	억지 논란을 만들어 페미니즘을 일베와도 같은 것이라 프레임화 하는 진짜 혐오자들에게 그만 동조하십시오. 그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종자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71	넥슨은 더이상 게임업계를 여성혐오의 중심과 블랙컨슈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
2272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위해서라도 일부의 왜곡된 의견만을 지지하며, 음지로 나아가지 맙시다. 국제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떳떳한 대한민국 게임사가 되어 주세요.
2273	억지 주장 좀 그만 받아주세요. 단순히 떼 쓰는 인간들 때문에 부당해고가 말이 됩니까?
2274	가지가지한다 진짜
2275	일부 이상한 남자들만 우기는 손가락 억지논란에는 신경쓰고 노동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는 모습이 2023 년에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어릴때 이런 곳에서 만든 게임을 했었다는 사실 마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되는 일을 한 넥슨과 게임업계들은 사과하십시오!!!!
2276	티셔츠 사건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넥슨, 제발 달라진 시대를 체감하길 바랍니다.
2277	당신들은 회사가 아닙니다. 악성 민원을 경각심 없이 수용하여 애먼 사람 밥줄을 끊어 놓는 비상식적인 반사회 조직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2278	작업자분들의 생계를 우습게 아는 행동을보면서 더이상 게임을 즐기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시간 즐겨왔고 추천해오던 게임인데, 그간의 시간들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게임사 측에서 최악을 선택한것에 정말 유감입니다.
2279	억지 논란에 가담하는 일부 유저를 위해 여성 인권을 위한 페미니즘 자체를 ‘불합리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해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길 요구합니다. 또한, 페미니즘적 행위가 아닐뿐더러 페미니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집게 손’ 에 대한 억지 논란을 수면 위에 올려 여성 게임 유저들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처우에 한 걸음 앞장 선 넥슨 및 게임업계는 반성하고, ‘집게 손’ 억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던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사죄하길 요구합니다.
2280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페미니즘이 남성차별인줄 알고 발작눌린 방구석 XX 들 위해서 고용자를 자르고 업체와의 계약을 깨고 무슨 압수수색 마냥 진행하겠다는 대단한 넥슨 잘봤습니다 덕분에 일년에 백만원은 쓰던 여성 유저는 입닥치고 메이플에서 꺼질 수 있겠네요 일년에 백만원정도 쓰는 여성 유저 정도야 돈으로도 안 보이겠죠 어디 돈으로나 보이겠습니까 돈벌이 수단인 남성 유저들 말 들어주면서 계속 그렇게 온갖 질문들에 끌려다니면서 점점 캐릭터 옷벗기는 게임 되겠네요 망겜 소망합니다
2281	여성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있을거라는 생각 또한 여러분의 편견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부디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세상을 사세요!
2282	넥슨은 억지 손가락 논란으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뺏기 이전에 본인들의 여성혐오 유저들 관리나 똑바로 하길 바란다!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2283	여성 또한 같은 인간입니다.

2284	말도 안되는 억지를 여태 기업들이 당장의 시끄러운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들어준 결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당연한 사회를 위해 억지를 듣지 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285	정당한 법의 철퇴를 기대합니다.
2286	혐오표현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남성 혐오란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이나 성립된다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자면,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지향하지 남성 혐오를 지향하지 않으며, 설령 그것이 남성 혐오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여성 혐오적인 일러스트와 문구가 태반인 상황에 남성 근로자를 해고한 전적도 그럴 일도 없는데 0.1 초도 되지 않은 동화를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여성 창작자의 작업물을 내리고 전체 조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2287	정신차리소.
2288	마녀사냥
2289	페미니즘은 남성혐오 사상이 아닙니다. 혐오와 평등을 구분해 주십시오.
2290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2291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과, 그런 억지를 들어주어 아무 죄없는 한 사람과 그 이후 모든 여성 작업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회사들을 규탄한다.
2292	집게손이 남성혐오라는 근거 없는 일부 남성들의 정신나간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중단해야한다. 이런 것을 받아주면서 남자들에게 안티페미 코인으로 돈을 벌어들이려는 비열한 짓거리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 갈라치기로 얻은 것들은 결국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해야하는 대기업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2293	말같지도 않은 요구 그만 들어주고 정신차리세요
2294	언제까지 얼토당토않은 억지 논란을 다 수용하고 들어주고 할겁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언제부터 그렇게 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재빠른 피드백을 했습니까?
2295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붙어있는 경우는 사람 일상생활속에서도 녹아나있습니다. 젓가락을 잡을때, 물건을 잡을때, 페이지를 넘길때. 다양하게 있으며 해당 일러스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손 모양을 혐오표현이라고 억지로 제제하며 그걸 빼고 일러스트와 영상에 1 초 분할 단위로 검열하고 제재한다는 건, 고양이 귀가 세모모양이라고 일루미나티라고 주장하는 억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며 이런 억지스러운 것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마시고 직원들을 보호하십시요.
2296	음지문화는 음지에서 지내야한다. 별 쓰잘대기없는 일로 이런 사태가 커지는건 이해할수없다
2297	남자들 눈치본다고 여성을 검열하지 마십시오.
2298	페미와 관련도 없는 손가락 논란을 굳이 수용하여 여성들이 남혐을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여기저기 떠벌리는 것을 멈추세요.
2299	부당해고
2300	투명페미잡는다고 헛짓 그만 좀 하세요. 게임하는 여성유저는 생각 안하는지…? 여성유저들까지 페미로 몰아가면서 다 쫓아낼 생각이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페미면 뭐 어때서? 사람을 죽였나요 뭘했나요
2301	응원합니다.

2302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메이플스토리가 여성차별 관련 사안에서는 칼같이 답변하는 모습에서 총괄 디렉터 밑 일부 유저들의 사고방식을 잘 알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메이플을 만들겠다는 디렉터의 머릿속에 여성유저 및 여성혐오는 혐오도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참 유감입니다.
2303	게임업계는 사상검증에 의한 잘못된 대처를 중단하라.
2304	정신 제대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큰 기업이 일부 유저들의 한심한 행보에 가담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2305	게임업계에 여성이없다면 게임업계의 내일도 없다
2306	왜 별 것도 아닌 징징거림을 다 들어주고 있나요? 넥슨이 부모인가요? 말도 안되는 항의를 오냐오냐 왜 다 받아주나요? 다 받아주니까 징징거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일이 이렇게 됐지않습니까
2307	악질 민원인들의 갑질에 동조하며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회사들은 정신차려라
2308	게임회사면 게임회사답게 억지누명 마녀사냥 하지말고 중립적 자세와 올바른 게임 문화부터 다시 배워야한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남성차별운동이 아닌 여성인권운동이란것도 공부하시길.
2309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2310	게임 본연의 재미를 버리고 사행성 조장으로 유저들 지갑 털이에만 혈안이 된 넥슨과 NC 덕분에 국내 게임산업이 일보 후퇴한 것에 대해 게이머로서 매우 유감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관뚜껑을 아예 닫게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진 않네요. 언젠간 올 일이 생각보다 이르게 찾아왔다 싶어요.
2311	사상검증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2312	이렇게 대응이 빠른 회사였나요?
2313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이신 분들,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제발! 정확히 알고 비판하시기 바라며, 그저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낭설로 페미니즘에 대해 오해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업계에서 뿌리뽑으려는 몰지성한 일은 멈춰주십시오.
2314	억지논란을 계속 들어주면 결국 게임 업계만 파멸하는 지름길일겁니다.
2315	억지논란 창조논란에 휩쓸려 노동자 사상검증 및 신상털이 그만하세요
2316	게임업계는 페미니즘 혐오 및 여성노동자와 여성게이머 탄압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2317	일부 편협한 시선에 치우친 단체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일 뿐입니다

2318	메이플스토리를 오랜 시간 사랑했던 유저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아쉽습니다. 명백히 한쪽이 다른 한쪽을 트집을 잡아 괴롭히고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말로 중립을 지키는 척 하는 태도는 결국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은 범죄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의 억지스러운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과 작은 회사에 대한 괴롭힘을 방조하고 나쁜 선례를 남긴 넥슨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이 일에 크게 실망해 메이플스토리를 떠날 생각입니다. 제가 떠난 뒤라도 메이플스토리와 넥슨의 다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기를, 게임의 제작자들이 자신의 사상과 행동, 사생활을 검열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19	넥슨은 여성혐오 및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2320	정신머리를 옳은 일에 쓰세요. 떼 쓰는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2321	멍청한 집단에게 귀 기울이는 바보같은 기업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2322	왜 왜 왜! 계속 ㅇㅂ들 눈치나 봅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무시해도 되나요?
2323	억지로 만들어진 논란거리에 과하게 동조해서 움직이는 게임업계. 바뀌지않으면 침몰할뿐입니다.
2324	이런 한심한 논란도 아닌 의견따위를 수렴하는 대형회사 넥슨에게 큰 실망입니다 . 가만히있으면 더 담대해질수 있는 사안에 괜히 쫄아서는..
2325	지금은 누가 봐도 한쪽에 억지 논란의 의견만 듣고 성차별적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지와 엄지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던 것 입니다.
2326	창조논란을 만들기 보단 어떻게 해야 회사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이와같은 일로 업계 종사자들이 부당하게 취급 받지 않길 바랍니다.
2327	말도 안되는 억지에 부리지 말고 여캐릭 옷이나 충분히.입히시오
2328	메이플이 언제부터 "모든 혐오"에 반대했는가? 지난 20 년 동안 메이플 운영진과 넥슨은 온갖 혐오에 무관심 해왔다. 게임 안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마주하는 여성 성희롱과 특정 지역 비하 고확은 수차례 신고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 프레임에 온전히 담기지도 않는 손가락 모양을 논란거리 삼아 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 동안의 행보와 상반된 메이플의 행동은 여성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논란거리가 아니다. 메이플과 넥슨을 포함한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329	정신차려라
2330	남자들의 말도 안되는 멍청한 이야기로 사상검증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멈춰라. 이번 사건 및 비슷한 사건들로 이 나라가 페미니즘을 얼마나 멍청하게 인식하는지 더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페미니즘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 검증이 필요한 사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 손가락 논란의 시발점이 무엇인지 조금만 찾아봐도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자들이 얻는 것은 찰나의 저열한 승리감과 소추이미지 밖에 없다.(소추이미지를 얻고 여성을 탄압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소추이미지를 퍼트리지 못해 안달이던데 본인들의 바닥을 과연 어디까지 드러낼지 이젠 궁금해질 지경이다.

2331	인셀들한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 유저도 생각해주십쇼~
2332	21 세기 현재 넥슨에서 이뤄지는 성차별적인 영업방식은 물론이고 사이버불링 및 조리돌림과 그로 인한 부당 해고 압박, 주변 업계에 대한 압박은 노동자 인권 퇴행에 정점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2333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고, 페미니스트 탄압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손모양 또한 연결 동작을 그리다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라는 걸 알면서 페미와 관련있다는 이유로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남자들 조그만 고추 크기 관심있다고 이스터 에그마냥 숨기나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에 자아만 비대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덕분에 그 손모양은 한국 남성 사이즈로 전세계에 또 한번 공인되겠네요. 말도 안되는 사행성 뽑기 시스템 따위에는 일절 반응 안하고 유저를 개돼지 취급하더니 역시 남성 무더기 업계답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만 반응하시네요... 고마워요 게임 접어요
2334	한국 게임 산업은 분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만, 세계의 인식과는 맞지 않은 성인지감수성으로는 결국 글로벌하게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내수에서만 국한 될 것입니다. 내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비주류의 의견을 전부인 것처럼 응한다면 고이게 되고 결국 시장조차 작아질 것입니다.
2335	정신 좀 차리고 노동법 준수하십시오. 사상검증이라는 말로 트롤짓에 동조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2336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참여하는 모습에 참 많이 실망했고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디 한 번 억지 부리며 효용감을 느끼는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과 잘 생존해보시길 바랍니다.
2337	이같은 행태는 결국 그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것 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하는 손 모양에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일방적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을 스포츠로 여기는 행태에 규탄하며 이를 받아주는 업계로 인해 결국 업계, 사회 모두 비용과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2338	수준 낮은 집단 기준에 맞추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2339	억지로 끼워맞춘, 그마저도 맞지않는 주장으로 죄없는 사람이 피해입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2340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해야합니다.
2341	제발 여자들 일자리 뺏지 않고 여성 유저들도 맘편히 할 수 있는 게임사가 되어주세요
2342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일련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어떤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성과 지성이 아직 있길 바랍니다.
2343	넥슨의 어리석은 대처가 일부 비상식적 행동에 힘을 실어 주는 것 같습니다.

2344	너무나 터무니없는 걸로 트집 잡는 유저, 특히 성별이 압도적으로 남자일거 같은 유저들에게 왜 사과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남자 유저들의 여캐 플레이 보면 헐벗은 옷에 거대가슴과 엉덩이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걸로 여자 유저들이 게임 개발사에 문의 넣어봤자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서 손가락 제스처 ⊠ 이거에는 무슨 의미 부여를 하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깐 국내 게임이 망하는거고 그거에 대해서 왜 여자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45	정말 페미니즘을 반대해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건수를 잡은건지 궁금합니다. 메이플디렉터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한 후에 발표를 해도 모자란데 짧은시간내에 그런 부실한 발표를 한 점 매우 실망했습니다.
2346	여성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2347	앞으로 한국게임계는 얼씬도 안할것입니다
2348	집게 손 논란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까?
2349	기존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즐기는 유저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침통함을 느낍니다. 게임을 즐기는 여성 유저들은 게임 상에서 여성이라는 걸 밝힐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올라오는 성희롱 성 고확과 채팅은 규제하지도 않으면서... 대체 차별은 누가 하는거고 혐오 표현은 누가 하고있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350	억지좀 부리지 마셈 ㄴㄴ
2351	제발 여성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2352	작작해라
2353	말도안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질립니다. 도대체 넥슨 간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회사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평소 넥슨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로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2354	억지논란 멈춰주십시오 억지라는걸 알면서도 남자유저들의 비위맞추기를 그만두십시오
2355	넥슨 망해주세요
2356	일부 유저의 의견을 유저 전체의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357	정신차리고 게임이나 제대로 만들고 운영해라
235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2359	억지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넥슨은 반성하라
2360	사상검증을 멈춰라
2361	페미니스트, 여성 검열이 당당하게 이루어지는 카르마를 만드는데 동참하시는건가요? 제발 메이플 스토리 대규모 커뮤니티에서 행해지는 선넘은 여성 캐릭터들을 향한 성적대상화와 성적인 단어, 장애인 비하단어 제재 부탁드립니다.
2362	혐오와 차별이 없는 게임 산업을 지향한다면 여성들도 게이머와 노동자로 제대로 인식하고 대우해주세요.

2363	작업자가 그린 집게 손이 혐오를 함의하고 있다는 명확한 조사는 이루어졌나요? 해당 그림으로 인해 근거없이 기분이 상한 몇 민원인 외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었나요? 작업자의 개인 사상에 따라 작업물을 검열하는 것이 당사의 기조인가요? 현재는 페미니즘을 검열한다고 한다면, 추후 작업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정치성향에 따른 검열도 이루어지는 것 인가요? 악성민원 요구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의견이 오가는 디씨인싸이드는 페미니즘 외에도 혐오 단어와 발언이 많이 게재되는 곳인데, 넥슨의 노동자분들 중 디씨인싸이드 이용자는 모두 확인하여 혐오발언이 있는 경우 그 작업물을 검열하거나 해고처리 하나요?
2364	페미니스트(성평등주의자)가 왜 문제인가요? 넥슨은 차별주의자인가요?
2365	반페미니스트 남성유저층의 피해망상적 요구를 자꾸 들어주다 보면 업계에 여성 유저는 다 떠나고 회사는 소모적인 민원에 매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2366	2016 년 클로저스의 일로부터 몇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보다 퇴보를 보이는 넥슨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넥슨이 자행한 사상검증 및 검열은 악성 민원인들의 요구를 용인함으로써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한 사상검증을 다른 회사들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일입니다.
2367	넥슨은 억지 논란에 어떠한 형태의 회답을 하지말라.
2368	일베에 대해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단지 1 초남짓 되지않은 한 컷에 피드백 하는 넥슨에 실망했습니다.
2369	여성 혐오자들의 입맞에 맞추느라 애꿎은 여성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제발 각성 좀 하세요
2370	여성혐오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2371	제발 논란거리도 아닌 것들을 논란이라고 떼쓰는 소수 악성유저들에게 보상을 주지 마세요
2372	음지의 블랙 컨슈머들 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절대 지속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눈 앞의 고객만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혐오조장 사업 행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2373	너네 그러다 업보 맞는다…
2374	이래서 한국게임안하고 중국 일본 미국 게임함 ㅋㅋ
2375	집게손가락이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얼마나 흔한표현인데 그거랑 페미랑 뭔상관인지 모르겠어요. 페미라해도 무슨 상관인지? 저까지 멍청해지는 기분입니다
2376	여성에 대한 혐오와 사상검증을 멈추세요
2377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본인 회사 게임 소비가 남성들로만 이루어져있나요? 여성 소비자를 지워버리는 행위 더불어 모든 여성들을 모욕하는 행위 멈춰주시죠. 정착 게임에 판치는 여성혐오에 대해선 무대응하면서 정말 역겹습니다.
2378	14 년이 넘도록 넥슨 게임을 해왔는데 이번 일로 넥슨 게임에 대한 추억이 모두 더럽혀졌네요. 앞으로 국내 모든 게임사가 발전하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2379	남자만 챙겨서 잘되자 보자
2380	사측은 부당한 공격에 노출된 노동자를 즉각 보호하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게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라!!!
2381	넥슨은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것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인가?
2382	억지논란에 동조하는 기업의 대처에 대한 사과를 원합니다.
2383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2384	넥슨 및 게임업계는 직원들을 보호하라
2385	페미니즘 배척과 여성 혐오를 당장 멈추라
2386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리지 말기를
2387	기가찬다. 소수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
2388	넥슨은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2389	대체 저 손모양이 뭐라고 ㅋㅋ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솔직히 고작 저 손모양에 발끈하는게 .. 오히려 의심이 확신으로 바꿔준다는것을 모르는걸까요 ㅋㅋ ⌧
2390	2016 년도부터 페미니즘 사냥이 시작됐고 2023 년까지 8 년 정도 흘렀으나 전혀 자정이 되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놈의 기분권이 뭐라고 헌법과 노동법까지 짓밟습니까? 넥슨과 게임업계는, 극소수의 회사 몇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고객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16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별 의미 없는 일상적인 손짓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평소 패드립과 쌍욕,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하는 인간들에게 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 보란듯이 외주, 성우, 직원 전부 잘랐습니다. 당신들이 정녕 인간입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한 국가를 대표하고 전세계에 게임은 문화라는 메시지를 퍼뜨릴 자격이 있습니까? 손가락 갑질도 똑같습니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엄지와 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헌법과 인권, 노동권을 짓밟고 페미니스트라며 온갖 모욕, 사이버스토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함께하는 파트너를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인간 아닌 말종들이 업계의 전반을 차지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즐거우셨습니까? 인셀들과 당신들이 참여하던 마녀사냥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저지른 죗값을 혹독히 치르십시오. 진상들 요구를 먹금조차 안 하고 넙죽 받아들인 당신들 때문에 업계를 떠나거나 생계를 잃은 직원들이 고통받고 아팠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십시오.
2391	아직도 성차별이 유구한 업계 중 하나로서 게임 업계는 남성의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갈수록 퇴행하네요
2392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2393	혐오몰이를 이끄는건 당신들입니다. 그만하세요.
2394	세상에 남자만 있는 것처럼 구는 넥슨 및 이하 게임업계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보길 바랍니다.

2395	과격한 일부 무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대기업은 신뢰가 없습니다.
2396	여성혐오적인 운영 멈춰
2397	피해망상들어주지말고 중심좀 잡으세요
2398	지지합니다
2399	ㅇㅕㅈㅏ도 ㅇㅠㅈㅓ다
2400	페미니즘은 부적절한 사상이나 범죄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상입니다.
2401	메갈 = 페미가 아닙니다. 림버스 사는 해당 사실을 잘 모르는지 몰카 반대글을 sns 에 리트윗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이제 넥슨마저 이러려고 합니까? 나중에는 신규가입하는 유저들을 상대로 사상검증을 진행하려는지 노파심마저 듭니다.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상검증을 한다고 미리 회원가입란에 잘 보이도록 기입 부탁드립니다. 여왕벌, 김치녀, 혜지 등 다양한 여혐 단어에는 침묵했으나, 확실치도 않은 메갈 논란에는 메갈이 아닌 페미를 주된 문제로 생각해 페미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해고하거나 이벤트 당첨이 제외시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주체적인 여성을 혐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논란에 대해 넥슨의 처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메갈 논란으로 패널티를 받는 유저, 직원이 있다면 추후에 여혐 단어를 (몇 초 나온 메갈 손동작?보다 확실히 혐오를 증명하는 기록인) 사용한 직원 혹은 유저에게도 동일한 패널티를 부과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젠더 갈등으로 서로를 감시해야 하나요? 게임사는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402	이 모든 사태는 자의식이 비대한 남성분들의 말도안되는 우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지 논란에 넥슨 및 여타 게임업계가 불을 지펴주셨죠. 실제로 넥슨은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성우를 부당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규탄받아야 할 일이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선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2403	전세계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서 후퇴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404	이성적 사고 아닌 감정적 사고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비난을 일일히 수용하고 있는 작태가 이해되질 않음...............
2405	여성 노동자를 음침하게 괴롭히는건 너네아닙니까?
2406	억지주장으로 예술문화업계의 여성 노동자를 위협하는 집단들과 그에동조하는 사업체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2407	아닌 걸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매번 이렇게 놀아나고 싶습니까?
2408	인셀들의 영웅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2409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추길 바랍니다.

2410	내가 그동안 세워준 넥슨 사옥 기둥값이 아깝다. 재미로 혐오하는 자들의 헛소리를 들어줄거라면, 방구석 무과금 XX 들의 아가리 불매가 아니라 진짜 불매가 뭔지 보여주겠다. 헐레벌떡 라이브켜서 해명하는 운영진 다 제정신 아닌거 같다.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게임을 만들겠다고. 왜 해외겜보다 안팔리는지 자알~알겠다.
2411	인셀들만 사랑하는 국산게임업체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2412	사용자 빠지는게 두려워서 억지논란에 사과함으로써 여성혐오를 악화시키는 대기업들은 정신차리길
2413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중립적인 척, 피해자인 척하는 도태의 길을 걷고있는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2414	도라에몽손으로 만들어라
2415	자신들이 한 행동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416	넥슨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게임업계 네임드랄 수 있는 대기업이 손가락집게로 어떻게 하면 사상을 검증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까 고민하는 그들과 다르지가 않다는걸 증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국내외로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실제로 노동자가 노동권을 침해받게하다니요. 게임업계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일부 사람들의 헛된망상과 우기기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2417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다보면 여성유저도 남성유저도 모두 떠나는 것임을 알길 바랍니다
2418	무분별한 탄압을 멈춰주세요
2419	진짜 말도 안되는 논란을 불피워 전국 여자혐오를 이뤄내다니 대단하다
2420	넥슨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2421	일러스트레이터가 남자였어도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까? 혐오에 대해 분노하신다면서, 정작 혐오를 하고 있는 건 누구인지 생각해보십시오.
2422	뭐 얼마나 대단한 게임 만드신다고 손가락 그거 하나로 사과 합니까? 진짜 부끄럽네요
2423	게임을 사랑하고 자주 하는 여성으로서 게임문화 자체가 남성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게임사들이 나서서 여성혐오에 앞장서야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넥슨을 포함한 다른 게임사들도 여성혐오에 옹호하는 일이 여러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커진데에는 일부 남성들의 억지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게임사들의 책임도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손가락 모양이고 손가락 하나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인지 넥슨 포함 게임사들도 생각을 다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424	일부 유저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용인하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주는 것이 단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기업의 진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무책임한 행보가 한국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2425	사과할 걸 사과하세요
2426	게임은 남자만 합니까? 한국게임 업계 앞날이 걱정되네요

2427	도 넘은 여성 혐오 행위에 앞장서던 넥슨 이하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대한 자정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규제에 맞서 게임업계를 같이 응원하고 즐겁게 게임을 즐겨왔지만 넥슨의 클로저스 사태(김자연 성우님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통보) 이후 말도 안되는 창조논란으로 끝없이 고통받은 여성노동자들과 여성유저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정이 안되는 게임업계는 이제 본인들의 불법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정당한 규제를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전세계가 차별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21 세기에 한참을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혐오군단의 선봉장에 서 있는 게임업계의 암적인 존재들을 이제는 도려내야 할 때입니다.
2428	말도 안되는 사상을 믿어주고 그걸 현실화 해주는 게임업계들 제발 정신차려요.. 혐오를 옹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같이 혐오를 지지하는군요.
2429	확인되지도 않는 잘못된 정보로 바로 징계라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징계를 내리더라고요. 일부러 논란을 만든건지 의문이 듭니다.
2430	젠더 권력에 기인한 폭력을 멈추세요
2431	업계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할 대상이 집게손가락인지, 맞추면 내가 잘 한거고 오해였으면 말고 식으로 억지 트집을 잡아 다방면으로 인력낭비하게 하는 사회부적응자들인지 한 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432	말도 안 되는 억지들을 들어준다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 되지말아주세요.
2433	갈수록 심해지는 여성 캐릭터 디자인의 성적 대상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에는 무대응으로 일관던 넥슨이, 그저 자연스러운 동작의 연결을 위한 애니메이션 한 프레임으로 이정도로 분개하고 빠른 조치를 내렸다는 게 놀랍네요. 이러한 조치는 국내 최고의 게임사가 일부의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까지 발생한다는 게 참담하네요
2434	과격한 악성 유저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435	어줍잖은 과대표된 블랙컨슈머에 휘둘려 애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2436	한 게임의 디렉터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커뮤하는 티를 못 내 안달이고, 커뮤충들 눈치보느라 바쁜건 처음이라 황당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메이플스토리와 함께한 내 13 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저도 몰랐네요 도태인셀들 눈치 많이 보시고 그들이랑 사이좋게 자멸하시길
2437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는 남초집단을 대기업이 공식적으로 편을 드는 행위야말로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438	억지논란을 수용하다보면 나중엔 더 자잘한 사안들에 대해 검열받게됩니다. 부디 현명하게 운영하시길
2439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2440	터무니 없는 억지를 들어주느라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살인 행위
2441	억지논란에 휘둘릴 거 없어요

2442	메이플의 경우는, 그간 유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여성혐오 범죄에 관해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직접 협력관계를 맺은 남자 스트리머들이 방송에서 "퐁퐁섭","퐁퐁부인","리퐁섭"이라는 혐오 표현을 대놓고 사용하고 유튜브 채널에 영상까지 올렸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논란이 제기 된 영상을 내리고, 남자 용사님들 노여워하실까 공지를 올리고, 긴급 라이브까지 켜서 정작 내용은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음침하게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참을 수 없다!"라는 뭉뚱그린 발표를 했죠. 참으로 실소가 나오는 행태였습니다. 일단, '집게손가락'에 담긴 허위 의미도 곧장 알고 빠른 대처를 하는 회사이니 '퐁퐁'이란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퐁퐁'이라는 단어와 '집게손가락'이라는 동작은 동일선상에 두기도 몹시 애매할 정도로 애초에 집게손가락이라는 동작에는 어떠한 의미도 내포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넥슨에서 가장 보호하고 있는 일부 커뮤니티 남자회원들이 억지로 갖다 붙인 허위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사실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제작물을 내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생업을 잃고, 또한,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인 넥슨이 경솔하기 짝이 없는 선례를 만든 덕분에 이 후에 일어날 여파는 불 보듯 뻔하게 되었습니다. 넥슨은 지금 단순히 '페미척결'을 하여 '남자회원'을 챙긴 게 아니라, '블랙 컨슈머'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어 동종 업계에 큰 민폐를 끼친 진상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따져보면 동종업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피해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도 없는 집게손가락을, 직접 내보인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캐릭터가 손하트를 그리기 전 자연스러운 움직임 표현을 위하여 프레임 안에 집어넣은 공정을 '문제'로 인정하고 영상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선례를 남기었으니 이후로 애니메이터들은 어떠한 손동작을 그리고 연결할 때마다 집게손가락이 연상되는 손동작은 모조리 빼고 작업해야 하는 쓸데없는 고초를 겪어야 할 것 입니다. 이 모든 게 블랙컨슈머와 소비자를 혼동한,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인 넥슨이 저지른 생각 짧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만 아십시오. 페미니스트 의심자들을 아무리 자르고, 사상검증을 아무리 해대도, 이 블랙컨슈머들은 억지주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넥슨 게임의 음지화는 가열차게 진행 될 것입니다. 이 대처에 블랙컨슈머들만큼은 아주 흡족했으니 귀사가 망할 일은 없겠고 그저 그들만이 남아있겠죠. 공지를 올릴때마다 맥락없는 욕설로 댓글을 달고, 늘 전체채팅창에 여성혐오 욕설이 올라오고, 특정 정치인 욕설이 올라오고, 음담패설이 올라오는 그런 게임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2443	게임업체는 여성 노동자 성차별과 여성 유저들의 혐오를 멈추어라
2444	노동자들을 고작 손가락 이모지를 가지고 사상검증하고 해고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2445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2446	손가락 찾기 놀이 재밌게 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그동안 한국 게임 회사 중 1 위였던 넥슨도 이젠 갈 때가 된 것 같군요. 멀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2447	애니메이션 동작을 위한 중간 모션을 가지고 이토록 분노하여 물어뜯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를 볼 내용이 아니고 작업자만 무고하게 혐오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주는 게임업계 또한 같은 여성혐오 집단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작업해준 근로자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면 그 누가 회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감싸주기는 커녕 꼬리 자르기만 하는 넥슨은 반성해야 합니다.
2448	애니메이션 동작이 움직이려면 중간과정이라는게 있지않습니까 그걸 빼고 어떻게 그려요? 2000 년대초반 플래시입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어느 페미니스트가 회사컨텐츠에 고작 손가락 마크 넣었다고 희희낙락거립니까 혐오를 위한 혐오의 주체는 누구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남자를 혐오하는게 아니구요 제발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여성탄압을 선두하지 마세요
2449	손가락 마냥 크기가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하고 부들부들 하는지..? 외국에서 보고 이래서 출생율이 낮은거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태에 보탬에 되신 소감은 어떠신지?
2450	스스로 논란을 만드는 꼴이 우습습니다.
2451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으로 개인을 괴롭히는 넥슨의 혐오생산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452	일부의 멍청한 의견에 우왕좌왕하는 꼴이 진짜 말도 안되게 우습다. 지금까지 그 손가락 의견에 동조했던 사업장들 방송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다른 나라가 알까 무섭다. 창피하다.
2453	집게손가락은 남성혐오가 아닌 걸 알면서 억지논란으로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것을 중지하라
2454	게임계에 페미니즘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렇게 만연하고 안티페미니즘의 손을 들어줄 때마다 게임이 망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페미를 향한 공허한 분노만 불태울 생각입니까? 페미가 그렇게 치명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게임이라는 문화를 주도해나가는 기업이자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개발자가 아무 공부도 조사도 없이 나무위키와 남초 커뮤니티의 글만 읽고 남성혐오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악에 대항하는 정의의투사 시늉을 하다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좀 뿌듯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하는데 2023 년에 페미니즘에대해 무지한 죄는 회사와 업계의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텐데말입니다. 저는 삶의 반절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게임을 즐겨온 게이머입니다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로 인정해달라 주장할 거면 그에 맞는 책임부터 다하십시오. 전 세계의 페미니즘경향을 공부하고 그 악랄한 해외와는 다른 국내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논문과 기사를 바탕으로 일베와 페미니즘의 각기다른 특징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고작 그 일을 하지 않아서, 페미니즘이 너무 쓸모없고 다른 사람의 얘기 같아서 기본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컨텐츠 개발자로서의 공부를 내던진 결과가 작금의 지옥같은 서브컬쳐근무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2455	사실 생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내에 만연한 플레이어간의, 혹은 스크립트 내의 혐오적 언사나 자정해야할 수위높은 이미지들에 대한 건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취할 수 있는 손동작을 일종의 남성혐오적인 기호라고 프레임을 씌워 억지를 부리는 주장엔 손을 들어주시다니요. 사실 그렇게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의 태도가 책 한 권을 뒤적거리면서 주먹을 쥔다는 무슨 표현인가? 현 정권에 대한 불온한 생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묻는 군사정권 시절의 사상검증과 다를바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024 년에 접어드는 지금, 게임업계와 일부 남성 게이머들의 태도가 군사독재시절, 1900 년대 후반부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게임 안한다. 해외 콘솔 산다.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게임 업계를 비판하는 이유는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게임하고 싶습니다. 클린한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을 바랄 뿐입니다. 세상 천지에 동화 1 초에 들어간 손동작으로 사람을 자르고 결과물을 포폴에도 못쓰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수 커뮤니티에서 외치는 남성 혐오라고 생트집을 잡는, 내 말 좀 들어줘 식의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히 아니라 말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랍니다.
2456	축하합니다 그쪽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박제당하고 직장을 잃고 사상 검증을 당해야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고 규정할 건지? 그저 여자도 남자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왜 특정 세력에 의한 운동이라고 폄하하는 건지 모를 일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썩어빠진 고정관념 좀 바꾸세요
2457	게임에 어떠한 혐오정서도 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여성혐오는 묵인해온 행위를 규탄한다. 당신들이 남성의 입맛에 맞춰 내밀어 온 수많은 여성 캐릭터들을 기억한다. 남성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성평등주의자를 자른 일들을, 그들을 공모전 등에서 배제시켜온 것을 기억한다. 남성의 편을 들겠다며 웃기지도 않는 피드백 요구에 머리 숙여 답한 것을 기억한다. 성차별주의자는 게임업계에서 여성을 배제시켜 온 남성들과 그들의 편에 선 당신들이며, 더 이상 당신들의 차별적 행위를 묵인할 수 없겠다. 해외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길 바란다. 당신들의 여성혐오(=미소지니)적 언행이 하나하나 전부 파헤쳐져 가루도 남지 않도록 뜯어먹히길 바란다. 그렇게 여성을 배제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배제할 한국의 게임업계가 처참히 망하길 바란다.
2458	일부 무지하고 편향된 인터넷 상의 의견으로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멀리보는 의사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459	평소 게임내 여험관련용어(단퐁회, 피싸개, 김치녀 등)는 전혀 바로잡지 않으면서 손가락 제스처 하나로 여성직원 해고 암시 입장표명, 라이브 방송을 통한 해명등의 행위를 취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것입니까?
2460	비열한놈들아 사람 밥벌이 가지고 나대지마라
2461	한 프레임 단위까지 뜯어보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일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462	일베 등에서 하고 있는 노알라 사진 합성, 중력절 사진 거꾸로 달기, 일베 손모양 인증과 집게손은 전혀 다른 사안으로, 실체가 없는 '남혐'을 스스로 만들고 부풀려 사상검증을 하는 것 외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 논란을 만들고 페미니즘을 반사회적 '사상'으로 몰아가는 일부 네티즌들에 굴복한 넥슨 및 게임업계에 큰 실망을 느끼며, 게임 유저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당한 사상검증과 인셀 문화에 편승해 게임을 사랑하는 이용자들을 매도하기를 멈추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2463	인셀 등 게임의 물을 흐리는 남성은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어째서 그 일부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주는 건가요 그들의 오락성 여성혐오에 어울려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기회 없는 남성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2464	무지성 페미무새들 레고는 어떻게 참고 살았나 의문입니다. 쟤들은 페미들이 손동작 하나로 결집되는 비밀결사대인줄 아는데 지들빼곤 아무도 신경 안쓰는 손동작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징징이들 말 그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베에서 손가락 꼬는거 보고 지들이 말하는 페미들도 그러는줄 아는데 그런 음습하고 찌질한 행동은 커뮤니티에 갇혀사는 사회성 없는 씹덕들이나 한다는걸 왜 아직도 모르는걸까요? 일베처럼 특이한 손동작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흔한 손동작 가지고 논란거리가 되고 대기업이 주말에 긴급생방송을 키는걸 보고 개그콘서트가 왜 망했는지 알것같네요ㅎ. 하도 오냐오냐 해주니깐 지들이 뭔 정의의 사도인줄 아는데 실상은 프레임 단위로 쪼개보고 맘에 안들면 사이버 스토킹이나 하는 음습한 사람들이란게 참.. 칼부림 예고글이나 올리고 피싸개같은 천박한 단어 쓰는 커뮤니티 사람들 말 그만 들어주고 먹금하면 절반은 간다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465	별것도 아닌거로 사람 밥줄 갖고 장난치는 놈들 말 좀 듣지 마세요
2466	여성 유저도 유저입니다. 제발 저희에게 마음 놓고 게임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2467	작작하시오.
2468	그러다 국내산 게임 싹 다 망해요 이런식이면 그냥 망했으면 좋겠네요
2469	기가 차서 할말이 없습니다.
2470	그들의 주장하는 ☒☒손짓 뿐만 아니라 (솔직히 어디서 나왔는지도,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를 손짓을 가져와서 페미가 남성혐오 표현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오조오억 드릉드릉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 여초 커뮤니티에서 파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혐오적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초 커뮤니티에서 파생한 유행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혐오를 뜻한다는 억지 또한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2471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어주고 자빠졌네요 안쪽팔립니까?

2472	억지 손가락 논란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마녀사냥하는것을 규탄합니다.
2473	페미가 장난이냐 한국 남성들의 억지 받아주지 마라
2474	일부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는 건 분명히 게임사에게도,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도, 게임업계와 협력하는 타 업계 사람들에게도 독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넥슨은 지금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귀사로 인해 다른 게임업 종사자들은, 게임업과 협력하는 애니메이터나 성우들은, 끝없이 검열과 검열 속에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본인들이야 대기업이니 별 탈 없을 수도 있겠죠. 다른 기업이나 업계 씨를 말리고 싶은 거라면 아주 잘 알겠습니다.
2475	그 손가락 하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의미부여를 멈춰주세요
2476	억지 논란으로 여성 혐오 하는 행위를 멈추고 사회는 이를 용인해주지 말아라.
2477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게임을 꺼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외국 게임이 인기 있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 게임은 유저를 호구로 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도 그저 억지 논란일 뿐인데 게임사는 유저를 호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외국 게임들처럼 IP 를 확장하고 싶다면 반성하시고 변화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세요 물론 이미 늦었지만ㅎㅎ
2478	기업적 반페미니즘을 중단하라
2479	인생에서 할거없고 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아비대한 애들 쉴드치면서 시간 쏟지 마라^^
2480	여성차별 그만해라
2481	부당한 요구를 하는 유저의 의견을 들어주지 마세요 억지요구인걸 알면서 수익을 이유로 굴하지 마세요
2482	중간동작 혹은 자연스러운 손모양으로서 나올 수 있는 집게모양 동작으로 클레임을 걸고 관련 하청업체의 직원을 자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악성 민원을 넣는 유저가 있는데도, 왜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고 넘어가려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애니메이터분이 남을 조롱하려고 넣었다는 근거도 그분이 페미니즘을 할것이라 작성하신 것 밖에 없으며 실제 작업물이 남을 비방하는 것인지조차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열을 하고 있으며, 이에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서 넣은 다른 애니메이션 동작마저 전부 자체적인 검열과 함께 욕설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애니메이션,3d 모델링,심지어 실제인물의 사진에서마저도 우루루 쏟아져나와 그냥 우연히 얻어걸린 동작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어째서 계속해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죄하며 다른 업계분들께도 피해를 주시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2483	일부유저들의 말도안되는 억지에 굴복하여 한 사람의 생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멈춰주세요. 당신들의 게임은 남자들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2484	악성 이용자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말아라. 이건 사상검증도 아닌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직원을 악성 이용자들의 장난감으로 내놓지 말아라. 직원 보호 확실히 해라.

2485	집게 손가락=남성의 성기 길이를 비하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은어니 뭐니 말도 안되는 억측과 혐오를 하는 디시인사이드나 익명성 게시판 사람들의 말만 믿고, 피해 받은 직원들 보호는 못할 망정징계를 내리거나 자르시다니 실망입니다.
2486	집게손 억지논란을 당장 멈춰라. 해당 사인은 페미니즘과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일부 인셀남 집단에 의한 억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주의 운동으로 콘텐츠에 페미니즘적 의미가 들어간다고 하여 절대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받아드려야 할 여성주의 운동이며 이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고 게임업계는 페미니즘을 배제한 채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2487	무분별한 몰이를 멈추세요 넥슨 여성유저는 유저도 아닙니까?
2488	차별을 옹호하고 퇴보를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미개한 행보를 부디 철회하길 바랍니다.
2489	넥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은 멈춰라 이것은 본인들이 남성주의집단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2490	정말 멍청들 하십니다
2491	남자 유저들의 억지 논리에 맞춰주지 말고 여성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492	사상검증, 억지논란 들어주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2493	어떤사유가있더라도 개인의사상만으로 불이익을받는일이 존재하면안된다. 이번사건은 일부 유저의 억지논란으로 일어난 사태이기에 넥슨은 선례를 위해서라도 직원보호에 앞장서야한다.
2494	억지 선동에 사과문을 게시한 넥슨은 정신차리고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라
2495	2016 년 클로저스 사상검증 이후, 게임업계도. 넥슨도. 악성 이용자도, 무엇 하나 7 년간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규탄한다
2496	극단성향의 소수 커뮤니티 사용자들의 터무니없는 여론 몰이에 휘둘리지않고 바른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2497	애니메이션을 무슨 집게 손가락의 논리로만 보시나요????
2498	마녀사냥 그만둬라.
2499	파시즘적인 인셀테러를 용인하는 문화 근절을 원합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며 페미니즘 악마화를 중지하길 바랍니다. 기업윤리를 지켜 보다 인본주의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사안을 다루기를 촉구합니다.
2500	여성 게이머도 사람이다
2501	페미니즘이 곧 인권이고 남혐은 실존하지 않는 백래쉬적 여성 혐오 관념이다. 노동자를 보호하라.
2502	말도 안되는 창조논란에 동의하는 꼬라지 잘 봤습니다
2503	여성 직원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지 마세요. 직장 내 성차별을 하지 마세요(고용과 월급 등등)
2504	억지논란 들어줄 시간에 밸패나 해주세요
2505	답답하네요
2506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2507	일부 편향된 집단의 억지주장을 들어줄 여유가 있습니까?

2508	혐오에 맞서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습니다. 피싸개, 힐싸개, 페미년 등 지금껏 메이플스토리에서 만연해있던 여성혐오성 발언들에 대해 제재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무시당했지만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린눈 해온 것이 무색하게도 〈남성혐오〉라고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0.01 초의 이미지를 두고 혐오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주말 새벽에 공지를 올리셨더군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모든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여성유저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해당 이미지의 손모양이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에서 쉽게 관찰되고, 또한 손하트 모양의 반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남성혐오〉라고 낙인찍힌 것은 왜일까요? 여성 일러레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발언을 개인 sns 에서 했던 것이 파헤쳐졌고 오직 그 사실만으로 '사상을 몰래 투영했다'는 어림짐작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1) 근로자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 그것을 개인 sns 에 업로드하는 것은 근로자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고용주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 그 손모양은 '페미니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지지 발언을 한 일러레이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남성혐오〉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즉 넥슨은 페미니즘 = 남성의 성기크기를 비하하는 사상으로 인정한 것이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성근로자 탄압이 사라질 때까지 연대하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2509	남성 유저만 유저입니까? 여성혐오를 멈추세요!
2510	안티페미니즘하는 남자들 말을 들어주는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
2511	여성의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12	언제까지 말도안되는 생떼를 들어줄것입니까..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있습니다..
2513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2514	말같지도 않은 말 들어주면서 왜 남에게 피해를 주나요
2515	여성혐오를 멈춰라
2516	정신 차리고 대기업으로서 일부 억지식 사상 검증 및 혐오 주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17	남자들의 의견만 듣지 말아라!
2518	억지 논란 그만 만들어라
2519	인게임에서 성희롱, 인종차별, 여성혐오표현, 고인 모독이 밥먹듯이 일어나도 아무런 제재하지 않던 메이플스토리가 손가락 하나에 화들짝놀라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0.1 초 손가락보다 훨씬 확실한 증거가 있던 일베 성우는 안자르시고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고객층에서 배제하는 업계는 쇠락할 미래만 남았습니다. 해외게임사들이 작품만들때 큐브나 돌리는 도박장 게임 잘 운영하세요.
2520	정신차리자
2521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으로 여성의 직업과 생계를 위협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행보를 규탄한다

2522	꼭 님보다 주류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 당하세요
2523	그동안의 게이머들 의견에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 이제서야 해당 이슈에만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역겹습니다. 2023 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상한 말도안되는 논란이라는걸 꾸역꾸역 설포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게임 운영을 바랍니다.
2524	책 좀 읽으세요
2525	남녀노소 모두가 다같이 즐기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주말동안 있었던 공지 및 각 게임 디렉터들의 발언들을 철회하고 유저들이 바라는 개선안 등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이세요
2526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마라,,,
2527	여성 작업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에 동조해 마녀사냥 하는 기업들을 규탄한다.
2528	말도 안되는 항의를 받아주지 마세요. 직원을 보호하고, 말도 안되는 선동질과 악의적인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들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529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짓을했습니까? 논란을 일으킨 쪽은 여성 혐오에 물든 남초 유저들의 짜깁기 자료로 선동한 일이 명백합니다. 알면서도 동조하는 넥슨의 마녀사냥과 여성에 대한 멸시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2530	마녀 사냥을 멈추세요 여자도 게임 유저입니다
2531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532	소수의 억지 주장에 성급하게 사과와 수정 조치를 내린 넥슨의 의사 결정자들의 선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회사의 이익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당장의 이해타산으로 옳은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넥슨의 결정은 넥슨의 저급한 성평등 감수성의 수준만을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들의 억지 주장에 반응하여 이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이들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넥슨의 결정과 행동은 해프닝이 아닌 여성혐오라는 사회 문제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그들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지 않도록 서명합니다.
2533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게임업계의 행태는 남성들의 온라인, 오프라인상 여성들을 향한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억지 페미니즘 논란에 굴복함으로써 여성들 개개인의 사상을 검증하여 여성들을 업계에서 배제시키고 직장을 잃게 만들고 현실에서 공격받게 만든데에 대해 기업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534	게임업계 니네 계속 그따구로 살다간 천벌받는 날이 올거다 니네 감싸줄 사람들 그땐 없을테니 계속 해봐라
2535	달이아닌 손가락을 보고있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2536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 만듭시다 제발
2537	잎사귀에 붙은 벌레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2538	이미 한국의 게임업계는 특정 집단의 놀잇감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말도안되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동조하는 넥슨을 규탄하고 이슈 재검토 및 사과, 재발방지를 요청해주십시오.
2539	강간문화 개선할 생각조차 못하는 게임업계, 망해라!
2540	인셀들 의견 과대표하지마라 페미니즘은 죄가 아니다

2541	15 년간 귀사 게임을 즐겨온 여성게이머입니다. 클로저스 티셔츠 사태때 실망하긴 했지만, 당장 내가 하는 게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하는 비겁한 마음으로 눈닫고 귀닫고 게임을 계속했네요. 지난 주말 이슈를 지켜보다 드디어 귀사의 게임을 접습니다! 정 다 떨어진김에 물어나 봅니다. 정말 동영상과 일러의 엄지 검지 살짝 벌어진 형태가 "여성우월주의"를 티내고 싶어서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이나요?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하청업체 자르고 일러레 계약해지 하나요? 남의 생계, 계약을 쉽게 끊어버리는 오만하게 갑질하는 너네 엄지검지나 절단하세요. 동영상과 일러의 그 손가락 형태는 그냥 사람 손가락일뿐 무엇의 의미도 없는거 너도알고 나도 알고 다 알면서 왜그래요? 그 손가락 형태가 페미니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인터넷 뒤져봐야 지금 인셀밖에 안 남아 있는데 설마 정말 귀사는 멍청하게 그걸 믿습니까? 네 같이 숨은그림찾기 실컷 하세요. 대기업인 귀사의 멍청한 공지로 여자는 사람 손가락 그릴 자유를 잃었습니다. 여성게이머인 저도 마우스 클릭할 검지를 잃었네요. 이제 다시 귀사의 게임을 할 생각은 없으나, 엄지검지 잃은 귀사의 여성직원들 생각하면 업계는 달라도 같은 여성 노동자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게임회사를 대표하는 3n 중 하나인 넥슨의 이번 행보에 오랜 게이머로서 다시 한 번 실망의 마음을 전합니다.
2542	여성게이머로서 한국 게임업계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소비자이고 고객이고 인간입니다 차별을 반대합니다.
2543	넥슨에게 게임업계 사상검증 및 페미니즘 혐오, 여성혐오 재생산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2544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거지로 이유를 붙여가며 아무 의미도 없는 제스쳐만으로 불온사상이 존재하는 증거라 주장하고 온갖 크리에이터 업계에 피해를 끼치는 민폐범들에게 더 이상 마이크를 쥐여주지 마십시오
2545	애초부터 응하지 않았다면 되었을문제입니다. 어째서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에 그리 쉽게 휘둘리시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류의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부디 귀사의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해주시길바랍니다.
2546	억지논란의 말도 안되는 "떼 쓰는" 악성민원을 들어주고, 정작 해당 회사와 관련자는 보호하지 않다니. 여성유저를 향한 저속한 언행이나 폭력, 사행성 조작에 대한 그 어떠한 움직임없이 이러는게... 넥슨의기업윤리인가요.
2547	이번 회의로 경각심을 일깨워 게임업계 외에도 본보기가 되는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548	이럴거면 필수약관란에 남자만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쓰면 좋겠어요 지들끼리 치고받다 망하게
2549	역사시간에 YH 사건도 안배운건지 원..
2550	적당히 좀 하자.
2551	이래서 한국 게임들 나락 가는 중이구나...겜 제작자들이 인셀 그 자체여서 망할 수 밖에 없었던거임.

2552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게임업계, 특히 넥슨의 남초 인셀의 지나친 갑질과 여성혐오에 편승하는 경향을 알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넥슨은 그런 말도 안되는 갑질에 동의하여 사회적인 민폐를 끼치고 사내 분위기를 흐리며 저런 행위를 매번 들어주고 있나요? 왜 다른 회사는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인터넷 유저의 과도한 억지'를 들어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넥슨 스스로의 이미지도 인터넷 갑질에 휘둘리는 회사가 될 뿐입니다. 이런 회사에는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2553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554	어릴때부터 넥슨게임을 많이해와서 충격과 실망이 너무 큽니다
2555	게임업계에 손가락 2 개의 의미가 뭘까요?
2556	넥슨 재직자들은 본인들의 검지와 엄지를 자르고 다니나요?
2557	억지 논란에 대한 답변을 멈추고 외주 업체와 사원들을 보호하라
2558	남녀평등 외치는거치곤 누구보다 앞서서 여혐하고있다는걸 알아두세요
2559	시대착오적 인식을 바탕으로 세 과시를 하고 싶을 뿐인 일부 유저의 의견이랄 수도 없는 주장에 굴복해 스스로 손해를 초래한 넥슨과 사과문을 공지한 게임업계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반동을 여론으로 착각한 끝에 마주할 것은 업계의 공멸일 뿐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2560	인터넷과 영상매체를 접하는 사이트들이 성장할 수록 게임 업계 역시 비전 확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겨집니다. 이 과정의 과도기에 든 우리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기업 넥슨 측에서 보이는 태도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무마하고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기업으로서 소비자의 의향을 파악하고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바람직함은 사실이지만, 함께 일을 일구어가는 근무자들을 살피지 않음은 유감일 따름입니다. 기업 넥슨은 눈 앞에 뻗친 악의로, 진정 갖추어야 할 미덕을 잊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태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출근하고, 고생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도를 넘어선 요구를 끊임없이 수용할 수록, 업계는 암흑기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고, 이는 오로지 근로자가 모두 짊어져야 합니다.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의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사업자도 아닌, 기업의 근무자가 어째서 이를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히 근무 환경 속 약자를 점차 배제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상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아가, 게임 업계를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다음 세대의 근무자들을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별의 갈등을 넘어, 게임 업계 전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기업 넥슨은 명백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2561	디렉터마저 일상생활 중 할 수 있는 손동작을 가지고, 엄지와 검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하는 동작을 가지고, 수십분의 영상 중 단 1 초 단 1 프레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게 맞습니까???

2562	제발 억지 논란에 상식적으로 대응해라 애초에 상대도 안했으면 무시당하고 넘어갈걸 괜히 대응하면서 일이 커진것 아니냐? 손 움직이다보면 저런 동작이 나올수도 있는건데 움직이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면서 억지 논란에 장단 맞추는게 우리나라 메이저 게임 회사에서 할일이냐? 앞으로 여성 회원은 버리고 남성 회원만 데리고 운영해갈 생각인지? 비상식적인 태도에 실망하여 게임 바로 삭제했다
2563	넥슨아 갑갑하다 진짜
2564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2565	비논리적이며 페미니즘을 왜곡 해석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 꼭 바로잡으십시오! 지금처럼 잘못된 것이 아닌 것에 사과와 해명을 하는 것은 게임업계가 성차별주의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의미한 항의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2566	남초인셀이 저지르는 여성혐오 및 사상검증에 언제까지 휘둘려 줄 생각입니까? 당신들이 저지르는 짓이 노동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걸 의식하기 바랍니다.
2567	16 년도 클로저스 사태에서부터 23 년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악성민원 집단에게 개인의 생계를 제물로 바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입니까? 16 년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우리는 분노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2568	본인들이 혐오만들고 피해자인척 하지마세요. 그저 갑질하는 가해자일뿐이예요
2569	넥슨은 일부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휩쓸려 시대를 역행하고 직원과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시대적인 게임 운영을 반성하고, 성별을 떠나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확고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570	제발 정신차리세요
2571	우기기에 가까운 일부 커뮤니티에서 태생한 주장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없이 불필요하게 과한 대응을 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상식화가 되면 이후 불확실한 내용이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572	그걸 논란으로 만든 한국남자나 잘못했다고 인정한 메이플디렉터나 똑같이 하찮다고 봅니다.
2573	집게 손 모양을 남성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진심.. 인가요...? 집게손... 모양에는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다른 수 많은 여성혐오 표현은 왜 그대로 놔두시는지... 참담합니다...
2574	명백한 여성 혐오를 규탄합니다
2575	가짜 정보로 유저를 성별에 의해 나누고 차별하고 직원, 관련 업체를 사상검증을 멈추세요
2576	본인들 손에도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달려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집게 손가락 모양을 무의식중에 하게 될텐데 그에 대한 자기 검열이나, 본인의 손가락을 지울 실제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577	이미 충분히 많은 이들이 시덥잖은 사상검증 때문에 실직하지 않았습니까. 게임업계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본인들만 백스텝을 치는지.. 부끄러움을 알고 개선해나가길 바랍니다.
257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579	지금과 같은 진상 민원을 계속 받아준다면 넥슨 직원들만 힘들 뿐입니다. 넥슨 및 여타 게임 업계의 회사원들도 부당 해고 당할 위험이 높은 기업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기업 윤리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한국 대표 게임 기업이 시대와 맞지 않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고 나아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귀사와 게임 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580	"일부" 유저들의 의견만 적극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자사직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것인지? 메이플 디렉터 김창섭씨가 개인 라이브에서 언급한 메이플 스토리를 유린하는 행위에 "일부 소수 사이트-인벤,디시인사이드,아카라이브"에 만연한 혐오표현은 포함되는지?
2581	억지요구 들어주기 위해 노동자 사상검증을 하며 부당해고 하지 마라
2582	인셀들 의견 좀 들어주지 마쇼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주니까 XX 들이 자꾸 큰 소리 내고 다니잖아; 세상에 손가락 억지이슈 때문에 근로자들 자르고 일감 안주는게 말이 됨??
2583	남자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응하고 여성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소부터 여성혐오적인 직장 환경 및 게임 개발환경에 절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넥슨은 일본으로 본사를 옮겨 국부를 유출하는 친일기업. 다 같이 불매합시다.
2584	일부 인셀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일일이 받아주고 있는게 지금 게임업계의 수준 맞나요???
2585	해외 게임이 과하게 PC 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게임이 기본적인 인권인식조차 없이 너무나 뒤떨어져있는 것입니다.
2586	억지 논란에 휘둘려 여성을 억압하는 업계는 반성하라
2587	피해망상에 불과한 의견들 받아주지말고 정신차려라
2588	인셀들의 막무가내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2589	악성 유저의 집단 민원을 근거로 '억지 논란' 에 동조하여 창작자와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위협하는 사상검증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590	인셀남 떼쓰는거 들어주는 꼴 그만 보고싶습니다
2591	그 어떤 사람도 개인 SNS 에 남긴 일상적인 말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엄지와 검지의 제스쳐는 흔한 제스쳐로 그것이 혐오적 표현이라는 근거는 택도없이 부족합니다. 넥슨은 선택적 혐오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차별 없는 문화컨텐츠를 지향한다면 직원 및 회사컨텐츠 작업자들을 무분별하게 사이버스토킹 • 불링하는 행위들을 규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2592	게임유저 중 모든 남성 유저가 아닌 극히 일부의 남성 유저들의 의견임에도 납작 엎드려 사과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손동작은 여성들이 지정한 것이 아닌 극히 일부의 남성들이 지레짐작하여 만든 것으로 그들 사이에 퍼지는(억지로 의식해서 만들어야하는 '일베' 손동작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무의식중에도 나올 수 있는 손동작입니다. 대기업인 넥슨이 크게 동요할 수준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으며
2593	여성유저들을 배제하고 한국 남성 유저들만 챙기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2594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게임이, 게다가 넥슨이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게임이 일부 유저의 '불편'에 사과하는 꼴이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손가락 모양이 남성을 혐오하는 뜻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애니메이션 동화가 페미니즘 사상을 은근슬쩍 넣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집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그 손가락을 애니메이션에 넣은 원화가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페미니스트의 뜻은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는 마녀사냥과 같은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2595	게임은 일부 남성들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들이 소비자보다 앞서 게임을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한정짓는것은 콘텐츠가 다방면으로 발전할 기회를 망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596	이 사태는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 아니라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불링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에 부당한 조치를 취한 넥슨, 게입업계를 비롯해 외주를 받은 애니메이션 회사까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사건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597	억지논란 억지대응 가만히 즐기던 여성 유저까지 떠나게 하는 짓
2598	게임업계는 더 이상 집게손 망상에 반응하지마라!
2599	억지논란 동조 및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멈추세요. 그리고 남성혐오 근절을 하고자 한다면 여성혐오 또한 근절해야 합니다. 게임업계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남성혐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받아주며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사태가 말이 안됩니다.
2600	사상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도, 이를
2601	억지 남성혐오를 편들어주는 게임회사의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2602	언제까지 더불어가는 삶이 아닌 한쪽을 차별하는 방향을 고수 할 것인지… 해외에서도 이런 이슈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러니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것 같은제 왜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일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603	부끄러운 개발자가 되지 맙시다
2604	나름 대기업인데 정말 수준 미달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2605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 유저들의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람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안타깝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사리 분별 하지 못하여 남성들의 여성 혐오를 더 부추기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2606	억지스러운 논란에 대응하는 넥슨의 태도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2607	억지논란에 스피커를 대주지 맙시다

2608	대체 어디서 시작되고 부풀려졌는지 알 수 없는 개인의 망상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그대로 수렴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억측과 물타기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일상과 생계를 위협받아야 합니까? 혐오를 조장하고 마녀사냥 '놀이'를 즐기는 일부가 자신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힘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에 동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게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3N 중 한 곳으로 한국 게임업계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넥슨이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한 선례를 남겨 사태를 키운 것에 책임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길 바랍니다.
2609	속이 터진다
2610	너무 하찮다
2611	내가 게임에 손을 댄 게 20 여년 전이다. 게임업계 니들이 그때 불태웠어야할 마녀새끼가 나란 의미다. 그동안 못 태웠으면 니네가 타야지. 내가 할 말은 이게 다다.
2612	정신 차려라
2613	노동자의 사상점검 그만하세요.
2614	이 사태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수정한 GS 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30 대 남성들이 지겹도록 혐 페미니즘을 자처하는 현 세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615	나름대로 게임업계에선 중견 업체이면서 나쁜 선례 좀 그만 만드세요.
2616	억지논란으로 혐오를 조장하지말고 여성인권신장을 비롯한 사회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17	예전에 법적으로 30 일 전 해고 예고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라는 이유로 새벽에 바로 해고 통보를 했을 때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잡아 '페미'라 몰이하며 온갖 곳에서 사과를 한다뇨? 그렇게 따지면 페미가 아닌 애니메이션이, 게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녀싸움은 커뮤니티 안에서만 일어나도 정신없고 꼴보기 싫은데 왜 현실에서마저 한 쪽의 편을 들어줍니까
2618	인셀 유저들의 어이없는 생트집을 하나하나 받아줘서, 별 것 아닌 떡밥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2619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이며 인권침해임을 전혀 모르는 도덕성과 인지 수준이 그저 우습습니다. 이대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자멸은 얼마 남지 않을 거 같네요. 어릴 때 제 추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620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찍기 및 혐오를 멈춰라
2621	한국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성차별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2622	필요한 개선에 침묵하다가 이 일에만 긴급 소통하는 것을 보면 디렉터 개인 및 넥슨 일부 사원의 여성혐오주의 사상이 강하게 의심된다
2623	페미니즘은 남성을 차별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 유저를 배척하고 차별하는 해당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직원을 자르고 처벌하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2624	말도 안되는 일로 해고시키는 악질 기업과 악질 유저로 가득한 업계
2625	겉으로는 아닌척하면서 여성혐오만 혐오라 외치는 넥슨에게 참 화가납니다

2626	제대로된걸 보길 여성유저는 유저가아니라는듯 꼬리짜르기잼
2627	한국 게임업계는 일부 악성 유저들을 핑계로 여성 노동자 탄압과 직장내 괴롭힘에 동조하지 말라.
2628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단번에 잘라버리는 이 사태를 통탄합니다.
2629	클로저스에서 사상검증으로 성우분을 자르던 때와 똑같네요. 개선되기는 커녕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게 믿기지않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본인들이 소수 커뮤니티의 비상식적인 목소리만 듣고 그들을 대변하여 비상식적인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알았으면합니다.
2630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동조하는 넥슨과 게임업계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631	게임업계를 자정하고 직원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2632	제발 남초 커뮤니티 밖에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다
2633	인셀들의 무차별적인 여성혐오테러를 방어하기는커녕 여성 노동자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634	국내 시장 소수의 남성들 땡깡 받아주다 도태되는 결과를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2635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636	개개인의 정치적 스탠스가 어떤지를 떠나서 이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마녀사냥을 하는 비건강한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관련 업계의 수많은 인재들은 국내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자 할 것이고, 여전히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 인재들 역시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일부 유저들은 SBS 등에서 논란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 사진 합성 등과 집게 손을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곤 하는데 특정 정치인 한 명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며 모욕하는 사진을 회사 작업물에 삽입한 것과 '집게 손'은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2637	이런식으로 어거지로 특정 한쪽 억압하는거 상당히 우습네요 우리도 다같은 유저입니다
2638	사상검증으로 직업생활에 제재를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정보수집을 근거로 하고, 애초에 동화의 일환으로 등장하여 사상을 표현하지도 않은 행위에 일부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동조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끼쳐 피와 눈물로 이룩한 노동 문화를 퇴보시키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합니다.
2639	비상식적 음모론으로 창작자의 작업이자 노동자의 정당한 생산물을 박탈하는 정도의 시대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2640	게임계의 만연한 여성차별과 여성에게만 행해지는 사상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641	여성 노동자들에게 사상검증하고 밥줄 끊는게 마치 정의라는 것처럼 구는데 본인들의 기분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흘려 만든 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2642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일부의 의견을 수용해 말도안되는 이유로 죄없는 사람을 해고하고, 오랫동안 게임을 좋아해왔던 사람들을 등지는 어리석은 행동인지 빨리 깨닫고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2643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건 그 억지 논란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겠죠?

2644	넥슨은 한국 게임 업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한국 게임 업계가 그동안 보여왔던 수많은 여성혐오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클로저스 사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끔찍한 혐오의 선례들을 나서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혐오를 없애고 평등을 만들고자하는 이들의 언어를 전유해 말도 안되는 것들을 “남성혐오”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도 게임 유저들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다른 피부색, 국적 등이 존재합니다. 넥슨에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업계 속에서, 게임 커뮤니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을까봐 맘을 졸이고 있을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디렉터께서는 사태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당신들에게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어놓는 것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일인가보군요. 하기사 요즘 세상을 보면 뭐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보이기는 합니다. 디렉터께서 말씀하신 “모두”라는 게 그런 작태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차라리 게임이 아니라 음모론자 카페나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삼각형만 보면 다 일루미나티 증거라 부르는 이들, 외국어에서 한국어랑 대충 비슷한 소리만 들리면 다 환단고기의 증거라는 이들과 수준이 다를 바가 없네요. 아니면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신지요? 사실 당신들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억지인 지 알고 계시면서, 그저 타인의 인생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쪽이든, 그대로라면 세상은 당신들을 두고 떠날 것입니다. 그 전에 뉘우치고 바른 길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645	허무맹랑한 익명주장만 듣고 애꿎은 여성노동자와 여성유저를 압박하고 심지어 그동안 게임에서 가졌던 애정과 돈, 시간까지 수포로 돌려버리는 이런 행태가 '게임업계의 여성제노사이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혐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누가 죽고 다쳤나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페미니즘을 굳이'숨겨서 넣어야할만한 부덕한것'이라고 여기는 발상부터가 피해의식이 심각하고 못배운 사람이 생각할법한 상식의 오류라는 점도 더해서말입니다. 하버드도 아이비리그도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은 보편적으로 이뤄져있고 일부는 필수강의로도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해당 사태와 페미니즘은 연관이 없었으나, 익명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남성혐오를 했으니 그 마녀를-괘씸한 여성을 잡아다가 벌해라'라는 주장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과 업계와 그 게임을 그냥 사랑하던-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수많은 여성 유저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자본은 정의가 아니고 올바름과 기업의 가치는 상반한다지만, 돈을 내고있는 사람의 절반은 여성이며 게임업계의 수많은 직,간접적 근로자역시 절반은 여성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마녀사냥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 회사를 떠나면 '고객'이고 이미 고객일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리고 압박당하며 조롱당하는건 여성들인데 도대체 누가 피해자입니까? 넥슨의 눈과 판단력이 옹이구멍이 아니라면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지않으면 저는 넥슨게임을 탈퇴하고 불매하겠습니다.
2646	그렇게 운영하지 마라! 제발 내 오랜 추억들이 있는 게임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버리네
2647	집단 망상을 멈추세요
2648	정신차리세요 노동법 위반입니다
2649	평소 채팅 속 여성 혐오에는 방관하고 해당 문제 제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아동 여성 캐릭터의 성희롱 그림 등은 아무 반응 없다가 그 커뮤니티 다수 의견이 집게 손이 남성 혐오라며 없는 논란 창조할 때는 왜 맞다며 동조했나요? 넥슨은 앞으로 물건 집거나 쥘 때 휴대전화 타이핑할 때도 꼭 주먹 쥐고 하시길
2650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라는 멍청한 말은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자신있게 저는 레이시스트입니다! 저는 호모포비아입니다!라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테죠. 왜냐면 잘못된 사상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그걸 큰소리로 주장하는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우고 성장하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사회의 한 개체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는 안티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외치고 생때를 부리며 불필요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이 특정 집단군들은 특히나 이럴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가 이들을 이렇게 도태시킨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합니다.
2651	이번 논란 우습고 창피한 줄 아세요. 해외 사람들이 이번 논란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게임사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 수 있게.
2652	정신차리세요
2653	유저(혹은 유저도 아닌 제 3 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징댈 때마다 개처럼 발을 핥을 건가요? 그들이 어떠한 개선이나 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누가 더 빠르게 기어오는지를 지켜보며 즐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깨달으실지 궁금합니다.

2654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의식수준이 " 보통 "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2655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에 휘둘릴 건가요?
2656	억지로 만들어낸 논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뜻을 받아준다면 이젠 자기들의 기분만 나빠도 트집을 잡으며 앞으로 억지를 부릴 것 입니다. 이런 억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해고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657	문화산업이 억지 검열에 굴복하는 선례를 만들지 마십시오.
2658	상식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계속 지지해줌은 넥슨사 자체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저열한 자들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범죄도, 드러내면 안되는 비윤리적인 사상도 절대 아닙니다. 2023 년을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 이 원시적인 여성혐오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2659	억지를 들어주는 태도보니 인셀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군요. 이런 회사가 이 나라의 대표 게임기업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2660	제발 적당히 좀 하셨으면
2661	마녀사냥 그만둬라,
2662	말도 안되는 주장 좀 들어주지 마세요. 직원 및 같이 일하는 노동자를 좀 보호하세요. 여성노동자를 인셀들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지 좀 마세요. 왜 모든 혐오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정작 여성동료직원들에 대한 비난은 무시하나요? 말도 안되는 항의를 하고 제작자 및 업계노동자들에게 혐오표현, 말도안되는 주장, 루머를 퍼트리며 비난하는 인셀들을 처벌하고 피해입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세요
2663	억지요구 들어주는 대기업이라니,,,
2664	소수 인셀의 떼를 받아주지 마시오.
2665	여성혐오를 멈추고 바보같은 소리를 일일히 받아주지 말아야합니다 멍청한 집단의 바보같은 논리에 휘둘리다보면 회사가 생산적인방향으로 가기 힘듭니다 지금처럼요
2666	억지 의견에 휘둘리는 기업에 돈을 조금도 쓰고 싶지 않다
2667	여성들의 의견을 더 이상 묵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668	제발 억지논란 먹금좀
2669	적당히라는걸 모르는 넥슨 발전도 없냐
2670	겜유저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쪽편만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671	수많은 여혐 아이디 제재는 1 도안하면서 동영상 스쳐지나가는 그부분에 발작버튼 무슨일이야
2672	넥슨을 비롯한 게임 기업들은 그간 일부 남성 유저 커뮤니티 집단이 페미니즘을 극악한 반사회적 사상으로 몰아가며 그들의 심증으로 여성들의 일상 속 일거수일투족까지 침투하여 검열하고, 이를 잣대로 생계를 위협하는 일명 '사상검증 스포츠'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온 것에 대해 빠른 인정과 사과 및 피해자들을 향한 손해배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673	인셀남 억지몰이에 휩쓸리지 말고 여성혐오에 관대하지 마세요.

2674	클로저스 사태 이후로 반성도, 발전도 없는 업계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쯤 되면 내부의 사람들도 진상들과 한마음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고객도 아닌 진상들의 위협행동에 동조해서 직원을 내칠겁니까? 언제까지 업계를 몰락하게 만드는 진상들과 한 뜻을 이어 가실겁니까?
2675	정신 차리세요.
2676	그렇게 살지 말것.
2677	집게손에 관한 억측으로 여성혐오를 멈추십시오.
2678	극소수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째서 한 쪽의 주장만 듣고 재단하시는건가요? 애초에 그 손가락이 정말 그런 의도로 그려진건지, 그 손가락이 정말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마당에,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발언에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페미니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그들은 무슨 기준으로 페미니즘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길래, 그저 여성인권 신장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남성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상검증을 당하고, 일이 이렇게나 불거진다고 생각해보면 기괴하지 않습니까..? 유독 여자인권 관련해서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도, 이 일을 정말 '메갈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저 여혐몰이를 해서 씹고 뜯고 즐기려는게 목적입니다. 그런걸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꼭 채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고싶어하는 일부 도태된 인셀남들의 발악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까? 억지와 땡깡을 계속해서 들어주다보면 종내에는 끝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지시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논란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2679	나라가 미쳐돌아가고있다
2680	억지논란에 동조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라
2681	그래픽 속 순간의 프레임에 의도가 담겨있다는 상상, 그 의도가 강자를 향한 조롱이라는 망상. 이 환상에 근거한 강자들만의 담론 끝에 발생하는 건 여성 근로자들을 향한 차별적 직위해제, 해고. 비대한 상상과 망상은 유희에 불과하지만 실재하는 현실은 약자들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682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이 철폐되고, 일부 악성 유저로부터 직원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2683	차별과 혐오를 계속 수용하면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2684	여자들은 남자들 사이즈에 관심 없습니다 숏컷이라고 폭행을하거나, 성관계 몰카찍거나, 안만나준다고 죽이지나 마세요

2685	부끄러운 줄 알아라
2686	기업은 기업으로써의 정신을 탑재하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지 한 쪽으로 치우치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라고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심한 의견에 동의한 내부의 한심한 작자들을 걸러내지 못한 기업은 이번 일로 본인들 이미지가 얼마나 곤두박칠 쳤는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등~중학생이 낼 법한 불만에 반응하여 어른이 사과를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미숙한 의견에는 단호히 거절도 해야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687	한국 게임업계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적 트렌드를 거부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 게임산업계는 이미 망했다. 발전하고 싶다면, 여성을 향한 사상검증을 할 게 아니라 남성들과 자신들의 사상 검증을 해보시라.
2688	넥슨은 정신차려라.
2689	비이성적이고 착오적인 판단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소중한 추억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십시오.
2690	정신 차리십쇼 진짜
2691	억지논란 멈춰주세요
2692	게임 업계에 더는 이런 이유로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마녀사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693	한국 게임업계에 가득한 성차별이 타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94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피해망상 종자들 말 좀 그만 들으십시오. 당신들 수준이 그들과 똑같은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2695	정신 좀 차려라,,
2696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혐오를 멈추세요
2697	인셀들 주장 들어준다고 멀쩡한 노동자 부당해고하는 멍청한 짓을 그만 두십시오
2698	남성의 존엄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여성의 존엄성도 지켜주세요.
2699	정신 차리자
2700	그들의 요구는 주문이 많은 요리점과 같습니다. 앞뒤도 논리도 안 맞는 주장으로 열심히 사는 노동자를 페미로 몰아가며 결국 해고 당하고 업계에서 매장 당하는 것을 보며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저 성별 관계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을뿐인데 게임을 하면서 겪은 성희롱과 성차별 때문에 남성을 피하는 것이구요. 애초부터 여성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태도가 자업자득인 것인데 말이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701	마녀사냥을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들은 혐오 없는 게임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2702	혐오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또 다른 혐오로 앙갚음 하는게 현재 한국 게임 업계 탑에 위치한 기업의 수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의 혐오에 많은 전문가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행위를 매우 규탄합니다.
2703	악의적인 몰이에 휩쓸리지 말고 직원과 창작물을 존중해주세요.
2704	제발 그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해서 평생 책임져줄거 아니면 그런 말도안되는 억지좀 들어줘서 사회적으로 문제좀 만들지 마세요

2705	혐오몰이에 장단 맞추지 마세요
2706	억지적인 일부 성별의 혐오적 논란을 받아주지 말라
2707	무분별한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2708	억지논란으로 여성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일자리를 자르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2709	사회 규율을 망가트리는 불합리한 논란을 규탄하라
2710	지긋지긋합니다
2711	글로벌 시류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한국 기업은 반성하시기 바람
2712	개소리에 반응금지
2713	게임 업계는 모든 유저들에게 제공할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미 그들이 '고의적으로 게임사 측에 따질 거리를 찾아낸 연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일상에서 성별 연령 불문하고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을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내던 콘텐츠 연출의 폭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그 표현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스스로의 행동과 주변 사람의 행동까지 제한하거나 편견을 씌우고 보게 될 것이고, 결국 게임 업계 스스로가 표현과 연출의 제한을 만들어 목줄을 매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단순 손가락으로 된 표현이지만 그 다음엔 어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을 '악의가 담긴 고의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지적을 하는 유저, 해당 게임 업체에 불만 사항을 갖고 고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적할 거리를 만들어내는 유저만이 게임 업계의 주된 유저들이었으면 합니까. 현실의 누군가의 삶을 좌절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게임이라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유저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게임사 측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유저와 그런 유저들을 보며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노력해온 직원 및 계약처와 더 많은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2714	세상은 발전했으나 당신들은 중세 시대 마녀사냥하던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2715	여성 소비자이자 IT 업계에 근무하는 여성 개발자로써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2716	사회부적응자 악성민원남성들의 억지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말고 올바른 게임문화와 사업을 위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2717	말도안되는 억지를 받아주고계시니 한심합니다
2718	그러게 왜 일을 키웁니까
2719	혐오와 폭력(싸이버 불링 및 사이버스토킹)을 유흥으로 소비하는 극소수의 자들과 뜻을 함께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2720	회사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다른 업계에까지 피해를 주면서 마녀사냥하는 것을 멈춰라.
2721	손가락갑질 창조논란에 대응한답시고 노동법을 어기고 하청업체에 갑질하는 행태를 고치십시오.
2722	제발 3 살짜리 애 땡깡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꼬투리좀 잡지 말아주세요. 님들이 생각해도 억지잖아요
2723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검열과 백래시에 반대한다

2724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2725	피해를 줄이고 싶다고 한 개인의 작업물을 일시에 지우고 위협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726	넥슨은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727	인셀남들의 억지논란을 받아준 넥슨은 각성하라
2728	집게손을 페미니즘 사인이라면 집게발을 가진 모든 생물들은 페미니즘 생명체 입니까? 넥슨 및 게임업계에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2729	남성혐오를 멈추라면서 여성혐오는 당당하게 하시는 군요. 페미니즘을 나치즘이나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며 여성혐오의 재료로 쓰는 짓을 멈추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2730	직원에 대한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평등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2731	진짜 창피해서 못살겠다
2732	정신 차리시길
2733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고, 노동자의 사상을 규정하고 해고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2734	사상검열은 멈춰야 됩니다.
2735	쓸데없고 우기기 바쁜 의견 들어주다가 중요한 소비층 잃습니다
2736	제발 여성 유저도 유저로 생각해주세요. 일부 억지 유저의 의견만 주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여성유저의 돈도 디씨유저의 돈도 같은 가치를 갖고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2737	돈 때문에 약자혐오자들의 손을 잡지마세요
2738	넥슨은 일부 남성들의 편협한 시각에 입각한 주장을 그 어떠한 검증도 없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으면서 혐오에 맞서는 첨병인척 구는 행위를 멈추길
2739	아무리 고객이어도 말도 안되는 억지 요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의 보호를 우선하는 기업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2740	제발 상식적인 사회인답게 삽시다
2741	이상한 의견에 오히려 힘실어주는 행위를 하고있음.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를 공식적으로 행하는 짓이 얼마나 규탄받아야할지 깨닫길바랍니다
2742	도태남들 떼쓰기로 언제까지 노동법 위반할건지 궁금하네요
2743	자정작용이 필요해
2744	그깟 손가락으로 무엇을 더 우습게 만드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2745	해외 게임사에선 이런 논란이 발생해도 대응조차 하지 않는데. 한국 대형 게임사에선 어찌 이런식의 대응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디렉터 김창섭씨에게 묻고싶네요. 혐오 세력은 김창섭씨 당신이 더 키운것같은데 뻔뻔하게 혐오 조장에 반대한다고 말할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가락이 대체 뭐길래요? 당신도 라이브방송하면서 쓴 그 손짓이요.
2746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으로 하청업체 및 관련 노동자에게 압박을 주는 명백한 갑질행위는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2747	혐오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OO 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제발 정신차리길.

2748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매우 깊이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당장 귀사가 조치한 모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넥슨의 사상검증 및 노동자 탄압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규탄할 것이다.
2749	사랑하던 게임이 험오와 사상검증의 편을 드는것을 반대합니다.
2750	미쳤는가 한국 게임업계여. 소비자를 우습게 알더니 이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지 아는구나..
2751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해고되는 것이 본인이 되지 않을 거란 자신, 있으십니까?
2752	범죄가 아닌 이상, 사상을 이유로 사원을 해고하지 마십시오
2753	창조논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2754	사상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누구보다 반페미니즘이란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게 한심하다. 처음부터 말해라. 우리는 '반페미니즘'주의라고. 페미가 실수로라도 너네 게임에 발 안 들이게.
2755	넥슨은 게임 업계를 주도하는 대기업으로서 이게 정말 맞는 행보인가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손가락에서 그런 혐의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의도하지 않은 일을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생계를 잃은 직원은 무슨 죄인가요? 얼토당토 않는 일에 주말 새벽부터 끌려와서 일해야하는 직원들은요? 이게 넥슨이 원하는 한국 게임 업계인가요? 세계의 난다긴다하는 게임회사들이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올바름을 고민할 때 왜 한국 게임 업계만 거꾸로 가는지 의문입니다. 속상하고 부끄러워요.
2756	악의적 편집에 희롱당하는 것은 그네들이 걱정하던 "순수한 유저 일동"이 아닌 당신입니다. 한편의 이야기만 흘러나오는 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닌 묵살당하는 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 운영에 공정을 기하십쇼. 그것이 정도입니다.
2757	억지로 혐오 밈을 만들어서 특정인을 사이버불링하는 사태에 동의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275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춰주세요.
2759	군대도 제대로 경험 안하고 못해서 그런가 애새끼들 되도 안한 찡찡이 너무 심함.
2760	혐오를 기업이 주체해서 확산하는 이 사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십시오.
2761	억지 남성혐오 논란에 사과하기 전에 게임 내의 소수자 혐오발언들이나 관리하시길
2762	나라안의 인셀들 비위를 맞추지말고 세계의 흐름을 보시길바랍니다
2763	억지논란으로 발생한 악성민원에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하지 않는 넥슨 규탄한다

2764	해당 성별의 혐오 사례는 애초부터 '투명복싱'이었습니다. 메갈리안의 아이콘이 집게손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과거 한 기업의 마케팅 홍보물에 대해 메갈이라는 억지를 부려 한차례 사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당 혐오집단들은 제작물 담당자가 남성혐오의 의도를 담은 표식이 아니었음에도 투명 대상을 만들어 사냥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에 대응하고 사과문을 올린 기업을 시발점으로 그들은 해당 혐오 행동이 타당하다 믿고 있습니다. 이번 넥슨 사태만 봐도 정말 짧은, 영상으로 봐선 캐치도 하기 힘든 연속동작 중 한 장면이었음에도 그 프레임 하나로 있지도 않은 투명 메갈을 만들어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제작물에 남성을 혐오하는 의미가 담겼는지, 담기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의 온라인상 영향력을 한번 맛보았고, 그를 다시 느끼기 위해 그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에 넥슨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말도 안되는 혐오집단의 어리광을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765	들어야 할 말과 들을 필요없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2766	억지를 왜 받아주는지 이해안감 넥슨은 양성평등 혐오함?
2767	누가 봐도 억지인 상황에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겠다는 입장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딱 잘라낼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대응의 문제가 가장 크다 봅니다. 어떻게 그 0.1 초짜리 동작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네요.
2768	집게손 억지논란으로 누군가의 생계를 끊는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2769	맹자가 말하길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다 지금은 21 세기이고요. 지성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2770	혐오로 유린되는 메이플이 되지 않도록 막겠단다. 메이플은 이미 혐오로 넘쳐나는데 그걸 여태 방치하더니 스탠스 참 우습다. 초등학교부터 해왔던 메이플스토리에 여자모험가인 내 자리는 하나도 없었나 보다.
2771	고작 손모양가지고 휘둘리는 꼴 보니 회사 앞길이 심히 걱정이 되는 바이다
2772	이게 정말 멀쩡한 사태인지 생각해보거라..
2773	당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2774	언제까지 수준 낮은 인간들의 의미 없는 혐오에 발 맞추실 겁니까? 게임업계는 자존심, 자긍심도 없으십니까?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세요.
2775	억지논란에 그렇게 쉽게 납득하고 굴복하는 모습이 무식하고 비겁해 보이네요
2776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 멈춰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데 안달난 사람들의 일방적 떼쓰기를 왜 자꾸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2777	별 말 같지도않은,,, 그럼 게임 캐릭터에 엄지 검지 손가락을 안 만드실건지 궁금하네요
2778	내 메이플 돌려내라 정신나간인간들아

2779	말도 안되는 억지 트집인 걸 알면서도 일부 악성유저들이 떼쓰는걸 하나하나 어르고 달래주는 모습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손동작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라며 자르라고 헛소리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는 연기나 뿔 그림자, 기타 등등 손동작도 아닌 걸 같은 모양이라며 페미 아니냐고 우기고 있더군요. 그것들도 전부 다 수정하실건가요? 그래봤자 그들에겐 이미 당신들의 게임은 >페미 겜<이고 >반응이 재미있는 놀잇감<일 뿐입니다. 어디 한번 지옥까지 잘 안고 가보세요.
2780	이 일로인해 한국게임들은 여자들을 버렸다는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고 다시는 한국게임 명함도 못내밀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합니다 ^^
2781	테러리스트도 못되는 인셀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2782	유달리 게임업계에서 이런 일이 잦은건 다 같은 생각인거겠죠??^^
2783	일부 유저의 특정 커뮤니티상의 억지성 추측발언 에 휘둘려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하청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여성 창작자를 향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행위에 기업이 가담하여 생계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2784	페미니즘을 '문제' 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문제' 입니다. 당신들의 사고 수준이 전세계 통틀어 얼마나 뒤떨어진 상태인지 언제쯤 자각할런지요. 그것 참 '문제' 이군요.
2785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2786	여성들의 페미니즘 활동을 검열하고 신상을 털어 생계를 끊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게임업계는 반성하고 여성 캐릭터에게 성적대상화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787	억지도 정도껏하세요
2788	그러다 망한다
2789	페미니즘 규탄을 멈추세요.
2790	게임이나 좀 세계적 수준으로 재미있게 잘 만들어봐라 제발 좀 게임을 잘 만들라니까 개쓰잘데기 없는 짓으로 직원 낭비를 하네 이러면 주주들이 주식 사겠냐고 내 돈으로 시간낭비 뻘짓하네 하겠지
2791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고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792	진상민원수용한다는건 내부에도 진상이 있다는 뜻이다
2793	고작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수준이라면 무시하고 지나가는게 기업에 더 이득이었을텐데 굳이 논란으로 키워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제대로 된 해결도 요원해지며 피해자만 양산한 까닭이 무엇인지요? 대응해봐야 어차피 저들은 생떼만 부릴텐데요. 왜 '병먹금'이 안됩니까?
2794	근거 없는 혐오자들의 논리로 자행되는 명백한 성차별을 금지하라
2795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다 받아주지 말고 상식 선에서 결정하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796	멍청한 짓 그만하고 내부에 있는 혐오 동조자나 징계하세요
2797	대기업급인 넥슨이 이렇게 경솔하게 대처할 줄 몰랐습니다.
2798	반페미니즘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일부를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2799	23 년에 대단들하시네요 남초업계답습니다 아주
2800	끌려다니지말고 제발 소신껏 행동하세요 뭔 대기업이 휘둘리고 앉었냐

2801	선택적 사상검증과 노동법 위반을 규탄합니다. 본인들의 작음을 이런식으로 증명하지 마세요. 우린 당신들의 아담함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2802	남성 유저들 눈치를 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차근히 생각해 봐라
2803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겁게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일부 혐오 사상과 분쟁을 조장하는 유저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건전하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특정 성별, 집단만이 과금하는건 아닙니다. 게임에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주세요
2804	무분별한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2805	일부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고개를 숙이고 자사 및 타사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2806	억지논란 속 페니미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2807	여자 길들이기 짓좀 그만하세요 역겨워요
2808	페미니즘과 여성혐오몰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809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사과문을 올리셨겠지만 더는 이상한 논리를 위해 사과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유저들이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2810	이렇게 창조논란에 하나하나 반응해주면 도대체 뭐가 남나 묻고 싶네요
2811	억지 논란으로 여성 노동자의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 멈춰주세요
2812	자연스러운 손동작 하나에도 혐오표현이라 과대해석하여 근로자의 사상이 불순하다고 검증하는 짓을 조속히 중단하십시오
2813	일부 소수 특정 성향의 말만 듣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대처는 대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814	우리나라 게임판 정말 환멸 나네요.
2815	이번에는 '손 모양' 을 혐오 표현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만, 다음에 그들이 어떤 걸 가져와도 인정하실 건가요? 그냥 서 있는 모습조차 남성 혐오라고 한다면 다 수정하시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극단적인 테러범들의 생떼를 듣기보다는 더 많은 이용자의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2816	참담한 심정입니다.
2817	여성 차별 철폐하고 남성 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말 얹어주지 마십시오
2818	남성들의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세요
2819	억지 논란을 제재하지 못할 망정 증폭시키며 여성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 전체를 규탄한다
2820	진정 누구나 즐기는 게임이 되길 원한다면 넓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821	진짜 혐오를 조장하는 인셀들 대응을 똑바로 하라고 전해주세요
2822	애초에 논란거리가 아닌 걸 논란거리로 만든 걸 사과하세요 ㅋㅋ
2823	블랙 컨슈머조차 되지 못하는 진상 인셀들의 공격을 전부 받아주며 페미니즘을 탄압하는 짓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2824	억지를 받아주면 잘못이 아닌일도 잘못으로 판단한다. 사과를 철회하라
2825	애니메이션 동화 과정에서 다음 포즈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한 장면, 찰나에 불과한 것에 이리 과민 반응을 하며 유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페미니즘을 안 좋은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반응응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826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다는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만들고 있고 혐오를 부추기는 사태를 만들고있네요. 규탄합니다.
2827	인셀남들 막무가내 말도안되는 요구 수용이 인셀남들의 비대한 자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2828	사실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유저들의 마녀사냥식 주장을 즉각 수용 및 대응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힘을 실어주는 넥슨과 게임계의 수준과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을 파악하고자 하는 합당한 절차와 일말의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차후 어떠한 식으로든 악용될 수 있는 선례와 악습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 부디 자각하고 국내 게임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 보다 큰 책임감과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합니다.
2829	집게손 억지논란에 말도안되는 대응을 하고있는 넥슨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더이상 이런 억지논란으로 피해를 보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2830	의미 없는 인체 구조에 대해 남성 혐오라고 주장하는 과격분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게임 업계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여자 캐릭터를 성상품화한 건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2831	창피한줄 알아라
2832	아무것도 아닌 그림 한장에 이렇게 들썩이고 일어날 수 있는 현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네요. 이보다 심각한 성편력적인 사태에도 외면했던 업계가 달랑 그림한장, 손동작 하나에 이런 행동을 취하시다니. 마음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833	차라리 정말 일부 유저들의 주장대로 어둠의 페미니스트 집단이 있고, 정말로 일부 유저를 그저 "조롱"하기 위해 해당 손가락을 숨겨두었다가 들킨 거라면 좋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겠죠. 이 모든 게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일부 유저들의 여성 업계인 찍어죽이기 놀이에 회사 단위로 동조하지 말고, 제발 상식있는 사회인이자 지성인으로서, 제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벗어나 현실적인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834	반대 성별이었어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2835	왜 저런 말도안되는 억지 떼쓰기를 자꾸 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836	국가적 망신 사건입니다. 게임업계 대체 어디까지 도태되려고 합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2837	일부 혐오세력의 억지 주장에 납작 엎드린 대기업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838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끌려 다니실건지. 상황을 똑바로 보고 입장을 명확히 하세요.

2839	진짜 멍청하고 한심해서 말이안나오네요
2840	사상검증하겠답시고 대기업이 하청업체 갑질+부당해고까지 간 사태입니다. 노동법 위반까지 갈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개인이 sns 적은 사적인 글로 대기업이 나서서 사과까지 하게 만든 이 사태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2841	처음 보고 들어보는 집게손 논란이었고, 일부 유저들 행태에 상식밖의 조치를 취한 넥슨의 행동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2842	에휴... 뭘 어디부터 말을 해야 할 지 감도 안잡히네요... 자기 직원 보호는커녕 좀만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억지에 믿을 만한 거래처도 쳐내고 유저들도 쳐내고 편승해서 기사감도 되고... 넥슨은 국내최대 게임사라는 자각이 없습니까... 림버스컴퍼니 건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었나요?... 이런 말도안되는 억지는 그냥 게임과 관련없는 내용에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든가 아님 아예 반응을 보이질 말든가... 8 살때부터 20 년을 넥슨게임 했는데 실망스럽고요... 12 살 사촌동생이 메이플스토리 하고 싶댔는데 만류하고 다른 게임 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2843	큰 회사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사안에 응해주세요
2844	후진것들
2845	개인의 사상이 문제라면 회사의 특정 사상도 개입하지 마십시오.
2846	더이상 억지논란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2847	쓸데없는 사과는 그만두고 성인지 감수성이나 키워라
2848	일부 남성 유저의 억지에 동의하신다면 전세계 각국언어로 공지해주십시오.
2849	페미니즘을 감춰야할 사상으로 생각하는 인셀들이나 하는 게임으로 세계 만방에 이름을 이름을 떨치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해온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K 컬쳐의 대유행 속에 게임 업계만이 역행하여 홀로 오명을 뒤집어 쓰실 게 아니라면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여성 종사자들을 보호에 나서세요.
2850	이런 억지 논란에 휘둘리는 모습이란.. 진짜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십시오.
2851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혐오라 단정 지은 판단이 궁금합니다.
2852	게임은 모두가 즐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곳에서 혐오몰이가 말이 되는가 또한, 페미니즘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더이상 과거 우물에 갇혀있을 때가 아닌 넓은 세상으로 세계를 보세요. 현재 게임 업계 전부다 우물 그 이하를 세계의 전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말은 변명도 안됩니다. 여러분은 과거 클로저스 때도 이미 한번 겪었는데 몰랐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걸 누구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다들 추억으로 눈을 감아 줬을 뿐. 감아주는 것도 한번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을 일으킨다고?? 제발 세상을 보세요. 일부의 유저 말이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좀 찾아보고 무시할 것만 무시하고 본인들의 운영을 이런식으로 묻어가지 마세요. 쓰다보니 너무 감정이 격해졌네요. 감사합니다. 부디 더 나은 업계가 되길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 중 한명 이였습니다.
2853	맨 처음 이런 사태를 만든 곳 아니랄까봐 참 애쓰십니다. 벌써 몇년이나 지났는데 넥슨도 게임업계도 발전은 커녕 점점 후퇴하네요.

2854	진짜 이것이 진정한 남녀 갈라치기다.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혐오를 만드는 것인데 언제까지 혐오에 동조 할 것인가!!!
2855	더이상 단순한 유희로 여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유저들이 사상검열을 요구하거든 사원을 먼저 보호하고 노동법을 지켜라.
2856	쓸데없는 논란 만들어서 싸움나게 하지 마십시요
2857	여성혐오 그만하고 노동자 보호하라
285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2859	일부 남성의 억지 주장에 사상검증&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잊지마세요.
2860	차별 없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분이 차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861	이런식의 운영이면 게임뿐만아니라 여성노동인권은 하락될 것 입니다
2862	여성 유저 등한시하는 태도는 여성 유저만 떠나가게 할 뿐입니다
2863	☒☒한남☒ 데리고 잘 사세요☒
2864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된 그 게임의 유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어왔음애도 저는 그 게임을 취미로 삼은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 살아왔는데 이번 일로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0.1 초로 지나가는 손동작을 프레임단위로 검열하는 것도 비상식적인데 그러한 항의를 받아들여 사과를 하고 심지어 일요일에 황급히 해명방송까지 한다는게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2865	타인을 향해 가해지는 혐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2866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유저 반을 잃을것입니다.
2867	저는 그저 유저 입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편하게 플레이 하는 유저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애정도와 퀄리티에 관련된 피드백은 외면하고 논란에 관한 피드백만 빠른 시간에 내놓으며, 그 결과가 몇년간 좋은 피드백을 받아온 함께해온 협력 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는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게임입니까?
2868	보편적 정의추구나 기업윤리에 대한 고민까진 바라지도않습니다. ESG 가 요구되는 시대에 극히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글로벌표준에 맞추려는 눈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2869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인터넷 인셀 블랙컨슈머들의 피해망상적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 짓은 그만 두어라.
2870	본인들도 억지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자꾸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871	최근 몇 년사이 "남초" 사이트에서 부터 시작된 "페미사냥"은 집게 손가락이라는 너무나도 일상적이며 누구나 사용하는 행위를 남혐사상과 관련된 비하적 표현이자 "페미"라고 주장하며 축출되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사상으로 미디어업계를 위협해왔고 대한민국의 미디어업계는 그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협박에 동의하며 특정 개인을 향한 단체의 압박 및 협박, 개인정보의 무단 취식 및 유포, 고용 및 업무 행위에 제 삼자의 개입을 허용해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 무대에서의 활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이러한 테러리스트와의 협조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국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어의 장벽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은 언어의 장벽없이 소통이 가능하고 원한다면 인터넷의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는 21 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오염된 쓰레기장을 종이로 덮어놓아 깨끗하다 칭하는 행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업계가 한층 더 나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과의 협상이 아닌 무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동료를 버리고 적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닌 망상자들의 헛소리를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 만을 쫓아 더 큰 이익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싶습니다.
2872	어쩌다 수컷으로 태어난 것 밖에 없는 애들의 바보짓에 기업이 놀아나는 꼬락서니가 매우 불쾌합니다.
2873	컨텐츠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삼아 창작자 개인을 사찰하고 괴롭히며 사상을 검열하고 그로 빌미암아 탄압하는 사용자 집단의 움직임과, 이에 동조하거나 또는 부추기는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의 불순함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2874	말도 안 되는 억지에는 답해주지 말고 무시해주세요. 넥슨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응해줄정도로 피드백이 빠른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많은 이들을 휘말리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없어보여요.
2875	이딴 억지논란에 편들어줘서 다신 이용 안합니다
2876	혐오는 게임이 아니다. 재미로 누군가를 혐오할 수는 없다. 혐오하는 것이 쉽다고 행해져서는 안 된다. 여성들은 몬스터가 아니다.
2877	예전부터 재밌게 해온 게임이라 그런가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2878	여성 유저 배제 말아라
2879	사상검증좀 그만해라 좀 진짜; 사상검증 할거면 페미니즘만 잡지 말고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트 유저들도 좀 잡아;;;
2880	고작 손가락으로 사상 검증을 하고 직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려고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더욱이 페미니스트는 잘못이 아닙니다.
2881	억지논란에 굴복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와 여성혐오적 마녀사냥을 수용하는 넥슨을 규탄합니다
2882	사회와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길..
2883	담당 업체는 여성혐오를 당장 멈추고 공개 사과와 재발 대책 마련하라!!
2884	억지 논란 이제 그만해주세요

2885	남성 유저들이 억지로 논란을 일으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게임업계는 오냐오냐 받아줍니다. 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세는 것도 지칠 지경입니다. 혐오를 그렇게나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분들이 왜이렇게 나서서 여성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계신가요? 페미니즘이 뭔지 공부조차 하지 않고 알아서 설설 기는 모습 참으로 역겹습니다.
2886	기업부터 게임계 문화를 바로잡아주세요. 언제까지 헛소리에 응해주실 생각이신지요.
2887	억지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제발 애먼사람 자르지 말기를
2888	일부 극렬 여성혐오자들이 행하는 수준이하의 무논리 요구에 굴복하여 여성인권과 노동자인권을 동시에 탄압한 넥슨의 행태에 분노를 표합니다. 한국 게임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에 반대합니다.
2889	세상을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2890	게임이라는 매체를 시대 퇴행의 아이콘으로 만들 것인지, 사람의 엔터테인먼트로 남길 것인지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는 그대들의 무조건적인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업체와 회원 내 혐오자 즉각 퇴출/해당자 전체 명단 공개만이 가져다줄 것입니다.
2891	실체없는 거짓 주장에 영합하여 여성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2892	찌질해요 먹금도 못하는 회사에 돈 안써요
2893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모르지않으면서 가벼이 한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행태를 21 세기에 실행하다니 놀랍습니다. 같은 노동자로써 노동권리는 지켜주세요.
2894	일부유저의 말도안되는 생때로 억지논란을 만드는건 넥슨코리아 본인들이십니다
2895	언제까지 유저라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되고 쓸모도 없는 비용과 시간을 감내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굴레의 반복은 기존 정상유저들의 탈퇴를 비롯한 넥슨의 손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2896	문화산업이란 그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윤리적 책임감 위에서 그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게임업계가 문화산업일 자격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2897	특정 극우 남성 커뮤니티의 말을 떠받들며 임의적인 손가락 모양 하나하나에 우왕좌왕하다 죄없는 여성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성차별이자 여성혐오고, 세계적 웃음거리다.
2898	정신 좀 차려라..
2899	지표상 여성유저의 데이터도 무시할수 없는 수치일것입니다. 유저가 아닌 성별 갈라치기로 게임내에서 의견을 차등수립하고 여론조성 및 동조하는 넥슨도 특정 커뮤니티를 하는 집단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뜻인가요? 강원기를 포함한 이번 디렉터의 대응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ㅋ 말도안되는 억지 논란을 수면위로 끌여올려서 주요여론화 시킨 넥슨은 본인들이 스스로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를 조장하는 회사라는것을 증명하는 꼴이네요. 사회적으로 넥슨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 수고하세요
2900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춰라

2901	넥슨 및 게임업계는 억지 논란에 반응하고 수긍하는 피드백을 하여 여성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게임업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2902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떼쓰기 논란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무식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인답게 행동해주세요
2903	약자에게 혐오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오히려 혐오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세요
2904	진정으로 혐오를 일삼는 집단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게 먼 훗날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습니다.
2905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2906	정말 대단한 판단입니다. 번거로운 게임 운영은 철저히 침묵하다가 남성혐오 문제에는 발 벗고 나서서 남 탓, 공지 몇줄, 직원들 새벽근무 한번씩으로 해결과 동시에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동안 게임 운영에 손을 놓고 BM 에만 집중해도 당장의 유저들은 좋다 멋지다며 게임을 치켜세우고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남성혐오 논란은 애초에 혐오도 논란도 아니라 치기어린 어린아이의 떼쓰기에 불과한 악성민원 및 갑질이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문제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게 당연하거늘 이미 고이다 못해 썩어가는 물을 생명수 취급하지 마세요. 게이머는 남초 인셀 커뮤니티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모든 게임사가 원하는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남초 인셀만 감싸고 도는 게임이 아닙니다. 남자만 게이머인 이미 지나간지 오래입니다. 한순간의 장난으로 남성혐오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평생 고통받을 사람도 게이머입니다. 무지성적이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게임사를 위한 결정인지 계산할 줄 아는 게임사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2907	그저 '심심한데 꺼리없냐'로 시작하는 클레임을 무시하지 않아, 이젠 영상 속 움직임 표현을 위해 지나가는 1 프레임에 손하트까지 걸고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인권까지 가지 않아도 이상합니다. 교체비용이 푼돈이라 이러는건가요? 그래서 게임과 관계없는 클레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업하는건가요? 여성혐오 불매운동은 있지만 페미손가락 불매운동은 없습니다. 인셀들은 무관심으로 대응한 외국게임들을 '그렇지만 재밌으니까' 계속합니다. '솔직히 억지였잖아'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셀들의 요구에 응한 기업이라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 고객이라면 노동을 하고 있기에 응당 노동자에 이입하게 됩니다. 억지를 이유로 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분노하고 작업물을 내린다는 말에 기함합니다. 기업이면 기업답게 돈을 쫓는 시늉이라도 하십시오. 만약 귀사가 페미니즘은 불온사상이고 '페미'는 폭동이라는 입장이라면 회원가입 단계에서 크게 고지하여 '페미'일 수 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던전앤파이터에서 특정 유저를 효시한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상기 행위로 심심한 인셀들의 억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할 방법은 인셀들의 억지에 대한 업계 차원의 무관심 뿐입니다. 그만 좀 놀아주고 게임이나 제대로 만드십시오.

2908	왜 그동안 유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여성혐오에 대해선 조용히 계셨나요? 왜 정확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여성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나요? 그게 정말 남성을 혐오하는 동작인가요? 업계 내의 관례로 굳어질 수도 있는 일을 왜 감정적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2909	앞으로 평생 엄지랑 검지 구부려서 물건 잡지 마셈
2910	대처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 검증이라고 합리화하며 여성 직원을 저격하여 해고하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 및 부당해고이며 클로저스 사태와 같이 계속 이러한 사태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저 고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갑질에 응하고 사과하는 방식, 그 대처로 마녀사냥을 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엔 지금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2911	억지논란에 일일히 굽혀줘서 비합리적인 선례를 만드는 짓은 멈추세요
2912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대응하십시오.
2913	억지 논란 동조하고 소규모 하청업체를 억압하는 행태가 부끄럽지도 않나? 구글도 유튜브도 전세계 어디서도 사용되는 손가락 모양인데 무은 전수조사를 하고 할일이 그렇게 없나? 무신사 대처를 보고 배우세요. 먹금하고 같은 분기 최고매출 찍었습니다.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914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물고 늘어지는 마녀사냥을 언제까지 받아 주고 이끌어갈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사상 검증을 통해 다른 혐오를 내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2915	누군가의 삶을 타인의 기분을 이유로 좌지우지하려 들지 마십시오. 악성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제물로 부하직원 및 하청업체를 마녀사냥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성평등을 지지하고 성차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커리어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2916	평소에는 유저들의 목소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런 때에만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는답시고 마녀사냥이나 하는 당신들의 행보가 게임산업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2917	들어줄 가치도 없는 진상들의 갑질을 들어주는 일을 제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말 당당하다면 해외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지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규탄을 받고 수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2918	할 일 없이 집에서 키보드나 두드릴 줄 아는 일부의 말에 휘둘려 실제로 돈을 쓰고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다수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거북한 건 게임 내 패드립과 욕설,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되는 불법 성인사이트 광고 같은 거지 홍보영상의 손가락 모양이 아닙니다.
2919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라
2920	혐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오히려 누구보다 혐오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 우습네요. 이것이 한국 게임업계의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국내 게임을 플레이할 의향이 없습니다.
2921	실체도 없는 혐오로 오히려 여성을 겁박하는 행태는 멈춰야합니다
2922	악질 커뮤니티에 편승해 노동자 생계끊기 주도하는 넥슨 규탄한다!
2923	일부 인터넷 혐오종자들로 인해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노동자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한 기업이 개인을 향해 쏟아낸 폭력을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2924	이렇게 하실꺼면 그냥 망하세요

2925	게임업계의 도태된 사상검증은 한 업계의 폐단이 아닌 사회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사회악을 키우고 있어요 제발 정신차려주세요
2926	정신차리십시오
2927	인셀양산 그만좀.
2928	너무 화가 납니다.
2929	일부 유저들의 비상식적인 억지논란에 조직원에 대한 사상검증과 징계조치로 대응하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성을 규탄합니다.
2930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맹목적인 타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세요. 이러한 혐오는 적극적으로 반대되어야하며 그런 문화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2931	여성성적대상화 및 여성혐오성 컨텐츠는 끝까지 모르쇠하던 기업이 잠깐 지나가는 손제스쳐는 기가막히게 검열하시네요^^ 검열할거면 여혐도 같이 해주셔야죠~! 쪽팔린줄아세요
2932	여성유저를 지우지마세요
2933	지들이 작은걸 어쩌라고 왤케 화난건지 모르겠어요
2934	정신차리고 똑바로 일하세요
2935	페미니즘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지지하는 좋아요 버튼 한번. 개인의 sns 사상검증하며 여성혐오를 자행하는 넥슨을 규탄한다
2936	넥슨은 원래 그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꿔라.
2937	넥슨은 악성 민원인의 거짓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력업체 및 다수의 사용자들을 보호한다는 기업의 당연한 의무를 행하기는커녕,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둥 반사회적인 의견에 오히려 동조하여 협력업체에 갑질 및 다수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을 저질렀다. 넥슨은 무고한 개인을 향한 사이버 불링 및 부당징계에 가담한 사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938	논란을 창조하네 정신이 나가버렸네 세계적인 망신이다... 그걸 들어주는 넥슨 및 게임업계도 제정신 아님... 진짜 별 ㅠ 에휴
2939	억지 남성혐오 논란을 불러 일으켜도 그게 옳은 양 행동할 수 있게 한 책임은 대기업에게도 있다. 반성해라. 일부 그릇된 신념을 가진 한국남성의 자아비대는 우리 사회탓이다.
2940	억지논란을 멈추고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2941	백래시를 멈춰라
2942	넥슨이 뿌린 씨앗 넥슨이 거두세요
2943	언제까지 쓸데없는 손가락 모션 하나 프레임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난리치는 저 생떼를 들어줄것인가?
2944	말도 안되는 논란에 신경쓸 시간 있으면 게임이나 제대로 만드는데 더 집중하세요.
2945	사실 게임이야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한국만 게임 만드나요.
2946	게임업체는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하라
2947	남성혐오 운운하기이전에 약자혐오 부터 막아주세요.

2948	일부 커뮤니티에서 사실 손 모양이 의도됐든 아니든 꼴페미든 아니든 상관없음 그냥 페미들, 여자들 부들부들하고 화나는 게 재밌는 거다, 솔직히 논란은 상관없고 커뮤니티에 관련 글 많이올라오고 다같이 불타는게 재밌다 등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렇게 게임에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불지르고 다니는, 사이버 불링을 즐기는 이들의 말만 듣지 말고 노동자를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2949	사상검증 스탑
2950	ESG 실천을 잊은 기업에게 미래란 없다.
2951	마녀사냥을 하려는 일부 남성들의 말만 듣고 사과문이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의 사상검증과 여성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멈춰라
2952	그 성별 소비층이 주소비층인지 생각은 하고 사십니까? 돈없는 백수라 과금도 못하고 그저 열등감에 찌든 방구석 인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다보면 그냥 망합니다 원신같은 중국 게임이 상위권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돈이 안되고 목소리만 큰 저런 일부 유저보다는 자신들의 게임을 사랑하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층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집중합니다 바로 개발자랍시고 게임도 못 만드는 주제에 그 자리에 있는 인셀이 당신들이라서 거기 동조를 하는겁니까? 그냥 차라리 망하세요 요새 매출도 안 나오던데
2953	그렇게 인셀남들 막무가내식 요구 들어주고있는게 얼마나 멍청한짓인지 깨닫길바란다
2954	직원보호 좀 해
2955	일부 몰지식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선택이 회사차원에서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음에도 그런 결정을 내린것은 내부에 몰지식함을 두둔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세요. 그러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것입니다.
2956	여성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제치고 보아도 이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입니다. 사람의 가장 이완되거나 대표적인 손동작을 가지고 사람을 해고하거나 하는게 말이 되나요? 넥슨은 밑도 끝도 없는 악성 민원인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동자와 실제 플레이어의 인권에 귀담아주시기 바랍니다.
2957	현재로서는 업계에서 여성 노동자가 악성 소비자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란 기대를 완전히 잃었으며 만약에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부디 묵묵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2958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손동작 모션에 남성혐오가 들어간 사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면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와 업계인을 생계위협을 주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2959	돈에 굴복하여 없는 진실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2960	업계의 현재를 가꾸고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물려줘야 할 우리 세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2961	말도안되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말고 여성혐오적인 캐릭터 삽화 그리는 남자들이나 제재하세요.
2962	어이없는 손가락 논란에 동참하는 넥슨 제발 각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도 않는 남성 혐오증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여성 혐오증 노인 혐오증 아동 혐오증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돈도 안 되는 하찮은 남자들 말 그만 들어주면 좋겠네요.

2963	원본 속도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캡쳐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게임 업계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2964	개인을 향한 불합리한 사상 검증과 손 모양에 관한 억지 주장 순응 멈춰 주십시오.
2965	게임은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이 되어야합니다. 악질적인 사이트의 말만 믿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2966	창조논란 지겹습니다 애초에 페미는 남혐이 아닐뿐더러 페미를 걸러내고 싶다는 핑계로 여초에서 유행하는 모든 것을 '페미'라는 이름으로 재창조하여 검열하고 하다못해 이제는 여초에서도 처음 보는 것들을 가져와 논란이라고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지겹습니다
2967	게임 업계 충성 고객은 남자 유저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 유저들을 챙기지 않으면서 어떤 유입을 바라는 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는 일에 구태여 장작을 지핀 넥슨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2968	넥슨 및 넥슨과 뜻을 함께한 게임 회사, 업계 사람들은 저지른 만큼의 피해를 돌려받길 바랍니다.
2969	게임업계는 헌법 제 32 조 4 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 조에 위배되는 여성차별을 멈춰라!
2970	계속 이런식으로 어물쩍 사과해주고 넘어가면 앞으로 회사가 어떤 피해를 보고 업계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거시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이젠 캐릭터가 손하트 하려면 프레임 튀어야 하나요? 이런걸로 자기 영향력 확인하려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자기들도 내심 이게 말이 안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게임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주세요.
2971	말도 안되는 의견에 동조하며 몰아가고 특정 집단을 맹목적으로 공격하고 혐오하는건 도대체 누구일까요?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현재 많은 남성들은 역으로 혐오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성 유저 대다수가 넥슨 게임사에 매우 실망하여 자체적으로 불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데 더욱 동조하고, 외주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대기업에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972	내가 이딴 게임에 내 3 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것이 아깝다.
2973	현재 한국 게임업계를 보면 2023 년인게 믿기지 않습니다. 억지 논란을 만들어 페미니스트를 범죄자 취급하는 기업의 횡포를 멈춰주십시오.
2974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
2975	혐오세력의 징징거림에 휘둘려주지마라
2976	인셀들의 말에 휘둘려 억지논리로 여성 일자리를 빼앗는 넥슨. 정신차리세요
2977	게임이나 대기업이나 여성 혐오가 뿌리 잡은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앞서 만들어진 사회 분위기 탓도 있지만 무분별한 수용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본인의 가족 일이어도 아니 정말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떨지 직접적으로 역지사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똑같은 입장에 서서 이유 없는 비판 아닌 비난을 받고 생계가 끊기고 당장 어디에 일어설 수도 없는, 말해도 들어 주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978	남성 소비자의 억지 몰이로 인한 여성 소비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979	사상검증이란 해괴한 악습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2980	악성 진상 민원인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사안이 거꾸로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회사라니 전세계인의 웃음거리입니다
2981	정신차리길
2982	이런 하등 쓸모없고 근거없는 주장에 업체가 동조를 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회사 자체가 좀 하찮아 보입니다.
2983	도대체뭘지키겠다고 이 사단을 만든거냐...지켜낸게 하나도없는데
2984	일부 남성들의 피해망상을 그만 들어주세요.
2985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게 정말 통탄할 따름입니다. 넥슨 및 게임 업계는 일부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고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속히 멈추세요.
2986	옆동네 호요버스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갑니다~~ 에궁~
2987	피해망상에 찌든 악성 커뮤니티의 부당한 요구는 테러행위이며 기업은 기업답게 노동법을 준수하여 상식적인 대응을 숙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2988	게임업계 문화 악습을 철폐하길 바랍니다.
2989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의 시초인 넥슨 반성하세요
2990	게임업계는 정신차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억지 논란에 휩쓸려 죄없는 노동자를 언제까지 유린하려하는가!!
2991	집게손이 뭐가 문제죠? 꽃게를 사살하라
2992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 회사 사원을 지켜줄 생각은 않고. 이상한 손 모양새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직원을 대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993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억지스러운 행동들을 받아주면서 사과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내 쫓을 것 인가요.
2994	귀사가 파악한 페미니즘이 어떤 의미인지 사측이 정확하게 설명할 것.
2995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2996	설사 해당 애니메이터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해선 게임 업계의 인식 수준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한국 남성더러 생식기 작다고 조롱하는 손동작을 뺐으니 경영 잘 되겠지요?'라고. 차라리 헐벗은 여성 캐릭터를 캐릭터 설정에 맞는 복장으로 노출을 줄여서 입혔다고 하는 게 더 칭찬 받을 것이다. 한국 게임 업계는 스스로 자정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에 관한 인식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겨우 그 집게 손, 그것도 애니메이션 동화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웠다고? 일일이 손가락 동작을 수정할 바에, 차라리 손을 도라에몽으로 만들어라. 난 다신 한국에서, 한국 남성이 주축으로 만든 게임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
2997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피해망상을 다 받아주지 마라
2998	방구석인셀들의 황당한 주장을 받아주지도 맙시다. 이러니까 글로벌은 무슨. 망하는겁니다.

2999	글로벌 시장 속 난다긴다 하는 게임사들은 이미 2020 년 이전에 해결한 일들입니다. 트랜드에 민감해야할 업계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00	그 동안의 논란들로 직업을 잃어버린 여성들과 연대합니다
3001	여자도 게임 좀 하자
3002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 하셔야합니다,,^^
3003	뻘짓좀 그만해
3004	게임업계는 무차별 여성혐오를 멈춰라
3005	정신차리세요
3006	억지논란 떼쓰는 사람들 말 듣지말고 작업자들 노동자들 보호해주세요
3007	춤추는 장면을 나노단위로 캡쳐해서 억지로 논란 만들기 제정신이 아니네요
3008	말도 안되는 의견에 휩쓸려서 휘둘리는 모습에 신뢰감만 하락입니다. 정상 남성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3009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여혐하는 행위를 놀이로 또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짐으로서 사회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넥슨 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업체 중 하나로서 이러한 악독한 행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3010	앞으로 닭다리는 어찌드실려고
3011	이런 게 업계의 평균이고 게임 문화라면 이 나라 게임 업계는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보편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업계가 되길 기원합니다.
3012	막무가네 혐오몰이에 동조하고 들어주지 말라
3013	게임은 남성들만 하는게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언제까지 들어 줄건지 궁금합니다.
3014	작작좀 해라
3015	논란이 아닌 것을 논란이라며 우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뭐때문에? 여자는 게임 안 하나요?
3016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가 회사입니까? 아무리 이번엔 외주사라고는 하지만 말도 안되는 악성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직원을 내치는게 말이 되나요?
3017	대체 페미니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3018	운영측이 특정 소비층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기형적인 업계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운영책임자들이 '여성들이 사상을 속이고 남성 돈 빼먹는다' 는 공격을 방조한 채 오히려 여성들을 업신여기면서 돈을 빼먹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인이자 소비자로서 게임업계의 투명인간이자 잠재적 샌드백 취급을 받으며 종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3019	여성혐으를 계속한다면 국산게임 전체 불매로 대응하겠습니다.
3020	언제까지 특정 집단 징징을 들어줄껀가요 이젠 듣지말고 진짜 공평하게 진행해주세요 여성들도 게임하고 현질하고 다 한다구요 남성들만의 취미가 아니니까 편견 좀 깨주세요 제발
3021	정신차려라

3022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글로벌 업계의 전반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차별의식을 타파하고, 친여성적, 범인종적 등 다양성 지향을 당연한 가치로 삼는다. 하버드, MIT, 예일, UCLA 같은 명문 대학에서도 당연하게 내세우는 가치이며, Admission 에서도 당연히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제시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넥슨 및 한국의 전반적 게임 업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도태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대표성을 쥐어주고 그것을 오히려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한국 게임 업계가 죽어가는 이유가 있다. 게임성이든, 내세우는 가치건, 기술력이건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뭔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3023	악성 유저의 민원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업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요 이 검열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즐거운 게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멈춰주세요.
3024	정말 기가찰 따름입니다. 그동안 메벤에서 수없이 올라오던 여성,장애인 및 약자 혐오 게시글들은 한번도 피드백한 적 없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손가락 억지 몰이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네요. 도대체 페미니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페미니즘은 남혐이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모두 성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여야 합니다. 안티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들의 고추가 크던 작건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진지하게 여성들이 저 손가락모양을 0.1 초 나노단위로 몰래 사용하는것이 여성인권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여성들은 손가락따위에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단지 머리가 짧다고 무자비하게 당한 폭행, 매일같이 기사화되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페미사상검증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당하는 부당한 해고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당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에 바쁩니다. 문제를 제기한 메벤을 비롯한 남성유저들은 이 애니메이터가 진짜 페미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우리)의 키보드질로 한 여성의 실제 밥줄을 자를 수 있다는 우월감과 효능감에 젖어 마치 하나의 놀이처럼 이 상황을 즐기는것입니다. 이는 현대판 마녀사냥 그 자체입니다. 애니메이터가 페미니스트인것은 그가 직업을 잃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을 넥슨이 지금이라도 바로 인지하고 게임업계에 만연한 약자 사상검증 및 부당 해고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는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3025	특정 인물들만 인식하는 억지 혐오도 혐오라 하면서 왜 그들이 행하는 혐오는 혐오라 인식하지 못하나요? 여성도 게이머고, 고객이고, 사람입니다. 왜 남자의 억지는 잘 받아주면서 여성의 말은 한귀로 듣는척도 안하나요?
3026	똑바로 좀 해라
3027	억지 논란 멈춰라
3028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하는 한국 남자들의 추태를 받아주는 게임업계들 정신 차리세요.
3029	별것도 아닌 억지를 계속 들어주게 되면 결국엔 남는게 없게 됩니다. 억지를 무시하면 그들은 결국 알아서 지쳐 게임이나 할 것입니다. 여성유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3030	페미니즘이 뭔지 이해한 다음 행동하세요. 그리고 남성 유저들이 여성을 향한 증오심,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는 건 신경쓰지도 않으면서 저딴 어거지 논란에 허겁지겁 응답하는 모습 정말 우습습니다.
3031	이건 사상검증도 아니고 과대망상에 빠진 일부 남자들의 여성노동자괴롭힘이자 여성혐오일 뿐입니다.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엄격히 규탄합니다.
3032	게임유저들 중 여성의 비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작태에 질렸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여 잘못된 결정이 그릇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033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동화 작업에 개념도 모르는 분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근거로 직원 사상검증에 해고라니, 대한민국 대표 게임 업계라는게 창피할 수준입니다....
3034	노동자의 기본도 안지키면서 도대체 무슨 기업을 이끌어간다는건지 모르겠다. 인터넷의 논란에 사람을 쉽게 자를수 있다면 그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중심도 못잡고 인셀들의 주장에 이끌려다니는 모습이 정말 옳은가 이건 마녀사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3035	페미니즘은 무언가를 혐오하는 사상이 아니며 현 게임업계의 조치와 단어오용은 전 세계 보편적 인권 중시 풍조에 현저히 어긋납니다. 또한, 메이플스토리 사건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하청업체도 신상털이와 무단 침입 협박을 받고 있기에 넥슨은 2 차 가해를 조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036	사회를 좀먹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에 힘을 쥐어주지 말길 바랍니다.
3037	부당해고하지마십쇼
3038	억지주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주세요.
3039	적어도 돈을 벌기위한 기업이라면 혐오가 돈이 되질 않는다는 상식정도는 기억해야하지않겠습니까?? 심지어 글로벌기업이시잖아요???
3040	문제가 된 작업자의 발언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극단적'인 '혐오'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넷상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개인 SNS 에서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과 리트윗이며(영화/콘텐츠 리뷰,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이는 핍박 받아서는 안될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단순 페미니스트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관련 사건을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작업물이 폄하당하며 생계수단이 위협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반드시 남성을 공격하고 혐오하며 반사회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3041	게임업게 전부 반성하십시오
3042	언제까지 저런 모질이들한테 휘둘리며 살껀지?? 안쪽팔린지?? 먹금 못 하면 죽는병에 걸린건지??
3043	20 년간 넥슨 게임했던 추억을 처참하게 망가뜨려줘서 감사합니다
3044	사상검증을 통한 여성혐오 행위 중단 요청.
3045	특정 성별의 억지에 맞춰주지 마세요.
3046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넥슨은 한국 게임업계에 있어 명실상부 1 등 기업이라 불리는 대기업입니다. 본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게임업계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 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47	일부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며 여성을 탄압하는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3048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자진해서 들어주는 넥슨이 이해가지 않으며, 그동안 메이플을 10 여년간 해온 유저로써 말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룩덕 게임이라 불리는 메이플의 유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해도 될 정도인지 넥슨에게 물어보고 싶다. 돈은 벌고 싶으나 어느 한쪽 성별만 존중하겠다는 그 투명한 모습 잘 보았고 다시는 넥슨게임 소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디에 힘을 쏟아야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049	전직 애니메이터로서 애니메이션 제작 공정에 대해 잘 아는데 일개 개인이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는건 아무리 감독 지위여도 어렵습니다. 팀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번 체크되는데다가 이미 업계는 자체적으로 '남성 게임 유저'에게 불편한 요소는 시대를 역행할지 언정 내부적으로 배제 또는 검열 해왔습니다. 뿌리측의 입장문대로 애니메이터나 또는 관련 스탭들이 손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건 어려우며 남성을 비하하는 목적의 손동작과 일치하지도 않는데 여성 애니메이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트윗을 작성했다가 남초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롱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050	특정 커뮤니티와 게임사에서는 개인의 사상표현이 문제되어 직원을 징계하였다 주장하나 사상문제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불법 해고행위를 일삼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업계에서 소외시키는 행위가 진정한 자신의 사상을 공적이어야 할 일에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개인사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침 외에도 지난번 프로젝트 문 사에 유저들이 불시에 찾아가 직원들을 억류한 전적이 있는 바 직원 보호를 위하여 게임사와 유저간의 일정한 장막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법과 인권위에 사규와 유저들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다. 게임이 문화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사회 규칙을 준수하세요.
3051	억지 논란에 답변하지 마세요. 직원 개개인의 사상을 검증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큰 논란이라면 영상 검수과정에서는 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페미니즘이 정말 남녀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왜 페미니즘을 지지합니까?
3052	해외의 게임 회사에 국내 특정 커뮤니티에서 소위 "페미 일러레 혹은 성우"를 해고하라고 항의한 일이 몇번 있었는데 (ex BanG Dream 의 성우 논란, 우마무스메의 일러스트레이터 논란 등) 해외 게임사에서는 당연하게도 아무 입장문을 내지 않았고 항의한 커뮤니티의 반응도 결국 수그러들고 여전히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페미니즘' 은 인권 운동의 일부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부당 해고와 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번 논란의 주체가 된 커뮤니티들에서도 사용자들끼리 '이건 좀 억지 아니냐'라거나 재미를 위해 전혀 상관 없는 게임이나 몇년 전 작업물까지 끌어와서 억지 증거를 만들고 소비하는걸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우는 애 입에 급하게 사탕 넣어주듯이 달래면 앞으로의 업계 발전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요즘같이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층의 연령과 성별에 큰 구분이 없는 시대에 과연 이게 급한불 끄기가 아닌 합당하고 미래를 보는 결정인가에 대해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053	2023 년에 손 동작으로 인한 억지 논란으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 암담합니다. 넥슨 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해당 손 동작이 남성 혐오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인 것인가요? 일부 남성 유저들의 자의적 해석 하나로 한 회사의 일원을 이리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해당 결정에 대한 재고를 바랍니다.
3054	부당해고, 노동자 권리 침해가 잇따라 일어나니 통탄스럽습니다. 제발 생각 좀 깊게 하세요.
3055	저는 이 사태를 가장 최초로 발생시킨 넥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죄없는 성우의 부당해고에 앞장섰고, 해당 사건은 선례가 되어 이후 게임업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부당해고를 당연하다는 듯이 당했습니다. 넥슨은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소수의 인셀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넥슨은 각성하고,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 마녀사냥을 멈추십시오.
3056	큰 기업이.. 담당자들이.. 창피하실거같아요.. 우기는 자가 두려워 의견 없이 숙이는 게요
3057	사상검증 하는 업계는 망해야한다
3058	여게이머는 문화생활도 눈치보며 해야하는 건 10 년 전과 동일한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3059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3060	고작 집게손 하나 가지고 사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사과는 무의미합니다. 트집잡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게 아닌 또다른 트집거리들만 찾아내 당신들을 귀찮게 할 것 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십니까?
3061	반성해라
3062	창조논란 지 입맛에 맞추는 논란이 넘 어이없고 웃겨요
3063	하는 행보 보면 할 말이 없음
3064	편향된 한쪽 의견의 말만 듣고 그게 옳은지 옳지않은지 스스로 판단조차 하지 않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3065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 들어준다고 같이 일하는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사상검증하는게 제대로된 기업인가요?
3066	집게 손가락 논란에 반응하는 남자들 다 작구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논란 언제까지 가나 싶습니다. 참 한남은 죽어야 마땅한데 공기가 아깝네요.
3067	진짜 일부 남자들의 선동에 단체로 미친것같다. 이사례를 그냥넘기면 앞으로 큰 역풍이 몰아칠것이다.
3068	사상검증따윈 지긋지긋하다. 디씨 아카 같은 커뮤질 작작하고 책이나 좀 봐라.
3069	사상 검증을 규탄합니다.
3070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적 억지 주장에 동조한 넥슨을 규탄합니다. 성평등 지지가 부당한 커리어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라는 곳이 무엇이 성차별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줏대없이 일부 유저들의 말만 들어 일을 크게 만들고 결국 죄 없는 노동자만 낙인 찍히고 피해를 입는 점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3071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도 남혐주의도 아니며 여성의 인권,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연속된 애니메이션의 한 프레임을 콕 찝어 "특정 손 모양으로 남몰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메이플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유저 1 인으로, 넥슨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정말 안타깝고 특히 부임한지 얼마되지않은 김창섭 디렉터는 정신차리고 다시금 이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3072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제발 말도안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3073	단순한 집게손가락 손동작 갖고 사상검증에 직장내 부당처우를 멈춰주세요
3074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노동자 탄압을 하는 유저들과 그를 응해주는 넥슨/게임업계는 반성하라. 노동자의 사승검증, 신상털이로 일자리를 위협하고 빼앗는 사항에 대해 법제화를 하여 금지시킵시다.
3075	눈 좀 떠라
3076	노동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3077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응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게 페미니스트의 표시이고 혐오라고 생각하십니까? 혐오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손 모양으로 낙인 찍고 사람을 매장하는 게 진정으로 옳은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3078	여성 유저는 유저가 아닌가? 똑같이 돈을 내는 우저인데 왜 차별하나
3079	말도 안 되는 억지논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기업 인사가 해명을 하고, 당당하게 여성혐오에 편승하는 사태가 믿기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게임' 이란 명분 뒤에 숨어 정작 일부 유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업계 동료의 생계까지 옥죄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런 식의 자승자박 행보가 정말 게임업계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각성하고 반성하십시오.
3080	아오 진짜 욕을 안하고 말을 할 수 없어요
3081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3082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려고 했는지 이해 못하겠다. 이해할수가 없다. 초단위로 프레임 찍는게 뭐가 자랑이라고 보여주는 걸까? 억지논란을 가져온 일부 유저들이 박수 쳐주며 입안에 사탕이라도 물려주었나? 하나만 입력하면 하나만 출력되는 기계처럼 하나같이 내놓은 글들의 내용이 참담하기 그지없어 평범한 한명의 유저로써 경악스럽기만 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다른 쪽에서 게임없계라고 하는 말이 역시 괜히 나온게 아니구나 싶다. 혹여 나중에 운영진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억지 논란의 유저들이 운영진들의 손만 바라보다 초단위로 찍을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가서 사죄의 큰절이라도 시킬 셈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 저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었으니 자업자득이나 마찬가지다. 이 전에도 일이 있었음에도 변하지않는 이 감성이 조금 우습기까지 하다. 차기작들이 망한건 어쩔수없는 이 감성의 소유자들이 책임자들로써 있기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83	당사가 하고 있는 것이 여성혐오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3084	특정 성향으로 묶인, 편협한 게임 커뮤니티의 유저 대표성을 과대 평가하는 모니터링 정책에서 탈피하십시오.

3085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틀어막다보면 언젠가 한계가 올 거고, 그 때 뒤를 돌아보면 낭떠러지에 몰렸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절벽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3086	억지주장에 동조하며 성차별을 강화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3087	애초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주질 마세요..
3088	억지 논쟁으로 노동권 탄압하는 게임업계 규탄한다.
3089	이런 억지,창조 논란을 받아주면서 여성혐오가 더욱 커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3090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에 질질 끌려가서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하지말고 그 시간에 직원들 복지나 챙기길 바랍니다
3091	말도 안 되는 창조 억지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넥슨의 태도에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기업으로써 뿌리에 책임을 묻겠다던데 넥슨이야말로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십시오.
3092	유아기에 졸업했어야 할 억지 떼쓰기를 공개적으로 부리고 있는 게임 유저들도 한심스럽지만 그들의 유난을 극성 학부모처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게임 업계의 모습은 불쌍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네요. 나라 망신, 남자 망신 좀 그만 시키시길 바랍니다.
3093	억지논란에 지랄할 시간에 여성캐릭터 옷이나 입혀라
3094	페미니즘은 낙인이 아니다
3095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96	제발 좀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3097	넥슨의 여성 사상검증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3098	게임업계&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더 공고화되지 않게 해줘요..
3099	억지논란에 대응하는 기업들 규탄하라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우물 안 개구리. '페미들이', '음침하게', '혐오 목적으로', '손가락 이미지를 넣었다'는 '일부?' 유저들의 주장에서 저는 꾸역꾸역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위 주장의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맞는 구석이 없는데 페미=혐오라는 억지 논리를 꾸역꾸역 갖다 붙이면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요들?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저 '사람"으로 존재하겠다는 본질을 그깟 손가락으로 흐리지 마십시오. 페미니즘은 한국 남자들의 성기 크기에 전혀, 절대로, 이전에도, 앞으로도 관심 없으므로 자의식 과잉도 멈춰주시구요.(혹시 남자 성기를 고추로 비유하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비유는 '기분'이 괜찮으신가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외국은 바게트나 가지로 비유한다던데...) 끼리끼리 모여있다보니 일반적인 시선을 모르시는 듯해 알려드립니다. 물론 제 시선이 100% 옳다거나 제가 일반인을 대표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넥슨과 게임업계에 제일 필요한 게 '다양성'인 듯해서요. 처음 손가락 논란과 게임사들의 대처를 듣고 머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구석이 너무 많았거든요. 손가락 모양이 한국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혐오표현이라고? 여기서부터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천번만번 양보해서 누군가는 혐오로 쓰고 누군가는 혐오로 받아들인다 칠게요. 하지만 저 장면에서는 당연히 저 손가락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진심으로 도대체 어디가...? 와, 근데 잘 보이는 컷도 아니고, 0.1 초 찰나에 지나가는 모양을 굳이 찾아냈다고? A.배운대로, 회사에서 컨펌 다 거쳐가며 직장생활하던 애니메이터 B.영상에서 0.1 초 나오는 컷으로 애니메이터 SNS 사찰해서 사상검증하고 혐오표현이라 방구석에서 성내는 '일부' 유저들 0.1 초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상대의 불행을 바라며 SNS 를 검열하는 사람이 흔할까요? 여기서 누가 더 음침하고 유별난지 정말 모르시겠나요? 보통의, 상식적신,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저렇게 0.1 초 프레임에 목숨 걸거나 일반인인 제 3 자의 SNS 를 훑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주장을 넥슨과 게임업계가 그토록 빨리 조치했다는 건, 넥슨과 게임업계 또한 그 주장의 비정상성에 공감하고 있다 보입니다. 컴퓨터랑 핸드폰 끄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이버 세상 바깥의 현실세계에서 똑같이 말해보세요. 손가락 모양으로 한국 남자 성기크기 비하한다고. 그 사이버 세상이 얼마나 허황된 혐오로 점철된 우물이며, 그 우물에 음침하게 웅크린 개구리가 누군지 직시하세요.
3100	
3101	혐오를 하지않는다하셨는데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3102	게임 내 페미니즘 혐오 몰이 규탄한다 집게손 억지논란 멈춰라 죄없는 사람의 생계를 끊지 마라

3103	넥슨 수준도 여성혐오 집단과 별 다를 게 없어서 딱히 전하고 싶은 의견은 없지만 그저 여성민우회를 응원하고 넥슨은 법대로 심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104	대기업이라면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3105	각성해라
3106	넥슨은 각성하라
3107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108	혐오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 주는 일을 그만둬 주세요.
3109	제발 적당히 좀 하자 나라망신이야
3110	고용주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여 해고할 권리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게임은 예전 일본게임이 가지고 있던 "헨타이"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네요. 정작 일본은 변태게임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말이죠. 중국에도 일본에도 밀리고, 전 세계인들조차 인셀들의 나라라며 손가락질하는데, 이번사태로 손가락에 집착한다는 기업, 업계로 낙인찍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3111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통한 여성 노동자 차별과 억압을 규탄합니다.
3112	언제까지 이런 억지몰음을 계속할 것이며 소위 페미.증거라고 지적된 작성되거나 RT 된 내용들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정말 어긋나거나 맞지 않는지 한 번 맞춰보자
3113	말도 안되는 사안으로, 한사람의 생계를 망가뜨린 넥슨에게 올바른 조치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3114	직장 내 성차별 문화를 없애주세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여성이 공격받는 일은 일어나선 안됩니다.
3115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받아주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반복하니까 계속 더 생떼를 쓰고 지들이 맞는 줄 알잖아요. 블랙 컨슈머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블랙컨슈머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그럴수록 게임업계의 대처에 실망한 일반 유저들만 떠납니다. 매출 핑계 좀 작작 대시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세요.
3116	정신차려라
3117	테일즈위버와 메이플스토리 2 열심히 한 여성유저입니다 넥슨이 여성유저를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지는않았어요 메이플 2 타깃이 여성유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게임마다 성향이 달라도 현실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볼 때마다 심지어 그 이유가 페미니즘 사상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마다 넥슨에 대한 실망만 커지네요 처음에는 유저들이 개지랄을 떠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같은 수준이라 들어준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정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럴 생각이 있다해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할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성유저는 포기한걸로 받아들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미가 아니에요를 외치는 여성유저 빼고요 그래봤자 게임 재밌으면 잘 될 거 아니까 더 재수없네요
3118	언제까지 억지 떼부림에 놀아날 겁니까? 게임 업계에 만연한 여성 혐오적인 표현들은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남성들의 억지에는 후다닥 사과부터 하고...
3119	억지스러운 민원에 반응하지말고 차별적으로 굴지 맙시다 좀!
3120	억지논란인거 알면서도 여성직원 및 하청 길들이기 용 갑질을 그만둬라

3121	되도않는 분탕종자들의 억지음모론에 굽신거리며 약자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발언에 힘을 주며 귀기울여줄수록 게임문화는 고여 썩는 시궁창이 될 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한명의 여성유저로서 게임업계가 더 이상은 시대를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이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122	여성도 게임유저고 노동자이다. 발전은 없고 퇴보하는 한국게임업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3123	작작해라 작작
3124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25	21 세기에 들어선 지도 20 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법도, 여성들에게 어필할 방법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개발팀을 포함해 사업팀과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수치적인 지표를 읽을 생각조차 없이 자기들만의 독단과 아집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콘텐츠에 21 세기 이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들의 의식은 여전히 30 년 전에 머물러 있거나 그보다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무슨 이유로든 시대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콘텐츠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시류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클릭만 하면 어디의 어떤 곳이든 접속되는 지금 이 시대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자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발 당신들 역시 사회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이전에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방식과 더불어 무엇이 대세인지 알아보는 시각부터 익히십시오. 오지도 않았던 좋은 시절을 쓸데없이 그리워하지 말고.
3126	나대지말고 정신 차리세요
3127	소수의, 그것도 멍청한 인셀남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똑같은 인셀게임관리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3128	여자도 인간입니다. 솔직히 저 손가락 모양에 관심도 없고, 왜 일부 이상한 남자들 창조논란에 일일이 반응해주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저게 남자 성기 크기를 비하한다고 발작하는데, 오히려 그 발작이 해외에 널리 알려져서 한국 남자를 비웃는데 쓰이게 됐다는걸 아세요? 자기들이 판 무덤입니다.
3129	말도 안되는 핑계로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마십시오.
3130	쓰레기같은 남자들 데리고 게임 열심히 하세요
3131	이상한 망상에 휩싸인 일부 세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양질의 컨텐츠 기획개발에 더 힘써주세요
3132	억지 논란에 놀아나는 기업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성별 논란 괜히 더 키우지 말고 올바른 대처가 우선이 되는 기업이기를

3133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불온사상이되어 사회가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되었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사태는 사상검증도 성갈등도 아닌 혐오세력의 일방적인 여성사냥놀이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실제하는지도 모를 혐오세력의 무리에 함께 일하던 여성동료를 너무나 쉽게 먹이로 내어주는 모습이 넥슨이 여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차별하는지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혐기업, 여혐업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 넥슨과 게임업계는 입장을 바로잡아야합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배제한 업계가 과연 얼마나 잘 성장할수있을까요. 혐오남성만의 게임으로 본인들의 가능성을 주저앉히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의 정의와 양심이 있다면, 저들의 주장이 당위성이 없는 혐오적 폭력이라는 것을 알겁니다. 인간답게, 정당하게 행동해주길 바랍니다.
3134	본래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만한 이 어처구니없는 촌극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여성이 나온다는게 참담하기만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3135	본인들은 여성혐오 단어인 '피싸개'나 '년아 ㅋㅋ' 이런 욕설은 혐오표현이 아니고, 일상속에 자연스레 취해지는 포즈에 의미부여해서 욕하는건 혐오표현입니까? 혐오의 기준이 뭡니까? 그거가지고 큰소리 내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억지주장을 마치 자기일이라는 듯 억울을 분출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 모습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로 정당하다면, 우리는 집게모양에 성나서 직원도 자르고 작업물도 잘랐다고 당당하게 해외 글로벌 기사까지 내십시오
3136	사상검증 및 여성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대처 규탄한다
3137	☒bts, 구글, 해외 유명인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강약약강 아주 잘 봤습니다. ㅎㅌㅊ들의 뻘소리에 심각하게 대응하는 꼴 전세계적인 망신 망신 대망신.
3138	제발 되도안한 억지논란 다 들어주지좀 마세요
3139	페미니즘은 규탄해야 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고 취급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임금차별에 이어 사상 검증에 의한 불이익이라니요. 진정 21 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부디 옳게 가는 길이 어딘지 바로 보시고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3140	혐오 표현을 즉시 멈추어 주십시요!
3141	한국 게임은 남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한국 게임업계에 여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건 말도 안된다.
3142	아무도 일부 한국남성들의 작은 성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들만이 그들의 작은 성기를 위로하며 비뚤어진 자아만 비대하게 만들 뿐이죠. ...성기가 아니라 자아만요.
3143	게임업계에서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가며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며 페미니즘 혐오를 넘어서 여성혐오로 이어지는 논란이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44	노동법이 우습나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검증이라니..

3145	게임의 주 이용자가 남성이 많다는, 그 이유로 인해 게임을 즐기는 여성 유저들과 업계의 여성 종사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게임업계의 여성차별사례는 큰 이슈가 된 사건들만 세보아도 3 번입니다. 이게 과연 21 세기 현대 사회가 맞는건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이 기원전~20 세기에나 일어났던 여성차별과 다르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시위를 통해 투표권을 얻고 그 이후부터 양성평등을 외친지 벌써 몇년이나 지났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이모양인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디 모든 업계의 책임자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그저 성별이 여성란 이유 말고 제대로된 이유를 듣고서 판단하길 바랍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논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논란들이 정말 논란거리가 될만한 것들이었나를 심도있게 따지고 판단하는것. 모든것을 수용해주다보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것이 누구인지 자명한것이 보이는데도 수용하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부디 이 이상 어리석은 판단으로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했던 마음들을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3146	이대남들은 최악의 세대가 맞네요
3147	사상검증/부당해고를 반복하고 싶겠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 시대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3148	일부 몰상식한 집단이 개인을 억측으로 사상검증하고 해고하라고 억지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에 동조해 직원을 해고할게 아니라 보호해주십시오
3149	애니메이터 출신으로 개억지인거 보임
3150	여성혐오를 멈춰라
3151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는 소수 남근주의자들을 배척한다.
3152	일을 친건 너희인데 왜 내가 쪽팔릴까요..
3153	넥슨은 여성혐오를 즉각 중단하라
3154	애니메이션 프레임 1 장에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동화장면을 일명 '페미손'이라 몰아가며 집단적으로 혐오몰이를하는것은 심히 비상식적이며 몰상식적이다. 던전앤파이터 공식공지에 올라온 프레임별 손가락논란 이미지들을 확인했을때 그 어떤것도 억지로 심볼을 넣었다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장면들이었다. 이런 일부 비상식적인 유저들의 억지논란을 들어주기위해 외주업체에 대한 압력을 넣는 것은 악성유저, 인셀 테러리즘에 굴복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
3155	집게 손 억지논란과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즉각 멈춰라
3156	여혐 하는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있습니다
3157	일러스트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억지 논란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몇초동안의 장면들을 일일히 검열하며 창작의 영역을 제한두는 행위를 허락하고 나아가서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업계의 문화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3158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말 해 주세요. 그 손가락이 뭐길래
3159	집게 손' 억지논란과 더불어 여혐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입니다ㅎㅎ.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ㅎㅎ.

3160	사상검증 하지맙시다
3161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게임을 소비하는 여성으로서 어떻게든 여성에게 낙인찍고 몰아낼 핑계를 찾는 남유저들과 제작자들의 적대적인 태도에서 강한 모멸감을 느낀다. 남성 유저들의 트집잡기를 받아주고 벌벌 기는 행태는 여성을 게임 문화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행위이며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더욱 불붙일 뿐이다. 걸스캔두애니띵으로 성우가 해고된 시절부터 지금까지 게임사의 이런 관행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부당한 불링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키우는 게임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3162	억지논란에 장단맞춰준 기업들 정신차리세요
3163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은 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3164	넥슨 및 계임 업계는 악성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3165	페미니즘이 뭔지나 아시는지 ?
3166	수년 전 넥슨의 몰지각한 처사에 탈퇴하고 불매중입니다만 아직도 변함없다니 망해도 정신차리지 못할 거 같습니다
3167	페미니즘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 여성도 게임 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3168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그만 보고 싶습니다.
3169	모든 청년 남성이 이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만 전하고 싶습니다.
3170	여성혐오 그만해라
3171	무고한 사람을 페미니스트라 몰아세우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172	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의 악성 민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3173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업계 내 페미니즘 혐오가 규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74	어이없는 논란이라 헛웃음이 나옵니다
3175	일부 망상에 가까운 사람들의 억지를 수용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게임 업계는 반성하고 죄없는 직원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그만두십시오
3176	더이상 일부 악성 유저들의 억지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3177	넥슨같은 큰기업이 집게손가락소동같은 얼토당토 않은일에 휘둘려서 일을 키우시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번일은 처신을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3178	대체 언제까지 아무런 의미없는 손에 의미부여를 해 회사를 공격하는 녀석들의 의견을 들어줄겁니까? 정말 운영에 관해 회견을 여는 것 보다 편해서라면 게임회사를 왜 운영합니까 때려치고 유투브 렉카를 하시던지요
3179	의미도 없는 손가락에 남자들이 억지를 쓴다고 그게 혐오표현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지 진짜 어이가 없을뿐
3180	억지 논란에 대응하기 부끄럽지도 않나요.

3181	이상한 기준으로 노동자 사상 검증 하지 마세요
3182	억지주장에 장단 맞추는 일 그만하십시오. 오히려 한마음으로 즐기는 걸로 보입니다. 업계에서 대기업이며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제작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자들이 무엇이 사회를 위해 이롭게 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3183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3184	정신차려라
3185	21 세기 현대 문화 속 아직도 이처럼 우매하고 수준 떨어진 유저들 및 디렉터들이 있다는 점이 통탄스러우며, 이들과 같은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3186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안을 몰아붙여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3187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손모양 하나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188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논란된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동작입니다 의도적이었다면 일베처럼 티가 났겠지요 하지만 이건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해당 논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당 논란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또 애니메이터로써 이 논란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자유로운 창작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89	게임업계 여혐 문화 개선하세요. 여성캐릭터를 포르노적으로 표현하는 관행도 좀 없애요.
3190	집게 손가락에 억지 의미부여와 게임업계 여성들의 사상 검증을 멈춰라
3191	남성들이 만들어낸 논란에 동조하고 그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92	인셀들 비위 맞출 시간에 글로벌 흐름을 따르시죠
3193	이건 단순히 게임업계만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3194	2016 년 성우 티셔츠 해고 사건 이후로 국산게임을 일체 안하는 여성게이머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을 위해 힘쓰는 해외 개발사들 게임을 재미있게 하고있고, 이런 문화를 위해 힘쓰는 개발사들의 게임을 아낌없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 인생에 두번다시 국산게임을 소비할 일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세요. 이런식이라면 자멸뿐입니다.
3195	여자도 게임합니다... 게임에 돈 씁니다... 제가 돈 낸 콘텐츠가 저를 사랑해주길 바라지는 않아도, 저를 쫓아내지는 말아야죠...
3196	게임문화/게임경영/노동자 인권등 전방위적으로 후퇴하는 사건으로 넥슨과 퍼브리싱하는 업체들은 깊게 고민이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억지 진상에 고개숙이면 지금보다 더 황당한것을 요구할겁니다.
3197	한국 게임업계 미래에 자살골 넣는 짓 벌써 몇번째입니까?
3198	남성들의 억지논란을 인정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피해에 대한 보상,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추후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된 문제의 처벌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199	여자와 인권이라는 단어는 공존할 수 없다는 행보를 보여주네요.

3200	도대체 언제까지 되도 않는 소리를 들어주고 거기에 더해 사상검증을 통해 무고한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 기이한 행태를 반복할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조롱받는데는 게임 업계들의 반응이 더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보여주세요.
3201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어준다는 건 그 말같지도 않은 걸 믿고 있다는 거겠죠?
3202	남자친구랑 검은마법사 잡으면 결혼자금 모으기로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ㅜㅜㅜ
3203	일반적인 손모양을 규탄, 게임 오염이라는 등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쌍욕에는 대처가 없고 명확한 의미도 없는 일상적인 손모양으로 이렇게 큰 논란이 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확률 조작등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안았는데 이 이슈에만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3204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들기까지 시전 동작에서 ☒이 선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손가락 하트가 "혐오 동작"이며 "혐오 사상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주장에 사과를 하여 실제하지 않는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힘을 실어 준 넥슨 필두의 국내 숱한 게임 업계의 사상이야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넥슨은 모든 노동자는 성별, 나이, 종교, 사상에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법 위에 있습니까? 넥슨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광신도적으로 떠받드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녔습니까?

3205	1. 집게 손가락은 손에 힘만 풀어도 나오는 신체적인 구조이며 애니메이션이라는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을 따라하는 작품을 만들때 당연히 나오는 요소입니다. 이는 한국 작품만이 아닌 토에이,마파등 유명 제작사들의 작품에서도 충분히 발견되는 사안이며 네티즌이 이를 비교하는 사진만 봐도 비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작은 크기”를 뜻하는 대중적인 제스처가 있음에도 8 년전에 탄생하고 6 년전에 폐쇄한 남성혐오 사이트의 제스쳐로 대체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해당 동작을 억지로 언플시키는 것은 특정 남성성향의 사이트입니다. 페미니즘의 로고는 주먹을 다짐하는 것이 국내 해외 모두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주먹이 들어가는 모든 작품을 다 검열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기업측이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과오입니다. 참고 트윗- https://x.com/jeunga_lbtmg/status/1728796021159854541?s=46&t=ejtsp4SoAhidjaZYNu0hOw 2. 위에 의견에 따라 해당 동작이 남성혐오 동작이라고 단정 지을 수 도 없으며 원화가가 의도적으로 사상을 표출하였다는 의견조차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만 의혹만으로 한 사람의 커리어를 해친다는 것은 대기업 측의 갑질입니다. 3. 몇몇 이들이 손가락자체는 억지인데 본인이 페미임을 밝혔으니 의도적인게 맞다라고 주장하였고 회사측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사상검열입니다. 원화가께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손가락이 남성혐오가 되고 페미니스트가 아니였다면 그 손가락은 혐오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외주 작업에 사상을 집어넣었다라는 주장을 빈약하게 만들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논리입니다. 원화가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요소만으로 정해지는 사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상검증입니다 4.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성혐오가 아닙니다. 이미 해외에선 아리나아 그란데 등 유명 셀럽들도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였으나 그들은 그러한 이유로 규탄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남성혐오 주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페미니즘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리버럴 페미니즘,레디컬 페미니즘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중 성소수자나 남성들과 같이 연대하며 같이 이행해나가는 운동권도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상입니다. 논란이 된 원화가의 트윗은 남성혐오적이라고 보기 객관적으로 부족하며 논란이 된 트윗중 “불법 촬영 무고 소재”에 대한 비판과 n 번방 사건의 성별 표시,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성별표시 기제에 대한 비판등 혐오가 아닌 여성에 대한 윤리적인 인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트윗뿐이였습니다.이를 두고 ”당연히 페미니즘을 지지하니 남성혐오자이고 그러니 애니메이션 원화에 집게손가락을 넣어 남성혐오를 표출했을 것이다!“를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넥슨 측은 대기업의 입장으로 한 외주 직원을 사이버 불링으로 부터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억측을 사실로 단정 짓고 그의 사상을 검증하는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넥슨은 기업이 지켜야할 도덕적 윤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혹에 대해 파헤쳐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러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 만으로 외주 업체 직원을 불링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넥슨측에서 해명해야할 것은 억지 주장에 대한것이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 식 갑질입니다.
3206	장기적으로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207	노동자의 사상검증으로 근로안정권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
3208	여성혐오에 빠져 퇴보만 거듭하는 중인데도 꾸준히 남성혐오 논란인 척 여성혐오하고 차별하는 짓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3209	사상검증으로 실력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좀 그만 뺏으시길 바랍니다. 님들의 그딴 사상검증은 해외에선 비웃음만 삽니다. 왜 선진국을 따라가자면서 이런 것들은 선진국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남성유저들의 억지논란은 잘 들어주면서 여성유저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동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게임 유저들 중 외국인 유저들이 한국 게임은 비정상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벗기고 성적대상화 한다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직시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도태되는 삶 사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에서 일명 겜덕들, 게임유저들에 대한 시선은 절대 변하지 않고 도태 그 자체로 굳어질 겁니다. 이미 굳어지고 있고 그 게임 하면 편견 생긴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요.
3210	이제는 인셀들의 억지 주장을 근절할때
3211	오래 돈 벌고 싶다면 똑바로 해라
3212	한국게임의 미래가 참담하다
3213	언제부터 블랙컨슈머의 의견을 들어주는게 관례가 됐습니까 블랙컨슈머가 해고하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아닌게 됩니까? 회사는 사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어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블랙컨슈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타켓은 누굴것 같습니까? 다음은 넥슨이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모든 회사와 상품이 될겁니다. 브랜드 네임밸류는 블랙컨슈머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부디 회사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3214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으로 일자리를 뺏는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을 보고 있자니 2023 년도가 맞나 싶네요.
3215	일부 극단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건가요? 넥슨른 일베와 같은 사상을 가진 곳인가요?
3216	넥슨 경영진은 각성하세요.
3217	여성혐오를 게임으로 즐기는 남자들의 어리광을 게임업계는 더이상 묵시하지 마라
3218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손가락은 혐오의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같이 찾아내는 그들에게는 혐오를 없애는 의미가 아닌 특정 단체를 혐오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게임회사들이 본인들에게 조아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어째서 말같지도 않은 말에 동조하시나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더불어 스튜디오 뿌리는 해당 손가락 논란에 대해 어떠한 의도도 없다 말하였으나 메이플 디렉터 김창섭은 해당 부분이 혐오가있는 연출이라며 같은 업계인과 창작자에 대한 단 일말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벌써 스튜디오 뿌리에는 본사에 찾아가 직원의 위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넥슨은 분명 이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을 동조하고 머리를 숙인 댓가에 대해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사과하세요.
3219	억지논란으로 인한 사상검증 금지시켜주세요.
3220	95 년생입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넥슨을 정말 좋아했는데, 좋아한만큼 실망도 큽니다.
3221	게임업계의 몰락에 이바지하지말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3222	언제까지 억지논란에 휘둘릴겁니까?
3223	일부 유저들의 억지 논란으로 인해 창작물이 검열 당하고 업계에서 해고 당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3224	누가봐도 억지를 부리는 악질적인 의견에 동조하는게 올바른 일입니까? 세계는 평등화와 공존을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거꾸로 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
3225	여성비하 하지 말고 사상검열 부당한 해고 하지 마세요.
3226	흔한 손동작에 특정한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보이기만 하면 항의를 하는 집단. 어떻게 봐도 블랙컨슈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집단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수용 식으로 나오는 게임업계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현대판 마녀사냥인가? 그러나 그러한 기분권은 결코 인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 남성카르텔의 기형적인 행태에 대해 법률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3227	게임 운영의 허술함을 억지 논리를 받아주는 것으로 무마하려 들지 마라. 쪽팔리지 않냐.
3228	한심한 말같지도 않은 말 그만 오냐오냐하세요
3229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이것이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라. 넥슨 및 관련 사안에 관하여 비슷한 입장을 취한 모든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지 않겠다.
3230	남자 눈치 어지간히 본다ㅋㅋㅋㅋㅋㅋㅋ징징징징 떼쓰는거 다 쳐들어주고 있네 별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다본다 부끄러운줄 아세요ㅋㅋ
3231	여성유저들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3232	정의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주세요
3233	대형 게임회사가 그렇게 무분별한 혐오 사상을 전파하면 되겠습니까? 여성 유저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본인들 뿌리도 썩게 만들겁니다. 정신차리세요
3234	억지논란 그만 들어주세요
3235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 망해 걍
3236	아직도 남자들만 게임을 하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건지, 혹은 게임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알 길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게임을 많이 즐긴다는 걸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자들의 의리! 겜남들의 의리! 같은 고릿적 슬로건을 걸고 여자들을 배제하려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일부 인셀남들만 믿고 여자들 다 쳐내면 게임이 부흥할 거라 믿는 그 안일한 태도로 이미 임종 직전이나 다름없는 한국게임업계에 방점을 찍게 만들지 마세요.
3237	인게임 내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여성혐오, 인종차별 및 장애인 혐오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선택적으로 손가락 억지논란에만 분노하는 한국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멈춰라.
3238	넥슨 사는 한국남자들의 억지를 들어주지말고 사실만을 지켜보라 억지논란에 피해받는 여성들이 늘어나서는 안된다
3239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240	부디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업계에 피해주는 이가 누구인지 제대로 생각해주세요. 한쪽 편을 들라는게 아니라 억지주장은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3241	정신차리세요
3242	페미니스트 유저, 그리고 페미니스트 아닌 여성 유저 무시하고 깔보면서도 여성 유저 돈은 갖고 싶더냐!!!! 게임업계가 각성하고 변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업계에 가져다줄 돈은 없다.

3243	게임 내에서 만연한 혐오표현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된 대응하지 않아놓고, 인셀들이 주장하는 의미불명의 손가락 모션이 대체 어디가 혐오표현인가요? 살면서 엄지와 검지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고, 인셀들에게는 먹이를 줘서 나온 결과가 뭔가요. 그저 재미로 몇 년 전에 나온 영상까지 뒤져가면서 수정 요구하면 언제까지고 그 말같지도 않은 억지논란을 수용하실건가요?
3244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누가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하는건지 이번 사태와 라이브 사과문등을 보고 기업들의 뿌리깊은 여성 차별에 반대합니다
3245	인셀들은 권력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남성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어떠한 권력을 느껴본 적 없으며 앞으로도 느껴볼 일이 드물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남성보다 명백히 권력적 열세에 놓인 여성을 공격하여 자신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려 듭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력을 확인받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넥슨이 이번 사태에서 인셀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러한 인셀들의 효능감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며, 이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다시 효능감을 느끼기 위하여 또다른 희생양을 찾으려 들 것입니다. 넥슨이 저지른 일은 테러리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다음번이 또 있을 것임을 압니다. 앞으로도 넥슨은 이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꼬투리 잡혀 터무니없는 논란과 악성민원에 시달릴 테지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인권인식이 뒤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애국심으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잘 될 수 있길 바랐는데, 자금의 사태를 보니 그냥 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246	남성들의 창조 논란에 반응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에 큰 실망을 하였고 경영진의 변화 없이 한국 게임계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타쿠 양성에만 몰두할거라면 현재처럼 쭉 도태 분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3247	페미니즘 혐오몰이 좀 그만해라.
3248	무논리로 떼쓰는건 무시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들어주니까 자기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더 난리치는거 아닙니까? 여성유저들은 이미 게임 속 여혐에 흐린눈 뜨고 있는데 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게임 밖에서까지 여혐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야합니까? 이참에 게임 내 의상, 모션까지 싹 다 규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3249	억지 혐오 논란에 대한 해명은 이렇게나 빠르면서 그간 게임내에 만연해있던 여성혐오에는 왜 그리도 무심했나요? 이게 디렉터가 말하던 이유없이 타인을 혐오하고 은연 중에 드러내는걸 즐기는 세력에 메이플이 유린당하던 꼴 아닌가요?
3250	음모론을 믿지 말고 현실을 좀 사세요.. 억지 진상 고객으로 직장을 잃어가는 여성들을 보시고요.
3251	산업의 파이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억지혐오에 무관심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3252	회사는 개인에게 사상검증 혹은 사생활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줘선 안되며, 몇몇 인터넷 유저들 개인의 의견에 휘둘려선 안됩니다.

3253	누군가의 기분보다 사람이 생존권이 우선하며, 누군가의 망상섞인 해석보다 노동법이 위입니다. 게임업계에 만연한 페미 마녀사냥을 규탄합니다. 제 20 년의 게임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며 제 경험을 확장해나갔던 추억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기에, 이번 일에 대하여 넥슨과 한국게임업계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개선의지를 보일때까지 연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게임을 아직 사랑하고 함께 30 주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고로 넥슨과 한국게임업계가 변화를 약속하고 실행할때까지 불매 운동에 참여합니다.
3254	진짜로 들어야할 고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마녀사냥에만 대답하는 기업문화 중단하라
3255	차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 업계가 하는 행동이 바로 차별입니다. 일부 SNS 남성 유저들의 악성 민원과 여성 직원 괴롭힘에 반대합니다. 게임 업계는 직원을 보호하고 페미니즘 혐오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게임 업계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통감하고 크게 실망하였으며, 이러한 성차별적 행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유저들에게는 시스템 변경일 뿐이지만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가까운 공포이자 생계 위협, 나아가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성의 인권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다른 성별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게임 업계의 행태는 여성 근로자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SNS 남성 유저들의 악성 민원으로 모두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3256	부끄러운 줄 아세요.
3257	혐오 세력에 동참하지 마세요. 쉬운 길은 늘 잘못된 길입니다. 세상이 퇴보하는 것에 힘을 싣지 마세요.
3258	썩은 물웅덩이를 안락하게 여기고 모두가 썩기를 바라는 , 이 시대의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가장 혐오해야 할 것은 그러한 집단을 사랑하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스스로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3259	사상검증 그만하세요
3260	일 순간에 들끓은 의견 만으로 직원들을 박해 하고 업무에서 제외 시킨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직원을 보호해야 할 회사가 직원을 방패로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미래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보다 나은 회사로, 소비자와 직원 모두가 원만히 즐길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래봅니다.
3261	억지논란에 거를건 거르세요 유저들도...이걸 왜 사괴하고 받아줍니까
3262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살아주세요.
3263	왜 나아지지 않고 후퇴하는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수익모델구조상으로도 이것은 절대 이득이 아닐 터인데 왜 단기적인 것만을 보고 이리 어처구니 없이 처리하기 급급한지 부디 사측쪽에도 노동자에게도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3264	우리나라 게임계에서 3 대 N 사라고 불릴 만큼의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방적인 억지 논란문의에 이러한 대처를 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고 유감일 따름입니다.
3265	진짜 어처구니없습니다
3266	정신좀 차리세요
3267	여혐을 하려면 똑똑하게나 하세요 전세계에 웃음거리 되지 말고
3268	우물 안의 개구리. 해외 반응도 좀 보시고 당신들이 품고 가려는 커뮤니티가 아닌 바깥의 여론을 좀 봐야하는데. 그렇게 고이니 이렇게 썩는 거죠. 우리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여성 유저들 말은 들어주기 싫지만 돈은 받고 싶은 겁니까? 처음부터 당신들한테 그런 건의한 사람들만 품고 가세요.
3269	특이한 손가락도 아니고 욕설도 아닌데 고작 저 손가락 모양을 넣었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계를 잃게 하는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270	이게 어떻게 페미니즘의 탓 입니까?
3271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행위를 멈춰라
3272	페미니즘 사상이 마치 굉장한 범죄인 것처럼 포장하여 여론을 장악하고 여러 여성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3273	넥슨을 포함한 게임업계가 갈수록 천박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안좋네요. 넥슨의 여성캐릭터 가슴모핑 및 속옷만 입은 게임들(마영전, 히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집게손가락에 대한 억지추측으로 디자이너 및 애니메이터들을 매도하는 행위가 너무 참담합니다.
3274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잘못된 이미지로 알려진 페미니즘이 제 이름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3275	한번 트집잡히면 또 다른 걸로 트집잡힐 거고 이번에 꼬리 잘랐다고 넘어가지도 않을 거 같은데 다음엔 뭐 자르실래요 몸통? 본인들이 운영 못하는 걸 여자 제물 삼아서 무마시키려는 거 그만하기 바랍니다. 성평등도 안 지키고, 노동권도 안 지키고, 대기업 깡패질은 다 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3276	근본없는 사상검증 그만
3277	억지논란 만들지마세요
3278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3279	사상 검증 좀 그만하고 억지 요구에 그만 휘둘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사에도 유저들에게도 안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는 늘 저런 식의 사소한 트집에도 휘둘리게 되고,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저런 트집 잡는 유저들과 관련 없는 유저들은 분노합니다. 제발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해주세요.
3280	억지분쟁을 일으키는 진상민원인들에게 휘둘리지마라! 지금 당장 노동자와 외주처를 보호해라!
3281	직원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 작태를 멈춰주세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도 해고사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3282	이해할 수 없는 논란으로 직장다니는 노동자를 짜르라 마라 하는건 진짜 너무 이해가 안가요 이게 말이 되나? 저 손가락모양이 뭐라고 저러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알고 싶지도 않는데 일하는 사람을 저런 이상한 논란을 만들어 일하지 못하게 하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3283	페미니즘은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의 악성 민원에 창작자 개인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3284	넥슨 무조건 불매합니다.
3285	넥슨 정신차려라
3286	멍청한 판단으로 한국 게임 산업을 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3287	억지 논란을 통한 사상검증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3288	여성캐릭터의 노출과 성상품화는 줄곧 당연시되어았으면서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논란으로 만들어주는게 업계의 선택입니다. 여성 유저와 남성 유저를 동등히 대하십쇼
3289	왜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말도안되는 사상검증을 하며 일자리를 잃게하는건가요. 왜 항상여자는 페미니즘에 관심없음을 어필해야하며 남자는 그런것에서 자유로운겁니까
3290	혐오를 위한 혐오를 돕지 마세요
3291	여성혐오 규탄한다
3292	제발 제정신좀
3293	말도 안 되는 사안은 제발 무시하고 할 일 하시면 안 돼요?
3294	억지 그만;
3295	지랄좀 마라 피해의식 오지는 인간들아
3296	억측에 동의해주고 노동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라.
3297	게임 업계를 대표하기에 부끄러운 기업으로 남지 마세요. 한국 게임이 외면받는 이유로 남지 말아주세요. 사상 검증은 차별이며 어떠한 혐오도 용납되지 않는다면 여성혐오가 끊이지 않는 디씨 등의 일부 커뮤니티 내에서 혐오를 이끌어가는 이들부터 용납하지 마세요. 여성유저가 돈이 되지 않아 의견을 듣지 않는 건 성차별이 아닌 것 같나요? 게임업계 남자들 중에 커뮤니티 내에 혐오 발언을 전수조사 하실 게 아니시라면 이 모든 조치를 멈춰야 합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지만 행동은 또다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298	더이상 혐오세력에게 승리의 경험을 안겨주지 마세요
3299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3300	타인을 향해 가해지는 그 어떤 형태의 혐오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사측의 태도를 꼭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3301	게임 문화에 만연하게 퍼진 페미니즘을 향한 혐오 및 사상 탄압을 규탄합니다.
3302	게임기업은 억지논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혐오몰이를 중단하라
3303	남성들이 창조한 억지 논란으로 더 이상 여성들의 일자리를 뺏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304	메이플스토리를 2 년 반 동안 즐겁게 해온 여성 유저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의 악의적 여론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내린 넥슨, 메이플이 이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단인 억지 생떼를 앞으로도 모두 수렴하고 들어주실 건가 싶습니다. 주 소비층이 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메이플스토리는 지금까지도 팬페스트, 팝업스토어 등 대외적으로 사업확장을 진행 중이며 이전에 언급한 테마파크 등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게임의 소비자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소비자를 확보해야하는 시기에 여성 소비층을 보란듯이 내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프레임 단위로 쪼개보며 전 세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손모양을 혐오 표현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의견을 수용하면서 국적과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온 가족이 즐기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디렉터님의 말에 창피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3305	여성혐오 멈춰라 무분별한 마녀사냥 그만둬라
3306	게임업계는 사상검증에 의한 부당해고를 철폐하라.
3307	페미니즘이 어째서 남성혐오 입니까? 본인들의 여성혐오를 여성혐오라고 말 할 용기는 없으면서 인셀남성들을 끌어안고 운영 끝까지 하십쇼.
3308	악의적인 몰이는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당하지 않은 억지에 힘을 주다보면 끝내는 무너지는 일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선택은 사회와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3309	1.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면서 왜 지금껏 인벤, 디씨 등 남초 커뮤니티 및 해당 게임서버에서 남성 유저들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았는가. 2-1. 이번 일의 중심인 손동작이 실제 "남성 혐오적" 의미가 들어있다면 지금껏 나온 과거 영상 및 일러스트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손동작들이 정말 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과거에는 아무 논란이 없었는가. 2-2. 그렇다면 Gs25 손동작 논란이 있기 전의 창작물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한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공격은 무엇인가.
3310	넥슨 규탄한다
3311	억지 논란을 일으키는 블랙 컨슈머 차별주의자들의 의견을 내세우지 말라
3312	이번 사안으로 인해 넥슨을 포함한 게임업계 전반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3313	오랜 기간 좋아하던 회사와 게임이라 상당히 유감입니다.
3314	이런거에 반응해준다는거 자체가 수준이하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해고가 뭐 이렇게 쉽습니까? 소비자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대처를 중립적, 윤리적으로 하는것은 기업의 몫입니다. 성평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315	인터넷에서 인셀말 그만 듣길
3316	말도 안되는 성차별을 멈춰라.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해외 게임 업계게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듯. 우물안 개구리행세하는 꼬라지가 너무 추잡스럽다.

3317	일부 인셀들의 의견을 다자화시켜 게임업계의 문화를 망치는걸 중단하라. 여성유저들도 엄연한 게이머들이다!
3318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차별적인 행보에 더해 작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넥슨이 보인 행동이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조속히 깨우치고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 하시길 바랍니다.
3319	특정 커뮤니티(혹은 집단)의 왜곡된 시선에 힘을 실어주는 넥슨과 게임업계의 혐오조장 행위를 규탄한다!
3320	일부 남성유저들편 들고 부당해고하고 그렇게 살지마세요
3321	게임은 일부 유저층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일부 논리없는 비판에 휘둘리며, 소위 '큰 소리를 내야 해결해준다' 하는 '진상'유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는것이 게임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어떤 의미와 메세지를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인으로써, 또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인으로써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을 전합니다. 게임문화를 진정 망치는 자들이 누구인지, 올바른 비판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한번 곱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322	누가봐도 억지인데 이걸 왜 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넥슨 게임은 앞으로 절대 안할것임
3323	정신 나간 사태. 고 넥슨 회장이 봤어도 분통했을 것.
332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행동하라. 대기업으로서의 무능하고 저속한 행보가 게임업계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반성하라.
3325	억지로 떼쓰고 우기는 남자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뻘짓좀 그만하길
3326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실제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정 커뮤니티 뿐만이 아닌 게임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여성혐오를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3327	여성억압을 위해 이뤄지는 이 '남혐' 창조논란과 게임업계의 동조 행태가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밉니다.
3328	말같지도 않은 디시인셀들의 집단적 발악에 동참하거나 굴복하지 좀 마시오.
3329	너무나도 발빠른 대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쪽의 의견만 듣고 대처한단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330	1.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존재 라는 단순한 명제를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페미니즘이 사회 문제인 양 취급하지 마십시오. 2.여성혐오자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며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3331	인셀의 기분문제, 여성의 생존문제
3332	한국 게임업계 수준 망했네 나는 해외로 간다 인재들 다 빠져도 후회말어 ㅈㅈ~
3333	억지 논란에 맞추어 대응하는 짓을 멈추세요

3334	억지 생떼에 귀를 기울여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제발 그만두세요.
3335	일부 유저의 악성 민원을 들어주며 자신의 직원 또는 동료가 되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던져놓는 짓을 그만 둬 주세요. 내, 외적으로 오직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먹는 일입니다.
3336	가장 어리석은 선례를 만들지 마세요
3337	페미니즘을 사악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특정집단의 퇴행적 움직임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38	억지 좀 작작 받아줘라.
3339	김창섭디렉터는 그동안 여성유저들의 소리를 무시한걸 사과하라
3340	넥슨을 비롯한 한국 게임업계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바라며 인셀들은 억지논란 그만 좀 일으키십쇼^^
3341	인생그렇게 살지마라
3342	별 의미있지도 않은 손짓에 특정성별의 본인들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고의적으로 그 손짓을 넣었다며 몰아가 과거의 행적까지 조사하여 여성들의 일자리를 끌어내리는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의 작태를 내버려두는 게임업계를 더이상 보고있을수 없습니다. 그런의미도 없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기정사실인양 떠들며 그 의미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더더욱 퍼뜨리고, 근거무근의 일들을 사실이라 서로서로 믿고 모함하는 작태를 보아하니 정녕 같은 사회화를 받은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 게임업계의 이러한 작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한명의 게임유저로서 지금의 행보에 무척이나 실망스럽기그지없으며 본인들 스스로 게임업계를 깎아내리고 자멸하는 모습이 통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므로, 넥슨코리아 및 게임업계가 자행하는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343	차별을 멈추세요
3344	오래 좋아하고 싶어요.
3345	혐오로 점철된 게임업계와 업계의 노동관행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3346	집게손이란건 환상일 뿐이다. 환상에 쫓아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회사가 가야할 길이다.
3347	방구석 인셀남들의 말을 대체 언제까지 들어줄셈인가요? 업계 자체가 너무 우스워졌습니다. 억지논란을 멈춰주세요
3348	특정 커뮤니티들만 모니터링하며 그 곳의 악질적인 물타기에 넘어가지말고 회사답게 행동하자
3349	해외에서 이 사태에 대해 얼마나 어이없어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억지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패미니즘을 패는 것을 오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 논란에 넙죽 수긍하는 것이 기업으로써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350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환자들 말 들어주다가 본인들 이미지 깎아먹지 마세요
3351	말도 안되는 억지를 왜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352	작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생계를 붙잡고 뒤흔드는 혐오는 누가 조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채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너무나 너무너 큰 실망입니다. 매번.
3353	계속 그러다 망하세요 남녀차별은 누가하는지
3354	어떠한 차별이나 모욕적인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 게임이 되겠다고 매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응할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남자들만 빨아줄거라고 공지하세요
3355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트집잡기로 시작해 여성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유독 게임 업계에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페미니스트' 인지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없는 논란을 만들어서 뿌리는 악성 민원을 차단하질 못하고, 오히려 기업에서 나서서 노동자의 밥줄을 끊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맞다고 정녕 생각합니까? 그리고 노동자가 페미니스트인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이 세상 노동자 모두가 똑같은 억지 논리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어째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진심으로 그런 미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지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의 복직 혹은 응당한 보호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넥슨코리아가 응당한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3356	흔한 집게 손모양이 어째서 일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는 사상을 몰래 드러낸 행위가 된다는건지, 그리고 그 아무 의미없는 손모양 하나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럼 집게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거나 알람을 끄게끔 홍보하는 애플워치도 일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는 사상을 몰래 드러내고 희열을 느끼는 행위를 조장한것입니까?
3357	억지주장을 들어줌으로써 게임내문제점에 대한 시선을 돌리지마십시오 비겁합니다
3358	고작 1 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온 손가락 동작 하나로 페미라 규정짓고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긴급 공지를 올리는 회사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식 밖의 일이 2023 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3359	억지논란 멈춰라
3360	억지논란에 동조하여 노동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3361	억지 논란을 넘어 여성 혐호 범죄에 동참하지 말라
3362	남자 유저들 억지 좀 그만 받아줘라 환멸난다
3363	애니메이팅의 기초도 모르는 일부 무지한 유저로 인해 업계 직무 환경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3364	평소에 확성기에서 떠드는 패드립 성희롱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들은 싹 다 이 꽉 물고 무시하시더니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보고 손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려고 열심히 그린 거 가지고 뭔 이렇게까지 난리를 부리는지 평소에 하는 소수자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부터 잡으세요

3365	특정 성별들의 억척스럽고 말도 안되는 혐오를 응호하는 기업의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고 한탄스럽네요
3366	걍 게임사업 접으세요 큰기업이면서 소시민 괴롭히는거 정말 졸렬합니다. ...
3367	사상 검증이라는 사유로 개인에 대한 집단괴롭힘 및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당해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3368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3369	취사선택평등 하지말라
3370	정말로 문제시되는 타인(특히 여성)을 차별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더니, 여성 인권향상과 페미니즘에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혐오라 덮어씌워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동들을 하는 짓을 관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371	그렇게 무섭냐? 당장 여성혐오를 멈춰라 말도안되는 혐오논란에 을질대응 하지마라
3372	부당한 처우는 없어져야 합니다.
3373	왜 넥슨이 그리고 게임업계에서 이런 억지를 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손가락을 다 없애지 않는 한 이런 억지 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고 시킬 것입니까? 또한 페미니스트는 여성인권 신장운동입니다 이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3374	게임 관련 민원은 매크로 답변이면서 음모론에 대해선 신속하게 반응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음모론 주장자들과 부디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3375	왜곡된 인식으로 비롯한 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사상검증, 억지논란에 휩쓸려다니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3376	찌질한 헛소리 작작 듣고 노동자들 인권 지켜라!!
3377	논리도 타당한 근거도 없이 악성 사용자들의 잘못된 혐오에 마치 그것이 정답인 마냥 구는 넥슨은 반성하라
3378	현재까지 넥슨 게임을 하고있던 여성유저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매는 물론이고 앞으로 넥슨겜을 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고 하셨으면서 디씨인갤러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혐오표현에는 침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침묵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해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3379	페미니즘이 문제라는 발상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넥슨 및 게임업계가 좋아하는 디씨인벤펨코일베등등만 남을 것. 제대로 된 게임 밸런스/경제 만들기 싫어서 시선 돌리려는것 뻔히 보인다.
3380	지금 엄청 우스워보여요 정신 좀 차리세요
3381	여성 캐릭터의 나체에 가까운 의상은 당연하고 집게 손가락 모양은 남성혐오인가요?
3382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3383	사리분별이 이렇게 안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정도면 뇌를 외주 준 거 아닌가요
3384	억지 판정을 주장하는 이들, 그를 들어주는 이들을 규탄합니다.

3385	디씨,인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클레임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넥슨 및 게임업계의 주 이용 고객은 남성으로만 이뤄져 있지 않으며 2023 년인 지금. 세계적 인권의식에 반하는 사상을 하는것은 당사(넥슨)및 게임업계 입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와 디씨,인셀들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386	사상검증 넥슨기업 규탄합니다
3387	다른 문제 제기할때는 잘만 무시하면서 이런거는 벌벌 떠는 꼴이 너무 우스워요 혹시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별거 아닌 논란 크게 키워서 묻어가려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3388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혐오몰이는 즉각 중단하라
3389	혐오에 뇌를 의탁하지 말고 이성적인 생각을 좀 하고 사십시오.
3390	오로지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사상검증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혐오 여론을 옹호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넥슨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3391	외국인들에게 일상에서 쓰이는 집게손 모양이 '남자 성기가 작음'을 뜻하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 할까요? 억지 주장은 해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392	나라가 이꼴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페미니스트 때려잡기지만 다음은 또 어떤 황당한 이유로 그들이 떼를 쓸지 진짜 모르는 거야? 바보 집단인가. 수준이 참 낮은 업계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알고 갑니다.
3393	억지논란 창조논란을 통한 여혐방조 그만
3394	21 세기에 사상검증이라니 말세다.
3395	상식적으로 행동합시다
3396	.... 정신차리고 장신줄 제대로 잡으싶시오.
3397	언제까지 저런 블랙 컨슈머의 진상질을 함께 할 것인가? 국내 1 위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쪽팔리지도 않는가?
3398	말도 안되는 투정 그만 들어줘라
3399	해외 홈페이지 공지글로 당당하게 올리지 못할 행동은 국내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국가 망신입니다.
3400	넥슨은 클로저스 사태 이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않아 게임이 망한걸 잘 기억하시고 현명히 행동하세요. 헌법에 명시된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3401	프로젝트 문의 사례를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다니 통탄스럽습니다.
3402	정신차리길
3403	여성/페미니즘 혐오 분위기에 일조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는 규탄 받아야합니다.
3404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나아가 성평등을 저해하는 메세지를 계속 보내는 기업에게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405	여성 직장 동료를 제발 동료로 생각해주십시오
3406	자멸하지말고 그만해라
340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08	저는 게임업계 여성 그래픽디자이너입니다. 쓰리디아트팀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같은 아트팀/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위 사안으로 나도 언젠가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사퇴를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큰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고작 타인의 잘못된 억지와 분탕으로 인해 직장내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게임제작에 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은 사라져야합니다. 이번 사태로 게임업계가 반성하고 보다 나은 길로 성장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3409	여성비하, 여성혐오적인 표현에 관한 지적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남성혐오라는 허상의 개념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는 그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3410	블루아카 문어대가리때부터 그럴줄알았다 자~~랑스러운 한국게임! 자~~랑스러운 젖보똥팔이! 2D 젓보똥 팔아서 돈벌수있는 옛날태평성대 참 그리우시죠?
3411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3412	억지스럽고 말도 안되는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러한 부당 해고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3413	페미니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치하고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3414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애들의 말만 들어주실거죠???언제적 뒤진 메갈 끌어들이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저 손가락에 조롱당했다고 생각할건가요??이게 진짜 한국 게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인가요???본인 스스로 무덤파고 있단 생각이 안드세요???왜 한국게임이 중국게임한테도 뒤쳐지는지 이유를 모르시나요???
3415	악성민원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업계의 대처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16	억지 창조 논란에 대응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혐오 컨텐츠를 신경써서 제작 및 운영 해 주세요.
3417	떼쓰는거 적당히좀 받아주세요
3418	넥슨을 비롯한 한국 게임업계는 극단적인 망상병으로 혐오만을 일삼는 남초 커뮤니티와 그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굴복해 여성을 지우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3419	실재하지도 않은 남성혐오를 주장하는 모지리찌지리그자체집단들의 요구 좀 그만 들어줘라
3420	이런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에서 게임의 의미는 문화가 아닌 질병이 될 것입니다.
3421	여성 노동자를 향한 악의적인 괴롭힘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입니다.
3422	정말 창피합니다.
3423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말도 안 되는 트집 일일히 들어주지 말고.
3424	억지 논란 창조하는 걸 받아주지 말고, 정상 유저들이 비판하는 점이나 적극 수용하라
3425	진짜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럼 뭐 볼펜잡는것도 감자튀김 혹은 그냥 작은 물건 집을때 집게 손가락으로 잡는데 남혐입니까 ? 생각좀하세요

3426	그렇게 혐오에 신경쓰고 사상 안 맞다 하시면 자사의 사상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시죠. 그럼 서로 알아서 피하고 좋지 않나요?
3427	업계내의 여성억압 규탄합니다
3428	나쁜 선례 남기지 말고 억지 요구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3429	외부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작품성, 게임성으로 승부하십시오
3430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3431	메이플스토리를 즐겨 했던 여성 유저입니다. 게임 안에서 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디스코드를 하자고 했던 사람, 만나자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존재했고 그들은 다 남성 유저였습니다. 여성 유저인 것이 티가 나는 순간 끊임없이 나이와 사는 곳, 하는 일, 이름 등을 물어봤으며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 줘도 자신한테 호감이 있다 착각하고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남성 유저였습니다. 또한 게임 안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말과 행동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확성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조롱의 표현을 담은 고확들이 자주 올라왔지만 게임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제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한 일들을 피하고자 여성들끼리 모여 만든 여성 길드는 인벤, 갤 등 커뮤의 타겟이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음에도 게임사에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손 모양을 바꾸다 캡처된 화면을 보고 메갈, 페미라 주장하며 애니메이션을 내리게 하고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에까지 책임을 물어라고 억지를 부리는 남성들의 주장은 단번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게임에까지 피해가 간 이 상황이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도, 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넥슨을 포함한 모든 게임사에게 말합니다.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저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고 싶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 존중 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남성들입니다. 흔히 들어봤을 묻지마 범죄, 강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대부분 알다시피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밤에 늦게 다니지 마라, 짧은 옷 입지 마라, 술자리에서 남자들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한 거리에서 자유롭게 다닐 권리,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 자유롭게 술을 마시며 놀 권리 등등 남성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고 있지만 여성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성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하고 있는 주체는 반페미를 외치며 자신들의 궤변에 따라 모든 것을 맞춰가려 하는 남성들입니다. 김창섭 디렉터님, 메이플스토리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죠? 그 전의 강원기 디렉터님께서는 메이플스토리를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 똑똑히 기억하며 디렉터님 역시 이러한 것을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메이플스토리는 차별과 혐오가 없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성 유저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롱은 예전부터 도를 넘어섰으며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수많은 여성 유저들이 분노하고 게임사에 실망하여 메이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에 차별과 혐오가 없으며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으신가요? 저라면 부끄러워서 절대로 못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든 메이플 인벤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셨나요?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몰아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어그로(관심)를 끄는 것이 즐거워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유저들의 건의로 보이시나요? 게임을 사랑하고 아끼는 유저들의 건설적인 건의로 보이시나요? 저 사람들의 목적은 단지 관심을 끌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을 찾아서 매장하고 그에서 오는 쾌감을 느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유저라고도 부르기 싫은 악성 유저들은 자신들의 억지가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새로운 억지 논란을 만들거나 분탕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할 대상을 찾아갑니다. 20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온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이 이러한 악성 유저들에게 휘둘리기를 원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디렉터님에게 하나만 더 묻고 싶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메이플스토리에 차별과 혐오가 없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 맞는지요. 이에 대한 답은 디렉터님이 스스로 고민해보시고 유저들에게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432	제대로 철퇴좀 맞았으면
3433	여성혐오, 부당해고를 하는 기업이 한국 대기업이라니 쪽팔리네요
3434	여성 유저와 근로자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남성 유저만 사람이 아닙니다.
3435	억지 주장을 수용하여 약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를 멈춰라. 실제 기업 이윤에도 해악을 끼칠 뿐이다.
3436	혐오를 끌어와 희생양을 내걸고 내치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선 안될 야만적인 행위임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437	억지 좀 그만부려요
3438	반복되는 여성혐오 및 여성노동자 해고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3439	반페미 인셀 집단의 말도 안되는 생떼는 무시하세요. 계속 들어주니까 나라가 천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제발. 하루하루가 역겹습니다.
3440	그저 재미와 혐오를 배출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정말 유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업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441	넥슨 정신차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3442	여성 혐오를 인지하고, 사회에 악영향 끼치게 하지마라
3443	뿌리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단계를 위한 그 짧은 프레임이 정말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어떤 위협을 느끼는지.
3444	이런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고 음모론을 주장하며 한 개인에 대해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을 일삼는 반사회적 혐오 세력, 일명 '인셀'에게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동조한 넥슨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음 싶습니다.
3445	기본만 합시다. 기본이라도 합시다.
3446	더이상 악질 유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상 유저들이 안심하고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3447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448	게임업계 수준이 글로벌시장은 커녕 국내 인셀 남성 대상으로 추락한 것 같습니다.
3449	순간포착조차 시비걸면 털려주다니 뭡니까 대체
3450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고 갑질이라 느껴집니다. 말이안되는 억지 논란에 넥슨은 하청기업을 죽이고있습니다.
3451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것은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혐오자라는 말입니다.
3452	귀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똑바로 직면하라
3453	넥슨이기에 할 수 있었던 억지 논란 무시를 최악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쁜 선례로 만들어버린 넥슨사의 근시안적인 행보를 규탄합니다.
3454	억지 논란을 멈춰라
3455	게임 속 페미니즘 혐오와 직원을 향한 사상검증을 그만둬라!
3456	...부디 더 나은 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3457	쪽팔린줄 아세요
3458	야애니 장면같은 캐릭터 만들어온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는건지 왜 손가락 가지고 사과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넥슨
3459	여성유저와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조치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냥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하십시오.그러면 거르기라도 하지.
3460	사안에 대한 운영진의 몰상식하고 무지성한 업무 대처 능력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성 혐오에 일조한 넥슨 코리아의 무책임한 태도를 부디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3461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462	억지 논란은 게임산업의 퇴행을 불러올 것입니다. 과도한 신체 노출과 일반적이지 못한 여성신체를 부각하는 여성 캐릭터들을 생성하는 현 한국 게임산업이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3463	말도 안되는 여성 혐오 종자들의 억지 논란과 사상 검증으로 개인의 노동 권리를 침해하는 짓을 멈추세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2023 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3464	이런 일 좀 그만!
3465	억지 창조 논란에 휘말리지 마세요
3466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3467	게임업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제대로 잘 알길 바랍니다.
3468	넥슨 및 게임업계는 모든 종류의 혐오에 반대한다는 본인들의 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그만두십시오.
3469	이런 같잖은 일에 과잉대응하고 인셀들 목소리에 마이크 대주면 얘네가 여기서 끝낼까요? 더 당당하게 사회에 나오고 온갖 해악 끼칩니다. 넥슨은 사회적인 문제를 더 키우는 거에요. 사회를 더럽히는 애들에게 발언권을 더 쥐어준겁니다. 심각성 인지하고 본인들 책임도 인정하세요.
3470	여성이 일터에서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노동권 침해를 멈춰라
3471	우물 안에 빠져 지성이 있는 현대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3472	주이용층의 비위를 맞추느라 성평등 이념을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3473	여성을 제멋대로 재단 및 재제하려는 행위 규탄합니다
3474	별의별 억지에 놀아나는 게임업계 언제 바뀔건가요.
3475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규탄합니다.
3476	한국 게임 사업은 미래로 가고있지 않다 현재도 과거도 아닌 한줌의 기분풀이 장난감으로 스스로 전락하고있다
3477	일부 유저의 주장만 믿고 근무자의 사상검열을 하지마라
3478	왜 다른 약자 혐오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남성혐오에 관련해서만 문제삼고 사과하고 수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왜 페미니트를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검열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평등을 지향하는것이 옳은 것 아닌가? 왜 게임업계는 시대 역행을 하는가
3479	일부 유저들의 과장된 해석으로 누군가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480	앞으로 이런일이 없었으면합니다
3481	페미니즘에 부랄발작할 시간에 여캐 벗긴 옷이나 다시 입혀라 ㅗ
3482	사상검증과 페미니즘 혐오몰이가 반복될수록 도태되는건 한국 게임업계입니다. 사상검증과 논란만 가득한 게임을 누가 하고싶겠나요. 일부 유저 말만 듣고 사람을 잘라버리는 게임이 잘 돌아갈리 없습니다. 그들만 게임하는것이 아닙니다.
3483	억지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 여성혐오적 기업 넥슨은 망해라
3484	국내 게임업계에서 메이저에 위치한 넥슨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다니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메이저 회사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업계, 더 나아가 사회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넥슨에서 제작한 게임들은 나이어린 학생들도 많이 플레이하는데 그들이 올바른 인식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영향력을 퍼뜨려주세요, 게임에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게임은 일부 유저들만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3485	어떤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사상검증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사상검증이 버젓이 행해지는 게임업계의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2023 년인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헌법에 규정된 가치를 새삼스레 천명해야 하다니요. 모든 노동자가 개인 사상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3486	벌써 2023 년이 지나 곧 2024 년이 다가옵니다만 게임업계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입니다.
3487	게임업계의 억지스럽고 빈번한 여성혐오몰이를 규탄한다!
3488	이건 새로운 형태의 마녀몰이 입니다. 기업이 페미니즘을 하나의 마녀라는 프레임에 씌운 새로운 탄압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성근로자가 과연 게임업계에서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하나의 마녀몰이에 이입하며 동조하고 기본적인 법제도도 지키지않는 것을 당연시하는게 슬프네요.
3489	고용시장에서 그렇지않아도 여성 차별적인 행태를 기업이 더욱 강화시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인셀들의 행동에 묵인하고 동조하는 걸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3490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491	일상적인 손의 움직임이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어린 아이 어르듯 들어주지 마십시오.
3492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3493	남녀임금격차 1 위 국가에서 사상검증을 통해 한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회사, 그리고 사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과 주장을 통해 여성을 끌어내리려는 남성 소비자들,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하는 회사들에게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일 뿐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힘을 싣지 않겠습니다.
3494	혐오를 반대하신다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아이러니를 규탄한다.
3495	게임업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게임 문화를 만들기 전에 윤리와 법부터 배워야합니다. 악덕 사용자로부터 직원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라져도 됩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면 없어져도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세요. 넥슨이 이윤보다 여성억압에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에 창피해하십시오.
3496	평소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던 여성 유저로서 그동안 현재 문제가 된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수없이 자행되던 혐오 표현, 성희롱, 게임 캐릭터 비하, 게임 유튜버를 향한 사이버 불링 등은 묵과해 왔으면서 이런 터무니 없는 창조 논란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대응한 것에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넥슨 같은 대기업이 일부 집단의 망상에 휘둘려 마녀사냥을 주도함으로써 성실히 근무하던 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에 팽배한 여성 혐오에 힘을 실어준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3497	넥슨은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검열을 행한 작업물을 원상복귀하라
3498	집게손 억지논란에 더이상 휘둘리지말고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 문화 양상을 위해 힘써주세요.
3499	모두가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3500	커뮤니티 소수 남성의견에 그만 좀 휘둘려라.

3501	혐오는 바로 넥슨이 하고있다
3502	혐오에 기반한 내용인지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밥줄까지 끊어버린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기업 이미지까지 갉아먹는 짓인 걸 아세요 좀.
3503	집게 손가락의 표현이 페미니스트의 폭력적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습기 그지없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생떼에 가까운 말입니다만은 이와 별개로 페미니스트라고 공격받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3504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
3505	안티페미야 말로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왜 말도 안되는 논란에 부화뇌동하여 성차별에 한발 다가가려고 할까요?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주장은 말그대로 억지입니다.
3506	대기업의 대처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3507	편향된 의식에 부화뇌동하는 게임업계는 자중하라!!
3508	악성민원인 수발 들어주는 거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게임업계 외 다른 업계에도 거대한 민폐입니다. 어디 가서 게임하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쪽팔립니다.
3509	허위 사실 몰이로 페미니즘 혐오를 일으키는 집단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들어주며 그들에게 고개를 굽히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우월주의나 사회에 대한 테러가 아니며 여성들이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그들은 과연 누가 인권을 짓밟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3510	일상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의미없는 손동작 하나하나에 쓰잘데기라곤 1 도 찾아볼 수 없는 에너지 불태우는 저 바보들과 같이 게임해야 한다니 너무 비통한 일입니다. 여자인 나는 니네들한테 돈 잘 줘가면서 가챠 돌리는데 왜 여자란 이유로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목도해야 하나요?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대화를 할 의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디 뇌 빠진 대처 그만 보이시고 진상들의 무리한 요구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3511	다분히 편파적인 사상 검증과 마녀 사냥 식 일 처리를 그만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023 년입니다. 수많은 게임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는 어떻습니까? 집게손가락은 집게손가락일 뿐입니다. 정말 거기에 어떠한 이념-그들이 성기 크기를 표현했다고 주장하는-이 들어가 있습니까? 손은 손으로 존재할 뿐인데 그것을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정황을 전부 없애고 나서 게임 내 매출액이 기하 수적으로 증가하거나, 플레이어가 대거 유입하는 변화가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어, 순수한 게임을 즐기는 풍조를 세울 거라면 온갖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비하, XX 린이라는 아동 비하 표현, 수많은 여성 혐오적인 표현과 정치적인 맥락은 배제하지 않은 채, 단순 의혹의 삽화와 영상을 내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게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편의성을 고칠지, 그리고 게임사가 해당 pv 를 만들면서 자랑할 부분이 어떨지 그에 대해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1 프레임 남짓한 손가락만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이벤트 pv 를 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또 어떤 이유로 같은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똑같이 응대한다면 어떤 이벤트를 열 수 있겠습니까? 게임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사상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나오는 일에 침통함을 느낍니다. 다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 국외에서는 이러한 게임을 전할 수 있기 위해 지금이라도 바르고 건전한 문화를 세우는 데 주력하기를 빕니다.
3512	말같지도 않은 억지논란에 사과가 웬말인가요? 넥슨은 여성이 우스운가요? 아니면 남성 유저만 고객인가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351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3514	게임 유저간의 성별 갈라치기 및 비정상적으로 해당 손 모양에 집착하는 반평등주의 사상의 특정 온라인 집단 유저들의 광적인 행동에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3515	페미니스트를 반대한다=성차별한다 는 말임을 정녕 모르시나요?
3516	여성유저도 같은 소비자입니다. 왜 억지가 되는 주장까지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넥슨이 진정 여성유저를 사람으로 본다면 사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517	특정 커뮤니티의 주장을 진심으로 믿고 하는 일인가요? 단순한 스포츠, 혹은 유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여론몰이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게임 업계의 상생과 발전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를 중단해주세요.
3518	손가락 모양에 집착 좀 그만해
3519	자연스럽게 물건을 집는데도 나오는 집게 손가락 모양이 혐오의 수단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동의하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창작물과 일상생활에서도 집게 손가락을 안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억지이며 더 이상 사상검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생계를 위협 받는 분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3520	혐오하는 모든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성유저들을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3521	'집게손'에 대한 논란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하였다면, 넥슨 및 게임업계는 해당 논란이 억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혐오로 이어간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부 유저의 글만 보고 판단하여 성급하게 대응한 것이라면 그것또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에게 묻고 싶습니다.여성은 게임을 하는 유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3522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생계수단을 끊길 정도의 잘못인가요? 성차별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경악스럽습니다.
3523	현재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증명할수도 없는 인권침해를 저지른 넥슨은 반성하시고 이 사태를 해결 하세요.
3524	천년 만년 인셀남자들 부둥부둥 안고 돈 뜯어먹으며 사세요~~
3525	일부 남성 유저들의 의견에 휘둘려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을 누가 믿고 선택하겠습니까?
3526	메이플 확성기로 티내는 여혐, 일베나 잡으세요
3527	페미니즘과 관련없는 집게손으로 억지논란을 만드는 무지성한 남성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라
3528	넥슨은 인벤 및 디씨의 의견이 해당 게임의 유저 전체의 의견인 양 굴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묵인할 사항은 침묵으로 응해야 한다.
3529	남자들의 억지 논란에 대꾸하지 말아주세요
3530	대기업이 일부 억지 주장에 굴복하여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531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임 대중문화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이나 하청을 희생양으로 던지지 말고 제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한국 게임업계가 만들려는게 한두명 매달고 통쾌해하는 교수대가 아니라면 이런 헛짓거리할 시간에 더 나은 게임경험을 만드세요.
3532	제가 사랑하는 게임이 극단적인 일부 커뮤니티 주장에 휘둘리는 꼴이 안타깝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한 명의 게이머로서 관련직종분들이 부당하게 직장을 잃거나 공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3533	한국 게임회사들응 잇따른 블랙컨슈머의 여성 노동자 괴롭히기에 동조할 것을 멈춰라
3534	정신차려라
3535	남혐은 자르고 여혐은 방치? 공평하게 해결해주세요. 글로벌로 공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3536	여자들은 가슴작다는 성희롱을 들어도 남자들처럼 모여서 화내고 총공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작다고 소리쳐도 일상생활에 타격이 없기때문이죠. 하지만 남성들은 성기가 작단 소리를 들으면 발작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정신과 몸이 열등하기 때문이죠. 정신차리세요
3537	제발별것도아닌거에난리치지마쇼
353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한다
3539	남성 유저들의 억지를 그만 들어주십시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도 트집을 잡고 패악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상들의 말을 들어줄수록 오히려 일반 유저들만 줄어들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범법 행위를 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회사로 찾아가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보호해 주십시오.
3540	넥슨은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일련의 남초 반페미니즘 주장에 동조하지 마라
3541	어느 한 커뮤니티의 악성 민원조차 아닌 비판 여론에 휘둘려 한 애니메이터의 커리어와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친 이같은 사건은 다른 어느 국가의 그 어떤 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미진함과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귀사에서 세계라는 큰 무대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유튜브나 디씨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 등지에서 일부의 악성 유저들이 속칭 '테러'를 하는 것은 여타의 게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나, 유독 페미니즘에 관한 화두에 민감하고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귀사의 게임을 즐겨온 유저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보입니다. 아직도 이런 행태가 남아있다는 것에 무척이나 심심한 유감을 느낍니다. 이는 업계 상 관행이라는 말로는 이루 담을 수 없는 참람된 일이며, 속히 근절되고 교정되어야 할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더구나 한국 게임업계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귀사이니만큼 현명하고 올바른 대처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3542	에휴..
3543	한번도 세계 정상에 서본 적 없는 한국 게임업계가 여성혐오만은 어느 나라보다 잘하네요
3544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3545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놀림당하는 수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건 게임업계뿐이다. 게임 산업의 벨류를 높이고자한다면 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라
3546	사상검증을 멈추고 페미니즘을 악으로 규정하지 말라. 스스로 성차별주의자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3547	이러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게임업계의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라.

3548	반페미니즘 성향을 가진 특정 커뮤니티 집단의 마녀사냥과도 같은 '페미 색출' 테러 행위를 언제까지 허용할 생각입니까? 성차별을 부정함과 더불어 인권 평등에 의의를 두고있는 '페미니즘'은 어디까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개인적 사상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 또한 하나의 사상에 속할 뿐입니다. 게임업계가 주 고객층이라고 판단한 특정 집단 사이에서 유행하는 과격한 민원 테러 행위를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작업물에 대해 내세우는 '집게 손 모양과 유사한 손 동작=페미니스트들의 남성의 생식기 비하의미를 담았다'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자체검열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업계 근로자 또는 외주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이며 가볍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명백히 사실무근한 일에 대해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루머를 퍼트리며 근로자에 대한 사이버불링을 일삼는 특정 유저층을 제재하기는 커녕 그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여 존중해주는 현 게임업계의 바톤넘기기식 대응이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의문이네요.
3549	도태되어서 망해라
3550	정신 차리십시오. 근거 없는 밈적 혐오 스포츠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 인권적 흐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국 게임계만 도태되고 있습니다.
3551	당연한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작더라도 힘을 보탭니다.
3552	대한민국 게임 개발계는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3553	있지도 않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일부 유저들의 장난질에 넘어갈만큼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넥슨 업계는 이 사태를 똑바로 직시하고 허위논란을 퍼트린 자들을 제대로 색출해내길 바란다
3554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여론몰이를 부추기며 여성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넥슨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억지 창조논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여성탄압에 동의하고 구조적 약자를 향해 칼날을 돌리는 그 비겁하고 졸렬한 행위를 멈추십시오.
3555	고작 0.1 초정도의 애니메이션 속 손가락놀림이 페미니즘적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건가요? 일부 유저들의 거짓된 논리와 허구적 발언에 편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3556	말도 안되는 논란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게임 업계가 조롱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557	말도안되는 생떼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3558	억지 논란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써 차별을 가중시키지 말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559	성차별 및 사상검증 규탄한다
3560	자그마한 손동작 하나가지고 의미부여 하면서 타겟 잡아서 시끄러운 일들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561	업계 대표적인 회사라는 곳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일부의 의견만 듣고 사과문까지 발표하다니 통탄스럽습니다.
3562	게임 업계에서의 여성 혐오를 멈춰주세요
3563	정신 좀 차려라
3564	흘러넘겨야할 인셀들의 반페미니즘 정서를 부추기는 넥슨의 행태를 규탄한다

3565	수많은 게임 내외 이슈들 중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재빠르게 꼬리자르기를 하는 작태를 참을 수 없어 해당 게임사들을 불매하겠습니다.
3566	억지논란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짓 그만하라
3567	정신좀차렸으면..
3568	이상한 여론몰이로 정직하게 일하는 일반 직원들까지 이상한 오해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569	게임업계의 여성노동자 부당해고와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3570	인셀 및 반페미 집단만 소비자 입니까?
3571	말도 안되는 페미니즘 논란 멈춰주세요..
3572	하도 뭐라해서 나도 메이플 pv 봐서 하는 얘긴데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줘서 스스로 회사 제품을 흠결 있는 걸로 만들어버리는건지, 그 "비합리적인"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리고 넥슨 너네 때문에 내 게임까지 분탕분자 왔으니까 책임져라. 안 그래도 숨어서 게임하는데 이따위로 할 거냐
3573	넥슨 및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어디서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574	게임 밖의 여성을 유저로, 게임의 주체로 인정하라. 게임 속의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캐릭터로 창조하라.
3575	혐오를 반대한다면서 정작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혐오라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멈추세요.
3576	말도안되는 똥고집에 힘 실어주는 넥슨 불매한다
3577	정신좀 차리라고 하고싶네요
3578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로 직원들 보호 밑 컨텐츠 제작에 이상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건 사업적으로도 좋지 않을텐데 어리석네요
3579	혐오 조장에 동조하는것, 노동자 탄압으로 이어지는것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3580	게임사는 혐오로 무장한 일부 유저들의 억지에 대응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581	말도안되는 트집을 향한 거듭된 사과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성취감을 남겨 결국 더더욱 말도 안되는 트집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3582	나날이 퇴보하는 게임사를 규탄한다
3583	직원 및 하청업체에게 올바른 대우를 하며 인벤 억지 의견을 넘길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584	억지 논란에 굳이 반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585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도 수준 낮아 기가 막히지도 않네요 달을 보라니까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운영진 수준 아주 잘 봤습니다
3586	소비자말은 무분별하게 들으며 수용하고 왜 정작 당신들과 협업하는 실무자의 말과 인권은 무시하나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대처가 나올 때마다 당신들이 '다같이', '협동'이라는 개념을 알고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3587	집게 손가락이 무서우면 독수리타법도 무섭습니까? 집게 손 논란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만드는 논란입니다. 어린애처럼 떼쓰는것글에 대응하지 말고 제발 사람다운 생각을 해주세요. 무조건적인 피드백이 바람직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88	게임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한다
3589	집게손이 욕이면 뭐든 다 욕이지 않을까요?
3590	집게 손모양에 사과하는 것은 페미니즘 혐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를 없애십시오.
3591	인셀남들의 억지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3592	게임 잘 하고 있는데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심각한 사회문제라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고작 "일부" 남초 커뮤니티 의견에 빠릿한 반응 해줄 필요 있나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이라는 티를 그렇게까지 내지 마세요;
3593	개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들은 본질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해라
3594	더 이상 억지 창조 논란에 대응하지 말고 일반인이 사이버불링을 당한 것으로 고용 취소하는 것을 중단바람
3595	혐오를 멈추세요
3596	지금 2023 년입니다. 페미니즘은 매너와 에티켓 같이 사람이라면 가져야하는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넥슨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당신들 넥슨을 포함한 게임업계는 지금 소위 인셀이라고 불리는 남초집단의 혐오와 성차별, 사상검증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정작 남초집단이 주장하는 남성비하 표현은 있지도 않은 억지였고 단체피해망상 수준의 말도안되는 생때에 불과했는데도 말이죠.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당신들의 행동을 전세계에서 보면 전세계가 비웃고 조롱할 정도로 한심한 짓거리를 한겁니다. 남초집단과 당신들의 사상검증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2 차 가해와 조롱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할 게임업계, 그것도 그중 대표라고 불러도 좋을 넥슨이 클러저스의 사상검증과 성우교체 사건 이후 7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인셀들이 요구하는 혐오와 사상검증, 성차별에 제일 먼저 동조하고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2023 년입니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져야할 것 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과 게임업계는 아무런 싸움과 차별 없이 누구든 즐겁게 즐길 수 잇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상검증으로 혐오와 성차별에 앞장서는 게임이 아닙니다. 혐오, 성차별, 사상검증에 앞장서 동조하지 마세요. 인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지 마세요.
3597	본인들도 무슨 소릴 하는지 잘 모르는채로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말도 안되는 패악질을 받아주는건 그들과 같은 수준인 기업이 아니고서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하지않을 대응만 골라서하는 행보, 과거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않은 모습 모두 정말 실망스럽고 앞으로 한국 게임계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뿐이 들지않습니다. 한국 게임은 천박하고 저열한 유저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서비스하는건가요? 오랜시간동안 게임을 해온 한명의 유저로서 통탄스럽습니다.
3598	약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통념/일반적인 것으로 여기고 사회적 기득권에 대한 혐오란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 허상을 앞세워 약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세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한국 게임업계는 물론 한국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3599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해고 및 여성혐오를 멈춰라

3600	왜 아니라고 하질 못해서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야니메이션의 동화 한 프레임때문에 억지 부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601	언제까지 저런 말도 안되는 억지에 끌려다닐건지
3602	성남시에 근거지를 둔 넥슨의 횡포에 대해 성남여성의전화도 민우회와 적극 연대하려합니다. 성남여성의전화는 넥슨 및 게임업계가 남성소비자만을 소비자로 대우하며 게임 속 여혐 표현에 관대한 작금의 작태를 반성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착각에 불과한 억지논란에 과잉대응할 여력으로 캐릭터의 외모와 태도, 복장으로 표현되는 여혐을 점검하라!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설령 남성만이 향유하는 게임 속에서도 기업에게는 사회악을 재생산하지 않을 인도적 책임이 있다. 이중 잣대를 일삼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3603	제발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게좀 생각해라
3604	예 그렇게 여자들 무시하고 그러다 업계 망해주세요 제발 그 후에 또 여자 탓 하겠죠 그냥 살지 말아주세요 제발
3605	진상손님으로부터 노동자와 자신들의 창작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가 여러분의 청사진이라면 계속 그렇게 경영하세요. 타 해외 게임회사에는 일언반구도 못 꺼내는 트집을 국내 게임사에만 열렬히 요구하는 그들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소비자라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이 생명줄 처럼 붙잡고 있는 비이성적인 일부 유저들이 오히려 당신들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방화질이 버거운 것 또한 사실이지만 게임판 좀 보면 아시잖아요. 여론이 환기 안되는 고인물 판에 뉴비는 점점 뜸해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수익은 늘지 않는 다는 거. 당신들의 유약함에 질린 보통의 유저들은 이미 국내 게임판을 떠나 해외 게임으로, 콘솔 게임으로, 인디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저 뿐일까요? 제작인력과 매니징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의 문제를 넘어 제발 10 년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경영을 하세요. 이러다가 넥슨의 혁신은 제주도 컴퓨터 박물관의 연표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사건이 될 거예요
3606	일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수정 요구와 논란에 대기업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쓰게 만드는 행위들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앞으로의 게임 업계 및 일러스트레이션 업계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607	여성 노동자를 향한 마녀사냥을 중단하십시오
3608	정신차리길

3609	개인의 사상이 작업물에 반영 되었다는 여론을 팩트체크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개인을 포함한 외주 업체를 문제 삼아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최선의 대처였는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은 사상 검증에 이용 되는 도구가 아니며 아무런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작업물을 낱낱이 파헤치는 의도는 여성 혐오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론을 신경 쓰는 것이든, 회사의 사상이 그러하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페미니즘이라는 사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외주 업체와 협업을 그만 두겠다는 회사의 입장에는 과연 그 어떤 사상도 없는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논리가 있는 근거로 대답해주십시오
3610	현장에 참여할 순 없지만 본문 그대로 모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3611	억지 논란과 그에 대한 피드백을 멈춰라
3612	악성민원에 굴복해 작업자를 내치는 행태를 규탄한다
3613	불합리한 요구를 거르지 못한다면 남는 건 발전 없는 저질의 컨텐츠와 유입 없는 분탕 유저 고인물 뿐입니다.
3614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대응이다가 이번 사태에만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 유발 직원이 여성이기 때문인가요. 그럼 이전 다른 사태때는 왜 해당 직원을 가만히 두었나요.
3615	페미는 그 손가락에 아~무 관심 없다
3616	추억이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게임하면서 여태 봐온 많은 혐오표현들은 무시하고 집게손 하나로 사람 생계를 위협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실망이 큽니다.
3617	규탄한다!
3618	게임업계면 게임을 열심히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직원의 개인정보도 지켜주세요
3619	게임 업계를 향한 사회의 인식이 더 나아지려면 내부적인 인식의 변화, 문제 해결 방식의 전환 역시 필수적입니다. 진정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게임은 비논리적인 혐오를 방패막이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게임을 하는 시대입니다. 더는 젊은 남자만 게임을 향유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타당한 죄를 묻는 것도 아닌 진상짓에 언제까지 어울려주실 셈인가요. 넥슨이 클로저스 성우 분을 해고했을 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많은 시간이 흘러 현재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넥슨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네요. 몇 년의 시간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세월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건지, '약자를 짓밟고 혐오할 수 있는 반사회적인 집단의 권력'을 사랑하는 건지. 넥슨의 현 행보는 후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 주십시오.
3620	그들의 억지에 휘둘리지마십시오.
3621	인셀들의 놀이에 그만 놀아나세요.
3622	손가락 자르길
3623	정신 좀 차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일이면 일 답게 이성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3624	먹금하면 될 일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는지?

3625	게임업계에서 지속되는 성차별을 규탄하고 방구석 인셀남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
3626	업계 내 사상검증을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하세요.
3627	세상은 반드시 더 나은쪽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억제하려 해도 변화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3628	스스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자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생계와 매출을 위협받는 상황인지 먼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3629	도태 남성들의 재미추구식 집착 및 광기 심화에 맞장구 칠 시간 있으면 게임 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이나 잡으세요.
3630	그 동안 항상 크고 작은 잡음들이 만연하던 동안에는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던 게임업계들이 꼭 특정 논란에만 부리나케 반응하는 모습은 그저 업계 내의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꼴인 것 같네요. 단지 페미라는 두 글자에만 예민하게 반응해서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창작물들을 트집잡아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상을 검증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정녕 당당하시다면, 글로벌 공지로도 꼭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631	인간이 되십시오
3632	21 세기에 이게 지금 맞습니까?
3633	이런 차별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3634	이대로 계속 저들의 억지주장을 받아주다간 한국의 게임발전은 pc 가 없는 곳보다도 더디게 될것이다
3635	남성들의 저런 억지를 받아 주면서 사회 속 여성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주는 곳이 게임업계의 대기업 넥슨이라는.. 게임 업게는 특히 글로벌 기업 아닌가요? 세계적 망신입니다. 혐오몰이 그만 해 주세요.
3636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여성 개발자도 당신의 소중한 동료입니다. 억지부림으로 남의 밥줄 끊지 말고 그들과 화합해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더 산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3637	억지 논리에 사과 하지 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라
3638	말도 안 되는 페미니즘 혐오몰이 중단하라
3639	남성유저들의 억지스러운 논란 주장에 여자혐오, 페미니즘 혐오를 회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동조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운영하는데에 있어 저런 억지논란에도 대처를 해야하는가도 생각해보시고 공부 좀 많이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3640	사상검증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3641	게임은 가상의 유희입니다. 현실을 게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주십시오. 상식에서 끊어낼 수 있는 사안을, 새로운 혐오의 탄생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분명히 이른 시점에 종식시킬 수 있는 사안을 부풀려 소비자, 그리고 게임업계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책임을 그 행태에 실망해 등을 돌린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상식을 잃지 않으셨음을 믿고 있겠습니다.
3642	그런거 잡아낼 시간에 여성 신체를 말도 안되게 왜곡한 일러스트나 어떻게 해라

3643	남자들의 피해의식 및 망상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검증이 말이 됩니까? 넥슨 어렸을때 많이 했던 게임으로 추억들이 많았는데 언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업체가 된 것인지,,,앞으론 넥슨을 이용할 일 없을 것이며 도태집단을 따르는 것은 본인들이 도태되는 길이라는 걸 이번에 깨닫길 바랍니다.
3644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동당해 자사 직원과 외주 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춰라.
3645	여성혐오발언과 그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으로부터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646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오를 멈추세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결과물은 즐기고 싶지 않습니다.
3647	넥슨에 실망했고 인셀 말 그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648	지금은 억지논란을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하는게 빠르게 논란을 잠재우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억지논란에 수용하고 사과한 후 기업에게 오는 것은 더 집요하고 억지스러운 사상검증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옳고 상식적인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3649	넥슨은 여성 혐오를 멈추세요.
3650	남자들만 이뤄자 세상을 살 건가요?
3651	혐오를 위한 억지를 받아주는 업계 관행 멈춰야 합니다. 저질스럽고, 멍청하며, 우스운 작태입니다.
3652	일부 남성 유저의 뜻만을 받아들여 여성 직원 및 여성 유저들을 탄압하는 게임업계는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현대 사회의 기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 시대에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배척하고 특정 집단의 비상식적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앞으로 나아가긴 커녕 퇴보하고 있음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3653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그만 두십시오.
3654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3655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3656	넥슨의 사상검증에 반대합니다.
3657	메갈 손가락은 페미니즘의 암호가 아니며, 페미니즘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고,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직원을 자를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논란을 논란이랍시고 퍼트리는 유저와 말도 안되는 논란을 불미스러운 일로 만들어 해고하는 넥슨 그리고 게임 업계는 업계의 혐오를 답습하지 말라.
3658	여자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이다 정신차려라 넥슨 및 게임업계들아!!
3659	마녀사냥식 부당한 갑질 집어치워라
3660	남의 생업이 달렸다는 점에서 한국게임에 쉽게 손 못대겠네요. 이제는 책읽거나 외국게임이나 해야겠어요. 여러분 좋다는 사람들 여전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 호구잡고 사세요.
3661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노동자에게 갑질을 행하는 넥슨의 범법행위를 규탄합니다! 노동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3662	본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방패막으로 쓰는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를 가진 소수 때문에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3663	페미니즘 검열 중단하라
3664	남성들의 억지논란으로 인한 여성혐오를 당장 멈춰주세요.
3665	그냥 이상한 말에는 무시를 하면 되는데 법까지 어겨가며 2023 년에 차별을 한다는것이 믿어지지않고, 이게 업계 수준이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임은 아직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만드는데 넥슨 및 게임업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 스포츠까지 올림픽에 들어간 2023 년에 부끄러운줄 아셔야합니다
3666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업계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3667	진짜 작작해라
3668	비상식적인 대응입니다. 가치관이 중대한 사안이지만 솔직히 가치관이 개입할 여지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비정상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669	부끄러운줄 아시길
3670	작은 성기 표식에 겁을 먹기보다는 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3671	게임업계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여성종사자를 보호하라!
3672	혐오와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아주세요
3673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혐오세력의 트집과 억지 선동에 놀아날 작정인지 궁금하네요. 본인들의 행보를 돌아보며 부끄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3674	언제까지 억지논란에 동조할생각입니까? 본인들이 진상을 스스로 만들고있다는것 인지하고있습니까?
3675	넥슨은 큰회사인만큼 좀쫌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이제 좀 하지 마라 화상들아
3676	넥슨은 인벤 그만 눈팅해라 공식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그동안 메이플에서는 혐오가 들끓었는데 (ex. 바싸개 버프싸개 퐁퐁남 물소 리선족) 그건 장난이고 억지 손가락은 혐오며 인권유린인가? 그와중에 페미<라는 단어를 못박으면 해외에서 난리날거 아니까 조심한거 같은데 여혐하는 주제에 왜 당당하지 못한가? 이게 진정한 강약약강아닌가?
3677	게임업계 재직중인 여성입니다. 게임산업의 발전과 더 즐거운 게임개발을 위해 더 이상 악성유저들의 행동에 휘둘리지마십시오. 그들의 억지스러운 논란제기에 동조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3678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3679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할 것이며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 또한 없어야할 것입니다.
3680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과 요구에 굴복하는 수치스러운 게임업계 아니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3681	사상검증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흐름에 합류하는것을 즉각 멈추어라.
3682	이래서 글로벌 게임은 못 만들고 유저들 등골 빨아먹기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3683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3684	검열을 멈추라
3685	평소 다른 남초의 혐오표현들(노무현 대통령 모욕이나 여성, 장애인등 소수자약자 혐오표현)에는 별 말 없이 방치하다가 1 프레임의 순간적으로 지나간 컷에억지를 붙인 이번 사안에는 굳이 라이브 까지 켜서 열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3686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유저들의 떼를 받아주는 사태에 당황스럽습니다.
3687	대기업에 걸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길 바랍니다. 억지 논란 투성이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3688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블랙컨슈머들의 말도안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을 검열하는 행위는 그만둬라
3689	수오지심.
3690	게임을 좋아하는 여성으로써 나를 존중하지않는 게임을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과 멸시와 모욕을 견뎌내야하나요? 언제까지 여성인권 운동을 반사회적인 폭동몰이라는 주장을 하는 그 "일부 남성" 의 목소리만을 들을건가요? 여성은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막대해도 되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 당신이 상품을 제공하는 "고객"입니다. 성차별적인 행동을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당신의 게임을 즐겼던 여성들에게 사과하세요 당신들이 억지로 잘라버린 노동자 여성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남자로만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반절은 여성이고 여성은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3691	게임업계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3692	상식을 탑재 바랍니다.
3693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고 반응하는 당신들이 가장 치졸하다.
3694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손가락 모양 그것도 원화에 필수불가결한 초단위로 들어가는 딱 한컷 캡쳐해서 여자가 그렸다고 해고한다는게..꼭 외신에도 알리고 싶네요
3695	게임업계의 유구한 여성차별을 반대합니다.
3696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에 한 기업이, 그것도 대기업이 헐레벌떡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한심해서 비웃음이 납니다. 애초 해당 손 모양이 어째서 페미니즘으로 연결되는지 약 10 년간 페미니스트였던 사람은 그저 어리둥절합니다ㅋㅋ 반페미 집단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며 집단적 어리석음에 휩쓸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가치있는 토론, 토의가 아닌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생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떼를 받아주는 기업과 사회라니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해외 언론 보도자료 좀 똑바로 보십시오. 얼마나 이나라의 수준이 처참한가... 그러면서 저출산 운운하지 마시고요
3697	게임회사들 페미니즘 혐오에 동조하고 여성혐오하면서 여성유저들 상대로 돈벌려고 하는거 짜증난다 페미니즘 혐오에 동조할거면 '우리는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회사입니다' 대문짝만하게 써놔라 소비자인 나도 어떤회사에 돈쓰는지는 알아야하지 않겠음?

3698	여캐좀 그만 벗겼으면....
3699	누가봐도 억지인 논란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면 좋겠다. 억지인 그 논란에 응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자멸한다.
3700	이렇게 정떨어지게만드는것도 재주입니다 김창섭디렉터님 부들부들떠는 라이브 정말 환멸났습니다 대한민국 2030 남성의현주소 잘봤습니다
3701	정말 그 집게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일하는 여성들이 그런 손모양에 집착하며 혐오한다고 생각하나요? 게임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듣고싶습니다.
3702	넥슨과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일부' 한국인 남자 유저들의 말을 듣고 부당하게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 하였으며,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내에서 페미니즘과 관련 사상을 지닌 사람을 색출하겠다며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한편, 사내 성희롱과 그 가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관대하게 대처하고 좋게 넘어가자고 묵살해 왔습니다. 이를 규탄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20 대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백수가(공부나 알바도 하지 않는 사람) 126 만 명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성 혐오 범죄를 하루 종일 작당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계층이 넷우익으로 양산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재일들에게 혐오 테러를 일으키면서 수십 년간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극단화의 길을 따를 뿐입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해줘봤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올바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마무스메, 원신,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유명한 해외 게임에서도 '일부' 한국 남성들이 동일하게 테러해 왔으나 그들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페미니즘은 나치즘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자 형제와 직장 동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도 만연한 여성 범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참정권과 경제 활동 기회를 준 자유의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도처에,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노동자가 SNS 에 과거에 남긴 글로 인하여, 심지어 삭제한 글도 구글링 캐시로 터는 것은 그들의 한심함에 비롯되는 것이나 일반 회사가 그로 말미암아 생존권이 달린 노동자를 징계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업으로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할 줄 아십시오. 창피한 줄 아십시오.
3703	일베충에게 놀아나지 말길

3704	운영의 실수를 만만한 노동자 한명에게 전가하는 추태를 멈추어주십시오.
3705	창조논란과 게임업계에 뿌리깊은 여성혐오와 탄압을 멈추시오
3706	한두번도 아니고 지겹습니다 이러다가 검지손가락 없는 캐릭터라도 나오겠군요.
3707	딱히 나아질 거라곤 생각 안드니까 그냥 노동감독 야무지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삽시다
3708	제정신?
3709	저는 넥슨의 게임을 2008 년도 부터 접해왔습니다. 그만큼 스튜디오가 만드는 게임들이 자랑스럽고 저에게 소중했기에 많은 자원과 금전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축적해온 회사가 현재 2023 년도에, 다른 게임회사들에게 모범이 되질 못할 망정 나쁜 예시를 보이고 있으며, 이득에 눈이 멀어 이미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를 또 한 번 갈라놓을 결정을 했다는 것이 매우 비탄스럽습니다. 또한 제 후원이 당신들이 히는 나쁜 일에 동조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지난 26 일, 메이플스토리 생방송에서 한 디벨로퍼 님이, 넥슨은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던전앤파이터' 에서는 많은 유저들이 입을 모으면 지정된 유저에게 공개적으로 인게임에서 '낙인' 을 찍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유저에게 게임플레이 불이득을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넥슨의 모든 게임에 혐오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혀있다 간주되며 개발자님이 하신 말들이 진실되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넥슨이 좋은 게임괴 좋은 문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바랬지 이걸 바란게 아닙니다. 어느날 부터 메이플스토리가 마스코트로 내세우던 핑크빈, 슬라임, 돼지, 주황버섯이 가증스럽게만 여겨집니다.
3710	게임업체는 성평등에 역행하지 마라!
3711	본 사안 속 논란의 주체인 일부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자는 의미의 페미니즘을 절대 악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여자를 온갖 은어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성차별주의자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넥슨이 왜 이런 정신 나간 집단의 정신 나간 요구를 들어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넥슨은 성차별 회사의 대명사가 되고자 합니까? 왜 집게 손에 성기 조롱의 의미가 있다며 거짓 소문을 퍼트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합니까? 왜 넥슨의 광고 영상 속 동화에 집게 손이 나온다는 이유로 억지논란을 만들어 낸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합니까? 프로젝트 문의 직원 사이버불링과 사상검증, 권고사직 논란은 아직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임업계는 이제 페미니즘 혐오를 놀이로 생각하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의 말을 '먹금'할 때가 됐습니다. 게임업계는 성차별을 그만둬야 합니다.
3712	이것은 젠더 갈등이기도 하지만, 을이자 약자를 권력으로 찍어누르는 형태의 사회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3713	논리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마녀사냥에 기업이 앞장서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3714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박스가 오롯이 남성혐오로서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정확히는 맨박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페미가 무조건 나쁘다고 읍소만 하고 있죠. 머리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세요. 눈이있다면 주변만 보며 아웅 거리지말고 미래를 보며 행동하세요. 이전 프로젝트문의 작업물도 사랑했었던 사람으로서 과거 넥슨의 어떠한 행동을 모방한 것이라는 걸 잘 알고있습니다. 유저들이 얼마나 개돼지로 보이면 이런 선택을 할까 싶네요. 넥슨, 당신들은 대기업입니다. 혐오조장에 앞장서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상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모순된 발언에 대한 댓가를 치루세요. 법은 법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부디 넥슨이 이번일로 정신을 못차린다면 차릴 때까지 법의 심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넥슨에게 처벌을 넥슨에게 댓가를 넥슨에게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에 적극 지지합니다.
3715	정신차리세요
3716	연령, 성별과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길 원한다 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넥슨 의 대응이 이 가치관과 적합하다 생각하시나요?
3717	업계 내 혐오몰이 및 사상검증을 반대 규탄합니다
3718	혐오는 어떤 형태든 금지되어야 한다!!
3719	중국게임에 주도권 넘어간지 오래다 정신차려
3720	노동자 사상검증에 따른 고용 상의 차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3721	페미니즘 혐오를 멈추고 원활한 게임 운영에 집중해주세요.
3722	노동자가 오랜시간 고통받으며 겨우 이룩해낸 지금의 노동 환경을 웃기지도 않는 이유로 더럽히지 마라
3723	정신 차리세요. 억지논란 부끄러운줄 아세요.
3724	억지논란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억지논란에 노동자 업계추방 좌시할 수 없다
3725	제미래의 꿈이었던 업계입니다 다른차별 다 흐린눈으로 외면했는데 이번건은 너무 선명한 억지였어요
3726	페미니즘을 반사회적 사상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는 것을 멈추고 유저 개인에 대한 사상검증을 멈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3727	여성들은 그동안 많은 남성들의 혐오적 발언, 비하 발언들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넥슨측이 단번에 규탄하는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무슨 게임을 해왔나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들이 한 혐오들은 방치되었으나 여성이 한 혐오는 바로 조치하겠다? 그럴거면 남성들만 데리고 게임산업 이어가십쇼
3728	여성협오 반대합니다.
3729	넥슨의 그러한 행동으로 허위사실은 힘을얻어 남초사이트에서 진실이 되어가고있습니다.이런 말도안되는 행위는 계속되어선 안됩니다.
3730	왜이렇게 후졌어요
3731	게임 내외적 명백한 여성혐오적 연출/발언에는 단 한 번도 심각하게 반응한 적 없으면서, 이번 이슈엔 발빠르게 대응하여 인셀 집단 외 유저층을 배제하겠다는 함의를 보인 것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3732	여혐엔 한없이 관대하면서 고작 손가락모양으로 남혐이라고? 국내게임업계 도태되는건 시간문제. 부끄러운줄 알아라

3733	지금의 게임업계가 왜 몰락의 길을 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734	그냥 제발 가만히 있거나 해주세요..그냥..커뮤니티를 따른 사상이라고 안보여요. 처음엔 그렇겠지 하겠지만, 이건 반쯤 억지부린거라 생각하고 있기에. 그리 말하고 싶다면 가이드라인이나 그런게 확실히 있다. 라고 말해주시거나 보여주세요.
3735	사상검증 그만해라
3736	개인의 사상을 근거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게임업계의 악습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첫시작은 페미니즘이지만 나중에는 사측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2023 년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광기입니다
3737	바로 여러분이 한국게임을 죽이고 있습니다.
3738	디씨 등 악성유저 인셀들의 억지 사상검증에 동참하지말고 직원보호, 악성유저 법적조치 등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세요 제발
3739	누구 앞에 바짝 엎드리는지는 아는지 정녕 잘라야 할 만큼 비인륜적인 것인지 모든 게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자각은 있는지 다시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3740	대체 왜 늘 한 커뮤니티의 주관적이고 편중된 발언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절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나요? 피싸개라며 생리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힐싸개, 남자유저와 두루 친하게 지내는 여자를 조롱하는 메왕벌, 게임내 확성기에 만연한 고인비하와 지역 혐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닉네임 (일부)은 그냥 방관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건지, 의도란게 있는건지도 모르는 찰나의 캡쳐는그렇게도 분개할 사유가 되는겁니까? 문제를 키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741	터무니 없는 억지 용인하지마라!
3742	사상검증 중단하라
3743	국내 게임사들은 여성유저를 버리고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부끄러운줄 알아라 억지를 들어주고선 스스로 일을 막
3744	게입업계 정신차려라. 돈 쓰는건 여자들이다.
3745	유치한 발끈함을 그만하시오
3746	차별없는 게임을 만들고싶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공부해주십시오. 또한 살기위해 행한 차별 및 꼬리자르기에 사과와 반성을 보여주세요.
3747	말도 안되는 일로 일부 유저들의 주장들을 잠재우겠다고 대부분의 유저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넥슨은 반성하라. 외국에서는 놀림거리가 될정도로 말도안되는 의견을 일을키워 사측 노동자들 보호도 전혀 하지 않는 게임업계들은 반성하라.
3748	말도 안되는 억지로 하는 여성혐오를 멈춰라
3749	손에 힘을 뺀 자연스런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 해주세요.
3750	차별주의자 넥슨 정신차려라

3751	2017 년부터 이어진 게임계 여성 종사자를 향한 폭력,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연명으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3752	지금까지 게임업계에 얼마나 많은 여성혐오 성희롱이 가득했는데 어떠한 개선조차 없던 이들이 단지 집게손 하나로 여성차별을 이루는 것이 2023 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3753	넥슨은 '쉬운 대응' 말고 직원을 보호하시오
3754	페미니스트 여성 사상검증 부당대우에 반대합니다.
3755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즘 혐오가 만연해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56	노동자의 사상검증을 멈추십시오.
3757	말도안되는 억지 그만부리고 직원보호에 힘쓰세요 사상검증 하다가 유저들 다 빠져나갑니다
3758	인셀들의 억지와 패악질에 휘둘리지 마세요.
3759	회사 내 여성 직원들을 향한 지속적인 사이버 불링과 불합리한 해고를 규탄한다
3760	넥슨은 억지논란에 굴복하여 사상 검증, 일러스트 교체 등 말도 안 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정신 차리길. 지금은 2023 년 남녀평등 시대이다.
3761	일부 남초의 혐오스러운 의견에 휩쓸려서 성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3762	사상검열 중단하라.
3763	가지가지한다
3764	더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혐오표현이 되어 배척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765	일부 과대표된 억지 주장에 휘둘려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짓을 멈춰라. 넥슨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야말로 명백하게 혐오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사과하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
3766	여성을 향한 비정상적인 탄압과 폭력이 여성혐오이기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남성혐오는 존재하지않는다
3767	게임유저들이 원하는건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시해도 모자랄판에 별 시덥잖은 억지 부리는건 바로 피드백하는게 너무 웃기고 어이없다. 평소 유저들이 원하던 것들이나 들어주시길
3768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 멈춰라.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지마라.
3769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굴어라 회사 운영을 방구석찐다새키들마냥 하지 말고 좀
3770	그렇게 살면 떳떳할 수 있나요?
3771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국게임 소비 안 합니다. 나라 망신 그만 시키세요.
3772	타인을 향한 무분별한 증오는 스스로에게 독이에요
3773	더이상 게임 내 컨텐츠가 게시글 하나에 변동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3774	사람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괜찮고, 어느 누구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굴복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당연히 회사의 보호를 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치도 않고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주장에 휩쓸려 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지 마세요.
3775	그 어떠한 사유의 부당해고 및 넥슨의 갑질에 반대합니다
3776	언제까지 여성을 무시하며 게임 팔아 먹을 거니
3777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진위를 가릴 줄 아는 능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꼬리자르기식 해결이 언제까지 통하겠습니까. 결국 화를 입는 것은 기업입니다.
3778	진상들과의 연애에 애먼 여자 그만 죽여라.
3779	그만해 미친놈들아
3780	제발 이성적판단을 하세요 넥슨..
3781	여성우 해고사건을 시작으로 게임업계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횡포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게임업계가 얼마나 일반적인 상식과 법에 유리된 폭력적인 사고로 도태되어있는지 알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782	진짜 혐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 좀 해 보세요.
3783	메이플 스토리 여성유저였습니다. 메이플 커뮤니티 중 가장 큰 커뮤니티인 메이플 인벤에서 올라오는 온갖 성희롱, 패드립, 조롱 등등은 다 배제하고 고작 동영상에 나온 스쳐지나가는 손동작을 (심지어 의도한 것도 아닌) 나노단위로 돌려보다가 어 이거다! 하고 억지로 까내리는 거에 반응해주는 운영진. 특히 디렉터랑 총괄 디렉터가 이에 라이브방송까지 해주는 거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에는 반응해주면서 왜 수간하는 (메이플 여자 캐릭터가 메이플 캐시 아이템중 하나인 크기가 큰 고슴도치에게 강간당하는 만화)에는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나요? 이런건 운영진 측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이야기가 아니었나봐요? 다시는 메이플 할 일 없고 주변에도 다 알릴게요
3784	한쪽에만 편향되어 판단하지 말라
3785	세계적인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에 몰이해한 일부 남성 유저들의 폭력적이고 일차원적인 혐오몰이에 동조하지 말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사업성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져버리는 작금의 행위를 그만둬주십시오. 비단 유저들 뿐만이 아닌 넥슨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사내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3786	남성들의 유아기적 징징거림을 받아주지말고 게임업계는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3787	운영이나 제대로 하고 무고한 여자 잡아다 화형시키는 짓은 현대에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란게 없나요?
3788	게임이라는 문화예술을 망치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3789	말도 안되는 주장 들어준다고 엄한 직원들 고생시키지나 말고 하던거나 제대로 잘하세요.
379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소수의 세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3791	정신차려

3792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으로 피해보는 노동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3793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도 우습지만 이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하나하나 검열하고 사과하는 넥슨과 이에 동조하는 타 게임회사 직원들 댓글을 보니 제가 한국 게임을 소비해온 지난날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게임을 더이상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3794	시대착오적인 걸 넘어서 정신건강이 의심될 정도로 망상증과 피해의식이 심해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걱정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 대표 게임 기업이라니 부끄럽다.
3795	굽혀야할때와 굽히지 않아야할때를 잘 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3796	여성을 향한 폭력에 가담하는 행동을 멈춰라
3797	억지논란 받아주면 더 날뛴다.
3798	기막혀
3799	사상검존 멈춰라!
3800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억지주장을 받아주지마세요.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3801	넥슨은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혐오적인 행보를 반성하고 이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3802	황당하고 기막힌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3803	기업의 졸렬한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기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3804	일부 남자들이 만드는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자의 인권을 챙기시기 바랍니디
3805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3806	그 동안 여성이 대놓고 당해왔던 성적대상화와 혐오표현은 그렇게 무시를 해왔으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을 끌고와 여성 유저들을 대하는 본인들의 모습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3807	여성차별하는 기업은 망하는거 맞다
3808	진상의 헛소리에 왜 자꾸 오냐오냐 해줌? 이러니 게임산업이 욕먹는거다.
3809	사상검증은 성별불문 있어서는 안됩니다.
3810	그래도 나름 대형 게임사라고 하는 곳이 "페미니즘"은 혐오 사상이다 라면서 못을 박는 식의 행동이 2023 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개탄스럽네요...
3811	일부 성차별주의자들의 억지를 수용해 업계 나아가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3812	억지논란을 멈춰주세요.
3813	안티페미니즘 그 자체이면서 해외 눈치 보느라 반페미라고 말 안하고 혐오라고 뭉뚱그리는거 너무 추함.
3814	아까 이미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체줄합니다.
3815	억지논란에 휘둘리는 거 우스워보입니다. 혐오몰이를 멈추세요.
3816	정신 좀 차려라

3817	이번 사안은 비단 게임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2030 의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여성혐오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 기득권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에 그저 자신의 밥그릇 빼앗길 걱정으로 논리 없이 남성혐오로 몰아가는 자체가 여성혐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대형 게임회사인 넥슨에서 여성혐오의 스탠스를 취한다면 결국 선례가 되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고, 성별로 인한 계층 간 갈라치기와 부당한 대우는 만연할 것입니다.
3818	억지 논란 억지 해명 이제 그만
3819	노동자의 사상검증이라니,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3820	남자돈만 벌든가 이러면서 여자돈은 왜 탐내나
3821	모든 혐오를 거부한다며 자랑스럽게 떠들면서도 그 누구보다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작금의 행태가 멈추었으면 합니다
3822	페미니즘 백래시에 의한 사상검증과 고용차별 반대한다.
3823	넥슨이 이번에 저지른 짓은 스튜디오 뿌리에 대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며 김창섭 디렉터가 라이브 도중 내뱉은 말들은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다. 여성 기획자가 커뮤니티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살해 협박마저 받던 상황과 퐁퐁섭 같은 혐오 단어 그리고 라이브 채팅창에 즐비했던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 표현과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표현들은 김창섭 디렉터가 생각했을 때 혐오 표현이 아니었나 봅니다.
3824	억지스러운 혐오 담론을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불숭 세력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825	블랙컨슈머 문제를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 전가하지 마라.
3826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집게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827	줏대있게 사세요.. 말도 안되는 억측에 대해 사과하는 순간 그들은 더욱 더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한테 놀아나는 게 안타깝네요. 저의 추억이 담긴 게임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3828	무엇도 아닌거에 하나하나 반응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3829	의도적으로 타인을 피해입히려는 일부 소비자들로 인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사는 사람을 고용한 입장으로써 직원을 보호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3830	억지 페미몰이 의견 수용할 시간에 게임이나 똑바로 만들고 운영해라
3831	페미니즘이 더러운건가요?
3832	정신좀차리세요
3833	정신채려 넥슬라이스 당하기 싫으면
3834	제발 억지논란에 놀아나서 엄한 하청직원들한테 피해주지마십시오
3835	넥슨은 사과하라
3836	손가락이 실제로 어떤 사상을 나타내지도 않고,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은 사회가 지향할 방향이지 규탄할 사상이 전혀 아닙니다.
3837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3838	이럴거면 게임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커다란 궁서체로 적어주세요. "우리는 여성을 천민취급하는 게임사이고 페미니즘에 적극 반대하며 마녀사냥을 하니 플레이에 유의 바랍니다"

3839	이런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에 힘실어주지말고 직원을 보호하는 업계로 거듭나시오 그리고 앵간히 헛소리하면 바른길로 인도해야지 대체 왜 저런 헛소리에 장단맞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게임업계 수준이 이따위라니 실망스럽습니다
3840	반페미니즘적 행태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3841	한국의 노동 시장을 더는 망치지마라
3842	말도 안되는 말을 왜 들어주나요? 집게 손이 도대체 뭐길래
3843	억지의견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3844	운영미숙에 따른 유저불만을 혐오로 눈길돌려 그만 피하시길 바랍니다; 훗날 업보로 모두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3845	혐오세력에 굴복하는 멍청한 기업은 부끄러움을 알라
3846	넥슨 및 게임업계는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는 세력에 힘을 싣지 마십시오.
3847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세력의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귀를 열고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 게임 유저와 업계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이슈 해결은 반드시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이슈가 여성들 및 피고용자, 하청업체 종사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마무리될 경우 추후 반대 포지션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3848	혐오와 차별을 반대한다던 넥슨의 입장이 오히려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을 기반한 사상검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할 온라인 매체 중 하나인 게임산업이 이토록 미래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849	무차별 여성혐오 여성탄압 게임계는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
3850	게임, 애니메이션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3851	이번 문제는 비단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혐오표현이 아닌 행동을 혐오표현이라 칭하고, 페미니즘을 악성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사회에 그릇된 인식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게임업계는 당장 사상검증을 멈추고, 작업자를 보호하면서 악성민원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3852	본인들이 억지로 정의 주장하는 타인 혐오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을 듯
3853	성차별주의자 혐오자들의 말같지도 않은 억지에 굴복해서 2023 년에도 현대식 마녀사냥의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3854	기업은 악성 이용자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3855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업계에서 넥슨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 가장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넥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슨만큼 이름이 가진 게임 업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3856	페미니즘은 혐오가 아닙니다.

3857	여성이 SNS 에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그게 해고의 이유가 된다면, 그건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러한 동작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자가 SNS 에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특정 사이트 유저들이 꼬투리 잡기 식으로 이를 의도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비약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 게임 회사들이 이런 억지 논란에 발맞춰 사과를 하고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려는 행위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벌이며 여성을 억압하고 해고시키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여성 혐오를 하고 있으며, 이런 혐오 표현에 수긍하고 굴복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고작 작업물에 엄지와 검지가 가까이에 있는 동작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여성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끔찍한 행보입니다.
3858	요즘 시대에 직원에게 성별, 사상을 검증하는 회사라니 한심합니다. 이처럼 시대착오적 성차별을 일삼는다면 앞으로 넥슨게임의 유료결제는 없습니다.
3859	사상 검증 자체도 어이없는 세상에... 집게손이라는 논란까지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분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니 시대를 역행해도 이런 역행이 없네요
3860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가볍게 넘기고자 여자 직원을 해고하며 사과하는 행위를 멈추고 제대로 직원 보호 및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더이상 한국 게임에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3861	일부 인셀들의 근거없는 망상에 동조하여 그를 부추기는 여성혐오 행위를 중단하라
3862	부당한 사상검열과 원청갑질에 의해 중소기업이 피해입는 일을 없게 해야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해한다면 용서치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3863	기업이면 기업다운 면모를 보이길
3864	사회는 발전하는데 게임업계만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회사인 넥슨이 그 퇴보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미래가 없나 싶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3865	불편해?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앉아' 같은 말을 일삼으며 정치적 올바름을 조롱하는 이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여겨지는 손짓에는 득달같이 일어나 분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이번에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입니다. 혐오의 의미가 없는 단어라 해도 여초에서 만든 유행어(오조오억, 드릉드릉)라면 혐오용어라고 근거를 조작한 뒤 검열하던 사람들입니다. '언냐 이거 나만 불편해? ㅠㅠ' '나 손발이 벌벌 떨려 ㅠㅠ' 같은 여초 사이트의 게시물을 캡쳐해 조롱하고, 육체적 힘이 약하고 예민하며 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사태는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얼마든지 조롱하고 끌어내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여성혐오를 방치한 것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들의 혐오는 여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윗영포티(40~50 대가 여성에게 우호적이란 조롱), 털바퀴(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길고양이를 털바퀴벌레라고 조롱), 퐁퐁남(다른 남자와 잔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를 설거지한 것이라는, 기혼남에 대한 조롱) 등 여성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혐오는 더이상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폭력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가진게 없는 사람이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현 사태에 동조하는 게임사들에게 : 당신들이 '지나친 PC(political correctness)'를 조롱하는 그들과 같은 부류임을 압니다. 당신들은 끝없이 뒤쳐질 겁니다. 전세계의 모든 대중에게 통하는 문화가 되기는커녕,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계층에게 인기를 끌고 환호를 받을 겁니다. 그 사실을 계속 자랑스러워 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작을 만들고자 하는 당신들은 의아할 겁니다. '남성혐오자'들을 몰아냈는데 왜 그 선택이 환영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영원히 모를 겁니다. 계속 궁금해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남길 바랍니다.
3866	여성 게이머, 여성 개발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길
3867	방구석 OO 들 의견에 이렇게 휩쓸려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저런 OO 들한테 오냐오냐해주고 받아주니까 자꾸 기 살아서 별거 아닌걸로 나대잖아요. 당신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왜이리 없습니까? 여성인권, 노동권은 어따 갖다버렸는지 궁금하네요. 손가락 모양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 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모양이 뭐가 문제인지?? 댁들은 살면서 한번도 그 손모양 안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명 타겟 삼아서 sns 털고 그걸로 꼬투리 잡고 협박하는게 옳다고 보세요?
3868	그만 좀 하쇼
3869	한국 게임 산업에 밝은 미래를 빕니다. 평유저는 악성유저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한 프레임 단위로 편집적으로 논란을 만드는 유저가 악성유저가 아닙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니, 악성유저가 판치는 곳에서 평유저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게임을 사랑했던 유저들과 오래 운영되길 바랍니다.
3870	억지논란 무맥락적인 혐오를 증폭시킨 넥슨은 정신차려라
3871	일부 남성들의 집단 피해망상으로 죄 없는 여성 노동자를 퇴사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 좀 그만 두십시오.
3872	상식이란 게 없습니까?

3873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으로 여성 근로자를 위협하는 일을 멈추세요.
3874	언제까지 남자들의 시덥잖은 조롱을 다 받아들여주실 건가요. 진심으로 그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3875	집게 손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것도 웃기지만 그걸 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는 넥슨과 게임 업계는 문제가 많다.
3876	상식과 도덕을 지닌 문화인이 됩시다.
3877	억지로 만들어 낸 논란에 대해 그만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집게모양 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3878	애니 업계 종사자로써 이번 일은 너무 착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입니다. 2016 클로저스 부터 지금까지..사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억지를 받아드려 게임 유저를 갈라치기 하나요.
3879	업계의 태도가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근거도 없는 페미 논란을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일부 커뮤들의 억지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업계들이 이번 기회에 제발 각성하길 바란다
3880	사회적인 테러를 유발 시키는 넥슨은 각성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합니다
3881	넥슨 운영진이 억지와 혐오를 당연하게 여기는 일부 사용자들과 같은 심리상태라는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3882	정신차려라
3883	말도 안되는 억지에 사과하는 꼴이라니ㅠ
3884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때문에 그리고 설사 페미니스트라 해도 탄압하는 건 안되는 일입니다.
3885	그 곳이 무너지는 의미를 알아주세요. 단순한 게이머 끼리의 문제로 보이시나요?
3886	이런 식이면 도태밖에 이뤄낼 게 없어요. 유구한 여성혐오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생존권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게 2023 년에 목도할 수 있는 일인지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3887	억지논란에 기업이 을 지처하는짓 끝이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다른 기업의 최후를 알아보길
3888	시대착오적인 억지논란을 규탄한다
3889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3890	대한민국의 수준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3891	동화에 무조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집게 손가락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무슨 죄인가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봐야하는겁니까? '페미'때문에 계속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를 만든 넥슨 및 게임업계는 반성하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고 이 상황에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3892	게임업계는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여성창작자들의 짓밟는 행위를 철폐하라
3893	여성혐오자들이 만들어내는 억지 논란에 굴복하는 행위는 결국 여성혐오를 부를 뿐입니다.

3894	해당 손짓은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며 남성 유명인들도 종종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모두 남성 혐오자가 아닌 것처럼 현재 상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895	억지 논란을 만들지 말고 받아주지 말고 외주사에게 갑질을 하지 마라
3896	인셀들 그만나대
3897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귀사의 모토를 지켜주십시오.
3898	마녀사냥 중단해라
3899	일부 악성 남성 유저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각종 혐오와 차별을 지양합니다.
3900	시대착오적이고 불법적인 노동권 탄압 중단하라
3901	ㅉㅉ 그 저급함과 한심함에 그저 부끄러울 뿐
3902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3903	특정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소수의 의견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건전한 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3904	직원의 사상 검열, SNS 활동을 사찰하고 제재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행위 입니다. 동종업계 종사자이자 서비스 소비자로서 앞으로 넥슨 및 국내 게임업계가 올바른 인권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3905	그렇게 하다 망한다
3906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들어주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3907	자신이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2023 년판 마녀사냥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값싼 혐오는 당신들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갑니다.
3908	손가락에 어떤 뜻이 담겨있기에 악질유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주는겁니까? 모든 손가락동작에는 다 그런뜻니 있나요? 해외에서는 해당 직원 자르라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던데 국내게임사와 관련회사들은 직원을 내치더라도 답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3909	억지논란 무맥락혐오 그만
3910	한국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넥슨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과격한 커뮤니티 유저들의 의견수용을 자제해야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너무나 좁다.
3911	이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 담론을 어디까지 받아줘야합니까? 게임 업계를 망치는건 이런 바보같은 말들을 받아주는 본인들입니다.
3912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규탄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한다는 것은 곧 성차별을 지향하겠다는 의미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913	남녀의 평등함은 헌법에도 보장된 항목입니다
3914	별것도 아닌일로 꼬투리 잡고 기업이미지 추락시키는 행동 그만하세요
3915	더 나은 게 뭔지 생각을 해라.
3916	캐릭터의 머리뿔의 그림자 각도를 손가락 모양이라고 하다니.. 이런 억지에 타격받는 현상이 정말 안타깝군요.
3917	도무지 2023 년에 다시 일어난 논란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게임업계의 문화,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성우등을 핍박하는 행태를 대기업 게임사라고 하는 넥슨에서 자행하다니요. 이것은 심각한 혐오이며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3918	방구석 인셀들의 억지주장에 굽실거리지 좀 마라 이는 게임 업계가 인셀과 동급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준다
3919	고작 애니메이션 중간 움직임에 들어간 동작을 확대해석하여 선동을 하는 혐오자들에게는 사과문을 올리는 작금의 사태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넥슨의 여성혐오 행태를 시정하길 요구합니다.
3920	별에 별 시답지 않은걸로 여성혐오를 남발할거면 남성 전용 게임과 여성 전용 게임으로 나눠서 운영하길 바랍니다.
3921	논리없는 의견들에 장단 맞춰주는 넥슨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3922	국내 게임업계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손모양을 '혐오 표현'이라 단정짓고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추태는 결국 특정 단체가 회사에 찾아가는 기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 디지털산업은 검열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특정 단체의 억지스러운 불만을 받아들여 실제 직원을 해고하는 황당무계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3923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장단을 맞춰주는지 단체로 정신이라도 나간 건가요...
392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3925	평소에 서비스 대응에 대해 무응답(매크로 답변)으로 처리하다가 이런 논란에 대해 즉각처리 한다는것이 말도안된다
3926	누구를 위한 사태인가요
3927	어떠한 사상, 혐오는 모두 나쁘다고 말하며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에게만은 유독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928	제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렸으면
3929	넥슨은 노동자를 보호하라!
3930	21 세기에 사상검증이 웬 말이냐 정신차려라
3931	집게손 억지논란을 규탄한다
3932	이상한걸로 사상검증 할 시간에 게임이나 제대로 만들고 확률성 아이템 가지고 장난질좀 그만 치세요 이게 게임인지 강원랜드인지 알 수 가 없네
3933	특정 성별만 유저 취급하는 게임사는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934	억지 떼쓰기에 불과한 남성 커뮤니티 유저들의 혐오몰이를 무시한 다른 외국 게임사나 대기업들은 이런 이슈로 공격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게임사 스스로를 공격의 주 타겟이 되게하는 겁니까? 머리 숙여 사과했다고 그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게임 업계는 언제까지 페미 이슈로 논란이 될 건가요. 정말 이 '여자 밥줄 자르기 스포츠'가 옳다고 여긴다면 대한민국의 게임하는 남자들은 집게 손가락이 없는 존재들이겠네요.
3935	2016 년에 재미는 보셨습니까? 이젠 7 년간의 대가와 이자를 지불해야 할 때입니다.
3936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
3937	말도 안되는 악성민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국게임업계의 퇴보를 보이는 행적을 지탄합니다. 사상검증에 반대합니다.

3938	불과 몇 개월 전에 논란이 되었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이나 되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3939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앞으로 모든 캐릭터들 손을 도라에몽 손으로 만들것도 아니고, 이런 억지 논란에 대체 왜 동조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손가락만 있으면 그깟 손가락 두개 그림은 얼마든지 나올수있는데 이걸 조롱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게 손가락 두개가 무섭고 두려우면 이참에 그냥 운영진들 손가락이나 다 잘라버리고 사세요.
3940	게임은 일종의 놀이이며, 놀이의 정의는 사람이 생계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일정한 도구나 물건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회사들이 언젠가부터는 특정 집단의 막장 행동에 눈치를 보고 각종 망상에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못 하고 트집을 잡아 누군가만이 즐거울 수 있는 전유물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여성들은 생계나 신상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 이상 억지 논란에 말을 맞추고 유연한 사고를 멈추는 바보같은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3941	한국 게임 업계는 도태되어 사장돼도 안타깝지 않을 듯 합니다.
3942	여성 유저가 배제되는 일방적 혐오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의 남성들만을 단결시키고 게임사의 본분인 게임 운영의 문제는 덮고 넘어가려는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3943	넥슨과 게임업계는 자기 의지나 생각이 없는 인형을 고용하고 싶은 겁니까? 노동자는 본인의 사상과 상관없이 계약한 이상 직장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 차별과 정치적 갈등을 "실제로" 조작하는 데 가담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에 앞장섰던 일베 기자를 KBS 에서 자르지 못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했던 이유입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을 회사가 나서서 통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고작 기업 주제에 뭔데 마음대로 어깁니까? 법보다 위에 있으십니까? 지금 겨우 유저 몇 명이 징징거리는 헛소리에 휘둘려서 헌법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바보가 되지 마세요. 근현대사에 수치스럽게 기록되지 맙시다.
3944	세상에 반이 여성인데 여성유저는 없냐? 안일한대처 ㅉㅉ바보들
3945	당사는 혐오놀이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그만둬라
3946	한 사람의 생계를 손에 쥐고 사상검증을 하는 넥슨은 공산당입니까? 유신정권입니까? 고작 하나의 게임회사 주제에 감히 노동권을 유린합니까? 건방진 자의식을 지우시죠.
3947	목소리 큰 진상을 중시하느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상에 꼬투리를 잡아 타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에 일조하는 반면 밸런스나 지나친 과금 유도와 확률조작, 연령 등급과 어울리지 않는 수위 표현 등의 게임 내의 문제는 뒷전으로 두는 업계에 환멸이 납니다.
3948	혐오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려 노동권과 인권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3949	여성을 사람으로 좀 생각해라..징그럽다

3950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게임이 이제 더이상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옛말이 된지 오래고 지금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들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상검증이 무슨 말이고 혐오세력에 손을 들어주는 게임사의 만행은 또 무슨 일인가요. 정말로 그들의 혐오적인 마녀사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페미니즘은 언제부터 남성혐오 사상이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되었나요? 무엇이 되었든 여성혐오든 남성혐오든 존재하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정말 남성혐오로 인해 시작된 사안입니까? 이것은 그저 게임을 사랑한다는 거짓된 말을 내세우며 그저 자신들의 심심풀이로 몰아세우는 혐오세력의 마녀사냥에 불과합니다. 게임은 플레이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하지만 만드는 사람 역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꼬투리가 잡혀서 말도안되는 억지 논리로 자신의 생계가 끊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넥슨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게임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하고 고생시키지는 못할 망정 말도안되는 억지를 들어주기 위해 직원들을 고생시키고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혐오세력들의 억지를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재미를 찾아 새로운 마녀사냥을 시작할 것이고 이건 그 시작에 불과 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게임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정말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3951	일부 유저의 억측과 망상을 수용하지마십시오.
3952	게임업계들이 어떤 사이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사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상검증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을 벌입니까? 21 세기에 마냐사냥인가요?
3953	일부 유저의 억지에 굴복하는 것이, 직원 개개인의 생각을 검증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위한 일일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3954	집게손가락 찾기 억지논란 규탄합니다
3955	페미니스트'라는 이유가 왜 혐오의 주류가 되었는지? 현재 디시 일베등에서 쓰이는 표현은 규제 및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왜 오직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아야하나. 사상검증을 할 것이라면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
3956	정말 페미니즘이 절대 배제해야할 악이라면, 글로벌 서버에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라고 공지 올려라
3957	억지 논란에 대응해주는게 웃겨요 집게손이 언제부터 페미 모션이었다고..심지어 페미들이 집게손밈 시작한것도 아님
3958	인간답게
3959	같은 게임 업계인으로서 창피합니다.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 해온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회사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3960	그들만 신경쓰는 손동작
3961	특정 커뮤니티 유저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 주장 따위에 여성이 또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상 검증 중단 및 직원 보호를 강화해주십시오.

3962	게임기업들의 지속적인 억지논란 혐오몰이 및 "디씨인사이드" 남초 기반 운영을 반대합니다
3963	일부 유저들의 그릇된 주장과 피해망상이 한 개인의 생계 나아가 여성 유저 및 여성 창작자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을 기만하지 말아주세요.
3964	저 말도 안되는 이유를 진정 받아들인건가요?
3965	무신사처럼 대응했으면 이렇게 일이 안커졌을텐데 앞으로 한국 게임업계는 썩고 고여서 도태될 일만 남은거 같아 유감입니다.
3966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성차별주의적 대응으로 퇴보만 일삼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게임 개발과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기여할 생각도 없는 회사는 자연도태되기 마련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3967	비윤리적이고 경솔한 말과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3968	악성 유저들의 혐오논리에 입각한 사상검증을 멈춰라.
3969	말도 안 되는 일부 유저들의 남혐몰이를 그대로 받아드는 넥슨이야말로 여성혐오 앞잡이다!
3970	억지 부리는 일부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직원 및 협력사 보호를 하지 않는것을 멈춰라.
3971	말도 안되는 항의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다른 업계까지 피해주는 일 좀 그만하십시오.
3972	혐오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페미니즘 지지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노동자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위를 중지하며, 기업으로서 응당 져야 할 책임을 지길 바람. 또한 무엇이 정말 혐오 표현인지에 대한 재고를 통해 윤리적으로 떳떳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람.
3973	집단적으로 인터넷 상의 언어폭력을 놀이처럼 여기며 현실 공간으로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업계 분위기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3974	말도 안되는 짓 그만 해라
3975	사상검증으로 노동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3976	여성은 게임 유저 아닌지.. 차암나..
3977	지긋지긋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손가락타령을 하나요..
3978	당장 눈 앞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안의 본질을 흐린채 무엇에 사과하는지도 모른채 사과해온 지난 과오들과 현재의 일들이 이 말도 안돼는 혐오를 조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집게손이라는 모션이 언제부터 남성을 비하하는 의도로만 사용되었는지. 욕먹지 않기 위해 사과하며 납작 엎드린 자신들로 인해 애먼 여성들은 혐오를 동조하고 부추긴 것으로 치부되어 쓸모없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

3979	노동자의 사상검증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페미니스트는 나쁘고 피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차별주의자들의 말도 안 되는 생떼같은 민원에 오냐오냐하며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처를 하는 게 올바른 길입니까? 지금같은 시대에 넥슨과 같은 큰 기업에서 페미니즘 탄압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게임은 모두 성차별에 노동자 탄압의 결과물로만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넥슨이었지만 이젠 당신들이 만든 게임은 플레이는 커녕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생떼쟁이들과 우물 안에 나와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좀 보십시오. 아니면 그대로 우물에서 파묻혀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지십시오.
3980	커뮤니티의 근거 없는 페미 색출에 일일이 사과하며 있지도 않은 진상을 찾고 담당자를 해고하는 일을 그만 두십시오. 우선 페미니스트는 색출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커뮤니티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는 한 손동작을 페미니스트의 남성혐오라고 의미 부여해 게임업계 나아가 여성들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에 사과하는 것은 커뮤니티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억지 논란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이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3981	여성을 공격하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억측에 힘을 실어주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비판합니다.
3982	먹금해야할 걸 하지 않고 투정을 받아준다니 어이없고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3983	소비자를 일부 성차별주의 남성들만으로 한정하고 여성을 비롯한 약자를 배제하는 것이 계속된다면 한국 게임업계는 반드시 망합니다. 놀랍게도 여성들도 게임을 하고 게임에 돈을 쓰거든요.
3984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3985	이런일이 발생하는걸 언제까지 봐야하는걸까요?2016 년에서부터 벌써 7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뀌길 바랍니다.
3986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거리에 왜 해명을 하십니까? 그 손가락 모양 하나하나 프레임을 씌우고 논란을 만들어내는 그 일부 남성 유저들이 곧 메이플 스토리 전체유저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되겠지요. 인셀남성들의 대표적 게임=메이플스토리다. 누가 그 게임을 하려 하겠나요. 그 일부 유저들 때문에 누구는 일자리를 잃고 누구는 환멸이 나 게임을 그만 둘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떤 유명한 게임업계 회사이미지는 이미 외신에도 알려져 이미지에 큰 피해를 겪겠군요. 그 몇 안되는 일부 남성유저들을 위한 게임으로 남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손가락 제스쳐일 뿐입니다. 일부 남성들의 자격지심을 유치하게 나타내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실 시간에 (다른) 게임 속 여성 캐릭터 일러스트나 고쳐주세요.
3987	제발 좀! 제발! 정신 좀 차리라!
3988	갱생불가능
3989	유저들에게 받았던 애정과 기대를 혐오와 그것에 대한 재생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3990	일전 림버스 게임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과거 여혐 범죄 관련 트윗에 좋아요을 누른 것을 꼬투리 잡아 한 노동자를 무단해고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게임업계는 여성 소비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일부 남성 유저의 억지논란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을 사상검증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회사의 대응은 한 여성 노동자로써 대한민국 사회에 회의감과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규탄합니다.
3991	니네게임 절대안한다
3992	솔직히 생트집인거 알면서도 굽신굽신하는거 이제 슬슬 자존심 상할때 됐는데....글로벌 입장문 못 내는걸 보면(안 내셔도 이미 소문 다 났지만) K-남초 커뮤니티 외에 다른곳에선 이 사태가 어떻게 보이는건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우물안 개구리들이랑 같이 어울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3993	과거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릅니까? 말도 안되는 업계 선례를 만들어내시는게 참 신기하고 당황스럽습니다.
3994	현 시대와 미래를 위해 주위를 둘러보자. 바로 근처 말고 멀리까지도 두루두루 보고다니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3995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혐오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타인에게 문화를 제공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3996	여성혐오에 찌든 진상고객의 말만 듣고 또한 그 진상고객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게임업계의 혐오자랑을 규탄한다.
3997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약된 사상에 휘둘려 진짜 약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3998	여성유저도 당신들의 고객입니다 사람 인생 하나 망치고 싶어서 돼먹지도 못한 헛소리나 하며 우겨대는 말에 동조하고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혐오에 반대한다고요? 죄송하지만 혐오에 동조하고 계십니다.
3999	악순환을 멈춰야합니다.
4000	집단적 착각에 반응하지 말고 그들의 싸이버 불링 및 억지에 죄없는 여성 노동자들을 자르지 말라
4001	메이플 섭종했으면 좋겠다
4002	정신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수준낮은 반사회적 집단의 징징거림에 휘둘릴 생각입니까.
4003	여성 개인들에게 남성들의 억지 논란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넥슨은 당장 여성 게이머들과 여성 개발자,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여성들, 미래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사과하라
4004	진심 작작좀 해라 손가락 하나로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4005	페미니즘은 절대적으로 사회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 번 양보해서 그 이념에 동의하지 않을 순 있더라도 그 방식이 하청업체의 밥줄 끊기같은 치사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006	성평등을 반대한다면 특정 성별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성차별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4007	게임 업계에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젠가 나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느껴집니다. 업계에 팽배한 사상검증이 사라져,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08	제발 정상적이고 개관적인 판단을, 공사 구분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 게임 회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습니까? 악성 유저들의 비이성적인 선동은 무시하면 끝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신나서 더더욱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넥슨 일은 여성 직원이 메갈 표시를 일부러 작업물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 혐오에 돌아버리다 못해 여자 패기를 스포츠로 여기는 블랙 컨슈머 인셀 남성들이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취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손동작(⊠⊠⊠⊠👌⊠👆⊠⊠) 을 메갈리아의 표시(⊠)라고 우기며 회사에 항의한 것입니다. 또한 게임 회사가 거기에 굴복해 (또는 생각이 동일해서) 상생협력법을 어기고 외주 업체를 압박했으며 외주 업체 또한 그 압박에 굴복해 직원에게 죄가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징계한 건입니다. "페미 척결"을 외치는 인셀 유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입장문에는 "페미니즘" 이라는 단어를 단 한번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 더 악질입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습니까. 당신들의 행동이 악성 유저들의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때문에 악성 유저들의 피해망상과 정신승리와 자아가 더욱 더 비대해져가고 있으며 이는 더욱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정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4009	집게 손 논란이 인정되고 계속 이어진다면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모든 미디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잘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4010	더이상의 여성을 향한 무분별한 ㅔ폭력은 행해져선 안됩니다. 더불어 개인 SNS 로 사상을 검증하고 공격하는 유저들의 억지를 들어주고 노동자를 부당해고하는 사안은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인지해야할 것입니다.
4011	소아병동 지원한다며 광고하면서 소아성도착증이 있거나 옹호하는 집단의 말을 듣는 게임일 줄은 몰랐네요
4012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게임업계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4013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하고 여자 혐오를 부추기는 한줌의 인간 군상들의 광기가 도처에서 섞은 냄새를 뿜어내는 (양성평등은 개나 줘버린)현재 우리나라 모습을 제대로 보시요!!!!
4014	이왕 한녀페미메갈을 미워할거면 차라리 해외로라도 보내주세요 좆도안해주면서 바라는것만쳐많아 짜증나게
4015	억지스러운 요구에 직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으로 직원과 특정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오
4016	한심합니다
4017	반사회적 히키코모리 남성들의 일방적 떼쓰기를 용인해주다가 도를 넘었네요ㅋㅋ 반사회적남성들을 육성하고 여성혐오를 앞장서 조장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것입니다.

4018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베와 같은 고인과 사회를 모독하는 집단으로 취급하시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듣고, 꼬리자르기라니... 이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 되시나요? 이걸로 끝일까요. 앞으로는 몇번을 더 잘라야 할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유저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귀하의 회사는 우습게 취급될 것 입니다.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할 뿐 다른 직원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누가 생각한답니까? 당장 논란이 생기면 주말이든 새벽이든 호출해서 사람 갈구고 굴리는데요. 회사는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는 선입견을 복지와 같은 직원 대우를 통해 벗어나려 한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아니었네요. 직원과 그들이 생산한 컨텐츠를 보호하지 않고 언제든 이용자들의 입맛에 따라 갈아치우는게, 꼭 어디 중세 돌쇠같습니다.
4019	앞으로도 무논리에 의한 사상검증 직원 퇴출을 반복할 예정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 본 회사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으며 입사 시 사상검증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공지해주십시오
4020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합니다. 방조 하거나 불난 집에 기름을 붙여서는 더더욱 안돼구요. 성평등한 게임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4021	억지스러운 의견에 휘둘리는 대 기업꼴 우습습니다
4022	살해예고 글 올라오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지마세요
4023	지금의 논란이 정말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저런 생떼 억지를 들어줄 생각이신가요?
4024	여성 차별 및 피해망상을 멈춰 달라.
4025	오늘도 세계적으로 도태하는 한국게임. 발 빠른 넥슨 탈퇴에 후회 한 점 없다.
4026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4027	말도안되는 트집을 들어주지마세요. 한국의 게임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발 더이상 집게손가락 등 이상한 것에 집중하지말아주세요.
4028	인터넷만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봐라
4029	여성에 대한 사상검증을 멈춰라!
4030	노동권리를 무시한 대가는 본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4031	상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4032	답답하네요
4033	고작 손가락 이슈때문에 한 사람을 사상검증하고 악습을 대물리는 기업의 행포를 멈춰라
4034	어느 하나의 성별을 배제하는 듯한 운영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으며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더 나아가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운영의 미숙함을 고치고 진실된 사과를 유저에게 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4035	비상식적인 억지 논란 의견을 수용하여 사상검증을 서슴치 않는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4036	해당 결정이 게임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고하기 바랍니다
4037	더이상의 여성혐오,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4038	한국의 여성혐오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5 년 메르스갤러리를 필두로 인터넷 전반에서 일어난 미러링 운동은 이제 명을 다 하고 여성들은 보다 시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반면, 남성들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업 역시 남성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지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단지 게임업계의 주 소비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집단의 억지 주장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게임 업계는 그 어떤 검열이 닥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게임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성별을 향한 부당한 처사는 결국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4039	말도 안되는 손가락 프레임 가지고 혐오 운운하며 사람들 생계를 위협하지마세요
4040	그림그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고 수많은 애니와 영상에서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영상 혹은 그림만 봐도 저 손 동작은 많이 보이죠. 또한 어떠한 사상도 따라가지 않으며 공정해야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 저러한 손모양으로 인해 억지를 부린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041	10 년 전에 초과근무, 임금체불, 성차별과 부당대우로 게임업계를 떠난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게임업계는 변함없이 퇴보적이네요 넥슨이 기업인 이상 직원을 사이버불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직원을 부당해고해서 희생자 삼지않길 바랍니다
4042	말도안되는 억측으로 이런 사안이 일어났다는거부터 업계에서 특정 성별에 대해 눈치를 보고있단 뜻이라 규탄스럽고 여성으로서 게임 업계에는 여성을 대체 어떻게 보기에 이러는지 답답합니다.
4043	게임업계는 더이상 여성 게이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상황 회피만을 위한 억지 남성 혐오 사건 만들기를 멈춰라! 커뮤니티의 악성 공격에서 자사 직원을 보호하라!
4044	정신차리세요
4045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에 진지하게 답변과 사과를 내놨다는 사실 조차도 믿기가 힘들고요 ㅋㅋㅋ불매합니다
4046	쪽팔리다… 넥슨 불매불매
4047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4048	한결같이 클러저스때부터 변한게 없네요
4049	제발 헛소리는 먹금하세요 제발 좀
4050	그들에게 게임은 아직도 남성만이 향유하는 문화라면 여성의 돈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및 콘텐츠는 더이상 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성별만을 챙기고 싶다면 반드시 게임 시작전 한국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콘텐츠라고 명시해주십시오.
4051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굴복해 외주 회사를 억압하고 팀장급 직원을 부당 해고 하는 일이 2023 년에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오.

4052	대기업이라면 애들장난보다 못한 수준낮은 억지에 동조말고 대기업의 품위를 보여주세요 제발 인셀남들과 같은 수준이되지말아주세요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하기 너무 창피합니다
4053	당신의 이익추구라는 변명 밑에 내재된 여성혐오는 숨길 수 없지만 페미니스트는 관심도 없는 남성 성기에 대한 혐오 표현은 수많은 작화가 들어가는 동화 하나 하나에 그러한 사상을 숨길 거라는 생각 잘 알았습니다.
4054	일부 유저들의 망상에 빠진 억지에 일일히 응대하는 것을 보니 똑같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4055	게임업계 관행처럼 굳어진 마녀사냥 규탄합니다
4056	정신차려라
4057	이제라도 사상검증을 멈춰 이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4058	한국 게임업계는 정신차려라.
4059	지난 20 주년 때 용사님들과의 추억을 지켜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용사에 여성은 없었군요. 이제 실망스럽지도 않고 다시는 넥슨에서 출시하는 게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4060	일부 유저들의 억지를 들어주느라 대다수의 유저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불쾌감을 안겨주는 넥슨은 지금까지 행해온 잘못된 행보를 반성하고 이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 및 헌법 공부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4061	억지논란에 굴복하지 마라
4062	성차별적인 넥슨은 반성하라
4063	남성 유저들의 말도 안되고 상식적으로 있어서도 안되는 트집과 징징거림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면서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을 다른 곳도 아니고 이렇게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이 선도해서는 안됩니다.
4064	억지임을 알면서 거기에 동조하며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건 대기업 횡포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065	잘 생각하세요
4066	있지도않은 억지 남혐을 만들어놓고, 불쌍한 여자만 해고시키는 상황에 환멸이납니다. 한번도 본적없는 디렉터와 총괄디렉터까지 나서서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해명하는게, 진짜 넥슨을 대표하는 게임의 수장들이 맞나요? 여자들 다 탈퇴하고 남자들 눈치만 보면서 게임 잘 만드세요 ^^ 여혐넥슨이라고 낙인찍힌건 아시나모르겠네요.
4067	관심을 컨텐츠로 삼게되는 세상에서, 굳이 관심을 주지 않는게 답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침묵을 지킬 줄 모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지만, 침묵으로 방관되면 동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동의를 올립니다.
4068	모든 걸 페미니스트라고 몰아가는것도 충분히 문제지만,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나요?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페미니스트라고 업계에서 배제하겠다는 그 당당한 성차별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게임 할 일 없습니다. 여성은 소비자가 아닌가봐요?
4069	또다시 게임업계에서 비롯한 사상검증이 일어난 점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사인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 논란에 귀 기울여 주지 마세요.

4070	말도 안되는 억지 여혐주장에 휘둘려서 죄없는 사람을 공격하는걸 용인, 조장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세요. 마녀사냥도 한두번이지 게임업계에서 이게 몇번째입니까? 게임업계 대표나 책임자들은 깊히 반성했으면 합니다.
4071	이런 취급 당하려고 게임 시작한게 아닌데... 영원히 그러고 사세요.
4072	되도 않는 요구 들어주며 기업 이미지 말아먹느니 무시하고 넘어가십쇼. 그나마 남아있던 여성 유저들 마저 잃기 싫으면 무시하고 입 다물고 있으세요. 성차별 지지 기업이라는 타이틀 얻는게 이번 행보의 목표거 아니라면 말입니다.
4073	이상한 사상검증 좀 그만 두십시오 제발
4074	넥슨은 억지 혐오몰이 그만두길바람
4075	노동자의 기본권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회사라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도가 있건 없건 말같지도 않은 민원에 휘둘려서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식으로 손으로 하늘 가리는 짓이 진정 게임업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4076	정신차려라...
4077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에서 넥슨 소속을 달고 "씨팔년"이라는 험악한 욕설을 해도 아무 논란이 없는 직원부터 신속히 속출해내 일벌백계하십시오
4078	억지스러운 의견들의 수용을 언제까지 할것입니까
4079	넥슨은 일전에도 페미니즘을 이유로 성우를 부당 해고했던 사건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 없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네요. 올해는 프로젝트문과 넥슨이 함께 두 손 꼭 잡고 여성인권과 노동권 퇴보를 위해 힘을 쓰나 봅니다. 법으로 제정된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규탄합니다.
4080	게임 업계는 저급한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들의 망상에 반응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를 멈춰라.
4081	누군가가 계속 별 이유없이 직장을 잃어야만 하는 업계는 그냥 x 되는 것이 옳다.
4082	과자를 먹을 때도 물건을 집을 때 나오는 집게 표현은 혐오 표현으로 말하며 직원들의 사상검증까지 요구하는 유저들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4083	혐오조장에 동조하지좀 말길
4084	그저 사소한 트집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놀이로 삼는 사람들의 말을 그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의 잠깐의 재미를 위해 위협받는 본사의 직원분들 계약하고 있는 프리랜서분들이 안전하고 불이익 없이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085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망하게 되어있다.
4086	x 먹금 모르십니까?
4087	성차별적 행보를 보이는 넥슨은 반성하고 사내교육 제대로 하시길
4088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불과한 억지 논란을 당장 멈추십시오

4089	되도 않는 망상에 힘을 실어주는 기업의 행태에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뭐하고 사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으나 익명성에 기대어 온라인에 상주하여 온갖 헛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에게 휘둘려 일을 이지경까지 키운 것은 넥슨 및 게임업계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의 모든 관련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성들은 남성은 성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오히려 그 손가락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혐하는거 아닌가요?? 거의 뭐 창조해서 혐오논란 만들어 오는 건 항상 그 부류들이던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애초에 손가락만 보고 본인 성기를 비하한다고 생각해서 부들부들 거리는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의 말을 오구오구 받아주는 기업 수준도 알만합니다. 이번일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신 분도 같은 수준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업계 행보를 많은 이들이 지켜볼 것 입니다. 부디 잘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4090	적당히 하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4091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4092	없는 논란을 만들어 특정 성별 혐오몰이하는 비 상식적 행태에 손을 들어주고 목소리를 키우데에 일조하는 아둔함을 반성하세요
4093	기업이 유저들의 억지논란에 좌지우지된다면 기업이 추구하는 사상이 그들과 같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4094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상 인 혐오세력들에게 몸을 낮추지 마십시오.
4095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억지 논란 옹호를 멈춰라
4096	개인 sns 를 스토킹하고 업무외의 관련없는 사생활이나 개인의 생각을 문제 삼는 이들의 의견만을 듣고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저지르는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23 년도에 이런 혐오적인 탄압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4097	진짜 별갖지 않은걸로 트집잡는 찌질한 남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넥슨도 게임업계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4098	편향된 커뮤니티만의 의견을 수용하지 말고 더 넓은 시야로 해당 사안을 봐주십시오.
4099	정신차리세요. 왜 문제냐고 하면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게 진정한 정의가 맞나요?
4100	억지논란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4101	제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개인의 사상을 빌미로 해고를 요구하는 일부 집단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은 더더욱 정상이 아닙니다. 이같은 일이 한 기업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여러 기업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니 업계 전체에 실망감이 큽니다.
4102	정신차려라 여성혐오도 정도껏이지
4103	상식에 의거해 판단하고 올바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4104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세요
4105	정신차려라
4106	근거 없는 집단적 착각에 눈과 귀를 막아 여성 또한 똑같은 소비자이고 노동자이자 동료인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4107	현재 넥슨게임의 여성유저로서 일부남초의 의견만을 반영하며 시류를 읽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언급되지 않아 애써 흐린눈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제 게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십여년간 해온 게임을 접어야 하는 일이 일어날수밖에 없겠죠 여성들도 맘편히 즐겁게 게임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4108	저질문화에 끌려가지말고 문화를 선도하라
4109	일부 남성들이 유저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4110	페미니즘이라는게 왜 혐오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피미니즘을 한다는 이유로 낙인찍고 생업까지 잃게 많드는게 더 혐오적인 집단 아닌가요? 게임업계는 성인지감수성을 더 공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111	왜곡된 현실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112	언제까지 게임 업체는 남성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줄건가요?
4113	정신차리세요
4114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저보다 현명한 분들께서 잘 정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4115	정신차리세요
4116	많은건 바라지 않을테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기타노동법이라도 지켜주십시오.
4117	먹이를 주지 마시오.
4118	저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넥슨 사를 포함한 여러 게임사의 게임들을 즐겨온 여성 게이머입니다. 이번 사상검증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게임인 프로젝트 문 사의 '림버스컴퍼니' 또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크게 실망한 이후에도 하나둘 게임업계에 동일한 일이 생기고, 이번 사상검증을 넘은 사상검열 사태로 저는 이전처럼 한 게임에 애정을 쏟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혹시 이 게임도 사상검증을 하게될까봐요. 게임사가 공지사항을 올릴지 눈치를 보며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서로 싸우고 소위 '장작을 집어넣는' 행위를 보니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쏟아온 시간과 애정이 한줌 먼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개인 SNS를 크롤링하여 사찰하고, 공공연한 범죄인 사이버 스토킹을 자연스레 하는 유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당하다 생각된다면 당당하게 공지하십시오. 유저가 플레이하기 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요.
4119	진짜 혐오 세력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4120	창조논란에 굽신거리는 꼴이라니..우습기만하다
4121	제발 게임업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내놓기 부끄러워 죽겠어요.
4122	한심하고 몰지각한 게임업계는 자성하라

4123	인터넷의 출처조차 불분명한 블랙컨슈머(사실상 악플러)에게 강경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의 부당한 요구와 억지에 동조하여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되지못하는 이유들로 개인 sns 를 염탐하고 사상검증을 통해 직원들을 징계 및 해고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구조와 방식은 이시대에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폐단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불합리에 희생되어선 안됩니다 한국 민주사회 전체의 법규와 윤리를 저해시키는 게임업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4124	차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상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125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으로 페미니즘이 악의 축인것 마냥 매도하고 사상검증을 하며 또 이에 앞장서서 동조하고 지휘하는 넥슨은 제발 정신좀 차리시고 성평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4126	피해망상으로 여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게임사를 규탄합니다
4127	인셀에게 승리의 경험을 자꾸 주지마라
4128	혐오 공공연히 드러내어 게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하셨죠? 근데 왜 고확으로 온갖 여성 비하/혐오 발언은 제지를 안하셨나요? 지금 누구보다 앞서서 게임 망치기에 일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만든 음모로 끼워 맞춘 항의들을 일일이 받아주실 필요가 있었나요? 실망입니다.
4129	넥슨은 클로저스 사태로부터의 반 페미니즘 마녀사냥 확산에 책임을 져라.
4130	손에 힘풀고 있어봐요
4131	촌스럽고 구시대적이라 한국 게임업계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한국게임산업 도태의 원인
4132	진짜 혐오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길.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4133	제일 트렌디해야 하는 게임업계가 제일 뒤처졌네요. 한국 게임 망한 것 같아요.
4134	거 작은 거는 쫌 어지간히 티내라 전해주십쇼 아휴 진짜 내가 다 남사스럽습니다
4135	집게손가락은 페미니스트와 관련이 없고 페미니스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이상한 사상을 남몰래 설파하며 세뇌시키는 집단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평등주의자 전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성차별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체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나서며 '페미니스트를 반대한다', '강경대응한다'는 뜻은 남성우월주의이며 성평등주의자들을 공격하고 악마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4136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지만 게임업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악성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올바른 대처는 커녕 피해자(직원)를 해고하는 업계의 행위에 제대로 된 처벌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악성유저들의 억지로 인해 직원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상황인데 게임 업계는 그 직원들이 생계의 위협과 신상이 박제 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러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37	시대에 뒤떨어진 넥슨 정신차려
4138	정신 좀 차리십시오.
4139	의미없고 옳지도 않은 소비자의 의견에 대응하려고 여성혐오를 조장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414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남는 건 한남국자들 가득한 유저풀과 뒤틀린 성욕이 반영된 세계관+캐릭터디자인뿐.. 정신차려~!
4141	시대착오적 억지논란으로 여성 노동자 탄압하는 기업은 도태되어 마땅합니다
4142	블라인드 관리 똑바로해라
4143	이놈들아 작작해 세상 꼴 잘돌아간다
4144	소수 인원의 항의로 불씨에 기름을 붓는 꼴의 행태를 몇번이나 더 하실 겁니까?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한국 게임 업계를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더는 응원도 지지도 기대도 관심도 그 무엇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4145	있을 수 없는 일
4146	넥슨은 클로저스 사태때부터 네오플 여성 행사참여자 위협사건, 메이플스토리 사건 등등 매 사건마다 앞장서서 비정상적인 의견에 정당성을 실어주며 여성 게이머와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의 태세를 반성하고 여성 게이머와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라!
4147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귀기울이는것보다 유저의 게임 환경 개선에 힘써주세요.
4148	인게임 내 지역 혐오 및 여성 혐오 대한 대처는 미흡했는데 남성 혐오에 대해서만 빠른 피드백을 한 점에 굉장히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모든 혐오에 대한 대처가 맞는지 왜 특정 혐오만 반응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게임 업계에 일하는 여성 모두가 남성 유저가 과반수라고 해서 이렇게 사상을 검증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149	이제 편하게 게임하고 싶습니다..
4150	블랙컨슈머의 의견에 참동하는걸 그만두어라
4151	억지논란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4152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셀남들의 비위를 매번 맞춰주는게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일지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153	남성 유저의 말만 다 말입니까? 모든 판단에 사리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4154	게임업계의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4155	대체 왜 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외주 포함 함께 일한 동료들의 노동권을 좀더 존중해 주세요
4156	일부 유저들의 억지주장에 따른 페미니즘 규탄. 여성 혐오를 멈춰야 합니다.
4157	어째서 퇴보하는가? 인간은 유인원의 최종진화가 아니었던가? 그대들은 정녕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싶은가?
4158	여성 혐오를 멈추시오 지금은 2023 년 입니다 인권 퇴행하는 행보임을 인지하고 시정하십시오

4159	다들 마땅히 인정할만한 혐오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중지만 펴서 내미는 그런 특수한 손동작도 아닌, 일상적으로 흔히 나올 수 있는 손모양 하나를 트집잡아 어거지로 우기는 이러한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많이 양보해서 정지되어있는 일러스트라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닌, 중간중간 여러 프레임을 이어붙여 만드는 영상을 캡처해가며 그러는 것은 더욱 더요. 자연스레 손을 드는 과정에서도, 젓가락질을 하는 과정에서도, 손하트를 만들 때에도, 손가락을 튕길 때에도, 나올 수 있는 그 흔하디 흔한 손모양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다니요. 이 모든 동작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일시정지를 하다보면 집게 손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특정 손동작이 아닌 일상 행동 중에 자연스레 잡히는 손모양이니까요. 이걸로 트집잡는 게 당연한 것이 된다면, 거진 대부분의 영상매체는 논란이 될 것입니다. 자연스런 동작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저 손모양 프레임이 나오곤 할테니까요.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 자신은 혐오표현을 쓴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이 털리고 억울한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겠지요. 무조건적으로 떼쓰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구한날 신상을 털고 그걸 이용해 공격하고 단합하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의 의견만을 유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160	이런 억지를 언제까지 들어주시는 건가요?
4161	기업이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지 마세요
4162	말도안되는 소리에 눈치를 보며 여성유저 및 해당직무여성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조치에 대해 반성하라
4163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사례로 남아버리면 앞으로 더 많이, 자주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긴급 라이브를 켜서 모든 혐오에 반대하며 그렇기에 집게손가락에 의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메이플스토리 현 디렉터의 발언을 기억합니다. 그런 말을 이런 사태에서 내뱉는 게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그렇기에 더욱 목소리를 내어 잘못됨을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넥슨이라는 한 회사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게임업계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단순히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어떤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인지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어느 한 성별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며 성별과 그런 것들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번 일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게임업계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4164	우우 진작 뒤진 메갈 그만 매장 좀 시켜줘라 사상 검증 작작해
4165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4166	진짜 차별이 뭔지 바른 게임 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167	여성노동자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4168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사상검증을 하고 해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당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 척 할만큼 여혐을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보네요
4169	일부 악성 유저들의 행동에 줏대없이 흔들리는 회사가 만드는 게임은 더이상 하고 싶지 않다!
4170	넥슨은 지금까지 유구한 여혐에 대해서는 묵인해왔으면서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든 해당 건에 대해서 남성의 편을 들어주었다.
4171	기업이 한쪽의 말만 듣고 개인 sns 를 통한 마녀사냥, 사상검증은 그만해야합니다 게임 유저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용하는 여성 혐오적 단어, 그림, 짤, 밈, 조롱은 모른척 하면서 선택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4172	전세계 백만 명이 게임 프로 리그에 열광하는 시대, 대한민국의 게임업계는 결코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고작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여서, 게임업계의 업계인부터 유저까지 서로가 옳다고 위안하는 행위를 멈추고 세상을 보세요. 고작 그림의 작은 손가락 하나에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을 빌미삼아 크리에이터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못합니다.
4173	세상 누구도 사상으로 검증당하고 탄압당할 수 없다. 다시한번 넥슨의 어리석은 결정을 규탄한다
4174	언제까지 시대정신에 뒤떨어져서 도태될 생각이냐! 넥슨은 정신차려라
4175	언제까지 특정 집단의 억지논리에 비위맞추며 지낼건가요? 저 손모양이 남성 혐오의 증거라 말하는 이들은 저들 뿐이에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손 움직임이 어떻게 혐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혐오라 주장하는거야 말로 그들이 상식을 혐오한단 증거아닐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징징거림을 받아주다 일을 여기까지 키워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도 정상적인 게임 유저들도 글로벌 게임 유저들도 모두 놓칠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워요….
4176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느라 사상검증을 넘어 사상검열을 하는 것을 멈춰라
4177	허위 논란에 발 맞출거면 앞으로 그냥 모든 캐릭터 손을 짜르세요. 기사도 내시고요. 남성우월자들의 유희에 앞으로도 계속 모든 요구를 들어줄것이다.
4178	대기업이 정신 못차리고 노동자 탄압하는 까막눈 사태가 규탄스럽다.
4179	일부 남초 커뮤니티 회원들이 자행하는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사실상 방조하는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4180	넥슨에게 있어서 혐오란 남성혐오만 혐오인 것인가? 넥슨 게임에 무분별히 퍼지고 있는 고인모독과 여성을 비하하는 채팅 단어에 대해선 어째서 조용한 것인가?
4181	혐오, 적대감, 소모적 논란을 없애자~!
4182	어떤 게임에서든 악의적인 테러와 혐오적인 민폐에 동의하는 식의 게임사의 대응을 반기는 게임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그런 유저들이 버젓이 활동하게 두는 게임을 어떻게 신뢰하고 계속 애정할 수 있을까요?

4183	창작자라면 당연히 자신 작품에 애정이 있을겁니다. 근데 이유없는 억지 및 진상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내려야 하고 없는것처럼 취급을 당해야 하는건 부당합니다.
4184	더 이상 이 업계에 실망하지 않게 행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85	정신차려
4186	정신 좀!!! 차리고 뭐가 문제인지, 좀!!! 똑바로 봅시다.
4187	정신차리세요
4188	악성민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및 관련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임업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4189	멈춰
4190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모함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잃게 해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혐오에 맞선다는 위선적인 대의를 내세우며 여성노동자에게 사상검증을 시도하며 남성게임유저가 사상검증 피해자에게 가하는 사이버불링에 불판을 까는 넥슨 및 게임업체를 규탄한다
4191	몇 년 전 개인 SNS 계정을 뒤져보면서까지 문제가 되는 일인지. 논란이 되는 그 손가락 모양이 확실한 것도 아니며,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굽어있는 모양을 그렸을 뿐이고, 아주 짧은 순간 지나가는 장면을 게임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캡처하고 올렸다고 게시한 동영상을 비공개로 내리고 작업에 참여한 직원을 제외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게임 커뮤니티 여론의 흐름을 게임사측에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정녕 그 손가락 모양이 게임의 방향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인지.
4192	타인을 혐오하고 이러한 행위를 문화로 일삼는 건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아닌 현재 이 사태를 불러들인 일부 남성 유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적절하게 무시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직원을 잘라내면서 동조하는 행위는 게임업계 역시 본인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타인을 혐오하는 것을 문화로 일삼고 남을 조롱하는 행위"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193	마녀사냥을 멈추세요
4194	차별을 원하는 혐오를 순응해 불평등을 초래하려는 태도를 멈추세요
4195	넥슨과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종합 예술 분야인 게임을 시대 퇴행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골치아픈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방조했으며 심지어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 멸시와 사이버 스토킹, 그리고 여성 차별을 정의 구현이라고 우기는 넥슨과 한국 게임업계는 당장 여성을 향한 혐오를 중단하고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4196	집게손 억지 논란을 멈춰주시오
4197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거슬러 역행하는 후진 기업으러 남고 싶은게 아니라면요
4198	더이상 억지논란에 대응하지 말아주세요
4199	더이상 노동자의 노동권 및 보호받을 권리를 섣부른 사내 단독결정으로 인해 침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200	게임업계는 여성 제작자의 사상검증을 멈추십시오

4201	왜 인터넷에 말같지도 않은 부분에 다 대응하고 사과하는건가요 직원의 안부는 전혀 중요하지않나요
4202	한국 게임업계에서의 페미니즘 혐오몰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203	'페미니즘'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입장을 똑바로 명시하세요. 글로벌적으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 아니까 페미니즘 언급을 꺼리시는건가요?
4204	남초 억지에 그만 좀 놀아나라 아무 문제 없는 거 업계가 더 잘 알잖아? 마녀사냥 지긋지긋
4205	업계인으로서 더이상 이 나라의 업계에서 여성 근로자로 존재하기 두렵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든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게임업계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며 책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위해 노력하세요.
4206	집단적 착각에 의한 말도 안되는 주장인거 알면서 이번 사태와 같이 동조해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하청업체 및 노동자들을 함부러 다루지말길!
420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208	억지가 분명한 집단적 착각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참담하고 믿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억지논리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망치는 이 행위를 꼭 멈춰야 합니다
4209	페미니즘은 양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치관으로 왜 자꾸 여성이 억압을 받아야 하죠? 소수의 억지를 들어주면 들어줄 수록 게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어갈 것입니다.
4210	제발 죽어주세요 넥슨 ㅠ
4211	험한 말 나오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쇼
4212	당장 급한 불만 끄시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봐주세요
4213	페미니즘을 은밀하게 하겠다 하는 게 진심으로 애니메이션에 그런 걸 넣을 거다라고 생각하나요? 애니메이션은 동작 하나가 엇나가는 순간 아예 다르게 보이든지, 어딘가 어색하게 보이는, 흔히 작붕이라 말하는 게 됩니다. 동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부러 프레임 단위로 끊어보지 않는 한 모른다는 것은, 해당 그림이 애니메이션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현 사태에 대해 일방적으로 외주작에 대한 검열을 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은 기업 이미지를 악화시킨다.' 라는 주장과 상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건으로 인하여 기업 매출 저하 등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와 무언가 조치를 취했을 때의 명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는 한 그저 페미니즘이라는 남녀평등을 외치는 이념에 부정하며, 남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한 개인의 사생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등을 알아내어 언급을 하는 것은 사이버 스토킹으로 보입니다. 그런 스토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이견 없이 따라주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4214	혐오에 굴복하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요. 미래를 위한 행동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4215	잠깐은 편해도 잘못은 영원히 기록된다. 페미니즘 공부 좀 해라!
4216	제발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을 들어주지마라
4217	성차별주의적인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4218	말도 안되는 억지에 해명 하지 말아라. 게임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혐오는 무시하고 집게 손을 혐오라 지칭하며 넥슨은 어떠한 혐오도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철회하라. 하청 업체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멈춰라. 여성혐오를 멈춰라.
4219	언제까지 기업들이 도태된 인셀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과할건지.. 게임 속 여자들 옷 헐벗기면서 성적대상화나 멈춰줬으면 좋겠다.
4220	노동자의 권리는 사상과 신념으로 박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성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업계 최고의 기업의 경솔한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4221	여태까지 유저들이 사용하던 모든 종류의 혐오 단어 사용에는 조용하던 여러분이 이번 일에는 발빠르게 행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여러 의미로 대단하는 말 밖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4222	넥슨과 게임회사들은 여성혐오, 성별간 갈등조장 멈춰라
4223	성평등 가치관을 갖는 게 그렇게나 어렵습니까.
4224	마녀사냥식 부당해고를 멈추세요
4225	악성 유저의 억지 논란에 휘둘려서 여성 노동자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4226	정신차리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4227	부끄러운 줄 아세요
4228	억지 혐오 조장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는 사죄하고 반성하라
4229	게임 업계는 긴 말 할 것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여론 형성한 집단보다 더 크고 많은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세상의 반 이상을 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말아먹는 건 소맥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의 시간과 추억을 부정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4230	게임업계의 제품 완성도에 대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노동자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억지주장에 편승하여 상황을 무마하려는 행태를 반성하고, 2016 년도부터의 사태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책임을 갖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4231	스스로 게임을 질병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 하십시오
4232	'나의 심기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거는 컴플레인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사이트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괴롭힘 놀이의 진위를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등장하는 '집게손가락'이 실제로 남성들의 작은 생식기를 비하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으레 취하곤 하는 평범한 손동작이자, 애니메이션 동작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단계일까요? 편집증적이며 피해망상이 덧붙여져, 이 모든 과정을 재밌는 놀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해주었다가는, 우리는 모두 두 손가락을 묶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집게손가락'을 했다가 실직당할지도 모르니까요.

4233	억지 주장 일일히 다 들어주다가 피드백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 좀 파악하셨으면 ㅎ
4234	현재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 중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트집 잡기는 게임업계를 넘어서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모두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선 다양한 성별과 인종, 성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을 멈추세요
4235	내로남불 운영은 그만둡시다. 혐오 분쟁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속히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236	도태남 의견 좀 그만 받아주세요
4237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4238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4239	대기업 넥슨은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억지로 생떼쓰는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낙인찍어서 평생 일못하게 괴롭히는 행위에 앞장서서 동참하겠다는건가요?
4240	일부 악질 유저 및 분탕치려는 사람들이 여성 직원(창작자, 개발자 등)을 괴롭히기 위해 벌이는 행동들에 단호한 대응과 무반응을 촉구합니다.
4241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에 반응해주지 맙시다 좀 찌질해죽겠어요
4242	애초에 실체가 있지도 않은 여론몰이에 왜 장단을 맞춰줍니까 인간다운 동등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페미니즘이 왜 남성성기를 비하는 일에 기력을 낭비할까요? 각자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하기 바쁜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남의 성기에 집착할거라고 생각하나요? 특정 성별을 의도적으로 짓밟고 물리적 정신적으로 공격해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건 어떤 사람들인가요? 실체를 보세요 커뮤속 인셀들의 무분별한 극단적 놀이에 현혹되지마시구요. 애초에 그저 평범한 손동작에 억지 의미부여해 사회를 불편하게 만든게 누구인지 잘 따져보세요.
4243	페미니즘이 나쁜건지 사상검증하고 자기들입맛에 맞지않는 사상이면 잘라버리는게 이게 북한이 하는짓이랑 뭐가 다른지...이게 보도연맹 학살하던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페미다!잘라! 이게 맞는 사회현실인지 모르겠네요.
4244	일부 집단의 망상의 산물로 노동자를 위협하고 사상을 검증하려 드는 행위를 하는 걸 멈추시길 바랍니다.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무시하면 끝날 일을 어째서 최악의 수만 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245	게임문화 속 혐오몰이 규탄한다
4246	게임업계가 사람을 페미 정도가 아니라 열사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피드백에 부응해야죠 지방이라 오프라인 참여가 어렵지만 게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업계를 인셀놀이터로 만들 수 없네요
4247	게임업계의 일부 남성들의 억지 요구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는 성차별적 행위를 규탄합니다.
4248	시대는 변했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 한다면, 도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4249	하등 도움 안 되는 일로 기업이미지 다 깎아 먹네요 . 아무리 약자를 위해 기부하면 뭐합니까? 회사 직원 하나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 하나 안 막아주고 내치는데 말이에요.

4250	여성차별주의자 넥슨은 평등한척하지말고 차별주의자인거 티좀 내주길바란다 외국에서보고손가락질좀하게
4251	비슷한 사건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도 여전히 직원보호조치 없이, 엎어놓고 부리는 생떼에 굴복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4252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면서 징징거리는 말 들어 주는 게 진짜 어른이 할 짓이고 인간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나요 도태된 사회에 일조하고 게임 이미지 망치고 세상 퇴보하게 만드는 거 반성하세요
4253	여성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을 혐오사상으로 악마화하지 마라. 특정 사상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당장 중단하라.
4254	이런 말도안되는 억지에 동조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모든 넥슨 게임 불매에 참여합니다.
4255	피해의식에 찌든 사람들 말 더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혐오는 진짜로 누가 하는지 다들 모른척 하는 건가요
4256	인셀들의 어거지 악성민원에 납작 엎드려 하청업체와 직원들을 부당하게 겁박하는 일이 현대에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부당하게 업무배제 당하거나 실직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4257	말도 안되는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258	넥슨은 말도 안되는 진상민원에 약자인 여성노동자와 하청업체를 희생양으로 내던지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4259	집게손이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지 않길 바랍니다
4260	상식적인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기업. 정신 차리길.
4261	여성혐오자들의 말에 의해 회사 운영할 회사라면 회사 문 닫으세요.
4262	운영 미숙을 페미 색출로 덮으려 하지 말라

4263	본 기업이 기업의 이득을 위해 사용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주업체와 업체 직원의 보호를 하지 않고 직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을 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상근무를 이유로 근무시간 외 직원들을 불러 근무를 시킨것 또한 규탄하는 바 입니다. 공지 하나와 외주작업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는것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며 게임업계에 전염병처럼 돌고있는 사상검증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어떠한 혐오도 용납 불가능 하다는 신빙성이 없는 말에 대해서 사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넥슨은 어떠한 혐오도 용납하며 방관, 무시해왔으며 개인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본사에서 일일이 통제 불가능하다며 외면해 왔습니다 본 기업의 직원들 교육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본 기업의 직원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초면인 사람이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혐오성 발언을 수도 없이 사용한 전적이 있는것으로 보아 말씀하신 발언에 대한 정정과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기업의 성인지 교육과 차별금지 교육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블랙 컨슈머와 스튜디오 뿌리에 대한 악질적인 비방 및 스토킹을 한 본 기업의 유저들을 모니터링해 처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기업의 유저들은 부끄러움조차 없는지 스튜디오 뿌리 직원들의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회사에 찾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에서 용납 방치 외면했기에 생기는 일 입니다 책임지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꼭 처벌과 사과 부탁드립니다.
4264	이런 생산성 없는 그리고 허구의 논란에 반응하는것이 부끄럽지않으신가요? 과거 마녀사냥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습니다. 그 논란 하나하나에 다 반응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요구할까요? 정신차리세요 제발
4265	일부유저의 집단적 착각, 억지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라
4266	극히 치우친 일부 유저들의 선동에 그만 귀기울이고, 사내 사원 보호에 힘쓰십시오. 꼬리자르는 식의 대처,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사원을 보호하고, 법규를 준수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됩니다.
4267	게임업계는 여성 종사자를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라. 트롤들의 억지 깽판에 노동자를 보호하라. 엇걔애 만연한 여성혐오를 멈춰라.
4268	사랑했던 게임으로 남는 것은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싶어요
4269	진짜 미개
4270	더는 사상검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271	계속 반복되는 불합리한 "사상검증"을 반대합니다.

4272	넥슨 및 게임 업계 분들은 집게 손 모양을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의 억지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사상검증을 하고 직원을 해고 하고 일러스트를 날린다는 것을요. 그 피해망상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게임 업계 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업계의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중립' 지대가 되면 좋아질까요? 우르르 몰려가서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문화는 콘텐츠 업계 전체로 퍼지고,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10 년치 작업물을 싹 들어내서 손가락을 지우고 해명문을 쓰면서 야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사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노동환경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페미를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하는 그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업무를 나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273	근본적으로 혐오, 노동권 침해 등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도 못되는 혐오사회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넥슨 및 게임업계 분들 진짜 망하기 전에 빨리 정신 좀 차립시다
4274	사상검증 불법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정신못차릴건지?
4275	억지논란 창조해낼 시간에 게임운영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4276	어처구니 없는 마녀사냥을 멈춰라
4277	사람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4278	억지논란을 멈추라
4279	여러 시각에서의 팩트체크도 없이 특정 소수의 의견만으로 사과문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지지해주는 것이며, 넥슨 같은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업계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근래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게임업계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특정성별만 존재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4280	게임업계로 가려다가 진로를 변경하여 현재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제발 이런 잘못된 혐오는 규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81	집게손가락이 진정한 남성혐오의 표현이라면 집게손가락을 그리거나 표시하거나 드러낸 모든 사람을 비판하겠지요. 그런데 넥슨을 포함한 게임업계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남성의 집게손가락은 혐오가 아니지만 여성이 하면 혐오이자 테러입니다. 이것이 여성혐오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집게손가락이 정말 남성혐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겁니까? 이는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 괴롭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게손가락이 남혐이라고 주장한 일부 커뮤니티 유저들은 집게손가락이 페미니즘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메이플 디렉터는 혐오하는 사상을 가진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페미니즘이, 집게손가락이 혐오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여성집단을 비하하고 부당해고하고 편견씌우는게 혐오입니까? 진정한 혐오집단은 집게손가락이 남혐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제기한 그곳입니다. 여성을 피싸개로 비하하며 여성캐릭터를 성상품화하고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는 그 커뮤니티가 바로 혐오하는 사상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까? 메이플 디렉터는 대답하십시오. 페미니즘에 반대하십니까? 집게 손가락이 페미니즘의 상징이며 이는 곧 남혐이라고 말씀하신겁니까? 라이브에서 말씀하신 혐오하는 사상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며 지금 하는 행동은 무슨 의미입니까?

4282	억지논란을 멈춰라. 직원을 보호하라.
4283	이상한 거에 먹금 하나 하지 못하다니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거 하나씩 들어주면 나중에도 점점 말도 안되는 걸로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도 생떼 부리는 거 알아요. 외국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넥슨이 국내에서나 대형취급이지 밖으로 나가면 작은 기업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4284	우리 모두 모두에게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보아요…
4285	21 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상 검증 실화입니까? 놀랍네요. 넥슨 측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왜 그렇게 언급을 피하세요? 외신 보도까지 가봅시다. 망신 당하는 건 누군지 끝까지 간다.
4286	메이플 현디렉터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평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평등한 게임을 위해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4287	젠더폭력을 멈춰라
4288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거 알고 계시죠?
4289	인터넷의 허위사실에 선동당해 유저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4290	말도 안 되는 유저들 트집에 굴복해 여성 사원을 압박하고 앞에 내세워 욕 먹게 한 후 강제 퇴사시키는 짓은 그만하세요. 보기에 정말 추합니다.
4291	한국 게임 업계를 망치는 이러한 집단적 혐오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4292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일부 남성들뿐만이 아닌 업계의 잘못이 더욱 큽니다. 논란이 될 일이 아닌 일을 억지로 논란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성 유저는 유저가 아닙니까? 더불어 여성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노동자가 보호 받는 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4293	인게임에서 여성 캐릭터의 도를 넘는 옷의 수위와 노린 듯한 신음 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숙이는 자세로 대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담하네요. 외주 회사에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뭐가 무섭길래 직원을 자르고 일을 계속 들추고 계시나요? 또한 페미니즘은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어떤 것에 기업으로서 반응을 하려면 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4294	니들은 그냥 호구잡힌거다
4295	블랙컨슈머의 의견을 마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인 양 받아들여 하청업체 또는 일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4296	억지논란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생기는 꼴은 그만보고싶습니가
4297	부당한 혐오세력 비위맞추기, 일방적 편들기 멈추세요.
4298	민감한 주제의 갈등은 충분히 회의를 거치고 대기업이라는 자각을 한 뒤 성급하게 대응하지않았으면한다
4299	이번 건과 더불어 과거 클로저스 사건도 포함하여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업계까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 건으로 우리나라 게임업계 대표 대기업으로서 대국민 사과와 해당 공지를 내린 디렉터들 해고, 피해 망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를 모욕한 모 사이트 유저들을 고소하길 바랍니다
4300	평등한 사회가 언젠간 오겠죠

4301	좋은 게임을 만들어도 결국 억지 논란에 의해 직원을 해고하고 그런 손가락 운운 억지에 호응을 들어주는것은 결국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게 됩니다.
4302	억지부리는걸 봐주면 더 억지 부립니다
4303	남자들 헛소리에 휘둘릴시간에 회사 발전에 힘쓰세요...
4304	게임업계는 여성혐오를 멈추거라
4305	더 이상 극히 일부의 억지 주장을 옳은 말인 것처럼 들어주지 말라
4306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4307	제발 특정 커뮤에 절어서 살지 말고 세계시장을 보십시오...
4308	시작도 넥슨이었으니 이번에는 넥슨이 망하는 결과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4309	명확한 근거와 주장도 없는 심지어 주관도 없는 잘못을 인정하는 꼴,
4310	女性嫌悪をするのはやめてください。人権について学んでください。
4311	남성의 성불평등이라는 미망에 빠져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멍청한 행동. 여성들을 잘라낸 칼이 조만간 본인들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미래가 없는 행동.
4312	한심하네요
4313	말도 안 되는 징징거림을 언제까지 들어주고 계실 건가요?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4314	넥슨의 입장 표명은 넥슨 게임 내의 수많은 여성 유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외시켰으며 현재 여성 유저들은 공공연한 여성혐오와 차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을 일으킬지 정녕 몰랐습니까? 타인을 혐오하는 사상을 몰래 드러내어 희열을 느낀다고 발언한 김창섭 메이플 디렉터는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메이플 내에 노골적인 여성 혐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남성들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입맛을 맞춰주면서 게임 내 여성유저들이 당하는 혐오와 차별에는 묵인하고 방관할 것입니까?
4315	2016 년 부터 지속적으로 넥슨과 국내 게임업계에 실망했습니다. 악성민원에 손을 들어주며 혐오몰이를 지속하여 쌓은 회피와 업을 언젠가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될겁니다.
4316	그냥 수준에 맞는 대처를 하셨다고 봅니다 어차피 안하지만 더더욱 이 회사 게임은 할 일이 없겠네요
4317	논란의 여지가 될 요소에 제약을 두시려면 공평하게 제약을 둬주세요. 여성의 성기나 성범죄와 관련된 닉네임은 두시면서 손가락 모양만 물고 늘어지시네요.
4318	제가 지금 마비노기를 하고 있는데 십년이 넘은 국민게임을 두고 접어야하나 고민중이니 제발 잘 좀 하세요. 하늘보기 우러러 부끄럽지 않습니까?
4319	사업을 거국적으로 하십시오
4320	이런 무논리 우김에 회사 전체가 난리나고 피드백 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네요... 세상을 좀 똑바로 바라보시길..
4321	이렇게해서 남는게 뭔가 싶네요 변화하는 시대를 알고 정신 차리시길
4322	집게손 처음보냐

4323	일부 악질 유저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게임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음을 해외 여러 게임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단어만 나와도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집게손'따위를 이유로 일러스트를 수정하거나, 누군가의 작업물을 비공개로 돌리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만의 악질적인 놀이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4324	21 세기에 이런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325	쪼잔한 남자들 눈치좀 그만봐라.
4326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절친한 친구가 다 큰 어른이 되어 여성에 대한 폭언과 손찌검을 하는 아주 비열하고 찌질한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절할 마음은 이미 먹었지만 마지막 우정으로 친구가 못난 짓을 그만두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4327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4328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를 멈춰라.
4329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나요.. 대체 이 창조논란을 누가 만들어낸건지 그리고 그걸 받아준 대가로 앞으로 얼마나 검열당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4330	사회를 혐오로 더럽히는 세력에 동의하지 말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4331	억지 논란으로 노동자를 부당해고하는 혐오몰이는 사라져야합니다.
4332	제발 편하게 게임 좀 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과 논리를 들이밀며 게임 업계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마세요. 직원을 보호하지도 않고 직원을 공격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기업에는 제 돈도 시간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4333	정확히 어떤 사항이 문제인지 밝히지 않고 혐오를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히며,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혐오에는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1 프레임에 남성혐오의 집게손을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들은 심심함에 건수를 잡아 항의하고, 이를 받아들여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결정에 수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마녀사냥을 멈추고, 진정한 혐오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십쇼.
4334	그렇게 망하고 싶으시면 미리 말하세요
4335	대한민국에서 여성 게이머로 살아남는 것이 아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4336	게임은 여성도 합니다. 올바른 시민 의식을 지니고 노동자를 대우하십시오
4337	일부'유저들의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어떻게 어울려주는지 모르겠네요...^^
4338	혐오는 누가하고있지?
4339	2023 년이 지나가며 변하는게 많은데 게임업계는 그대로다. 언제까지 여자 탓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등한시 할 것인가
4340	억지논란 멈춰라
4341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여러 커뮤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342	게임문화 속 여성혐오를 멈춰라! 집단적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휘둘려 여성노동자를 배제허거나 탄압하지말라!
4343	혐오표현은 자유랍시고 주장때리면서 소수자, 약자들 차별 때리다가, 본인들은 집게 손가락 나오자마자 혐오라고 주장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엄지랑 검지 평생 못 쓰고 살기 싫으면.
4344	유저의 의견을 들을 것이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듣지 말고 동일하게 들어라
4345	일부 남성 유저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결국 남는건 한줌의 유저뿐입니다. 그 유저들의 구매력이 이탈한 유저들을 커버할만큼 크다고 생각치않습니다. 기업은 한치앞보다 더 미래를 보십시오
4346	특정 커뮤니티의 말만 듣고 운영하지 마십시오.
4347	정신차리세요
4348	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을 좀 길러주세요. 한국게임의 글로벌 인기를 노린다고 하는데 이런 노동환경 성평등 의식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4349	사상검증 부당해고 규탄합니다
4350	남성 인셀 유저의 불합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게임운영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책임을 페미니즘과 여성 노동자에게 돌리는 짓을 멈추십시오. 부끄러운줄 아시기 바랍니다.
4351	억지 부리는 남성들 비위 맞추겠다고 여성 노동자 괴롭히는 것 좀 멈춰라. 회사면 노동자와 작업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게임강국 대한민국“ 수준이 겨우 이 정도냐.
4352	지금 진짜 혐오를 하는 건 어느쪽인지 잘 생각해봐라.
4353	개억지주장 일일히 들어주지 마쇼.
4354	제정신 차리라고..하고싶은데 그랬으면 이 사단이 안났겠거니 싶어서.. 앞으로의 처신이나 똑바로 했으면 하는 바람..
4355	꼬꼬마 시절부터 넥슨 게임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2016 년 사건도, 노동자를 우습게 보는 일련의 행동들과 바뀌지 않는 업계의 현실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4356	손가락 하나로 망상하는 집단 얘길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게임에 남성유저만 있습니까? 남자만 유저취급하나요? 여성도 유저구요. 다 떠나기전에 넥슨 및 타 게임업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4357	멀쩡한 애니메이션 동화에 피해망상으로 의미부여해서 성차별 하지 마시고 실제 소아 그라비아를 트레이싱하여 아동을 성적 대상화 시킨 블루 아카이브의 남 일러스트레이터나 해고하십시오
4358	한 번 이러는데 다음에도 안 이러란 법이 어디있냐. 다음에는 스토리 작가를 자를 것이고, 레벨 기획자를 자를 것이고, 여자를 자를 것이고, 장애인을 자를 것이고, 이윽고 평범한 남자까지 자를 것이다. 다수의 목소리에 소수를 죽이는 것은 민주주의도 평등도 아니다.

4359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혐오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혐오나 장애인혐오, 비백인 외국인을 향한 혐오 등 약자를 향한 혐오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엔 '게임'역시 혐오받는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향유하는 '게임'이라는 문화는 수많은 청소년 범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는 했습니다. '게임'이 어린 뇌에 좋은 영향만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런 청소년 범죄의 원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졌던 정서적 불안정)이라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대게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는 가정과 사회에 의해 일어난 것이니까요. 게임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든, 게임을 오래 한 게이머든 그 사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는 게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흔히 말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는 했으니까요.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걱정하고 의심하는 우려의 시선을 받아본 것은 비단 제가 있던 무리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러한 '게임'에 대한 '문화적 혐오'를 딛고 e 스포츠 강국이 되며 그런 혐오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는 '문화적 혐오'를 이겨내었지만 '사람'을 향한 혐오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겨내기는 커녕 진행중입니다. 혐오를 이겨낸 우리는 어째서 다시 누군가를 핍박하며 배제하고 혐오하고 있습니까? 페미니스트란 범죄자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치즘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더 이상 차별당하기를 거부하는 성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이들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는 합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그를 주장하고자 할 뿐인 사람들입니다. 위의 주장을 하는 많은 이들이 '페미는 정신병이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의 심리학자, 정신과의 등의 저명하신 분들께서 '한국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허나 그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한국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아닌 손 모양 하나로 타인의 일자리를 없애고자 하는 '인셀'들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입니까? 아니면 업무 과정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동화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은 페미니스트며 자신의 사상을 창작물에 묻히고 있는 반사회적인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반사회적 존재입니까?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오랫동안 게임이라는 문화를 향유해 온 사람이며, 사회경험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그들의 터전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며 정당한 컴플레인이라면 저는 기꺼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부디,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4360	창조남혐으로 가장한 여혐을 멈춰주세요
4361	이번 기회에 넥슨이 안티페미 여성혐오 집단에 어필하려고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데 동참하는 짓에 대해 이젠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이건 그냥 이지메예요. 이런 걸 허용하고 영합하는 건 그냥 공범입니다.

4362	말도안되는 일에 혐오 작작 붙여라
4363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여성노동자 탄압을 멈춰야 하고 외부에서 노동자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격한다면 노동자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옳다
4364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려 하고, 억지스런 주장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4365	남성들의 억지 창조 논란에 기업들이 애꿏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싶습니다. 기업으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검증으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무엇을 믿고 일해야 합니까? 기업들과 노동자, 나아가 이 사회에 불신을 심게하는 남성들의 행동을 규탄해야합니다.
4366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쓰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4367	일부 목소리만 큰 남성들이 집게 손으로 생 트집을 잡는 게 어이가 없지는 않으셨나요? 그런걸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 하고 이렇게나 미흡한 대처를 보인 거라면 귀사도 하락세를 타고 저물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진상들은 귀사를 손절할 거에요. 고작 몇 달 전에도 선례가 있었고, 클로저스의 끝이 어땠는지 알 만한 분들이 왜 그러셨나요. 학습능력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죠...
4368	뭐…. 그렇게들 사십쇼
4369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느라 게임업계를 넘어선, 타 업계에도 피해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분명 더 있겠죠.) 정녕 게임업계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게임업계의 특수성과 시장 논리 운운하며 진상들의 억지를 받아주는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노동자 보호에 힘쓰십시오. 일개 개인을 총알받이, 제물로 앞세워 여론을 잠재우려는 짓을 멈추십시오.
4370	법적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낮은 프리랜서 노동자 그중 여성만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개발자로서의 무능력함을 감추고 유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기만하는데 더이상 페미니즘을 이용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4371	게임문화속 페미니즘 혐오분위기조성 동참을 멈추세요
4372	업계 탑 3 기업으로서 경거망동한 업계의 안좋은 선례를 남기지말고 체급에 맞게 행동하시오
4373	억지요구 더이상 들어주지마십쇼.
4374	넥슨 뿐 아니라 수 많은 게임으로 어린시절을 보낸 여아들에게 보란듯이 선긋는 행태를 잘 보았다. 이제 이런식으로 장사하고 싶다면 난데없이 뒤통수 치지 말고 애초에 가입부터 남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어차피 나중가서 여자들은 필요 없다고 쫒아낼거 왜 들어올 땐 모른척 앉아서 손님으로 받는지?
4375	여성혐오를 멈추세요!
4376	그렇세 소-심해서 사회생활은 어찌하누 쯧
4377	억지 논란 좀 작작 좀
4378	게임업계 부당해고에 반대합니다.
4379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4380	진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억지 주장을 다 맞다고 받아주니 정도를 모르고 패악질을 부리는 남성 유저들의 모습이 넥슨 눈에는 정녕 안 보이시나요? 이번 사태의 원인도 무슨 허공에 주먹질 하듯이 갑자기 페미를 끌어들여와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야근은 페미탓' 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 업계의 사상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좀 부끄러우니까 이런 되도 않는 억지 주장 좀 펼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4381	여성혐오를 적극 옹호하며 가담하는 것으로 결속을 유지하는 업계라면 사라지는 것이 맞다.
4382	장기적인 미래를 보세요. 이 일련의 사태가 게임업계에 대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당장의 수익을 지키고자 한쪽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을 들어주면 한쪽은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이 유저를 지키기를 했나요 기업으로서 가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를 했나요? 노동자 한명 보호조차 하지 못하는 기업에 신뢰는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중심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4383	한심합니다
4384	정신차리시길!!
4385	이번 사건이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386	페미니즘 혐오라는 껍질을 뒤집어쓴 여성노동자 탄압을 즉각.중지하라
438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4388	억지 혐오로 인한 사회적 혐오감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의도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과를 안 하면 그만인데,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듯이 사과하지 말아주세요. 더욱 많은 업계와 사람들이 억지 논란에 휩쓸려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4389	성차별주의자들의 말을 왜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390	억지논란에 동조해서 결국 성차별를 굳건히 하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4391	말같지도 않은 트집 잡으면서 엄한 노동자 사상검증 작작하세요 인셀남들 칭얼거림 다 받아주는거 보기 역겹습니다
4392	잦은 여혐 없어져야된다
4393	정신차려라
4394	사상검증 그만해
4395	어떠한 이유로든 사상검증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부 유저들의 억지 요구에 일일이 화답하며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들어 앞으로의 게임 산업에 무수히 많은 검열과 불필요한 요구가 동반될 것입니다. 넥슨은 해줬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식으로 타 회사 및 직원들에게도 끊임없이 사상검증이 되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회사는 또 직원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악순환은 여기서 끊어야합니다.
4396	넥슨은 일부 남혐몰이꾼들에게 복종하지 말라! 손가락 논란에 후다닥 납작 엎드려 기는 넥슨은 게임업계의 악덕괴물일 뿐이다!
4397	일부 인셀들의 억지 논란 우기기 그만 들어주시고 정당한 직원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4398	넥슨과 게임업계는 일부 한국 남성들의 사상검증과 페미니즘 혐오, 우기기를 더 이상 상대해주지 말아라.
4399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4400	1 프레임에 억지로 그런걸 끼워넣을만큼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4401	해당 게임사의 결정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손동작을 가지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페미, 메갈이다 (심지어 메갈은 이제 활동하지도 않는 집단인데도) 라고 몰아가는 것이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2023 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네요.
4402	무분별한 인셀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의해 여성의 노동권을 탄압하지말라.
4403	억지 논란 하청업체 갑질 부당해고 규탄하라
4404	진짜 정신좀차려라
4405	진정한 차별의식과 사회적 혐오에 기인한 논란에는 마땅히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나, 인터넷 상의 일부 집단이 근거없이 제기하는 억지 혐오 논란에 한 근로자의 생계를 이리 쉽게 박탁하다니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 조를 필히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4406	이 일은 결코 게임업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안좋은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4407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4408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게임을 말하고 싶다면 싶다면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아닌 플레이어 전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함이 마땅하다. 과연 현 사태에서 게임 업계들은 모든 집단과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장담할 수 있는가? 특정 집단이 주장하는 혐오 표현에 고의적인 혐오 표현이라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토대로 하청 업체를 향한 규탄과 압박, 갑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지, 현 사태에서 내린 결정에 과연 차별 없는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여 판단하길 바란다.
4409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문화를 과연 누가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4410	페미니즘 색출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고 마녀사냥하는 작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4411	여성에 대한 사회 수준의 집단적 괴롭힘. 대화가 통하질 않는다. 공포스러운 수준.
4412	게임사가 유저와의 소통과 피드백을 주고 받는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억지논란에 일일이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측은 노동자의 인권보호및 노동의 권리를 위해 즉각 노력하라.
4413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을 들어주는 기업들로 인해 일부 유저들의 자아가 비대해지며 혐오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억지논란을 해명할 것이 아니라 억지논란으로 피해보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4414	폭력적인 사상검증을 멈추고 작가들을 지켜주세요. 대기업이 디시인셀여성혐오자들에게 굴복하는 모습 추합니다!
4415	별 논란에 피드백을 다해주고 앉아있네
4416	일부사람들의 억지논란에 휘둘리는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번 한번으로 끝날까요? 이 일이 전체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미있는 게임 좀 만들게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지켜주세요.

4417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 쪽팔린줄 알아라
4418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
4419	어느 방향이 더 옳은길인지, 미래지향적인 길일지 생각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연한 것이고 그 누구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으로 피해를 봐선 안됩니다.
4420	시대적 퇴보
4421	제발 찡찡거림 먹금좀요 쪽팔려죽겠어요
4422	논리 없는 주장에 논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체 없이 사과하고, 그러며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를 갑의 위치에서 위협한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본인들도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확실한 논리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3	2016 년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어진 반페미니즘 사상검증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가짜 논란, 가짜 혐오몰이에 휘둘릴 겁니까?
4424	"걸스 캔 두 애니띵", 강남역 비하로 페미니즘 차별을 시작한 넥슨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한 대답을 받아야합니다. 모든 문제는 넥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끝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모든 논란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4425	정신차리세요
4426	페미니즘은 혐오가 아니라 인권이다
4427	이 의미 없는 마녀사냥에 부응해주는 것이 그들의 영향력을 과대인정하여 사회에 퍼뜨리는 일 외에 대체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4428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라
4429	던파에서 실질적인 유저탄압을 당했던유저입니다. 당신네들의 좀더쉽게가기위해 행하는 관심돌리기, 꼬리자르기가 유저들의숨통을 조입니다. 저는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릴적부터 즐기던 게임을 하고싶은것 뿐인데, 이런식으로 저의 추억을 훼손하고 전혀 즐겁지않은 경험을 선사해주시는군요. 이젠 저의 직장인 애니업계까지 더러운 검열의똥물을 튀겨주시는 행태에 깊은 울화가치밀어오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유저간의갈등조장과 외주사, 개인을통한 꼬리자르기등을 계속 해나간다면 그 누구도 당신들과 협업하고 싶지 않겠지요. 갤에 자아위탁하지 마시고 21 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답게 자신의머리로좀 생각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4430	평소 노출 심한 여성캐릭터들 보면서 한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게임업계 수준 좀 높입시다
4431	언제까지 정신 나간 의견에 집중하며 말도 안되는 짓을 반복할 건가요.
4432	말도 안되는 억지로 사상검증과 더불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433	게임업계는 인셀 및 DC 의 억지 수용을 중단하라
4434	그렇게살지마쇼
4435	게임업계 규탄한다! 억지논란에 장작 넣지 말고 부당한 여성혐오 멈춰라.
4436	진정한 지식인이 맞습니까?

4437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일부 남성들의 분탕질에 이끌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끼리의 세상에 갇혀 살고자 하시는 건가요?
4438	이는 게임 업계,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 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는지 확실하게 만들어준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고작 일부 커뮤니티의 망상으로 한 사람의 직장까지 잃게 만들고 수많은 작품들의 비공개와 교체를 불어 일으키며 이에 대해 그 일부 커뮤니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반대 의견을 내는 자들을 헐뜯고 깎아 내리고 심지어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이지만, 그 일부 커뮤니티 유저가 실제로 스튜디오 뿌리 회사 앞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전에 프로젝트 문 사 앞으로 가서 자신들의 불만을 표시한 사건과 일치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https://x.com/social23533/status/1729029634409582938?s=20) 또한, 익명 사이트인 '블라인드' 에서 넥슨 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유저에게 넥슨 사의 유저가 심한 욕설을 내뱉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https://x.com/sukideathh/status/1728933913559740851?s=20) 이런 식으로 2 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100% 까지는 아니여도 초기 대응을 잘못한 넥슨 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며 과거에 이와 비슷한 대응을 한 프로젝트 문 사와 다른 수많은 회사의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변명하기엔 <로드 오브 히어로즈> 제작사인 클로버게임즈 사는 게임 외적의 문제에 관해서는 문의 사항을 안 받고 있으며, 받아도 이른바 '먹금'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종식되는 것을 보여줬으며 다른 해외게임사인 호요버스, Cygames 등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여성 소비자도 소비자이며 같은 인간입니다. 남성인 제가 이 말을 해봤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커뮤니티에 상종하는 남성들의 말을 듣고 다른 의견은 신경도 안 쓰고 새벽에 바로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로 꼴볼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례가 계속 쌓이면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발전이란 결코 없으며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멸망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인 미래까지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신 주최자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비록 밖에 나가서 까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4439	말도안되는 인셀들의 의견에 반응하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4440	남녀노소가 전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 만으로 신상이 위협당하는 일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4441	논리도 없고 혐오만 남은 징징이들 이야기 좀 그만 들어주세요
4442	악성 어거지 우기기 민원에 자사 직원과 협력업체의 밥줄을 끊어놓는 비열하고 쓰레기같은 짓 그만하길 바란다. 넥슨 탈퇴하려고했더니 마비노기 유저는 절차 넘 복잡하다 원클릭 탈퇴 시켜달라
4443	정신차리세요.
4444	이는 여성에 대한 괄시로 빚어진 사태임과 동시에 민주화 이래 고용인의 사상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한 아주 본질적으로는, 전혀 페미니즘과 상관 없는 손가락에 의미 부여를 한 남성들로 하여금 논란이 된 문제를 여성 노동자들이 책임지게 된 사태이기도 합니다. 수익 구조에 눈이 멀어 모든 차별을 묵인하는 넥슨을 규탄합니다.

4445	페미니즘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4446	이상한 자격지심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비합리적인 해고를 강행하는 게임업계. 논란을 핑계로 여성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임업계. 논란은 핑계고 그저 여성에게 급여를 주는 게 싫기 때문 아닌가?
4447	분탕종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게임을 위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4448	공부 좀 해라
4449	넥슨이 되도 않는 징징거림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냥 다 받아주는, 매를 아껴 사람과 사회를 망치는 크나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4450	이번 일로 게임업계가 인셀 손절좀 쳤으면
4451	집게손으로 인해 생긴 남성혐오를 핑계로 이루어지는 직장을 잃어버릴수도 있는 사상검증 및 여성혐오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4452	추억의 게임 사이트 넥슨은 이제 무분별한 남성들의 억지와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에 대해 더이상 들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4453	당신들이 맞서야 할 건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라 혐오와 편견에 휩싸인 게임 유저들입니다. 그들의 억지와 생떼에 동조하지 마세요.
4454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4455	오랜 시간 넥슨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여성 사용자로서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조차 없는 과대망상 민원을 전제로 실제 노동자의 작업물을 내리고, 삭제하고, 책임을 묻는 사태에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넥슨은 아무리 하청이라 해도 직원의 권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게다가 그 일을 떠나서도 이 사건은 게임문화 전반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절대 다수인 상식적인 게임유저들이 넥슨이라는 게임회사를 적대하게 될 거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부터도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넥슨 게임을 계속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도 인구가 적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반이 여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심지어 일베, 디씨 등에서 활동하는 인셀들은 절대 다수가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줄이 될 수 있을까요? 인셀들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굴지 말고 제대로 장사하십시오.
4456	제정신이신지...
4457	부디 업계에 뿌리박힌 여섬혐오와 부당해고를 조금이라도 들어내 없애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를 그만두고 사내 직원 보호를 우선시하십시오.
4458	쉐도우메갈의 망상에 휩쌓여, 열심히 사는 여자들 생계 뒤흔들지 마시고,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미래좀 생각하며 사세요. 여자를 '동등한 사람' 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의 미래도 행복할 순 없습니다.
4459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서 실망이 큽니다.

4460	저는 게임그래픽을 공부중인 여학생이자, 어릴적부터 넥슨 게임을 즐겨하던 여성 유저입니다. 근래 게임업계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넥슨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게임을 선물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넥슨 기업신념에서 여성은 제외였나봅니다. 그림을 조금이라도 배우셨다면 알겠지만 해당 집게손동작은 손에 힘을 풀고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기본포즈입니다. 왜 사실확인도 안 된 피해망상에 손을 들어주시나요? 오히려 지금까지 몇번이고 게임업계 여성 작업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집단적 린치가 어떠한 혐오사상에 의한 것 아닐까요?^^ 여성을 검열하고 검증하고 생계를 끊어버리려는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한국 게임을 어떤 여성이 하고싶을까요.
4461	스스로가 얼마나 구린지 알려주기도 지치지만 더는 여성과 역사를 망치지 마라
4462	제정신촘 차리시길
4463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당연한 현재의 분위기를 철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SNS 를 검열하는것도 지양해야하며 이런 인터넷의 억지 요구에 휘둘려 근로자 보호를 못하는 회사는 제대로 정신차려야 합니다
4464	게임 업계에서 정의하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애니메이팅과 디자인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기본 손 동세를 "페미니즘 손가락" 즉, 혐오 표현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는 메갈리아 손동작과 논란이 되었던 장면의 손의 모양이 전혀 비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사상 검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을 남성 비하라고 생각하시는지? 손가락에 페미니즘과 남성 비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4465	이상한 사람들의 여론몰이에 과민반응하지 말아주세요. 더불어 가해자인 일부 남초세력의 의견에 동조하는 회사 내부 분위기도 자정하시길 바랍니다
4466	유구한 여성혐오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게임업계의 부끄러운 민낯 잘 보았습니다.
4467	페미니즘 혐오몰이 억지논란 집단광기를 멈춰라
4468	게임업계에서 더이상 무분별한 사상검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469	같은 게임업계인으로서 비참하고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대기업의 이름을 지고 있다면 그에 준하는 사회적행동과 사내기업인들의 인식개선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4470	구글 및 세계적인 기업의 행보좀 보길
4471	한심하다
4472	여성을 이런식으로 차별 하지 마십시오
4473	부끄럽습니다 의식수준이.

4474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찐 게임유저의 소리나 잘 들으십시오.
4475	정신차리고 2023 년을 살아라
4476	억까 제발 그만
4477	내 밥그릇 뺏어가지 말라고 제발
4478	헌법에 따라 개인의 사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4479	하등 상대할 가치가 없는 억지 트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셀남들의 억지주장을 곧이곧대로 듣고 따라주는 행보에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수많은 여성 유저뿐만 아니라 함께 게임을 만들어준 창작자들에게도 고개숙여 사과하세요 넥슨은 여성유저를 유저로 보지 않는 차별주의자들로만 이루어진 회사라는 걸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질테니 더럽게 한번 싸워봅시다
4480	근시안적 이익에 눈감은 결정은 한국 게임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 명심하라
4481	이번 사건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각했으면 한다
4482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기업이 받아주는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2016 년부터 선례를 만든 넥슨이 2023 년에도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4483	8 년이 지나도록 한치의 반성도 없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였다는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기업이 나서서 혐오 세력들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일을 그만두고 실재하지도 않는 남성 혐오를 몰아내기 위해 실재하는 여성 국민들을 위협한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484	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음 그저 한심함
4485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치욕감마저 듭니다.
4486	여성을 악마화하는 당신들이 악마이고, 20 년이 넘는 추억을 찢은 것도 당신들입니다. 수백년 전에 시작됐던 마녀사냥이란 고대 바이러스를 이제 와서 퍼뜨리지 마십시오.
4487	여성혐오 및 부당해고를 멈추어라
4488	망상 혐오세력에 동조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길
4489	게임업계는 바뀌어야합니다
4490	사람은 범죄가 아닌이상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은 제 각각 다른 부분이며 그것을 업무적으로 녹여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른 계정에서 페미를 했다는 말로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나 여기다가 페미 그림 넣었어. 라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또한 그걸 트집잡아 개인의 계정까지 찾아내서 난리치는 건 혐오를 넘어선 폭력입니다. 가해자 옹호그만하시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4491	페미니스트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여성인권 신장에 힘쓰고 여성혐오에 저항하는게 뭐가 잘못됐나요? 혐오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남자들이 하고있습니다
4492	초기 대처 하나를 잘못해서 일이 이 사단까지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4493	여자도 게임에 돈 많이 씁니다

4494	인셀 남성들의 억지 논란을 들어주는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4495	집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4496	넥슨이라는 대 기업이 일부 유저들의 집단적 망상에 휘둘리며 게임문화속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괴롭힘을 정당화 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버리고 있다. 왜 일부 유저들의 집단적 망상에 휘둘리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계속 하고 있는것인가.? 대기업 답게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할것이다.
4497	헛소리에 반응해주지 마라
4498	양성평등을 모르면 좀 배우세요
4499	검지 엄지로 물건을 잡지 않고 반나절이라도 살아보십시오. 당장 본인들도 이 손동작을 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겁니다. 그저 손동작인데 왜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또 엄한 사람의 생계와 생존을 위협합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발작으로 보이는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4500	저런 억지부리는 모습에 남성들의 의견만 수용하는건 게임사에서 보이기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모션이나 애니를 제작할 때 여럿이 같이 작업했을텐데 그 중 한명을 콕집어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이래 그래서 이렇게 티를 냈더라<라고 억지부리는건 게임사도 알잖아요... 여성유저도 게임 즐기는 유저입니다. 이런 대처들이 오히려 성별 갈라치기를 극심화 시키는것 같습니다. 대처에 조금 더 신중함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네요
4501	제발 직원 보호를 우선 시 해주세요. 넥슨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대응 가능 했을텐데... 왜 듣지 않아도 되는 억지 주장을 굳이 들어줘서 일을 더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4502	허상에 사로잡힌 디씨남 몰아내자
4503	노동자 사상검증을 즉각 중단하라
4504	유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게 왜 문제인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말하는 '문제되는 사상',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이란 무엇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국내 유저들 뿐만 아니라 해외 이용자에게도 똑같이 공지할 수 있습니까? 이슈가 있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 유저 역시 게임 이용자이자 소중한 고객입니다. 해외 유저들에게 이번 이슈와 원인,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뭉뚱 돌려 표현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결국 악성 민원에 못이겨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게임이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 게임하는 사람, 나아가 게임업계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면 그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에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505	손가락의 모양으로 사상검증을 한다는 억지는 이제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억지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해서는 안되고 사이버 괴롭힘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사사로운 논란에 회사도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만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4506	어떤 입장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넥슨 관련은 일절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4507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 및 게이머를 향한 부당한 "사상검증"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창작쟈와 게이머를 보호하십시오.
4508	일부집단의 착각에 의한 혐오 멈춰라
4509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진심으로 잘못되었다. 당신들의 세계는 한낱 인터넷 안에서 사회부적응자들이 일그러진 왜곡된 망상과, 약자를 향한 무분별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폭력에 호도되어 쌓인 모래성 같은 얕은 사상일 뿐이다. 당신들의 사상은 근본 기반부터 잘못 쌓여져있다 당신은 여성들이 조롱할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단하지 않다. 당신은 여성들에게 영향력이 없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은 그저 손 모양 그림을 시그널이라고 왜곡되게 잘못 생각한 것일 뿐이다. 온갖 매체에 손가락으로 시그널을 줄 만큼 당신들의 짧은 신체부위에 관심이 없다. 당신들에게 여성들이 해줄말은 흔히 얘기하는 너 뭐라도 되냐? 다. 당신은 노동자를 한낱 손가락 그림 때문에 자를 권한이 없다. 당신들의 세계는 진심으로 잘못되었다. 잘못된 페미니스트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에겐 잘못된 성 관념과 폭력적인 사상으로 실제로 사상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여성 노동자를 자르는 행위를 자행할 권한이 없다. 여성노동자를 향한 불법적인 억압과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당신들은 정상인으로 키워지는데 실패했다
4510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보다 일부 악성 유저들의 인터넷 여론을 더 중시하는 게 소위 "대기업"의 일처리라니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시대가 21 세기인데 제발 최소한 노동권의 존재는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4511	102030 한국남자들의 발악을 모두가 한심하게 여긴다는 걸 좀 알려주고싶네요 그걸 들어주고 있는 님들의 우스움도요 노동법의 무서움도 이번기회에 좀 알고가시길
4512	피땀흘려 만든 작품을 혐오로 묻어버리지 말아주세요
4513	없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일으켜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4514	억지논란 키우지 말고 게임이나 똑바로 만드세요
4515	성숙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4516	차별적 사상으로 집단 린치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4517	사상을 이유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있지도 않은 사실로 괴롭히는 행위에 동조하고 갑의 위치로 찍어누르는 행태를 보면 it 회사들의 윤리의식이 어느 수준인가 알만합니다.
4518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정이야 잘 알고 있지만 도무지 그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꼽자면 "GIRLS Do Not Need A PRINCE", 짧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 문장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딕 게임즈 그리고 넥슨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여성 캐릭터의 수영복 노출이 심하지 않다고 사무실까지 찾아가며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고, 프로젝트 문은 또 다시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PV 속에서 아주 잠깐 지나가는 의미 없는 손동작에 분노하고 있으며, 넥슨은 또 다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얼마나 더 당연하거나 의미 없는 것들에 분노할까요? 그 분노에 별안간 얻어맞는 허수아비가 된 페미니스트들은 얼마나 더 고통받고 일자리를 잃어야 할까요? 게임 속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를 위해 갈수록 더 벗겨지고 신체부위는 부각되다 못해 흔들리고 상호작용까지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업계포상"이라며 오히려 좋은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들의 선택적이고 편협하며 편집적인 분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달래주고, 페미니즘은 나쁜 것이라며 공감해주려는 게임사의 행동은 더욱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임업계는 제발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영향력과 책임을 생각하며 부디 올바른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분별없는 분노에는 최소한 무대응으로 대응하며, 경거망동하는 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며, 페미니즘이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성적 대상화 요소 관련해서도, 게임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생기지는 않도록 항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힘써서 나서주신 여성민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자회견이 부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의 사상검증 난동을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19	혐오놀이에 동참하는 넥슨은 사과하라
4520	약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 그만둬라
4521	여성게이머는 고객으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줘서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고통 받을지 단 한순간도 생각 안 해보셨겠죠. 알만합니다, 여러분의 수준.
4522	한숨만..
4523	너희의 성기 크기에 여자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국제적으로 너무 쪽팔리니까.

4524	손가락 모양만으로 전파되는 사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인을 넣으면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지지하겠지." 하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도,생각해내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페미니스트들도, 애니메이션 및 그림 속 집게손가락을 혐오가 담긴 동작으로 인식하지않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터분이 작업물에 손가락 사인을 넣을거라고 통보했다는 얘기가 도는것 같은데, 그분이 3 월에 X 에 쓴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해줄게" 라는 글을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라는 표현에 꽂혀서 저런 의미로 해석하신거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것같습니다. 그냥 쓰고싶은 말을 쓴건데 쓸수록 모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쓰는것 같아져서 죄송합니다.
4525	남자들 억지 논란을 무시로 일관했으면 좋겠다. 여자는 소비자 아니냐? 억지를 들어주는 건 혐오에 동조하는 것.
4526	오냐오냐 받아주며 말 들어준 결과=직원주말출근
4527	제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혐오를 멈추겠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을 혐오로 받아드리는게 이상한거에요.. 멕슨같은 대기업이 어떻게 그런 말에 휘말립니까. 제발 본질을 잃지 말고 중심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4528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억측에 의한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즉각 중지하라
4529	게임 내부 문제는 덮고 남성혐오? 문제에만 재빨리 반응하는 의도가 뻔히 보여서 환멸납니다 여성 게이머들 중 대부분이 페미니스트가 아닐거라고 망상하는 중인가요? 큰 착각을 하고 있네요. 인셀과 게임을 같이 즐기다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페미니스트가 되고 맙니다
4530	본 게임을 평생 좋아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4531	넥슨은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가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에 의논도 없이 수정과 삭제가 되고 노동자를 해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4532	사상을 검증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더 키운 게임업계는 부디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4533	사내 사상검증을 멈춰주십시오
4534	게임업계를 어지럽히는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곧 게임 자체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4535	작작 좀
4536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4537	인간임을 버리지 좀 말아라
4538	일부 집단의 편향된 의견에 따라 남의 존엄한 생계를 뺏지마세요
4539	특정 커뮤니티의 과대표된 악질민원은 제발 먹금해주세요.
4540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4541	“혐오 표현” 을 몰아낸다는 당신들의 행동은 또 다른 억압이며 폭력입니다. 운영주체로써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일부 유저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불평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 사태를 돌아보고 정당한 사과와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4542	부디 외친다고 마냥 듣지말고 진위여부는 부디 판단해주세요. 날조와 혐오로 얼룩진 거짓을 덥썩물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당신들의 위기를 보며 비웃고있습니다. 그저 당신들을 도구로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을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제발 눈을 떠주세요.
4543	억지주장에 휘말리지말기를
4544	집게손으로 고쳐야 하는 서비스를 덮어버리지 말아라.
4545	지금 같이 장단맞춰 그러고 노는거 재밌습니까? 대기업이 맞나요?
4546	애니메이터들은 하루종일 그림그리기도 바쁜데 1 프레임내내 숨겨넣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게손 프레임이라고 찾아서나온게 한두개도아닌데 그 많은것을 한 사람이 작업했다고 보는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스튜디오 팀장의 SNS 때문에 집게손이란걸 일부로 숨겨넣었다고 착각하는거같아서 넥슨이 답답합니다
4547	Stop ✋
4548	게임업계 잘되길 바랬었으나 이젠 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549	도대체 그 손동작을 억지로 넣지않았다는데 이렇게 발작난듯이 움직이는 커뮤니티 그남들도 어이없지만 그걸 또 들어주고 있는 넥슨이 제일 어처구니 없네요. 넥슨 멍청이 회사야 진짜 아무도 그뜻으로 안씁니다.. 더군다나 그걸 자신의 포폴이 될 작업에 넣을 사람도 없다고요!! 왜이렇게 자아가 비대함? 아무도 댁들 성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 보편적으로 쓰지도 않던 뜻을 가져와서 지랄발광을 해서 해외에서 유명하게 만든거도 그남들 이라고요!! 아오 그냥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이고 고이다 망하세요
4550	국제적망신이고 인권유린 입니다
4551	일베로 의심되는 일부 남자들의 억지를 수용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4552	지금은 2023 년입니다.
4553	게임을 사랑하는 한 유저로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착잡합니다. 게임업계가 말하는 "유저 여러분"에는 제가 없는데 어떻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더더욱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554	새끼손가락으로 집어먹으십시오
4555	기업이 터무니 없는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556	이런 무지성 억지논란에 맞춰주고 있는 게임업계를 보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4557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558	페미니즘을 반대하는것이 인권탄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발 멍청한 남자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4559	저기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과자나 감자튀김같은 음식은 어떻게 집어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엄지 검지를 사용하진 않으시겠죠?
4560	억지논란,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561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디렉터가 직접 말했듯 성별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고자 한다면 게임사와 업계가 지금까지 행한 행보를 뒤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변화해야만 합니다.

4562	누굴 위한 검열, 누굴 위한 사상검증인가요? 김자연 성우님 사건으로 얻은 교훈은 없는 건가요? 어이없을 정도로 빈약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563	이 상황에 대한 넥슨의 대처에 깊이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비단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564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4565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 망하는 건 업계 뿐.
4566	게임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기를 바랍니다.
4567	일상적으로 쓰이는 포즈를 성차별행위라고 한 무논리 의견을 받아들였단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4568	너무 남자들의 의견을 과하게 받아주니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들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4569	인셀들 말 듣지말고 노동법이나 잘 지켜라
4570	집게 손가락 모양이 남성을 혐오하는 상징이라고 믿고 싶은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571	억지논란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멍청한 기업이 되지마세요
4572	저는 단지 게임을 즐겁게 하고 싶었던 게이머였을 뿐이며, 지금은 해고당하셨을 애니메이터 분께서도 단지 작업물에 맞춰 애니메이션을 만드셨을 직원분이셨을 뿐입니다. 그걸 개인의 사상을 들먹이며 생계를 앗아갈 정도로 큰 죄라고 일컫는다면, 그동안 넥슨에서, 게임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사고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넥슨이 위하는 게임이란, 전 대통령 고인 모독과 각종 욕설과 음담패설과 혐오발언이 가득한 특정 게이머들로만 이루어진 곳입니까? 그것을 모두가 즐기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573	무시하면될걸 한심한 찌질이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행위 그만하세요
4574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4575	한국게임의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 한국 남성들은 이미 모든 게임을 즐기고 해외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한국 게임은 한국 남성 유저만을 위해 여성 유저를 배척하고 해외 유저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데 새로운 유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4576	어떤유저의.억지논란에 반응해주고사과하는 넥슨은 그들과.다름이없다 생각됩니다 논란에.반응하는건 그 손가락의미를 인정하는꼴밖에되지않습니다 이렇게 한성별 의견만듣는다면 누가.넥슨의게임을 하고싶을까요? 세상인식은 바뀌고있는데 넥슨은 옛날보다 더퇴화 되고있다는 생각이듭니다
4577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578	넥슨은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게임업계로서 가지는 위치와 영향력을 자각했어야 합니다. 대기업마저 일부 유저들의 논리없는 몰이에 이런식으로 굴복했으니 앞으로 한국 게입업계 및 창작계는 다같이 이런식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대처가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 입니다. 애니메이션 동화에 들어가는 손동작 하나로 직장과 신상을 위협 받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창작자는 창작에 쓸데없는 리스크를 지고 임해야했을텐데 기업이 사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니, 앞으로 그 어떤 직원이 사측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고 싶을까요? 일부 유저들을 선택하고 한국 창작업계의 무궁무진한 미래와 가능성을 차단한 넥슨과 게임업계의 행동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4579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멈추길
4580	넥슨 및 게임업계는 악성 민원에 귀기울이지 말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컨텐츠를 만들기 바란다. 또한 업계종사자들을 존중하고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그들의 일자리 또한 부당한 방식으로 뺏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4581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여성노동권을 보호하라
4582	혐오놀이에 동참하는 넥슨코리아는 사과하라
4583	해당 손가락 동작과 페미니즘은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모함이라는 사실을 접어두고, 페미니즘의 지향점은 여성 인권 신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고한 여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584	손가락 그게 다 뭐라고 이런 사달이 나는겁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성기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에 모욕을 느꼈다면 그것은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바짝 엎드려서 비굴하게 구는 태도는 인간으로서 그릇의 크기가 작아보인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85	직원을 향한 살인 협박이나 잡으시고, 운영에 힘쓰기나 바랍니다. 정신차리십시오.
4586	기업 경영이 이렇게 주먹구구로도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4587	여성도 사람이고,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속한 곳을 무시하는 게임사에서 게임을 하고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 이번 논란을 접하고 저는 당혹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수많은 한국 게임에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노출과 대상화된 장면에서는 일절 피드백이 없더니 .. 여성캐릭터가 춤을 추는 그 짧은 장면을 한컷한컷 나누어서 남성을 향한 비하일거라고 단정하고 게임사는 주말임에도 빠른 대처와 페미니즘을 혐오활동이라고 규정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말을 에두르며 외신에서 문제삼을 일을 회피하는 모습도 인상깊었네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 유저는 돈을 쓰는 여부와 비율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게임사에서 무시당할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창조된 논란으로 오히려 아무감정없던 여성유저들이 남성유저들과 게임사를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게임사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런 성별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것이며 이런 갈등은 게임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4588	제발 인셀들한테서 직원 보호 좀 해주세요
4589	억지에 귀기울이면서 혐오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4590	넥슨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4591	넥슨을 포함함 게임업계는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4592	이상한 말에 휘둘리지말고 기업답게 행동했으면...
4593	정상적인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4594	억지논란창조 멈췄으면 합니다
4595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596	변할 것이라 기대는 안하고 엄벌 받길 바랍니다. 업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요.
4597	억지 논란을 그만두세요. 창피합니다.

4598	사회적 기업? 한국 게임에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이익논리로라도 움직이십시오. 블랙컨슈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줘서 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호구짓을 규탄합니다
4599	인간에 대한 테러를 멈추시오 덜떨어진 분들이여
4600	억지 창조에 죄송하다며 숙이지도 말길
4601	차별 및 혐오를 그만해라
4602	I am a feminist and am proud of it, Get me fired too, Dear low life losers.
4603	게임 내외를 비롯한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는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억지 주장엔 남성혐오라 동조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는 본인들의 여성혐오 행보를 뒤돌아보라
4604	진짜 되도 않는 손 모양 창조 논란에 동조하지 마라
4605	일부 사용자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사과로 대응한 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더불어 집게 손 문제를 삼았던 커뮤니티는 기존에 게임 내 여자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해온 전적이 있으며, 넥슨 여직원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며 살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억지 논란에 대해 사과로 대응한 것이 게임업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개인의 자유인 사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표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넥슨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넥슨과 게임업계는 자신들이 영향력과 그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4606	넥슨은 오로지 남성 유저만을 고객층으로 보고있나요? 같은 상황(일베/디씨 유저가 일으키는 분탕/문제사항)일때도 동일하게 남성을 해고할건가요? 넥슨에게 있어서 여성유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언제든 잘라내기 쉽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남성유저의 편의를 봐줘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고객인가요?
4607	억지논란에 그만 좀 휘둘리세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4608	작작하세요 생각이 있으면
4609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페미니즘이 검열되어야 할 사상도 아니고, 손가락 모양으로 페미니스트 여부를 검출할 수도 없으며, 프레임 단위로 손가락 모양을 색출하는 등의 기이한 행각을 정당한 항의로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사상적으로 탄압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4610	게임업계는 비상식적인 페미니즘 탄압행위를 멈춰라
4611	추하다
4612	헛소리 좀 그만하고 정신차리세요
4613	게임업계는 억지논란을 주장하는 일부를위해 여성노동자와 여성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4614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행동은 당신들도 생각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4615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규탄한다
4616	사람의 형태가 되어라 게임은 남자가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
4617	내 언젠간 이런일 생길 줄 알았다. 이번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글로벌 스탠다드 어렵지 않아. 할 수 있다.

4618	상식적으로 삽시다.
4619	어떤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음. 일부 단체의 편협적인 의견만으로 애니메이션 회사에까지 폐를 끼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까지 더 문제가 된 일베를 회사내에서 축출하고 해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다? 진짜 내로남불임.
4620	호의가 권리된다는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최초는 호의가 아닌 그냥 빨리 수습하려는 짧은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결국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음엔 다른 이유를 들고 나올테죠
4621	말도안되는 집게손가락 논란 그만들어줘라
4622	소수의 억측된 의견으로 인해 더 이상 게임업계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4623	넥슨 및 게임업계는 악질적인 주장을 하는 일부 남성 게이머들에 굴복하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함과 동시에 직원 보호에 힘써주세요.
4624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반사회적인 사이트와 그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4625	혐오는 약자가 강자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생물학적 권력을 휘두르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혐오하고 있는지 똑똑히 봐야할 겁니다. 사회적 약자가 좋은 환경에서, 자신을 검열하지 않는 게임업계를 만들길 촉구합니다.
4626	헌법을 준수하고 도덕적 상식과 올바름 위에 회사를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4627	소수 유저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제대로 된 인과 관계 파악 없이 마치 아이 달래듯 허겁지겁 그대로 수용하며 협력사를 마치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식으로 수습하는 대처가 국내 대형 게임 기업의 대처방안이라는것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린이였을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넥슨은 저에게 큰 추억을 주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넥슨과 함께 만드는 추억은 이제 저에게 없을듯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유저가 저 하나만은 아닐것을 알고 제대로된 젠더 인식과 혐오 표현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나마 남아있는 유저들을 잡으세요. 그간 즐거웠습니다.
4628	억지로 징징대는 걸 하나하나 다 사과하면서 들어주고 있으면... 그 반사 효과는 넥슨 하나가 아닌 사회 전체가 받게 됩니다...
4629	언제적 페미니즘 논란입니까!!
4630	여성혐오가 만연한 회사라는 걸 아주 잘 알겠고요. 티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메이플 복귀해야하나 하고 컴퓨터 켰다가 그대로 삭제하고 회원탈퇴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거를게요. 감사합니다.
4631	정리차려라 게임업계
4632	말도 안되는 이유로 특정 성별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4633	정신좀 차리세요
4634	멍청한발악에 반응좀 하지 마세요
4635	대한민국 게임업계가 망해가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4636	인셀남들 말 들어주다간 다 망한다
4637	억지탄압을 중단하세요 정신차려
4638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639	억지 논란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4640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
4641	도대체 어느 여성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답시고 '집게손가락 표식'을 자신의 생업에 집어넣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 사회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겠습니까? 개인의 기분 나쁨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혐오행위를 묵인하지 마십시오
4642	사상검증으로 여성노동자를 압박하는 비논리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게임업계에 펼쳐진 이 사태는 보다 성숙한 기업의식을 배울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643	넥슨은 사상검증을 멈춰라! 더 이상 인셀들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굴어라!
4644	기업이면 기업답게 생각이란걸 하고 행동해라
4645	게임업계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에 반대합니다.
4646	이번 기자회견으로 게임업계의 폐단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4647	오냐오냐 받아주니 뭐라도 된줄아는 멍청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는겁니다. 정신들 차리시길
4648	기업의 이익 증진을 빌미로 많은 여성 직원들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도안되는 억지논리와 마녀사냥으로 직원을 부당해고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4649	아무런 근거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놀랍다. 이런 양심없는 기업들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650	클로저스 때부터 사상검증이랍시고 부당한 해고를 행한 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사태에, 자신들도 자신들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해야할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의 시비에 동참한 것에 규탄합니다.
4651	무분별한 선동에 휘둘리며 여성 유저들과 여성 업계인들을 배제하는 모습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지극히 유감을 표하며, 귀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을 사랑했던. 사랑하고 싶은 여성 유저들의 안전하고 어떤 차별과 조롱이 없는 게임 플레이와 여성 업계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조속한 대처를 바랍니다. 2023 년에 해당 일이 다시 발생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며, iT 와 게임 강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국내 게임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충수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52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라는 창조논란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사상검증을 하고 사이버불링하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 사태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업계는 반성하고 사과하라
4653	집단 망상을 멈추고 사상에 대한 검열 그리고 규탄을 멈춰라 니네가 히틀러냐
4654	실체 없는 혐오 담론 재생산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아주세요.
4655	게임 안에서 여성이 죽고 있어요.
4656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여자 배척하고 살 거냐
4657	사상 검증으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4658	여성혐오는 밥먹듯 해다면서 남성의 억지논란을 들어주는건 여성을 차별한다는 반증. 한심한 짓거리 그만두고 기본적인 성차별부터 차근차근 배웠으면. 어렸을 적 메이플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추억이 퇴색되어 안타까움
4659	창조논란에 요구를 들어주는 업계, 정신 차리세요.
4660	페미니즘과 노동권 없으면 글로벌 진출도 없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 유저를 지우지 마라..!
4661	사상검증 반대
4662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그만둬라
4663	블랙컨슈머들 비위맞춰주느라 가만히있던 여성들 줘 패지마라—— 남성혐오는 남성들끼리 하고있다 정신차려라
4664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4665	성별을 떠나서 손가락으로 꼭투리가 잡혀 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666	여성혐오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와 사상검증이 도가 지나칩니다. 사원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억지 논란에 가담하며 여성 노동자의 직업과 작업물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4667	소비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문제를 일단 덮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4668	국내 최대 게임사가 한심한 억지 논란에 휩쓸려 반페미니즘에 힘 실어주는 꼴 잘 봤습니다. 해당 게임사의 게임을 하는 소비자로써 여성으로써 모욕감을 느낍니다. 사측 역시 해당 논란과 관련한 수정 공지를 영문으로 내지 않은 것을 보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저 과대표된 일부 남성 유저의 억지를 들어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여성 유저는 게임사의 무책임한 판단에 게임할 자유도 침해당해야 합니까? 왜 여성 유저는 그 판단에 일말의 고려조차 되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까? 이 또한 여성혐오입니다. 같은 돈을 쓰고 같은 게임을 하는데도 게임사는 여성 유저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반페미니즘 기류에 탑승하는 방향이 이익을 가져다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페미니즘 유저들의 손을 들어준 건 게임 운영진들 역시 그들과 같은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이는 게임업계의 유구한 여성 차별로 인한 남초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부 자정과 올바른 판단조차 되지 않는 기업 구조의 문제인데 넥슨은 거기서 더 심화된 남초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성 개발자,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등 게임업계 여성들을 잘라내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넥슨은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의 언어로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고 기업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 교육을 전사에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억지 논란으로 수정했던 일러스트들을 복구하고 하청업체의 해고에 마땅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게임 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에 맞는, 체급에 맞는 책임을 배우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반페미니즘은 어떠한 신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혐오일 뿐입니다.
4669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4670	억지 주장&억지 논란을 받아드리고 대처하는 어리석은 행동. 어차피 남성이라는 그들끼리의 유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4671	역사에 어떤 얼굴로,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세요.

4672	왜 해외에서 한국 게임이 비웃음을 받는지 아직도 모르나 보네요.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조차 현 한국의 게임업계 실태같아서 실소만 나오네요. 한때 성우교체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또 한쪽 의견만 듣다니. 게임은 남자만 하고 남자만 돈쓴다고 생각하나요?
4673	같은 게임업계 종사자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한국 게임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런 썩은 생각이 만연한다면 퀄리티도 떨어져 운영력도 떨어져, 사상또한 이상한 게임업계는 그냥 사회악이에요. 넥슨은 단순히 돈 벌기위해 수정 몇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여성혐오를 더 부추기고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게임회사라서 그냥 돈만 벌면 끝인가요? 페미니즘이 조폭및 비사화적인 모임도 아니고 여성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부터 묻고 싶네요. 페미니즘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잘못된 사상이라고 일러스트까지 고치는 거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뭔가요? 또한 실질적인 페미니즘 심볼이 뭔지는 아십니까? 전혀 집게손가락과 상관없습니다. 왜 집게손가락 포즈가 페미니즘인지 설명 해주실수있나요? 어떤 사고로 집게손가락이 문제있는 일러스트라고 생각해서 수정했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또한 이번 대응은 여성유저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인데, 이건 성차별적인 운영으로 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집게 손가락이 문제되는 포즈라면,디렉터님의 집게손가락 사진은 어떻게 해명하실건가요? 그것도 당신들이 말하는 페미인가요? 그렇다면 사과하시고 책임지셔야죠. 일러스트를 수정하고, 직원을 자르듯 본인도 사퇴하세요.
4674	한국 게임업계는 더이상 과대표된 일부 커뮤니티의 부당하고 편집증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무분별한 위협을 받지 않게 하라.
4675	사상검증을 통해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유저들의 충성도입니까? 게임 회사면 게임의 재미로 유저들을 만족시킬 생각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재미 대신 엉뚱한 탄압 및 인권유린으로 만족시키는 사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4676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 표현에 사상검증이라는 틀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677	고작 인셀들의 기분권 하나에 노동자의 노동권이 박살나도 됩니까? 확률 조작엔 입 닫고 끝까지 버티더니 노동자 자르는데엔 하루도 안 걸립니까?
4678	혐오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진정한 혐오의 문화를 누가 만든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4679	정신 좀 차려라
4680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란 때문에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게임 유저고 돈 씁니다..
4681	이 내용을 해외에도 단어 회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4682	상식적으로 삽시다.
4683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더 많은 억지에 고개 숙이게 될 겁니다
4684	노동자들을 사상검증에서 보호하라.
4685	국내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4686	유감스럽습니다. 반복되는 사태 중에서 얻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4687	노동자의 신상털이를 멈추십시오
4688	억지와도 같은 말도 안 되는 혐오와 비논리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문화를 만들어 가라.
4689	게임업계는 합리적인 생각이란 걸 못하는 곳인가봐요 ㅎㅎ 어떻게 하나같이 그 모양 그 꼴인지 신기하네요~ 어떠한 함의도 없는 손가락 모양 하나에 벌벌 떨며한 사람의 생계를 끊는 게 진짜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성혐오(도 아니지만)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면서 그동안 여성혐오에는 왜 침묵하셨는지?ㅎㅎ
4690	넥슨및 게임업계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스스로가 차별주의자임을 외치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임업계는 직원을 지킬 능력도 심지어 희생양으로 한명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태도들이 넥슨의 무능함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동임을 알아야 하며, 고쳐야할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인으로서 하나의 회사로서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4691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범죄가 아닌 특정 소수 집단의 사이버 불링에 가담하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4692	여태까지의 행보도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번 일로 게임업계는 모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한다는 이미지를 굳히게 될 것임
4693	적당히들 하세요. 조양호 욱일기 밈이랑 다를 게 없는데 잘들 하는 짓입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조양호 욱일기"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김창섭 디렉터가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말한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문화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본인들이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걸 가장 먼저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694	아무런 사회적 차별과 멸시가 없는 손동작을 '혐오'로 규정짓는 몇몇 반사회적 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여성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4695	노동권이 짓밟히는 세태에 앞장서니 기분이 어떻냐?
4696	남성 유저만이 유저가 아니며 어릴 적부터 해온 게임에 대한 추억이 한 집단의 억지논란으로 인해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4697	제 꿈을 송두리 째 빼앗긴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신들이 되려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 겁니까. 알고도 즐기고 있다면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멈추십시오.
4698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699	넥슨측은 성우의 해고사건으로 이미 하나의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이 당연시되고 만연하게 된 까닭에는 넥슨의 첫 선례가 하나의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기업으로서 업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만큼 다시금 좋은 선례를 남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4700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4701	기업 차원에서 여성혐오 작작하세요. 남자 유저들 오냐오냐해주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4702	그럼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하고 있었어야 하나요? 이미 몇달 전 림버스 사태가 있었고 국감에도 오른 선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조치라니 앞으로 게임업계는 침몰뿐이겠네요. 수 년간 함께 하던 외주업체를 인셀들에게 제물 바치듯 던지는 모습에 깊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작아서 화가 난겁니까? 에휴…
4703	최근 게임업계에서 연이어 노동법을 무시하고 인터넷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만으로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을 빼앗는 넥슨과 게임업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4704	한국 게임업계는 노동자에 대한 사상검증과 부당한 탄압을 멈춰라!
4705	일부 의견을 받아주지 말고 무시하세요 좀!
4706	상식적으로 행동합시다
4707	혐오 조장을 어느 집단이 일으키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파악을 요구합니다.
4708	억지논란에 일일히 대응 할 필요 없습니다
4709	절대 앞으로 넥슨 게임을 이용하지 않을것이고 비슷한 사례의 회사가 나온다면 그 회사의 게임도 이용하지 않을것.
4710	제발 그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듣지 말아주세요...
4711	이제 넥슨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다운 받지도 과금하지 않을 것
4712	실재하지도 않는 억지 표식으로 고작 자신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끝내는 생계를 위협하는 2030 일부 남성들의 행태가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보편적인 진짜 정상인들과 상식적인 사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4713	이건 고객의 요구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4714	혐오를 당연시하는 한국게임 불매하겠습니다.
4715	인권보다 게임과 악성민원이 중요합니까?
4716	거짓 주장에 휩쓸려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4717	노동법이 장난입니까.
4718	시대를 역행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19	예전부터 게임을 즐겨한 여성유저입니다. 이런저런 논란 따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잘못된 논란의 경우에는 사측의 해명도 들어가며 게임을 놓지 않았었어요. 또 한국게임이니까, 중국게임이나 일본게임보다는 낫겠지 라는 되도않는 애국심 따위의 생각을 하며 여성혐오가 만연하게 깔려있는데도 불구, 계속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고작 손가락 모양. 그 프레임 단위로 억지논란을 만들어 혐오를 조성하고 사람을 몰아세우는 이 상황을, 그리고 그 억지를 들어주고 페미니즘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는 이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말이 될 논란이어야지, 게임사들의 입장문을 보고는 정말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넥슨게임뿐만 아니라 림버스컴퍼니도 플레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만 정이 다 떼였지요. 다시는 한국게임을 하지않을겁니다. 언제든지 여성을 협박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걸 실행하고, 유저취급 조차 하지 않는데 할 이유는 없지요. 이 불꽃이 사그러들어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하지않을겁니다. 넥슨 및 한국게임업계가 해당 입장문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20	특정 커뮤니티의 억지 논리에 기업이 옹호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하청 회사에 대한 갑질과 기업의 옹호로 특정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sns 를 사찰하고, 억지 증거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불링하여 일반 근로자의 사생활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4721	언제나 본 게임사에서 아동에 대한 후원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행보를 응원하였습니다. 저도 어린시절 참 많이 즐겼고 그리고 지금도 즐기고싶어하는 한 유저로써 이러한 일이 16 년도 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만 갖고있습니다. 전에 한번 겪지 않으셨던가요? 게임사에서는 게임과 그에 따른 운영을 잘 해주시면 되는겁니다 사사로운 민원까지 받아들여 큰 논란을 키우게되면 결국엔 지금처럼 기사와 받아들여진 민원에 불타올라 더 악순환이 되어 유저들은 논란과 원하지않는 소식들의 반복에 지쳐 결국 게임을 그만두게 되어버립니다... 저 또한 그걸 항상 반복해왔고요. 혹 다른게임사의 사례들은 보지않으셨나요? 회사는 직원을 우선시해야합니다. 직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게임사에 큰 해를 끼치지않는이상 자르지 않는게 맞고요. 지금 이 상황이 큰 불법입니까? 애니메이션 프레임상 당연하게 들어가는 동작들까지 보며 민원을 넣는것이 오히려 기괴하다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국게임은 틈만나면 논란이 되니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하게되고 결국 컨텐츠업계는 이러한 무질서한 탄압속에 또 움츠러들게 될것입니다. 분명 작년... 지스타때 말하지않았나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식으로요. 전 그 말을 듣고 다시 멋진 게임사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 착각이었나봅니다. 더이상 오랜 유저들이 과거추억을 생각할때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가지게하지마세요. 이미 너무나 많이겪었습니다. 이런 민원으로 본인들의 작업물이 잘못되었다고 굽히지마세요. 본인들의 작업물이 고작 그런소리로 바뀔만한 가벼운것들인가요? 그리고 또 외주업체의 작업물이 그렇게 가벼운것들인가요? 작업물과 본인들이 만든게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매일 망치는걸 보면 본인들의 게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 같으니까요.
4722	게임업계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포용하는 페미니즘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공부 좀 하시고, 아무 의미도 없는 손가락 동작 하나에 말도 안되는 혐오몰이에 동참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길
4723	어떤 사상을 지지하든, 그것으로 인해 마녀사냥과 사상검증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여성창작자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남초커뮤니티에서 물어뜯기는 창작자들을 지켜주세요.
4724	게임좀 하게 해주세요
4725	이 사태로 인해 사회가 감당해야할 비용과 개인이 겪어야 할 노동권, 인권침해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4726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정치사상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따지고 들어서 넥슨이 사과문 쓰게 만들었던데 그리 당당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사과문 써주세요.
4727	X
4728	정신 좀 차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4729	이번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만든다면서 다 거짓말이었나봐요. 실망이 큽니다. 그딴식으로 운영하지마시길. 남의 일터 빼앗는게 그렇게 쉬우면 본인들이나 내려놓으시라 말하고싶네요.

4730	평등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건전한 내용을 기원하며, 혐오와 증오라는 폭력은 아예 추방해야 합니다.
4731	할말도없다
4732	사상검증, 부당해고, 하청업체 갑질을 통해 만들어진 게임은 하고싶지않습니다.
4733	이상한 유저의 말도안되는 주장을 계속 받아들여 꼬리자르려고 한 행위로 인해 누군가는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한 번 받아들여준 행위로 인해 '저렇게 행동하면 게임사가 받아들여주는구나!'하는 선례로 남아 타 게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세요
4734	말도 안되는 트집에 손을 들어주며 혐오에 대응한다는 변명으로 또 다른 혐오를 일삼는 게임업계 규탄한다
4735	갓 초등학생이 되고 친구집에 놀러가서 처음 넥슨 게임을 하게 되었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뒤로 육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팀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평생 나의 즐거운 취미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추억이 사라졌네요. 앞으로는 영영 한국게임을 하지 않을겁니다. 성별을 이유로 sns를 검열당하고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일이 나에게도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면 할 수 없거든요. 또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보고싶고 즐기고싶은 내용도 필히 다를게 뻔하니까요. 한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게임도 그 게임 캐릭터들이 나오는 만화책도 캐릭터 상품도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을 겁니다.
4736	게임유저가 여성들도있다는사실을 잊지마시길
4737	말도 안 되는 생떼부리는 거 다 받아주는 걸 관행으로 만들지 마세요. 죄없는 창작자에게 '페미니즘 검증'을 강요하고 죽을 죄 지은 것처럼 족치지 마세요.
4738	그 많던 여성혐오 표현 성희롱들은 놔둔채 있지도 않은 조롱거리를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 전세계 어느수준인지 제발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이 참에 더 티내주세요 성차별 노동자 검열 사례로 제대로 교과서에 남거나 해외지에 실려봅시다
4739	제정신 박힌 기업이면 상식적인 대처를 하세요.
4740	부당한 사안에 부당하게 응답함으로써 사회의 악이 되지 마세요.
4741	한국 남성들의 흥미본위 검열행위에 동참하며 여성혐오를 재생산하지 말라
4742	그냥 남자들이랑 천년만년 다해먹어라 게임업계 그러니까 니들이 계속 도태하지ㅠ여자 캐릭터는 그 수준으로 그려놓고 ㅉ
4743	제발 상식선에서 행동해주었으면.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4744	게임 업계 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근거 없는 혐오 몰이와 부당해고를 반대합니다.
4745	사상검증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746	없습니다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4747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일부 세력의 항의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게임업게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4748	정신 좀 차려라

4749	억지 페미몰이 멈춰
4750	먹금하면 될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4751	과도한 페미니즘 몰이 및 마냐 사냥 중단
4752	게임 유저들의 되도않는 억지의견을 들어 업무방해로 고소할지언정 직원을 억울하게 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4753	여성혐오를 멈추고, 여성 노동자 탄압을 멈추세요. 사상검증을 멈추세요. 억지논란에 동조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4754	쓸데없는 트집잡아서 남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4755	한심하다 넥슨 및 게임 업계야 언제까지 도태남들에게 휘둘리고 공감하며 살래? 그러니까 지금 그 모양이지
4756	근로자에 대한 도넘은 사상 검증을 규탄한다
4757	개인적 사상, 종교 등은 전부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말로 게임을 좋아하고 계속 게임을 제작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오직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며, 해외에서는 페미니즘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4758	정신 차리십시오.
4759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덜떨어진 회사
4760	억지논란과 페미니즘혐오를 멈춰주세요
4761	일부 유저들의 집단적 착각으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이 떠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4762	댁들은 게임을 인셀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4763	억지논란을 가장한 페미니즘 혐오에 동참하지말고 멈춰주세요.
4764	인권교육받으세요
4765	제발 사람이길 포기하지 마세요
4766	억지 주장 받아주지 마세요.
4767	게임업계 중소기업도 아닌 넥슨이 2023 년에도 여성 노동자와 여성 유저를 상대로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니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는 심각하게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며, 윤리적인 행동에 앞장서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조속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철회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768	게임에 대한 불을 페미 색출 놀이로 표현하는 유저나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며 사탕을 내밀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없애는 것을 즐거워는 회사나 참 유유상종이네요.

4769	억지스러운 요구를 곧이곧대로 들어주는 것이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현재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조금이라도 가깝다면, 나아가 현재로서는 그저 손을 펼치고있는 모양의 경우에도 손이 한국 남자의 성기가 작다, 또는 키가 작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성기가 작든 어쩌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든말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인데 누가 그런 걸 신경쓴단말입니까. 중지만 세워두는 손 모양이라면 확실히 욕이라고 다수가 인식하리라 생각합니다. 의도하지않으면 쉽게 나오는 모양도 아니고요. 하지만, 소위 "집게 손"을 보고 욕이라 인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그 손모양에 위의 의미가 담겨있다 주장하는 분들께선, 그저 꼬투리 하나 잡아 엉터리 주장을 하려는 것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욕으로 널리 쓰이던 사인이었다면, 애당초 창작/배포 이전에 컨펌 단계에서 배제당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해당 컷을 담당하신 분께선 그러한 의도가 있다 수긍하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손 모션과 유사한 모양의 일러스트 류를 전부 리스트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그리신 분들의 사상은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셨습니까? 애초에 사상을 검증해 마땅한 일입니까? 개인의 정치나 사상 마인드가 어떻든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알아낸단 말입니까. 남성 혐오 사상에 대해 검증을 시작하신다면, 반대로 여성 혐오 사상에 대해서도 검증하실겁니까? 옆집 여자를 2 년 후에 죽일 사람인지, 여자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 기피하는 사람인지, 핸드폰 검색 내역이라도 뒤져서 다 찾아낼겁니까? 기준은 뭡니까? 이러한 대처를 통해 넥슨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 유저들의 의견을 수용했을지언정, 이름을 드높이기는커녕 어째서인지 하루종일 화두에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하는 유저의 의견은 수용할 가치가 없는 의견입니까? 왜 이에 대한 공지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리스트업하고 일러스트를 교체하고 삭제하면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기존에 비해 퀄리티는 불분명해지겠네요. 애니메이션에 있어 해당 모션이 들어가지않아 부자연스럽다면, 필요한 동작 아닙니까? 앞으론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핑거스냅소리만 내도 불이익을 받게 생겼네요. 그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 예시가 비약으로 느껴진다면, 해당 손 모양이 욕이란 논제부터 성립 가능한 것이 아닌지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4770	당신들 기분대로 남의 일자리를 망치지 마십시오
4771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4772	정신차려
4773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어이없는 논란에 동조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4774	인터넷 방구석 인셀 도태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기업이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창조논린에 왜 휘둘리나요 찌질이들은 무시하세요.
4775	과잉대응 중단하고 노동권 존중해주세요
4776	일부 남성들이 꾸며낸 근거없는 손가락 논란을 크게 만든 건 게임회사다.

4777	게임업계는 페미니즘 혐오놀이에 동조하지 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4778	앞장서서 편가르기 그만
4779	작작 좀 해라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4780	똑바로살아
4781	미성숙한 유저들의 부적절하며 입 밖으로 발설할 건덕지도 못되는 억지주장을 마치 의견인냥, 유저의 타당한 건의인냥 받아들인 넥슨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게임업계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해나가주시길 바랍니다.
4782	말도 안되는 것들을 문제 삼아 여성혐오를 하는 남성들과 게임업계 및 넥슨을 규탄합니다.
4783	인셀들 말 다 들어주다 망한다 이놈들아.. 정신좀 차리시길
4784	억지논란에 반응하기보단 게임 개발에 힘쓰시길
4785	여성혐오와 고용 성차별을 멈추어주새요
4786	무엇이 진짜 옳고 사익에 이득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4787	이 일로 이렇게 하는 것 조차 유감입니다. 단순 오락 행위로 그 안에 그 어떠한 진중함과 텅 빈 주장에 힘을 실어준 넥슨과 그 뿌리의 입장문은 그것이 마땅한 행위임 인증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모욕적입니다. 어릴적 즐거웠던 게임에 추억이 묻어둘 불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4788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쳐를 좋아하는, 그래서 게임학과를 나온 여성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배제는 오히려 남성들에 대한 불신, 혐오감을 조성한다 생각합니다. 일부 남성, 여성들이 격한 혐오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사람이 많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업에 이런 말되안되는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그건 그냥 여성유저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좀 차려주세요 게임업계들 정말로요.
4789	억지 논란과 그 논란을 빌미로 부당해고를 하는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4790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4791	최대한 느린 화면속도로 캡쳐해야만 나오는 지금 논란된 그 손가락모양이 정말로 작업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건가요??
4792	문화는 힘에 복종하고 혐오에 동조하여 이어질 수 없고, 그렇게 만드는 돈은 곧 휘발될 것입니다.
4793	정신차려라
4794	인셀들을 이유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없애지 마십시오.
4795	진짜 인셀찌질이남 이야기 들어주는거 그만했으면🙏
4796	게임업계 전반에 만연한 여혐 사고방식을 멈추고 비생산적인 일부의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맡은 바 일과는 무관한 과거의 발언 하나하나를 캐내어 사과시키고 퇴사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를 더는 되풀이말고 해당직원에게 사죄하라.
4797	인셀을 키운건 그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어준 업계의 잘못입니다
4798	창조논란에 바로 대응하는모습 너무 추해요
4799	방구석 인셀들의 민심을 잡는 길이 맞는 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4800	적당히 하세요
4801	넥슨이 그렇게 남성혐오에 예민한 줄 몰랐네요. 여자를 성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여성혐오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4802	제발 현실을 보세요.
4803	페미니즘 혐오와 억지 논란을 규탄합니다. 불매합니다.
4804	제발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4805	생각 좀 하고 사세요
4806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손가락 모양만으로는 그것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게임업계측은 충분한 심리와 판단없이 남성에 대한 혐오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을 넘어 이로 말미암아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는 직원의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 해당 게임업체는 물론 다른 게임업체에도 해명을 각 명한다.
4807	사상검증 빙자한 여성 아티스트 불링 행위를 멈춰라
4808	몇년째 반복되는 마녀사냥 지겹습니다. 더이상은 어떤 게임을 소비하고 싶지않은 지경까지 왔습니다. 직원분들은 그저 일을 한것인데도 ^일부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주장을 받아드려준다는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때문에 개인의 직장이 피해을 받는다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냈것 뿐인데도 이렇게 피해를 받는사실이 끝임없이 반복된다는게 정말 힘드네요. 게임업계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와라도 조치를 취하는척이라도 하세요.
4809	수용해야할 의견과 수용하지 말아야할 의견이 있다는 것조차 구분을 못하십니까
4810	애니메이팅에 그 손동작을 뺀다면 자연스럽게 손을 접고 펴는게 가능합니까?
4811	넥슨은 또다른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게임배포사로써 지녀야 할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넥슨은 게임계의 대기업으로, 타의 모범이되어야한다.
4812	페미니즘은 남성혐오를 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4813	이런식으로 불합리한 퇴사가 반복되는건 업계 퇴보의 단초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4814	상식적으로 좀 구세요.
4815	이게 어딜 봐서 혐오 표현인가요? 평범한 손 모양인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 일으켜서 그저 놀이처럼 사람 패는 걸 즐기는 일부 유저들의 근거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마세요. 게임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협력업체와 담당 직원을 징계하는 무지성적 행태를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자정해야 합니다.
4816	지금 혐오는 대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손 모양에 의미부여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왜 그런 피해는 늘 여성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망상을 멈추고 사실만을 바라보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817	페미니즘은 정치사상이 아니며, 해외만 보아도 얼마나 페미니즘이 주된 분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4818	정신차려
4819	존재하지도 않는 억지논란을 창조하는 남성게이머들에게 분노함과 동시에 그 요구를 곧이 곧대로 수용해주는 넥슨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져라
4820	소수의 커뮤니티 의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기에 좁은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보인다.
4821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지금 남성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논란에 휘둘리는것, 결국 그 끝은 파멸이 될것이다.
4822	성차별부추기는짓거리좀 그만해라 추하다
4823	2023 년에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의 억지 논란을 듣고 사과한다니, 이건 게이머에게도, 여성에게도 있어서는 안될 정도의,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억지 논란에 사과하면서 회사를, 자사의 게임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4824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4825	디자인 업계 및 일러스트에 흔히 사용되는 손가락 모양을 걸고 넘어지는 피해망상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넥슨의 행태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억지 논란 생성 및 그에 대한 사과와 같은 대응은 더더욱 넥슨의 굴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억지 논란 생성을 넘어서 일러스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조차 안되는 현 상황을 부디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4826	있지도 않은 일에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며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고, 알 권리를 운운하면서 개인정보, 사생활, 사상을 파헤쳐 검증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직원을 사측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회사를 믿고 사원이 되려할까요?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에게 빠르게 굴복해버리는 업계에 지쳤습니다. 전 노동자가 맹목적인 혐오로부터 보호 받길 원합니다.
4827	넥슨에게는 미래가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4828	쓸데없는데 힘쓰지말고 게임이나 제대로 운영해라
4829	혐오성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것, 1900 년대 나치주의자와 다름없다.
4830	글로벌 대세에 따라야 돈을 번다
4831	억지 논란으로인한 여성 마녀사냥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4832	이번 일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해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로써 한국 게임업계가 크게 발전하길 바랐지만 제 바람과는 반대로 크게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앞으로는 한국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4833	메이플스토리에게 전합니다. 가족끼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그 가족에 여성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았나보죠? 근거 없는 억지 논란을 실체로 만들어낸 행동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4834	특정 성별 무리들을 이용하여 다른유저들에게 피해를주는 행위로 자사의 실수를 감추고 이익을 추구하려 들지 말아라.

4835	기본적인 원리 원칙, 심지어는 노동법마저 무시하는 행태가 무섭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게임 시장은 닌텐도와 같이 가족 단위로 키워나가지는 중입니다. 20 대 일부 남성들의 혐오에 기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나 의문이군요.
4836	넥슨은 남초의 억지 "페미니즘" 사상검열에 동조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하청업체 및 자사 여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4837	남성들의 여성 혐오로 인한 억지 논란을 제발 멈춰주세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직업을 모두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내린 안이한 결론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인생에 전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런 억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재미만을 생각하고 하는 분탕질이니 제발 대처하지 마시고 관심도 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남성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세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억지 논란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당신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4838	이번 일로 정말 절망을 느꼈습니다. 게임 업계에 다니고 있어서 환멸납니다.. 저희 게임회사는 내일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혐오는 무시했으면서 여자들이 평등하게 해달라며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니 남자 혐오를 하지말라며 갑자기.교육을 진행하는게 어이가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평등을 외치는지 모르는 이 현실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것을 알았음 좋겠습니다..
4839	넥슨과 게임업계는 폭력적 사상검증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4840	말같지도않은소리 그만
4841	뜻 정리해서 디렉터들 개인적인 의견인지 회사의 뜻인지 제대로 된 말로 발표 좀 해주세요 가능한 정상적인 말로
4842	억지논란 다 받아주다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4843	한국게임이 빛 볼 일은 없을것같습니다...
4844	제발 등신집단 말 좀 들어주지마세요
4845	집게 손가락이 남성혐오의 이유만으로 일러스트를 제거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옛날부터 업계들은 여성혐오를 자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으면 아무렇지 않아했는데 남성혐오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 우월주의는 페미니즘과는 다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한국의 성평등을 후퇴시키기만 할것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게하기 위해 이런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하며 게임 업계 내부의 여성혐오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4846	허황된 혐오 거르기에 치중하기 보다 게임 서비스 증진에 힘써주세요
4847	인간이 집게손가락을 쓰는 것은 원시시대때 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모든 이미지에서 집착적으로 집게손가락을 지우는 행위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페미들은 남성성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부위가 작은 것이 어지간히 컴플렉스인가싶네요..
4848	시대의 흐름을 읽으세요

4849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모든 성별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평등함을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혐오'라고 이름붙여 무작정 나쁜 것으로 몰아가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작업물에 대해 억지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습니다. 억지에 가까운 이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이 사상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 작업물과 작업자를 제할 것이 아니라, 건의가 옳은 것인지, 억지성을 가지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보이는 집게손이 아닌, 애니메이션의 수천 프레임 중 몇 프레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연 누가 이걸 보고 남성 혐오의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할까요. 넥슨의 입장에 큰 실망만 안깁니다.
4850	지성인이면 지성인 답게, 사회화가 완료된 성인이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혐오세력의 꼴값을 다 들어주고 있으니 같은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망상에 찌든 인셀들의 시비를 다 들어주고 있을 만큼 시간과 인력이 남아 돕니까?
4851	제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런 억지를 들어줄수록 무리하게 요구를 들어주느라 컨텐츠의 질은 꾸준히 하락할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더욱 큰 조롱거리가 될것입니다.이미 해외에서는 한국의 일부 남성유저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않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한 사상검증 해고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조롱 및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억지비난을 차단하고 직원을 보호해주십시오.
4852	일부 커뮤니티의 억지주장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들은 진상입니다.
4853	게임업계는 여성유저를 버릴 생각인가? 억지논란 강제사과 말고 무시해라!
4854	페미니즘은 혐오사상이 아닙니다. 개인 SNS 검열에 따른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노동권 침해를 그만두십시오.
4855	우리 불멸자소셜클럽은 게임업계 내의 여성혐오와 사상검증에 반대합니다
4856	제발 사람다운 올바른 시선 좀 가지세요
4857	말같지도 않은 논란에 응대하는 꼴이 매우 우습습니다.ㅋㅋ
4858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넥슨 및 게임업계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성차별적 행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4859	당신들이 싫어한다는 그 페미니스트가 바로 게임을 하는 여성들이라는걸 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4860	존재하지도 않는 페미니즘 상징포즈가지고 억지부리는 남성들 비위맞추겠다고 직원의 개인 sns 를 염탐하고 사상검증하여 부당해고 시키지마라
4861	제발 일부 유저들이 하는 억지 주장에 사과부터 할 게 아니라 억지인지 아닌지 기업으로서 구분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4862	이번 사건을 통해 넥슨과 뜻을 같이 하는 게임 업계가 개인의 신념을 문제 삼아 강제로 부당한 요구, 퇴직, 개인을 향한 사이버불링에 동조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4863	혐오를 누가 저지르고 있는지 똑바로 좀 봐라
4864	넥슨은 사과문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넥슨에 퍼준 돈 전부 피해입은 사우에게 지급해라. 난 남성우월주의를 위해 돈을 쓴 적 없다.

4865	여성 유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해주세요
4866	게임업계는 성평등을 지지하지 않는 것인가? 21 세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여성을 상대로한 부당한 꼬투리잡기와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4867	특정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휘말려, 모두를 위한 게임을 만든다 혹은 유저환경 내의 모든 혐오를 허하지 않는다는 말로 교묘하게 여성유저들의 사이버폭력을 묵인하는 짓을 멈춰주세요.
4868	정신차리세요.
4869	게임성을 높이고 선두 개발하는 위치로 갈 자신이 없으니 이런 이슈로 있던 게임만 가성비 처리. 이러니 지지부진하게 신작이 다 망하는거임
4870	페미니즘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페미니즘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는 일부 남성들에 의견에 동조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4871	망상적인 대안 세계관에서 벗어나시고 시민사회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4872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4873	일부 인터넷 여론과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의 혐오를 정말로 믿고서 내놓은 결론이 작금의 사태라면 넥슨은 무능한 기업입니다. 허구의 혐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시끄러움을 면피하고자 내놓은 결론이 작금의 사태라면 넥슨은 무능한데다 발전 가능성조차 없는 기업입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캐릭터가 손을 오므리는 동작도, 펼치는 동작도 그릴 수 없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들입니다. 사회적 공헌의 의무가 있는 기업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도태되기까지 하기를 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멍청이들이 만든 반쪽짜리 세상에 장단 맞춰주기를 택한 넥슨의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4874	억지 논란 만드는 인간들 손 들어주는 비상식적 게임업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바랍니다.
4875	왜 억지논란에 귀 기울이나요? 어째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해서 규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4876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입장인 게임업계가 왜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개발하다보니 혼동하셨나본데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페미니즘 퇴치(0/1)로 새겨지는 얄팍한 퀘스트 따위는 현실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은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제지해서 게임 업계에 돌아오는 이득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4877	사업적으로도, 창작자로서도 이런 사상검증과 대처는 어떤 이득도 야기하지 못합니다. 작품과 수 명의 생계에 타격을 가하고 대신 특정 커뮤니티의 일시적 분노를 달래는 결과만 얻었네요. 누군가의 생업과 일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밖엔 남길 게 없습니다.
4878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바락바락 우긴다고 모른척 눈 감아주고 모른척 수긍해주는게 당신네들 경영 방침인가요?

4879	이전에 일어났던 프로젝트 문 사태에 이어서 한국 게임 업계에 실망만을 느낍니다. 해외의 업계는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무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들의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건가요? 매출이 걱정이신가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게임 역시 페미니스트다 뭐다 하는 관련된 내용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으나(솔직히 화제라고 쓰는 것도 기가 찹니다) 매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잘 벌고 있음) 유저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쪽의 의견만을 수용하고 다른 한 쪽은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았을 때, 혹은 관련 일에 귀를 기울이고 대처했을 때 귀찮아지니까 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이번 일을 회피하셨다면... 만약 정말로 그러신 거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를요.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대표라고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기업이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여성으로써 겪은 일들, 일어나는 일들에 공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죄인가요? 정말 기가 찹니다.
4880	블랙컨슈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4881	페미니즘은 정치사상도 아니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멈춰주세요.
4882	GS25, 림버스 컴퍼니 사례를 보고도 그 성별의 억지 떼쓰기를 들어줄 생각을 하다니 참 용감하십니다
4883	남자들의 억지주장 들어주는 게임업계에 실망을 금하지 못했으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업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 아닌 여성들의 자리를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기대할 곳에 기대를 했어야 하는건데, 정상인이라고 여겼던 제 실수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연대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4884	고작 손 동작 하나에는 사과문까지 올려가면서 혐오에 반대한다 뭐한다 말씀하시던데 게임내에서 성희롱 및 ㅇㅇ년 워딩 하는 사람들이나 제재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4885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는 눈가리고 개인의 사상까지 검증하며 페미니즘을 배척하는 이번 행태는 두고두고 기억될것입니다
4886	여성 노동자를 향하는 명백한 테러입니다. 기업이 나서서 직접 이 테러에 참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4887	남들과 다른 사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박탈시키는게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업하는 회사와 아티스트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888	논리적 근거가 없는 사유로 직원을 보호하기는 커녕 부당해고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4889	대한민국 게임 업계 속 여성 직원을 향한 언어적 폭력을 멈추세요.

4890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다니 넥슨게임을 한 유저로써 부끄럽습니다.
4891	실체없는 집게손 논란에 휘둘리는 기업이 한심합니다
4892	똑바로 보세요
4893	사상검증 좀 그만해라
4894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4895	억지 창조 논란에 과민반응하며 대꾸해주는 게임업계가 문제다
4896	여성혐오를 당장 멈추세요
4897	일부 커뮤니티의 극단적 여론몰이에 휩쓸려 개인의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게임 업계의 행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98	여성 캐릭터 신체 성삼품화에나 좀 민감하게 반응하길 바람
4899	억지와 정당한 요구를 구분해주시길 바랍니다.
4900	개소리는 들어주지 좀 마세요——
4901	지구촌 시대에 K 산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진지가 언젠데 넥슨은 한국 망신 좀 그만시켜라
4902	여성유저들을 일부 진상 고객 처리를 위한 값싼 먹이로 쓰지마세요
4903	일부 비정상적 남성 집단의 불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며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그만둬라
4904	억지 논란에 다 대응해주는 작금의 사태가 참 우습네요
4905	소수의 인원이 스포츠처럼 진행하는 문제를 굳이 대형회사에서 어르고 달래주면 이후에 더 안좋은 케이스들만 늘어날 뿐이라는 걸 깨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906	억지로 시작된 남혐논란에 왜 피해자가 일자리를 잃어야하는건가요? 현재까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비슷한 억지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는데 피해자를 규제한다해서 문제가 해결될것이라 보시나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만 배제하는건가요? 문제의 본질이 악성 유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않는건가요?
4907	대형기업인 넥슨이 사과해서 다른게임도 사과하고 안좋은 선례가 생겼어요 애니메이터는 결국 직장에서짤렸어요
4908	페미니즘은 극단적 사상이 아니다.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억지 떼쓰기에 굴복하지 마라
4909	☒이게 머라고….다들 정신차립시다ㅜ
4910	이번 사건은 넥슨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모든 한국 게임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창피한 사건입니다. 그냥 천천히 도태되어 사라지는 걸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4911	여성인권 문제임과 동시에 노동권문제
4912	어이가 없는건 기본이고 콧구멍 두개로 숨쉬기 힘들만큼 기가 막히네요. 제정신이신지 부터 궁금합니다. 이게 정상사회에서.일어날 일입니까?
4913	치졸하고 추잡하다 본인들도 억지라는거 뻔히 알지 않나?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자
4914	그렇게 페미니즘 몰아내고싶으면 회원가입 절차부터 페미 걸러내세요 페미돈은 벌고싶고 페미는 싫고 그게무슨 도둑심보입니까
4915	혐오를 전파하는 넥슨의 현 세태를 규탄합니다.

4916	개 어이없는 일에 대응한것도, 대응방법도 어이가 없습니다
4917	엄지,검지 손가락 갖고 발작하는 일부 한국 남자들의 징징댐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문제임. 게임업계는 저런 억지 주장을 대체 왜 받아줌? 여성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행태도 당장 멈춰라.
4918	유저로서 넥슨 및 게임업계의 행보에 대해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4919	넥슨코리아는 본인들의 행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4920	여혐 문화 제발 지양 부탁드립니다.
4921	썩어버린 남초 집단의 말도 안되는 떼쓰기에 대기업도 이렇게까지 말도 안되는 방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거지로 밀어붙이기 식인 논란 만들기는 그만되어야 합니다.
4922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여성 유저인데 즐기고자 하는 게임을 즐길수가 없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고작 특정 집단의 손가락 움직임에 누군가의 일자리가 이토록 쉽게 사라진다는것이 충격적입니다.
4923	대기업이면 그에 맞게 충분히 이 사태를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들어 주기만 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4924	일부 남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서 노동자를 자르는 사태를 멈춰주세요
4925	여성을 존중하고 노동자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책임을 물지 마라
4926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만드는 게임일텐데. 즐거움은 커녕 잘못된 상식에 박혀 혐오를 낳는 게임업계, 이제는 정신차릴 시간입니다.
4927	어디까지 되도않는 논리에 넙죽 엎드릴지 궁금하다 이마에 피가 철철 날듯 싶다.
4928	비상식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동조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4929	게임업계는 디시와 일베 회원들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0.1 초 집게 손이 정말로 남성 성기를 비하하기 위한 고도의 은밀한 직원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4930	되도않는 생때 받아주지 말고 노동자권리 보장하라
4931	그저 악성민원인일뿐인 소수의 남성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것 부끄러운 줄 아십쇼.
4932	본인들은 펜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엄지랑 검지로 안 줍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4933	제발 턱도 없는 생트집에 일일이 피드백하지 마세요. 제가 다 부끄러우니까. 그 생트집에 피드백 한 덕에 엄한 사람 밥줄이 끊기잖아요.
4934	한숨만 나옵니다. 회사 수준 빤히 보이고요. 떼 쓰는거 받아주지 마세요. 다 큰 성인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나요?
4935	다른 혐오적 사안에대해서는 입도 뻥긋안하다가 이제야 반응하는 점
4936	게임의 플레이어와 여성과 노동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되려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4937	일부 남성들의 피해망상에 반응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다른 나라에도 소문 다 나서 쪽팔립니다.

4938	게임을 하지 않는 일반인,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아는 대중적인 욕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아주 만약에 그런 의미가 내포 되어있다 하여도 욕을 뜻하는 제스처를 배우가 했을 경우 그 장면이 잘리지 않는 것처럼 그린 이가 잘린 이유는 없어야 한다. 무고하게 생계를 잃은 이가 있기 때문에 총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939	말도안되는 논란에 대응해주지말길
4940	게임 업계의 성장을 좀먹는 행태를 멈춰라. 남성 유저들에게 대기업으로서 좋은 문화와 경험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라. 보기좋은 먹잇감만 던져두고 악독하게 돈을 빼먹으려는 짓을 게임이라고 하지 말라
4941	말도 안되는 논란을 혐오 그 자체로 인정해버린 넥슨 측의 우둔함에 난감함을 표합니다.
4942	日本語で申し訳ありません 私は 1 人のゲームファンとして、女性ジェンダーとしてネクソンによる女性蔑視、フェミニズム蔑視を批判します。全てのゲーム会社、関連職種で働く女性ジェンダーの方の安全と労働環境の向上を望みます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저는 한 게임 팬으로서 여성 성별로 넥슨의 여성 멸시, 페미니즘 멸시를 비판합니다. 모든 게임 회사,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젠더 분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의 향상을 바란다)
4943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을 멈추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4944	게임은 유해한 문화가 아니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을 종합하면,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더라도, 게임 애호층은 유해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945	말도 안되는 논란에 동조해서 지나간 일러스트나 동영상을 검열할 시간과 재화가 있다면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 게임 컨텐츠가 고갈되서 아이고 페미 논란 때문에 검열하느라 컨텐츠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이러려는 건 아니죠?
4946	정신차리세요
4947	넥슨 게임에 좋은 추억 많았는데 엉망진창으로 망쳤어요 한심한 회사 같으니라고
4948	더이상 개인 sns 의 무분별한 검열,과도한 해석,또 그로인한 차별은 없어야합니다.
4949	사원 보호 안 합니까? 미쳤습니까? 디씨일베들부터 먼저 자르십시오. 인셀남들 오냐오냐 해주다가 본전도 못 건진 프로젝트문을 보십시오.
4950	한국 게임업계 썩은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네요 외국에서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한국은 페미니즘을 사회악 취급하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4951	넥슨 및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혐오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4952	여성직원과 여성 게임이용자, 그리고 외주계약 여성노동자 탄압을 멈춰라. 근거도 없는 헛소문으로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결국 그것이 당신들의 목을 쥘 것이다.
4953	인셀 남성들의 억지로 인해 여성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는 지금이 2023 년이 맞습니까?

4954	커뮤니티 남성만이 본 사 게임의 이용 고객이고 매출의 주 요인입니까? 그 억지를 다 들어주고 있는 문제를 떠나서도 왜 본인들의 대처가 떳떳하다면 글로벌에는 공지하지 않는건가요? 자국 밖으로 나가면 수치스러운 행위인줄을 알면서도 그저 본사의 마음에 안들어서, 아직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이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한다는 편견에 휩싸여서 내린 어리석은 대처였다 주장합니다. 여성 게이머 또한 당신들의 게임을 하고있으며 페미니즘은 한 성별만을 옹호하고 타 성별을 까내리는 극우주의적 사상이 아닌 단순히 여성인권 향상, 그저 남자가 여자와 동일한 인권을 가졌으면 하는 것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2023 년, 곧 다가올 2024 년에 맞는 올바른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4955	지속적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검열과 탄압을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4956	페미니즘은 해를 끼치지 않으며 여성이 동등한 인간임을 인정한다면 페미니스트가 됨이 마땅합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짧지 않아도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탄압하고 죽이는 현 상황에 우리도 인간임을 주장함에도 불고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남성들은 우리에게 '본인들이 허가해 준' 인권만을 허용하려 하고 그 외에 '내키지 않는'것을 바라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합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여자는 삼 일에 한 번 때려야 한다는 말을 읊조리던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여성만을 패고 있으니 잘못을 안 하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한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려는 여성은 모두 잘못을 저지른 여성이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울타리 속 가축입니다. 이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앞서 있었던 여성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현대의 여성은 굳이 남성에 기대지 않아도 혼자서 생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나 여전히 울타리를 벗어난 가축을 다시 잡아들여 착취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조하는 게임업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타 다른 업계들을 규탄합니다.
4957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4958	여성혐오 및 부당해고에 대해 규탄한다.
4959	남성은 무엇이라도 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여성은 불가하다는 선례를 남겼음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게임업계를 시발점으로 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를 좁히며, 그것이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4960	진짜 정신들 차리세요. 이러니까 내가 업계 떴지 스스로 살깎아먹는 짓을 왜 해
4961	성차별주의자들
4962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억압하는 입장을 고수하시는건 성차별주의를 지지한다는 걸 깨달으세요.
4963	제발 이런말도 안되는일에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4964	억지 그 자체다~~~
4965	한국게임이 이러니 망하지요
4966	남성의 억지로 죄없는 여자의 생계를 망가뜨리고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멈춰라
4967	현 사태에 대해 본인들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왜 아직 그 자리인지를 돌아보세요 답 나옵니다

4968	여성 인권에 대해 기업이 나서서 짓밟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4969	집게손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원래부터 일상 생활 속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손동작 중 하나입니다. 특정 사상 표출을 하기 위한 손동작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은 여성혐오 사상을 강하게 표출하는 집단으로 알고있는데, 페미니즘(=성차별이 격등히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을 주장한 사원의 말에는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일부 소비자 커뮤니티에게만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혐오는 혐오가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과하시는 건지 정확히 사태를 인지하고 해명해주셨으면 합니다.
4970	전 남성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4971	시대역행 그만하라
4972	사상검증 중단하고 특정 커뮤니티발 악성 민원 게시자 법적 조치 진행하라
4973	여성은 감정적이라더니, 근래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회사들이야말로 참 감정적인 듯합니다. 그들에게 장작을 불어넣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불편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현실을 보고도 여성의 사회 생활이 진정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4974	이쯤되니 사상검증으로 인한 혐오몰이가 계속될까 걱정되어, [넥슨]이 대기업된 도리로서 한 번 일을 키워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어떤 다짐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혐오적이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고 다독(?)여 줄 지 모르겠지만, 고작 손가락 모양 1 프레임으로 시작된 일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전의 선례들을 능가할만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길 바라며 모쪼록 게임업계는 정신을 꼭 차리시길 바랍니다.
4975	남초 커뮤니티의 창조 논란에 하나하나 대응해주어서 타회사의 직원 한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해 줄 수도 없습니다. 넥슨으로부터 시작된 게임업계의 '현대판 마녀사냥'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4976	여성에 대한 존중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포용은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가져야 하는 필수요소입니다 ESG 경영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나요 다양성이 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대놓고 노동법을 무시하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회사 그리고 업계에 미래는 없습니다
4977	게임업계의 뿌리깊은 여혐 및 페미니즘 입막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멸할 것입니다.
4978	견강부회하는 악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십시오.
4979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4980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왜 퇴보의 길을 걷고 있나요?
4981	말도 안되는 이런 코미디같은 일 좀 안벌어지게 정신 좀 차리십시오!

4982	한때 게임을 통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글, 만화 등으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매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많은 위로를 받았으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노력했던 여성 유저로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페미니즘을 나치와 비교하고, 고작 손가락 하나로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의지 없이 남을 물어뜯기만 하는 행위에서부터 도대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말마따나 한국 여자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일자리를 잃어 사회에 나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가정해도, 남자들에게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된단 말인가요? 여자들이 외국으로 나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요? 설령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의 말에 고분고분 복종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폭동이 생겨날 거라곤 생각하지 않나요? 사회적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주기적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도덕적, 개념적인 이유에 의해, 혹은 상업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그러했습니다. 허나 상업적인 이유가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운동과 자신들의 인권을 포기하고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업적인 이유를 갖다댄다면 사상 검증을 방패로 재미삼아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국 정신을 외국에 알리고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18 세기 영국인들보다도 못하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눈앞의 나무가 멀쩡하다고 주변 숲이 불타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렸다간 어떻게 될지.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4983	걍 한심…
4984	부당한 사상검증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공격을 당하고 직장을 잃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4985	제발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4986	인권이 뭔지 모르는 경영진은 사퇴하라
4987	제발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4988	페미니즘은 어떠한 극우적인 개념, 정치적 개념이 아닌 성평등을 도모하는 여성 인권 신장을 주장하는 것 입니다.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당연한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4989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기업이 되지 말아주세요
4990	유저들의 반응에 제발 상식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랍니다.
4991	너무 실망해서 할 말도 사라집니다.
4992	모든 유저들의 의견도 아니고 일부의 억지 논란을 왜 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그게 당장 기업의 이익에 상관이 있나?
4993	허상 뿐인 억지논란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이며 차별적인 남초 문화에 편승하는 넥슨과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4994	가장 트렌드에 민감해야 할 게임사가 2024 년을 바라보는 현재 택한 행보가 성차별이라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4995	20 여년 간 게임을 즐겨온 유저로서 악성 민원에게서 직원을 지키기는커녕 사상검증과 탄압에 앞장 선, 넥슨을 포함한 업계 전체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4996	단지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페미니즘을 하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이유없는 자연스러운 손가락제스처에 거대한 음모가 품어져있는듯 한 사람을 핍박하고 sns 스토킹에 노출 시키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4997	수준이 떨어지다 못해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4998	억지 논란인 거 남초커뮤니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넥센이 보기에도 정말 남성들을 무시하는 의미의 손동작으로 보이던가요? 이런 것에 바짝 엎드리는 꼴이 우습네요.
4999	개인의 사상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5000	한국 게임업계 진짜 냄새남
5001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손가락 제스처 하나 때문에 여성 직원이 퇴사를 당하고, 차별을 받고, 사과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기하다는 것만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여자 캐릭터를 대상으로 온갖 성희롱을 일삼는 것은 언제나 묵인해 왔으면서, 여성 직원이 동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손가락 제스처를 그리는 것은 왜 제재하지 못해서 안달나셨나요? 페미니즘은 ‘틀린’ 사상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으로 인해 욕 먹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02	정신차려라
5003	게임업계 내에서도 일반적인 인간사회의 상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004	본인 담배피실때 손가락을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이제 당신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5005	억지논란으로 한 사람의 생계를 망치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지켜보겠습니다.
5006	내가 그 한줌이다
5007	넥슨은 악성민원과 의견을 구분할줄 아는 분별력을 키워라
5008	억지 논란에 대처하는 방식과 외주업체 꼬리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는 방식에 아주 실망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정신 차리세요.
5009	제발 사무실에서 콤퓨타만 쳐다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5010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5011	겨우 그런 손가락 그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도 그런 동작을 할 때마다 손모가지를 잘라주시길 바랍니다.
5012	노동자를 그까짓 억지논리로 해고하지 마라
5013	성별 구분 없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해진 성별이 있단 이유로 무엇이든 우대받게 되는 건 과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5014	어릴 적 추억을 함께한 게임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몰지각하고 인권을 해하는 행동을 보니 씁쓸합니다. 그러나 마냥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5015	페미니즘이 반사회적 운동도 아니고 일부 남성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하는것을 멈춰주세요

5016	모든 게임업계 사측이 자사의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원한다. 신원도, 정체도 모르는 이들의 억지 논란에 휘말려 노동자를 부적절한 여론에 공격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위협 및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옥에 방문하려드는 이를 강하게 처벌하길 원한다.
5017	사업파트너를 보호하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한다
5018	게임업계 사상검증이 어느 순간부터 일종의 관습이 되어버린 듯 하여 무척 안타깝고, 분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유저가 아닌 게임업계의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대처입니다.
5019	피싸개, 퐁퐁 등의 여성혐오 워딩이 난무하고 수간을 연상시키는 수위 팬아트가 많은 호응을 얻는 혐오 범벅 커뮤니티의 여론을 그 누구보다 신경쓰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무대응이라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는데 재빨리 앞장선 거 보면 그 사이트의 여론과 디렉터의 의견이 완벽히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이플 인벤 사이트에서 등장하는 모든 주장들이 상식 이하의 논리 빈약 의견이던데 평생 말도 안되는 억지 생떼에 비위맞추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ip 관련 산업도 포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설빙도 무서워서 못 가는 메이플 남성유저들이 어떻게 테마파크라는 공간에 가겠나요
5020	디렉터님이 말씀하신 인권에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는 듯합니다. 이번 사태로 메이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5021	언제까지 블랙컨슈머의 반지성적 요구에 놀아날겁니까? 당신들도 이번 "집게손" 문제가 억지논란이라는걸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젠더갈등 영역을 넘어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대기업이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사이버불링에 힘을 실어주어 한 사람의 커리어, 나아가 인생을 망쳐놓은겁니다. 이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님,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지요. 악질 소비자의 의견을 따라 무고한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런 흉물을 과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을까요? 고객은 바보가 아닙니다. 비단 여성 고객만이 당신들에게 실망했겠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날뛰는 악성 유저들이 남성 고객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식과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번 사건이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이라는걸 알고 있을겁니다. 더 늦기 전에 각성하여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호에 앞장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넥슨이라는 회사는 시대의 착오물로서 도태될 뿐입니다.
5022	노동권 지켜라
5023	착잡하네요
5024	본인 스스로들도, 일부유저들의 말도안되는 억지 의견이라는걸 느끼고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휘둘리지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요.

5025	언제까지 그릇된 젠더 의식을 가진 남성유저들의 땡깡을 받아줄 것인가? 그릇된 현실인식을 가진 올바르지 않은 기업들은 점점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혐오를 멈춰라!!
5026	성기가 작다고 놀리는 게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성들의 성기가 얼마나 작든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성기든 어떤 존재든 직장에서 부당해고는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페미니즘일 수는 있겠습니다.
5027	제발 DC 커뮤니티와 같은 말도안되는 주장을 펼치는 남성들의 손 좀 그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게임 업계는 이제 전세계에 성차별적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일부유저가 지적한 것이 과연 정말 도덕적으로 옳지않은 문제인지 알아보는 사리분별력 좀 키우시길 바랍니다. 게임 내 구시대적인 여성혐오 발언은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으면서 말도안되는 발언에는 바로 영상을 내린다는 게 기울어진 잣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억지주장을 펼치는 유저들에 의해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십시오.
5028	하찮은 억지 주장으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조치를 그런식으로 취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게임업계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회에 더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악성 민원에 직원을 보호하십시오.
5029	성별불문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할 게임이 한 커뮤니티들의 분탕질로 인해 그 목적성을 잃었습니다. 남자 유저들은 중요하지만 여성 유저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의 태도로 인하여 게임을 즐기던 지난 20 여년간의 추억들이 더럽혀졌습니다. 앞으로 넥슨의 게임을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30	넥슨을 포함한 국내 게임업계는 인터넷 상의 일부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만을 '게이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짓을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며, 우리는 국내 게임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5031	억지 트집인지 제대로된 판단을 하세요.
5032	업계가 사라질 때까지 게임의 본질이 아닌 이런 허상뿐인 논란에 굽신거리며 사과할 자신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5033	당신들이 혐오의 주체임을 아세요.

5034	현 사태들에 대한 게임업계의 대응은 몹시도 모순적이고 편협합니다. '페미니스트' 노동자 하나를 내쫓는 걸로 해결하려는 속 보이는 모습, 얼토당토않는 악성 민원에 적극동조하며 노동자 부당대우에 힘쓰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게임을 어릴 때부터 즐겨오며 한국 게임에 대한 성원과 사랑이 모자라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사랑했던 것이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악성 민원의 나팔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게임에 기대가 되지 않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페미니스트' 색출하여 작업물 내리고 해고하라" 라는 민원을 넣지 않은 쪽에서 묻겠습니다. 들어줄 가치도 없는 억지스러운 악성 민원과 그에 동반된 스토킹, 사이버불링에 적극동조하며 이슈와 잡음, 제작의 번복, 기타 낭비 등의 꼴을 보고 그대로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는 다른 유저들의 금전 및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고작 소수의 악성 민원에 굴복해 저지르고 계신 행위가 다른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깎아먹고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선언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게임과 관계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직원을 보호했으면 이리될 일이 없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 여러분, 정녕 종사자, 노동자로서 스스로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동료를, 협업자를 보호하십시오. 당당하게 탄압하겠다 말하지 말고 상식적인 대응을 똑바로 하십시오. 그 때 했어야 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 찬동하여 집게손가락 초단위로 찍어 올리기가 아니라 공사의 구분이었고 직원과 협력사의 보호였습니다. 상식적인 대응 따위는 없었으나, 그 점에 대해 정녕 하늘 아래 한 점도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만드시는 게임 표지에 해당 사건에 대해 명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며 불필요하였고, 하나 무마하고자 했던 졸렬함이 협업하는 업계의 신뢰도, 소비자의 신뢰도 크게 낭비하였다는 것을. 2016 년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에 이어, 프로젝트 문, 그리고 또다시 넥슨, 및 이후 다른 게임사들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5035	말도 안되는 인셀들의 억지를 받아주는 넥슨은 창피한 줄 아세요
5036	게임산업은 국경이 필요없는 세계화 산업인데 해외에서 이번사태를 통해 성차별적 이미지로 한국게임업계가 사장될가 두렵네요.
5037	정신차리세요
5038	여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사상을 드러내는 방법을 고작 그림 사이에 손짓 하나 끼워넣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의식과 얄팍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신호를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5039	이미 여성은 유저로 취급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걸 적는 순간 뿌리의 여성 노동자 한명이 권고퇴사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겨주셔서 넥슨에게 참 감사하고(반어법) 이 사례를 또 남긴 악덕기업으로 더더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5040	넥슨의 게임을 자주 즐기는 유저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일부 남성분들의 혐오와 자신들의 자신감유지를 위한 행위를 옹호하며 그들의 손을 들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말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통탄스러움 기분을 남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게임업계의 실태라는 것이 한심합니다. 또한 그들의 편을 들어 여성작업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멈춰주세요.
5041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생계를 위협 받고 부당 해고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일부 사람만 바라보고 성급히 판단을 내려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주세요. 게임을 즐기는 수 많은 여성 유저가 존재한단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5042	당신들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들어주면서 이 사회를 역행시키고 있습니디. 정신차리세요.
5043	혐오는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누구더러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기가 차네요.
5044	정신좀 차려
5045	일련의 사태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유저들의 반복되는 마녀사냥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이 업계를 규탄합니다.
5046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일조하고 계시니 부끄러운줄 아세요
5047	인셀 루저들의 말같지도 않은 논란에 동참하는 넥슨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남기업 퇴출기원합니다.
5048	넥슨 및 게임업계는 여성 창작자 및 직원들을 페미니스트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링하고 기업에 압력을 넣어 반응이 오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 여성혐오론자들의 대한 동조를 멈추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대처가 그들의 여성혐오와 반사회적 주장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을 혐오하고 핍박하는 업체들의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직원을 보호하세요.
5049	혐오를 멈추세요!
5050	일부 사람들의 억지 논란에 대응하는 꼴이 참 우습네요 페미니즘이 사람을 죽였나요? - 아니오 페미니즘이 어떤 피해를 줬나요? 혐오를 멈춰주세요
5051	인간이라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문제를 "감히" 소리내었다는 이유로, 특정 무리가 한 사람을 업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요구한 억지스러운 의견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나아가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생계 피해의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합니까?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5052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 노동자의 사상검증에 반대합니다
5053	진짜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5054	여성혐오 공범인 넥슨은 반성하라
5055	정신차려라
5056	두번 다시 넥슨 게임을 할 일은 없을 겁니다.
505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5058	무엇이 혐오를 가중시키는지도 모르는 채 분별 없는 사과. 게임업계가 가고자 하는 길은 뭔가요?
5059	한국 게임 수준...
5060	말이 안되는 논리로 논란을 만드는 남유저들 의견을 들어주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들이 말 같지도 않는 논란을 만드는 것들이 여성혐오몰이입니다. 그런 의견을 들어주는 넥슨 및 게임업계야말로 그 몰이에 동의하며 같이 동조하는걸로보입니다. 여성 유저들은 같은 게임 유저라고 생각을 안하시는건지..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넥슨코리아는 이 같은 무책임한 사태를 키운것에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061	고작 집게 손가락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우습습니다. 무시하면 되는 일을 오히려 사과하고 삭제하셔서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페미니즘이 뭔지 제대로 모르시면서 돌아가는 세상이 웃깁니다.
5062	클로저스 때의 일로 시작된 사상검증으로 인해, 게임 하나하나를 편히 할 수 없었음에도 게임을 사랑했기에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인 행보에 크게 실망했으며 이 이상으로 국내 게임업계를 망가트리는 짓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넥슨 및 게임업계들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5063	세상엔 손가락 모양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다
5064	적어도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살아주세요.
5065	망하세요^^
5066	부당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부당한 목소리만을 듣고 페미니즘을 혐오한다면 너무나 얄팍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5067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직원을 보호하십시오. 꼬리자르기 식으로 여성직원을 잘라버리는것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킬수 없습니다. 이성을 찾으십시오.
5068	할 말도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5069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070	언제까지 일부 남초 커뮤니티 말에 휘둘릴지 참 궁금하네요.
5071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5072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행복한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73	억지 논란이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것을 사회에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5074	소탐대실
5075	인셀들의 약자 혐오(장애인,여성,노인,어린이)에 동참하지 마라, 사상해고를 멈춰라 노동법을 준수해라.
5076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지탄합니다.
5077	마녀사냥을 멈추세요
5078	일부 커뮤니티 유저의 허황한 정보에 동조하는것을 멈춰 주세요.
5079	대응은 바라지도 않는다. 먹금좀 해라...제발...
5080	게임업계의 여성종사자를 기업에서 보호하지 못할 망정 게임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는 유저들을 잠재우기 위한 먹잇감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5081	개인적인 공간에 작성된 글을 끄집어 내어 억지부리고 떼쓰는 걸 언제까지 다 들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신상 및 사상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입니다.
5082	제발 성차별 좀 그만하시고 정신 제대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5083	전세계 어디서나 하는 손동작 0.1 초가 이 사단이 나는 나라가 오직 한국뿐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화 된 현대사회에서 이미 고작 그것 하나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이런 소동을 벌인것에 대해 사측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 동조하며 더더욱 큰 소란이 된 것에 대해 이미 해외에서도 한국은, 더더욱 이 선동을 일으킨 한국 남성 전체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측 직원도 애초부터 그 0.1 초로 이 난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사측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공지한 해당 발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5084	정신차리시기를..

5085	일상에서 흔한 자연스러운 손동작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악성 유저의 의견만 귀담아들은 회사의 게임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성 유저와 잘 해보십시오.
5086	집게손에 대해 발작하는건 남자뿐입니다.
5087	알바도 운동도 안 해보고 방에서 키보드만 두들기는 인간들에 휘둘리는 사회가 되선 안 됩니다
5088	넥슨이 진정 스팀 등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벌이는 업계의 암덩어리들은 하루빨리 신속히 찾아내 제거해야 할 것
5089	정말 손가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페미니스트가 문제러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과 그 업계가 문제인 것이다.
5090	현재 애니메이션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서 넣는 1 프레임이 집게 손 모양 그림이라는 이유로 작업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쳐지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페미니즘 혐오몰이가 게임업계에서 애니업계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과 이 모든 게 고작 집게 손 모양이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혐오의 정당화를 시켜줄 사례를 만들어 줄 수록 대중은 페미니즘이 정말 나쁘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정말 손집게 그림 1 프레임이 이 정도 파급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상황을 해외에 당당히 알릴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혐오입니다.
5091	게임업계는 콘텐츠 산업의 붕괴를 멈춰라 부당해고를 발판 삼아 성장하지 말라 받아들일 것과 그러지 않을 것을 구분해라 못하겠다면 업계 관여 및 사업 운영을 그만둬라
5092	과거에도 티셔츠 하나로 연동 태크한걸로 사람 자르더니 이제는 대대적으로 거른다고 난리를 치네요. 이게 회사인가요? 아니면 동네 동아리인가요? 동네 동아리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회사라는 곳이 이렇게 근본도 없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실제로 행동 하는 모습이 여성이기를 떠나서 사용자로서 넥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도 논리도 없는 사사로운 감정에만 치우친 의견을 고민도 없이 수렴하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나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 정보가 회사내 사사로운 감정 하나로 개인정보를 다른이에게 팔아서 작당모의를 할지 그걸로 사용자에게 해를 입힐지 어떻게 안답니까? 이거는 그저 여성 차별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바닥으로 가는 가장 빠른길입니다. 제발 넥슨과 게임업계분들 여러분이 회사라면 제발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좀 생각 해보시고 하세요.
5093	토사구팽의 뜻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5094	이런 생산성 없는 억지를 들어주고 논란만들어주고 할 시간에 성차별,혐오발언,욕설,비속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와 닉네임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95	그렇게 장사하지마라
5096	남자 디씨일베부터 검열해라. 성평등이 이렇게나 차별받는 나라는 처음봤다. 이제는 일부가 아닌 기업의 차별행보에 치가떨린다

5097	게임 업계에서 시작된 말도 안 되는 혐오 행위가 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여성 직장인의 권리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 직장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098	미래에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것이 꼬투리 나 책잡힐 점이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5099	제발 디씨좀 벗어나라
5100	그야말로 억지 그 자체인 논란.. 대다수의 여성 유저를 취급도 안하는 논란을 제기한 유저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한국 게임계의 현실을 잘 봤습니다.
5101	무고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페미니즘의 본 뜻을 폄훼하지 말 것
5102	개인 sns 내역으로 사상을 검증해 직원을 해고하는건 한국 게임업계가 유일무이 합니다. 한국 게임이 대중에게 인정 받으려면 일단 부당해고를 멈춰야 합니다.
5103	넥슨 진짜 구시대적임
5104	언제까지 억지논란에 여성들은 피해보고 그놈의 페미탓을 하는지? 그 손가락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굳이굳이 찾아내서 논란일으키는게 여성인가요? 본인들의 편협되고 잘못된 인식으로 일반적인 시선에서 아무것도 아닌걸로 시끄럽게 구는 꼴이 못봐주겠어요. 솔직히 넥슨의 마비노기를 하는 입장에서 남일같지않고 여성유저는 전혀 생각하지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유저들의 이야기는 전혀 필요없는게 넥슨이라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5105	남성유저들의 억지논란에 하나하나 피드백하며 여성들의 신상털이와 일자리해고사태를 비판합니다
5106	그릇된 성 인식을 조장할 뿐 아니라 김자연 성우사건때부터는 여성의 생계권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행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당신들과의 차이점은 고작 염색체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으로써 대우하는 것. 이 응당 져야할 의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5107	여성차별금지
5108	일부에 불과한 당장의 여론을 위해 자사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털어뜨리는 일이다. 한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허황된 의견에 동조하는 업계는 과연 과찬이 오래 갈까, 오명이 오래 갈까.

5109	뉴스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자신이 소속한 커뮤니티를 증명하고자 하는 건 일베, 또는 소수의 남성 커뮤니티들이나 해온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동해온 바대로 사고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듯, 넥슨 및 게임업계의 현 사태는 자신들의 좁은 시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 무엇이 불만이신지. 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동작에 그리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신의 SNS, 커뮤니티 발언 또한 한마디 한마디 검수하고 게시하고 있으신지. 이미 다수의 여성 직원들이 부당한 이유로 인해 생존과 직결된 활동을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안의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문명 사회에 속해 있음을 모쪼록 떠올리시고, 업계를 더불어 나라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동등하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건 현 시대의 게임 업계입니다.
5110	한국 게임업계는 여자들 벗기는데 혈안이 되어있어 환멸납니다 심지어 미성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에 가슴골 안 그렸다고 항의하고 그걸 피드백 해주는 게임업계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몰카범죄나 여성살해범에게 엄벌을 처해야한다는 말에 동의하였다고 남성혐오자로 만들어 해고를 하는 일은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도태되고 피해의식 가득한 남자밖에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겠지요 이미 그런 상황이긴 해요 인셀은 어느나라에나 있지만 그들운 숨기고 살아갑니다 드러내면 인간 취급을 못받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여성임금차별이 심한 나라 세손가락에 꼽히면서 남자들이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다니, 엄마는 임신하자마저 책상빼라고 눈칫밥을 먹는데 아빠는 육아휴직내면 승진 안된다고 안쓰는 나라에서 남성 역차별이 만연한 나라라고 우기는 저 무지한 것들의 편을 들어주는 한국 게임업계는 없어져야합니다
5111	지금까지 넥슨 및 게임업계를 좋아하고 응원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럽습니다.
5112	좋아하던 게임을 부끄러운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5113	21 세기식 마녀사냥을 멈추길 바랍니다.
5114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기에 전세계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억압하고 부정하며 페미니즘 사상을 조금이라도 내비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야말로 성차별에 가담하는, 혐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는 점점 발전해나가야하는 것인데 우리만 퇴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게임업계가 수치로 보여지지 않았으면 한다.
5115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뜻합니다. 이 기본조차 모르는 대한민국 일부 남성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합니다.

5116	사소한 걸로 (손가락 포즈) 남의 생계를 위협하고 잘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입맛대로 휘두르려 들탠데 적절한 대응으로 유저도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 의견등으로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정 의미를 두고 한게 아닌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 존재하는 프레임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검열하면 만드는 사람도, 플레이 하는 사람도 피곤해져요. 제작할 때마다 신경써서 계속 수정해야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일러교체는 좋은 대응이 아닌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의견은 적절히 거르고 게임 운영에 도움되는 내용, 게임에 애정을 갖고있는 플레이어의 진심이 담긴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게임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5117	정말로 이렇게까지 대응을 해줘야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5118	고작 인터넷에서 글 타닥거리는거에 매달리는 애들 말을 들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5119	수년에 걸쳐 이뤄낸 진보와 보편적 가치를 떼쟁이들 달래주느라고 무시해버리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5120	그만 좀 하세요..
5121	사상으로 노동자를 자른다는 게 어디 법이냐
5122	그냥 게임하던 유저들도 학을 떼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5123	일부 커뮤니티의 악성 민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게임 업계를 포함하여 타 업계에까지 민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5124	가지가지 하십니다...
5125	억지 주장을 들어주는 것은 게임업계에만 그 피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마케팅, 광고 업계에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일부 억지 주장을 다수의 의견으로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5126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5127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와 단지 집게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심지어 기존 메갈리아 손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들을 포함) 외, 내부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5128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걸 자기들끼리 찾아내서 자기들끼리 공론화하고 자기들끼리 사과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Gs부터 자꾸 기업차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에 대꾸를 해 주니까 필요이상으로 논란만 커지고 가해자는 없는데 자칭 피해자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대하기도 시간 아까운 억지 논란 좀 깔끔하게 무시하세요 아님 이게 논란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만 셀프로 본인부터 엄지 검지를 좀 자르든지
5129	넥슨을 어린 시절부터 이용해 온 올드 유저로서 이번 일은 그 어떤 수 없이 많은 논란들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러운 행보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남성들이 만든 억지주장에 애먼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그 어떤 사상과 의도를 담지 않은 작업자만이 기업의 보호 없이 개인이 책임을 지고 배제 당해야 하는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저스부터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관례를 넥슨 스스로가 끊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130	글로벌에 그대로 알릴 자신이 없다면 그만해라
5131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적과 싸우는 것은 게임 속에서만 끝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요구조차 쳐내지 못하는 결정권자, 한번 대기업에 의해 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폭주하며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을 시작하는 일부 유저 계층. 그런 하잘것 없는 스포츠에 한 노동자의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5132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이상 일어나서는안되니다.
5133	입장문 수정 리스트업이 참 빠르네요 목빠져라 기다리셨어요?
5134	정신 좀 차리세요. 일부의 이상자들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들의 말을 오냐오냐 들어주시지 마세요.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들, 외주 회사들을 지키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지 말라고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생계가 위협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만든 건 남성인데 어떻게든 여자를 찾아서 페미라며 신상을 캐고, 유포하고 비하하고 하는 짓이 정상인이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나요? 플레임 하나하나 찍어서 손가락이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정상인이 할 짓으로 보이냐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5135	15 년 이상을 여성 게이머로서 살아 왔습니다. 게임 내에 문제가 있으면, 일루미나티 표식 찾듯 '표식'을 찾아내고 악성 유저끼리 소름 돋아 하며 이것으로 게임을 불태운 뒤 누군가를 계약해지 시키는 걸로 마무리되는 이 세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다들 어처구니 없다는 걸 알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5136	방구석 OO 들 억지논리 언제까지 들어줄거임? 게임업계 전체가 우스워보임 이제ㅋㅋ 여성유저 다 떠나면 멀쩡한 남성유저들도 다 떠나게 되어있음. OO 들만 모여서 쿰척거리는 음습한 게임을 어떤 정상적인 남자가 하고싶어함? 곧 정상남들은 다 나가고 도태남들만 우글거리는 망겜 되는거 순식간임. 맨날 무시당하던 애들이 이번 억지논란 만든게 먹혔는데 다른때는 가만있을거같음?ㅋㅋ 이제 별걸로 다 논란만들고 지들이 뭐라도 된듯이 더 설칠거임. OO 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임은 절대 주류가 될 수 없음. 억지논란 먹금하고 승승장구하는 무신사 사례 좀 참고하시고 OO 들 얘기 들어줬다가 망겜된 수많은 사례들좀 참고하세요ㅋ 평생 방구석 등신들만 데리고 장사할거 아니면 정신 좀 차리길 바람
5137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5138	페미니즘은 혐오사상이 아닙니다. 사상몰이로 노동자를 탄압할 순 없습니다. 갑질 멈춰.
5139	무분별한 사상검증으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임업계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5140	게임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게임에만 의존하는 병적인 유저들이 생기는 거에요
5141	부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5142	집게 손 그거 하나로 노동법 어겨가면서 인셀들 비위맞춰주시는게 아주 가관입니다 정말...
5143	진짜 진심으로 정신 차리세요 인셀들아..

5144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게 손' 논란에 의한 넥슨 및 게임업계의 굴복은 양성평등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5145	더이상의 사상검증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게임업계에 매우 실망입니다
5146	예로부터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벌리는 것만으로도 디씨인사이드 (이하 디씨) 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남성의 성기 길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왔다. 이는 이미 금년 림버스 컴퍼니 제작사 프로젝트 문을 향한 사옥 무단 침입 및 게임 제작사를 향한 모욕을 통해 폭력적인 방향으로 주장된 바 있다. 허나 그 당시 프로젝트문을 비롯한 현재의 넥슨, 그리고 다수의 게임업계인들은 사측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디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디씨가 스튜디오 뿌리의 사옥에 직접 방문하는 행패를 부림에도, 현재 넥슨과 게입업계는 문제가 제기된 노동자를 해고하고 관련 작업물 삭제라는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를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로지 일각의 주장만을 기반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하루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넥슨과 게임업계는 과연 무엇을 보고 노동자를 해고한 것인가. 회사는 노동자의 사상을 검열할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서도 이는 묵인될 수 없는 처사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반성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5147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대해서는 안 돼요.
5148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5149	게임업계가 억지 논란을 만들어내는 집단에 동조하여 노동법을 위반하고 직원의 사상검증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게임처럼 스포츠처럼 즐기고 있는 잘못된 집단에게 그들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주고, 페미니스트는 잘못된 것, 여성 직원의 사상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회전반에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150	방구석에서 프레임단위로 애니 뜯어보는 놈들이다 얘들아
5151	생각좀 하시고 정신차리세요
5152	넥슨은 왜 노동법과 표현의 자유를 어겨가며 말도 안되는 남성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는가?
5153	페미혐오가 성차별이란걸 아시나요
5154	억지논란을 부추기며 여자노동자를 사이버불링하는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저질스러운 놀이에 어울려줘선 안되고 이러한 노동법 침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5155	해당 직종을 계속 준비중인 취준생이었기에 지금의 사태가 더욱 어이없고 허탈하네요. 한쪽에서 억지로 부여한 의미의 집게 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녕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5156	사회의 역할을 하지 못 하는거 같습니다.
5157	종이 한 장 집을때 넥슨은 주먹으로 집으십니까?
5158	남자 눈치 과하게 본다. 여자도 유저다 여자 눈치도 봐라.

5159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그 일인의 생계 더 나아가 그 가족의 생계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집단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인의 개인이 사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스토킹하여 그 사람의 직장, 작업물에 대해 본인과 다른 사상을 가졌거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위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5160	시발 노동자 밥줄은 끊기게 하지 말아야지 뭔 16 년도 때랑 변한 게 없어 진짜 회사갑질 개쩌네요. 게임업계들 그런식으로 돈벌지 마슈. 뭔 여캐팬티 손가락 진짜 변한게 없네
5161	한국 게임업계 이대로 나락가면 좋겠어요 특히 넥슨은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피드백해줄 시간에 건설적인 시간 가지세요 넥슨 한국게임업계 왜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못 나가는지 알아보세요
5162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할 선택인지…ㅎ
5163	게임업계의 여성차별 근절하라
5164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물고 늘어져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잡음에 더 이상 회사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165	사상검증과 어이없는 혐오논란 그만하세요
5166	게임기업의 자정작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
5167	어릴적 내 취미생활을 책임져주던 게임회사가 일부 차별주의자들의 대표기업으로 변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실망이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일부차별주의자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넥슨의 모습 잘보았습니다 글로벌로 망신한번 잘 당해보세요
5168	지난 수년간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게임 또한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넥슨이 이번에 보인 행태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서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거부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디씨인사이드나 아카라이브 등 또한 각종 혐오표현과 악플 뿐만 아니라 신상털이, 살인예고 등의 범죄 행각이 빈번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 넥슨의 태도가 과연, 혐오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5169	애니메이팅을 만들다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손동작에 이상한 의미부여를 하고 혐오몰이를 하는 유저들의 주장에 맞춰 함께 혐오몰이를 하고 타기업에 명단을 올려받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나쁜 건가요? 넥슨은 성차별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거라면 영어, 중국어, 수출하는 나라에 맞게 언어별로 번역해 올리셔야 맞다고 봅니다.
5170	억지 논란으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안정성 및 생업이 달린 일들을 일방적으로 잘라버리는 등 노동법와 인권에 위배되는 일들을 당장 멈추십시오.

5171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가 만든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미완성된 게임 일러스트까지도 모두 뒤져 색출하려 는 넥슨의 행동을 규탄합니다 정작 사내의 페미니스트들은 차별하고, 결국엔 ‘일 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빌미로 퇴사시키거나 아니면 병가를 낼 때를 노려서 경력단절을 시키려 하는 게 작금의 넥슨이 숨기고 있는 속셈입니다 작품에 일베의 마크를 새기는 건 그 작품의 이미지를 좀먹는 행위인데 이 사건과 연결짓는 건 너무하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업계에 의해 핍박받는 대다수의 페미니스트 작가들을 돕고 싶습니다
5172	이러한 억지 논란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5173	게임업계의 뿌리깊은 여성혐오를 규탄합니다
5174	진정한 기업이 인류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5175	부당해고 및 사상검증 철폐
5176	그렇게 해봐라 어디한번
5177	정신나간 악성민원을 들어주며 노동권과 업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어떤 파도가 되어서 몰려올지 두고 봅시다. 세상은 멈추더라도 계속 나아가니까 부끄러운 일에 가담한 것을 꼭 후회하길 바랍니다.
5178	손가락에는 그리 크게 반응하시면서 왜 다른 혐오표현엔 반응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5179	일부 유저의 억지에 왜 어울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5180	나는 현재 애니메이션업계를가려고하는 고 3 이다 하지만 집게손모양을가지고 혐오몰이를 한 터무니없는주장을 들어준 넥슨과 기타게임업계들을보고 나는진심으로 이 업계에 발들이기가 무서워졌다 저 터무니없는 싸불의 대상이 내가 아닐거라는 보장이 어디있겠나 중소기업도아닌 하물며 대기업이 이러한 말도 안돼는선택을했다는것은 비판받아마땅하며 모든 여성유저들을 기만하는행위이다
5181	제발 특정 집단의 비이성적인 요구사항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현실의 게임문화를 이성적인 방향으로 끌고가시길 바랍니다.
5182	사상 검증 out
5183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5184	소수의 남성 여론에 휩싸여 선량한 유저들까지 피해주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도움되는 쪽은 선량한 유저들 아닙니까?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 하는 비효율적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별 것도 아닌 거에 반응하지 좀 마세요 별 것도 아닌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수록 소수 남성들은 현실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었던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해질 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유저라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며 혼란을 야기하는 소수 남성들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5185	더 이상 '사회적 물의'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여성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여성 유저가 정당하게 받아낸 보상을 회수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5186	넥슨 게임은 인터넷 세상이 자기 세상인줄 아는 디시인사이드 등의 남초 사이트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들어주지 말고 좃대 있게 사시길....
5187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받아주며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동참하는 것을 멈추세요. 노동자의 사상검증과 그로인한 부당해고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5188	정신차리세요
5189	게임 회사라는 것들이 하라는 개발은 안하고 별 같잖지도 않은 커뮤니티질이나 할 거면 적어도 들키지나 말아야 할텐데 그정도 수준도 큰 기대였나 봅니다^^
5190	2023 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성차별및 사상검증하는 게임사 넥슨을 규탄한다
5191	정신 좀 차리쇼
5192	페미니스트란 남녀는 평등하다는 뜻인 줄 압니다 게임회사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까? 성차별주의자라서 일부 성차별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옹호하십니까
5193	정신 좀 차리세요
5194	이러한 풍조가 다른 업계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195	17 년 전 나온 게임에서도, 국내의 상황 같은 건 아마 전혀 모를 외국인의 그림에서도, 하물며 천년 전 성상화에서도 수천 년 전 벽화에서도 나오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자연스러운 구도의 손 모양을 두고 허황된 음모론을 펼치는 악성 민원인들에게 단순히 굴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며 영세한 외주업체나 외주 계약자들,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악성 민원인들에게 공격 받도록 넙죽 바쳐버린 건 인간이 아닌 금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5196	혐오를 가장한 진짜 혐오를 누가 하고 있는지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말도 안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 사람의 직장과 인생을 박살내버린 당신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한심하고 역겹습니다.
5197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희생시키지마라
5198	소비자 기만이다 정신차려라
5199	창작자와 개발자의 표현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억압하는 비이성적 왜곡과 억지로부터 노동자와 하청을 보호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명료한 원칙에 입각한 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5200	더 이상 게임업계 및 다른 노동업장에서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5201	사상검증을 여전히 하고있는데 언제쯤 그만두고 정신 차릴건지요
5202	클로저스 성우 교체 논란부터 이어져온 페미니스트 마녀사냥에 종지부를 찍을 때 입니다.
5203	본인들의 안티페미 사상 그만드러내고 직원들 보호에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5204	2016 년과 달라진 바가 없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5205	돈은 여자들이 더 썼을텐데 정말 후회된다 내가 넥슨에 쓴 돈으로 세운 기둥 하나 쓰러져서 빨리 붕괴되길

5206	왜 자꾸 이상한 이견에 기업이 이입을해서 불공정 갑질을 하나요?
5207	정신좀 차려 잘해줬는데 좀 그만해
5208	어린아이의 생떼만도 못한 말에 휘둘리는 기업 클라스 잘 봤습니다.
5209	말도 안되는 논란을 수용한 넥슨은 반성하시길바랍니다
5210	더 이상 게임 문화인들의 수준을 악질 커뮤니티 정도로 떨어뜨리지 마라. 저들은 남성 유저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
5211	제대로 된 회사로 거듭나던가 죽던가 이런일로 회사이름 보는거 지긋지긋합니다
5212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5213	억지 논란을 제발 멈춰주세요
5214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215	말도 안되는 페미니즘 사냥 그만 하세요.
5216	엔젤릭버스터 홍보물 사과문 작성과 일요일에 진행된 라이브 등 넥슨의 행보는 게임 유저로서도, 게임을 떠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부 유저들이 꼬투리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파악하지도 않은채 머리 숙이기 급급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게임업계에 만연한 추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 오랫동안 당신들의 게임을 애정했기 때문에 배신감마저 듭니다. 당신들의 그런 안일한 대처가 하청업체와 게임을 재밌게 즐기던 대부분의 유저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217	솔직히 말하면 소추손가락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캡처본 대부분이 억까고 논리도 없고 근거도 빈약한 선동인데, 왜 그런 창조 논란에 힘을 대대적으로 해명하고 힘을 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게임 업계에는 상식이 없나요???
5218	불필요한 사상검증을 멈춰주세요. 제발 인게임 내 어거지 불만사항으로 현실을 살아가고있는 애니메이터들을 괴롭히지말아주세요.
5219	창피하지도 않냐
5220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인지 이제 좀 알아야한다
5221	게임계는 게임 밸런싱 등 게임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하길 바랍니다.
5222	바로 옆 nhn 에서 재직했었는데 상당히 부끄럽네요. 업계의 수치입니다.
5223	정신 차려라. 여성혐오 근절.
5224	이런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닐겁니다. 타 사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 행동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극히 일부가 속해있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논란에만 좌지우지되는 회사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시장과 투자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네요.
5225	되도 않는 혐오몰이 탑승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라....
5226	비윤리적인 사상검증과 성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과

5227	단 0.1 초만에 지나간 뜻 없는 동화를 가지고 억지 논란을 일으켜 페미니즘 혐오를 하고, 그것에 동조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는 게임업계의 행위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제발 알아줬으면 합니다
5228	게임업계는 도태되는 길만 남았다
5229	인셀남들 눈치보느라 게임 이미지 망치지 말고 어떤게 옳은 일인지를 보세요
5230	클로저스 때부터 알아봤음 잘가라
5231	특정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의견만 듣고 한 사람의 생계수단을 끊고 사이버불링에 노출시키는것이 정말 대기업 넥슨에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나요?
5232	억지 문의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시 오히려 사실이라고 인지합니다. 무시가 답입니다. 억지 의견의 수용을 멈춰주십시오
5233	제대로 중심을 잡고 회사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5234	상식적인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5235	어디서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없고, 맨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워들어서 가만히 있는 유저들을 피박하고 게임에서 몰아내는게 그게 진짜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그 어이없고 말도 안되고 제정신 아닌 이야기를 들어준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낸 결론인건가요? 눈뜨고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된 정당한 사건인지.
5236	그동안 온라인 게임상에서 여성 유저임을 밝히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더욱 눈치가 보일 거 같습니다 글로벌한 넥슨 IP 사업 확장을 바라시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피드백을 해주셨길 기대했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혐오가 멈추었나요? 그럼 그동안 비일비재 했던 여성 캐릭터, 여성 유저에 대한 혐오들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5237	별 같잖은 논란에 응하지마세요
5238	이대로 가면 국내 게임은 성장은커녕 망합니다
5239	문화콘텐츠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게임업계의 노동자 대우는 시대를 역행하여 퇴보하고 있음을 요 근래 실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문의 림버스 컴퍼니의 일러스트레이터의 부당 해고 건은 사상검증이라는 명목하에 악의적인 고발이 시발점이 되었으며, 회사는 산하 직원을 보호하기보다 일부 고객층의 근거 없는 공격을 수용하고 따름으로써 빈약한 체계와 모자란 법 규범의식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위의 사건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넥슨 씩이나 되는 대형 게임 회사에서 잘못된 선례를 고스란히 답습 하는 일입니다. 집게 손, 소위 남성의 성기가 작다고 비하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최소한 같은 조직 내에 있는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과 입김에 휘말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당장 이슈가 된 장면에 대해 사과하고 검수하는 대처를 약속한 것만으로 이미 넥슨은 집단의 중심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귀 기울이는 태도를 취하기까지 이견이 없었거나 묵살시켰다면 그거야말로 회사의 발전을 더불어 게임업계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먹는 행위라는 점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40	인셀들 먹이줘서 뭐하냐 결국 니들만 고통스러워지지

5241	여자도 게임한다
5242	머저리들한테 그만 굽신거리고 정신 좀 차리세요.
5243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244	넥슨 및 게임업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업체(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속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혐오에 사무친 목소리를 듣고 속히 가지치기를 해내는 것이 사익을 위함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일개 직원의 가치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물 위에 꺼내어 사측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신 건 당신들 본인이십니다.
5245	페미니즘이 남자혐오라니 공부나 하고 와라
5246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5247	개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억지 논리로 누군가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일을 멈추세요.
5248	게임업계는 정신차려라!
5249	당연스럽게 평생을 사용해오던 집게손을 악의적인 혐오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것을 수용해주고 사과를 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에 크나큰 실망을 느낍니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판단을 원합니다.
5250	일부 집단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지 마십시요. 그것이 진정 회사 및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니 한 소비자로서 어이가 없습니다.
5251	집게손이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여성을 또다른 방법으로 혐오하고 페미라는 낙인을 용인하는 사회를 규탄합니다.
5252	말도 안되는 억지를 자꾸만 받아주지 말길.. 자꾸만 들어주니까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5253	일부 집단의 이런 무분별한 억지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럼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254	쫌.
5255	애기도 아니고 남성들 우쭈쭈 해주지 마세요
5256	제 장래희망이 있는 곳이자 미래를 맡길 곳인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헛짓거리를 한다면 한국 게임업계는 곧 망할겁니다.
5257	페미니즘이라고 정확한 단어조차 회피하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강경대처하는 게임사를 규탄합니다.
5258	한 노동자의 개인 sns 를 사찰하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그것을 부끄럼없이 드러내는 사람이라 낙인찍으며 협박하는 넥슨.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향해 어떤 혐오의 메세지를 담고있다는 억지논란에 힘을 실어주며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넥슨. 당장 멈추십시오.
5259	우리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5260	본 사안과 비슷한 사건들이 십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이는 사상검증인데다 여성종사자에 한정된 괴롭힘입니다. 남성종사자가 해당 사안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5261	정신차리세요
5262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5263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5264	똑바로해라.
5265	자연스러운 손동작 하나로 페미니스트가 거론되고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들로 여성 유저들을 잘라내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5266	여성도 노동자고 여성도 게임유저입니다
5267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운영을 보여주십시오. 어느 한쪽에 편향된 모습만을 보이는거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5268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마녀사냥과 다를바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걸 게임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넥슨과 같은 기업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요. 두번 다시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5269	성별, 국적을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길 바란다는 김창섭 디렉터님 공식이 특정 커뮤니티의 눈치를 보며 [페미니즘 사상을 거르자는 사이트]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나요? 인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면서 그동안 피싸개, 퐁퐁섭, 리선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고확, 100 추글은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메이플 유저 모두가 알다시피 메이플 인벤은 예전부터 특정 성별, 특정 사상에 의해 굴러가고 있으며 오늘도 다름없이 '피싸개 냄새 거르는 유용 팁' 이라는 글이 30 추를 가는 곳입니다. 정말 이런 인셀 남초커뮤의 억지를 보고 공식사과를 내놓는다고요?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메이플에는 만연한데, 그들은 용인되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1 프레임 손가락 동작은 안된다는 거네요. 집단 피해망상증 있는 사이트지만 돈이 되고, 목소리만 크면 다 들어주세요? 라이브 켜고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방송 내내 어떤 혐오가 논란이 된건지, 어떤 사상에 반대하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이건 외신보도를 신경쓰신건가요? 성별을 넘어 모두가 즐기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창섭 디렉터 님 오늘 라이브로 진정 혐오는 없어야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 쪽의 편을 들 수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대처로 오히려 논란을 확대 재생시키고, 특정 사이트와 특정 성별 유저들의 의견에만 힘을 실어주는 인성과 판단력에 정말 실망했고요. BTS, 블랙핑크, 설빙, 인생네컷 콜라보로 넥슨 메이플 내부의 여성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롱하는 사상에 힘을 실어주시는 꼴이었다는 것.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270	게임업계 사상검열 규탄합니다
5271	자꾸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귀사는 노동자를 고용 할 수 없을것입니다.
5272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죠? 전에도 티셔츠사건으로 성우 자르고 인셀남들 우쭈쭈해주다가 이젠 노동법위반하고 성차별하고 별짓을 다하시네요 꼭 업보 청산하시고 다신 게임 안만드셨으면 좋겠어요

5273	악성민원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망상 속에나 존재하는 남성혐오를 핑계로 노동자를 부당해고하지 말라
5274	피해망상이세요
5275	여자를 지우고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는 존재하는가?
5276	어거지로 만들어낸 논란에 사과하고 담당자를 해고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처를 그만두었으면 함
5277	페미니즘 혐오몰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슨과 그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5278	페미니즘이 과연 죄인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하나의 사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도 다른 유저들과 동일한 유저입니다.
5279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과는 정확하게, 해야하는 상황과 대상을 가려서 하십쇼. 뭐 한국의 일부 집단이 게임업계 소비자 전부입니까. 처량하게 가라앉는 섬에서 나오세요.
5280	이 사태는 목소리가 클 뿐인 조그만 혐오집단이 털을 부풀려 몸집을 키워 크게 보여 주변을 장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논란의 발생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큰 기업일 수록 이와같은 일을 반복시켜서는 안되고 혐오집단에게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당장은 (실제로는 작지만)커다래 보이는 유저를 진정시키고 사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있으며 더 많은 민심을 안보이는 곳에서 잃어버리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 중일겁니다. 넥슨은 이같은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반성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합니다.
5281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을 개인과 기업 등에게 외주를 맡기면서도 해당 직업과 작업에 대한 몰이해와 '페미'라고 부르며 페미니즘을 비롯한 페미니스트가 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도 없이 오직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유저인지 확실하지 않은 '인셀'들이 편협한 시선으로 만들어 낸 억지 논란을 마치 진실인 것 처럼 동조하고, 행패에 굴복하여 개인의 사상(심지어 업무에 개인의 사상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인셀 측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어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들을 중단하라. 최근 논란된 넥슨 사의 PV 애니메이션를 제작한 직원은 업무배제도 모자라 퇴사를 하게되었고, 퇴사 사유역시 SNS 에 페미니즘에 긍정적인 게시글을 올렸기때문인 것으로 외주업체가 올린 11 월 27 일 입장문으로 밝혀졌다. 또, 11 월 26 일 일요일에 외주업체의 1 차 입장문이 게시되는 한편,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과거에 SNS 에 올린 게시글을 트집잡아,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문을 SNS 에 게시해야했다. 이는 노동권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게임업계가 말하는 혐오에 맞서며, 평화를 추구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맞는지 게임업계에 묻고 싶다.
5282	넥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옳게 행동하라.억지주장을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비굴한 행태를 자성하라
5283	넥슨 임원진 교체해야함 직원들 정신차려라
5284	정신좀 차려주세요
5285	넥슨 망하세요 그냥

5286	먹금하면 되는 사안들을 일부 극단적인 남성 커뮤니티의 말도 안되는 악의적아 주장을 받아드린다뇨 일러도 아니고 애니메이팅에 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만한 분들이 그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받아드렸다는 점에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검지와 엄지가 사용되는 손동작 애니메이팅을 하면 극단적인 남성 커뮤니티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것인데 당신들은 한국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에 큰 피해를 준것입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값이 아깝네요
5287	작작하고 정신차려라
5288	넥슨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5289	헛짓거리 그만하소
5290	뿌리는 응대해주지 말고 먹금했어야했다. 성인이 된 남자들의 불만을 언제까지 받아줄것인가!! 뭐가 미안하다고 직원들의 일터를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드나. 대표는 법무법인에 연락할 방법은 아예 생각도 못한것인가? 답답하다. 한남 몇몇 때문에 여러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 받은 남자들은 페미탓을 하고 있다. 경제는 이념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이념을 가지고 일하면 결국에는 망한다. 정치할때나 이념 생각하길 바란다.
5291	국내 게임업계의 큰 축을 짊어진 기업으로서 일부 이용자들의 근거없는 억지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5292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그만 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별을 따지기 전 그저 평범한 유저, 소비자로서 대해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5293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라.
5294	억지 논란에 휘둘릴 시간에 귀사 게임의 문제를 돌아보고 개선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5295	멍청한 짓들을 멈춰라
5296	애초에 페미니즘이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사상이 아니고, 여성 인권신장과 그에 따른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집게 손가락'이라는 동작이 남성 혐오라며 집단적 착각으로 죄없는 직원을 자르고, 프로젝트 참여를 불발시키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문사의 노동자 부당 해고, 사상혐오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초'에서는 이미 이러한 페미니즘 혐오몰이는 놀이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이라는 큰 게임회사에서 이러한 남초의 집단적 착각으로 인한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더이상 넥슨이라는 회사에 믿음이 가지 않고, 넥슨 게임을 주로 즐겼던 여성 유저로써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제재 또한 남성과 여성 게이머 중 남성 게이머만 챙기겠다고 하는 넥슨의 행보가 또 다시 '여성혐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297	일부 유저의 마음을 잡겠다고 나라망신 시키지 마라
5298	성별 차별 철폐

5299	그 빠른 영상을 아주 느리게 배속하며 1 프레임 단위로 쪼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손 모양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들이 말하는 "메갈리아의 상징인 손모양"은 왼손의 3~5 번째 손가락을 모두 접고, 엄지와 검지로 U 자 모양을 만든 형태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연스러운 손동작조차 메갈리아의 상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에만 급급하고요. 풀 영상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빠른 영상에서 그 한 장면을 찾는다고..? 시간이 남아돈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는 태도가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마녀사냥에 불과합니다. 말같지도 않은 논란은 회사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 림버스 컴퍼니 사태 이후 버릇을 잘못 들여놨습니다. 또한 메갈리아는 저들이 말하는 "일베"처럼 로고를 작업물 등에 이스터에그마냥 넣어두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일베는 그렇게 하면 칭찬이라도 해줬지만, 여긴 그런다고 칭찬해줄 이유도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여자고, 그 손모양 같아보이는 것이 작업물에 있다는 이유로 sns 까지 염탐하고 과거의 삭제된 글을 되살리기까지 하며 이잡듯이 잡으면 어느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면 구글과 유튜브도 페미입니까?(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불매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계속될수록 노동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개개인의 의견 표출에 힘을 잃을 것입니다.
5300	넥슨 사내에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릇된 사상/관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블라인드 좀 확인해 보시길) 오히려 그것이 넥슨의 이미지를 더 실추시킨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5301	게임은 모두가 즐기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문화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 이루어지고 있는, 넥슨을 필두로 한 한국의 게임업계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인셀들이 팬의 거죽을 뒤집어쓰고 '분탕질'을 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를 지우고 업계 노동자의 사상검증까지 불사하는 광경을 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인셀 뿐일 것입니다. LoL 월드 챔피언십 동시 접속자 수 1 억 명의 시대에 소수의 혐오자들이 하는 발언을 과대표하며, 그들만이 한국의 게이머라고 광고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업계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게임 제작자와 게이머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도 게임을 만들고, 향유하고, 즐기고, 당당하게 자신이 게임 팬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부심을 더 이상 꺾지 마십시오. 우리는 게임을 사랑하고,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막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게임업계가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남성혐오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소비자들만을 팬층이라고 우대하며 다른 게이머를 지우지 마십시오. 반사회적 혐오와 배제에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십시오. 한국의 게임업계가 팬덤을 잃고, 자정작용을 잃어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한 채 썩다 꺾여버리는 미래를 방지해주십시오. 게임 문화가 혐오의 온상이 아니라 모두가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문화로 꽃피게 해주십시오.

5302	오늘 20 시 21 분 스튜디오 뿌리는 넥슨의 외주를 받아 수행한 작업물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을 페미니즘 지지자임을 이유로 해고했음을 진정하며 불쾌했을 분들에게 “사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백한 사상 검증이 있었습니다. 넥슨과 게임 업계는 사과해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류를 읽지 못하는 업계라면 도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5303	내 과금으로 유리창 달고 쪽팔린 짓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5304	게임의 대중화가 아닌 자신들만의 세계에 고립되려는 자충수, 그들끼리 사랑하고 세계밖에 나오지 말길
5305	사상검증이 해고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유저에게 법적대응하십시오.
5306	남초의 억지 때쓰기 징징글 다 들어주고 여성 유저들은 버리고 장사하는게 넥슨의 입장인건가?
5307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는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없다. 혐오에 찌들어진 눈을 씻어내라
5308	게임업계와 인셀남자들은 집게손가락가지고 말도안되는 혐오프레임 씌우지말고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5309	사상검증 멈춰
5310	선례를 못 보셨나보네요
5311	여성 종사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법적으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5312	되도 않는 억지에 못이긴척 사람 차별하지 마라
5313	부디 혐오자들의 음모론에 굴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5314	말도 안 되는 억지논란에 굴복한 넥슨 및 게임업계 규탄합니다.
5315	억지로 끼워 맞춘 의미로 말도 안 되는 성차별 부당해고는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됩니다. 피해자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5316	목소리 크다고 멍청한 소리를 들어주면 앞으로 어떡하실 생각입니까
5317	여성혐오적인 억지를 하나둘 들어주다가 자승자박이 될거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당장의 이슈보다도 전체 업계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5318	지겹다이제 인셀남들한테 먹이 그만주자
5319	페미니즘은 정치색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유저의 기분 나쁨은 기업의 영업손실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5320	페미니즘은 여자도 인간이란 주장이다. 억지논란을 멈춰라
5321	도태남들 의견듣지마시고 게임버그나 잘고치시길바랍니다
5322	처신 잘해

5323	여성 직원, 여성 유저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창조 논란이었던 손가락 논란에 휘말려서 1 프레임, 1 도트도 의심하는 그 모습은 가히 파시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작업물도 의심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남자들이 몰래 저런 시그널을 숨겨놓기 때문에 여자도 그러리라고 단정짓고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멸했습니다. 페미니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를 생각하는게 페미니즘입니다. 넥슨은 전연령가 게임-예를 들면 마리오-같은 것을 노리지 않았던가요? 페미니즘은 나치다!! 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마녀사냥 하는 것이 더더욱 나치가 유대인을 몰아 죽이던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이들과 여성이 돌아다니는 넥슨 랜드는 어떻게 만드실 생각입니까? 지금 일부 남성 유저들은 '이삭토스트', '인생네컷', '설빙' 과 메이플스토리가 콜라보했다고 '페미 게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실상 그들이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남초 커뮤니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서요. 억지 논란에 굴복하는 모습이 마치 나치에 굴복하는 일반 사람 같네요. 어쩌면 사상적으로도 '여혐 나치'에 동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혐 나치가 만들어낸 창조 논란으로 집게 손가락 가지고 OO 할 때, 나는 침묵했다. 몰?루? 어쨌건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 혜지야 수진아 쿵쾅이들아 니네가 잘못한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이 여자 직원들 전체를 꼬투리 잡았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가 임신하래? 아, 근데 내 아내는 맞벌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과 딸의 직장을 없앴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회사도 여자는 안 뽑는다니까?)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난 그렇게 될 일 없다니까? 왜냐면 내가 그들이다. 그들의 일부분이다.
5324	21 세기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5325	게임이 문화가 되는 세상을 원하기 이전에 현재 게임 커뮤니티나 운영진들의 유저 대우 등이 문화가 될 수 있는 수준인지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비속어, 비하발언, 위협 등은 무시하거나 느린 대처를 하다가도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억지에는 빛같이 반응하시는 모습이 정말 문화가 될 수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휘두르는 것으로 비대해진 자아와 한없이 초라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만족시키려는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휘둘리기만 한다면 이는 더이상 문화가 아닌 혐오양성집단일 뿐입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접하며 울고 웃었던, 게임을 즐기며 사랑했던 유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5326	말도 안되는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신경쓰지말고 게임 제작에 힘 쓰길바랍니다.
5327	말도 안되는 억지에 부당한 책임을 아랫쪽으로 돌리며 꼬리 자르기 식에 일처리 정말 해외에서도 비웃게 만들었으며 수준 낮다는 평을 귀 기울여 들어보길 바란다 게임관련 문제에는 늦장 부리며 일처리를 하면서 이 말도 안되는 논란도 아닌 논란에는 12 시에도 피드백이 올라 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오히려 게임업계는 여자 캐릭터 의상이 더 큰 문제다 여캐는 어린아이 얼굴을 하고 다 벗겨 놓으니 해외유저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문제라 인식한다 무엇이 게임업계에 이미지 개선에 도움되는지 정상적이면 말 안해도 된다 이 논란은 남자들이 일으킨것이며 피해는 하청업체나 여성이 받았다 대놓고 차별을 당당하게 하는 게임업계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5328	노동자의 사상검증과 탄압을 하면서까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억지논리 악성민원에 동조해서 당최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 앞의 불만 덮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세요.
5329	왜 다들 성차별주의자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스트를 혐오한다고 광고하실 의향이 있는지도요^^ 외국에서도 관심을 참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만.. 페미니스트 여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그저 비연애&비혼으로 표현할 뿐이지 한심한 일베들처럼 손모양 만들어서 퍼뜨릴 생각 안해요 ㅎㅎ제발 망상을 멈춰주세요! 한국게임에서의 여자 캐릭터야 말로 여성혐오 정점에 있는데.. 여자는 성적대상화해도 쉽게 용인되고 남자는 고작 손가락 하나로 부들거리는 이 상황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5330	정신차리소
5331	성차별적인 기업의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5332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 모범을 보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사상검증의 철폐에 앞장서도 모자랄 이 시국에, 오히려 악질 소비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부당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5333	정신 차리세요
5334	야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일부 커뮤니티가 헌법 위에 있는 것만 같으신지요..

5335	유독 무슨일이 커뮤판에서 커지면 국내회사는 반응을 너무 크게한다. 단순히 일정커뮤에서 착각한 것에 일일히 반응해줄수록 대한민국에 억지로 부여된 혐오적 손가락이 더 의미만 가지게 될것이라 생각됨. 혐오적 의미가 더 사용되지않고 없어지기 위해선 기업이 더더욱 의미에 부여하지않고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5336	툭하면 성평등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반사회성, 같은 사안도 여성 창작자들만 괴롭히는 성차별적 정서, 노동자 개인의 신념과 사적인 생각, 생활을 빌미로 사상검증을 하고 일자리를 뺏는 반노동적인 악질적 행태를 반성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시오.
5337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5338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혐오몰이에 휘둘리지 말아 주세요 넥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를 넘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5339	정신차리세요
5340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가?
5341	여성인 저도 이제는 게임사가 직접 주관하는 혐오와 마주치지 않고 편하게 게임하고 싶습니다.
5342	멍청해가지고 피해망상남들 말을 들어주고 앉았네.. 메플 18 년차 유저 접습니다^^ㅗ
5343	저런 어이 없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의견과 그 의견을 수용하면서 사상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임업계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344	악성유저들의 어린애같은 때쓰기 언제까지 들어줄건가요? 그들이 원하는건 재미일뿐입니다 단한번도 회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들이 기분나쁘다고,심심하니까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사람생계를 위협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들어주실겁니까? 그들은 한번들어주면 계속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무언가를 요구할것입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회사에 처들어가서 위협을 하겠지요 그저 게임과 관련이 없는것이라며 무시하는게 그렇게어려웠습니까? 전세계에서 이상하리만큼 고작 손모양에 집착하는건 그 악성유저들 뿐일겁니다 제발 상식적인 선택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마녀사냥에 누군가가 생계를 위협당해야 합니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5345	페미니즘은 정치사상도 아니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겁니다. 페미니즘을 한다고 거리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했나요 아니면 화염병을 던지고 남자들이라고 위협하고 죽이기라도 했나요? 손가락으로 말도 안되는 논란 일으키며 페미사상이라며 해고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5346	인셀남들 징징거림 언제까지 받아주실겁니까?
5347	억지 논란으로 노동자를 부당 해고 하는 화살의 방향이 당신에게 가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5348	돈 안 쓰는 2030 인셀남들과 영원히 사랑하며 추락하세요
5349	당장의 매출을 방어하고자 하는 게임회사들의 극단적인 대응이 사회 전체를 곪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그들이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결국 이 사회의 구성원인 게임회사 직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써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외신에 자꾸 제보해서 앞으로 해외투자 절대 못하게 하기 전에....

5350	사상검증과 꼬리자르기로 게임 시스템의 부족을 해결하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5351	억지를 계속 들어주다간 별거 아닌 일에도 고개를 숙이게 될겁니다
5352	게임 속 아이템 확률에 지랄할때는 입 닫더니 꼴랑 프레임에 있는 지나가는 손가락 모양으로 지랄을 하는건 받아주는거 보니 확률쪽은 지들 밥줄이랑 관련 있고 이번 건은 남의 밥줄이라 그러는거겠지? 니들 밥줄도 위협받아라 제발
5353	조속히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5354	넥슨 여혐 그만해 제발
5355	사상검증은 위헌입니다!!!
5356	여성 유저도 유저다
5357	투명남혐으로 여자 누르기 공고히 해주는 한국 남자들을 위한 게임 이제 안 합니다.
5358	진짜 그거밖에 안되나 두려움
5359	한국 게임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이유는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5360	과거 클로저스 사태 등에서 한치도 성장하지 않은 게임사 넥슨의 지속적인 행보는 백인혐오, 정상인혐오가 성립하지 않듯이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으로서 여성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것을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게임 수익의 일부를 여성단체에 기부 및 회사 차원에서 기본적 페미니즘 사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 바랍니다.
5361	악성민원에 불과한 말도 안되는 여론몰이에 게임업계가 더 이상 응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362	넥슨은 정신차리고 사상검증 노동자 탄압을 멈춰라
5363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많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유를 기반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5364	스토리에서는 평등과 평화를 말하고, 현실에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을 짓누르는 짓을 멈추세요
5365	여성 소비자들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일부 유저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혐오를 끝없이 재생산하며 고이고 고이다 끝내 썩어버릴 겁니다.
5366	한국 시장만 보고 살래? 여자는 평생 게이머 아니고? 그 안에 갇혀사니 맨날 똑같은 게임만 만들지.

5367	2016 년부터 시작된 사상검증이 2023 년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점, 사상검증의 대상이 전부 여성들이라는 점, 그에 대한 부당해고가 오로지 여성의 몫이고 이에 대한 시발점이 남성유저라는 점,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오냐오냐 들어주는 기업들의 행패가 앞으로도 잠잠하게 넘어가면서 반복된 점. 그로인해 상처를 받고 떠난 여성 유저들은 물론이거니와 생계를 위협받은 작가분들에 대한 사죄는 말로 부족합니다. 생계만으로도 큰일이지만 그렇게 취직하시기까지 쌓아왔던 노력과 시간, 열정을 한 순간에 부정하게 만들며 실제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작가님 또한 계시며 평생의 진로로 삼을 것을 포기하며 업계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소비자들 물론 작품에 애정을 쏟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공식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들면 썩 꺼지라는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뽑아줘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소비와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고 기고만장 하는 꼴을 보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닌 모든 소비자들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 뿐만이 아닌 앞으로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과 피해적 보상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5368	가족 친화적인 게임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게임이 되고 싶었다고 했죠. 그러나 여성 유저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게임에서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인 모독과 관련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사상이 담긴 발언들을 목격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으면서 겨우 영상에 1 초도 되지 않게 나온 손가락으로 특정 사상을 가졌다고 몰아가고 사람을 해고하며 사과하는 게 맞습니까? 가족 친화적인 게임이 되겠다고 했으면서 한쪽 성별은 모두 몰아내는 게 게임사에서 원하는 진정한 가족 친화적인 게임이 맞습니까?
5369	넥슨과 한국의 게임 업계는 더 이상 일부 남자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
5370	한심합니다
5371	너희가 제정신이냐
5372	사상검증을 통한 부당해고를 규탄합니다.
5373	글로벌 자산을 얻고 싶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시선을 고치고 폭넓은 피드백을 수렴하십시오.
5374	비상식적인 페미니즘 혐오를 중단하고 웹 노동자를 보호하라!
5375	차별을 멈추세요
5376	도태 인셀들의 억지부리기에 동조하지말고 여자들이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들 생각은 없을까요? 그게 시장을 넓히는 회사를 위한 더 좋은 미래 먹거리 찾기 아닐까요?
5377	제발 정신좀 차리고 인셀말좀 듣지마라
5378	집게손가락이 왜 혐오 표현이고 페미니즘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고싶다 이전의 여성혐오, 범죄는(판치라, 바스트모핑, 미성년자 캐릭터의 노출, 남성유저들의 여캐 속옷 캡쳐, 강간 그림, 따먹고 싶다, 걸레년이라는 등 성희롱 게시글, 알몸이나 속옷으로 보이게하는 염색 , 여성유저를 괴롭히는 고백, 온라인 스토커 행위, 여성유저 성희롱, 만나서 성폭행) 그대로 두면서 집게손가락이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사과문을 올리는지 궁금하다 남성혐오라고 생각하면 여성혐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냅두는 건지 아니면 여성유저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알고 싶다

5379	노동자가 부당한 사유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5380	페미니즘은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것입니다. 여성혐오를 멈추세요.
5381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에 같이 응해주면서 강화시키는 행동 자체가 여성혐오를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인지하십쇼 제대로 사과해야할 대상이 어디인지 생각하고 사과문 올리세요. 성차별주의자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5382	넥슨은 혐오에 대한 기준치를 제대로 세워라 억지 논리에 밥 맥여주지 말고
5383	이대남 게이머 중 한 명으로써 커뮤도 꽤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분석하면 정리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을 넘었습니다. 세계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취향의 게임을 꾸준히 만들어서, 이러한 착각에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는 기반을 다져나가 주십시오. P 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게임업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5384	자업자득 자가당착 영원히 이 한국에서 서비스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아예 망해주면 더 고맙겠고요
5385	에니메이션의 동작 하나하나에 왜 그렇게 다 대답해주고 있으며 여성들을 억압하는데 압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386	말도안되는 논란으로 여성혐오, 차별 멈추시길 바랍니다.
5387	정신차려라 남성 유저만 있는게 아니다.
5388	인터넷속의 악성 네티즌의 말만 믿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악성인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사 직원도 보호 안하는 블랙기업짓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5389	떼쓴다고 다 들어줄거였으면 게임에서 핵 쓰는 건 그동안 왜 손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5390	참담합니다
5391	페미니즘에 대한 쉐도우복싱 혐오를 멈춰주세요
5392	넥슨 정신차리세요
5393	집게손 억지 논란을 멈춰주세요

5394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되어 게임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유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애초에 자유로운 손동작에 억지 주장을 붙힌 일부 사람들의 몰상식함에 굉장한 어이없음을 보내며 현실에서는 만나고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보냅니다. 넥슨 코리아는 한국 게임 업계의 최선두주자라고 생각되오며, 앞으로의 한국 게임 업계를 이끌어나갈 주요 게임사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상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앞으로 있을 인디게임사에도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사의 건승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5395	부당한 사상검증에 적극 반대합니다.
5396	이런일 피곤하기만하고 들여다보고싶지도않은 사람인데 손가락가지고 사람직장을 들었다놨다한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참여함
5397	이런 비정상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행위에 대해 규탄합니다.
5398	게임계 미래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이번 기회로 노동자 탄압과 성차별을 중단 및 반성하고 제대로 된 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5399	억지스러운 0.1 초의 순간포착 모션으로 마녀사냥, 여성 밥줄끊기에 동의한 넥슨에 실망하였습니다. 넥슨 게임인 블루아카의 공식 남성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동 포르노를 참고하여 그린 그림을 자신의 sns 에 당당하게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린 여자아이를 왜곡된 성적 욕망을 담아 그린 게시물 자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어째서 일을 지속하고 아무런 피해도 받지않는거죠?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가 방송에서 "게임을 유린하게 두지 않겠다.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나요? 넥슨이 늘 여론검토에 참고하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게시글이 가득한데 이건 포함되는게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5400	그런 작은 의견까지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대기업의 면모를 이제 좀 보고싶습니다
5401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넥슨은 노동자로서 일할 가치가 없는 기업입니다. 얼토당토 없는 사상검증을 들이밀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 살아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5402	넥슨은 게임업계 선두주자로써 사회적 모범을 보이십시오
5403	정신 좀 차리세요
5404	개인의 생계가 단순히 한 집단의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405	군필 직장인인데요 기껏해야 급식학식 먹는 애들 모아놓고 혐오 팔아서 트래픽 장사하는 커뮤니티 말에 놀아나는게 본인들도 그 일원이어서가 아니면 그만 하길 바랍니다. 남자인거 수치스럽습니다.
5406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움직일 때 한 발짝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도 부당함을 안다면 다물지 말고 목소리 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5407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대표되는 기업 넥슨이 일부 유저들의 편향적으로 짜깁기한 게시물만 보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 넘는 폭력적인 사상검증은 결국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들이 부추긴 것입니다.

5408	헛소리에 귀기울여주지 말았어야 했다.
5409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와 말도 안되는 억지는 가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410	정신차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집게손모양의 의미를.
5411	여자는 당신들의 고객이 아닌가요? 당신들의 고객은 남성 뿐인가요? 그래서 남초에서 피해망상으로 만들어낸 손동작을 페미니즘으로 규정하고 페미니즘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그게 당신들의 정의이고 소신인가요?
5412	억지부리는거에 일일히 다 대꾸해주면 망합니다
5413	매출에 눈이 멀어 말도 안되는 억지 의견을 수용하고 직원 보호는 커녕 내부압박으로 직원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등, 이것이 한국 게임업계를 이끄는 선배들이 할 짓이 맞나 싶습니다. 늘 글로벌로 나아가려 하지만 아직 마인드가 글로벌이 아닌데 어찌 게임업계를 이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직원이 어떤 사상을 가졌든 반사회적 범죄행동을 저지른게 아닌 이상 회사가 참견할 권리 따윈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수립한 노동권을 침해하고 일부 극단적 유저들의 현대판 마녀사냥에 동조하여 한 노동자의 인생을 망치려 한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5414	게임 업계가 더 이상 해당 사건과 같은 근거 없는 논란을 생성하여 특정 인물을 마녀사냥하는 일이 없게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5415	억지논란 들어주지 말고 성차별적인 행위를 멈춰라.
5416	멍청하고 저급한 사회가 되는걸 넥슨이 돕고있다
5417	집단 목소리는 그럴때 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부끄러운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5418	세상을 이끌지는 못해도 끌어내리지는 마세요
5419	게임과 관련없는 무질서한 논란에 무고한 노동자를 죽이는것을 그만해주십시오
5420	평생 본인 머리로는 생각 안 하고 게임 운영 서비스 하실건가요.
5421	클로저스를 시작으로 게임업계 페미 검열이 본격화됐었죠 아마? 니들이 쏘아올린 큰 공입니다 넥슨놈들아 업보 달게 받으시고 정신머리 좀 뜯어고치세요 제발....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왜 내 남친은 느그들한테 동의를 못 할까? ^^ 정신머리 고쳐써라 제발 좀!!!!!!!!!!!!!!!!!!!
5422	되도 않는 억지 논란 수용말고, 게임 퀄리티나 높이시길......
5423	이게 정녕 21 세기에 논란이 되고 일어날만한 사건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5424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면 자신이 성차별주의자라는 걸 자랑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5425	게임업계는 2016 년부터 자행해온 사상검증을 멈춰라 성폭행에 반대 시위를 공유했다고 일러스트가 내려지는 국가가 어딨냐 게임업계는 사상검증을 멈추고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와 한 나라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게 사과해라
5426	본인들도 아실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인 대응이었는지. 왜 그런 대응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1 순위 고객 놓치면 우리 돈 못번다 직원들 생계 어쩌구 그래서 직원을 해고시킬 수 밖에 없었다 먹먹한척 억울하다는듯한 반박하실거면...솔직히 안쪽팔리신지 궁금합니다.

5427	페미니즘은 개인이나 소수의 주장에 국한된 사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페미니즘의 정의부터 제대로 정립하세요.
5428	이번 일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의 결과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5429	소중한 추억을 이렇게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는 것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종교, 정치, 사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를 이끌겠다고 하였으나 특정 단체들을 옹호하고 편을 들어 다른 특정 단체를 혐오하는데 동조하고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발언이 제게는 어디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함께하는 문화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그저 지나가듯 스친 손모양. 그것이 남혐이고 사상검증이 필요한 행위라면 이 세상에 검지와 엄지를 가까이 붙이는 손모양을 한번도 한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신 기획자 분도 동일한 손모양을 한 적이 있을겁니다. 저도 "조금" 혹은 "작게"를 표현할 때 손동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모양이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해당 손동작을 할 때마다 남자의 성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5430	여성차별하는 기업 법의 철퇴맞기를
5431	더이상 되도않는 억지사상에 감화되어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받는 마녀사냥식 사이버 집단린치범죄 종용을 멈췄음 좋겠다.
5432	회사 뿐 아니라 사원들에게도 노동과 인권이 뭔지 제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5433	혐오를 조장하는 억지를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5434	고객으로 좀 봐주세요. 아니면 게임 런칭때마다 손가락 검열한다고 적어주세요. 돈 안 쓰게요.
5435	이상한 트집은 그냥 무시했으면 합니다. 그저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줘서 뭐 합니까? 굉장히 실망했고요, 다시는 넥슨 게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5436	넥슨 걍 망해라
5437	어떤 사상을 갖건, 누구를 지지하던, 어떤 커뮤니티를 하던 간에 그것이 누군가의 밥줄을 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업은 기업으로써 하청업체와 노동자를 지켜야합니다. 일부 말도 안되는 망상과 의견들로 직원을 해지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5438	개인이 가진 사상으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상도 아닌 페미니즘으로 이런 사태가 났다니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화가 나네요. 여성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개인 sns 개정으로 개인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입니까?

5439	손가락 모양 하나 가지고 발작하다가 사상검증에 들어가며 개인 SNS 에서 '페미니즘' 관련 발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 더 나아가 직원을 퇴사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23 년에 벌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인셀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빌미 삼아 주는 기업의 행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특정 성별을 차별하고, 이제는 이를 갈며 입을 막아버리는 그 행위. 대체 누가 혐오를 조장하고, 누가 차별을 하는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자멸의 길을 걸으세요.
5440	페미니즘 탄압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5441	현재 넥슨을 포함한 게임사의 모든 대응이 유감스럽습니다. 인터넷 상 일부 혐오집단의 억지논리때문에 누군가의 평범한 작품이 배제되고 도려내어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믿고 게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믿고 당사의 게임을 즐기겠습니까?
5442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5443	사상으로 사람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5444	근거없는 억지혐오에 동조하는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5445	일베로 뇌를 지배하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게 어이없네요. 음습한 사람들
5446	내가 한국게임을 했던 게 부끄럽다.
5447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며 애니메이팅 동작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속성 프레임 0.01 초까지 뜯어 한 사람의 직장을 잃게하는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법이 뭐하러 있고 상식이 왜 있는 걸까요. 심지어 페미니즘은 그 어떠한 범죄행위도 아니며 해당 작업자가 피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여성과 하청이 만만해서 갑질하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21 세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들 갑질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5448	페미니스와 페미니즘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계적으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5449	그남들의 억지 논란에 손 들어주지마라. 그놈이 그놈이라 그런거냐?
5450	업계 여성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과 마녀사냥을 멈추십시오. 이는 노동자에게 부여된 노동권에 대한 저해행위입니다. 부끄러워서 외국어로 작성도 못 할 공지는 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아닌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GM 혹은 운영직원이 공식입장을 작성하거나 동조하지 마세요. 기본과 상식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451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혐오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5452	기업체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이번 사태에 대한 편향적이며 혐오적 대응방식이 맞다고 보나요?
5453	여러분이 게임이 문화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당장 이 마녀사냥을 그만 두시길 바란다.
5454	억지 창조논란에 맞장구 쳐주는게 옳은 일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5455	실제로 어떤 잘못이나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커뮤니티의 악성민원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회사가 피고용인을 책임지지 않고 그의 생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5456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때려치우시길 바랍니다
5457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안이다

5458	개인은 혐오를 스포츠로 여기고 혐오를 이용하여 타인의 일자리와 회사를 망가트리며, 회사는 갑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사람과 을을 위협하는 현 사태를 규탄합니다.
5459	더욱 건강한 게임업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건강한 피드백과 소모성만 짙은 피드백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어도 되는 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목소리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5460	사상 검증 규탄합니다.
5461	꼬옥~ 해외에서도 페미니즘 지지안한다고 선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462	수년 전 첫 사상검증의 시작을 알린 만큼 넥슨이 모두 책임지길 바랍니다.
5463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 피드백 해봤자 돌아오는 건 양측 모두의 비웃음 뿐입니다.
5464	말도 안되는 트집잡는 집단이 무서워서 영상도 내리고 직원 부당해고까지 하는 것에 대해 더욱 분노가 듭니다 집게손이 문제라면 유튜브도 구글도 연예인들 모두 없애고 사람의 엄지와 검지 자체를 잘라야 해결되는 것일텐데요. 억지 부리는 것을 받아주는 꼴이나 결국 과대망상하는 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잃게 만든 사람들의 대처나 말이 안되는 일이기 짝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했음에도 자신들의 말을 바로 들어준다는 것에 기고만장해져서 되려 더 화를 내고 말도 안되는 것들을 요구중인 집단들을 객관적인 사고로 넘길 것은 넘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네요 부당해고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신념을 응원하는 게임회사의 상황도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페미게임이라느니 하면서 부당해고로 잘라도 그 게임 하지말라느니 쓸데없는 분노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나아졌을까요. 그동안 분노했던 다른 문제들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의도하지도 않은 집게손 따위로 무서워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아온 결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5465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정치사상이었나요 ? 여성평등을 외치는 행동을 어느샌가 남혐이라치부하고 무시하는 세상속이 정말 현실이 맞는지 의문이듭니다
5466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파트너에게도 페미니즘 때문에 작업물을 내렸고, 남성 유저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5467	더이상 부당한 여성을 향한 일방적인 사상검증과 마녀사냥에 힘없는 개인이 피해를 입지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보호와 법적 안전망 마련을 희망합니다.
5468	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할 것
5469	여성혐오적 상황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시키고 여성들의 노동을 위협하는 게임회사의 상황을 규탄한다.
5470	양성평등과 인권, 노동권에 대한 기본 개념 교육부터 다시 받으세요. 공부 좀 합시다.
5471	혐오몰이 그만해라.
5472	얼토당토 않은 억지를 사실로 받아 들이고 여성인권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라
5473	이일을 빌미로 여성을 취업하는데 불합리하게 차별하지마라
5474	나의 착각은 타인의 탓이 아니다.
5475	별말같지도 않은 걸 들어주고 앉았구만

5476	혐오를 멈춰주세요
5477	게임업계는 "진상" 손님들의 입장을 받아 주먹구구식 운영을 철회하고 게임업계에 나아갈 새싹들을 생각하여 올바른 게임업계를 만들어 달라 더이상의 여성 혐오를 멈추고 성평등(페미니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
5478	한국게임 망해라^^
5479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열린 시야와 사고를 가져도 모자랄 판에....넥슨 및 게임업계 전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그만두십시오. 노동자의 인권을 악성민원따위에 팔아넘기지 말고, 악성 민원에 동조하는 멍청한 짓을 그만두십시오.
5480	지금처럼 그 집단의 편협한 비위 맞출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간판걸고 오픈해주면 좋겠습니다.
5481	혐오를 멈춰라
5482	이런 일로 서명을 남기게 될 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5483	말도 안되는 억지를 받아주느라 사상검증을 해가며 하루아침에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5484	정신 차리고 갱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자리에서 도태되길 기원합니다
5485	혐오가 노동법보다 우선인가요? 페미니즘이 무슨 정치 성향인지.... 수준떨어져요 설령 정치 성향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지 그걸 마음대로 회사다 규제할 권리가 있나요? 일부 남성들의 억지 논란 들어주는거 때문에 그남성들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당당히 나대네요. 온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국만 퇴보하다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슬픕니다
5486	무지성의 혐오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5487	뭔 OO 들이 여성직원 배제하라고 생떼부릴때 너무 기꺼워하는 모습 다 티나서 역겹습니다. 게임업계 사람들이나 게임한다는 남자들이 다 이런가요? 으…
5488	억지논란 지겹다 넥슨아
5489	자국남자들 눈치보면서 저런 일에 자들자들하는 우리나라 게임업계면 그냥 망해버리는게 여러모로 나을것 같네요..
5490	넥슨은 법대로 절차 처리를 하시면 되고, 해당 영상을 만든 회사는 법대로 당한걸 해당 당사자에게 돌릴지말지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지. 게임업계는 크게 잘못이 없으니 당당하게 하고, 게임업계 내에도 정상적인 평등을 지지하는 업체도 많이있고 한데,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선동몰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5491	제발 정신차리고 안그래도 힘든 게임 업계에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게임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면 직무에 관한 이해도도 있을텐데 기분만으로, 이상한 사상에 동조해서 개인 사상을 검열하고, 그 사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행하고 있으니 게임 오타쿠들만이 아닌 일반 사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세요. 동화 프레임마다 검열하고 앉아있는데 원화와 원화사이 매끄러운 동작을 쿠션으로 넣는 동화 작화를 프레임마다 따져 보고 있으니 겜 업계인으로 부끄럽고 그 이상한 손가락에 그만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깉습니다. 바깥공기도 쐬고 협소한 커뮤니티에서 나와 제대로 바라보길 기대하겠습니다.
5492	억지논리로 사상검증하여 노동자 탄압하는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5493	넥슨 직원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모든 유저들은 키보드나 마우스에 올리고 있는 본인의 손 모양을 모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표현이라 외치는 그 손모양입니다. 당신들은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혐오의 표현이라고 외치는 기가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494	언제까지고 퇴보하고 정신승리하며 지낼건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조롱받는 것이 그리도 기껍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못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신차리세요.
5495	온갖 여성혐오적인 컨텐츠(캐릭터의 과도한 성적 대상화, 게임 내 여성혐오 욕설 방관 등)를 주도적으로 창작해왔으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오해에 불과한 남성혐오 이슈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라는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5496	말도 안되는 억지를 잡아 논란을 일으키는 것 만큼 우스운 일이 없으며, 개인의 사상이 규탄받아서는 안되는 일이다. 메이플 말고도 이터널리턴 TOMOGY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작업과 직업을 부정당하고 있다.
5497	내노라 하는 한국 게임기업에서 2023 년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많이 슬픕니다. 한국 국민의 반을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게 과연 배운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남자만 게임하나요? 남자만 혐오를 당하나요? 여자는 죽어나가는 세상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남자는 고작 손가락 하나로 혐오라 불리는 세상이라면 여자는 죽어나갑니다. 남자들의 혐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절대 잊지 않을게요.
5498	게임업게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5499	개발능력부터 의식수준, 개발윤리까지 무엇 하나 일반적으로 대기업 수준에 요구되거나 바랄만한 어떤 최소한의 수준을 넥슨을 비롯한 한국 게임업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음. 글로벌 게임 개발사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의식차이, 수준차이 나는 주제에 게임은 문화라며 업혀갈 생각 말고 그냥 망하길 빕니다. 옛날부터 이미 인셀식 사고가 만연한 업계인데다, 자사의 질 낮은 운영수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성유저 미끼로 던지는 꼴까지 이런 저능하고 저질 대기업인 업계도 찾아보기 힘들 텐데 한국 기업이라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5500	평생 그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라.
5501	허황된 논리에 빠져 페미니즘을 혐호하게 하지마라
5502	진짜 혐오하는 세력이 어디인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지 제대로 공부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얼토당토 없는 억지를 들어주면 문제가 전부 해결될 것 같나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은 '회피'이고, 폭탄을 더 키울 뿐이라는 걸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5503	억지 논리에 무릎꿇어 마녀사냥을 하듯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우매한 짓을 제발 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5504	페미니즘이 왜 남성혐오로 귀결되는지 제대로 설명하라.
5505	넥슨을 이용하고 넥슨과 협업하고 넥슨에 협력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인지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5506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성차별주의자들의 억지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것도 모자라서, 뭘 믿고 부당해고까지 당당히 하는겁니까? 이번 사건에서 당신들이 지킨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벌받길 바랍니다.
5507	그저 단순히 여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많은 유저들과, 심지어 관련 직업인, 종사자들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들에 힘을 입어 특정 유저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만큼의 유저들을 함께 잃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상검증이 아닙니다. 페미는 사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특정 유저층들의 일방적인 억지 화풀이 폭력에 이어, 그 손을 들어준 기업의 잘못된 대처로 관련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처에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거 같아 실망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5508	남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 제대로 좀 생각해보세요
5509	정신차려라 인셀 말 하나하나 들어주는 거 우리나라뿐이야

남성사이트의 편향된 의견만 듣고
무고한 여성근로자를 마녀사냥해서 자르는 것은 부당합니다.
페미니즘이 불쾌하다면
여성캐릭터 벗기고, 여성과 여캐 희롱하는 남성들, 여성이 차별받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남성들.
자신은 성접대자리에 앉아, 성구매 하면서 여자친구나 배우자는 다른 남성과 성적접촉하는 것은 불쾌해하는 남성을
반페미라고 불렀을때 반페미는 괜찮습니까?
당신네 넥슨 직장 남성근로자 중 그런 반페미는 없습니까?
그들은 문제 없습니까? 그들을 문제삼았을 때 그들을 자를 겁니까?
여성직장인이 페미니스트라며 자르는 게 그리 쉽다면 왜 여성을 불쾌하게 하는 남성직장인은 자르지 않고, 여성을 불쾌하게 하는 남성위주 게임 문화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여성유저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이 신경쓰는 대상은 오로지 남자 뿐입니까?
남성들 말초신경 자극해 주는 게임 제공하고 돈만 벌면 그만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작은 게임 업체도 아니고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거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넥슨에서
이따위 짓거리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요.
무고한 여성 직원 해고한
넥슨 사장 당신이나 사상검증 당해서 잘리라고.

5510

넥슨 한국에서 거대한 게임회사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게임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넥슨게임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게임은 카트라이더 였습니다.
카트라이더 했을 때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여자입니다.
카트라이더는 캐주얼 게임이고 다행스럽게도
총싸움중에 빤스와 브라만 입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장이
나타나 스러질때 다리를 벌리고 죽는 일은 없었죠.
대신 거긴 AI 명이 있었습니다.
질투심의 마리드, 이쁜 디지니, 여왕님 마리드 반대로 성별이 남성인 캐릭터를 수식어는
멋진, 봐주는, 매너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성별 고착적이고 차별적이지 않나요?
여자인 내 입장에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 말하진 않아도
여성유저라면 분명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야길 하지 않은 것뿐이죠.
페미라고 몰이당하고, 또 남성들로부터 그보다 더 심한 혐오적 표현을 들어야 할테니까요.
짜리몽땅한 3 등신같은 캐릭터라 할지라도
바니걸, 팬티만 입은 복장이 나오고 이것에 남성들만 열광했죠.
카트라이더 선수라고 출전한 사람은 배경이 되는 캐릭터 치마 밑을 들여다 보는
방송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불쾌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자 캐릭터를 희롱하는 것도 불쾌합니다.

	여성유저가 많지 않으니 괜찮다고요? 많은 이들이 보는 방송에서 여성 캐릭터 희롱하고, 그걸 웃음소재로 삼으며, 공유하는 남자아이들에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선수라고 나온 사람도 여자캐릭터 치마 밑 보는 것을 유머로 남자라면 으레 그렇다며 장난삼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한국 게임 문화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사회 문화입니다.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당신들이 여성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남성들을 생산해내고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고 옳다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여자캐릭터를 지칭하는 이름들은 틀에 갖힌 것처럼 제한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야할 한국 게임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가능성과 꿈을 심어줬어야 할, 문화생활에 사회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임은 성별고착적이고 그리고 여성멸시적인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네들 게임. 애부터 어른까지 합니다. 애들은 미래 한국 이끌어갈 성인입니다.
5511	성별을 떠나 직원을 보호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인 만큼 사적이고 한쪽에 치우친 의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5512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며 사태를 키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이며 억지일 뿐입니다. 여성게임유저들이 게임내에서 여성혐오적인 언어폭력에 노출될때에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까?
5513	정신 좀 차리세요
5514	억지를 다 받아주네 이러니 정신못차리고 덤비지
5515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에 휘둘려야 합니까... 즐거움을 위해 게임을 하는건데. 이젠 그 게임을 하기 전 말도안되는 소리에 휘둘렸는지,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계속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슬픕니다.
5516	이상한 사상에 찌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개소리좀 먹금하세요 해외에서 비웃잖아요
5517	정신차려라 멍청이들이여

5518	난 게임을 맘편히 오래오래 하고싶어 협조좀 해 백투더 2016 시대역행 매출에 똥먹이기 하지말고
5519	한국에 남혐이라는것은 없다. 더이상 이런논란으로 게임 업계에서 여성들이 부당해고 당하는일이 없게하라.
5520	정신차리세요 유의미한거에좀 에너지 씁시다
5521	게임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의식을 운영진이 공감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길 바람
5522	언제까지 억지논란으로 마녀사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523	똑바로들 사세여
5524	게임계 규탄한다
5525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5526	억지논란에 직업을 잃는 상황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은 혐오행동이 아닙니다. 부디 상식적인 행동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552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528	저는 넥슨 프라임 회원이자, 매달 여러 게임에 과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말고도 그러한 유저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태에 대해 저는 더 이상 과금을 하고 싶지 않고, 플레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여자라서 조용히 게임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의도한 바가 있든 없든 무시하고 넘어갈 일을 키운 것은 사측이며, 부당한 의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도 사측입니다. 직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 업계에 누가 취직하려 들며, 어떤 게임이 성장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집단은, 앞으로 사측에서 어떠한 행보를 결정했을 때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온갖 부정적 의도를 부여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그것이 의도한 일이든 아니든, 누명을 씌우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로 읽고서 여론몰이를 통해 회사를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선례가 중요한 것임에도 당신들은 그 선례를 잘못 쓴 것입니다. 해당 스태프가 손가락을 넣은 것은 범죄고, 당신들의 회사 이미지를 망치려 그 스태프를 음해하고 의도를 곡해하여 퍼뜨린 그 집단이 사측에 찾아가 위협하고 사원들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아무렇게나 sns 에 게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5529	애초에 집게 손가락이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페미니즘이 사과할 일 인가요? 그럼 넥슨이라는 회사는 성차별 주의 회사 인가요? 성평등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차별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5530	제발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는것좀 아셨으면..
5531	해당 사안은 검증 해야 할 사상이 아닙니다.
5532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인셀들의 억지논리를 들어주지 마라 페미니즘을 물어뜯지 말고 여성혐오나 멈춰라
5533	넥슨아..혐오는 지금 니들이 하고있다
5534	말도 안되는것에 어디까지 끌려다니실건가요?
5535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힘을 주지말고 노동자 부당해고 하지말아라
5536	게임업계는 블랙컨슈머를 더이상 사회 공동 책임으로 떠넘기지마라.

5537	이제 게임업계의 발전을 응원하기는 어렵겠네요 얼마 전부터 급 떨어지는 게임들만 창궐하더니.. 직원 및 경영자들 수준이 이모양이라 그런거였나봅니다.
5538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에서 '마녀사냥'의 '마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여성혐오로부터 기인한 것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일상에서 트집 하나 잡아내기만 하면 '마녀'를 죄인으로 몰아가 화형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온라인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온 여성 유저입니다. 또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제 게임에 관한 추억 속에서 메이플을 뺀다면 상당히 많은 추억들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만큼 메이플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메이플을 생각하면 즐거운 기억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기도 합니다. 메이플을 보면 이번 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위축된 여성 노동자들이 떠오르고, 여성 페미니스트인 제가 환영 받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는 26 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타인을 혐오하는 문화를 막겠다는 발언을 하셨었죠. 과연 그 발언의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연대하겠습니다.
5539	페미니스트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것 같은데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사상검증이란 그럴싸하게 이름붙인 찌질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5540	gs 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한국 게임 망하는게 낫겠네요
5541	여성도 귀사의 고객이자 근로자입니다
5542	애초에 엄지와 검지가 가까운 손가락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남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영상매체와 미디어에서 인간과 유사한 손은 검지와 중지밖에 쓰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며, 이런 일상생활 동작을 혐오표현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극단주의자들의 억지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준 넥슨 및 게임업계는 앞으로 수없이 국해외에 수출되고 퍼져나가야 할 문화컨텐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543	사상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사생활침해 부당해고 사이버 불링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규탄합니다.
5544	업계 꼬라지를 보니 더이상 국산 게임을 할 생각이 쥐똥만큼도 안들게 됐습니다. 고오맙습니다
5545	확률 조작 논란에는 그렇게나 묵묵부답이었으면서 이번 억지논란에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5546	페미 혐오를 멈춰라
5547	억지논란으로만 테러질 하는 인셀들 말에 언제까지 휘두를 겁니까 그로인해 대기업은 충분히 무시할수있는 상황을 잘못된 조치로 연결하고 그다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게 정말 정답일까요?
5548	여성들은 남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의 자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혐오로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넥슨을 비롯한 한국 게임 업계들의 반성이 시급합니다.
5549	사상검증 그만두세요

5550	페미니즘은 혐오사상이 아닌 여성인권도모를 위한 운동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몰이를 멈춰라.
5551	말도안되는 음모론을 다들 믿는게 정말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어둠의 단체가 있나요? 너무 믿기지않은 현실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5552	정신 차려라. 넥슨!!!
5553	저도 게임 회사에 다녔는데 게임업계는 지는 해가 된 거 같아요. 더이상 기대되는 신작도 없고 참신한 게임도 볼 수 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이자 개발자로서 안타깝네요.
5554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페미니스트가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손동작'을 몰래 영상 속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비이성적 주장은 즉시수용하는게 이해가 되지않고 어리석은 일같네요. 이런 방향으로는 문화의 발전은 커녕 게임 산업 전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5555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말과는 다르게 선택적인 편을 드는 본 넥슨은 부끄러워하라. 넥슨 및 게임 업계는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문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다 하라.
5556	말같지도 않은 것들의 손을 들어주는게 쉬워서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게 꽤 귀찮은 일이 될거라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5557	사상검증하는 회사가 어떻게 모두를 위한 게임을 만든다는겁니까?
5558	정신차리십시오
5559	인셀들의 억지 논란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5560	생각좀하고살아
5561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 및 사이버 스토킹을 정당화해주는 게임업계와 넥슨 대표를 규탄합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가상의 악질적인 존재로 상상하고 이 근거 없는 상상을 기반으로 실재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 노동자의 작업물을 마음껏 캔슬하며 직업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 전체적으로든 혐오를 키우는 악영향을 불러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비판적이고 메타적인 인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5562	논리적이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넥슨을 지켜보고 응원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넥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넥슨의 이런 행태를 보고 영향을 받은 여러 게임 회사들과 게임 이용자들의 잘못된 대응과 더욱 심한 여론몰이가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5563	국내 게임 업계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피해 의식 먼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64	페미니즘 혐오몰이 중단하라 노동인권 침해 중단하라
5565	논란이 된 그림에서 그 장면 없이 어떻게 손이 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잠깐 지나갔을 뿐인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며 트집거리를 잡을 정도로 얼마나 돌려봤겠습까? 그럴려면 시간 많아야하고요. 그럼 사회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대다수겠지요? 그리고 인생네컷이요? 다른 남자애들 자기들끼리 찍기도 하고 여자 남자 어울려서 다같이 찍는 애들이 대다수에요. 돈은 누가 쓰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5566	애정하고 있는 게임을 오래 플레이하고 싶은 유저로서 꼬리자르기, 회피 등이 아닌 제대로 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5567	여자는 유저가 아니냐?
5568	한국 게임 업계가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5569	디씨, 펨코, 일베 등 남초 사이트 가입자 및 여혐 사상을 가진 남자 직원들도 여성 직원들처럼 색출하시지 그러세요?
5570	게임업계 내에서 퍼지고 있는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5571	페미가 무슨 사상검증입니까? 그리고 페미로 부당해고가 말이됩니까? 몇십년동안 쓰여왔던 집게손및 페미로 최근 특히 게임업계에서 부당해고가 쉽게보이는데 반성하세요.
5572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플레이하며 때론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 게임을 사랑하며, 언젠간 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게임이 진정한 문화라면, 혐오가 아닌 혐오를 배제하려는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어주세요. 한국 게임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싶다면, 한국의 소수 커뮤니티를 넘어 국제적인 시선에서 페미니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넥슨은 작지 않습니다. 회사의 수익은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를 가늠하는 성적표일 수도 있지만, 사회에 퍼져나갈 영향력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게임이 정말로 예술이 되고 싶다면, 작은 구멍을 메꾸기 위해 산을 무너트리는 근시안적 시선이 아닌 더 넓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넥슨이 만든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어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플레이어인 선생의 선택과 학생의 도움으로 세계는 절망과 불운에서 벗어나 밝고 건전한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선생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던 것은 물론 선생이 가지고 있던 올바른 기질과 학생들 덕분이었지만, '샬레'라는 초법적 기관에 소속되어 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오파츠인 '싯딤의 상자', 그리고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어른의 카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서브컬쳐에서 수 없이 들었을 말을 선생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넥슨이 기적과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른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5573	매번 자정될 수 있다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좌절되어 왔는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꼬를 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74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만연한 반여성주의와 노골적인 여성혐오를 규탄한다!
5575	억지 집게손 페미니즘 몰아가기를 중단하라
5576	억지논란과 마녀사냥으로 여성 및 페미니스트를 억압하는 한심스런 짓거리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5577	가족돈으로 게임하는 것 외에는 사회에 어떤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없는 폐인들에게 비위맞추고있는 본인의 모습이 자존심상하지않으십니까? 자신들이 음침하게 표시를 숨겨놓으니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음침할 것이라는 집단적 착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매도하는 집단에 동조하며 행복하십니까?

5578	자정작용좀 하세요.
5579	억지 집게 손 논란에 굴복한 넥슨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5580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올바르고 진보된(정치적 얘기 x 개인적으로 관심도 x) 사회와 게임업계를 위해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선례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5581	어설픈 페미니스트 규제 할 생각 말고 기존 남성들의 성희롱 및 여성 혐오부터 처리하세요~ 어차피 그 남성들과 같은 스탠스겠지만
5582	다른 나라 게임 유저들도 넥슨의 입장에 대해 알아도 되죠? 이번 결정이 넥슨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5583	방구석 인셀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잘못한게 없는데 왜 사과하나요
5584	시대역행적인 항의에 동조하여 노동자의 사상검증에 일조하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함 우리나라는 엄연한 사상에 자유로운 국가이며 기업이 심지어 반이성적인 테러행위라던가 범법행위도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을 간섭할 권리는 없음
5585	게임업계의 심각한 부당해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
5586	특정 집단의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부당한 사상검증을 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5587	더 이상 별 같잖은 손가락 모양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588	한국 게임업계는 그 누구도 한국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며 수많은 업계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공지를 띄우며 페미니스트를 색출한다는 뜻을 내포하여 업계에 몸을 담고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있으며, 종국엔 잘못도 없는 그저 규내 일정에 맞춰 근로했을 뿐인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지로 내몰아가는 부당대우를 그만해야 할것입니다. 특정 한국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악으로 규정하며 그 뜻을 왜곡시켜 선동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SNS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 여성들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낸 게시글 하나로 신상을 캐는 불법적인 일도 서스름없이 저지르는데 한국 게임 업계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달래며 눈감아주기 바빠 정작 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수많은 근로 피해자를 낳아 결국엔 그 근로자들끼리 마저도 성별을 나눠 서로를 욕하기 바쁩니다. 게임업계가 해야할 행동은 단 한가지 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남성들의 그저 재미로 인한 황당무계 주장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 옳고 고른지를 면밀히 살펴 당장의 현재의 위기를 잠재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아닌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며 귀 사내 근로하고 있는 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갈리아의 손가락 표시라것은 당사자들 말고는 해외마저도 고개를 젓게 만드는 황당한 주장으로, 스스로의 모순점을 캐치하지도 못 하는 엉뚱한 트집을 들어주는 수많은 애니와 게임 업계가 코믹스럽다는 의견이 해외 토픽인것도 알아주세요.
5589	말도안되는 억지논란에 힘실어주는 업계는 그저 같은 억지집단일뿐이다.

5590	혐오 표현이라고 박박 우기는 그들의 것은 엄지 검지로 표현할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만을 펴서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말같지도 않은 항의를 도대체 왜 들어 주는 건지
5591	같은 수준인거 잘 알겠다. 도태되느냐 아니냐는 앞으로애 달렸다
5592	넥슨 개실망
5593	그 어떤 나라의 게임사도 업계도 이런 혐오가득한 막무가내 마녀사냥에 응해주지 않는다 오로지 한국만이 그들에게 동조하고 공감하여 여성을 끌어내리고 내친다. 떳떳하다면 영문중문일문 번역해서 입장문을 올려라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이 대처에 대해 옹호를 해줄것인가. 여성들은 이러한 업계에 대해 큰 실망과 함께 분노하고 있으며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이런 몰상식한 기업의 그 어떠한 게임도 다시는 하고싶지 않다. 내 추억이 모두 더럽혀진 기분이다. 피해를 받은 담당 작업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할 것.
5594	항상 지켜보는 시민이 있다는 걸 잊지마라!
5595	귀사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비롯하여 기초적인 페미니즘 관련 배경지식 조사를 기반한 객관적인 비판인지, 아니면 일부 유저들의 사적인 판단으로 정리된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쓴 주관적인 동조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5596	억지와 페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텐데 왜 이리 말도 안되는 멍청한 어리광을 다 받아주면서 여성을 모욕하는 지 모르겠네요.
5597	대체 왜 대기업이 헛소리를 무시 못하고 굽신거리며 여성을 배제한 답을 최선이라며 내놓는 겁니까
5598	말도 안되는 진상한테 고개 숙이는 게 안 쪽팔리나요?
5599	집게 손가락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용했던 전적이 있었을 뿐이다. 집게손가락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는 검지와 엄지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동작중의 일부이며, 어떤 크기를 가늠하거나 작은것을 비유할때 쓰는 비언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비언어적 표현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의도로 쓴 점에 대해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록 이 동작을 한 것 만으로 그 사상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저 업을 했을 뿐인 '노동자' 에게 부당한 '해고'와 '처우' 를 바라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사회를 위한 행동이라곤 하나 정말 사회를 위한 행동인지, 그저 본인들이 비하당하는 기분이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높인 것 뿐인지. (그런것이라면 여성 유저들도 일부 여성 혐오적 표현이 들어간 게임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을때, 바로 피드백 수용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회사는 논란에 휩쓸리기 싫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발발한 '허구의 주장 /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 대부분 추측이며 억측' 을 믿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들에게 사례를 남겼으며 협업 업체에게도 타격이 가게 된 현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궁금하다.
5600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601	억지 블랙컨슈머짓과 다름없는 떼부리기에 회사가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억지 춘향이짓은 무시해주세요. 왜 그걸 대응해서 일을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방구석 악플러들은 게임업계의 주고객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게임러들을 더 먼저 생각해주세요.
5602	이게 논란거리라는 사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혐오가 정말 명분이 있나요?
5603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으로 한 사람의 생계를 멋대고 끊지말아주세요 이는 엄연한 부당해고이고 게임업계는 소비자의 피드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 소비자의 눈치를 살펴 비위를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5604	남성유저의 반응이 무섭다고 잘못도 없는 여성직원을 자르지맙시다. 업계종사자라면 자연스러운 장면연출을 위해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은 정치사상이 아닙니다. 여성우월주의도 아닙니다. 억지스러운 페미니즘 혐오에 동조하지 말아주세요.
5605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침체기를 겪던 한국의 문화컨텐츠업계가 최근으로 올수록 상당히 활발해져서 만화/애니/게임 등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성장해온 업계를 바로 그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자국 언어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문화'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06	남자 눈치만 보느라 남자들 예민한거에 굽신굽신좀 적당히 하세요.
5607	맥도날드처럼 무응답으로 대응해도 될텐데...
5608	혐오에 반대한다면서 남성 집단이 소수의 여성 노동자를 나락으로 계속 몰고 가는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대답 하십시오
5609	남초와 일부 남성들은 현재까지도 여성 혐오로 똘똘 뭉쳐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도 없이 일삼고 있으며, 그 목적 또한 단지 본인들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임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생각이 깨어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억지 주장을 무기 삼아 피해 망상에 빠져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낙으로 삼는 아둔한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일부 남성들의 마음을 달래준다는 명목 하나만으로 마녀사냥 당하는 여성들을 배척해 희생양으로 삼고, 짓밟아가는 대처는 그 무엇보다 최악의 대응인 바. 이러한 폭력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는 촉진제일 뿐입니다. 이미 혐오의 맛을 본 자들은 손가락 억지 논란만으로 만족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한 여성 혐오가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 상황에 동조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진정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동안 게임업계에서 해온 결정이 얼마나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었는지 알아차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도 기업도 변할 때입니다.
5610	진상을 더한 진상으로 키우는 짓을 그만둬 주세요.
5611	제발 현실을 보십시오.
5612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음모론을 믿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법이고 사상검증임을 깨닫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고 보상하라.

5613	터무니없는 사상검증은 이제 그만. 개인의 잘못인양 몰아가지 마십시오!
5614	여러모로 참담합니다.
5615	한국 게임업계의 이유없는 여성혐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5616	특정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를 혐오라고 하지 못하고, 정의로운 일 이라고 표방하는 세상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적극 지지하며, 넥슨 및 모든 게임업계의 엄정한 시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5617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하찮은 취급하지말았으면합니다
561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619	시대에 후퇴하는 사상검증은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게임업계는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업계 구성원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5620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621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하고 불쾌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여성성'을 팔아 돈 버는 산업인건 알고 있었지만 대응도 이렇게나 멍청할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다. 게임업계가 이런식으로 젠더 감수성이 빠진 채로 운영된다면 미래는 없다.
5622	당사의 대처가 또다른 기업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필히 당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페미니즘을 '사상'이라고 칭하는 당사에게 묻고싶습니다. 페미니즘이 사상입니까? 노동자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과 당사 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여성 노동자의 생계를 더이상 그만 망가뜨려주십시오.
5623	노동자를 보호하라
5624	전 세계에서 조롱받을 사안입니다. 페미니즘이 어째서 반사회적인 사상이며 페미니스트라 하여 약자인 여성이 직업을 잃어야 하나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게임업계의 남성들이 바른 사고를 할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5625	안이한 대처에 실망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바쳐 사랑했고, 반평생을 함께한 게임이라 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인만큼 본사의 행동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는 더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디.
5626	일부 남성들의 일방적 억지 주장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위협당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5627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업체를 운영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근거없는 혐오몰이에 대응하는 것은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성혐오를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 쯤이야 익숙하다지만 넥슨과 게임업계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도태된 관종들의 어거지에는 무관심으로 응대해야 할 일인데 대체 집게손가락 표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상 생활이 가능은 합니까? 오히려 여성들은 쓰지도 않고 남자 생식기 크기가 얼만지 손가락으로 표시할만큼 관심조차 없는데 누가 나서서 손가락 모양을 남성 혐오로 몰아가는지 색출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사세요. 아무도 남자들한테 그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넥슨은 여성 유저들은 사람 취급도 안하나 봅니다. 과연 기업체에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불매로 보여주겠습니다.
5628	말도안되는 인셀집단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아야합니다

5629	창작자 보호하라
5630	노동자는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또다른 노동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업에 대항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5631	어휴 ㅉ 가지가지한다
5632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간들 따라 후퇴하는 짓들 좀 그만하세요
5633	일부 유저들의 억지 논란을 마치 유저들의 대다수의 의견처럼 부풀려서 근로자및 외주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5634	이런것도 논란이라는게 신기하네요
5635	그 어떤 형태의 혐오도 반대하겠다던 그 말에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억지 혐오를 만들어내는 혐오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보네요
5636	게임이 진정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취사 선택 하지 마십시오. 작업자를 보호하지 않고 여성유저를 향한 혐오를 방조하는 것은 진정으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5637	어떤 방향이든 개개인의 생각이 차단되고, 논란화 되는것에 반대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의견은 문제가 아닙니다
5638	게임회사들은 악성 소비자의 선동에 휘둘려 억지 주장에 동참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게임문화 전체의 수준을 저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짓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5639	넥슨과 게임 업계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5640	단순히 즐겁다는 이유로 혐오를 가볍게 하면 안됩니다
5641	한국 게임업계를 선도해야하는 기업이면서, 평소 행보가 여성친화적이지도 않으면서, 더더욱이 남성우월주의자들의 일부 주장에 휘둘리는 기업이라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5642	넥슨 당신들의 집게손가락이 원을 그리듯 구부러질 수 있다면 당신들 또한 당신들이 우기는 어거지 페미니스트이다. 지금까지 많은 남성들이 집게손을 구부렸고 댁들은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붙이며 페미니스트가 아님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페미니즘은 집게손 제스쳐 따위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는 범인류적 인권평등사상이며 집게손으로 남성 성기의 크기를 가늠하는 의미를 당신들이 집착하며 일일이 갖다 붙이는 억지를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전 세계가 당신들의 그 얼토당토 않은 어거지 놀음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5643	정신차리기를
5644	제발 똑바로 운영해라 눈앞의 성냥불 끄려고 난리치다가 존나 큰 산불 오는 것도 모르고
5645	여성유저를 무시하지말아라 여성 노동자를 무시하지말아라
5646	혐오에 동조하는 이 업계를 업계당사자로서 규탄하고 제발 바꾸고 싶습니다.
5647	억지 논란에 대한 불필요한 굴복을 멈춰라
5648	특정 단체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들어주며 비위 맞추지 말고 상식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심사숙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649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성차별을 타파하고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달라는 순수한 인권 운동이다. 넥슨은 성우 해고 사건부터 시작하여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고 음험한 음모 세력으로 규정하여 마녀사냥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라. 글로벌 시장을 타켓팅한다면서 국내의 인셀들의 억지 비난에 휘둘리며 안티페미니즘적 행보를 이어나가는 한국 게임계에는 더 이상 성장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진실로 망하기 싫다면 정신들 차려라!
5650	게임을 선두하는 기업이라면 그 무게에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업계를 만드십시오.
5651	개인사상 검증하면서 징징거리는거 그만하세요
5652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5653	제발 인터넷에서 삶을 낭비하는 멍청한 놈들의 헛소리를 내 새끼가 다 옳다 하지 말고 직원 보호를 해주세요. 쪽팔려요.
5654	게임업계 사상검증의 선례를 만들어준 넥슨 및 타 게임사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설자리를 잃어가게 만들고있다.
5655	안그래도 한국 애니메이션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말도 안되는 클레임들에만 일일히 대응하시니 앞으로는 한국 애니메이션이고 게임이고 망해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임업계와 애니메이션업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불난 집에 직접 기름을 뿌리시니 시원하시던가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한국보다 외국으로 가시는 추세입니다. 고작 손가락 모양 하나로 생계가 위태해지니까요. 애초에 힘풀고 서있으면 생기는 손모양이며, 손을 옆으로 세워놓으면 자연스레 집게 손가락만 보이는게 당연합니다. 물건을 집을때에도 집게손가락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유인원때부터 페미니스트가 존재했으며, 그때부터 사상을 집어넣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하고있는 행동들이 단순 억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해외로까지 퍼져 한국게임업계가 처절히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인가요? 사실 넥슨 운영 의지가 없었던 것 인가요? 저는 이제 한국 게임이라면 학을 뗐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이고, 이건 지금 종사하시고 계신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제발 대기업 종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모든 언행,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56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일부 집단의 얼토당토 않은 억지 음모론에 휘둘리며 고용된 직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와 해고를 하는 게임업계의 현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5657	여혐 넥슨 반성하라
5658	운영 문제를 이런 마녀사냥 몰이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잠재우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심지어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몇 명이나 실질적인 피해를 본 건가요? 남성만을 유저로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남성만을 위한 게임이라고 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로 번역해서 써두세요.
5659	인셀의 억지주장 들어주는 남존여비 게임업계는 해외에도 사정을 상세히 공지로 설명해야 한다.

5660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귀사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잘 한 결정이다, 혹은 올바른 결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으니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겠죠. 잘 알겠습니다. 고작 몇 시간만에 한 일레레를, 한 제작사를,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들을 탄압하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은 그 결정 잊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 하나가 이런 말을 한들 눈 하나 꿈뻑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은(그 누군가는 일부라고 우기겠지만) 이번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5661	이때다 싶어서 게임 운영은 어물쩍 넘기고 성차별하지 마시고 운영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5662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넥슨 기업인증한 글쓴이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댓글을 보고서 씨팔련 이라며 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건 손가락보다 더 커다란 메세지를 가진 여성혐오 아닌가요?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문화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감창섭 디렉터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해당 직원 색출해서 업계에 발도 못 딛게 해야하지 않나요?
5663	억지 혐오성 악성민원과 그에 반응하는 기업의 차별적 행보에 반대합니다
5664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신을 좀 차리세요.
5665	그냥 망해라
5666	더 이상 남성만 게임하지 않습니다. 집게 손은 자연스럽게 되는 손 모양과 동선입니다. 당신들도 수시로 이 손 모양을 합니다. 이 걸 특정 사상이 있다 보는건 매우 부당합니다. 제발 작업자들을 억지 부리는 자들에게서 지켜주세요
5667	이 미친짓좀 멈춰주세요
5668	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5669	어릴적부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게임사인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입니다.
5670	이런 시시껄렁한 일에 일일히 대응해주면 언젠간 본인들도 하나하나 검열하느라 매일 야근에 시달리게될것입니다. 어디 림버스컴퍼니처럼 되보십시요^^
5671	억지로 만든 논란에 응하여 여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넥슨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을 반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야를 가진 기업으로 평생 낙인찍혀 여성 노동자가 받은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게되시길 바랍니다
5672	억지논란 그만 만들어라 게임은 남자만 하냐 다른 나라에서는 페미가 아닌게 욕이라던데 대한민국은 페미니스트라고 회사를 잘린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 그냥 본인들 엄지 검지를 자르세요
5673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주의입니다. 페미니즘을 반대한다고 외치는 그들이야 말로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여론 몰이로 게임 업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674	억지주장과 혐오에 동조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대표적인 업체와 업계의 수준이 이 모양이라는 것에 한심하기 짝이 없고 통탄스럽다.
5675	억지혐오조장 그만

5676	제발 말 같지도 않은 말은 무시를 좀 하세요.
5677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언제까지 들어줄 건지? 보는 사람이 다 피곤하다
5678	넥슨 같은 대기업에서의 이런 대응이 나온다는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5679	말도 안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게임업계가 노동권과 더 나아가 인권을 무시하는 저급한 선택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소비자들이 등 돌리고 발길을 끊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하며, 그들 스스로의 행동이 온 세계의 비난을 살 행위였음을 알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5680	힘내세요
5681	본인들의 결정때문에 한국 게임산업은 쇠퇴할 것 입니다.
5682	그 남성들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감도 안오는데 왜이리 굽실거리는지도 이해가 전혀 가지않네요. 당신들이 그렇게 여성들의 사상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말도 안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 Bungie 라는 게임회사좀 본받으세요.
5683	제발 쓸데없는 걸로, 직원들 괴롭히지말고, 말같지도 않은 걸 트집잡아서 클레임거는 일부남성유저들 무시하세요. 앞으로 이 게임업계는 점점 사람들은 없어져가고, 발전은 안될겁니다
5684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대하고 큰일인사항이면 제발 게임에다 우리는 페미니즘 안받는다고 써주세요 글로벌서버에도 써주시고요
5685	억지논란에 동조하지 마세요
5686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5687	넥슨 정신차리세요 언제까지 억지논란에 휩싸여서 여성들에게 빨간 딱지를 붙일 것입니까
5688	속상하고 비통합니다. 다만 꺾이고 꺾여도 닳거나 훼손되지 않는 명징한 진실이 여성과 일부 남성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직시하고 게임업계로부터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극우 커뮤니티의 일부 의견이 공론장로 넘어오다 못해 여러 회사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린 것을 지켜보는 여성은 참담하다 못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네들이 혓바닥에 녹여버린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직원을 악성 민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여성 게임유저를 사지로 내몰다 못해 그들이 창출하는 수요를 내팽개치는 파멸적인 행태를, 똑똑이 좌시하고 기억할 겁니다. 넥슨 게임을 접은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해보고 싶은 맘이 생겼으나, 이 불미스런 일이 그 마음을 고이 접게 하네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성은 노동자도, 소비자도 아닙니까? 과표화된 극우 커뮤니티의 의견을 여론으로 수렴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약속한 도덕에 어긋나는 말들에 반응하지 마세요. 여성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여 업계에서 몰아내는 행태를 그만 두십시오.
5689	게임은 남성들만의 컨텐츠인가요? 이런 운영방식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 사태를 지켜보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객층으로 여성은 아예 배제하고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아예 여성을 고객층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게임 만들 때 "이 게임은 페미니즘은 혐오하며 남성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 입니다." 라는 안내문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690	탈 넥슨힙니다
5691	그깟 손가락이 뭐라고. 그걸로 뭐라하는 사람들 전부 엄지랑 검지 다 자르시길 바람
5692	일부 유저들의 억지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길바라요 메이플은 제가 어릴때부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5693	넥슨 정신차려라
5694	이번 집게손 사태라는 일부 카뮤발 억지주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사과함으로써 타 게임과 여성 게임업계종사자에게 미친 피해들을 통감하고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5695	말 같지도 않은 사상검증 여성유저 배척, 일부 남성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제발 무시하세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시했을 일을 넥슨은 저 이상한 요구들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5696	일부 특정 사이트의 유저들이 제기하는 집게 손가락 논란도 사실상 그 특정 사이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이를 묵인하고 생떼를 들어주는 행위는 어떤 득도 없으며 오히려 혐오를 부추겨 애꿎은 실무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또한 게임 디렉터와 넥슨 관계자는 페미니즘을 무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지,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닙니다. 이처럼 단어 오염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치고 있는 건 넥슨과 게임 업계 아닌가요? 논란을 주장한 일부 이용자들이야말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음에 통탄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사회와 게임 산업, 모든 유저를 위한다면 열심히 일한 페미니스트 실무자가 아닌 논란을 야기한 특정 사이트 게시글 유저를 색출하여 처벌하십시오.
5697	억지논란 그만 생성하고 페미니즘 악마화한것을 사과하라
5698	말같지도 않은 트집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정말 우스워보일 지경입니다.
5699	헌법 위에 디씨 있는 거 아닙니다
5700	오히려 여혐을 부추기고 억지논란을 만드는 게 아닌지. 페미니즘이 아닌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함.
5701	정신차려라
5702	평등좀합시다
5703	메이플 열심히 애정가지고 하던 여성유저로서 이번 행보 정말 실망스럽고 넥슨과 메이플팀이 여성유저들을 얼마나 무시하고있었는지 이번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넥슨게임을 이제 하지않게되는것과는 별개로 디렉터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누구보다도 혐오에 앞장서게 된 넥슨은 이번 사태에 관해 피드백 바랍니다.
5704	제발 남성유저들의 당치도 않는 억지 좀 그만 받아주세요
5705	2023 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통탄스럽습니다
5706	쓸데 없는 곳에 힘빼지말고 성평등에 힘쓰길
5707	먹금해
5708	억지 논란을 키워 혐오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5709	여성혐오는 묵인하고 반페미니즘을 동의하는 행위 당장 멈추십시오.
5710	억지 논란을 왜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5711	페미니즘이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행위인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하게 하며 낙인을 찍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외국에 널리 알려지도록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을 정신병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업입장 발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5712	일러스트의 손동작이 ‘페미’를 뜻하고, 그 손동작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욕하고, ‘페미’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페미’니까 욕 먹어도 되고….. 일부 유저의 말도 안되는 발언을 다 받아주는 게임업계는 뭐하는 거죠? 애초에 ‘페미니스트’가 무슨 뜻인지는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는걸까요…
5713	사상검증 척결을 넘어 혐오 척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연대할 겁니다.
5714	일부 커뮤니티의 사실무근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주고 '우리게임은 혐오 표현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럼 페미니스트를 '남성혐오자'로 낙인찍고 여성들을 향한 인신공격, 성희롱, 각종 범죄 욕설을 퍼붓고 있는 남성 소비자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건가 싶네요. 스튜디오 뿌리 직원들과 보컬분, 이 외의 관계자분들, 게다가 이 일과는 관련없는 일러스트레이터분들도 사상 관련 문제로 인신공격을 받으며 많은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성급한 판단으로 여성 소비자층을 기만하는 태도도 화나지만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음에도 잘못된 대처 방식이 반복되었다는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5715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한다
5716	페미니즘과 여성혐오에빠져 헛된 망상을 하는 일부 남성유저의 의견을 들어주지말아라
5717	먹금 뭔지 모름? 모르면 알기 바람. 자꾸 디씨 인셀들한테 발언권 줘봤자 니네 득볼거 하나 없다. 무시해도 되는거 괜히 사과하고 관심줘서 돈내서 외주 준 pv 하나 날렸죠? 직원들 안불러도 되는거 주말까지 불러서 일시켜서 인건비 더 들었죠? 다른 업계에서 넥슨 평판 나락갔죠? 언론들도 동조 안해주죠? 뉴스기사로 넥슨 패죠? 니넨 얻은게 뭐임? 지금이라도 디씨인셀들 먹금 실시해서 다시 사과문 올리고 여성차별 반대 글 올리셈. 싫으면 검지나 엄지 하나씩 잘라라. 살아있는 내내 메갈 인증 포즈할텐데 왜 달고 다니냐.
5718	한국 게임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성 혐오 폭력을 저지해야 합니다. 게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컨텐츠여야 합니다. 과대표된 소수의 억지로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 부당한 폭력입니다.
5719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을 회사에서 검증할 권리는 없다
5720	매번 새로운 억지와 논란이 생길때마다 그들에게 사과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버리면 해결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림버스 논란에 대해서는 알 사람들은 다 아실겁니다. 말도 안되는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얻은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게임 유저 하락? 인기 하락? 매출 하락? 논란으로 부정적 인식이 사람들 머리속에 각인되기? 동작을 이어서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집게 손가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누가 그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부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임계가 시대에 뒤처지고 고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것을 보여주세요.

5721	.
5722	게임 좀 조용히 즐겁게 향유하고 싶습니다. 그 유저들 한 두번 시끄럽게 구는게 아닌데 왜 내부 인력 협력사까지 쳐내면서 말을 들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서 전보다 퀄리티 더 떨어져 서비스도 더 떨어져...진짜 왜하는지 모르겠어요....차라리 무시하지... 관련 이야기 나올때마다 스트레스인데 게임사에서 아예 장작을 던져주니 더 스트레스만 크고 짜증나요.... 소비자로서도 노동자로서도 정떨어져서 십몇년한 게임도 쳐다보기 싫네요
5723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의 의견을 대중의 의견이라고 착각하지마십시오
5724	e-sports 라는 이름으로 게임산업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그 크기를 넓혀가는데, 오직 한국의 게임업계만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고작해야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이게 불편하니, 저게 불편하니 떠들어대는 커뮤니티 '여론'에 휩쓸려 사측의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태도는 당연 철폐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N 이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 게임 3 사 중 하나인 넥슨에서조차 이런 대응을 계속한다면, 세계적인 면에서도 절대 좋은 방향으로 주목받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납작 엎드려 이런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대립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하루라도 빨리 향후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해 보았으면 합니다.
5725	여자들을 배제시킨 업계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5726	여성혐오를 멈추어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당연하지 않은 생떼를 부리는 남성들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5727	게임업계의 여성혐오적 마녀사냥에 반대합니다.
5728	사측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어선 안됩니다.
5729	넥슨 및 게임업계는 있지도 않은 허구의 혐오로 여성을 규탄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5730	2016 년 부터 넥슨에서 제작 및 유통하던 게임인 클로저스에서 여성 성우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성우를 강판한 행위. 그 행위가 게임업계 내 여성 노동자 탄압의 표출이었다 생각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시작한 일의 책임을 질 때 입니다.
5731	근시안적 대책 틀어막기에 급급한 대기업은 노동자의 보호를 우선하라
5732	억지 여론 몰이로 개인의 사상과 노동권을 침범하는 의견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5733	정신차리세요
5734	작작해라 이놈들아 무슨 사상검증이냐 직원 부당해고 하지 마라
5735	대체 그 잠깐 아주 잠깐 나오는 손가락 하나로 징징대는 애들 말을 들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실 넥슨 및 게임업계의 그분들도 그거에 부들거리는 인셀들과 같은 놈들인가요.... 왜 그렇게 사세요 진심...
5736	한국 게임업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녕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판단이라면 더이상 넥슨 게임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5737	게임 내에 잔재하고 있는 다른종류의 혐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어이없는 혐오에만 반응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5738	뭐하는짓거리냐!정신좀차려라!
5739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반사회적 사상쯤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5740	나쁜 의미로 역사에 남으려 하지 마세요.
5741	매번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면서 반사회적, 준범죄에 가까운 행동들을 스포츠처럼 펼치는 특정 무리들에게만 빠르게 저자세로 굴복하고 또한 회사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먹잇감으로 내던져주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넥슨이 진정 게임업계의 선두에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혐오의 재생산에 일조해서는 안 됩니다. 넥슨은 이러한 혐오 콘텐츠의 시발점이 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귀사와 외주사들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준범죄 무리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5742	악성민원의 억지주장 작작 듣고 직원 보호하라
5743	페미니즘에 관한 책이라도 한권 읽어봐요 그게 뭔지 여자라고 불평등 받지 않게 살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죕니까? 남자들은 여자 죽이고 밥그릇 뺏지만 어느 여자가 그랬습니까?
5744	정신들 차리세요
5745	한국계임업계 곧 망할것.
5746	이게 정말 농담 상황이 아닌건가요? 타 업계 종사자지만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나옵니다. 회사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학창시절 추억 가득한 게임들을 이런 괴상황으로 망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5747	사상검증 작작하고 제품 퀄리티에나 집중하길
5748	누구보다 혐오주의를 실천하는 창섭이 및 여러 대표님들... 그 동안 온갖 성차별 및 여성비하 유저들은 그냥 방관한 주제에 양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749	집게손을 남혐이라고 받아드리는 것부터 본인이 하찮다고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죄송하다고 석고대죄 하면서 여성 유저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 기만 아니냐구요. 자기들이 쪽팔리는 행동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750	사상검증 및 여성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차별대우를 즉각 멈춰라
5751	여성을 무시하지 말라
5752	억지논란에 대응하는 성차별적 기업 넥슨은 사과하라
5753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페미니스트를 매장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기는 것을 받아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5754	게임업계 남성들의 수준이… 통탄스럽습니다
5755	개인의 SNS 활동을 감시하고 사이버불링하는 집단에 굴복한 부당 해고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5756	말도 안되는 억지에 대응하며 여성들을 사상검증하는걸 멈추세요.
5757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5758	여자 굶겨 죽이기는 놀이가 아닙니다
5759	구구절절하기 싫고 그냥 방치한 계정 탈퇴합니다.
5760	꼬리 자르기 보여 주기식 운영 그만해라 혐오자들 요구 들어 줘 봤자 끝도 없단 걸 좀 깨달아라 제발
5761	억지논란 멈춰라
5762	손에 힘을 뺀 후 그리기 좋게 새끼와 약지를 살짝 구부려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5763	진정 세상의 주류의견과 상식이 무엇일지 가슴이 아닌 머리로 판단하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건의 민원이 인식하고 부정하는 이들의 열명중 한명꼴이 민원을 넣는대도, 비정상 민원을 넣는 정신 얼빠진 미꾸라지는 열명이 소식을 접하면 아홉이 민원을 넣는 법입니다. 왜 이정도 계산도 못하시는지요?
5764	남의 밥그릇 가지고 그러지마라진짜
5765	나름 이름있는 기업들이라 하는데, 가게 앞에서 저질스럽게 소란 피우는 사람들의 말 한두마디를 물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중요하게 듣고, 고된 일을 함께했던 직원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니, 사장은 둘째 치고 다른 직원들의 내일이 걱정스럽습니다. 소비자야다른 것 사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상사 잘못 만난 월급쟁이 청년들은 어찌합니까. 목소리 없는 직원들을 위해 이름 올립니다.
5766	손동작마다 억지를 부리는 것과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게임업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억지라는 걸 알고도 들어주는 것인지, 완전히 동의해서 들어주는 것인지. 전자라면 일부 목소리때문에 외주를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하는건 정말 게임업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고 후자라면 정말 정떨어지네요
5767	생트집 다 들어주면서 부당해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5768	제발 말도안되는 억지우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5769	일부 유저들의 의견 몇마디에 회사 운영이 좌우되는 것 자체만으로 게임 업계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음
5770	인셀들의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휘둘려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임 업계의 시대에 뒤처진 행위들을 규탄한다!
5771	민노총에 적극 동의하며 더이상 피해망상에 가득찬집게손 논란으로 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

5772	게임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던 현 대학생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손가락 논란 억지주장으로 7~8 년동안 대체 몇 명의 작업자들이 직업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해당 작업자에게 갖다붙히며 사이버불링,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범죄자 인셀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해당 작업자의 작업물을 전부 까발리며 0.몇초의 프레임에 들어간 자연스러운 손 동작과 일러레 직업 특성상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지 남을 비방하고 까내리기 위한 작업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청사와 하청업체 계약관계라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작업자를 사이버 스토킹하며 작업자가 했던 말을 오도하며 아무런 뜻도 없던 작업물에 사상을 집어넣었다고 온갖 테러를 하며 회사 본사까지 쳐들어가는 만행은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제 생계를 책임질 이 게임업계의 현상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게임업계의 이 상황들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씁니다.
5773	회사 직원 또는 작업자의 사적인 sns 를 사찰하여 이를 근거로 작업물 삭제 및 해당 직원의 해고 혹은 업무배제는 부당한 일이며, 이에 대해 정당한 사과와 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검증을 시도한 모든 업체의 상품을 불매할 것입니다
5774	〈혐오 표현의 근절〉 이라는 얘기를 김창섭 디렉터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하셨는데 그동안 잘만 사용해오던 단풍회의 풍이라는 글자의 어원은 알고 계신가요? 넥슨 공식 크리에이터로 지정한 크리에이터들의 혐오 발언 또한 제재하시길 바랍니다 김창섭 디렉터 또한 본인의 무지함으로 사용한 전적이 있으니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궁금하네요 리퐁대전 때도 잠자코 계시면서 단어에 대한 지적은 안 하시더니 이제와서 혐오 근절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 이보다 모순된 인간은 본 적이 없어 놀랍습니다 더불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XX 련들아 라는 워딩을 쓴 직원 또한 같이 제재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이름을 걸고 XX 련아 라는 워딩을 쓰다뇨… 이또한 단어의 어원이 여성혐오적인 의미이니 제재를 하셔야겠죠? 그동안 쉬쉬하고 눈감아주던 모든 메이플내의 혐오 발언들 제재하실거라 믿습니다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의 그 발언은 안 하셨어야 맞죠 ㅋㅋ 차라리 페미라서 잘랐다고 하시고 해외와 사회의 질타를 받는게 더 나았을듯 싶네요 김창섭 디렉터님과 넥슨 관계자 여러분!!! 앞뒤가 다른 인간은 되지 맙시다 메이플을 즐기는 유저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실망하게하지 마세요
5775	적당히좀해라
5776	낙인 찍고 혐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5777	종업원을 지켜주지 않는 회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5778	넥슨, 심지어 메이플스토리면 남녀 비율이 50 대 50 으로 상당히 많은 여성 유저가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0.1 초라는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간 손 모양에 득달같이 달려든 일부 극단적인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굴복하고 사과하기 급급한 넥슨의 대처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5779	되도않는 망상자들의 주장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하시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5780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대우를 멈추세요.
5781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악질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마녀사냥의 악순환을 끊고 여성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5782	세계로 뻗어가는 k-콘텐츠의 위상을 혐오와 차별로 착실히 깎아먹은 넥슨의 행보를 규탄합니다.
5783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억지를 수용해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한국과 한국기업만이 그들의 과대망상에 동조해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억지 남혐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5784	인셀집단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게임업계 수준이 보입니다. 혐오동조 넥슨 불매합니다.
5785	적당히들하세요
5786	게임 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현대판 마녀사냥과 여성 노동자를 향한 부당한 핍박을 중단하라
5787	게이머 중에 여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껏 게이머 문화에서 여성 차별이 완연했기 때문이고, 그 잘못된 문화를 고쳐나가기는 커녕 휘둘리는 꼴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는 본인의 고객에 여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성 혐오를 멈추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소수의 분탕 집단일 뿐입니다.
5788	비상식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기업이 받아준다면 그 결과는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갈것입니다 정신차리세요
5789	적당히 해라
5790	게임 업계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5791	저출산 시대에 게이머 총 숫자는 계속 줄어들텐데 왜 그 적은 숫자를 또 절반으로 줄여서 수익을 얻으려 합니까? 그 적은 숫자의 게이머에게서 돈을 짜내는 것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귀사의 게임을 좋아해도, 유저에게 각박하게 구는 게임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악성 민원에 편향되지 마십시오.
5792	말도안되는짓그만
5793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남성혐오에 여성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멈춰주세요.
5794	페미니즘은 부당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5795	인셀 한국 남자들의 말도 안 되는 땡깡 들어준다고 여성 유저들 다 떠나고 게임으로서의 정체성도 내다버리고. 한국 게임 업계의 존재 이유가 한국 남자들의 여성 차별을 회사 단위로 옹호하고 동참하는 것입니까?
5796	노동법이 지켜지고 여자라는 이유로 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5797	공식에서는 무시하고 넘기면되는것을 그 0.1 초 프레임이 뭐라고...주말출근시켜서 영상내리고 라이브키는게 어이가없네요. 솔직히 집게손가락이 어쩌다 남혐을 뜻하는걸로됐는지도 모르겠네요.

5798	진위여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국내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회사라니. 노동자 사냥은 게임이 아닙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5799	정신 차리세요....
5800	부당해고 하는 여혐기업 넥슨은 망해라
5801	억지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대기업임을 보여 주세요
5802	제발 이따위 악성민원 들어주지 말고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고방식이 악성민원인들과 동일해서 들어주고 앉은건가요? 그냥 곱게 조용히 하던 게임이나 하면서 지내고싶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신변의 위협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요. 여성 게이머로 살면서 게임 업계의 이런 지속적인 행태에 환멸만이 느껴집니다. 몇년간 지속적으로 사랑을 붓고있는 한국 게임이 존재하는데 계속 이대로 간다면 아예 게임을 접어야할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여성은 싫고 여성의 돈은 받고 싶나요? 아 여성은 게임에 돈을 안쓰니까 상관없으신가요? 남자만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오.
5803	여혐을 멈춰라
5804	그렇게 살지마라
5805	한심해서 할 말도 없음
5806	더 이상 악의적인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혐오로 직장과 삶을 잃어버리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807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으로 부당해고 그만하라
5808	넥슨은 남성만의 고객센터 입니까?
5809	넥슨이란 게임업계의 권위있는 기업이 근거없는 선동에 부당해고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이슈를 공정한 관점에서 재판단해주길 바랍니다.
5810	한 때 연이 있던 회사라 지금 하는 짓들이 너무 참담합니다.
5811	여성을 혐오하면서 도태된 자들을 비호하면 게임업계도 똑같이 도태될 뿐입니다.
5812	페미니즘은 죄가 아니다
5813	잘못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람 자르는 걸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을 받아주면서 여자 돈은 받아먹고 싶나요 양심도 유분수죠...
5814	내 어린 시절이 부끄럽다
5815	유독 한국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집단적 착각에 먹금 못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5816	게임은 남성의 것이 아니고 억지 사상검증 그만해라
5817	게임업계에 중소기업에서 사상검증으로 사람 해고하고 수익이 바닥을 치는 자료가 인터넷 세상에 넘쳐나는데 애니메이션 손 움직이는 장면 1 초 잘라서 논란 만들었다고 그걸 들어주는 모습이 재밌네요
5818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몰아서 여성들을 부당해고하고 탄압하는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5819	더 이상 부당한 억지로 인해 무고한 여성 창작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5820	일개 커뮤니티 회원들의 억지 논란에 반응하여 여성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멈춰라
5821	쉬운 길 말고 옳은 길을 가시길
5822	악성 민원에게 굴복해 마이크를 쥐어 주지 마라
5823	귀사에서 보호해야 하는 유저에는 여성은 소속되지 못하는 것인지 개인 SNS 에서 몇년전에 했던 발언과 행위 모든 것을 규제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유저가 게임 공식 SNS 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개인 SNS 를 찾고 캡쳐해오는 행위를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의견.
5824	일부 남성들의 억지주장에 사과까지 하는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해외토픽으로 조롱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5825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진은 좋은 운영진이지만 유저의 억지를 들어주는 운영진은 멍청한 운영진입니다
5826	넥슨 및 게임업계는 여성이 게임하지 않길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은 남성만 즐길 수 있는 매체가 아닌 여성도 즐길 수 있는 매체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5827	블랙컨슈머들의 비약이 지나친 악성 민원을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5828	헛소리하는 회사는 망해야한다
5829	정신차려라
5830	회사는 직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5831	상식인처럼 행동하시길
5832	페미니즘 혐오를 멈추세요
5833	군부독재도 아니고 사상검증이라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심지어 논란이 아닌 것을 '창조 논란'해서 사상검증하겠다는 거 너무 코미디 같음. 세계화를 꿈꾼다던데 해외 진출하기 전에 조롱거리나 될 것 같네요.
5834	일부 비상식적인 인간들에 의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5835	쩝 넥슨 탈퇴함 캐쉬 진짜 아깝네
5836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 당신들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익명의 네티즌이 아니라 같은 목표 아래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임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5837	더 이상 여성피해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5838	사람 하나 찍어서 괴롭히는걸 스포츠로 즐기는 인간들에게 자사 직원, 하청 직원 보호 못하는 게 무슨 기업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날거고 그때마다 해고로 해결한다면 거기서 일할 사람이 남아나질 않을텐데요.

5839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여성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이 사회가 더럽고 치졸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840	페미니즘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을 모는 행위에 대해 올바른 척도와 대응 방안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의견에 의해 짤리는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 일했을 뿐인데 억울한 결과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는 옳지 않다라고 보기에 많은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5841	직원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심지어 해고의 근거가 인터넷 남성 커뮤니티의 의견이라니요. 넥슨 측은 여성 노동자의 삶이 그토록 가볍게 느껴지셨습니까? 다수의 직원들이 여성 직원의 사상을 검증하고 몰아가는 과정이 마냥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당신들이 심판받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당신들이 겪을 일들이 아무리 괴로워도 혼자서 다수의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했던 피해자만큼 괴롭지는 않겠지요.
5842	걸스캔두애니띵에서 변한 게 없는 수준 참담합니다
5843	상식이 통하는 업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5844	집단적으로 망상하여 가지고있는 신념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남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부도덕하게 직원들을 해고하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5845	이상하다고 하면 여성 캐릭터 다 벗겨놓는게 이상한거지 저 손가락이 이상한가요 ;; 참
5846	제발 정신 차리길
5847	편향적인 의견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억지스러운 논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또한 직원 보호의 의무를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5848	실망스럽습니다
5849	성차별을 이용한 집단 테러행위를 23 년도까지 봐야한다니 참담합니다
5850	일부 인셀의 억지 주장을 받아주고 여성 차별적 표현은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주세요
5851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네요. 해외게임사들 보면서 배우길...
5852	여성을 자르는 것으로 모든게 해결될거라고 믿는것이 끔찍합니다. 제 주변 여성 게이머들은 이제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에서 복직될때까지 계속 불매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5853	게임 퀄리티 향상이나 생각하길
5854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게임회사가 저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갑질에 좌지우지 당하는 게 맞습니까?

5855	더 이상의 혐오는 없었으면 합니다
5856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을 지지합니다.
5857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성의 인권신장을 지지한다는 이유 하나로 잘려서는 안된다.
5858	성평등사상을 검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을사의 계약을 깨어 노동인권을 퇴보케 하고 앳된 여성 캐릭터를 성적 대상화하여 한국 청소년, 청년들을 소아성애자로 만드려는 악한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5859	한 사람의 노동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의미있는 이슈가 맞는건지 좀더 이성적으로 따져보길 바랍니다.
5860	일부 남자들의 어거지 짓으로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인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의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굉장한 악수였단 걸 아셨으면 하네요
5861	틀린 생각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이상하게 매도하며 말도 안되는 창조논란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목소리들에 동조하는 짓을 멈추어야 합니다.
5862	여성들도 즐겁게 게임할수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5863	되도않는 억지 논란 그만해라 논리도 근거도 없는 개주장에 동조하는 게임업계 때문에 사회가 후퇴한다! 게임업계도 한통속이다!
5864	혐오는 진짜 누가 만들고 있는 건지? 모든 혐오를 반대한다면서 여자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거라니 너무나 억지인 논란인 걸 알면서 이럴 거면 내 엘로디 헤어 환불 좀
5865	유저의 지엽적인 트집잡기 갑질에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위법.
5866	넥슨은 여성혐오에 편승한 장사를 멈춰라! 여성유저를 존중하라
5867	이게 시작이라는것만 알아둬.
5868	모니터 뒤에 수많은 여성유저들도 있습니다. 여성유저 무시하지마세요
5869	정신 좀 차리세요
5870	노동자를 향한 사상검증 그만해라
5871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정치적성향 이었습니까 양성평등에 정치적인 견해가 왜 필요한지
5872	뭔 그지같은 억지부릴시간에 일이나 하세요
5873	게임업계에 만연한 차별을 규탄합니다.
5874	억지논란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5875	고마해라
5876	혐오표현을 용납할수없으시다면 이제껏 남성유저들의 여성혐오표현 및 장애인혐오 등과같은 혐오표현은 왜 그냥 두고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억지논란을 즐기고 신나하는 남성유저들과 거기에 단편적인것만보고 남성혐오집단처럼 표현하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식을 앞장서서 심어주는 기업들의 선동이 안타깝습니다
5877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5878	여자들의 이야기는 왜 안들어주나요 우리도 게임을 합니다——

5879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에 분노하면서 그 장단에 맞춰주는 행동의 의의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말도 안되는 요구라는 느낌이 전혀 안드시나요...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억지인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하나둘씩 온라인 게임에 말도 안되는 의견들을 요구하며 그게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게임사가 이러한 너도 나도 참여하여 꼬리자르기하듯이 보여주기식의 직원해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요구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직원의 신상을 강제로 공개시켜버리고, 헐뜯으며, 불필요한 욕설과 신변위협까지 서슴치않습니다. 단순 여성인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회사와 직원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가 그만둬졌으면 합니다.
5880	한심
5881	억지 부리지 말고 부당해고 하지 마십시오.
5882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5883	이런 억지논리를 중대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5884	여성혐오적이고 편향적인 서비스 방침을 유지한다면 게임 업계는 더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오랫동안 사랑받는 기업은 정상에 위치해 있어도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소수자를 배려하고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게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직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서비스를 유지할 바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편이 낫습니다.
5885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기업이 되시길...
5886	성평등주의를 뜻하는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 같다면 그대들이 성차별주의자라는 뜻입니다.
5887	지금은 손가락만으로 짜르지 이게 당연시 된다면 사상검증을 아무렇게나하고 본인들 입맛에 안맞는다는걸로 쉽게 해고되는 문화가 생길텐데 답답합니다. 법은 왜있답니까
5888	집게 손가락은 정치사상과 관련 있다는 넥슨은 여태 그 많은 여성혐오 표현 닉네임과 대통령 비하 닉네임은 어떻게 참았는가
5889	문제를 제기한 본인들도 구분 못하는 사실도 논리도 없는 단순한 트집으로 맡은 바 일 멀쩡히 하던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문제 제기를 당한 애니메이션 외주사 스튜디오 뿌리 직원에 대한 신상캐기와 더불어 회사에 찾아가 사찰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번 일에서 엮여 언급되고있는 여러 기업들 중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듯 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논란이 된 넥슨을 비롯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당하거나, 해고 당하는 노동자가 없게끔 상식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5890	언제까지 피해망상에 빠진 돈 안 되는 유저 말만 들을 겁니까
5891	실체 없는 남성혐오를 주장하는 의견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동조함으로써 당신들은 여성 혐오의 실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5892	언제까지 퇴보할겁니까 정신차려
5893	클로저스 티나 성우를 맡았던 김자연 성우를 아시나요? 만약 안다는 대답이 나왔을 때 당신들은 고개를 들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들은 여자를 짓밟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상식이라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5894	제발 말도 안되는 어거지 그만 들어주고 직원 보호를 좀 해라.
5895	진심으로 진짜로 남성 혐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 유저가 돈이 되기때문에 말은 안 되지만 눈치를 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차라리 후자이길 바랍니다.
5896	억지 허구 논란에 대응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제발 멈추고 게임유저와 생태계를 위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집중해 주세요
5897	만약 페미니즘이 나치즘 같은 차별을 전제로 두는 혐오 사상이고 집게 손가락이 혐오표현 이며 이것들을 검열 하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더이상 업계 내부에서 문제 제기 하는 일부 소비자를 달래기 위한 꼬리 자르기만 하지 말고 정치적 안건으로서 정계에서 다루어 줄것을 요구해라 당신들의 말대로 페미니즘은 혐오사상이고 집게 손가락이 혐오표현 이라면 그건 더이상 업계 내부에서 해결하고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안건으로서 공론화 되어야 할 문제이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 쇼만 하고 있나?
5898	여성혐오를 멈춰라
5899	사상검증 업계 덕에 속이 역합니다.
5900	페미니즘을 옹호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게임업계 대표 기업의 수준입니까?
5901	초등학생 그림에 옷을 못벗겨서 화내다가 뭔 디시,루리웹 같은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손가락 굽힌게 남혐표현이야 정하고 그걸 강요해서 노동권을 무시하고 개인사상 검열해서 자르기나 하네 그 개인사상도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고
5902	익명 뒤에 숨은 불특정 소수로부터의 마녀사냥. 소수의 망상에 고개 숙이는 넥슨 디렉터. 참… 그 손가락이 뭐라고… 과자도 못 집어먹겠네요
5903	게임 업계는 일부 남성 유저의 착각 어린 망상적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라
5904	두 손가락에 이상한 의미부여하면서 사람 자르는게 정상입니까
5905	계속해서 우기면 누군가는 진짜인가? 하며 들어주게 되고 들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언젠가 그건 사실이 되어버리는 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두고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페미니즘은 혐오가 아니나 집게 손 모양으로 페미니즘을 검증하고 논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혐오입니다. 성평등을 혐오하는 자는 성차별주의자인데 일반 남성은 모두 성평등혐오자입니까?
5906	사실여부조차 알아보지 않고 그저 마녀사냥에 휘둘려 개인의 생계를 파괴하는 업계의 무지성한 행보가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5907	제발 정신 차리세요.
5908	억지성이 다분한 주장들을 여성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개인의 사상을 억압하는데 받아들인 넥슨 및 게임업계는 현실을 직시하라. 귀사들의 행동은 그 어떤 발전도 가져오지 못한다.
5909	솔직히 본인들도 억지라는거 알고있지않나요…

5910	익명에 숨어 사회 분란을 야기하는 부류에 힘을 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성민원의 내용이 정당하다 여기고 행한 행동이라면 적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기를 희망합니다
5911	특정 단어에 눈이 멀어 흑백논리로 결정되는 최근의 사안들이 안타깝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논란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임은 이해합니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5912	혐오를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5913	종이신문 구독을 강력히 권합니다. 아무리 특정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 게임이라지만 평생 그런 회사로만 꾸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
5914	그만 도태 되고 현실을 보세요
5915	성인지교육 의무 5 시간 , 대면 시험 필수
5916	대표는 직접 사과한 후 책임감을 갖고서 사퇴하길 바랍니다.
5917	진정 제대로된 사고를 하고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말할 수 있는 문제인지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벌어지지도 않을 일입니다.
5918	먹금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일을 키웁니까?
5919	무의미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여론몰이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게임업계의 행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김자연 성우 사건 이후로 몇 년이 지났어도 그 때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는 넥슨과 그에 동조하는 한국 게임업계의 모습에 한 명의 게이머로써 실망이 큽니다. 하물며 그들이 공격하는 페미니즘은 인권운동이고,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일반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장임에 틀림 없는데도 (일부라 주장하는 그 커뮤 등등을 따라)눈감고 귀막고 있는 모습에 환멸이 다 나네요. 심지어 되도 않는 그 집게손가락 논쟁과 그 발화자들의 목소리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법률마저 무시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밉니다. 시민의식도 자정작용도 기대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법의 철퇴 뿐이겠지요. 부당하게 퇴사한, 또는 당한 사람들을 위한 강경한 법적 대응이 있으면 합니다. 이 사안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이 참에 게임업계 및 IT 에 만연했고, 과거 이슈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환경에도 개선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5920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여성을 잊지 맙시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노동자를 보호합시다.
5921	페미니즘은 '정치사상'이 아닙니다
5922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며, 확고하게 사상을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을 증거로 하여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넥슨의 메이플 대표는 페미니즘을 사회악이라 규정하며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비난을 거듭했으나, 그것이 정녕 한 회사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큰 게임을 관할하는 대표가 할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5923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싶다면 억지 논란으로 정당한 노동자를 음해하는 일부 남성에게 분노하세요. 그들의 억지에 권력을 쥐어줘봤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논란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5924	페미니즘은 남성혐오를 주장하는 사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박적으로 행해지는 여성 혐오를 규탄한다. 넥슨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5925	게임성에 대한 불만이 아닌 같잖은 SNS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게임 개발에나 힘써라

5926	정신좀차려서 마녀사냥멈추고 현실좀살았으면
5927	떼쓰기 식 여성 겸열 반대한다
5928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 논리에 휘둘려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을 멈추세요.
5929	말도 안되는 억지에 휘둘려서 대한민국 인권 전체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5930	시대역행 하지말고 정신 좀 차리길
5931	되도 않는 집게 손 페미니즘 사상검증 중단하길 바랍니다.
5932	공격의 잣대가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잊지 마라
5933	말도안되는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지마라
5934	넥슨은 여성혐오적 게임 문화를 만들어낸 책임을 져라
5935	그 어느 사상 검증으로도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이끌어낸 가례가 없는데 이는 노동법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며 사상이 문제시 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업계의 전반적 교육 촉구 및 잘못된 인사정책 규탄 합니다.
5936	게임, 게이머 이미지 망치는 거 너희들이에요
5937	일부 커뮤니티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수용하는 업계의 악습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5938	페미니즘이 어떻게 정치사상이랑 직결되는지 정확한 입장표명 해주세요
5939	남성들의 되도않는 억지 좀 그만 들어주세요 계속 이딴식으로 나오니까 자아가 비대해지고 현실에서까지 개난동을 부리는겁니다 진짜 적당히 좀 해
5940	페미니즘 혐오가 만연한 게임계를 규탄합니다
5941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상검증으로 직원을 자르고 개인의 생각까지 규탄한다니 어이가 없는 와중에 그 이유라는게 손가락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5942	이런 억지논란에 휘둘려 일어나는 부당해고는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5943	알아서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5944	여성혐오를 일삼는 남성유저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를 비난하기 위해 정확한 근거 없이 억지를 부려가며 주장하는 "손 모양"을 게임사는 정확한 경위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남성유저들의 기분만 달래기위해 사과하며 애니메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를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어이 혐오표현으로 단정지어 해당 애니메이터를 퇴사로 몰아가 심각한 고용법 위반과 여성인권침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급급히 잠재우기에 바빴던 페미논란은 대체 무슨 논란입니까? 여태 게임에 만연히 쓰이던 혐오표현(피싸개, 퐁퐁섭, 리장연 등)은 여태 싸그리 무시하고, 남성유저들이 페미니스트를 악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논란의 집게 손 모양에는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5945	남초의 말도안되는 억지요구를 들어주며 엄연한 헌법에 기재된 기본권리를 무시하여 일개 직원을 자르는 행위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자 헌법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21 세기 남녀평등의 시대인 만큼 철저하게 게임업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인것 같습니다.

5946	경제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이지도 못한 한국 게임업계 제발 반성하길
5947	시대착오적인 혐오와 억지논란 수용을 그만두십시오.
5948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페미니즘을 곡해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사상 검증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5949	We want 'A game'.We don't want 'A blame'.
5950	실체가 없는 창조논란에 줏대없이 휘둘리는 멍청한 행동을 그만둘 것
5951	헌법 위에 사칙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사원 보호 제대로 해주세요. 유저들과의 소통은 게임 내 요소(밸런스, 확률, 신규 이벤트 컨텐츠 등)면 충분합니다. 확률 조작 같은 거나 사과하시고 게임 외적 요소(pv 내의 프레임 컷 악의적 짜깁기)는 무시하는 게 정상입니다.
5952	여성차별 및 혐오를 멈춰라
5953	잡초들을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5954	페미니즘으로 사상검증질할거면 일베하는 인간들이나 소아성애 그림 그리던 일러레들도 다 사상검증해서 작업물 내리고 퇴사조치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구시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다 안고 가던가 다 자르던가 하세요
5955	한심하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5956	사이버 스토킹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 악성유저들에 굴복하여 결국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게만든 현 사태를 방임한 넥슨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957	현재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성차별적 풍습과 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인접한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중 특히 어린 연령대가 즐기는 게임에 이러한 명확한 성차별로 피해를 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충격적이고 반성하는 사고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페미니즘은 죄가 아니며 그보다 더욱 명확한 불법 행위인 아동성착취물을 그린 그림 작가를 고용하고 해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징계조차 없는 행태를 규탄한다.
5958	어떻게 대힌민국의 게임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게임사가 사상검증이란 억지로 직원을 부당하게 작업에서 떼어 낼 수 있던 건지 의문입니다.
5959	악성극우세력 민원들 회사이슈덮는 용으로 쓰지말고 제대로 처단해라.
5960	이 말도 안되는 장단에 맞춰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게임회사가 남초 회사인건 알고있었지만 이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집단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5961	억지논란에 동조하는것도 그들과 똑같은거라 생각합니다.
5962	페미니즘은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의미하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과 합치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검열하고 지탄하려는 태도입니다. 남성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남성 혐오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성평등을 주장하고 이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성차별이자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이고 여성혐오입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구시대적인 사상검증과 여성혐오에 반대합니다.
5963	제발 정신 좀 차리길
5964	그렇게 살지마세요

5965	집게손이라는 말도안되는 억지논란을 빌미로 페미니즘을 탄압하고, 노동자의 개인 sns 를 문제삼아 부당해고를 자행한 넥슨을 규탄한다. 여성혐오가 온라인상에서 일개 유희처럼 자행되며 ,기업들이 이에 맞춰 여성의 노동권,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세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5966	이미 만연한 여성혐오 표현이 더 문제입니다 정신차리세요
5967	인셀들을 주상전하 다루듯 어이코 송구하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 난리인 거 아닌지,,인셀들에게 굴복하지말고 포르노형 게임이 아니라 여성 친화적 게임이나 만드는 게 회사의 발전 같은 면에서도 여러모로 좋을텐데 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건 한남 인셀들이 아니라 여성들임. 인셀들은 당신들의 회사에 결단코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없음.
5968	악성 이용자들이 억지 논란을 만들어 스스로 재생산, 확대하고 이를 반복하여 노동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이제는 뿌리 뽑아 완전히 근절해야합니다. 소수 유저의 트롤링에 휘둘리지 말고, 게임 내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5969	사회부적응자 '인셀' 소굴인 디시인사이드 남성들의 비위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의 권리 침해, 여성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산 게임은 무섭게 발전하는 해외 게임들과의 대결에서 계속해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5970	다른나라들은 게임이 너무 피씨하다고 인셀들이랑 싸우고있는데 집게손가락가지고 싸우는거 쪽팔리지않는지 .. 출산율도 줄고 쪼그라들고있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내수로만 먹고살려고 말도안되는 요구에 사과하고 수정하고 앉았는지... 가오다뒤졌는지..
5971	지금은 21 세기다 착각 속에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멈춰라 시대를 역행하는 게임업계에 미래는 없다
5972	참내..
5973	정신체리세용!!!
5974	말도 안되는 논란으로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975	기업들이 일부 한심한 족속들의 망상에 동조해 어리석은 짓을 해대는 작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랄 것이 존재하긴 하는가? 저런 짓을 하는 기업 제품은 영원히 소비하지 않을 생각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런 국내기업 걸러내고 해외 게임만 해도 평생 할 게임이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5976	향후 콘텐츠 제작 업계에 종사를 희망하는 여성창작자이자 애니메이션 및 콘텐츠 분야에 대한 현 대학과정 전공생으로서 이번 사태는 비단 애니메이션 외주 산업과 게임 업계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콘텐츠 사업, 더 나아가 타 분야 업계 및 사회적 문제로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창작자 개인에게 남성향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페미"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회사와 기업 단위로 해당 창작자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하고 해당 창작자의 작업물을 내리는 것은 명백히 개인에게 가해지는 협박이자 폭력입니다. 창작자의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없습니다. 향후 게임 업계, 나아가 콘텐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과 같이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만을 근거로 작업물과 창작자를 검열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5977	남혐이 아니라 억지논란입니다. 억지논란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 검열을 멈춰주세요

5978	무시했으면 될 문제인데 무시를 하지 못해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어주어 훗날 게임업계 후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상검증을 시도할 것이며 그때마다 기업은 직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직원은 페미일 가능성이 높으니 면접 중에 사상검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면접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 사태들 때문에 후일이 두렵습니다.
5979	도태 인셀남들 의견 다들어주는 한국 국산겜 안해요~ 그렇게 징징대는거 다 들어줘보세요한번^^
5980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 게임업계는 성차별주의가 기조이자 신념입니까? 허상의 혐오를 꾸며내 또 다른 누군가를 혐오하는 이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5981	대형 회사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업계이니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줬으면 좋겠다
5982	더이상 봐주기 힘드네요
5983	저는 그냥 평범한 여성유저로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넥슨이 피해망상에 의한 억지혐오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긍정했고 이는 그저 멍청한 선택을 넘어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게임을 즐기는 여성유저의 sns 를 털어 사이버 스토킹을 하고 지속적으로 욕설 등 비방을 하는 혐오놀이를 부추기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모든 혐오를 반대한다고 말하며 여성혐오 및 노동자억압에 누구보다 압장서는 넥슨의 이중적인 행위를 보니 이제는 비위가 상해서 도저히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소소한 취미로 게임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비상식적이며 반윤리적인 사회이슈에 휘말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모두가 할수있는 게임 대신 혐오를 놀이로 삼고 약자를 공격하는 게임이 된 넥슨의 모든 게임들을 더이상 플레이하고싶지 않습니다.
5984	제발 억지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5985	되도 않는 억지 논란으로 실존하는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업계 부조리를 관습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5986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운동이며 여성인권운동은 악성 커뮤니티와 다르다. 비이성적이고 억지스러운 일부 망상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켜야할 윤리를 어기는 일이다. 게임업계에 진심으로 묻고싶다. 페미니즘이 그렇게도 무서운가? 대체 어떤 위협과 공포를 느끼기에 그렇게까지 왜곡된 믿음에 동참하는가?
5987	환불이나 하시길
5988	여성 유저를 버리는 패로 여기거나 여자를 바보로 생각하지 마시오

5989	기업은 기업으로서 가져야할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감정적인 대처를 일삼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기에 부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여론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올바르고 적절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잘 따져보지 않은 탓입니다. 무조건 소비자의 의견을, 심지어 편향된 특정 집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넥슨의 태도는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본 사건이 혐오를 기반으로 한 억지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여성 인권과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게임업계가 기업으로서 가져야할 태도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5990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집단 히스테리를 받아주면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침 창조논란에 휘둘리는 기업이 과연 제대로 된 기업인가 의심스럽다
5991	바보같이 유저들 우매한 말에 휘둘리는 바보넥슨
5992	일곱살때 시작하였던 첫 게임이 넥슨의 '바람의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초글링이라는 별명으로, 여성임을 유의미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초등학생 생활을 거치며 메이플과 마비노기,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국내는 라이센스 서비스 중인 파이널 판타지 14 등의 수많은 게임을 하면서 여성유저임을 숨겨야 했습니다. 제가 여성유저임을 밝혔던 어떤 곳에서는 스무살 넘게 차이나는 남성분께서 성적 농담을 한 뒤 못알아 들었지? 라는 장난을 쳤습니다. 혹은 저를 같이 게임하며 1 인분의 역할을 하는 파티원보다는 연애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들과 함께 하는 게임을 즐겼고, 삶의 일부엔 게임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달리 나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정말 성별과 체형 타고난 체질들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할 수 있으며 협동하는 성공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성별을 문제 삼아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린다면, 세계를 바꾸려한다면요.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치와 상반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하고 싶은 말입니다. 두번째로, 저는 노동자입니다. 엄연히 노동을 하고 돈을 받아 사랑하는 세상에 쓰길 주저하지 않았던 노동자요. 제가 그렇게 벌어왔듯, 제가 쓴 돈을 어떻게 쓰는 지는 결국 회사의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책임을 지는 책임자 급이 아닌, 가장아래 하청과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직급이름이 책임자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해당 책임이 부당해 보인다면 문제 제기부터 부당했던게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런지요.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멀지 않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피해자들-김자연 성우님과 프로젝트문 림버스컴퍼니의 벨모리 작가님, 뿌리스튜디오 등-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작품에 정치색을 담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단,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해주십시오. 가장 바른 길, 선한 길을 단정지으란 것이 아닙니다. 고민의 흔적, 윤리의 최선이 있다면 충분히 기쁠겁니다. 벅찰테고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모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5993	당신들이 억지를 받아줘서 일어난 참사다.모든걸 제자리로 돌려놔라.

5994	이번 일처럼 무식하게 대응한다면 넥슨, 나아가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혐오를 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번 더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배우고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워 우기지만 말고 반성할 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5995	사실확인도 제대로하지않고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누군가의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하지않을까요?
5996	말도안되는 트집 잡아서 이러는거야말로 여성혐오아닌지.
5997	넥슨은 여성혐오로 일관하는 나태하고 방만한 운영 타파하라
5998	정신 좀 차려라
5999	여성혐오자임을 인정하는 넥슨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6000	대기업에서 소수 커뮤니티의 의견 하나 가지고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부리며 손동작 하나로 무고한 사람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기업이라는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 맞습니까? 더이상의 한국 게임업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젠 사소한거 하나라도 마음에 안든다면 그 커뮤티티 집단은 또 발악할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넥슨을 시작으로 넷마블에서도 이런 게임업계 부당해고가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동작 하나로 무고한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고요. 이게 맞는 선택입니까? 직원을 부당해고할만큼 그 손동작 하나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제스쳐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억지 논란으로 소수 커뮤니티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시작된 사건을 이런식으로 해결하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젠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전처럼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을 만들어서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겠지요. "그전엔 했는데 왜 안해줌?" 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도태된 유저같지도 않은 유저들과 그렇게 서로를 부등켜안고 썩어들어가시는 선택을 하신것을.
6001	남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트집에 맞장구 치고 대응 좀 하지마세요 그렇게 해주니까 별 말도 안되는 것도 다 가져와서 메갈이니 페미니 남성혐오니 하지 않습니까 일본 게임회사 대응 좀 보고 배우세요 여성의 생존권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당신들에게 조언하기 싫으나 억지 요구를 무시로 일관한 일본 게임 회사에는 한국 남성들이 그 이상 난리치지 않습니다
6002	일부 유저들의 억지떼쓰기 좀 그만 받아주세요. 뭐하는 짓인지
6003	저열하고 수준 낮은 혐오사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6004	억지에 굴하지 말고 의연히 미래를 헤아리세요
6005	진상손님의 말을 들어주는 가게는 필시 진상아닌 손님의 발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고이고 고여 썩어버린 곳을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게이머는 진상이다라는 공식을 만드는것은 당신들입니다. 제발 '상식적인' 행보를 보이십시오.
6006	불법적인 마녀사냥을 멈추세요. 이 무슨 짓거리인가요.
6007	여성혐오기업 엎드려사죄하라
6008	넥슨게임 많이 했던 여성유저인데, 페미로 몰아가는 남성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야했나 싶네요. 그동안 질렀던 현질 다 환불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6009	커뮤니티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한국 게임업계의 이성적인 행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6010	페미니즘은 혐오 사상이 아니라는 말은 언제까지 무시하고 진짜 혐오를 위한 집단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 동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차별주의 회사가 되어가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6011	여성혐오를 멈추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6012	한국의 게임업계에서 여성이 여성인권을 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여성이란 이유로 공격받아야 하나요? 강력한 대응을 통해 다시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6013	어제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당신네들이 게임업계의 부조리를 알려준 덕에 오늘부터는 아니니까요.
6014	10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동안 바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 믿습니다. 부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015	작작하세요
6016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사상검증 및 억압을 멈춰라
6017	페미니즘 개념에 대해 좀 다시 배우세요.
6018	멍청하다 멍청해
6019	게임은 자유롭게, 현실은 상식에 맞게
6020	계속해서 인셀들 말 들어줬다가는 망할 것이니 처신 잘하시길
6021	어거지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해하려하지말라 성인권감수성 교육을받고 사과문과 추후개선을 말하라
6022	직원사상검증 및 부당해고 금지
6023	제대로 살아
6024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을 가지고 사상검증을 하다뇨?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가지고 테러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측에서는 그 내용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발 빠르게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해명을 잘해주는 곳이 없네요. 한편으로는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온갖 여혐 단어로 범벅 된 채 몇십 년을 살고 지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당연시하게 여기고 밈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고작 그 손가락 모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기가 지금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맞나요? 억지스러운 사상을 가지고 멀쩡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셀남들이 벌이는 폭리를 들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넥슨은 그걸 그저 들어주고 해명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이후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추후 모든 기업들과 취업을 해야 하는 2,30 대 취준생들과 소비자들이 겪고 감당해야 합니다. 넥슨을 포함한 모든 국내 기업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이상한 선례를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6025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수준의 게임 대기업이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고 대처 또한 말이 나오지도 않을 만큼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게임을 못한다, 게임에 돈을 안 쓴다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떠도는 데에 기업이 동의를 표한 바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행보입니다. 언제까지고 대기업일 수 있다는 착각은 그만두고 대기업이면 대기업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6026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6027	일부 악질적인 민원에 불과한 의견을 따라 억지논란을 더 불거지게 하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그로 인해 회사 내부 및 외부의 프리랜서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와 유저들에게 공격이 행하지 않도록 협조하십시오. 이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누가 진정으로 혐오를 조장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6028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집게손가락 태어났을 때부터 다들 아무렇지 않게 쓰고 살았잖아요. 선조의 선조의 선조를 넘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부터 집게손가락 썼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까.
6029	페미니즘은 혐오가 아닙니다
6030	저번 프문 사태에 이어 계속되는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 및 남성 유저들의 악성 민원 사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6031	게임 제작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저의 주장(1. 집게 손이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며 2.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집게 손을 게임에 숨겼다)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일부의 허황된 생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게임에 투여된 모든 창작자들의 노력을 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를 멈추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게임 제작에 함께하는 동료이자 노동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6032	일부 인셀들의 억지주장에 귀기울여주는 행위를 그만하길 바랍니다.
6033	상식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6034	그저 여성을 억압하고 싶은 억지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을 멈춰주세요.
6035	그렇게 2030 남자들의 헛소리를 들어주다보면 언젠가 마주칠 것이다. 자기들이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인지를. 일베가 판을 칠때도 일베 손가락 했다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다. 왜? 그 직원은 남자였으니까. 일베와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불손 사상 집단이라고 여기는 페미는 잘랐다. 왜? 그 직원은 여자였으니까. 언제까지 남자들의 징징거림을 더 받아줘야 할까? 게임의 발전보다 걔가 페미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업계는 퇴보할 수밖에없다
6036	부끄러운 줄 아세요
6037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에 굴복한 넥슨 및 기타 기업들을 규탄한다
6038	성차별적인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6039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6040	클로저스 사태로부터 10 년. 그동안 분위기로, 기록이 남지 못할 면접으로, 사내 스몰토크로 여성들을 압박하고 목소리를 조롱한 역사에 동참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알도록 하세요.
6041	지역혐오와 여성혐오는 방관했으면서 남성혐오(라 고 일부 유저들이 착각한 것)에만 즉각 반응하다니 실망스럽습니다. 메이플의 대처가 과연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대처가 맞을까요?

6042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 및 여성차별 이번에야말로 근절해야 될 때입니다.
6043	혐오에 혐오로 응답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억지 논란으로 불거진 실체 없는 혐오에 동조하며 여성 노동자의 실재하는 직접적인 노동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넥슨의 행동은 시대의 요구와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게임산업을 도태시킬 뿐이다.
6044	게임업계는 얼토당토 않는 혐오 몰이를 그만둬라. 더 나아가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라.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사상이 아니며,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삶을 원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다. 이를 어찌 혐오라 명명하며 탄압하려 드는가.
6045	현재 게임업계에 만연한 유저들의 악성 민원은 게임 내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에 불과합니다. 목소리가 큰 소수의 불합리한 주장이 대중의 생각과 같다고 속단해 행동한들, 돌아오는 것은 더한 갑질과 떠나가는 유저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부디 게임업계는 이런 억지 주장에 굽히지 않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6046	말도 안되는 망상짓으로 횡포를 해대는 남초 커뮤니티와 유저들에게 놀아나고 사과를 해대는 짓들이 너무 한심하고 역겹습니다.
6047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남초의 유희거리를 위해 여성을 희생양 삼지 말고 그들의 말도 안되는 궤변에 귀기울이지 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라.
6048	남성 유저들이 어거지로 떼 쓰는 요청 사항이나 문의는 이렇게 빨리 피드백하시고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무시하시는 점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님들도 이러려고 엔버 리마스터한 거 아니잖습니까 어거지로 보이는 행동들은 적당히 무시하라고요 지들 입김이 센 줄 알잖아요
6049	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게임에 돈 안쓸게요
6050	일부 남성유저들의 망상에 불과한 주장에 힘을 싣지 마십시오. 일부 유저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남성혐오라는 개념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6051	개인이 봐도 몰상식하고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힌 OO 들로 보이는데 기업이 이를 반응해주고 용인,사과하면서 OO 들에게 힘을실어주고 있네요 개인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할수 있지만 기업은 철학, 소신 ,윤리,등 있어야하지않나요? 넥슨은 저런자들에게 동조하는 기업이군요. 참.........그........네네 그렇군요
6052	억지 트집에 납작 엎드려 우리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며 당당하게 본인들이 성차별주의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꼴을 보니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 게임이 왜 날이 갈수록 방구석 여포들의 전유물로 도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주셨네요. 적어도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부당해고를 할 거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이길래 당당하게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해당 직원이 페미니즘적 발언을 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또 애초에 의도적으로 넣지도 않았을 그 손가락이 어떤 이유로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상징물이 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여자 지갑에서 돈 빼 갈 생각은 마시고요.

6053	게임사가 게임커뮤니티 신경쓰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만 사는 사람들이고 거의 모든 유저들은 그런 곳을 이용하지 않음, 설령 이용한다 한들 눈팅으로 정보만 공유합니다. 인벤이 세상에 전부라 생각하지 말길. 특히 기업이 일부 극성 남자들의 억지 주장에 넘어가는 꼴도 한심하지만 페미니즘을 혐오주의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혐오를 혐오하는 단순 여성인권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평범한 남성들이 '역차별은 부당하다.' 혹은 '아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잠시 동안 역차별이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남초 커뮤니티에선 '남자가 차별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연애, 취업, 학업 등 인생에서 성공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인의 무능함에서 찾지 않고 타인을 혐오하는 것으로 굴절혐오를 하고 있다. 꼰대탓, 586 탓, 페미탓, 맘충탓, 알파메일탓, 김여사탓, 스윗한남탓, 퐁퐁탓.. 2030 찌질이들이 뭉쳐 자신을 제외한 모든 그룹을 혐오하는 자들이 혐오주의자인가?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페미니즘이 혐오주의자인가? 또한, 인벤의 요구를 응했지만 인벤이 넥슨을 옹호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들에게 만족은 없다. 이번 일도 아직도 욕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모든 여성과 스윗한남이 해고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이 끝나면 괜찮아질까?? 아니다 그 어떤 일이든 매일, 매주, 매달 운영진을 욕하고 있을 것이다. 이 극성 열등감 집단의 의견을 매번 들어줄 것인가?
6054	우선 페미니즘은 딘순한 남성혐오가 아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게 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집게 손'은 '남초 커뮤니티', 즉 남성들이 모여 만든 단체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집게 손'에 남성 성기와 관련된 조롱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도 전부 남성들입니다. 보통의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무차별적인 남성혐오를 일삼지도 않습니다. 또 현재 남성 유저들이 '집게 손'이라 주장하는 손 모양의 경우에는 여러 장의 그림을 이어 그려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동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든 동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약 0.1 초가량 내지인 1 프레임 동안 나타났고, 이 '집게 손' 모양에 남성 혐오 의식이 들어갔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억지논란에 휘둘려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며 사상검증을 하고, 홍보물을 비공개하며, 애니메이터를 부당해고하는 일은 명벽히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게임업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55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현실에 애도를 표합니다
6056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배척한 유저들에게 살려달라고 손 뻗을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선 늦었겠지만 말입니다
6057	여자도 유저입니다
6058	말도 안되는 생 떼 좀 그만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6059	말도안되는 억지논란입니다
6060	정신 좀 차리세요
6061	그렇게 사소하고 어처구니 없는, 떼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요구사항들 다 받아주다간 게임 안에서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엇도 만들지 못 할겁니다.
6062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 무지성적인 여혐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 내 여성유저들이 받는 피해를 제발 게임사에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6063	넥슨의 여성혐오 선도를 규탄합니다.
6064	장난합니까?전국민이 메갈이라고 어거지 쓰지 그냥.
6065	이참에 게임업계의 썩은곳들을 전부 불태우자
6066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사과할 일이고 해고 이유로 정당하다고 발언하는 것은 여성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한 성차별 행위이다. 억지트집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곡해하고 본인들의 "기분나쁨"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려드는 일부악성유저들의 생각없는 의견을 이처럼 계속해서 수용한다면 넥슨 및 게임업계의 미래는 목소리만 큰 반사회적집단과의 공멸뿐일 것이다.
6067	서로가 공생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만을 비정상적으로 강요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오래가겠습니까
6068	2016 프린스 티셔츠부터 시작된 게입업계의 추락 고이고 고여서 자기들이 하는짓에 낄낄대다가 침몰하는 배인줄도 모른는 상황이 안타깝다.
6069	넥슨은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스태프의 설 발판을 부숴버리겠다고 쪼르르 몰려간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3 년이 됐는데도 국내 게임업계의 젠더 감수성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데에 크게 실망했다. 이들은 몇십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않을 것 같다.
6070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원하는가?
6071	아니 손모양갖고 왜그래요? 설령 그게 페미표식이래도 페미가 뭐가 나쁩니까? 성평등을 추구하는건데요. 성차별주의자십니까?
6072	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행위를 멈춰라
6073	남성혐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말 같지 않은 트집을 잡으며 한 사람의 생계를, 삶을,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자 한다면 당신들은 기업의 자격을 떠나 사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 게임업계의 행보는 일부 집단의 투정을 지금과 같이 계속 들어준다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발전은 커녕 퇴보만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6074	인간답게 합시다 좀
6075	여자 캐릭터 팔아 먹고 여자 캐릭터에 환장하면서 현실에서는 혐오만 하는 찌질이들아!!!
6076	마녀사냥을 중단하세요.
6077	휴..
6078	게임업계는 노동자의 성별을 바탕으로 사상을 검증하고, 성차별을 타파하는 페미니즘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추라!!!
6079	엔씨처럼 주가 반토막 나야 정신차리니

6080	페미니즘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윤리이며 반사회적 악성 유저를 멀리하라.
6081	비상식적인 억지 논리로 마녀사냥은 그만하길.
6082	억지스러운 여성 혐오 주장으로 불필요한 검열과 마녀사냥을 멈춰야 합니다
6083	페미니즘은 인권운동이며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084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에서 혐오발언, 무지성 논박을 내세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세력들의 발언으로 인해 여러 기업이 굽신거린다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혐오세력의 편을 드는 것이다. 모두가 재밌고 평화로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6085	사실적 근거가 전무한 억지 논리 및 우기기에 굴복하여 여성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6086	2016 년 클로저스 김자연 성우 사상검증 사건을 시작으로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이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나갔고 약 7 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사상검증으로 생계를 잃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사상검증의 시작을 끊음 넥슨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6087	이번의 행보는 여성 유저들의 이탈 뿐만이 아니라 여성 개발자의 구인 또한 어렵게 만드는 자승자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넥슨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근래에 나오는 게임 시스템이라고 하면 골조는 모두 비슷하고, 각 게임 경쟁력의 많은 부분을 여초 직군인 아트 분야에 의존하는 만큼 여성 직원의 구인이 어려워진다면 회사의 생존 또한 치명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6088	억지 그만 부리시오
6089	게임업계는 페미니즘 사상검열, 노동권 침해 중단하라
6090	넥슨은 더 이상 여성 노동자들에게 사상검증과 마녀사냥을 자행하지 마라!
6091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무력하고 지긋지긋하다.
6092	사상검증으로 해직이 사측에 전권이양된다면 앞으로 종교 정치 모든 곳으로 퍼질 것입니다. 개인은 사상의 자유를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인가요?
6093	인권 위에 기분권이 있는 경우라니 참 새롭군요
6094	페미니즘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인데 넥슨은 공개적으로 성평등을 거부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또 집게손가락의 의미가 왜 특정 사상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통한 후속조치를 공표하라.
6095	정신차리세요
6096	일부유저들의 억지에 넘어가 집게 손가락의 의미를 오인하지 말아주세요
6097	게임업계에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여혐, 페미니즘 혐오 규탄합니다.
6098	넥슨 및 게임 업계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6099	말도안되는 억지좀 그만 받아주세요.
6100	말도안되는걸 받아주면 이상한 사람들밖에 안남습니다.

6101	말도 안되는 일로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여주지 마세요
6102	넥슨 망해라
6103	저는 넥슨에서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메이플스토리를 하던 유저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11 월 16 일 엔젤릭버스터 캐릭터의 리마스터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게임 내 재화 수급처에서 많은 재화가 풀리고 있어서 재화를 줄인다고 하였고, 그에 따른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버간의 차별이 느껴진다며 많은 이들이 거의 1 년을 넘게 분노하며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과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운영하며 이게 맞다며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엔젤릭버스터의 0.1 초, 그리고 새로나온 노래의 성우가 SNS 에 올린 겨우 몇글자에 사람들이 분노하자 넥슨은 정말 빠르게 답을 주었습니다. 간담회 이후로 약속한 주기적인 밸런스 패치, 서버 간의 갈등 등 무엇에도 대답해주지 않던 게임이 겨우 이런 일에는 정말 빠르게 답변을 주신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게임 업계가 원래 남성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넥슨에서 앞장서서 여성의 SNS 를 사찰하는 사상검증과 말도 안되는 논리로 트집잡는 부당해고를 함께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7 월에 일어난 '프로젝트 문'의 림버스 컴퍼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빠르게 반복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6104	잘못이 아닌 것에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105	어차피 이제 한국게임산업은 도태될 일만 남은 것 같아 접은지는 좀 됐지만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다른 문제라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네요 대체 그 그림이 무슨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트집잡고 흠집내기에 목소리내는것도 모자라 거기에 장단맞춰 한술 더 뜨는 게임사도 환멸이 납니다
6106	정신차리세요
6107	넥슨 계열 게임에 만연한 여성혐오는 방관하면서 일부 집단이 남성혐오라고 주장할 뿐인 허상에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넥슨 직원이 회사 이름을 달고 타인에게 아주 무례한 모욕을 퍼부었던데 대처할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성인권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계획이라면 아예 게임 화면과 관련 웹사이트 등에 '본 게임은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안내문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 가지로 전부 기입하십시오.
6108	일부 유저의 착각과 짜깁기 캡쳐에 대처하는 넥슨의 방식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6109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편승하여 행하는 여성혐오를 멈춰라

6110	집게 손가락이 페미니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지 않고, '페미니즘=절대악'으로 치부하며 혐오몰이 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한국 남성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창조된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며 페미니즘의 혐오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무지성으로 '집게손가락=페미니즘'이라 외치며 규탄해야한다고 하는 다섯살 짜리나 할 법한 한국남성들의 일명 떼쓰기를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111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란 말입니까
6112	일베 회원부터 자르고 잘라라. 여기가 무슨 독재국가냐.
6113	여성혐오를 반대합니다.
6114	음지인셀논란을 응대해 양지화하지 말라
6115	노동법이 장난입니까? 고작 프레임 하나로 근로자 사상검증 하는 꼴 우습지도 않네요. 특이한 손동작도 아니고 기본 이모티콘으로 있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손동작을 특정 사상으로 몰아가는 인간들도 무식 그 자체지만 그에 동조하는 기업은 더 멍청해보이네요. 여성 검열, 그리고 노동자 검열 하는 블랙 기업이야말로 사상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6116	상식이 통하는 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117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6118	좀 작작해라
6119	부당한 사상검증으로 노동권을 위협하는 데 동조하는 걸 멈추세요
6120	혐오를 넘자
6121	우물 안의 개구리
6122	도태되지마시길
6123	가장 싼 값이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6124	인셀의 사상 검열 ^놀이^에 불과한 억지에 편승하여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당 해고가 선례가 되어, 게임업계를 넘은 보편 사회로 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환경 및 문화를 후퇴시킨 넥슨의 선택을 단호히 규탄하며, 뒤늦게라도 바로잡길 바랍니다.
6125	사상검증으로 직원 자르는 행위 좀 멈추자
6126	페미니스트 퇴폐와 혐오가 아닌 넥슨 사내 인식개선 및 일부 일베 펨코 유저들의 사상검증이 더 필요할듯합니다. 왜 남녀노소가 즐기는 대중적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가 일부 혐오에 쩌들은 남자들의 의견만 수용하는것인지?
6127	헛소리에 동조해줄 시간에 건설적 생각을 해봅시다
6128	젠더교육 제대로 받고 정신차리시길
6129	그렇게 막 사상범으로 몰아서 업계 나가게 할 거면 노조는 왜 있습니까?
6130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업계가 발전해나갔으면 합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대신 젠더논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말로 교묘히 논쟁을 흐리고 심각한 성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태 파악에 악영향만 주는 현 업계에 자정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6131	사상검증 OUT

6132	일부 소비자들의 억지스러운 갑질에 기업이 굴복하여 애꿎은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노동탄압과 궤를 함께 합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또한 창작 외주를 업으로 하고 있는 유사업계의 동료 노동자로서 연대합니다.
6133	게임업계인이자 여자 사람으로서 21 세기에 이런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웃기네요...
6134	21 세기에 기업 이윤을 지킨다는 허상으로 혐오정서를 유통하는 게임업계를 바로잡고 더 많은 이를 포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135	여성 혐오를 멈춰라. 페미니즘은 인류가 다 같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6136	진짜 부끄러운줄 아시길.
6137	한심한것을 널리 일려야합니다
6138	넥슨과 게임 업계는 반노동적이고 반여성적인 캔슬 컬쳐를 견인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6139	반여성적, 여성혐오로 가득한 넥슨과 게임업계 때문에 오늘 또 여성인권이 50 년 후퇴하였군요. 바라는게 업계에서의 여성 퇴출인가 봅니다?
6140	악성민원과 다름없는 억지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다니 이게 2023 년에 일어날 일인가??
6141	일베충이나 해고해요
6142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윤, 즉 돈을 벌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넥슨이 국내업계 1 위로 성장하기 까지에 오로지 자력으로만 이루어진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며 돈을 썼던 고객부터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에 사용된 국민의 혈세와 공무원의 노동, 국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은 '선'과 '공익'을 추구할 사회적 책임에 벗어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에 묻고 싶습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선과 공익은 둘째치고 소속된 직원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게임업계의 실체입니까? 사실도 아닌 막무가내 생떼를 부리며 갑질하는 진상 고객들을 잠재우기 위해 직원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함께 매도하고 욕받이로 던져놓는 것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특성입니까? 흔하디 흔한 손가락 제스처 억지에 일일이 일러스트를 수정하고 사과로 대응하는 기업의 끝엔 무엇이 남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같이 성장한 게임유저로서, 이제는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디 요청컨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6143	여성혐오자들의 얼토당토 않은 떼쓰기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앞장서서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하고 있는 한국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6144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놀아나는 기업이 되지 말고 진정한 성평등, 페미니즘을 위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6145	불필요한 사상검증과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행위를 멈춰라. 말도안되는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프레임단위로 일러스트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사과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인지 정말로 모르는가
6146	15 년넘게 귀사에 과금을 해왔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간 게임내에 만연해있던 여성혐오에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참해왔으면서 어째서 의미없는 손동작에는 과도한 의미부여를 해가면서 여성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나요. 공식계정으로 XX 년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올렸던 건 아무리 항의해도 듣질 않더니 이런 어이없는 경우에는 주말에 비상출근까지 하는 그 상대적 노력이 정말 가상하십니다.
6147	넥슨 및 게임업계의 모든 검열의 잣대를 들이미는 그남들이 평생을 유리조각길만 걷길 소원합니다.
6148	이제껏 게임 내외에서 벌어졌던 숱한 여성혐오 욕설과 불링(인겜 속에서의 피싸개, 창녀를 이용한 언어나 그에 이은 힐싸개, 보빨러, 계집들은 게임하면 안 된다 같은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되도않는 억지논란에는 강경대응하니 게임을 오래 해왔던 여성유저로서는 참 허탈하고 화가 나네요 당신들이 그런 억지논란에 불지핀 이들에게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많은 무고한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고 많은 여성 유저들이 위와 같은 언어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고립될 겁니다 남녀노소 즐기는 게임이 되고 싶다더니 영원히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6149	정신차리세요 진짜
6150	사상검증 중단하고 노동자 보호해라
6151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152	집게손가락은 페미니즘의 상징이 아니며... 은밀하게 집게손가락을 그려넣으면서 사상을 표현하는 할짓없는 페미니스트는 없다. ...집게손가락논란은 모두 남초에서 시작한 창조논란일 뿐이다. 제발 좀...
6153	지금 억지 주장하는 놈이나 게임 업계에 있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별 기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논란에 현명하게 대처했던 타 게임(예: 마녀의 샘)을 예시로 들며 보고 배울 생각은 안했냐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알았어도 무시했으려나요. 지금 집게 손가락으로 억지 주장하는 놈들과 같은 애들이니까요

6154	집게 손 포즈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이걸 들어주고 사과하는 넥슨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명 집게 손이라고 하는 포즈는 손에 힘을 뺐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포즈입니다. 아마 엄지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일명 집게손이라는 이 포즈가 됩니다. 이 집게 손은 메갈이 생기기 전의 넥슨사의 그림이나 영상에서도 넥슨사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혐을 의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손동작으로 쓰려는 의도였지요. 일베 손모양 정도로 힘을 주의 의도를 갖고 해야되는 손모양이였으면 이런 쓴소리도 안 합니다. 일단 저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주의, 비건, 동물 생태주의 이런 신념이라도 자기가 다니는 상관없는 회사에 상징과 이념을 넣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치만 이런 집게 손가락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고 특히 뭔가를 집을 때 자주 쓰이는 손모양이지요. 검열 사회 굉장히 피곤하고 솔직히 시대가 역행하는 것 같네요. 또한, 성평등주의자라고 해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속 페미니즘 할 거야 이런 거에서 어디가 남성혐오가 느껴지나요? 그러면 넥슨사는 이제 고용을 할 때 하청 노동자들의 페미니즘 여부도 묻게 되고 배제하게 되나요? 이런 배제 자체가 노동자에게 매우 안 좋아 보여요. 회사가 노동자들의 sns 의 검열을 방치하는 것 또한 그렇고요. 프로젝트 문 사건 때에도 그렇지만 검열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해녀복을 그린 일러레가 남자였고 그 남자의 sns 가 먼저 검열 되었거든요. sns 에서 친한 일러레가 페미인지 아닌지 검열되었고 그것을 혼자 알지 않고 디시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여자 캐릭터의 노출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페미니즘을 의심하고 일러레 sns 를 검열하는 사회 정말로 안 피곤하시나요? 넥슨도 여기에 일조하고 계신 겁니다.
6155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남성의 의견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6156	게임산업속 더 이상 공평하지않은 혐오몰이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6157	게임 업계는 남성 유저의 말도 안되는 억지 요구에 순응하지 말고 직원과 업체 보호에 몰두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고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하며 또한 직원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 시간을 준수할 것
6158	쓸 데 없는 데에 신경쓸 시간 있으면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세요
6159	차라리 엄지손가락을 없애라
6160	2016 년도의 넥슨이나 2023 년도의 넥슨, 발전이 없구나
6161	솔직히 이제 게임업계는 끝났다고 보고있습니다
6162	멍청한 집단에서 주장하는 얘기에 대기업이 힘 실어주는 꼴 우습네요. 넥슨 주 고객층 수준이 멍청이인 걸 잘 알고 있나 보군요? ㅋㅋㅋ 헐레벌떡 장단 맞춰주는 모습 잘 봤습니다
6163	이게 과연 맞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보통의 상식에선 집게손가락은 그냥 사람이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모양중 하나입니다.
6164	게임업계의 여성 대상 마녀사냥이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6165	고작 검지와 엄지 사이에 틈을 둔 것이 남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악성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애니메이션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전에 분명히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컨펌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혐오 표현을 악성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하기 시작하고서야 찾아낸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흔히들 손하트 라고 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손동작 중에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손동작을 찾기 위해 초단위로 끊어내는 그 집요함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혐오표현 동작을 찾아낼 수 없다는 점에 의문을 가집니다. 논리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저 억지만 가득한 의견을 받아들여 표현하지도 않은 사상을 표현했다 누명을 씌우고 누군가를 직장에서 자르는 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삭제된 SNS 계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찾아내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해당 직원을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그 요구를 받아들여 누군가를 직장에서 자르는 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사상을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려야 한다면,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이들이 죿 하는 혐오표현을 쓴 사람들은 어째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버젓이 잘 다니고 있는 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왜 이와 같은 사상검증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6166	여성 종사자 괴롭힘을 멈추세요. 기업의 이윤을 위한부당한 해고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사상과 양심위 자유가 있습니다.
6167	허구한 날 확률 조작에 여성 혐오에 게임 자체의 재미는 잡지도 못하면서 이젠 별 말도 안 되는 제스처 가지고 난리가 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6168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여성노동자를 공격하고 불링하고 생계를 끊는 부당해고, 퇴사압박을 하는 게임업계와 넥슨 일부 유저들의 행동을 적극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며 노동자와 여성을 포함한 인간이라면 천부인권은 물론 헌법상 기본권을 누린다. 헌법 제 19 조 상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헌법 제 32 조 상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인간의 기본 인권을 박탈하려고 공격하고 어떠한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현 게임업계와 일부 유저들은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공공연한 오랜 관행(사상검증, 부당해고, 자유억압)을 더이상 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게임업계의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자신만의 세상과 착각에 빠져 개인이 다른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현 21 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규탄한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일부 유저의 말도 안되는 응석이나 받으며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 퇴사압박을 하는 것에 반성해야 한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것도 모든 민주주의 국가라면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당연히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는것인가? 또한 페미니즘은 사상이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 사안이다. 여성을, 노동자를 인간취급도 하지 않는 게임업계와 일부 유저들은 반성하고 잘못을 통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크게, 깊이 규탄한다.

6169	외국에서도 인셀로 불리는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 주장으로 만들어낸 남성 혐오가 아니라 이미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 대해서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잡았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손가락 하트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불가한 1 프레임 집게 손가락 하나로 남성 혐오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 보다 생명을 위협 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광범위한 여성 혐오는 더욱 쉽게 성립이 될테니 말입니다.
6170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클레임으로 받아주지 마십시오. 페미니즘은 반사회적 의견이 아닌 세계의 주류가 되는 인류 평등을 위한 기본사상입니다.넥슨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스운 대응입니다.
6171	Are you idiot?
6172	개인의 사적인 SNS 염탐과 그를 기반으로 한 사상검증 및 부당 해고를 한 악덕 기업 넥슨과 그에 동조하여 여성 노동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채용 차별을 당당히 밝히는 게임 업계는 반성하라.
6173	언제까지 자연스러운 손짓을 남혐, 페미니즘이라 생각하시나요? 억지논리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2023 년 민주주의 국가, 자신이 어떤 사상인들 존중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동시대의 인물인지 의심이 되는 작자들이네요
6174	식민지 남성성 out
6175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6176	악성클레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악성클레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직원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컨텐츠 생산에 집중하십시오.
6177	소수의 편향된 의견과 억지 논란에 굴복하고 여성 유저는 유저로도 보지 않는 행각을 멈추세요.
617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179	혐오를 동의하고 조장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6180	집게손'은 남성혐오가 아닙니다. '집게손'이 남성혐오라고 페미니즘을 언급하며 여성직원 채용을 차별하고 페미니즘으로 인한 모든 여성들을 배제 하는것이 여성 혐오입니다. 혐오를 멈추세요. 남성혐오는 배척. 여성혐오는 수용입니까?
6181	자정해라
6182	언제까지 저런 헛소리에 동조하고 놀아날 것 인가? 정신차려라.
6183	한때 일러스트와 동화 계열의 직업을 동경했고, 또 꿈꿨던 학생으로서, 올해 큰 이슈가 되었던 일부 누리꾼들의 사이버 테러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대처를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게 꿈을 안겨주었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한심한 자들의 조잡한 망발 때문에 생계 수단을 잃었고, 기업들은 노동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업계 관행은 한국 게임 업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속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 올바른 인식이 퍼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업계에 뛰어들었을 사람들이,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인 사람들이 한심한 혐오주의자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6184	어떻게 7 년전 클로저스 사태가 지나도 변한게 없는가.
6185	노동자를 우습게 보지말아라.

6186	인셀들의 찡찡거림을 그만 귀기울어줬으면 한다.
6187	우선 회사, 기업이라는 곳에서 어느 특정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억지를 만든 손 모양 하나를 보고. 그걸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여 이같은 사태를 만들어낸 것부터 크나큰 실망을 느낍니다. 회사와 기업이 무엇입니까? 전문적이며 직원과 유저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게임 회사 사건에서도 무척이나 실망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전문적인 넥슨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회사 게임을 이십년을 넘게 플레이하고 현금을 사용하고 좋아했던걸까요. 정말 그 특정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대로 여자들은 게임에 과금을 얼마 들이지 않는다고 믿어서인가요? 정말로? 뭐, 그런 것보다 더 단순한 이유겠죠. 회사가 놀이는 아닐진데, 기분에 따라 그런 허황된 말만 믿고 직원들과 외부 업체를 갈아대며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말도 안되는 혐오의 물결에 앞장서서 모두를 이끌고 함께하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외부 업체를 보호하지도 않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저들만 보호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네요. 여러분은 여자만 차별하는게 아닙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유저들만 보호하니 사실상 그 커뮤니티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다른 남자 유저들도 차별하고 있다는겁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커뮤니티 유저들을 제외한 모든 유저들을 차별하는거죠. 그들만이 당신들의 세상입니까? 그들만이 진정한 유저입니까? 그들만이 진정한 직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게임 서비스를 하는 모든 나라에 토시하나 바꾸지 말고 온전하게 대한민국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올리세요. 그들만을 위하니 전세계에도 알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하러 손가락 장난을 하며 삽니까. 그런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쓴 적도 없고 안적도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 덕분에 그 특정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손동작을 마치 악의적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듯 사용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걸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심지어 그 손동작의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느끼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간식을 먹을때,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동작에서도 보이면 남성혐오입니까? 그렇다면 전세계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성혐오를 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만든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부끄럽고 끔찍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한적 없었는데. 당신들이 어떤 위치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과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6188	넥슨은 2016 년도의 과오를 반복하며 게임계에 혁신이 아닌 병폐를 불러오고 있다. 스스로는 변하지 못할 모양이니 상식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
6189	사삼검증 마녀사냥 반대합니다.
6190	인권과 노동권 침해와 의도적 괴롭힘을 동의하는 행위를 반성하고 중지하라
6191	게임을 사랑하는 소비자로서 이번 일련의 사태를 주도한 회사 측에 환멸을 느낍니다. 여성과 노동자를 폄하하는 분위기를 확대재생산시키는 데 일조한 현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6192	개인의 사상을 검열하며 성차별을 지지하고 집원을 억압하는 것을 그만둬주십시오
6193	정신차리세요. 집게손이 사람 죽였습니까?

6194	사상 검증을 반대합니다
6195	페미니스트 혐오규탄합니다 집게손이슈를 주장하는 일부남성들에게 한 회사가 휘둘리는게 말이 됩니까? 정신차리고 운영똑바로하시길
6196	억지논란으로 사람을 부당해고하거나 사과문을 쓰게 하고, 특정성별을 뽑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6197	현 상황이 과거 서프러제트들을 비판하던 남성들과 같네요.
6198	자연스러운 손동작에 어떠한 사상을 주입하고 그것이 악하다 규탄하는것은 일부 혐오세력이 의도적으로 분탕질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상 혹은 이념으로 해고 혹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것이 기본적인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회사에 제대로 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6199	악성유저에 휘둘리지않고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6200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6201	이런 억지를 계속 받아주는 건 버릇만 나빠집니다
6202	혐오 조장을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6203	제 희망 직종인 만화/애니메이션업계에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이 제발 좋은 방향으로 수습되어 미래를 향하는 학생들에게 불안하고 어두운 길목보다 선하고 밝은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6204	대체 세상 어느나라가 개인사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까 아니지 딱 둘있네요 북한이랑 중국. 장난합니까? 지금이 70 년대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땐데 사상검열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논리면 일베성향드러낸 직원들도 잘랐어야죠 그건 불건전한 개인사상이 아닌가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게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현실이라는것에 통탄할 따름입니다.
6205	여성혐오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지 마라!
6206	페미니즘 겁내지 말고, 제발 현명한 결정 합시다.
6207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208	소수자를 공격하는 진짜 혐오세력인 레디컬 단체 워마드인지 확인조차 안된 사항인데다 추정에 불과한 해석으로 페미니스트를 위와같은 혐오세력으로 일반화해 연관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사상 검증을 유도하게끔 하는 지금의 방식을 수년 전부터 고민없이 몇번이고 받아들이고 권장하나 싶을정도의 행태인 넥슨에게 실망감은 이미 있었으나.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집게손을 검열하는 리스트까지 만들어 올리는 현상황을 보며 20 년간 당사의 게임을 해오던 게이머로써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10 대 20 대 남성들의 게임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게임사로 남아주십시오. 대표적인 기업이 이런식으로 밖에 대처를 못하면 업계 전체가 썩어갑니다.
6209	메이플을 즐기는 한 유저로써 넥슨의 이번 조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6210	페미니즘 여성 혐오를 당장 멈춰라

6211	생떼를 언제까지 들어주실 겁니까.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6212	남성들의 말도안되는 논리를 지지해주는 기업들의 멍청한 행보를 규탄한다. 여성혐오를 멈춰라.
6213	못난 남성성을 여성에게 투영하여 못난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214	언제까지 일부 유저의 허위 피해망상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놀아날 생각인가! 넥슨과 게임업계 규탄한다!
6215	꼭 정부한테 크게 혼나길 바란다 트렌드도 못따라가는 놈들
6216	넥슨은 정신차려라! 언제까지 도태인셀남들의 말에 넘어가 여성 사원들을 자를 것이냐 2016 년엔 니네 마음대로 잘라도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2023 년이다.
6217	디시인사이드 같은 특정 사이트의 억지 논리에 인해 작업물을 삭제하고 부당하게 여성노동자를 해고 하는 행위를 그만둬라
6218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블랙컨슈머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게임업계는 문제를 해명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6219	근거도 없는 주장에 대응하며 근로자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확률에 대한 유저들의 의문과 핵사용등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응하였는데 이번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으며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6220	일부 억지 논란에 의해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어간다
6221	남초 인셀 집단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것은 넥슨도 그 집단이기 때문 아닐까요? 스스로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6222	편협한 생각으로 게임 만들지 마세요, 집게손이 페미니즘의 상징이라는 근거를 논리비약 없이 제대로 제시해보세요, 언제까지 억지 논란에 적극적인 반응 보이시면서 부당해고 하실건가요? 넥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걸로 아는데ㅋㅋ
6223	여자도 안전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6224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6225	상식적이지 못한 억지 의견을 받아들여 여성혐오와 사상검증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신변을 위협하는 짓을 그만둬주십시오.
6226	안티페미니즘 기업 넥슨을 규탄한다
6227	게임내에서 문제되는것들은 바로바로 대응안하면서 이딴 정신나간짓에 장작넣어서 시선돌리는짓 하지마세요.
6228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을 수용하여 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시키는 행위가 일말의 사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의문입니다.
6229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230	정상적으로 좀 삽시다
6231	넥슨은 사상검증 및 개인에 대한 무책임한 마녀사냥에 동참한 내용을 사과하고 즉각 시정해야합니다.
6232	이러한 비정상적인 소수 커뮤니티의 의견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우려됩니다. 여성 혹은 양성평등 노동자에 대한 개인 사상검증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블평등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6233	여성 마녀사냥 할 시간에 소아성애자 그림 그리는 직원이나 해고하십시오
6234	인셀남들 개소리에 놀아날거면 안티페미니즘 선언문 영어로 써서 공지하라.
6235	혐오인지 모르는 것도 혐오입니다.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자리, 받으나마나한 월급 아닙니까? 성평등 교육부터 받으십시오. 모 의사가 정작 정신병원에 와야하는 사람은 안 오고 피해자만 주야장천 온답니다. 페미니즘은 당신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6236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집게 손들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시 인사이드에서는 억지로 의미를 붙여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넥슨은 그것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할 필요도 없는데 사과를 함으로써, 여성 유저들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성 유저도 유저입니다. 부디 여성 혐오세력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아주세요.
6237	집게손이 문제면 꽃게도 페미라고 해보시지
6238	본인들의 심기를 거슬렀다며 말도 안되는 생떼를 제발 그만둬주세요... 거기 장단맞춰주면서 죄없는 직원을 징계처리하거나 배제하는일도 그만 보고싶어요..
6239	억지논란에 동의함으로서 얻는게 무엇인가
6240	정신차리세요
6241	노동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적을 알수 없이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분노합니다.
6242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243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주고 있어야하는지가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네요
6244	이 모든 상황이 몹시 한탄스럽습니다.
6245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게임업계, 여성 차별의 선발대이며 혐오범죄의 시발점입니다
6246	페미니즘이 어떤 것인지 적어도 공부라도 하고 배척하든 말든 결정하라.
6247	여성유저를 사람으로 대하라!
6248	게임업계는 인셀들의 억지논란 생성해서 징징대는거 다 받아주시다간 정말 ‘그’ 유저들 빼곤 아무도 안하는 게임 되니까 처신 잘하시길... 어짜피 남초업계에다 대부분 직원들 사상도 그밥에 그나물이라 여론파악도 제대로 못하실듯 하지만요ㅎㅎ
6249	한때 넥슨 직원이었습니다 게임업계에 종사하는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부끄럽네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보면 일애니꼴이 납니다. 좋은 기업이었습니다만 점점 수치스러운 기업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6250	페미니즘이 어째서 사상검증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운동가들은 다 사상검증 대상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차별을 하고 싶으면 대놓고 여성 채용 제외, 여성차별 찬성이라고 크게 홍보하세요
6251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6252	제정신 아닌 트집에 사사건건 반응하지 않아 주셨음 합니다. 말도 안되는 트집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페미니즘은 남자를 혐오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집게손 또한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한 페미니스트들은 기업 단위 일러스트에 남성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집게손을 우겨넣으며 사상을 전파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포는 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그 누가 '남성혐오사상인 페미니즘'을 0.1 초 프레임에 집어넣고는 오늘도 한 건 했다며 남성들의 일자리를, 목숨을 위협한단 말입니까? 제정신인 우리는 이것이 생트집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업계에 남성 구매자가 월등히 많으니 그들의 말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일일이 사과문을 적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하셨겠지요. 축하합니다.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려는 세계의 행보에서 열 걸음 멀어지셨습니다. 부디 귀사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과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모든 입장문을 전 세계에 알려 떼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6253	검지 엄지가 좁혀져있기만 해도 혐오표현으로 낙인찍고 애니메이터에게 갑질하실거라면 앞으로 출시할 캐릭터들은 다 엄지없이 출시하시길 바랍니다.
6254	전공이자 취미로써 사람의 인체구조상 나올수 밖에 없는 손동작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위해 없이 빈수레만 요란한 구세력 집단의 남성혐오가 전혀 다른 페미니스트 집단의 특정 의도가 있을것이라고 몰아가는 악성유저의 말을 곧대로 반영하며 회사측 노동자에게 정신적압박을 가하는 넥슨을 규탄합니다
6255	혐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이를 반드시 명시해주시길 바랍니다.
6256	넥슨은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몰이, 사상검증과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그 모든 것을 멈춰라 게임업계에 있는 노동자 착취, 이제는 놀이가 된 페미니즘 혐오 몰이와 사상검증을 뿌리 뽑길 바랍니다. 림버스 사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참 유감입니다.
6257	억지논란으로 부당 계약 해지를 멈춰라
6258	1 프레임(약 0.1 초)에 해당하는, 전후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 시키기 위한 동화 안에,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혐오적 표현을 포함했다는 주장은 극히 억지스럽고 우스꽝스럽다. 소수의 이용자들이 주장한 의의는 당신네들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만한 것이었고,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넥슨은 그러지 않았다. 넥슨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머리를 숙였기에 한 직장인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직장인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담당 직원이 만든 작품 중 그 "혐오 표현"이 그려진 짧은 장면들을 찾아내기 위해 합의되지 않은 노동을 강요했다. 또한 이 사건은 커다란 기업이 머리를 숙인 사건으로 남아 훗날 그 문제의 이용자들이 더 말도 안 되는 논란을 가져올 확률을 몹시도 높혔다. 넥슨은 해당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설령 정말 페미니즘이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작품 삭제, 해고 등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결코 범죄가 아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떳떳하다. 우리는 결코 혐오를 조장하지 않았다! 페미니즘에 대한 처벌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상에 대한 처벌은 없어야 한다! 기억하라!
6259	쓸데없는 사상검증 그만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6260	페미니즘의 의미를 멋대로 왜곡하고 해치려하지마세요.
6261	손가락으로 억지논란 만들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동을 멈춰주세요
6262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하세요
6263	이 세상에 남혐이라는건 없습니다 오로지 약자혐오만 존재할뿐 남혐이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이 곧 여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을 하는 여성유저는 없나요? 넥슨에 여성 직원은 없나요? 혐오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될일 굳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일부 남자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흔들리는 넥슨 보잘것 없습니다
6264	넥슨은 반페미니즘과 사상검증을 선동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6265	한국의 게임업계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만들고 싶은 건가요?
6266	여성혐오적 발언을 긍정하며 개인의 사상을 제단하며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삼가하여 주십시오.
6267	넥슨 온갖 사건이 다 터져도 보고만 있었는데 이번 일은 크게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나
6268	사회의 비상식적인 집단에 대한 저자세 반응을 제발 보이지 마세요. 한국 게임업계의 대기업이 이런 대응을 한 것이 무척이나 개탄스럽습니다.
6269	16 년 이후로 더 악화된 넥슨의 어거지 사상 검증 규탄한다
6270	넥슨 같은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는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271	늘 응원합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72	여성혐오 주도하는 게임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6273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례가 생기면 잘못된 것은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6274	먹금하면 편해집니다
6275	그 손가락이 문제라면 대체 왜 대놓고 혐오이며 욕설인 채팅과 닉네임은 처벌하지않는건지, 아동대상 성범죄 만화를 그린 작가는 계속 협업중인지 궁금합니다.
6276	말도 안 되는 억지 들어주며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6277	억지논란에 과잉대응 하지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잉대응을 할수록 게임업계는 점점 도태될 것 입니다.
6278	메이플이라는 게임이 지향하던 내용과는 다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6279	언제까지 게임계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불평등을 모른척 밀고나갈 생각인가요?? 여성유저에게 돈은 벌고 싶지만 차별은 하고 싶단건가요?? 게임은 남자만의 전유물이고 여자들은 전부 무임승차자로 보이나요??
6280	억지 논란에 무대응도 아닌 여성 직원을 먹잇감처럼 던지는 행위 이제 그만해라!
6281	정신차리세요
6282	성차별 그만하고 헐벗은 여성캐릭터도 성적제스쳐 취하는 여성캐릭터도 그만만드시요

6283	어느 집단의 혐오가 훨씬 심각하다 생각하십니까? 페미니스트가 사회의 악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여성인권향상에 대한 언급이 그리도 이상한 말이었나요 당신들의 기분이 상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이해해보려 노력하신 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즐겨야하는 게임에서도 여성혐오가 남발하는데 게임업계의 대기업 쪽에서 여성 개발진 및 관련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신상을 털어 사이버불링을 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망했음 좋겠습니다
6284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누구든 제지하고 억압받을 수 없다 생각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검증에 사로잡혀 상식에서 벗어난 그들의 발언에 놀아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해주길 바랍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앞으로의 게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지 정말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6285	개인적인 사상에 따라 노동자를 핍박하는 것은 멈춰야한다.
6286	저런 엉터리 논란을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만들어주지 맙시다.
6287	많은 이들의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줬던 게임 회사들이 누구도 만족시킬수없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게된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부디 세계적 추세에 맞는 더 나은 회사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6288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6289	생각들 좀 하세요
6290	1.해당 애니메이터가 말한 것은 페미니즘을 하겠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한다는 것과 작품에 남성 혐오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힌 손 모양을 그려 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넥슨은 접힌 손가락 모양 집게 손가락은 곧 남성혐오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그것이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로만 해석 할 수 밖에 없다는 억지 주장을 들어주었다. 3.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얼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혐오범죄로 까지 이어졌다. 숏컷 여성을 페미니스트 아니냐며 폭행한 사건이다. 그런 와중에 넥슨이라는 대기업은 이들 극잔적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넥슨의 영향력으로 볼 때 이는 반사회적 세계관과 행위를 게임계와 우리 사회가 묵인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4. 이들의 혐오 놀이는 제지 되어야만 한다.
6291	나라망신.
6292	집단 망상을 멈추고 여성 노동권 보장하라
6293	정말 진짜로 남성비하를 목적으로 집게손 모양을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진짜 상종도 안하고 싶으니까 평소에도 티좀 내고 다녀주세요. 제발요
6294	특정 커뮤니티 집단의 놀이성 사상검증에 대응을 금지하고 사상검증성 행위를 멈추세요.
6295	억지논란과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296	지인과 부모님 앞에서 디씨/아카 개념글 낭독쇼하라면 못할거면서 왜 그런 사이트를 이토록 맹신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상밖과 사람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6297	게임이 진정으로 주류문화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질 준비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편가치를 준수하십시오. 페미니즘 억압을 중단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십시오
6298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이 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쇼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메이플 스킬들 다양한 이펙트에 페미표시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맞는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페미시고 페미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리지 않았아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것 중 하나도 못 찾은 건 그냥 일부러 넣은 걸로 봐도 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넥슨이라는 큰 기업이 힘을 실어 줬기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이플을 사랑하는 이유는 평안과 행복감 그리고 많은 추억들로서 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도 애정 갖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뒤에선 누군가 직장을 잃고 내몰리고 있는 이 게임을 이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실로 허망하고 허탄합니다
6299	어이가 없다 넥슨과 한국게임 업계가 그러니까 점점 망해서 중국한테도 밀리지
6300	정신 차리세요.
6301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고,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게 억지로 삶을 어렵게 만들며, 그 억지를 받아주는 게임사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살아가십니까?
6302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업계 내 여성 노동자 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분노합니다. 항상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생각하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느끼지만 생계가 걸린 일에 스스로를 검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매일 소리없는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넥슨과 한국 게임업계 남성, 그리고 한국의 남성 게임 유저들에겐 어떠한 실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윤리적인 모습은 조금도 기대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누군가의 생계나 목숨조차 놀이인듯합니다. 그들이 나아질거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사회적 지탄과 더불어 법의 강력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뿐입니다.
6303	억지 논란을 멈춰라!
6304	억지 논란으로 직원 해고까지 이어진 상황을 규탄하며 최근 세계에서도 통하는 게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넥슨인 만큼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게임 업계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보호에 취약한 모습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바른 게임업계가 되어 소비자도, 노동자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6305	모든 혐오를 지양한다고 하기엔 지금까지 넥슨 측에서는 일베유저들의 고인모독 드립이나 메이플 인게임 내 유저들의 성희롱 닉과 채팅, 고확 등 전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공지하고 강하게 조치한 적이 없는데요. 노선을 정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차별적 잣대로 별 이상한 집게 손가락에만 난리치지 마시구요.
6306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세계가 비웃을만한 행동에 누구보다 앞서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회사의 게임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을겁니다.
6307	일부 인셀 집단의 억지에 언제까지 개같이 기며 놀아날 셈?
6308	시대착오적 이슈에 현명한 태도를 지니시길 바랍니다.
6309	부끄러운 줄을 아십시오

6310	2016 년 티셔츠사건으로 게임업계 여성혐오의 시발점이 된 넥슨의 원죄를 기억하며 넥슨을 강하게 규탄한다.
6311	그들이 주장하는 '페미'가 대체 뭔지 물어보고싶네요. 집게손가락은 말씀하셨듯 꼬투리에 불과합니다. 페미니스트 작업자인게 문제가 되지않는것은 일단 접어두고, 그게 실제 문제가 되는 장면도 아니지만, 그 장면이 페미니스트 작업자가 작업했다는 근거도 없이 잡아대는꼴이 보고있자면 웃깁니다. 모든 성별 남녀노소 즐기고 싶었다면 이런 추측성 남성혐오 컷이 아니라, 게임내에 실재하는 @싸개, @장연 등의 표현부터 제제했아야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페미니즘이 반사회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페미는 나치와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게임 시작할때 화면에 제발 반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서로 얼굴붉히지 맙시다. 게임 플레이중 겪는 불편과 확률조작은 기를쓰고 모른체하시고 시침떼시더니 이런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사안, 게다가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아주 만만한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방조하시는군요.... 대체 왜 새벽출근이 페미손가락의 탓인가요? 안시켰음 될일이지않나요? 이게 그럴일이었나요? 사회를 나쁘게 만들고있는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여자는 꼬투리 잡아서 패도 되고 아무튼 전부 여자탓이고 페미탓이며 앞으로도 그래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버린 당신들 탓입니다. 하청업체가 감히 물의를 일으켰다고 제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냅다 일을 키운 판단력이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게임업계라는 말도 쓰지마십시오. 이게 무슨 체계고 업계고 회삽니까?
6312	게임 업계는 언제까지 열등한 남성들의 놀이에 맞장구를 쳐주고 고개를 숙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억지 논란 유발'로 인해 외주 제작을 맡은 제작사와 그 직원들은 생계와 앞으로의 직업 수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대기업' 이라 불리는 넥슨이 이런 횡포를 아무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인해 남성 게임 유저들의 어떠한 존엄성이 훼손되었습니까? 혐오 논란이 다양한 무게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손가락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해쳤다 할 만큼의 결론을 어떻게 내린건지, 되려 넥슨 측의 사고를 의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집게손 논란이 혐오의 산물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증명해보여야 합니다. 게임 업계 내의 많은 직업인들을 내모는 행위,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 오래된 여성 유저로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6313	현재 게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로서 전합니다. 출근했더니 자사에도 온갖 페미사상검증 메일이 와있었고, 대표는 물론 남성직원, 여성직원들도 온갖 구설수에 불안해하며 동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게임 업계뿐 아니라 국내 웬만한 기업들에 기이한 분위기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한국인 성차별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넥슨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귀사에도 불철주야 근무하며 함께 게임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여사원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업체, 외주인력에도 다양하고 재능있는 여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 사원들 사이에서는 분명 조심스럽게 괜찮냐는 물음이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몰지각한 대처는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창피한 일이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에서만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고작 집게손가락으로 남성들의 신체를 옭아맴과 잇따른 피해들을 발생시키고, 결국엔 한국 게임업계를 망치는 행동을 멈춰 주십시오. 게임업계의 탄압을 시작한 것은 넥슨입니다.
6314	수준 낮은 억지 논란에 끌려가지말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노동법위에 손가락법있나 말도안된다.
6315	서비스 종료할때 페미땜에 망했다느니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6316	넥슨 및 스튜디오 뿌리, 프로젝트 문의 제대로 된 처벌과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거라는 확실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317	억지논란을멈춰라
6318	넥슨 실망
6319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저들과 커뮤니티등 게임 전반적인 부분에서부터 서버간 차별발언과 무시 혐오발언이 매우 빈번하였습니다(리퐁관련) 이번 사과문으로 밝힌 차별적인 요소는 용납할수없다는 디렉터의 발언과는 다르게 기존 남아있던 차별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성 차별적인 문제로만 가져간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6320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6321	집게손 억지논란 멈추세요 사상에 민감한게 정작 누구인가요?
6322	넥슨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멈추시오
6323	정신차리세요 제발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비정상에게 맞추는 시대가 되었나요
6324	….^^
6325	사상검증으로 사람 일거리 막고 보호도 안 해주는 게 회사며 이것에 따라서 여성 게이머를 게이머로 조차 보지 않아서 한쪽의 의견만 듣고 말도 안되는 상식을 근거로 들며 더 동조하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6326	본인들도 말도 안된다는걸 알고 있는 무의미한 집게손가락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회사에 아무런 상관 없는 개인의 sns 에 올라온 글 하나하나 검열하여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건 고객이 아닙니다.
6327	억지로 떼쓰는 것과 근거를 찾아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세요.
6328	이러지 좀 마세요
6329	넥슨사 게임을 포함하여 여러 게임을 오랫동안 즐겨온 여성유저로서 허탈감과 배신감이 듭니다 여성은 소비자는커녕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요…

6330	억지 주장을 하는 인간들도 문제지만 그걸 진지하게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넥슨이 백배 천배 더 문제입니다.
6331	정말 어떠한 차별에도 반대하신다는 주장과 여태까지의 행보가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세요.
6332	억지논란 옹호하는 작태가 부끄러운줄 알라
6333	악질적인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 발언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받아들인 사실이 어이가 없고 그로 인해 마녀사냥 당하신 직원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6334	정신차리세요들
6335	여성 소비자를 동등하게 여기길 원함
6336	넥슨과 그 외 게임업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6337	한심하다.
6338	억지논란에 떼쓰는거 들어주는거 본인들도 인지하고있으신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인지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6339	억지주장을 들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행보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6340	여성혐오에서 기반한 남성들의 억지 논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맞춰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불미스럽고 이상한 사상이 아닙니다. 여성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표방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남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당신들이 여성들에게 부당 해고를 내릴 자격은 없습니다.
6341	페미니즘이라는 지극히 건전하고 이로운 사상을 빌미로 삼아 여성 노동자를 이념해고하는 넥슨과 그에 동조하는 게임업계에 분노를 느끼며 자성을 촉구한다.
6342	유치하고 폭력적인 여성혐오를 하며 억지로 우겨댄다고 세상의 변화를 막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6343	억지로 만든 논란을 왜 무시하지 못하는지,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이 논란을 억지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건지, 본인들이 진상들의 선동에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는 생각하는지? (심지어 이 진상이 해당 게임 유저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6344	노동자에 대한 기업 갑질을 적극 규제해야합니다
6345	창피한 줄 아시죠
6346	니들때문에 게임업계가 죽는거다
6347	작작합시다
6348	억지 요구 들어주지 마세요 제발
6349	먹이를 주지를 말라고요 좀!!!!!! 이제 이거 그냥 집단괴롭힘 놀이인거 모르는 사람 있냐 아니면 니들도 한패냐?
6350	언제까지 억지 논란에 맞장구 치며 죄없는 여성노동자들을 압박할건가 넥슨은 정신차려라

6351	게임업게에선 집게손이라는 이해할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의 사상을 검증하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업계 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혐오 사상을 가진 네티즌들의 사이버 불링에 소극적 대처와 책임 회피를 해왔다. 게다가 노동법에 맞지않는 사상검증을 통한 노동자 해고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넥슨 및 게임업계들의 책임을 묻고싶다.
6352	게임업계는 인셀남들의 악성민원을 받아주지마라
6353	정신차리세요
6354	대기업인만큼 제발 휘둘리지 좀 말고 눈치 좀 보지마세요
6355	일부 집단이 주장하는 착각에 동조한 결과가 어찌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6356	더 이상 게임업계가 일부 악성유저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6357	도태남 의견 좀 그만 반영하고 먹금하는 법을 배워라
6358	남성차별은 신경쓰면서 여성차별은 가볍게 무시하는게 맞는건가요? 말도안되는 논란에 사과해서 차별을 악화시키고 있는건 현게임업계입니다.
6359	정신차리세요
6360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넥슨 및 게임업계가 이렇게 일 처리가 빠른 곳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억지논란에 이렇게 쉽고 빠르게 사과를 하고 동조하다니요. 이 나라 대부분의 게임업계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이번 사태로 뼈저리게 느꼈고요. 덕분에 한국 게임 모조리 접습니다. 이런 억지 논란 만들어내고 난리치는 그사람들과 어디 잘 운영해 가시길.
6361	성차별에 기반한 쓰레기 게임 그만 만들어라 전기 낭비다. 이대로 한국게임시장 저물어가는게 안타깝지만 망할만해서 망하는 거 같다. 성차별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그냥 망하는 게 낫다
6362	일부 남성 소비자들의 악성민원을 사실인 듯 받아들여 한 사람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침해하고 도넘는 비난을 받도록 만들었으며 여성의 일자리를 배제하게 만든 게임 업계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억지논란을 받아들이지 말며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6363	맥도날드처럼 각자 현생살면서 대응만 안해도 반응없어서 재미없으니 그만둘텐데 꼭 먹이를 줘서 일을 크게 만듦. 할일없는 개백수 이상한 억지부리는 놈들한테 비대한 자아를 심어주는데 일조하는 게임업계들
6364	억지와 부당해고를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한국의 대표 게임 기업이라는 이름에 누를 끼치지 마십시오.
6365	누가봐도 억지고 여자 죽이기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태도 매우 역겹습니다
6366	게임업계의 굵직한 대기업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는지 자각해라. 이 선택이 후에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으로 다가올지 생각하라.
6367	혐오의 뜻부터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6368	게임 업계 내 성차별 규탄한다
6369	억지 논란을 키우는 건 잘못된 대응입니다.
6370	남녀평등, 노동자 인권 존중, 혐오표현을 지양하는 회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6371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6372	창피한줄 알아라
6373	2016 년부터 시작된 게임업계의 여성차별과 사상검증은 지금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법 위에 회사가 있다고 착각하여 갑질을 휘두르는 업계에 희망은 없습니다.
6374	방구석 오타쿠들이 만든 억지 성차별적인 혐오에 대기업이 주도로 남녀갈등조장에 일조한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검증을 통한 부당해고는 노동법 아래 척결되야 마땅합니다.
6375	넥슨은 억지논란 마녀사냥을 멈춰라
6376	적당히들 하고 현생 사세요 한심한 사람들아
6377	정상적이라 할수 없는 악성 유저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빨리 정상화 시켜라
6378	넥슨은 억지 논란을 멈춰라
6379	정신을 좀 차리세요
6380	남자들의 말도 안되는 생떼를 언제까지 들어줄 생각인가.정신 좀 차려라.
6381	일말의 사실 확인도 없이 허구의 근거없는 주장에 과잉반응한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이 사회는 악의적인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으로 사과하실 건가요? 다음에는 얼만큼의 돈을 쓰실 건가요? 다음에는 대체 몇 명의 근무자 및 노동자에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고 부당히 해고하실 건가요? 비생산적인 집단의 지성이 없는 칭얼거림을 들어줌으로써 귀사 스스로를 끝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한심한 짓을 그만두세요.
6382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동작 표현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떼쓰는걸 들어주는 행태가 대단히 반이성적으로 보임
6383	상식을 지켜주세요
6384	도대체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해줄게'라는 말이 '메갈'손동작을 회사 작업물에 넣어 주겠다. 는 뜻으로 읽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로 쭉 좋은 작업물을 내왔던 뿌리가 넥슨에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유능한 작업자가 왜 회사에서 잘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넥슨이 무시했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넥슨의 행보에 몇 명이 고통 받고 생계가 끊기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6385	한남에게 굴복하지 마십쇼
6386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6387	작작좀 해라!! 인게임 밸런스 패치나 해
6388	이런 억지스러운 피드백에 함께 일한 동료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지않는 점 등에 실망했습니다
6389	시대에 발 맞춰 가는 시각을 가져라
6390	당장 멈춰라
6391	집게손으로 신상털이와 노동차별을 묵인한 넥슨
6392	게임업계, 넥슨이야말로 여성을 탄압하는 사상 좀 드러내지마세요

6393	얼토당토않은 일부 집단의 여성혐오적 주장에 손을 들어준 넥슨의 일방적 해고 및 직원들에 대한 사상검증은 한국 게임업계 전반의 수준이 퇴보되었음을 전세계적으로 보여주었다. 넥슨 및 게임업계에 남은 혐오자들은 자신에 동조한 업계에 또다른 혐오에 대한 동조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혐오세력에 대한 동조를 멈추고 이때까지의 행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6394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6395	손으로 물건을 집는 그래픽의 사용이 한국남자를 비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표적으로 구글 유튜브, 그리고 세계 많은 사이트에서 쓰이고 있는 비슷한 그래픽에는 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 억지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6396	고작 집게 손모양 가지고 그런 의미를 붙인 것도 남자들이고 구태여 찰나의 순간순간을 다 찍어가며 검열하는게 매우 저열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런 뜻을 내포했다해도 이렇게 손쉽게 해당 작업물을 내리고 작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6397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6398	정신차리세요
6399	어느 나라 어느 업계도 이런 황당한 억지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혐오자들의 허황된 믿음에 휘둘리지 말고 약자를 향한 폭력을 멈추십시오.
6400	이러다 인간을 묘사할때 손가락 없애고 주먹만 나오겠다
6401	21 세기 마녀사냥을 중지해주세요.
6402	정말 메이플은 제 인생게임이었습니다. 그 메이플을 망쳐주신 넥슨을 정말 경멸합니다.
6403	페미니즘 혐오몰이와 불법해고를 멈춰라. 게임업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6404	다른것보다 대한민국의 컨텐츠 업계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05	폐쇄적인 커뮤니티 유저들의 이야기만 듣고 편가르기식으로 재빠르게 행동하지 말고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행하는 다른 혐오도 좀 신경써서 대응해주세요. 그동안 커뮤니티와 게임 안에서 발생한 혐오는 무반응으로 대응했으면서 대체 왜 이번 사태만 빠르게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발점이 된 0.1 초밖에 되지 않는 그 손가락 표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입은 건 회사에서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사이버불링과 스토킹을 당한 것도 커뮤니티 사람들이 아닌 원화가와 성우, 그리고 이번 사태를 부당하게 보는 다른 유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업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누군가의 손을 들어 준 결과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는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털어 커뮤니티에 박제되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고작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넥슨 측에서 말하는 혐오가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선 빠르게 대응을 안하시는 것을 보면 특정 층을 편들어 주는게 아닌 이상 이해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여성 유저들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남성 유저들의 편을 들어준건가요? 왜 이게 성별 문제로 간건지 모르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맞는 결과라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긴 시간동안 넥슨 게임을 즐겁게 한 유저 입장으로서 이번 사건에서 중립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임업계를 보고 더이상 넥슨과 그 외 게임업계들에게서 신뢰적인 이미지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게임이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페미겜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상검증겜이라는 인식이 생길 걸 예상하고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게임을 삭제하고 더이상 한국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수많은 사이버불링과 스토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건 더 이상 이번 사건 이후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람입니다.
6406	1.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니며, 성차별에 반대함 2. 페미니즘은 집게손가락과 관련이 없음. 어느새 글로벌 스케일이 되어버린 창조논란에 장단을 맞춰주지 맙시다 3. 엄지와 검지가 오므려져 있을 뿐인 자연스러운 동작에 페미니즘 사상검증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특정 성별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너무도 쉽게 침해하는 행위를 지지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 일체의 각성을 요구함
6407	과거에도 셀 수도없이 그려졌던 손모양이 갑자기 남성혐오의 상징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탄압하는게 비정상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게임사 관계자든 게이머든 개인의 사상을 탄압하고 컨트롤할 권리는 없습니다.
6408	넥슨의 혐오 동조를 규탄합니다
6409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유저의 요구에 응답하는 행위는 회사차원에서 그만둬야 합니다.
6410	인셀의 입맛에 맞춰 특정 세력이 있을거라 단정지은 판단력에 회사의 운영철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6411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당해고를 멈춰라
6412	게임업계에서 이러한 개인 sns 검증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물러서면 기업은 아예 입사 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지해야합니다

6413	그렇게 당당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 글로벌 공지도 올려보시던가요
6414	초기 사례를 잘 못 만든 책임을 지십시오
6415	전 호주에 거주 중인데요 작년에 중국계 호주인 남동료가 집게손 보여주면서 이거 아냐고 한국남자들이 집게손에 예민한게 사실이냐고 질문하고 그 주변에 있던 오지 동료들 유럽계 남동료들한테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원래 사람은 사실을 말하면 화가나는 것이라고 받아치고 웃더라구요 전 웃지고 못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이상하고 너무 곤란했어요 제발 논란 좀 그만 만들어주세요 제 모든걸 걸고 제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낸 적 없구요 한국 이슈에 관심 많은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게임 잘한다고 학교에 클래스 있냐면서 나도 모르는 게임이나 선수들 줄줄 외우고 다니는외국인도 많은데 이런 논란은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라고 ㅠㅠ 창피해요
6416	혐오표현이라는 번지르르한 표현으로 억지 사상검증에 동조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국내 게임업계에 실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내게임은 그냥 질병일 뿐이네요.
6417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6418	게임 이란 남녀 때로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것을 방향으로 합니다. 이윤이 남아야 하는 사업이라거 하여도 그 소비 속에 남성과 여성이 공존 한다는 것을 기업체는 인식해야 합니다. 게임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윤이란. 남자 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6419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420	6 년 전부터 느낀거지만 정신 좀 차리고 대국적으로 사업하세요
6421	한정된 커뮤니티 세상에서 나와 제발 현실의 사람을 보세요.
6422	본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을 창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떠넘겼다. 대놓고 특정 성별에 대한 배제, 차별, 혐오, 의견 무시를 하는 기업은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에게도 필요 없고, 사회에도 필요가 없다.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6423	더 이상 노동자의 인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업계의 존반적인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이자, 게이머로서 또 노동자로서 작금의 사태에 반대합니다.
6424	페미니즘은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운동하는 것이다. 혐오발언과 여성혐오를 하고 있는 쪽은 넥슨이다.
6425	상식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인간입니다.
6426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더니, 일관성을 가지세요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사상검증을 하려 드는 이유가 뭔가요.
6427	게임 산업이 남성들만의 영역이 아닌 만큼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428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지금 다른 넥슨겜를 다 터질때 같이 탑승해서 페미년들 쯤 쳐내자 면날 아바타 반바지,구두에 팬티 대신 속바지 입혀서 내고 가슴모핑 x 공꽁싸맨 아바타만 지어내는거 개쫒같음 ㄹ 0 아바타털 개씹창으로 내는거 분명 페미새끼를 관여했을듯' 같은 글 쓰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여자인 가족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자 치마 속 보겠다는 놈들 편 들어주려고 한 사람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6429	무지성한 여성혐오로 무고한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임업계 각성하라. 바뀌지 못하겠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마녀사냥 기업따위 망해버렸으면.
6430	부당 사상 검증에 반대합니다
6431	비정상적인 현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사과하라
6432	왜 집게손에 이상한 의미 부여하며 떼쓰는 인간들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6433	게임의 본질은 재미이며, 게임업계는 이 재미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고한 업계 관계자에게 사회부적응자라는 허환된 프레이밍을 씌워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재미라면, 그 어떤 유저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6434	엔젤릭버스터 pv 의 해당 장면은 '메갈리안 로고 손가락'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 집단이 떼 쓰는 소리에 휘둘려서 소신을 잃고, 무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하청업체를 들쑤시는 행위는 참 눈 뜨고 보고있기가 힘들다. 그런데 Nexon 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회사명에 집게손가락처럼 생긴 글자 'n'이 있다. 하루빨리 그 끔찍한 이름부터 고치길 바란다.
6435	정신을 차리세요
6436	일부 남성들의 집단 히스테리에 여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6437	소수 극우 유저들의 억지 논란을 들어주는것이 도대체 기업에 무슨 이익이 되어서 그렇게 납작엎드려 사과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멍청한 선택이라고 생각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웃고있다
6438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 거래처를 보호하진 못할 망정,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먼 칼을 휘두르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 회사, 그런 거래처의 무엇을 믿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노동자의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을 샀습니다. 근로 시간을 계약한 거지, 개인의 생각과 SNS 에서의 활동을 두고 계약서에 날인한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사상 문제도 아니고 명확한 사이버 불링인 걸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회사가 뭘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주일 조용히 지켜만 봐도 될 일을, 온갖 곳을 들쑤시며 기어이 직원 개인을 징벌하여 효수하듯 저잣거리에 내미는 꼴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동권에 반하고 인권에 반하는 추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6439	안 할 게임이 늘어나네요...
6440	어이없는 논란에 어이없이 대응하는 꼴이 참 우습습니다
6441	트롤에게는 먹금을. 상식적으로 갑시다 좀.
6442	정신 좀 차려라 니들만 사서 고생이다
644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444	진심으로 문제가 된 장면이 남성혐오적인 표현이 숨겨진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동작이 한 프레임도 들어가지 않은 작업물만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6445	여혐으로는 앞으로 나아갈수없다
6446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면 공부까지는 둘째치고 구글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한 번 해봐라 좀
6447	넥슨을 필두로한 게임산업은 혐오를 멈춰라.
6448	억지로 논란만들어서 징징거리는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받아주니 계속 억지논란이 생깁니다. 억지논란에 대응 좀 하지마세요.
6449	제발 되도않는 억지에 응답하지 말아달라. 그들은 그저 잠깐의 재미를 위해 생떼를 부리는건데..
6450	일부 남성 유저들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들어주어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6451	지금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 벌이는 행태는 시장을 망치고 스스로 죽는 꼴이다 정신 차려라
6452	한국 게임업계는 답이 없다!
6453	정신 차리십시오
6454	넥슨은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멈추고 유저들어게 사과하라
6455	정신차리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직업윤리고 직업철학이고 아무것도 없는 듯
6456	넥슨은 일부 소비자들의 억지 논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방만한 대응을 멈추고 노동자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또한 컨텐츠에 대해 애정을 가진 다른 소비자들 마저 기만하는 이러한 행보는 게임이 문화는 커녕 질병이라 조롱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업계의 모습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6457	메이플측은 소수의 남성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급하게 디렉터까지 나서 사과를 하였습니다.이는 게임의 존망이 달려있던 환불 사태보다도 빠른 일처리이며 과연 이 일이 그정도로 중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사실 확인은 했습니까? 그 어떤 의도도 없는 연출이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책임을 질껍니까? 이 일로 인해 수많은 여성 유저들은 마음을 돌렸습니다.사과를 한다고 해도 회사측의 가치관이 어떤지 잘 알 것 같아 받아들일 마음도 없습니다.
645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459	커뮤니티 여론만 신경쓰지 말고 현실을 보았으면 좋겠다. 현재 게임 커뮤니티에서 불타고 있는 손동작은 흔히 볼 수 있는 손동작이며 그들이 우기는 정도의 논리와 수준이면 과거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이더라도 피해갈 수 없다.
6460	도태인셀남들 오냐오냐 받아주는 행태 참 보기 좋습니다
6461	게임업계 부당해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셀들의 사이버테러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주세요.
6462	비단 이번 메이플스토리 사태뿐 아니라 2016 년 클로저스의 메갈리안 사태에서 비롯되었듯이 넥슨은 여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너무도 안일한 대처를 해왔다. 사실상 이번일은 클로저스의 메갈리안 사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있다. 그만큼 넥슨은 게임과 여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것이다. 이번 메이플스토리 사태를 통해 넥슨은 다시 알아야할것이다.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여성도 똑같이 즐길수 있으며, 게임을 즐김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것을.

6463	국내 굴지의 기업이 어떻게 일개 커뮤니티글을 근거로 사내직원, 동료에게 업무불이익을 정당화 합니까? 넥슨 및 게임 업계는 온라인상에서의 일부 소수발언에 의거하여 사내 위계를 무너트리는 비이상적 노동환경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6464	아예 모든 사람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없애라고 하지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며 남성 유저들의 생떼 부추기는짓은 그만둬야합니다
6465	일부 유저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굴복한, 게임 업계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상검증이며, '사이버 불링'이라는 하나의 범죄를 방조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회사 중 하나인 넥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응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2016 년 클로저스 사태와 다를 바 없는 대응을 보이다니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6466	법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6467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께서 메이플스토리가 혐오 없는 게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란을 해결한답시고 개인의 작업물을 자르고 협업체의 직원을 퇴사로 내몰은 결정은 디렉터님의 발언과는 반대로 혐오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반사회적이고 혐오적인 행보가 미디어에서 주로 노출되었고 이외에도 남초 커뮤니티인 게임업계 특성상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제 타파와 성평등을 표방하는 인권운동이고 그 자체로는 탄압받아야 할 사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혐오를 저지르지 않고 성평등을 위한 인권운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논란이 된 당사자가 반사회적 페미니스트인지, 건전한 페미니스트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으나 이번 넥슨의 대처에서는 설명이 전무한 채 무조건 전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였기에 섣부르다고 느껴졌고 반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페미니즘을 선언하는 게임업계의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 뻔한데, 누가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 이후로 페미니즘이 극단주의로 정체화되고 악마화되어 사장되면, 그것은 혐오에 반대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넥슨이 페미니즘을 혐오함을 강하게 보여주었을 뿐이죠. 페미니즘이 자정할 기회를 빼앗고 성평등 운동의 발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짓밟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혐오 없는 메이플스토리'가 바라는 방향입니까? 손가락 모양을 어떠한 사상의 표출과 연관짓는 논란 자체도 정말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논란이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혐오에 기반하였다고 생각해 몇 마디 적었습니다. 저는 논란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이번 논란이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배운 페미라느니,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성기가 작아 열등감을 느끼는 한남이라느니 하며 상대 진영을 조롱하는 모든 행위 또한 혐오라고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처는 빠르지 않더라도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대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것을 알지만 김창섭 디렉터님이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468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넥슨이 만들어가서 실망스럽습니다.
6469	부디 이성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6470	남자들의 생떼 들어주지마라. 억지를 들어주는 순간 대중성을 절대 못잡고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된다.
6471	노동법과 헌번조차도 우습게 보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걸 만들어낼지 참 기대됩니다.
6472	선진국중 그 어디서도 페미는 죄가 아니며 페미니즘에 동의한다고 생계를 박탈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래가 참으로 염려됭며 이같은 사태가 통탄스럽습니다
6473	정신 좀 차리세요.
6474	"페미" 가 뭔지 넥슨과 게임업계에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페미" 라는게 대체 무언가? 그 "손짓" 이 대체 무엇인가? 당신들이, 게임을 한다는 한국 남성들이 당당하게 드나드는 커뮤니티 "인벤", "디씨인사이드", "아카라이브"의 그 어떤 게시글을 클릭해도 당신들이 여성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고있는 이 작태의 '명분'보다 훨씬 끔찍한것을 모를수가 있나? 아니 모르지 않을것이다. 넥슨과 그 행태에 동조하는 게임업계 당신들의 행보는 역겹다. 당신들은 역사책에 가히 기록될 정도로 추잡하다. 당신들이 한국의 게임산업을 이렇게 망쳐놓은것이다.
6475	근거없는 여혐을 멈춰라
6476	환불런 때는 늑장 대응을 보였으나 별것 아닌 논란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드백하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 깊은 통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한국발 게임을 이용할 일은 없습니다.
6477	그림그리는 사람으로써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 실정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남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리들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낭설에 휘둘리는 것이 한국 제일의 게임업계라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6478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도 어쩔 수 없겠죠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정작업에 힘을 들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6479	문제의 기업, 넥슨은 살해예고, 사이버 범죄, 적절치 못한 성적 발언을 일삼는 반사회적여성혐오집단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넥슨의 모든 여성유저들을 기만하고 일반적인 남성유저들을 혼란하게하는 행동이었으며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넥슨의 이번 행동은 위 집단의 우발적인 행보를 더 넓히는 행위였으며 특정 집단의 특정 사상을 일반적인 유저들보다 편애하는 행동입니다. 동영상의 특정 프레임의 손의 모양새를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손짓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약적인 사고이며 위 사고는 지지받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성기를 혐오하는 손짓은 여초가 아닌 남초에서 처음 의미가 생긴 엄연히 자조적인 행위입니다. 애초에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는데에 사용한다라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넥슨이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면 그 대처는 반사회적집단을 우위로 내세워 동정을 주는 것이 아닌 해당 동영상의 손 모양은 전혀 비하의 의도가 없고 넥슨과 동영상 크리에이터에 대한 무차별적인 항의와 유언비어는 법적으로 정당히 규제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넥슨이 혐오집단이라 언급란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상이며 절대 남성인권을 추락시키는 존재가 아님을 현 게임업계와 앞으로의 모든 사회집단은 정의해야 합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의 편애적인 행보와 정확하지 못한 사상의 정의는 대한민국 사회에 ‘성별갈라치기’라는 사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집단의 지난 행위는 지지받는게 아닌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넥슨 및 게임업계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비스 유저들과 일반시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480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이 사태를 규탄합니다.
6481	게임 업계가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업계가 되길 바람.
6482	게임업계라는말도아까워 소꿉놀이라고해.
6483	당신들이 생각해도 억지같지 않나요..
6484	정신 좀 차리세요...
6485	여러 게임을 즐기는 여성 유저로서 이번 넥슨 사건을 통해 게임 자체에 대한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일부 남성들의 망상과도 같은 억지 논리에 나름 규모 있다고 생각해왔던 게임업체들이 장단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사건에 중심에는 어린시절 즐겼던 추억의 게임들도 있고, 최근까지도 즐겨한 게임들이 있지만, 더이상 그것들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추억은 혐오 가득한 감정으로 점철되어 더이상 즐겁게 게임에 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업계가 한 발 더 나아가기만을 바랍니다.
6486	언제까지 소수의 억지 의견에 사회가 흔들리고 패미니즘에 악마화 되어야 합니까?
6487	말같지도 않은 억지논란 그만해라
6488	여성 게임업계 종사자 및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보를 멈추고 사과하라
6489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의 일할 권리를 누구보다 앞장 서서 빼앗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왜곡하는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신가요?

6490	아무의미없는 집게손가락에 남혐이라는 의미부여하지마세요 집게손으로 집는동작은 다양한 손가락 움직임 모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셀남들의 억지주장을 받아드리는 넥슨행동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셀남들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인 넥슨의 결과 때문에 페미라서 남혐모션을 일부로 넣었다는 프레임에 씌여져 일자리를 잃은 여성직원분 이건 오히려 마녀사냥에 의한 부당해고입니다
6491	한국 게임업계의 추락의 맨 앞에 서셨습니다.
6492	퇴보하는 한국 문화 더 이상 뒤쳐지지않는 나라가 되길
6493	넥슨은 보이지도 않는 집게손이 과연 남자혐오의 표현인지 깊게 생각해봐라. 당신네들이 일을 크게 키우고 있는게 아닌가? 마치 갓난아이가 떼를 쓰듯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준다면 그 억지는 커지고 결국 당신네 회사를 잡아먹을것이다. 정신차려라 제발좀. 넥슨에 정이 다 떨어진다.
6494	상식적으로 행동합시다.
6495	손가락 하나도 맘대로 쓰지못하고 그리지 못하나요...? 왜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는거죠? 억지부리는 사람들 장단을 다 맞춰주면 넥슨도 그 집단들과 똑같은 사람 되는겁니다.
6496	한국게임이 중국,일본 게임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일부 진상들 생떼 들어주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들어가시는 모습 잘 보겠습니다. 평생 피드백 지옥에서 오붓하게 지내시길.
6497	사상검증을 멈춰주십시오. 영양가 없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주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6498	이런 쓸데없는 일에 대응하고 사과할 시간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6499	사안이라 이름 붙이기도 창피한 수준의 가치 없는 논란인데 어찌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6500	사과할 일에는 사과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일에는 사과하지 마세요
6501	집게손가락이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유저들의 말에 귀기울이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체 구조상, 캐릭터가 취하는 포즈 구도에 따라 충분히 그러한 손동작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혐오표현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억지 주장으로 생계가 달린 일개 직원을 억울하게 해고시키려 종용한 유저들에 동조하는 행위가 귀사의 게임 및 한국 게임업계 전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502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있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당 사원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이라고 드러내는 회사는 처음 봅니다.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는게 오히려 신기한 일일정도로 이 세상은 여성에게 각박하며 차별로 찌들어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성들의 페미니즘 활동에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사상검증이라는 가면 아래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셨으니, 앞으로는 남성 사원들이 남초커뮤니티를 하지는 않는지, 씨 X 등을 포함한 여성혐오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아주 열심히 사상검증해서 다 해고하시길 바랍니다.
6503	민주주의 노동인권 후퇴시킨 넥슨 및 게임업계는 작금의 사태에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6504	노동자들 사상검증 신상털이 금지 법제화
6505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고작 "의혹"에 불과한 의견 제기에 마치 심각한 혐오가 발생한 것 마냥 일일이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데 실망스럽고, 넥슨 기업과 게임업계가 얼마나 인권 친화적이지 못하며 성차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임원진을 비롯하여 사내 문화 개선을 위한 사원 교육에 힘쓰길 바라며, 앞으로 어떠한 연유로든 페미니즘을 정치 사상이나 혐오 표현으로 보지 않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넥슨 및 게임업계는 오히려 앞장 설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6506	페미 좋고 싫고를 떠나 그 손모양이 문제라고 믿는다면 본인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먼저 자르시죠. 님들도 일상에서 물건 집고 컴퓨터 하고 핸드폰 할 때 그런 손모양 하고 있잖아요. 너무 황당함
6507	혐오 커뮤니티에 본인들끼리 고여버린 여성혐오자들의 집단적 떼쓰기에 굴복하는 넥슨과 게임업계의 모습 잘 봤습니다. 앞으로 세계시장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한국 게임 업계는 세상에서 가장 여성혐오적이라는 오명을 얻는데 앞서주신 넥슨과 그 외의 게임업계들, 동료 직원을 보호할 생각도 없는 일부 직원분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억울하게 공격당한 직원분들과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직원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6508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억지로 뽑아내고 개인 sns 를 뒤져 사상검증을 일으키다뇨. 이거 지금 교사로 따지면 학부모가 교사 sns 찾아내서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왜 술을 먹냐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정신 좀 차립시다
6509	넥슨은 대체 어떻게 된 회사길래 근거없는 억지주장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한심한 행보에 기함하고 갑니다.
6510	게임 내 외 적으로 유저들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닫으면서, 출렁이는 여성 캐릭터의 가슴과 엉덩이로 돈 벌면서 여성인권에 무차별적인 혐오에 당하고 있는 직원들 및 여성 유저들을 왜 보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6511	여성혐오에만 동조하지 말고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6512	자본주의의 천함을 이용하여 여성 인권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새롭지는 않네요. 다음에는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길 ^^
6513	한 사람의 직장과 인생이 이런 하찮은 징징거림에 정해진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을 계기로 다른 업계들한테 퍼져나갈걸 생각하니 웃음만 나옵니다, 이미 웹툰업계는 페미사상 작가 별점 테러하기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 지금은 삼성 갤럭시, 유튜브까지 '집게손'을 하고 있다고 우기네요. 다들 도라에몽처럼 주먹쥐고 다녀야겠어요.. 도대체 그 집게손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나요? 누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나요? 과거 일베사이트의 손모양 표시처럼 느껴지는건가요? 페미니스트가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모르면 알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일부 '남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직장의 직원이 피해를 보고 잘린다는게 애초 말이 너무 안됩니다. 직장상사라도 되나요? 하물며 직장상사라도 부당해고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테러집단이 된건가 싶네요ㅋ
6514	이런 억지 창조논란 자꾸 만들지 말고 서로 혐오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6515	사리분별 할 줄 아는 기업이 되시길

6516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어주지 말아라
6517	게임업계에서 얼마전까지 종사하던 여성 노동자입니다. 업계 이렇게 굴러가게 둘 거면 이딴 업계 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없고, 디자인이라 프로그래머 보다 더한 박봉이라 간신히 생계을 유지하는 와중에 이런 사태가 항상 업계의 미술분야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향한 이러한 가해행태를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6518	회사가 장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519	말도 안되는 억지혐오논란에 놀아나는 넥슨 및 게임업계 진짜 쪽팔린다 세계적인 놀림감 되는데 앞장선 넥슨과 게임업계 진짜 대단하다
6520	페미니즘은 이 사회가 반대할 것도 아니며, 게임업계가 일부 극성 유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부로 혐오하거나 낙인 찍을 만큼의 운동도 아닙니다. 느리게나마 성평등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 자발적으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내 성 인식 수준의 퇴보를 부추기는 행위가 과연 진실로 옳은 것인지 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6521	억지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6522	여성 유저들이 게임내에서 맘충, 피싸개 소리들을때는 어떤 재재도 없더니 일부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집게 손이 남혐이란 논리도 상식도 없는 여론에는 넙죽 업드리며 사죄하는 스탠스를 취함으로 연관 중소기업의 여성 직원 및 여성 아티스트를 공격받게 만들고 그들의 생계를 인질로 사과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넥슨이란 기업이 연관 기업과 직원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할 무게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무게로 여성 노동자, 여성 유저의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할 시기에 그 무게로 여성을 미끼로 값싸고 쉽게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혈안이 되있는 행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행보 하나하나 절대 넥슨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지도 실적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6523	게임 내 만연한 여성차별에 대해 숙고하셨으면 합니다.
6524	넥슨 게임 유저로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행성 아이템 확률 논란엔 입 닫고 있다가 고작 손가락 모양때문에, 심지어 애니메이션을 표현 하기 위한 동작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걸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한 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되도않는걸 끝도없이 요구하며 끝없는 소모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죄 없는 동료를 자른다? 회사가 직원들 보호 안 하고 뭐합니까? 대기업은 조금 다른가 싶었더니 직원 보호도 못하는 무능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6525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기를 바랍니디.
6526	넥슨과 게임업계는 인셀의 억지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힘쓰십시오
6527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처럼 삽시다.
6528	여성혐오적인 특정 커뮤니티의 블랙 컨슈머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하려는 행위는 그들에게 다른 여성혐오적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됩니다.
6529	어떤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넥슨은 정신차려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 말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집단들이 하는 행동이다

6530	여자들은 게임을 하지말고, 존재하지도 말고, 살지도 마라는 혐오를 인정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6531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보다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과 같은 선택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빼앗고 있는지 명확히 보십시오.
6532	배운사람들아닙니까;;; 정신차리세요
6533	제대로 된 반성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6534	여성혐오하다가 그대로 도태되어 사장되길 기원함
6535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억지 논란과 사람 제물로 바쳐서 덮으려는 대응으로 반복하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6536	"좋아했던 걸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은 OO 해야한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6537	인셀들 악성 민원에 맞춰줄 생각말고 성평등과 노동인권을 회사 내에 정착시키길 바랍니다. 멍청이들 민원은 넘겨요, 쫌!
6538	혐오세력에 납작 엎드리면 다음에는 어떤 억지를 부릴지 모릅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에 벌벌기지 마십시오
6539	스스로 바보가 되지 말길. 내참 어이가 없어서 원.
6540	저는 게이머의 팬입니다. 게임과 친숙하고 게임에 취미를 가지며 게임이, 이스포츠가 문화가 되고 하나의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덕일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업계는 문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게 일하시네요. 하고싶은 말 참 많지만 해봤자 못알아들을게 보여 이만 줄이고 연대합니다.
6541	남자들의 무논리에 논리로 싸우겠습니다
6542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동조하여 노동자를 사상검증으로 탄압하는 게임업계는 망해도 싸다
6543	넥슨은 젠더갈라치기 세력에 의한 억지 논란에 호응해 그들의 힘을 키워주는 짓을 그만둬라!!! 또한 헌법상 개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문제삼아 인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부당해고입니다.
6544	억지 논란에 휘둘리며 개인의 인권침해,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바랍니다
6545	불특정 다수의 억지논란에 힘을 실어주고 그로인해 그 억지논란속의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6546	여성들의 자유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라!!
6547	한국 게임 업계를 매장을 시키려는 의도였다면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6548	지팔지꼰
6549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 엄지와 검지를 잘라라. 진짜로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상정하고 봐도 엄지옆에 검지가 있고 그 둘 사이는 그리 멀리 있지도 않고 지금 이순간 내가 키보드를 치는데도 '넥슨측이 인정하는' "메갈손가락 모습"을 한채로 키보드를 치고있다 뭔가를 쥐고있거나 가르키고있거나 검지와 엄지가 항상 쓰이는데 그 모든 일상생활을 지적할것이고 너네는 과자를 약지와 중지로 잡고 다닐꺼냐?

6550	이상한 차별주의자들과 수준을 같이 하지 마시라
6551	저는 우리나라 문화를 녹여낸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게임업계지망생입니다. 하지만 여성인 저로서는 창작물에 손가락 잘못 구부리면 바로 책상이 사라지는 국내게임 업계에서 저의 창작물을 만들기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이번 성명과 함께 계속 이야기가 된다면 더이상의 사상검증이 게임문화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언젠가 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이번 성명으로 느낀 바가 있어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이 옳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6552	페미니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라
6553	고객 무서워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들이 그 일부유저와 다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6554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6555	일부 집단만의 억지를 들어주는 관행이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6556	페미니즘 공부좀 하고 사세요 무식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6557	약 20 여 년 전 초등학생 때부터 바람의 나라,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일랜시아, 허스키 익스프레스 등등 기타 수많은 넥슨 게임을 하던 어린아이이자 여성유저였으나 더 이상 초등학생 때의 기억도, 중고등학생 때의 학원이 끝난 후 귀가하여 게임하던 기억도, 성인이 되어서도 넥슨 게임을 즐겨왔던 모든 기억들을 더 이상 추억할 수 없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6558	업계는 10 년전이랑 별로 달라지지않았다.내가쓴돈이아깝지않게해라
6559	사상검증에 열내지 말고 게임개발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6560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표상을 대중문화에 은밀히 끼워넣고 그러한 행동에 효능감을 느끼는 집단이 아니며, 페미니즘은 남성혐오와 동의어가 아니다.
6561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한 개인의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가 한 업계의 관행이나 문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6562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들어주지 마세요
6563	성평등을 바라보는 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성차별에 일조하는 넥슨과 게임업계 규탄한다! 정신 좀 차려라!
6564	유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억지부리는 유저들 입장만 생각하는것이지 이상한 선동에 이끌리지 않고 순수히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바보가 되는것같습니다 제발 이상한 대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565	누가봐도 억지인 사항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기업이라면 이게 구멍가게인지 대기업인지 유치원인지 본인들이 부끄럽지 않나요?
6566	제발 좋아했던 걸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6567	악성 문의에 사과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과 뜻을 함께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6568	남성 유저만 챙기는 모습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여성 유저는 게임 업계에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유저였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 하시면 남성 유저들은 게임사에 불만이 생길 때 마다 꼬투리 잡고 늘어져서 남성 혐오라 선동한 후에 게임사가 꼬리를 내리면 그 뒤에 서야 진짜 요구사항을 들이밀겁니다. 반복하고 싶나요? ㅠㅠ

6569	멍청한 짓 그만 하라고 하고 싶네요. 비속어인데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불합리한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을 멈춰 줬으면 합니다. 비정상적인 요구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비정상을 부추기면 안되잖아요.
6570	차별없이 마음 편하게 게임 하고 싶습니다
6571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추십시오.
6572	스튜디오 뿌리는 지난 26 일, 해명문을 통해 논란이 된 작업물 속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동작은 의도하고 넣은 동작이 아니며, 해당 스태프는 그러한 동작을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스태프는 앞으로의 수정 작업과 더불어 작업하는 모든 PV 에 참여를 금지당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작업물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스태프의 작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입니다. 해당 스태프의 직위와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상” 그 자체가 직장 내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간 자행되어 왔던 페미니스트 성우 교체, 사상 검증, 여성 작가 배제 등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혐오 행위”입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 게임 업계가, “모두”의 범위에서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배제한 채 혐오 행위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6573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에 반응하지 마세요 메갈리아는 고작 1 년만에 없어졌고 페미니스트들은 아무도 그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페미니즘는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주의자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상이며 집게 손가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엔젤릭버스터 집게 손가락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삽입된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순간 캡쳐로 남성형오라고 주장하는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현실을 봐주세요 이런 억지 논란을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결국 끝이 없습니다 또 악성 유저들이 하나하나 트집잡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날겁니다... 페미니즘을 드러냈다고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574	게임업계가 이런 억지 주장에 굽히고 들어가면 향후 다른 어떤 악성 유저들의 피드백도 게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인가요? 멀리 보고 옳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6575	이번 넥슨에서 생긴 문제를 비롯하여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고를 당한 것은 페미니즘을 지지했던, 지지하는 것으로 짐작이 됐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개인 작업자가 본인의 사상을 회사에 올릴 작업물에 담았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넥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만약 넥슨이 지금까지의 사태까지 이어지는 와중, 직원을 압박하는 과정이 모두 넥슨의 의지였든, 블랙컨슈머들의 항의에 굴복을 했던,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대중들이 넥슨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넥슨에게 부탁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회사라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상적인 노동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떠할지 생각하고 가치판단 기준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6576	제발 도태남들의 헛소리에 하나하나 흔들리지말고 헛소리답게 무시하세요.. 저런 말도안되는 논란에 사과하는 순간 기업이미지 바닥나는거라고 생각되지않으신가요?
6577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일부 게이머들의 극단적인 억지 주장과 혐오몰이에 편을 들어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건의 연속이고, 게임업계에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6578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터인데 , 되도않는 근거로 창조논란을 매번 일으키며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매장 할 정도로 사이버 불링 및 사이버 스토킹까지 하며 마녀사냥을 일삼는 남초 커뮤니티의 말을 항상 귀 기울이며 이 업계를 꾸리시는 넥슨 및 게임업계의 행보는 늘 그래왔습니다. 겨우 그 손가락 모양 하나에 화들짝 놀라 수정한 사실도 매우 우습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대기업이라는 곳이 협력사와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 해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노동법과 해당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먼지 한 톨보다 쓸모없는 말에 귀를 기울여,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는 결국에 이 책임마저 남초 커뮤니티와 합세하여 시작조차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전가 해버리죠. 넥슨 및 게임업계는 그 많은 사태들을 겪고도 늘 항상 처리 해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창조논란이라는 이름마저 거추장스러운 헛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똑같이 마녀사냥으로 여성 직원 혹은 여성 성우에게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며 마지막에는 여성 소비자들을 비웃고 헐뜯으며 마무리합니다. 이미 퇴보한지 한참인 현재의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이번 일을 겪고 그대로 쓰러져 사라지길 바라고, 앞으로는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이 모두가 즐거운 게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업계로 새로이 바뀌어 나가길 바랍니다.
6579	뭐가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고 싶지 않다면 망하시길 바랍니다.

6580	억지논란에 사과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6581	여성노동권을 위협하는 게임업계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6582	1. 블루아카이브 공식코믹스작가의 페도필리아설 넥슨 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중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공식코믹스제목: 블루아카이브 흥신소 68 업무일지 공식코믹스작가 '노기와 카에데'가 흔히 말하는 로리 조교 강간 윤간 전문 상업지 작가로 활동 중인 것을 아십니까? 해당 작가는 높게 쳐주어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출연 시켜 아빠라는 등장인물과 관계를 맺는 상업지, 학교의 선생님, 동급생에게 윤간을 당하는 상업지, 초등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 캐릭터가 초점이 나간 눈으로 중년 정도 되어보이는 남성 캐릭터에게 강간 당하는 상업지 등을 그려 돈을 버는 작가입니다. 넥슨은 이 작가에 대해 정말 몰랐습니까? 연령대에 관해 논란이 있던 블루 아카이브 게임에서 공식 코믹스 작가를 이런 페도필리아 논란이 있는 작가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당 작가의 개인 작품에 대한 인지, 당시 해당 작가를 채용한 인사팀에 대해서 피드백 강경히 요구합니다. 2. 블루아카이브 일러스트레이터의 페도필리아설 블루아카이브의 외주 일러스트레이터 도론타비(전 트위터 현 X, @dorontabi) 는 이전 맘모스(@mammoth_2020), 도론타비(@drtbgirlgirl, @dorontabi)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수시로 탈퇴, 재 생성해가며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기 어렵게 하며 아동 음란물을 그려왔습니다. 또한 픽시브 등으로도 활동하며 월 구독료 5 천원~n 만원대를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아동 음란물을 판 전적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본에 사는 척하거나 일본인인 척을 하며 국내의 아청법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나 일본 현지인들이 보기에 어색한 일본어의 표현법, 이전 계정들의 그림체 유사성 등으로 도론타비가 한국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넥슨으로부터 외주비를 입금받으며 거래한 사실이 있을테니 해당 작가가 현재 외국에 있더라도 소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작가는 아동 그라비아 잡지 등을 수 십개 소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전적도 있으며 아동 그라비아 잡지에 대고 따라 그리는 일명 트레이싱으로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청법도 걸리지 않으려고 국적을 숨기는 자가 매달 생길 n 백만원~n 천만원대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할지 또한 의문입니다. 넥슨은 사상검증과 부당해고, 무너진 워라벨 이슈 뿐만 아니라 앞서 서술된 소아성애자 의혹이 있는 작가들에 관련해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외주업체 애니메이션에 0.1 초 등장한 연속동작이나 자연스러운 손동작이었던 일러스트가 불합리한 개개인의 사상검증과 부당해고의 사유가 된다면, 등장하는 캐릭터의 다수가 미성년자인 블루아카이브 게임의 작업물에 참여한 해당 작가들의 사상 또한 적절한지 신속히 파악하십시오.
6583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처리를 한건지, 단순히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잠재우기 위한 대처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욕설, 성희롱, 비난, 조롱 등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면서 정말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쓴건지도 확실치 않은 일에 대대적으러 나선다는게 정말 게임계의 대기업인 넥슨에서 대처한게 맞나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6584	성차별주의자들에 의한 사상검증 부당해고 규탄합니다

6585	제발 특별 근로감독과 함께 저들의 미친광기에 직접적인 처벌과함께 방구석 손가락 권능으로 실제로 생기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없어지고 자신들도 대가를 치르길 기원합니다
6586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알고 보니 아동 누드집을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헐벗은 아동은 그렸으며 한국의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 척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고발되었습니다.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가는 넥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587	별거아닌거에 눈치보지마십시오 별 의견같지도 않은 말들에 귀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588	게임 내 시스템적인 문제와 기존에 있던 여성혐오 표현 등을 신고해도 별 반응이 없다가 있지도 않은 남성혐오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6589	1.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손가락 모양이 혐오의 조장하는 표현이라 생각하자 않습니다. 극소수의 의견을 과대표 하여 정론과 정보를 오염시키는걸 지지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2. 개인의 사상을 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과정에 거친 표현, 개인이 아닌 팀 협업으로 이루어진 일을 한 여성에게 책임을 지고 잘라내는 일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 여성 게임 유저의 지표를 알고 계시는지요. 여성이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여성 지표가 적다며 몰아내는 악순환을 만들면 시장을 좁게 만드는 일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도 게임을 즐기는 고객입니다.
6590	여성혐오를 키우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6591	넥슨 및 한국 계임업계는 이번 사태로 자멸할 것이다.
6592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공부를 먼저 해야할 것입니다 평소 게임에서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등 혐오가 가득한 유저들의 채팅, 닉네임 등을 신고하여도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성 혐오발언 외에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빠르게 처리 하실거죠?
6593	프레임 0.1 초 단위로 잘라서 지적질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계속 맞추겠다고 하신게 충격이네요. 본인들도 작업물을 보고 좋다고해서 저 pv 가 세상에 나온건데 이상한 땡깡부린놈들 때문에 오랜기간 준비한 영상을 내렸는데 안 속상하신가요? 그림자로도 꼬투리잡고 4 년전 제작물에도 꼬투리 잡고 땡깡부리는 애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6594	긴 말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문구를 거의 모든 게임 광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내세웠던 가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6595	불필요한 사상검증, 억지 논란 수용. 게임업계에 진정 도움이 될까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받아주실겁니까. 받아준다한들 애초에 그 '억지'에 끝이 있을까요. 의미없는 혐오몰이 규탄에 연대합니다.

6596	손을 구부린 모양만으로 남성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억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해 애니메이터들에게 금전적, 명예훼손 이슈와 같은 불미스러운 피해를 주고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합니다. 넥슨이 이번일로 인해 많은 애니메이터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그에 대한 반성과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6597	억지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게임업계도 가해자다
6598	그럴거면 각 게임 홈페이지마다 여성은 배척하고 차별할거라고 크게 걸어놔라
6599	사상검증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길 바란다.
6600	시대를 역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6601	이런 회사가 한국 게임업계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라면 이런 게임 산업은 무너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6602	정신 좀 차리시오
6603	혐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604	지난번 환불사태를 겪으면서도 게임을 지켜나가려는 모습에 저는 다시 메이플 세계의 용사, 대적자로 메이플 세계 안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다기에 천천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볼수록 이해가가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페미를 이어가겠다'라는 메세지는 '작업물에 집어넣겠다'와는 내포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뿌리측 애니메이터분은 작업물에 넣었다라고나 넣을 계획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과사를 구분하여 일을 해왔다면 그저 인셀들의 억측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겁니다. 애니메이터의 꿈을 꾸고 있는 저는 이번 사태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 들어가는 1 프레임의 장면이 그럴싸한 억측에 끼워맞춰져서 사상을 주입했다느니 어쩌니하며 그동안 자신이 작업한 모든 작업물이 프레임 단위로 검수를 당하고 몇시간만에 작업에서 배제 당하고 더 나아가 남성유저들은 배제가 아니라 해고를 하라며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손가락 모양 하나 때문에요. 이번일을 보면서 집단 망상 수준에 다다른 인셀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 라이브까지 켜서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메이플과 사과 공지문을 연달아 올린 넥슨에 실망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이번일로 많은 여성유저들은 '누구나'에서 배제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겁니다.
6605	기업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계속해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이번 시위로 이러한 행위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6606	집게손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된다. 일베 손동작같은 특징적인 모양(일상에서 사용안하는 손동작)이면 몰라도, 너무나 흔한 ㄷ자 형태에 모든 것들을 혐오모양으로 만드는것이 이해가 안간다. 불필요한 곳에 굳이 넣었다? 그 동작이 그리기 쉬워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려고, 다양한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같은 이유들은 떠올리지 못하는건지. 그렇다고 진짜 필요한 곳에 넣은 동작은 제외하냐? 그것도 아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조금이라는 의미, 단순히 크기를 나타내는 것, 무언가를 집느라 사용한 동작조차 질타받고 있다. 이렇게 흔한 동작을 제한하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모두다. 우리는 이제 손가락을 구부리지도 못할 것이다

6607	억지 논란에 빌붙어 이뤄지는 여성에 대한 사상 검증 및 노동권 침해에 반대합니다.
6608	기업이면 기업답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609	고작 이런 폭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여혐과 관련된 이슈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6610	페미니즘을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침해이자 성차별입니다.
6611	애초에 제가 아는 평범한 남자사람은 한국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복장이 너무 남사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여자캐릭터는 복장개연성이 없어서 세계관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전투 해야하는 전사캐가 갑주로 가린곳이 없으면 무슨 전투를 합니까. 근육하나없는 모습으로는 또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런 캐릭터를 세계관에 등장시키는것부터가 자기세계관을 대충 만들었다는 지표라는걸 깨닫지 않는다면 왜 한국게임이 성장할 수 없는지 스스로만 모를 우물안 개구리일 것입니다.
6612	논란거리도 되지못할 사소한 이유로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크게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넥슨에는 유저가 남성만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현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13	게임업계와 여성인권과 인간으로서의 노동권을 모두 퇴보시키는 이번 사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6614	무시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일을 사과함으로써 되려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극성 유저들이 본사까지 찾아가는 등의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굽신거려야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사건의 손가락 모양 논란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고 말이 안 되는건 자사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넥슨이라는 큰 기업이 사과함으로써 타 게임사들도 이어서 사과해야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극성 유저때문에 대한민국의 게임 업계, 게임 문화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이번 사건만 있을 것 같나요? 앞으로 어떤 억지를 부려서 또 논란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6615	집게 손과 페미니즘으로 직원을 해고할거라면 페도필리아 그림만 그려온 일러스트레이터도 색출하여 해고하세요
6616	찌질이짓 작작해라
6617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무리의 주장을 계속해서 수용한다면, 결국 소비자는 해당 무리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기업 운영은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어 임직원들의 업무 주체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멀리 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6618	넥슨 및 게임업계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줏대없이 휩쓸려 노동자 인권 개박살내는 멍청한 짓거리 그만하세요
6619	창조논란으로 여성노동자를 탄압하는 비윤리적인 업계와 회사가 되신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6620	업보빔 맞을 준비하세요
6621	해당 사내에 제대로 된 성관련 교육이 이뤄지길바랍니다.
6622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을 빌미로 한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를 중지하라

6623	게임업계가 알아서 도태되는건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니 상관도 안하지만, 본인들의 추악한 사상에 무고한 여성 노동자를 잡아 죽이는 짓은 하지마세요.
6624	의미없는 저질 인셀의 여성혐오 징징댐에 묻혀 망하길바람.
6625	한심하다
6626	사회부적응자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뿐인 의견에 동조하여 게임업계 전체와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자각을 하십시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한다면서 하는 행동이 정반대란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6627	게임업계 내부의 뿌리깊은 여성 혐오가 이렇게 드러나네요. 애초에 게임 내 유저들의 여성 캐릭터 성적 비하와 같이 실재했던 여성혐오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다가 애니메이션 동화 상 필요에 의해 들어간 손 모양은 남성 혐오라고 인정하고 혐오를 근절한다는 이중적인 태도 잘 보았습니다. 심지어 남성들이 해당 집게 손가락 모양을 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반면 여성일 경우에는 사상 검증으로 몰아가는, 즉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에 동참하신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6628	넥슨은 대기업 몸집 갖고도 하청에게 폭탄 돌리기 한 것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6629	말 같지도 않은 민원은 제발 좀 무시하고 게임 개발 및 운영이나 잘하라...
6630	사상 검증은 억지 논리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의 억측을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행위가 스포츠가 됐고요.
6631	법 위에 페미척결 있냐
6632	똑같은 놈들끼리 북치고 장구친다
6633	억지를 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이 어거지같은 상황들을 가능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때 멈추길 바랍니다. 콘텐츠 업계에 그림자를 어디까지 드리울 생각이신가요? 보다 더 멀리 많은 사회로 다시금 뻗쳐가려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판단하세요.
6634	집게손 모양이 페미니스트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세상 만물이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일부 유저들을 가라앉히고자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더욱 억지스럽게 강요할 뿐입니다. 부디 이 사태를 흙으로 어영부영 덮어 쉬쉬하지 마시고 재고해주세요.
6635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을 소비하며 만든 신뢰는 어떤 것보다 값지다. 10 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잖은 떼에 동조하는 대기업 규탄한다

6636	내가 게임이란 것에 본격적으로 맛들이고 인생 한 부분을 함께 한 때가 언제인지 잘 생각해 보니 2002~2003 년 쯤이었던 것 같다. 어느 새 20 년이 되었다. 놀랍다. 당시에 게임 이야기를 하는 여자아이들은 잘 없어서 학교나 학원에서 게임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는 다 남자아이들이었다. 솔직히 그때는 그러려니 했다. 원체 나는 더 어릴 때에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보다는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를 하는 아이였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초등학생때까지 정말로 게임 하는 여자애들은 거의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친구가 된 여자애들은 모두 게이머였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게임하는 여자애들과 친구가 됐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친구 되는 여자애들, 선배들 모두 게이머였다. 그것도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진성 게이머들이었다. 지금, '게임은 남초니까 여자들 편인 페미를 쳐내는게 게임사에게 더 이득이니 그런 것 아니겠냐'는 헛소리를 보다 보니까, 왜 중학교를 기점으로 그렇게 달라졌는지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다닌 중학교, 고등학교는 남녀분반이었는데, 학급 내에 여자애들끼리만 모여 있으니 '자기가 게임 좀 한다고 센 척하고 여자애들 깔보고 여자가 무슨 게임이냐고 하는 남자애들'이 없어서 거리낌없이 게임 한다는 말을 꺼내고, 서로 추천하고 정보를 나누는게 자연스러웠던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각종 온라인게임의 선두주자로 나섰던 넥슨을 비롯한 많은 게임사들은 여전히 '여자는 게임 안한다', '게임하는 유저는 남자가 분명 절대 다수이다' 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 남성 유저들이 진상 갑질을 하며 비합리적인 요구를 억지로 들이댈 때, 그것이 진상 악성 고객의 악질적인 갑질임을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잠깐 깨달았다가도 스스로 부정하며 지워버리고 '한 줌의 여성 유저'를 떼어내는 것이 유리한 경영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아라. 여성 게이머는 이미 20 년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돈 역시 얼마든지 썼다. 2000 년대 초에 초등학생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게임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게임 속에서 더 많은 걸 즐기고 싶어서, 작은 용돈을 조금씩 모으고 모아 넥슨캐시를 11 만원 어치까지 쌓아 원하는 캐시 아이템을 잔뜩 샀다. 중학생이 된 뒤에는 매주마다 <마비노기> 환생을 위해 캐릭터 카드를 샀다. 그렇게 성인이 된 여성은 지금도 역시 주력하는 게임에 아끼지 않고 돈을 쓰고 있다. 내 주변 알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 사이, 친구 사이 여성들 중 95%는 늘 어떤 게임이든 하나 이상은 즐기고 있는 게이머다. 또 그들의 지인, 친구 사이 여성들 중 보통 과반수, 적어도 반수는 게이머다. 게임사들아, 사실은 너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가입된 회원들, 현재 활동 중인 게임 유저들 정보는 너희가 다 가지고 있을테니, 똑바로 보면 알지 않나?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또렷하게 숫자로 통계가 나와도 너희 게임사들이 부정하고 외면하고 편견을 깨지 못한 채, 마치 그걸 인정하면 모든 남성들의 있을 자리가 하나 줄어들까 겁이라도 내듯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않나? 외면하지 마라. 다 똑같은 유저이고 너희의 고객이다. 굳이 일부 남성들의 억지스러운 사상검증에 덜덜 떨며 맞추려 하다 직원이나 계약한 아티스트, 하청업체를 떼어내려고 할 필요 없다. 너희가 상식을 갖추고, 법과 규율을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멀쩡히 나온 통계의 숫자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 게이머와

	여성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억지 부리며 선동과 날조로 게임을 욕보이려 하는 악성 갑질 진상 남성 유저들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너희 편에서 막아줄 것이다.
6637	말도 안되는 여성혐오자들의 억지 패악질 그만 들어주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6638	억지를 부려서 다 받아주는 판례를 만들어주게 되면 요구가 사라질 거 같나요? 아니요. 오히려 요구는 더욱 하늘을 찌를 거고,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기울겠죠. 제발 정신 차리세요.
6639	멍청한 유저의 징징거림을 다 받아줄거면 여성 유저는 아예 버리세요
6640	악성민원에 굴복하여 여성혐오 및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넥슨 및 한국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6641	게임 내 여성혐오 발언 채팅이나 자정해라
6642	넥슨은 게임업계에서 본 회사가 가지는 위치를 자각하고 일부 유저들이 남성혐오의 증거라며 우기는 집단적 망상 행동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디씨나 아카라이브의 의견이 모든 것인 줄 아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특정 사이트의 의견이 게임을 휘두를 수 있는 의견이라면 공식 홈페이지는 왜 있으며 여타 공식 SNS 는 왜 운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해당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작업자분들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6643	해당 업계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써 게임 업계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뒤틀려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의 작품이 정말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혐오 논란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주장은 사실무근의 집단 피해망상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나서서 사과하고 해당 하청업체에 압박을 주어 고용자를 자르게 하는 행위가 과연 최선이었나 싶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손가락 제스쳐는 실제 일상생활이나 애니메이션 동화를 작업할 때,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 많이 나오는 동작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손에 힘을 풀고 있으면 나오는 동작이니까요. 또한 손이 움직이는 많은 일들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해 지나쳤던 행동마저 따지고 보면 해당 제스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과 사실무근한 주장이었고 그런것들을 알아보거나 억지라고 말하기보다 하청업체를 내팽겨치고 하청업체에서 결국 해당 직원이 잘리도록 한 결정은 성급했다고 보입니다. 페미니스트는 혐오 단체나 집단 같은게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도, 남성 혐오도 아닌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를 갖는다거나 음모를 꾸미는 일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의 신념과 사상일 뿐이니 주변의 누군가가 그렇다고 말하기 전까진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망상과 억지 추측이 난무한 명백한 마녀사냥이었고, 넥슨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하게 된 것은 게임업계 뿐만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존재하는 모든 업계에 저번 림버스 컴퍼니 사건을 포함한 이번 넥슨 사건이 선례가 되었고, 이를 계속 받아준다면 이 흐름은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 입니다. 노동자들은 의미없는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되고, 회사는 보호조치보단 꼬리 자르기를 선택하고,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는 연대해서 시위를 열 것입니다. 이미 그 흐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저 회사 공지사항에 들어간 외국의 프리 일러스트마저 '페미 그림' 이라며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넥슨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그것을 생각해 움직였어야 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빠른 대처'는 눈 앞의 불을 끄느라 급급해 등 뒤에 번진 산불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논란이 된 부분들을 삭제한다해도 그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우월한 위치라는 인식이 생겼고, 더욱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랄겁니다. 부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어느 선택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일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신다면 이번 사건 또한 명백한 혐오와 차별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6644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라
6645	말도 안되는 억지 받아주지말고 정신차려라 전세계에 남성만 존재하냐? 여성도 존재하고 있다
6646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것은 좋지만 정작 중요한 밸런스 문제등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다 정도를 지켜라 부모도 자식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진 않는다
6647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648	일을 사서 하는 타입
6649	실질적으로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지갑이 아닌 마음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것이다.
6650	인셀의 억지주장에 휘둘려 노동자 보호를 하지 못하는 현 게임 업계는 바뀌어야 한다.페미니즘은 탄압의 대상이 아니다.

6651	왜 인구의 반을 잠재적 구매자가 아니라 적으로 돌리실까요..? 마케팅적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652	집게손가락은 그저 손동작일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올수있는 손동작일뿐이라고요 괜한 사이트에 빠져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마세요
6653	기업은 악의적인 일부유저의 반사회적인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6654	인셀들의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게임 산으로 가게 하지 마세요 구시대적으로 운영하면 그 시대에서 혼자 게임운영 하시는 편이 나을겁니다 '페미니즘' 은 여성인권을 남성과 동등하게 봐달라는 인권운동입니다 페미닌스타일 이라는 패션 용어는 다들 아시면서 페미니즘은 눈 가리고 귀 닫고 뭐 묻은 개처럼 피하시나요? 사람을 죽이려 공모하고 실제로 사람을 자살하게 해서 구형 받은 디시인사이드의 인셀남들과 궤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억지를 받아주면 하나둘씩 늘어날 요구사항들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11 월 28 일 오전 2 시경에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칼로 찌른다며 협박하는 남성들을 보고서도 인셀들을 인정하신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들과 다르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성들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구매자로써 인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헌법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남녀는 동등한 위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서는 명확히 소명하고 있는바입니다 동일임금 차별금지 모두 페미니즘이 시사하는 방향이며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위한 노동운동이며 인권운동입니다 개인의 sns 를 사찰해 페미니즘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캡쳐를 하고 사이버불링을 하고 사생활에 피해를 입고 직업을 잃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애니메이션은 동세 동작들을 표현하기위해 1 초에 다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프레임은 운동 동작이 매끄럽게 보이게끔 만들어집니다 0.1 초도 안되는 1 프레임 동작을 연결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캡쳐해 내 억지도 아닌 떼를 쓰는 인셀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마세요 대형 게임사인 귀사의 대처로인해 이런 일들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추후에 벌어질 일에대해 해외 내 평판과 사건 수습 인력, 자금. 어느 것을 보나 자충수인 지금 올바른 판단을 조금이나마 기대하겠습니다

6655	자본에 눈이 멀어 혐오세력을 옹호하고 엉뚱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마녀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황당한데 부당한 요구와 피해를 받는 직원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잘라내고 억합하는 것이 너무나도 못나보이고 제가 다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게임 관련 업계가 몽땅 망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6656	같은 남자로서 쪽팔립니다.
6657	그냥…모든 여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노동권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어떤 남자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누군가의 밥줄을 역겨운 행위로 끊으려 합니까? 그 비열함을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두 소중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개인과 회사, 사회까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권과 여성의 권리와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6658	페도 일러레부터 처단해라
6659	그 누구도 어떤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사상검증을 통해 직업을 잃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회사가 있는것이지 회사가 있고 사람이 존재 할 수 없습니다. 한 발 앞서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6660	게임업계는 반평등주의자들의 부당한 사상검증에 노동자를 제물로 던져주는 짓을 그만둬라
6661	평범한 손 모양을 혐오표현으로 몰아 분노하는 망상병자들에 동조하고 그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넥슨의 공식입장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6662	무시를 못하겠다면 너네가하는일이 범죄라고 말해줘야할 문제에 너네가맞는말을했다며 여성혐오에 더욱 일조한것을 맞는판단이라 생각을 하신건가요?
6663	이번 넥슨 사건의 게임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언제부터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인 집게손가락이 "남성의 성기 비하" 라는 의미이며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알리는 것으로 쓰여진 것인지 생각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것에 반응을 할 수록 저들은 신나서 더 날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으며, 저 제스처 하나로 큰일이나 사과를 하지않으면 망했을 게임이었다면 진작에 게임은 망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게임을 애정으로 해온 사람들에게 이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664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의도를 재미삼아 주장하는 일부 유저들의 기분이 노동권보다 위인가요? 여성 당사자로서 여성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남성 혐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페미니즘을 지지한단 이유로 생업에서 배제되어선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빈약한 근거로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악성 유저들에게서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을 반대한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옹호하여 업계에 부당한 선례를 만들고 검열을 일상화 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반대합니다.
6665	같은 회사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이벤트 일러스트 작업한 작가가 소아성애적 그림을 그렸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 없나요?
6666	유저수준만 낮은줄 알았는데... 넥슨 수준에 맞는 유저들이었군요 :) 가족이 다함께 하는 게임 절대 못만드실거예요 애초에 게임이아니라 본질이 도박장이긴하죠. 여성유저는 배척 인셀남들은 억지부려도 공감하는 수준이라니 처참합니다

6667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요구로 인해 수많은 여성의 근로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몇 년 전 처음 연 넥슨이 2023 년 또 다시 답습하는 현실에 숨이 막힙니다. 정신 차리세요.
6668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부당해고 및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본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6669	노동자의 권리를 알량한 인터넷 중독자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댓글에 휘둘리게 할 순 없다.
6670	이유없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묵인하지 마십시오
6671	차라리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조용해졌을 일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키우셨는지, 앞으로 손의 움직임이 나오는 장면은 프레임 하나하나 다 검열하실건지, 도라에몽 손처럼 그릴 것인지 궁금하네요.
6672	침소봉대(針小棒大)한 일에 회사에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게임업계의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없애고 직원을 해고하고 외주업체를 변경하는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임시적인 조치는 결국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합니다.
6673	넥슨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마운팅이자 학살입니다. 현재 집게 손 억지논란을 만들어내는 소비자들은 엄지와 검지를 표현한 그림 대부분은 집게손가락 제스처이며, 이는 남성혐오의 뜻을 담은 메갈표현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게 손가락 제스처는 일상적으로 자주 쓰일 수 있는 제스처임과 동시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손의 기본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선 누구나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임업계의 행보에도 실망스러우나, 무엇보다 현재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하며 페미니스트 마녀사냥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소비자층은 대상 노동자가 정말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지의 사실여부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성이 이러한 손 형태를 표현하거나 그린 경우에는 해당 남성이 이 제스처를 취한 것에 대한 해명과 합당한 이유를 주장하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마녀사냥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여성이 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조건 페미니스트이며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이유로 노동자의 사상을 검증하며 "손절친다"는 것은 엄연한 부당해고 입니다. 일부 소비자의 이러한 억지 주장들을 한번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는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에 대한 위협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특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큰 침해입니다. 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6674	제발!! 그들이 짜맞추는 억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주세요.
6675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6676	더이상 노동자, 그를 넘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들을 사회는 묵인하지 않을 것 입니다
6677	말도 안되는 논란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정신나간 회사가 한국회사라니 부끄럽다

6678	수치스럽지 않으십니까
6679	만든 사람들의 노력을 억지논리를 받아들여서 없애는게 좋은 해결법인가요? 억지논리가 말하는 그놈의 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넓게 보세요. 해외에서 웃으며 받아들이는 이 어이없는 주장에 진지하게 대응하는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건 집어드는일이 수두룩한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쓰지도 않나보죠? 이런식으로 받아주면 끝도 없습니다. 지금은 집게손가락을 만들어서 왔죠. 다음은 다른 손가락 만들어서 올걸요. 브이하는 것도 남자의 생식기를 절단하고 싶어하는 페미의 손동작이다 하고 만들어서 오면 브이도 없애실 건가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도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에 무시해도 타격도 큰 변화도 없는데 유독 한국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네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에 있는 집게손가락 이모티콘은 뭐라 못하면서 메이플에는 뭐라하는게 뭐일 거 같으세요. 현실을 보고 자신의 직원을 지키세요.
6680	규탄합니다
6681	저는 게임업계 취준생 여성입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에서는 자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등 일이 힘들어지겠구나를 느꼈습니다. 혐오 세력에서는 이런 일이 그저 오락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게임업계 종사자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낙인을 찍는 등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 수긍하는 게임사의 대처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을 위협하는 혐오 범죄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 규탄에 대해 지지합니다.
6682	대기업이 앞서서 말도 안되는 남성들의 떼쓰기를 들어주고있다니 나라꼴이 참웃깁니다
6683	여성 노동자에 대한 악경 유저들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맞서지 않고 사과문을 게시하며 악성 유저의 비위를 맞춰주는 행위는, 결국 넥슨 및 게임업계가 폭력의 가해자의 편에 선 것과 다름 없다. 부끄러운줄 알길.
6684	과연 본인들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685	억지주장에 떨며 행하는 혐오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6686	여혐짓이나 하지 마십쇼
6687	폭력과 혐오가 당연시해지는 이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기업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손가락의 의미는 도대체 어느 누가 페미의 손가락이라고 했나요? 일베 손가락 있으니 페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남초커뮤니티발 주장 아닌가요?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우리나라 직원들은 소중한 인재들인데 굳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힘을 실어 인재들을 떠나보냅니까? 진짜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군요
6688	그렇게 당당하면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대놓고 써보시지 그러세요. 단어 한마디 내뱉지도 못하면서 없어보이고 추하네요.

6689	말도 안되는 것을 말이라고 들어주면 권리인줄 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영향력 있는 회사에 대처가 참 아쉽다. 소속된 디자이너들이 안타까울 정도며 얼마나 직원들을 믿지 못했으면 저런 말도안되는 행위를 말이라고 들어주고 직원들이 다함께 정당한 노동을 통해 만든 워크를 한순가에 천박한 그림으로 만들수 있는지 과연이게 대기업의 대처라는게 이정도 수준인지심히 개탄스러울 정도다. 어릴때부터 여러 넥슨 게임을 접하고 현재에도 속한 유저로써 굉장히 미련하고 아둔한 선택이였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넥슨이란 기업에 브랜딩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6690	넥슨의 편협적인 시각과 대처에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6691	이건 넥슨이란 회사가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6692	그깟 집게손가락 하나로 소수인 그들의 가벼운 게임에 어울려 모든 작업을 뒤엎을 정도로 당신들의 기업 이미지는 그리도 가벼웠습니까
6693	개인이 갖는 생각과 이념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위법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6694	자신의 일에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있다면 일부 커뮤니티 유저의 의견에 동조하는걸 그만둬라
6695	말도안되는 억지 논란을 만들어 한 사람의 직장을 자르고 그것이 정당한 일인양 우월감을 느끼는 그들의 의견을 더이상 들어주지 마십시오 정신병 망상 수준의 생떼를 이런 큰 회사가 다 받아주는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6696	억지 논란 및 억지 주장을 들어주는 게임회사의 행동에 반대합니다. 더 이상 억지 논란으로 무고한 사람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6697	말도 안되는 궤변을 들어주는 건 전반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6698	도태를 가속화하는 덜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좀 얻으시길 한국의 인셀남들 외에는 국제사회 모두가 당신들을 비웃고 있다
6699	넥슨과 게임업계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끄러운 일을 그만 두어라
6700	기업이 어떻게 일개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집단적 착각 사태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손모양은 옛날부터 사용되던 형태인데 왜 그게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대체 왜 기업은 그 억지 주장을 들어주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커뮤니티에서 직원의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해 캐내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업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부당한 해고 사유로 직원을 해고허고 같지도 않은 떼쓰기를 들어주는 것이 기업인가?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게임업계에는 미래가 없더고 생각된다.
6701	혐오를 누가 당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6702	무시하면 그만이었던 일부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요구때문에 노동자를 괴롭히다니요....넥슨 게임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6703	여성도 게임 유저며 직원이다 반복되는 여성혐오 멈춰라
6704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6705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재산, 출생, 장애,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대 시민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교양이며 상식입니다. 그러나 21 세기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 캐릭터의 노출이 남성 캐릭터의 노출보다 적다며 실무자의 해고를 요구하고, 지나가다 잠깐 걸린 우연한 손동작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해를 거부한 채 사이버 스토킹과 불링, 직접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넥슨을 비롯한 많은 게임회사들이 이런 악성 항의에 굴복해, 노동자의 인권은 나몰라라하며 지난지 벌써 7 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게임업계는 단 1mm 의 변화도 없이, 근시안적인 태도로 악성 유저들에게 굽신거리며 정작 그들과 함께해왔던 실무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여전히 위태위태한 칼 위에서 춤추는 꼴입니다. 법 위에 사규가 있지 않고, 인권 위에 유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권과 신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즉시 이러한 추태를 멈추세요.
6706	사상검증을 멈추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6707	가족이 함께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믿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6708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6709	참으로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이며 부족한 회사운영에 큰 놀라움을 느낍니다. 제발 넥슨의 모든 게임 시작전에 본사는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혐오하며 남녀차별을 지지한다고 표기하십시오 페미돈 받아갈생각 말고
6710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렇게들 부르짖는 혐오임을 하루빨리 알아차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6711	직원을 보호하는 회사가 되십시오
6712	영상 내 손가락의 움직임 중 한 컷을 캡쳐한 것으로 벌어진 일에 이런 대응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6713	쪽팔린줄 아십시오ㅋㅋㅋ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런 여론 하나 무시 못하고 헐레벌떡 게임업계 1 위라는 곳이 참
6714	가족이 함께 하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믿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한국의 게임 업계가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6715	이번에 함께 논란이 되는 블루아카이브의 소아성애 일러스트레이터의 처벌까지 요구합니다
6716	2023 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논란이 됐다는게 놀랍습니다. 심지어 저 억지들을 다 받아주다니요. 넥슨의 게임들로 만들어졌던 추억들이 더는 기쁘게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table><tr><td>6717</td><td>1. 먼저 넥슨에 묻고 싶습니다.

1) 메이플스토리(이하 메이플)는 한 캐릭터 리마스터 작업에 참여한 여러 사람을 사상검증하고 주말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0.1 초 가량 지나가는 프레임의 손동작이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손동작 👌”과 닮았다는 일부 유저들의 주장 때문이였죠. 사과문 이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메이플의 김창섭 디렉터는 라이브에서 “혐오가 메이플을 더럽히게 용인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주장대로 👌손동작이 페미니즘의 상징이고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손동작을 넣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상검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이브에서 메이플 사업부의 디렉터가 일부 유저의 주장에 찬성하며 “혐오가 메이플을 더럽히게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넥슨과 메이플 사업부는 페미니즘이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여성차별에 찬성하고 성평등에 반대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손동작은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여성혐오 성향 커뮤니티가 21 년 GS25 의 포스터 광고의 그림을 “남성혐오표현”이라고 우기며 사이버불링을 한 결과 검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중간 동작을 잘라내서 문제삼은 후 “페미척결”을 외치는 일부 유저의 억지 주장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블루 아카이브(이하 블루아카)의 공식 일러 작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범죄가 아닌 페미니즘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으니 범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거라 믿습니다. 작업을 맡기기 전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니 그 작가가 아동 성적대상화 그림을 그려서 sns 에 올린 것을 블루아카 사업부에서 모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 메이플의 사상검증 이후 다른 게임에서도 줄줄이 사과를 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블루아카, 이터널 리턴즈 등 많은 곳에서 일부 유저의 창조논란에 사과를 했고 논란을 만든 일부 유저들은 협업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뿌리”가 문제라고 주장했고 스튜디오 뿌리는 공격당한 스태프가 동작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면서도 앞으로 모든 작업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일명 책상빼기로 불리는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애니메이션 업계는 작업에 많이 참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만큼 해고보다 더 악질인 조치였습니다만 논란을 만든 이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이후 페미니즘 때문에 퇴사를 시켰다는 2 차 사과문이 올라왔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일러스트레이터와 보컬에게까지 사상검증이 번졌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신은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사과문을 올렸고 앨범에 참여한 보컬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 이후에도 리마스터 작업에 참여한 회사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뿌리의 경우 회사에 찾아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문에 무단으로 찾아가고도 처벌이 되지 않자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 정책과 법안(피해자 보호,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예방)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면 합니다.</td></tr></table>

6718	3. 연쇄적으로 일어난 다른 업계의 사건입니다. 1) KB 부동산신탁, 현대글로비스의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서 “여자라고 무조건 불합격시키지는 않지만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글은 삭제되었으나 아카이브 한 사람이 많으니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기업은 다른 계열사에서 여성 채용차별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곳인만큼 공론화되었으면 합니다. 2) 넷마블이 퍼블리싱하는 한국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사업부에서 여성 패널이 2017 년 sns 에서 “포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을 방송에서 제외했습니다. “포궁”은 “자궁”의 대체어로 차별적인 의미를 없애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인데도 일부 유저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방송패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4. 넥슨과 프로젝트 문의 사상검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16 년 클로저스의 성우 사상검증, 2021 년 GS25 와 행안부 등의 손가락 사상검증, 쿠키런을 만든 데브시스터즈의 당일 해고통지, 2023 년 던전앤파이터의 유저 사상검증, 게임업계 내부의 사회초년생 그루밍 성범죄 등 게임업계의 노동법 무시와 여성혐오가 쌓인 결과물입니다. 클로저스에서 사상검증을 시작했으면서 반성하기는커녕 2023 년에 또다시 사상검증을 한 넥슨, 억지 논란을 들어주면서 사상검증이 다시 일어나게 한 GS25 와 정부부처이면서 억지를 들어준 행안부, 여러 차례 근무환경이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는 사상검증에 동참한 넷마블은 특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 전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초와 나비효과로 일어난 사건들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프로젝트 문의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에는 근로감독 보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게임업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감독을 더 많이 보내달라는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들에게 유혈 그림, 수위 높은 그림을 보내고 사이버불링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사화는 되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이 점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19	게임업계가 자본주의의 논리로 자행한 것들은 사회 전체에 끼치는 민폐일 뿐이다. 업계 내 여성혐오 규탄한다.
6720	한국에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여성유저도 많은데 대부분 비율이 남성쪽이 더 높다보니 이런 시답지 않은 논란이 터질때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게임을 만들어나가는 게임업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로스트아크에서도 남성유저들이 영지에다가 여자캐릭터 팬티나 소변,대변을 보는 듯한 사진을 캡쳐하고 합성해서 세워두거나 개발진들도 남성 유저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부위만 가린듯한 의상(월식)처럼 예전에 비해 여자 캐릭터들의 노출이 심한 아바타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벤 사이트만 하더라도 성희롱이 담긴 스샷 사진, 대화가 빈번합니다 몇년전부터 여자들에게 페미라고 하면서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게임업계가 그런 의견들을 수용한다면 한국에서 앞으로 여성유저들은 국내게임을 소비하지 않고 스팀이나 닌텐도 같은 콘솔게임으로 돌아설겁니다
6721	악성 유저의 억지 민원을 받아주면 그들의 민원 노예가 되는거지 논란은 끝날 일은 없을겁니다.

6722	제발 떼쓰는것좀 그만 들어줍시다 사람하나 보내버리는거로 민심 찾을생각좀 그만하시고
6723	존재하지도 않는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게임 퀄리티나 높이길 바람
6724	게임업계에 종사하고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숨죽여 참을수밖에 없나. 회사는 직원을 보호하라!
6725	제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필요한 사상검증을 멈춰주십쇼. '손가락 모양' 에 예민한 이들을 악성 게이머라 칭하겠습니다. 이 악성 게이머들은 여성 근로자가 해고 당하고 업계가 사과한다 하더라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저 혐오하고 비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스튜디오 뿌리 사과문에 달린 직접적인 반응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악성 게이머들은 자신의 편을 들어준 스튜디오에게 오히려 조롱하고 욕을 했죠. 물 위로 드러나지 않는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페미 논란으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 했던 프로젝트 문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문은 악성 게이머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완전히 악성 게이머들의 편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매출이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손가락 모양' 미신에 동참하시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손가락 모양만으로 남성 혐오 하지 말라며 한 근로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업을 끊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2023 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만행입니까? 대체 어느 쪽이 '혐오' 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으며 그 무기에 누가 얻어맞고 있는지. 혜안이 있는 분은 누구라도 깨달으실 거라 압니다.
6726	넥슨과 일부 남성들은 '혐오'라는 허상을 잡으려고 열을 내고 있지만, 넥슨의 입장과 행동이야말로 성차별을 대량 생산해주는 '대기업'임을 알아야합니다.
6727	혐오몰이를 그만하고 직원 보호에 힘써주세요. 억지주장을 하는 유저들의 말에 왜이렇게 난리를 치는질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십시오.
6728	진심으로 다시 고려해보세요 소탐대실입니다
6729	제발 게임산업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시길. 업계 커스트머를 수준 낮은 소수의 남자들 무리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6730	조직적으로 약자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행위를 멈춰라
6731	정신 좀 차려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얼 위해 혐오 종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나. 숙여진 머리 들어 올리기도 전에 잘릴지어다. 혐오하지 맙시다. 여성 노동자도 소비자도 서비스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원입니다.
6732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 어이없는 사태에 말을 해야만 아는 상황이 너무 웃겨서 일단 좀 웃을게요…
6733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현재 딛고 선 땅이 최후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한 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대체 인두겁을 쓴 자들이 언제까지 인간 흉내를 내며 어디까지 추악해져야 만족을 할 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6734	인셀들에게 놀아난 넥슨및게임업계에게 미래를 맡겨도되는가?
6735	자승자박
6736	현실을 살자 제발
6737	역겹다

6738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은 대부분 목표물이 여성일 경우에 발생하였습니다. 남성이었을 경우엔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다음 '여성' 목표물을 찾아나서는 행위가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여성혐오 행위이며 근절되어야합니다. 인디게임 개발사 <디즈웍스>의 게임과 각종 서비스들은 이러한 혐오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메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혐오를 근절하자'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게끔 기여하는 것입니다.
6739	게임만 하지 마세요.
6740	인셀남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티스트와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십시오.
6741	페미니즘이 뭔지 다들 공부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742	여성은 돈도 안쓴다고 유저 취급도 안해준다더라 내가 여태 쓴 돈은 돈도 아닌가? 여성 유저는 유저도 아닌가?
6743	게임업계는 정신차리길
6744	정신 차리세요 이 사안은 한국의 멸망적 미래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모두들 인지하고 있겠죠 지금 이 논란이 손바닥만한 한국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헛소리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나요? 이 시위의 이후로 업계 관계자들 또한 남초 커뮤니티에 뇌가 절여져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러한 거짓된 논란과 마녀사냥을 통한 여성에 대한 억압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도, 이슬람 국가에 비할 바 없이 거세지고 있으니까요, 더더욱 출생률은 최저점을 향해 내리막을 칠 것이고 여성들은 비혼을 결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자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이 나라를 뜰 것입니다 생산과 노동의 큰 주축을 담당하는 인구의 일부분이 서서히 증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상과 희망을 품고 빈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 과연 1 년, 2 년이 지나더라도 이 나라에 살겠다고 주장할 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왜 게임 업계에 이야기하냐, 혹은 우리는 사업적 수익을 위해 그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당신들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 상징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남초 사이트의 회원들이 본인들의 저속한 열망과 떨어지는 자존감을 여성들의 지위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게임 업계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넥슨은 남여노소 모두가 즐겼던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게임사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추억을 박살내고 방구석 인셀들의 주장에 기꺼이 무릎꿇어 사상 검증에 앞장서서 노동 인권을 박살내는 데에 기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넥슨이 그들의 편을 드는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논란은 끊임없이 창조될 것입니다 마녀사냥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과해야 하고 애꿎은 노동자를 색출해 책임을 묻는 프로세스가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겠죠 노동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논란이 나타날 때마다 매출이 반타작이 나고 주가는 사정없이 흔들릴 텐데 그 예상치 못하는 공격들을 감당해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억울하실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유튜브, 애플에는 말 조차도 못 꺼내는 바보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쏟아붓는 데 잘못 하나 없는 내가 사과하는 꼴이 지속되는

	것이..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특정 커뮤니티에 사상이 매인 게임 업계 관계자분들, 억압과 정신승리로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당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745	기업이란 곳이 억지논란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어 어이가 없습니다
6746	본인이 하는 행동이 여성혐오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돈 쓰는 유저를 챙겨야한다고요? 이러한 여성 혐오 문제로 떠나는 유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유저가 손가락 하나에 직원를 자르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일까요?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싶다면 모든 '혐오'를 버려주세요. 흔히 내뱉는 남성 유저들의 과격한 언사는 관례이고 스쳐지나가는 집게손가락은 혐오라고 생각되나요? 이제그만, 제발 눈을 뜨고 정신차리세요.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집게손가락은 흔한 손 포즈일뿐이고요. 이제 더는 현실의 혐오문제로 게임을 그만두고싶지 않습니다. 여성도 유저로, 사람으로 생각해주세요.
6747	게임 업계 대표사가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억지 논란으로 인한 외주 업체 악성 갑질을 보란듯이 자행한 점을 규탄합니다. 본사는 해당 상황에 대한 대처를 글로벌에 떳떳히 공지 할 수 있을만큼 자신합니까? 귀사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업계야 할 리스크에 대해 다시금 사고할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6748	구멍가게도 아닌 큰 회사에서 일부 커뮤 억지논란을 사실인냥 대응하는데에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6749	누가 봐도 억지인 논란에 애써 장단 맞춰주는 이유가 뭘까? 결국 넥슨의 구성원들은 저들과 같이 여성 혐오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지.
6750	방구석 혐오세력들과 정확히 같은 수준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6751	억지남혐 마녀사냥 멈춰라
6752	페미니즘을 제대로 배운 뒤 비판하든가 해라.
6753	니들은 안 변해도 세상은 변한다
6754	멍청한 소리에 동조말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길
6755	클로저스 사건 때랑 변함이 없어서 실망입니다.
6756	한국남자들 징징거리는 거 다 받아주지마세요
6757	할말하않
675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6759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아십시오
6760	부디 본인들의 사상이나 돌아보고 사상검증 운운하시길 바랍니다.
6761	X. 발전 가능성이 없음
6762	존재하지도 않은 심볼을 우겨 "남성혐오논란" 논란을 만들고 이를 받아준 기업들로 손가락 두개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소수의 악질적인 혐오에 동조하며 인권도 수치도 모르는 행태가 부끄럽지 않음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막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그 피해는 애초에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망상이며 그 망상의 결과로 제도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게임업계가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유리창이 아닌 거울로 이루어진 사회일 뿐이며 제발 그 거울을 깨고 나와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길 바란다.
6763	여성 탄압에 일조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764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갑질"에 가까운 민원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기업과 악성민원자들이 한편이 되어 한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태는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6765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6766	한국이 방조하고 키우고 있는 현대판 마녀사냥을 멈추십시오 근거도 논리도 없는 억지에 기대 혐오만 생산하는 나라에서 겁니까 이런 나라에서 여성이 살기위해 페미니즘을 어떻게 지향하지 않을 수 있나요 끔찍한 사회입니다
6767	말도안되는 집단 사이버불링을 멈춰줬음 좋겠습니다
6768	보자기에서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 순간을 프레임으로 나눈다면 집게모양과 같은 모습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영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소비층이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와 범죄행위를 침묵하는 건 옳지않습니다.
6769	블루아카이브 여학생 캐릭터 고수위 노출 일러스트 해명하라 (카린 바니걸 메모리얼 엉덩이노출등 다수)
6770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문제를 떠나 억지로 끼워맞춘 생떼에 업계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치를 보고 마녀사냥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6771	집게 손가락이 뭐라고 그렇게 발작들을 하시는지.. 편협한 시선들에 갇혀 있지 마시고 현재를 보며 따라가세요. 저런 의견들로 본인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잃지마세요.
6772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주의 입니다. 안티페미니즘은 성차별 옹호입니다.
6773	여자에 대한 무차별 시비를 받아주며 남자들의 확증평향을 더 심화시키는 행동은 멈춰주세요
6774	최후의 1 인이 남을 때까지 사상검증을 하실건가요. 이런식의 행보로는 최후의 1 인조차도 안 남을 것 같네요.
6775	지금은 그저 손가락 모양 하나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페미라는 이름이 붙은게요.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요. 여성의 짧은 머리카락도 페미라고하니 여성캐릭터들의 숏컷도 전부 사라질까요? 또 그 다음, 그 다음은요. 언제까지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들어주실건가요? 페미가 게임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클린한 게임이 되었다고 박수칠 때까지? 그런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검증은 게임이 문을 닫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테니까요. 이같은 불합리한 검증에 넥슨이, 또 게임업계가 기꺼이 동조하고 있음을 게임 유저로서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6776	이런식으로 "일부"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게임 내의 문제가 회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내외적으로 문제시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게임계가 보다 더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6777	페미니즘을 악마화하고 몰아가는 억측을 멈춰주세요
6778	한국남자들의 불법복제본 공유로 망한 시장이 누굴 고객으로 모셔야하는지 주제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779	해외 유저들도 해당 사태를 알 수 있도록 꼭 다국어 공지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6780	게임업계는 인셀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징징거림을 그만 들어주고 여성 차별 및 여성 혐오를 멈춰라
6781	억지 논란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혐오를 낳지 마세요
6782	노동자 보호하여 올바른 노동-게임 문화 만들어 주십시오.
6783	평범한 사람들은 손가락이 뭐? 이게 왜? 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이상하면 뭔가 그림이 이상한듯? 하고 말죠남초커뮤니티에서 말도안되는 억지부리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절대 이런 식의 대처 운영이라면 한국 게임업계가 발전할수없습니다.
6784	게임의 밸런스패치 관련논란은 무시하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0.1 초짜리 손가락 모양은 무시하지 못해서 새벽에 공지 올린게 자랑스러우신지 궁금하네요. 클로저스 성우관련 일터질때도 프문-림버스사태때도 항상 넥슨이 언급되었는데도 느낀점이라곤 여자를 차별하고 직장을 잃게 만드는걸 누구보다 앞장서자! 이런건가?...앞으로 발전하겠다 노력하겠단 소리하지마세요 노력도안하면서 말만뱉어서 다되는거면 이번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제발 정신차려
6785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자멸의 지름길이다

6786	저는 특정 사상을 가지지 않았고,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되려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반인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사상을 반대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특정 커뮤를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 생각하고, 특정 사상을 가지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되려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메이플스토리를 접하고 메이플스토리의 아트웍을 따라그리며 게임원화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취업 준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희망 게임사는 넥슨, 그 중에서도 메이플스토리와 관련된 분야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할 나이는 아니나, TDF 아카데미와 넥토리얼에 큰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제 역량이 국내 최대 게임사 중 한 곳인 넥슨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회사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이후, 국내 게임업계에서 취업하자는 꿈은 접었습니다. 10 년 넘게 꿔온 꿈이지만, 이런 업계에 몸을 담는 것보다 차라리 페이가 높은 분야를 향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화두가 된 SNS 게시물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위협할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글 이외로 영상물의 프레임 단위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가며 논란을 부풀리는 것이 유럽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2023 년 현대가 맞는지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하로 적어갈 내용은 인터넷에서 알게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게임을 플레이하다보면 대다수 작업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논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법행위가 아닌 이상 게임사는 침묵으로 답합니다. 실제 사례또한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BanG Dream!' 에서 히카와 사요 역을 맡은 여성 성우인 쿠도 하루카 성우님은 82 년생 김지영의 책을 읽은 글을 인스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고하라는 한국어 댓글이 일어났지만 게임사는 침묵으로 답했고 논란은 곧 사그라들었습니다.(원본 글이 삭제되어 캡처본이 첨부된 글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779/read/45899059) 개인이 특정 사상을 가지는 게 해고의 이유로 과연 타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집단의 현 시대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마녀사냥을 게임사는 곧이 곧대로 수긍한 것이 지금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게임사가 응당히 지켜야할 태도는 극단적으로 취우쳐진 집단의 요구를 곧이 곧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닌,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태도를 내세우며 침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감히 작성해봅니다. 감사합니다.
6787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란 걸 알면서, 꼬리자르기와 먹잇감으로 던져주기로 사람들을 희생시킬 생각입니까? 이럴수록 사라지는 것은 메갈이 아니라 우리 업계인의 발판입니다.
6788	이미 선택적 대응해왔으면서 무슨 자신으로 '모든' 이란 단어를 사용하는건가요
6789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횡포,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횡포, 차별주의자들이 일반게임유저에게 가하는 폭력 조장 및 방치, 하나하나 전부 심각한 문제임을 자각하시오.

6790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유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게임업계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짜집기된 그들의 의견만이 받아들여지는 이 업계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791	페미니스트들은 한국남자들 성기크기에 일말의관심도 없다
6792	넥슨은 게임업계의 대기업일텐데... 보여주신 불합리한 일처리와 누구보다 혐오적인 편에 앞서 행동하시고 동조하시는 모습이 실망스럽고 놀랍습니다. 적어도 오랜시간 해온 귀사의 게임을 앞으로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좀, 제발!
6793	논란 일으킨 게임 유저와 같은 성별,남성으로써 억지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제발,넥슨은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세요.
6794	일부 남성들의 억지 논리로 만들어진 논란을 받아들이는 넥슨에 크게 실망입니다
6795	작업물에 몰래 손가락을 집어넣는 페미'라는 가상의 존재는 그 실체부터 활동까지 모두 일부 몰상식한 항의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혐오와 확증편향에 의해 탄생되고 부풀려진 망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상과 억지에 기반한 허위 주장이 검증도 없이 기업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마녀사냥으로 실제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너무도 쉽게 위협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게임업계에는 근로자를 위한 법도 원칙도 없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억지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측과 대중으로부터 사상을 검열당하며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에 기업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러한 반민주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어떤 근로자라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796	혐오 생산하는것을 그만두길
6797	남자들의 억지 논란에 휘둘리는 게임 업계는 정신 차리고 중심을 지켜라
6798	터무니 없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6799	여성과 혹은 그 관련 논란에서, 특히 이번 집게손 논란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채 그저 넷상 남성들의 반응에 편승하여 그들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남성혐오를 외치며 실질적 여성혐오를 꾸준히 해온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6800	넥슨포함 게임업계는 도대체 페미니즘이 뭔줄알고 그리난리를 치는건지 알고싶다 진짜알고그러는거면 공지로 한국뿐아니라 글로벌공지로도 꼭 넥슨은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올려라. 여자랑 남자 차별적으로 대하는 넥슨이라고 꼭 공지에 써놓으면 절대 넥슨게임할일이없으니깐

6801	넥슨의 주도하에 여러 게임사들은 일부 유저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명확한 사실 검증도 없이 사실로 만듦으로써 노동자 한 명이 다수의 비난과 비방을 홀로 감당하게끔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논란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게임업계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주의일 뿐이며 범법도 혐오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여성이 페미니즘 사상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로스트 소드'라는 게임 측에선 공개된 애니메이션 pv 에 논란이 된 손동작을 그린 직원이 남자라는 근거를 들어 오해 여지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련의 사태가 여성 검열, 여성의 사상 검증, 나아가 여자 죽이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동화 작업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이라는 해명은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 둘 다 같았는데, 어째서 남성 직원의 주장에만 설득력이 생기는 걸까요? 논란의 손동작이 일부 집단의 주장대로 명백한 혐오표현이라면 그것을 그린 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결백함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규탄은 철폐되어 마땅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6802	별 같잖은 문제제기에 애니메이터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받아주면 한도끝도 없어요. 연결동작 사이 1 프레임 손모양을 페미니즘이라고 간주하고 예전 교묘한 일베인증처럼 페미니즘 인증이라고 생각하다니 수준이 너무 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시다니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시겠네요. 하지만 위에 썼다시피 다 받아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부러 저자세 취하지 마시고 멀쩡히 일하는 사람 자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 의견은 아니잖아요. 사과하고 받아준다면 손가락모양이 페미니즘 인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성숙한 의사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803	일루미나티 삼각형 쫓듯이 찾은 집게손에 진지하게 반응하는게 혹시 남초회원이 간부직을 다 맡고있나 진지하게 의심됩니다.
6804	여성의 권익과 노동자의 권익을 밑바탕으로 여성노동자의 인권이 형성됩니다. 뿌리가 되는 여성인권과 노동자인권이 말도 안되는 음해에 휩쓸려 침해받지 않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6805	덕분에 게임업계 종사하는 남성들에게 편견이 생겼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결국 퇴사를 했다죠? 노조를 끼고 있는 기업이 윤리조항을 무시하고 사상검증이랍시고 여성노동자와 게임내 여성유저들을 편증된 사고로 탄압하고 추적하며 마치 그게 정의구현이라도 되는 양, 게임 디렉터라는 사람이 공식사과를 한 걸로도 모자라 집게손가락이 들어간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국내 게임업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게손가락'을 향한 집착이 결국은 그냥 조롱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라는 이유로 파생된 피해의식적 자기혐오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엄한 사람들을 검열하고 엄한 사람의 생업을 끊습니까? 그리고 그게 기업이 개입하여 가타부타 할 사안일 정도로 중요하답니까? 집게손가락을 검열할 에너지로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블루아카이브 일러스트레이터의 소아성애 그림들을 검열하고 고소하는데 쏟으십시오. 진짜 잠재적 범죄자는 거기에 있으니까.

6806	같은 한국인인 게 부끄럽습니다 넥슨
6807	일부 유저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줌으로써 게임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아주십시오.
6808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지 뭐가 혐오인지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네요 전수조사 열심히 하시고 유저들이 원하는거 하나하나 꼭 다 피드백 해주세요^^
6809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주자인 넥슨이라는 기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게임업계 최초로 노조를 설립한 곳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옴에 유감을 표합니다.
6810	업계의 부당해고를 막아야합니다.
6811	남초 유저들의 여성억압놀이를 위한 억지주장에 굴복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고있기 역겹습니다. 왜 사과하는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그리 송구한지 다시 성찰해보시기 바랍니다.
6812	페도필리아 일러스트로 밥벌이하는 남성 일러스트레이터 'mammoth' 고용은 문제가 안되고, 집게손은 논란이 되는 현실이 21 세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게임 속 여성 캐릭터를 성적 대상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로 낙인찍히고 전화해고당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가 하면 버젓이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강간, 성폭행 등을 그려내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해당 남성 일러스트레이터는 왜 규탄받지 않나요? 업계 자체의 고용상 차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업계에서 내놓는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도 지양하세요 제발
6813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일부'나 그 말에 장단맞춰주고 앉아있는 기업이나 도찐개찐이네요
6814	사상검증을 규탄합니다.
6815	혐오 근절 따위를 말하면서 잣대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게임업계 ! 인게임에서 여성 유저들이 듣는 수많은 성희롱과 여성혐오적 표현은 무시하다가 남성 유저들에게는 납작 엎드리는 게임업계 ! 남직원이 그린 해녀복 일러스트에도 애꿎은 동료 여직원을 부당해고 시키는 게임업계 ! 남초 집단은 그저 자기들이 기업을 움직이고 여성을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이 짜릿하고 재밌을 뿐입니다. 스포츠 경기처럼요. 그리고 이미 억지를 한 번 들어 준만큼 앞으로 남초집단에게 검열 당할 요소들은 더 많아질겁니다. 틈만 나면 메이플 이거 남혐 아니냐? 이거 그 손모양 아니냐? 따위로 지적 당할겁니다. 그렇게 억지 부리면 기업이 나서서 들어줄테니까요.
6816	니들 게임에 쓴 내 돈과 시간, 추억까지 물어내라
6817	인셀들 비위 맞춰줘봤자 좋은 꼴 못 봅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6818	일부' 남초집단의 창조논란에 빌빌 기면서 비위 맞추려고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매장시키려는 게임업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6819	정신 차리던가 망하던가
6820	허구 혐오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6821	페도필리아는 고용하고 자기들이 하청맡긴 평범한 영상은 손가락 하나하나 검열하냐

6822	협업게임으로 거론된 특정 게임 유저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게임 접었습니다. 남자만 유저 아닙니다. 여자도 게임 즐기는 유저들입니다. 근데 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까. 뭐가 무서워서 남자들한테 그렇게 쩔쩔매고 바로 사과하는겁니까. 왜자꾸 그들의 억지에 힘을 실어줍니까. 대부분의 한국 게임들은 여자캐릭터를 성적대상화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여성 신체부위를 부각하고 노출한다던지 하는. 그런 여혐은 수십년째 눈뜬장님마냥 모른척 당연한척 이어오면서 말도안되는 손모양으로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드는게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렇게 빠른 대처 저는 게임하면서 처음봅니다. 어쩜 그리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하다못해 저 문제로 남자유저들이 실직적으로 피해를 본게 있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상검증 당한 여자들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결국 그 남자들이 원했던건 그런겁니다. 또한 여성게임유저는 계속 줄어들겠죠. 한다쳐도 게임안에서 여혐이 판치는데.. 아무리 건의해도 기업은 여자말 안들어줍니다. 남자들의 이 말도안되는 논란에는 그렇게 빠른반응 보여주면서. 계속 그렇게 그들의 억지에 맞장구쳐주고 거들어주는게 진정 기업들이 할 올바른 행동이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논란되고 커지면서 게임뿐 아니라 온갖 모든곳에서 사상검증당하고 낙인찍히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겁니다. 그걸 지금 게임업계들이 앞장서서 하고있는거라고요. 집게손가락으로 과자 먹다가 페미라고 욕먹은 사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왜 멀쩡히 잘만해오던 집게손가락도 그 남자들은 못하게만들죠? 여자들은 이렇게 진짜 피해보는데 남자들은 대체 무슨 피해를보죠. 그저 본인들의 피해망상일뿐인데. 이게 다 기업들이 거들어줘서 그런겁니다.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니까. 현재 그들은 2007 년에 발매된 게임에서마저 손가락모양을 억지로 끌고옵니다. 이게 그들의 수준입니다. 지금 게임업계 행보는 저런 남자들과 게임회사들이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걸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래놓고 2023 년인 아직까지도 제정신이 아니라니 놀랍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제발.
6823	사서 큰 일을만드는 한국게임업계
6824	7 년 전 성우 티셔츠 사건 때 저는 연대의 리트윗을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생계에 타격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살면서 온갖 곳에서 터진 일베 논란들이 유야무야 묻히는 모순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의 인권 위에는 티셔츠 한 장이 놓여있습니다. 2023 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사태를 빚어낸 넥슨을 향한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6825	넥슨이 이렇게 이용자의 문의에 빠른 답변을 해주는 회사인지 이번 사태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넥슨의 이번 대처는 게임 업계 뿐만이 아닌 다른 계열의 회사에도 큰 피해를 주는 선택이라는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재미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네요.
6826	게임 유저들간에서 실재하는 혐오는 잡지 못할 망정 허상의 혐오에 사로잡혀 무고한 사람을 검열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6827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는 하고있습니까? 오로지 우리나라만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른채 무작정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찾아보셨는지요?

6828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부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를 들어주며 무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끔찍한 행태를 올바르게 바꾸지 않는다면 넥슨이라는 기업 자체가 여성들을 혐오하는 남성들과 같은 생각과 의지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넥슨의 그 어떤 서비스도 더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6829	넥슨이라는 대기업이 여성혐오를 숨쉬듯이 하는 일부 게이머 남성들이 손가락 모양에 난리치며 남성혐오다, 페미니즘은 범죄 행위 및 반사회적 행위라고 외치는 것에 사과문을 올림으로써 여성혐오와 사상검증으로 인해 한명의 애니메이터가 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넥슨은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6830	사상검증 멈춰라 여성혐오 멈춰라
6831	억지논란 만드는거에 반응 좀 해주지 마세요
6832	모지리가 지배하는 한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6833	직원 개인이 성평등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및 신상털이, 개인 sns 사찰, 명예훼손 등의 마녀사냥을 일삼는 국내 게임업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될수록 게임문화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텐데, 국내 게임업계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6834	대한민국 게임을 이끌어 가는 자리에 있으면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합시다 줏대없이 아무 논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말고
6835	어릴적부터 넥슨의 게임을 했었습니다. 즐겁게 게임했던 기억이 전부 후회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여성 게임 유저는 유저도 아닌것인지 묻고싶습니다.
6836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옳은 사회가 뭔지 생각좀 해보시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37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인셀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임업계의 실태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시정하십시오. 그리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는 없습니다.
6838	그깟 손가락 모양 가지고 못 견디는 꼴이 우습 한국 여자들은 수십 년간 온갖 혐오 단어에 시달렸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건만 남자들은 고작 손가락 하나에 발작하고 페미니즘 선언하자 부당 해고까지 일삼았다.
6839	말같지도 않은걸 받아주니 목적없는 스포츠가 되어 온갖업계를 피곤하게 하는거고 그 선두에 서있는 넥슨과 게임업계가 참 황당합니다. 해당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무시한 기업을 보세요. 논란이 되지않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미부여해 직원과 하청에 까지 비상식적으로 적용해 부당한 행보를 계속한다는건 소수 정신병자들의 스포츠에 휘둘려 전세계를 등지겠다는건가요? 외신에서도 크게 알아야할 일인데 부끄러움은 왜 우리몫일까요?

6840	저는 캐나다에 살고있는 유저입니다.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싸게 먹힌다는 이유로 직원을 혐오를 놀이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먹이 주듯이 던져버린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소비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톱니바퀴 보듯이 갈아치우고서 사람들의 돈을 뽑아먹는다는것이 정말 슬픕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상이 아닙니다. 그냥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이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또다시 꼬투리를 잡고 늘린것이며, 넥슨 및 게임업계가 그것에 반응해준것입니다. 저는 게임을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각자 이야기를 담고있으며, 그것을 표출하는것이 개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게임사가 혐오에 굴복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한국의 게임을 소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841	첫째. 블루 아카이브 공식 코믹스 작가의 페도필리아(소아 성애) 의혹 넥슨 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중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공식 코믹스(제목: 블루 아카이브 흥신소 68 업무일지)의 작가 '노기와 카에데'가 아동을 강간하는 내용을 담은 상업지로 작가 활동 중 입니다. 확인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고용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넥슨에서 해당 작가를 고용했다면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피드백 요청 부탁 드립니다. 둘째. 블루 아카이브 일러스트레이터의 페도필리아 의혹 블루 아카이브의 외주 일러스트레이터 도론타비(전 트위터 현 X, @dorontabi) 는 이전 맘모스(@mammoth_2020), 도론타비(@drtbgirlgirl, @dorontabi)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계정을 수시로 탈퇴, 재 생성해가며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기 어렵게 하며 아동 음란물을 그려왔습니다. 또한 일본 창작물 게시 사이트 〈픽시브〉 등으로도 활동하며 매월 몇 천원 단위에서 몇 만원 단위의 구독료를 받으며 아동 음란물을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수 소지 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으며, 아동 착취물을 베껴 그린 후 다수에게 공개한 이력도 있습니다. 더불어 위의 상기한 소아 성애적인 기호는 블루 아카이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다수의 게임 업계에서 소아 성애, 더불어 미성년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어린 외모의 캐릭터들의 과도한 노출 일러스트, 부적절한 대사들을 다수 함유한 게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이플 '페미 사건'의 넥슨과 과거 블루 아카이브, 림버스 컴퍼니의 프로젝트 문, 클로저스 등의 게임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여성 노동자 탄압 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을 조장하는 소아 성애의 양지화, 여타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의 개선을 촉구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6842	진심 똥같아서 국내게임 못해먹겠습니다 이럴거면 그냥 시작할 때 빨리 걸러버리게 저희는 페미니즘 지지 안하고 사상검증 할거라고 대문짝만하게 안내문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6843	집게손이 한국남자들의 작은 성기를 비방하는 '혐오표현'이라면 한국 남성들은 왜 구글 등 외국계 대기업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여러 집게손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논리대로라면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혐오를 부추기고 양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집게손 혐오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혐오입니까? 국산게임, 국산브랜드에서 사용은 지양하여야 하는 혐오지만 외국 기업은 괜찮습니까? 팩트는 집게손 논란이 말도 안되는 논란이고 외국 기업과 브랜드를 대상으로 항의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을 논란을 조장한 '일부' 한국 남성과 넥슨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넥슨 또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넥슨과 관련된 게임, 브랜드의 수익창출을 일절 돕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외신에 보도되어 억지 논란을 만들어 낸 '일부' 한국 남성과 그에 동조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잃게한 넥슨 게임사가 이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신에 집게손 논란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44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쪽팔려서 진짜...
6845	여성혐오로 억지논란을 만들어 여성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게임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혐오를 멈춰야 합니다.
6846	일부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며 선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 직원이나 여성다수의 회사의 작품을 1 프레임씩뜯어보며 핸드폰을 집는 손가락, 물건을 집는 손모양, 심지어는 그저 손을 펴는 모양을 일시정지하면서 피해망상과 같은 수준으로 손을 검열하는 행태와 이런 일부 유저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넥슨의 행보에 통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가히 현대판 마녀사냥이라 해도 될 정도로 손모양 하나하나 뜯어보며 심기에 거슬리면 페미(마녀)로 선동하는 것이 옳은 사회입니까? 그 '일부 유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과자를 집어먹을때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먹지 못하고, 반하트를 만들때도 신경써서 만들어야 하며, 물건도 마음대로 집지 못합니다. 메이플의 확률조작 사건때는 세월아 네월아 입장문이 나오긴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대처가 늦었는데, 특정 성향을 가진 사이트에서 불만이 나오기가 무섭게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이 인상깊습니다. 같은 넥슨 게임인 블루아카이브의 공식 남성일러레가 실제 아동의 그라비아사진과 아동포르노를 참고하여 '로리(어린 여자아이)야짤'과 가학적 내용의 '로리강간물'을 그려 여러 곳에 올렸다는 범죄사실은 눈감고 넘어가지만, 1 프레임 단위의 스쳐지나가는 손모양은 참지 못하여 즉각적인 여성직원 해고로 이어진다는 현실이 참 화가납니다. 일부의 기분으로 인해 여성의 생계가 좌지우지되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녕 2023 년의 한국이란 말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한국 게임 업계를 고발합니다.
6847	전세계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 안부끄러운가
6848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업계에 만연하게 퍼진 혐오는 여성유저들을 향한 남성 유저들의 악의와 조롱입니다 처음부터 이부분을 이야기하지않는 한 모든이야기는 성립되지않습니다
6849	선동되는 혐오를 철폐하고 더 나은 게임 방향성에 유의미한 시간을 쏟으세요
6850	게임업계 수준 레전드에요(안좋은 뜻)

6851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에는 본인의 사상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 때문에 권고사직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고객이 관련된 이유로 억측을 부리는데 동조하는 기업도 진상 고객과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사상을 핑계로 한 여혐이고 기업이 같이 참여한다는 건 그 기업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뇌가 남초커뮤니티에 절여져서 이게 뭐가 잘 못 된지도 모를 거 같은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6852	정신좀 차리세요
6853	천박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도 비웃음이나 살 만한 짓거리 아닙니까? 페미니즘이 뭐 별겁니까? 여자도 사람처럼 살겠다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에 동조한 넥슨 및 게임업계는 곧 여성을 인간취급하지 않겠다, 노예 대접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죠? 성차별주의자인 게임업계와 남초집단이 문제이지요? 이미 한참 떨어진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사는건 니들 맘대로 해도 그만인데, 왜 싸잡혀서 창피한 건 한국여자들입니까? 국격을 말아먹어도 정도가있지 스트레스받습니다. 전국적 공해이자 후퇴이며, 남성 집단과 게임업계의 만행이 무식하다 못해 인간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의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쪽팔린 줄 아세요.
6854	회사내의 무분별한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6855	손가락으로 유난떠는거 그만 받아주세요
6856	혐오의 주체는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6857	넥슨 카트라이더 20 년 가까이 하고 이제 서버종료로 인해 떠났지만 이 회사는 여전하군요 저도 한때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사이버불링 당해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 중 한 남자 고등학생 유저는 어머니 성기 관련된 음담패설 쌍욕 채팅으로 고소 합의 직후 뻔뻔하게 프로 선수로 데뷔했던데요 이유는 리그 출전 당시에는 합의 후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사건 있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었죠 그런 논란 있는 선수를 기용하는 회사였으니 이번 일도 놀랍지 않습니다 한때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넥슨 게임을 즐겼으나 갈수록 행보가 안타깝습니다
6858	여성 유저는 남성 유저와 동등한 유저가 아닌가요
6859	지금이 2023 년이 맞나요? 성평등에 대해서는 한없이 후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에 앞장서서 일조하고 있는 게임업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클로저스 사태로부터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은 회사방침에 게임업계가 얼마나 고였고 한 쪽의 성별로만 치우쳐져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회사에는 여성직원이 없는걸까요? 당신들의 고객에 여성은 없나요? 국내게임은 오직 남성만을 위한 오락거리인가요? 저런 말도 안되는 악질남성 유저들의 떼쟁이 소리를 들어줄거라면 애초에 게임 시작문구에 여성유저는 받지 않는다고 대문짝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회사 관계자분들도 그들의 메갈 일루미나티 주장이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본인의 지적능력을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6860	별것도 아닌 일로 생때쓰고 예민보스의 최종 빌런같은 '일부 유저'들은 한줌일 뿐,소리내지 않는 유저들이 훨씬 많다는것만 기억하시길.
6861	아무리 고객의 돈줄이 명줄이니 킹왕짱이라기로, 단체삽짓 좀 그만들 합시다 이제.
6862	시대에 맞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6863	대체 그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사람을 자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슨 거창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심기에 거슬렸다고 주장하는 일부 악성 유저들의 억지 요구를 언제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주며 장사할 겁니까?
6864	현재 게임 업계의 행보 자체가 여성 혐오이며 성차별이다. 방구석 특정 성별의 억지 논란에 휘둘리지 말라. 그들의 일시적인 발광은 당신들의 매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6865	진정 해결해야할 문제에서는 눈을 돌리고 억지 주장에만 동조하여 게임 문화를 해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여성 혐오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6866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라고, 어떤 집단의 어떤 주장을 받들어 여기에 왔는지 내부에서 성찰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게임과 콘텐츠를 다루는 제대로 된 철학을 세우리라고는 사실 기대도 안합니다만, 최소한 노동권의 관점에서 문제될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요? 직장 내 여성혐오 근절이라도 하십셔
6867	소수의 비상식적이고 혐오적인 발언과 사고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적인 사고와 대처를 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6868	정신차리세요
6869	게임업계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반대합니다.
6870	확률 공개 당당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6871	억지논란 속 여성들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혐오하는 소수남성들의 억지를 받아주는 넥슨은 이를 인정하고 여성 근로자들의 사상검증을 멈추십시오
6872	그냥 대놓고 페미니즘이 싫다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텐데요.
6873	멀리 못보고 망한 다음 후회 말기
6874	부당한 일에 굴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길 바래요
6875	남성 유저 만이 유저가 아니며 여성 유저 또한 유저 대우를 받으면서 게임하고 싶다. 실존하지도 않는 메갈 제스처를 남초 집단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존재하는 양 인정하는 게임회사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길 바란다.
6876	일부 남성 유저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말고 노동자보호에 노력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6877	”팀장“ 이라고 불려진 댓서라는 분의 sns 계정에서의 글을 제외하고 오직 애니메이션만을 두고 정말로 그 집게손가락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딱밤때리는 손가락 자세를 해보세요. 무조건 집게 손가락이 됩니다 . 이런 생활속 자세들이 모두 문제가되나요? 애니메이션 작업은 게임회사처럼 혼자만드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분명 작업과정에서 여러차례 원청인 넥슨에게 피드백을 받았을텐데, 여기서 문제를 느끼지못하셨다면 당연히 의도가 없었던게 맞지않나요? 팀장분 한분만 제작한거라면 몰라도 다수가 참여한 작품입니다. 뿌리측 사과문처럼 어떻게 모든 프레임을 한명이 관리를 하나요? 또한 여러 기사속 댓글에서 그 팀장이 작업한건 다 나왔다는데, 어느 애니메이션이건 프레임단위로 나누면 다 나옵니다. 시트도 본적없으신데 어떤컷을 팀장님이하고 어떤컷을 안했는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아시나요? 이런 억지스러운 움직이는 장착물을 프레임단위로 멈춰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6878	페미니즘 지우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것 자체가 오만하다

6879	사측 노동자들의 일베사상 부터 검열해서 뿌리를 뽑길 바람. 특히 블라인드 측에 회사명 달고 정치적 및 성적취향을 간접적 전시하는 사원도 제재바람
6880	노동자가 어떤 사상을 품고 있든 간에 기업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6881	정신 차리세요
6882	21 세기판 마녀사냥 사라지길 바랍니다
6883	주소비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혹은 다수의 남성들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지할수 없는 산업이라면 망하는것이 맞다. 최저시급을 주고 사람을 부리면 유지되지 않기에 꼭 불법적인 시급을 주고 불법적으로 노동법을 어겨야만 존속될 사업이라면 당연히 접어야하는것이 맞듯이, 인권 노동권을 무시하고 법을 어겨서 비위를 맞춰야만 넥슨이, 나아가 게임업계가 살 수 있다면. 그냥 죽어라.
6884	부당해고 말도 안됩니다
6885	우리 모두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겨운 '혐오 몰이 놀이'를 멈추십시오. 게임업계는 성차별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6886	정신 차리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억지입니다. 억지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6887	인셀 디씨 일베 등 사회적 규탄을 받아야 하는 무리들의 의견이 아닌 여성들의 말에 귀 기울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6888	페미니스트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요???
6889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인셀 스스로가 만든 집게손 논란에 여성혐오까지 더해지니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는거 같네요.
6890	아청법 위반 범죄자 일러레나 자르고 여혐이나 멈추세요 메이플 용사에 여자는 없냐
6891	모순된 행동 역겹다
6892	2023 년에 쯧
6893	정신 좀 차리세요
6894	말도 안되는 억지는 그만 들어줘라.피해는 늘 여성들이 입었다.
6895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입니까?

6896	저번 프로젝트 문 게임(림버스 컴퍼니)의 특정 일러스트에서 여성 캐릭터가 노출이 없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에 분노한 극남초 커뮤니티에서 그 게임의 일러스트 작업에 다수 참여한 여성작가의 과거 sns 활동까지 모두 털어내 사상검증까지 하며 이에 대한 사이버불링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해당 여성 작가는 처음에 논란이 된 일러스트의 작업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논란 속 일러스트의 작가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관련도 없는 '여성' 작가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문 게임사 측은, 해당 여성작가가 입사하기 전 sns 활동을 빌미삼아 회사규정을 어겼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도 공지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의 생떼와도 다름 없는 억지논란에 관련도 없는 여성작가가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삽시간만에 해당 여성작가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부당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넥슨 게임(메이플스토리)의 홍보 애니메에션 속 캐릭터가 0.1 초 정도 집게손가락을 취하는 모습이 남성혐오표현이라 주장하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를 담당한 여성작가를, 남초 커뮤니티에서 마녀사냥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림버스 컴퍼니 사태와 마찬가지로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작가 개인의 sns 활동을 털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해가며 억지 논란에 더욱 더 불을 지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가 말하는 페미니스트란 반사회적집단이며 거대한 음모를 퍼뜨리는 집단과 다름 없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고작 0.1 초 나온 장면으로 작가의 개인 소셜미디어활동까지 털어 그들이 규정하는 페미니스트와 연관짓고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넣었다는 남초커뮤니티에서의 주장은 순억지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논란이 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억지논란을 만들어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 또한 내렸습니다. 여성 캐릭터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지 않아서, 캐릭터가 집게손가락을 취한 모습이 0.1 초 나와서, 남초커뮤니티는 여성작가들의 사상검증을 하고 작가들을 향한 비방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사 측은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뒷전이고 일부 유저들의 억지에 굴복하고 사과하는데 급급합니다. 이와 같은 게임업계의 대응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6897	여성혐오자들에게 힘 실어주지 마세요. 아니면 여성혐오자들과 함께 영영 후퇴하고 도태되시든지요
6898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억지 주장들에 필요 이상으로 동조하지 않길 바랍니다
6899	저는 여러분이 부끄러워요.
6900	정신차려라. 애초에 그게 문제라면 외국은 왜 조용하고 한국남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냐? 억지이기 때문이다.
6901	왜그러고사니
6902	도태된 남자들이 억지부리는걸 들어준 너네도 잘못이다
6903	대기업에서 대놓고 약자 묻어버리는 꼴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6904	특정 커뮤니티 층에서 시작된 집게손을 찾아내기는 애당초 개연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대상을 향해 공격하고, 실시간으로 무너져내려 가는 상황을 오락거리로 여기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갑 측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을의 입장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피해를 고려해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이 생겨날텐데 이렇게까지 키워도 되지 않을 일들이 커지게 되어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6905	페미니즘은 테러행위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고객층은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6906	지금이 2023 년이 맞나 통탄스럽네요 넥슨의 대처 정말 대단합니다 ^^ 앞으로 메이플 뿐만이 아닌 모든 넥슨 게임에서 손모양 검열당할 미래가 그려지네요 업보니 받아들이시고 초딩때부터 이용하던 넥슨 앞으로 절대 이용할일 없으니 손모양에 발작하는 분들과 열심히 잘 해내보십쇼 화이팅 ㅋㅋ
6907	정신차려라
6908	진상 소비자의 목소리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체 그들의 말에 즉시 극단적 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6909	단 몇초의 메갈손으로 직원을 자르는게 말이 됩니까?
6910	개인, 그리고 여성을 짓밟는 방식을 택하는 어리석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6911	페미니즘 혐오를 멈추시오
6912	게임업계에 만연한 부조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주류 사회에서 도태되고 여러분이 약한 사람에게 가한 압력을 사회에서 받게 될 겁니다.
6913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6914	여성유저도 페미니스트도 모두 게이머입닙다.
6915	이러한 이슈로 더이상 무고한 여성및 업계종사자가 피해를 보거나 잘리지 않고 블랙컨슈머들의 상식밖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916	페미가 아니라 본인들이 문제인것을 알아야하실것 같네요
6917	정신차려라뭐하냐
6918	지켜져야 할 도덕은 모르쇠, 근거없는 성별 갈라치기에는 앞장서서 굴복. 줏대도, 올바른 판단도 없는 업계에는 더 이상의 성장도, 그 뒤를 지켜줄 유저도 없다.
6919	여성 게이머와 업계인이 차별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6920	성인지 감수성을 공부하여 부디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일조하십시오
6921	비상식적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바람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다 한국의 게임회사들이 자초한 일을요. 해외에서도 이말도 안되는 일로 비웃더군요. 억지부리는 사람들 말 다 들어주고 사세요. 이런 사건에 열심히 동조해주셨으니 이제 실력있는 여자분들은 무서워서 게임업계에서 일 못하겠네요. 진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6922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업계가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부 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6923	벌써 6 년 7 년째입니다. 여성 유저로써 동시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넥슨의 게임을 즐겨온 유저로써 첫 발단인 클로저스때도 앞으로도 이러진 않을거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배신당하네요. 다시는 넥슨 게임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18 년을 함께해온 계정도 이미 삭제 처리를 진행중이고 그 계정에 들여온 돈도 깨끗이 잊을겁니다. 이 유명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의 게임 업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혹시 알까요 정말 변하게 될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6924	한국게임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6925	사상검증 및 불법해고 근절
6926	페미니즘의 제대로 된 뜻을 아시고 혐오 동조 멈추십시오
6927	멍청하면 망하는게 수순이니 조만간이겠네 ㅇㅇ한국겜 안해요~
6928	넥슨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한다.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6929	이대로 망하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6930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하십시오.
6931	제대로된 생각이 박힌사람은 이런 논란 신경 안씁니다.
6932	넥슨 및 게임업계는 회사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불법적이지않은 종교적, 사상적 활동의 검열을 중지하라.
6933	오직 회사만을 위한 말단사원 꼬리자르기식 사상검증 부당해고 멈춰라
6934	게임업계는 여성혐오를 멈춰라
6935	특정 혐오사상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여성혐오에 진심인 회사라는게 밝혀졌네요. 부디 해외에도 이 사건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6936	남자들의 억지논란을 계속 받아주어선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집게손가락으로 사상검증하는것 자체가 이해가안됩니다. 남자들의 논리야말로 혐오를 조장하고 몰아가는현상을 더이상 묵과하지말고 잘못되엇다는걸 모두가 말해야합니다.
6937	본인들의 성기 길이에 자격지심을 갖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한국남자 성기 길이에 관심조차 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혐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형태의 망상으로 여성혐오를 정당화 하려 하지나마라! 본인들의 자의식과잉이나 반성하라!!!
6938	변한게 없네
6939	문제삼은 장면은 캐릭터 동작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그려지는 단계이며, 이를 문제삼는것은 실체없는 존재의 악마화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입니다. 사측은 컨텐츠와 직원을 억지 논란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등한시하다못해 오히려 그릇된 논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6940	억지논란에 매출을 위해 굳이 굳이 받아주고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찔찔하네요
6941	사상검증 그만하시고 유저들의 반은 여성입니다.
6942	정신 좀 차려라
6943	이번 일은 대기업의 횡포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로 게임 업계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944	게임업계 여성혐오를 규탄한다.
6945	억지논란을 빌미삼아 여성 직원의 사상검증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6946	모든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여성혐오는 왜 멈추지 않는가?
6947	생각이란걸 해라
6948	쉐도우복싱의 끝판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함 어이가 없고 정말 화남
6949	상당한 비율의 여성 유저들과 직원분들이 넥슨에 존재함에도 남성집단의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주장만을 수용하여 여성만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규탄합니다.
6950	인셀과 그만 놀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일을 해라
6951	말도안되는 사태를 키운 넥슨은 이에따른 책임을 지길바랍니다
6952	시대가 어느 때인데 ..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6953	악성 이용자에 휘둘리거나 그들에 동조하는 게임 업계의 악행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6954	윤리적으로 삽시다. 반사회적인 집단에게 마이크 좀 그만 쥐어주세요.
6955	말도 안되는 논리에 휘둘려서 정당화하는 행태는 무지의 소산이다
6956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말도 안되는 억지 떼쓰기를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6957	엄지 검지 잘라라.
6958	피해의식에 찌들어 여자들 죽이는 행위는 제발 그만 했으면
6959	억지논란 멈춰주세요.
6960	유저랑 게임사들이 손잡고 여성은 필요 없다고 온 동네방네 소리쳐가며 소금을 뿌려대니 그 꼴 보기 더러워서 원하는 대로 떠납니다. 어디까지 갈 지 궁금하니 부디 변치말고 그대로 계세요.
6961	일부 악성 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6962	앞으로 넥슨은 절대 손 동작 애니메이션 외주 맡기지 마십시오~~~~~
6963	메이플 커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남초 커뮤 및 게임사의 대응 방식으로 봤을때 메이플 커서야말로 대왕 메갈표식이라 바꿔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커뮤에 소속감 가지는 걸 넘어서서 표식 만들어 음습하게 공적 작업물에 끼워넣는 행태가 남초 문화에선 익숙한 일인가요? 그래사 여자들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프레임 단위로 뜯어서 메갈 로고랑 유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끼워맞추기로 마녀사냥 해대는 행태를 보면 한국 수준이 이 정도였나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넥슨 게임인 거 알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6964	일베싸인 처럼 인위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하게라도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손동작, 그리고 예전부터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해온 것을 어느 날부터 저 손동작이 남자의 작은 성기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걸 빌미로 직업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넥슨은 거대한 게임업계로써 1 프레임마다 검열할 것이 아니라 일부 유저들의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할수 있는 메뉴얼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965	넥슨이 악성 소비자의 민원을 차단하고 직원 보호에 힘쓰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즐기는 게임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부디 혐오를 멈춰 주십시오.
6966	왜 그런 손모양이 작업물에 많이 나오냐? = 가장 기본적인 손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먹 쥔 손, 쫙 펼친 손이 아닌이상 사람 손은 원래 힘뺀 기본상태가 그런 생김새에요. 그림 손 자료만 찾아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모양이요. 움직임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려넣어야 하는 모양이요. 이펙트에도 넣은거다 = 이펙트는요... 동그라미, 네모, 각진 모양으로만 이루워 진 게 아닌 불규칙성을 띈 패턴이 들어가는게 기본이에요. 불 피워놓고 그거 촬영해서 한 프레임씩 싹싹 뒤져서 조금만 ㄷ 자 모양이 있어도 스리슬쩍 넣었네 ?? ㅋㅋ 이러고 있는겁니다. A: 사람의 손의 각도는 한정되어있고 주먹과 쫙핀 손이 아닌이상 손에 힘을 뺐을 때 손이 굽을 수 밖에 없다. Q:하지만 그 손가락은 실제로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A: 맞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썼다. 그래서 검열해가며 피해서 쓰고 조심하고 있지만 이번 논란은 메갈의 그 각도의 손가락이 아닌 다른 각도들의 다양한 모양을 다 끌고와서 패고 있다. 이러면 그릴 수 있는건 주먹 쥔 손과 펴진 손 밖에 없다. 애니메이션이라는게 동작이 들어가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 Q: 그 모양을 그런 사상의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A: 맞다. 팀작업의 공개적인 작업물을 그리는 사람이 공개적인 sns 에 티를 내서는 안됐다. 범죄가 아니지만 팀에게 피해가 가는건 사실이다. 그치만 그러면 사상만을 문제로 삼으면 된다. 손가락으로 문제를 끌고와서 패고 그걸 맞다고 해주면 내가 그런 사상이 아니여도 그 손모양을 그렸다는 거 자체로 언젠간 무고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사상이 아니라 손가락만을 문제로 삼고있다. 페미는 남이 바꾸려 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사상과 자유고 일베, 디시, 메갈, 페미 전부 다 찾아서 때려 잡을 게 아니라면... 개인의 사상이 해고로 이어지면 안된다. 단 혼자가 아닌 타인과의 협동작업을 하고 있고 내 말 하나가 같이 협동하는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비공계나 아예 상관없는 닉네임, 아이디를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베가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나 같아도 싫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잘못이 있다. 그치만 그러면 그러한 문제만 패면 된다. 손가락과 불규칙성을 띄는 이펙트 모양들은 다 끌고 와서 팬다는 건 그리고 그것을 용인해 준다면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그러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자리를 잃으며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된다. 그 사람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으로 사과를 받으라는 것임. 손가락 다 끌고와서 손가락으로 사과받고 손가락 수정을 시키지말고... 지금 특정세력이 행하는 짓은 한참 핀트가 엇나가 있다.
6967	부당해고에 반대합니다.
6968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긴 개뿔 사과문 제대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6969	노동자 탄압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두환 치하로 돌아가시던가 모자란 양반들아
6970	말도 안되는 일들을 계속 용납하면 게임업계가 나중에는 무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971	실체없는 혐오에 뇌를 맡긴 채 자멸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길

6972	넥슨에게: K-게임업계 만이 아닌 글로벌 판에도 입지가 큰 회사임에도 악질 소수에게 굴복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의 외주 스튜디오 직원을 보호할 방법은 수도 없었을텐데 말이죠. (영어가 더 능숙하기에 나머지는 영어로 작성하겠습니다...) Please answer, how does it feel to flush 2 decades of goodwill down the drain to bend to the selfish tantrums of a small group of bigots that do not even represent the majority of your MALE fanbase? I truly hope you are able to reflect on how your decisions have alienated and harmed not just your userbase, but also the trust of companies/studios which collaborate with you. 게임업계에 모든 회사들에게: 21 세기임에도 한국은 마치 50 년 전에 박제된 듯 하네요. 지금이 2023 년인가요, 1984 년인가요? You do not lack the power, funds, or resources to be able to protect your employees from the targeted harassment of a bigoted vocal minority. It is not enough to simply ignore them (this should be the BARE minimum), you must also take actual measures to combat their misogynistic witchhunts. 부정적인 행위의 방관은 그것에 대한 동의나 다름 없어요.
6973	귀사의 진정한 자원은 사원든이지 일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유저가 아닌 걸 인지 바랍니다.
6974	비상식적인 일부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길
6975	혐오담론에만 눈이 멀어 성차별을 자행하는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6976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6977	비논리적인 고객 권리를 내세우며,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기를.
6978	그냥 망하길 바랍니다!
6979	성우 부당계약종료 날에서 한발짝도 나아지지못한 성차별 찬성 기업
6980	그간의 행보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회사, 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6981	적당히 휘둘립시다 줏대가 없어요
6982	여성차별이 습관화 된 게임 업계에서 한 여성이 개인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겠다고 한 결과 그 여성이 작업물을 잃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6983	갈수록 퇴화하는 메이플 이번 기회로 완전히 계정 탈퇴하네요
6984	억지논란, 이게 21 세기라고??
6985	억지 손가락 논란을 신경 쓸 시간에 범죄 소아성애 일러스트를 수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으로 정해진 진정한 범죄가 어떤 것인지 분변력을 가지세요. 삐뚤어진 기준으로 휘두르는 권력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6986	넥슨은 일부 유저의 의견을 확대해석하고 굴복하여 노동자탄압에 나서지 말기 바랍니다.
6987	의미없는 손가락 모양이 뭐라고
6988	시대착오적인 단체 망상에 놀아나지 마시오
6989	미개한 여성차별 마녀사냥 반대
6990	반페미니즘이 여성차별임을 똑똑히 알기를. 넥슨이 인셀남들의 억지부리기를 받아주기 위해 저지른 여성탄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6991	넥슨은 여성을 모욕하는 억지주장 중단하라
6992	별 게 다 해명해야할 문제네요. 사고가 이상한 집단에 동조하지 않게 이끌어주시죠.
6993	애초에 페미들은 그런 핸드사인 만든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여성혐오주의자들이 억지로 만든 논란에 동조하는 오너들 모두 남초와 같은 여성차별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6994	페미니즘은 해외 흥행 영화 [바비]에서처럼 사회적 흐름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사상검증, 사이버불링을 하는 건 엄연한 위법입니다.
6995	들어줄 가치가 없는 억지는 무시하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탄압을 그만둬라.
6996	정신차리고 현 시대의 흐름 좀 읽으세요
6997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데도?
6998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참 쉽네요.
6999	유사논란에 무반응했던 타기업과 적극 대응한 기업의 추이를 비교해보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7000	비상식적인 여론 몰이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짓에 동조하지 마세요.
7001	일부 억지 요구에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멈춰라
7002	자기만의 착각에 빠지지 말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십시오
7003	현 사태에 대한 넥슨 및 다른 게임 업계들의 대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에 대한 대처는 도가 지나쳤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7004	게임속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한다
7005	영어로도 다른 나라 메이플에도 공지 올려봐라
7006	양심있으면 인신공양은 그만두십쇼 운영불만에 애꿎은 여자 하나 던져놓으면 불만 가라앉힐수 있으니 한다는건 알겠는데 인간이 되서 할짓입니까 그게
7007	남성 소비자들은 게임 업계를 넘어 이제 다른 대중문화분야에까지 이런 행동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보복임을 공공연하게 표방하며 여성인력들의 퇴출압박을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임업계 역시 블랙컨슈머의 피해자라기 보다는 남성 소비자들과 뜻을 같이 하여 회사가 보호하여야 할 여성창작자들을 이중으로 가해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와 넥슨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 트롤의 갑질이 먹히는 사회 시스템과 성차별이 복합된 이 망국적인 테러가 여기서 종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7008	정신차려
7009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에 대한 혐오를 방관하지 마시고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7010	죄 없는 여성을 향한 마녀 사냥을 멈춰라. 논리라고는 없는 일방적인 혐오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멈춰라.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라.
7011	여성 및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그림에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7012	업계를 퇴보시키는 사상검증을 중단해주세요. 직원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 해주세요.

7013	남성혐오와 관련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여성유저들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실망햇습니다 오랫동안 넥슨 게임들을 하였고 메이플 해킹으로 개인정보도 털리고 하였지만 이번 사태만큼 실망한적이 없네요
7014	도태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가 같이 도태되고 사장되는 결과를 낳으려면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7015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남성혐오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인종차별을 당하면 펄쩍 뛸 사람들이 성차별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자다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 운운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상식 없는 말에 무대응이어도 모자랄 판에 일일이 네가 맞다 우쭈쭈해주면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느끼나봐요. 급한 불 끄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전적으로 긍정해주기보다, 생각이라는 것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016	정신 좀 차리세요
7017	넥슨은 하남자 짓거리를 멈춰라 여성도 사람이다
7018	사상검증이라는 말로 무단해고, 위압감을 주는 행위를 멈추어주세요. 지금은 여자들이지만 언제 당신들이 될 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켜주세요.
7019	페미니즘은, 표현하면 안될 사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민주국가에서 사상을 표현했단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해서도 안됩니다. 텍스트부터 시작됐을 콘텐츠 속에는 늘 누군가의 사상,가치관, 사회상이 담겨왔고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어떤 의도를 넣었든, 그럴 의도가 아니었든,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자 근로자의 권리침해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참혹합니다.
7020	별 시덥지도 않는걸로 차별하는거 보면 화가나네요
7021	당장 여성탄압을 멈추고 회사 내부에서 여성탄압에 가담하는 ‘디씨하는 직장인’들을 징계하시오
7022	악의적인 세력들의 억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넥슨은 이 사태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7023	움직임을 멈춘다면 넥슨 본사분들도 그들이 말한 포즈를 하고있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씩 떠나는게 슬픈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게임을 만든다면 누가 게임을 즐기고 현질을 할수있을까요.
7024	억지논란 멈추세요
7025	억지논란 멈춰라!
7026	한남들의 생쇼 헛짓거리 지겹다. 말도안되는 요구를 들어주며 여성 탄압하는 게임업계 정신차려라
7027	정신차리세요
7028	남성집단이 노동자 위에 있지 않습니다.
7029	엄지와 검지가 인류에게서 나가떨어지기전에 이 논란은 끝나지않습니다. 손가락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논란화하는 이들의 목소리보단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앞으로 문화라는것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7030	억지땡깡을 쓰는 소수의 의견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라

7031	어거지 무논리인 페미논란을 먹금하고 억울하게 잘렸던 사람들에게 보상해주세요
7032	말도 안되고 돈도 안될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일 시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힘쓰십셔
7033	말도 안되는 논리를 받아주며 게임업계 및 여성 노동자들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이번 결정에대해 넥슨은 반성과 함께 좀 더 나은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34	사람이라면 노동자를 정당하게 대우해줘야합니다.
7035	정신차리시길
7036	외국의 손가락욕처럼 특정한 손모양도 아니고 평범한 손모양을 가지고 비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트집잡기일 뿐입니다. 그런 무지하고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옳다고 힘을 실어주면 안됩니다.
7037	멍청한 의견에 휘둘리니 똑같이 멍청해보입니다
7038	한국에서 가장체급큰 회사가 이 정도로 줏대도없고 악성민원에 휘둘리다니. 아이들도 많이 즐기는 게임을 만들 자격이없다 부끄러운줄 알라
7039	정신차리세요 게임은 일부남성만 즐기는 문화가아닙니다.
7040	넥슨은 언젠가 이 사상검증 및 여성혐오에 대해 치를것이다
7041	한국 게임업계 더도말고 집게손만큼만 쪼그라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7042	무지한 자승자박 굴레를 멈춰주세요
7043	누가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논란까지 받아 줄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줘도 큰 타격 없습니다.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 논란 만들기 “놀이“중이니 무시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다 창피합니다..
7044	게임이나 잘 만들고 잘 운영하세요 집게손이나 찾아다니니까 중국게임에 밀리는거 아니겠냐고요
7045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만을 듣고 편향된 운영을 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그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유저들한테서는 수익조차 받지 않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 생각이라면 애초에 페미니스트 제작자, 게이머를 받지 않겠다고 거르시던가 하세요.
7046	이민가야할듯
7047	그놈의 손가락가지고 언제까지 그럴건지 모르겠다 게임 좋아하는 한국 여성 게임 향유자로서 부끄러워서 이제 한국 게임을 못하겠다 정말
7048	차별없는 게임을 만들고싶다면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것은 그만둬주십쇼
7049	직원 보호. 또한 모든 유저의 의견 반응. 정당한 해고의 탈을 쓴 사상 검증이란 게임업계 문화의 철폐.
7050	현실을 살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이 만든 망상 속에 사는 시람들의 억지를 들어 주겠다고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인 여성을 법적 차별로 몰아세우지 말고 제대로 된 이해 속에서 경영 하십시오.
7051	정신 좀 차리세요
7052	게임 문화속 사상검출, 부당해고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053	성교육 법정교육은 다 하고 계신지요

7054	집게손가락은 당연히 사람이 살다보면 나올 수 있는 제스처입니다. 부당한 사유로 직원을 보호하지않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7055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고, 현 시점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여성에 대해 구시대적인 이유나 또는 일부 악성 이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말도 안되는 꼬리내치기식 노동자 해고를 임하는 부조리한 기업의 행보가 끝나는 시대가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7056	페미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꾸려 테러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일베나 테러집단 마냥 과하게 부풀리기 전에 검색이라도 좀 해보십쇼
7057	당장의 눈 앞의 남자들 생떼에 기업의 원칙도 없이 끌려다니는 거 너무너무 한심하고 쪽팔립니다. 차별주의자세요?
7058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종사자를 보호하라
7059	여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십시오.
7060	근거없는 주장에 대응해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일을 의도한 상황으로 만들어 영상 작업자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을 멈춰주세요
7061	굳이 논란이 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7062	성과 장애인식에 신경써주는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7063	손가락 그림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7064	평등을 원하는자를 차별하고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는 자는 옹호하는 회사들. 국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왜 많은지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보길
7065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대처는 좋지 못합니다. 내수 시장으로 만족하는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지 마십쇼.
7066	말 같지도 않은 악성댓글놀이에 고개 굽히는 선례를 만들지 마라.
7067	진상에 불과한 사람들의 말로 직원이나 협업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한국 고용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자 소비자인 사람들과 피해를 입은 직원과 협업 당사자들에게 사과하세요.
7068	더이상 사상검증을 통해 사람이 잘리는걸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16 년도 클로저스 사건에서 무려 7 여년이 지났지만 게임업계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을 통하여 더이상 후퇴가 아닌 빌전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7069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모르면서 몇몇의 의견만 듣고 무분별한 여성 지우기를 금지하세요.
7070	다른 혐오(게임 내 일부 유저들이 여자들을 피싸개라고 부름 등)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가, 고작 손하트하는 손이 남성혐오라는 의견에만 이렇게 빨리 의견을 표하고 사상검증을 하여 해고한 것을 무어라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7071	생산적인 일을 합시다…
7072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검증과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 2016 년 클로저스 사태입니다 이 때도 넥슨이었죠 한국 노동계에 악습을 퍼뜨린 넥슨과 아무 경계없이 동조 중인 게임업계에 대해 규탄합니다
7073	2016 년 이후로 변한 게 전혀 없다 이제 한국 서브 컨텐츠 자체를 소비 안 할거다 니들끼리 알아서 망해라

7074	사람은 예술을 만들고 향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종합예술분야의, 향유자의 참여도가 다른 양식과 궤를 달리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세요.
7075	여성혐오는 반휴머니즘이다.
7076	진정한 혐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혐오행동에 동조하는 집단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7077	기업은 특정 커뮤니티 및 단체집단에 편향하는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7078	정신을 차려야됩니다...
7079	외국에서도 한심하게 보는 손가락제스처에 굳이 피드백하여 스스로 작업량을 늘리며 페미들 , 여성탓 하는 넥슨 이건 자가당착이며 멍청한 논란을 받아준 너희탓이다
7080	그만놀아나십시오 생떼를 들어주다간 끝이없을겁니다
7081	사상검증과 그로 인한 부당해고가 잘못됨을 알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특정 소비자층의 목소리만 선택적 수렴하는 것으로 그 외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7082	만화애니메이션 업계로의 진출을 꿈꾸는 중학생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저와, 또 같은 꿈을 꾸는 여성 청소년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을 어르고 달래는데 창작자를 희생시키는 대기업들이 미래 우리의 직장일지도 모르는 곳들의 존망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넥슨은 말같지도 않은 논란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애니메이션 사와 애니메이터 개인을 궁지로 몰아넣은것,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다신 없어야 할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7083	넥슨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부당 해고에 대해 사과하라
7084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신경쓰는게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
7085	대한민국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서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업을 운영했으면 함
7086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소수의 집단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고 작업자를 배척하는 것이 기업이 할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 초에 24 프레임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에서 필요없는 동작을 일부러 삽입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7087	온라인 게임 업계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회사 넥슨의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응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7088	넥슨 게임에 차 한대값 쓴 저는 고객도 아닌가봐요.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7089	어린시절부터 함께 성장한 넥슨게임이 더이상 혐오세력과 짝짜꿍하는것을 보고싶지않습니다 추억을 그만 더럽히면 좋겠습니다
7090	8 년간 게임업계의 여성혐오를 자정하지 못했다니 실망스럽습니다.
7091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여론이 아닙니다. 소리지르며 억지쓰고 생떼부리는 진상 손님한테 다 맞춰주면 끝이 없을걸요. 소문 듣고 이상한 손님만 더 늘어나고, 결국 매출 올려주는 정상적인 손님은 뭐 피하는 심정으로 다른 가게를 가든 뭐든 이 가게 안 갑니다.

7092	아직도 여전하네요^^ 앞으로 꼭 출시할 게임 로딩화면에 손가락 모양으로 근로자를 박대하는 회사라고 표기하여 주시고,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위아래 할 것 없이 사고하시는 것이 예전과 변함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로 더더욱 그 위명을 널리 떨치시길 바랍니다.
7093	처음부터 끝까지 어이가 없는데 지금쯤이면 메이플 관계자 쪽도 당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구석 사회부적응자들이 요구한거 수정하다가 겜 망하겠네요...
7094	큐브 사태때 본인들 문제는 한마디도 벙긋 안하셔서 게임 접게 만들고 지금은 상대 안해도 될 말 크게 키우셔서 어제 넥슨 아이디 다 탈퇴했습니다. 게임에 큰 거 안 바랍니다. 그런데 플레이했던 게임이 쪽팔리지는 않게 해주셔야죠. 매번 달라지는게 없으니 절이 쪽팔린 중이 떠나야겠네요. 게임 일반 유저들한테 팔고 싶으시면 넥슨 네임 떼고 파세요. 넥슨 이름 보이면 불매부터 하고 싶어질테니까요.
7095	디씨 유저들의 집게 손 억지 주장에 동조하여 애꿎은 여성 노동자들 일자리 빼앗지 말고, 페도필리아스러운 컨텐츠 그만 만드십시오
7096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현직 디렉터가 페미니즘 검열에 대한 영상을 찍어 올리며 스스로의 입으로 "혐오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발언이고, 문화 전유의 극치입니다. 언어에 담긴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남성우월적 게이밍 커뮤니티 문화부터 버리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7097	넥슨은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논란을 만들고, 나아가 업계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저들의 억지를 받아들이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십시오.
7098	평소에 확률 문제나 버그 관련해서는 그렇게 답변이 느리더니 얼토당토 않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모습을 버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 여성게이머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금의 대처가 부질없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7099	본인들의 "편리한" 불만제로에 여자들은 직장을 잃고 죽어갑니다
7100	이번기회에 정신좀차리자
7101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휩쓸릴 건가요. 명색이 대기업이고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기업이라면 이럴 때야말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손모양 트집으로, 사상검증과 억지 주장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관하면,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아니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남자라서? 기득권이라서? 지금 이 억지를 수용하면 다음엔 더한 것이 올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7102	제발 억지 좀 그만 받아주세요. 글로벌 기업에서 이런 사태가 있다고 외국에서 알면 얼마나 꼴사나운지 아십니까?
7103	국산게임 이용하지 말고 해외게임 이용하겠다

7104	게임은 제 10 대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소중한 취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때문에 현세태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상 검증을 옹호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던 게임 회사들 중 하나는 당장 제가 몇 주 전까지 하던 게임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 몰라요. 7 년 전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 이후로 게임업계 속 사상 검증 및 페미몰이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사례 이전에는 제대로 된 제재나 불매조차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왜 특정 SNS 집단의 불온한 사상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할까요? 여태껏 마음 편히 게임을 좋아할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접하면서도 이 게임마저 언젠가 불미스러운 소식을 가져오겠지, 하며 불안과 걱정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기대와 실망, 분노와 무기력으로 점철된 나날이었습니다. 게임업계 내 사상검증은 직접적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페미니스트, 혹은 업계 내 부당한 일에 반대하는 유저들이 설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순수히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은 늘 배신을 받았어요. 이러려고 게임을 했나 자괴감이 들었던 기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제가 게임에 가진 애정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애정 덕분에 게임업계가 저지른 부당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대로 잊혀졌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이, 좋아하는 것이 부끄러워 괴로웠던 윤리적인 게이머들의 노력과 발버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의심치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건으로 업계 내 잘못된 문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105	억지 사상검증에 반대합니다
7106	초등학생때부터 메이플을 해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줄이야.. 넥슨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병원 여러 단체에 후원하면서도 이 일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단 몇초의 이어지는 프레임을 마녀사냥하듯 몰아간 사람들의 발언을 듣고 주말에 출근을 하며 대체 누구에게 화가 나 있던건가요? 또한 어떤 혐오도 잡아드린다고 하셨던 넥슨의 적은 오로지 페미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디렉터가 아닌 위에서 내려온 공지 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메이플에서 있던 일일베스트(일베)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고인 능욕 외치기는 왜 신고해도 대답해주지 않으셨나요? 제가 고등학생일 시절 시장에 세워둔 제 캐릭터에게 스토커처럼 캐릭터를 돌려가며 따라붙던 악성 유저의 이름은 왜 제재사유에 올라가 있지 않았나요? 귓속말로 변태같은 말을 하며 들러붙던 유저는요? 저나 제 지인들의 사례는 이처럼 많은데도 무엇 하나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주말 출근을 하셨죠? 모든 혐오를 잡으시려거든 피싸개같은 더러운 닉네임을 먼저 잡으세요. 손가락이 문제라면 눈나, 피싸개(~싸개),~녀(남) 같은 여러 닉네임들도 모두 문제가 있을테니까요. 잡을수가 없다구요? 예를 테면 ㅍㅣㅆrㄱh 이런 닉네임이면 힘들다구요? 몇초의 프레임으로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식으로 행동하셨다면 저런걸 잡을 노력 역시 감내하셔야죠.몇분짜리 영상을 음침하게 초단위로 캡쳐하는것에(심지어 애니메이션의 경우 자연스럽게하기 위해서 당연한 프레임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도)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모든 혐오에 대응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 역시 모든 이유 없는 혐오에 반대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언젠가는 없어질 단체입니다.) 주말출근까지 해가며 바라시던 혐오를 근절하시고 평등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7107	정신차려 이 험한 세상에
7108	악성민원 꾸준히 들어주면 게임업계 망합니다

7109	정신차려라. 여성혐오하는 남자만 끌어안고 산다고? 여자없이 사나 보자.
7110	게임이 문화라면 그에 걸맞은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7111	페미니즘이 뭐가 잘못입니까??
7112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발전한 사회 속에서 남녀 모두가 평등한 시민이라는 것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7113	부끄러운줄 아세요
7114	이상한 의견을 의견이라 받아들이고 피드백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견이 아님
7115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웃기지 않을까 싶네요
7116	근시안적인 방식은 결국 게임업계 전체에 타격이 됨을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7117	여성혐오를 멈추세요
7118	림버스 사태를 모르시나요?
7119	10 년 이상 애정하며 함께 한 게임들을 고작 이딴 이유로 떠나보내야한다는것이 정말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배신감 또한 듭니다. 사과하세요
7120	정신 차리세요~
7121	게임을 좋아하는 여성으로서 게임 내 여성 캐릭터에 입히는 아바타를 주목해주십시오. 가슴과 엉덩이,골반을 강조하는 아바타를 출시해달라고 남성 유저들은 말합니다. 성인게임인데 뭐 어떻냐고 매출의 대부분은 플레이어가 남자로부터 발생하는데 여자유저의 의견은 무시하라고.. 참기 힘들며, 마영전, 로스트아크, 검은사막이 게임내 구현한 여자캐릭터 아바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상장사인 넥슨과 펄어비스는 여성 성차별에 관한 윤리의식도 없다는게 충격입니다.
7122	생떼 들어주지 마시오
7123	메이플은 제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제 추억을 똥통으로 만든 넥슨은 사과하고 회사 폐업하십쇼.
7124	한심
7125	남성유저들의 주장과 의견에 근거없이 동조하고 그것으로 인해 충성도를 얻는 결과의 사안이 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126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7127	좀 인간답게 살아라
7128	무슨 일이 있어도 사상검증은 있어선 안 됩니디. 우연하게 발견했다 해도 그것은 사적이기에 무어라 말도, 해고도 할 수 없습니다.
7129	모든 혐오표현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성혐오에대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정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억지논란은 수용하며 빠른 피드백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7130	부당해고 위법
7131	부끄러운줄아세요

7132	진짜 억지논란에 그만 대응하세요. 이게 어떻게 21 세기에 일어나는 일인지...? 거짓말이 아니라 이민을 안 가면 논란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에서 말 섞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한 정도 입니다..
7133	남녀노소 모두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달라 조금이라도 좋으니 인권적으로 발전하는 업계가 되길바란다.
7134	혐오 프레임을 씌운 불법 노동탄압을 규탄합니다.
7135	정신차리세요
7136	제발 본질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7137	너무 억지 논란 아니었나.... 그걸 다 들어주는 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여성노동자만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같다
7138	일부 커뮤니티 활동하는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그만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7139	억지 혐오, 섀도우 복싱 좀 멈추세요. 거유 여캐나 팔지 마시고요..
7140	넥슨은 일부 유저의 망상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마라
7141	진정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더이상 혐오에 어울려주어서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혐오자들의 생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결과 자체가 당신들이 만드는 게임들은 이제 인디게임보다도 못한 혐오물 덩어리일 뿐이라는걸 증명하는 것이다
7142	직원들도 망상을 멈추세요 왜 본인이 당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현실을 사세요
7143	혐오자들의 입맛에 맞는 마녀사냥과 고용갑질을 그만두어라
7144	이 작은 손동작이 문제가 되어버리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생계를 잃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정말로 옳을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직은 손동작이, 0.1 초 사이로 지나가는 그 프레임이 문제라면, 전 세계의 모든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들은 애니메이션을 올려선 안됩니다.
7145	페미가 어떤세력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게 자멸하십시오
7146	한심합니다
7147	이런 억지를 받아주는 넥슨이 우습습니다.
7148	저는 지금 군 복무 중인 남성입니다. (제가 남성이라서 제 의견을 더 강렬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화가 아닌,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림버스 컴퍼니 부당해고' 사건 때도 어이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기괴한 사건이라 어떻게든 반대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7149	말도 안되는 일부 유저들의 혐오성 억지 민원을 수용하는 전례를 게임 업계에 되물림해선 안된다. 게임업계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라.
7150	외국거주자입니다. 전세계가 비웃습니다. 그만하세요...
7151	커뮤니티 내 의견 하나를 받아들이고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해당 말이 정말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지, 사용된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래 집게 손가락은 저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집게 손가락 대란 이후로 자조용으로 몇 번 돌았을 뿐, 현재에 와서는 사장된 의미이고.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검수를 맡고 있으니 저런 의견이 나오는 기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억까입니다. 누가 반쪽 손가락 하트를 보고 저렇게 거품을 물고 달려든답니까?

7152	일부 유저의 혐오 주장에 휩쓸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혐오 사상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넥슨의 행위는 규탄 받아야합니다.
7153	여성도 소비층이라는 것을 잊고있는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처신하세요.
7154	잘 좀 하세요
7155	타인의 직업을 빼앗는 것을 유희로 즐기는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
7156	제 주변 여성게이머들이 현재도 계속되고있는 사상검증으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있습니다. 여성은 게임도 하면안된답니까? 어째서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안전하게 게임할 수 없습니까.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하고 여성들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7157	메이플 출시 무렵부터 20 년 가까이 플레이 했는데, 21 세기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을 검열해야 하는 사상으로 치부하는 국산 게임에는 앞으로 십 원 한 장 쓰고 싶지 않다. 역겹다.
7158	집게손에 대해 "억지로" 논란 이어가는거 다 성기왜소로 인한 피해의식 때문인거 다 안다. 뭐만하면 페미거리면서 아동포르노 같은 실제 범죄보다 나쁜 일이라고 착각하는데 얼마나 현실인식이 부족한지도 잘 알겠다. 외국유명포르노사이트에서 small dick 이라고 직접적으로 조롱해도 아무말 못하고 여자 직원만 조리돌림하는 그 강약약강 잘 봤고 앞으로 여러 단체에게 처맞는 모습 잘 지켜보겠다.
7159	일부 남성들의 재미로 인한 마녀사냥에 직원들을 지키고, 부당해고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7160	떼쟁이 진상고객들의 멍청한 요구에 노동자가 직업을 잃는일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7161	페미니즘을 사상검증 하는 것은 역주행이다
7162	정신 차려라
7163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7164	게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좋아해왔는데 이제 한국 게임은 못하겠어요. 왜? 게임업계가 페미 돈은 안 받겠다잖아요!
7165	정말 말도안되는 억지다. 정말 남성을 비하하고자 집게손을 하는 여자가 있다고? 정말 어이가 없다.
7166	변하고 있는 세상과 트렌드에 맞추어 게임업계의 낡다못패 고여서 썩은 업계 문화와 폐단을 답습하지 말고 고쳐서 더 나은 게임업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7167	혐오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7168	대기업이라면 부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 깨닫길
7169	당신들이, 도태남들이 '페미에 물들었다'며 걸어오는 삐뚤어진 시비에 계속 굴복할수록, 게임 같은 우리나라의 예술 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7170	현실을 살아……
7171	뭐가 무서워서 있지도 않은 손가락 뜻 하나에 벌벌 떠는지 억지논란에 놀아나서 모든 손가락 규제라도 할 건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 정말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7172	과연 여성커뮤니티에서 게임 내 여성혐오 표시가 있었다고 항의했으면 들어줬을까요? 그리고 방구석 커뮤니티에서 끄적이는 애들한테 괜한 밥 주니까 본인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더 날뛰는 겁니다. 별의별거에 다 답해주고 난리쳤으니 앞으로도 그러셔야할 겁니다. 수고하세요.
7173	억지논란에 대응을 왜 하나요? 넥슨은 여자를 고객으로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그저 눈요기로 생각하는 건가요? 게임하는데 예쁜 캐릭터 섹시한 캐릭터 노출있는 캐릭터가 왜 필요하며 그것은 왜 여성 캐릭터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넥슨의 여성 혐오적 게임 산업 주류 문화 선도를 규탄합니다.
7174	넥슨은 억지부리는 남성들에게 한 사과를 사과하라
7175	제발 멀쩡한 사고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남에게 덤터기 씌워서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게 해주세요.
7176	고작 날파리 하나에 집을 다 태운다니... 안타깝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7177	혐오 장사 멈춰
7178	이득도 없는 이런 멍청한 행위 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겁니까?
7179	정신을 제발 차리길 바랍니다.
7180	근거없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에 동조하는 넥슨과 게임업계 관계자 모두는 정신차리세요.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사업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야 지속가능할 것이고 페미니즘은 진보 가치와 맥을 같이 합니다.
7181	과대표된 혐오 세력의 발언에 동조하시 마십시오. 인게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덮기 위해 혐오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제가 당신들 게임에 들인 모든 비용을 돌려주세요
7182	8 년동안 안좋은 선례를 만들어 온것을 사과하고 각성하라
7183	업계의 발전과 직원, 플레이어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면 현 작태는 멈추어야합니다.
7184	어이없는 판단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낙인찍힙니다
7185	게임업계의 만연한 여성 혐오와 여성 차별 문화를 적극 개선하라
7186	왜 인셀들의 저 말도 안되는 억지요구를 들어주고 있는건가요? 직원들의 직업안전성은 보장되고 있는게 맞나요?
7187	여성차별을 그만해주세요.
7188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의 작업물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규제하는 행위, 여성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이상한 이유를 대며 특정 게임 및 게임사에 항의하는 정신 나간 유저를 무시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라.
7189	예전 클로저스때부터 변함없이 꾸준한 여성 차별적인 기업의 행보 아주 잘봤습니다. 언제나 대기업답지못한 대처에 놀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할때가 아닐까요?
7190	프문은 중소기업이기라도 했지 대기업이 뭐가 아쉬워서 부조리한 인셀들 분탕질에 동참하여 자기 고용인을 핍박하는가? 당신들이 한것은 정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도 아니고 한줌단의 어이없는 땡깡이 두려워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린 것뿐이다.

	앞으로 대처에 따라 나와 내 주변인의 인생에 넥슨 계열의 게임이 존재할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다.
7191	더이상 게임 업계의 이러한 생각없는 대처방안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7192	메이플 유저 호구로 그만 봐라
7193	말도안되는 억지 논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실무자들의 생계를 위협해가면서 유지되는 게임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7194	여성혐오없는 게임을 만들라
7195	여성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지 말라!
7196	게임업계는 커뮤니티 유저들이 창조한 남성혐오 논란에 고개숙이는 것을 멈춰라.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면서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로 규정하고 반페미니즘 집단의 여성혐오는 묵인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7197	얼토당토 않는 논리와 억지에 굴복한다면 게임 업계에 자유는 없을 것이며 혐오세력은 진화하여 게임/애니 업계가 남기는 모든 발자국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원합니까? 그걸 원한다면 자신들이 노력하여 떳떳하게 창작한 작품들을 땅에 내던지고 그들의 억지를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신들만의 작품은 더이상 탄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캐릭터가 물 마시는 장면조차 못 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들이 한 짓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창작물과, 직원을 지켜야합니다 게임 업계들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198	사과를 해야하는거에 사과를 하세요. 이상한 논리에 지랄하는것들에게 사과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7199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들을 좀 편하자고 연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함.
7200	소아성애 장면이나 검열해라
7201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7202	말도 안되는 말들에 기울어지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7203	sns 에 떠도는 블라인드의 자사 직원들이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는 건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보시는 건가요? 게임업계에서 생각하는 혐오 표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7204	인권, 노동권에 반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7205	혐오에 손 들어주지 마라. 피고용인 및 외주업체를 보호하라.
7206	그렇게 논리없이 쓰는 생떼에 편향된 의견을 실어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 생긴 논란에 집중하지말고 변해가는 흐름을 읽어야합니다 우리 오래 봐요
7207	한국 게임업계가 커뮤니티와 같이 성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게임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국에서만 커뮤니티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게임을 운영하는 만큼 차별적인 시선을 갖추는 것에 선을 긋고 회사의 이념에 맞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7208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일부 유저의 무분별한 여성혐오적 발언을 수용하는 것을 멈추고, 여성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힘쓰십시오.
7209	해당 문제 관련하여 업계의 자정작용을 기대했으나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며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느꼈다.
7210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나는 성차별주의자이다.
7211	말도 안되는 억측을 들어주는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냥 먹금하세요~
7212	시대를 이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에 맞는 눈높이와 품격 정도는 갖길 바랍니다.
7213	ゲームを純粋に楽しめる環境整備に徹してください
7214	평등한척, 중립인척,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인척 그만하시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웃음 당하면서까지 당신들이 이런 행보를 이어나가는건 운영진 측의 그릇된 판단 때문일 뿐입니다. 여성의 편을 무조건적으로 들어달라는 요구가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부 남성 세력의 억측에 응하여 이 사단을 만드는걸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7215	특정 개인의 sns, 무분별한 클레이머의 클레임등에서 본사는 물론 계약한 하청회사의 직원까지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바꾸셔야 합니다. 뽑으면 그만 이라는 꼬리자르기식 형태와 보여주기식 라이브쇼는 이제 그만하셔야죠
7216	억지논란, 여성혐오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넥슨 및 외주 업체와 억지논란을 만든 유저들을 규탄합니다
7217	게임업계는 이 같은 마녀사냥으로 여성유저를 잃었으며, 이로인해 국내 게임은 다시는 해외 게임을 따라잡지 못할 것 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고객들과 같이 침몰하는 모습 잘 지켜보겠습니다.
7218	일부유저의 억지논란은 수용하면서 정작 함께 일해온 직원은 보호하지 못하는겁니까? 혐오몰이에 가담하지 마시고 어떤게 더 중요한건지 중심을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7219	게임업계는 애니메이션사를 단순한 하청 내지 아랫사람으로 대우하는 계약과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동등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사업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식의 불공정 계약과 황당한 억지로 인한 파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7220	넥슨'이라는 대기업조차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니 기분이 참담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사상검증 따위의 이슈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유지 수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넥슨의 이러한 행태는 모든 여성 게이머들의 몰매와 지탄을 충분히 받을 행위이고, 여성 구매자들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의사 표시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7221	게임업계 스스로가 폭력/외설 방조 및 조장이란 마녀사냥에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이게 마녀사냥이 아니면 무엇인지? 대체 그 손동작이 남성혐오를 의미한다를 입증하기 위해 정당화해야할 가정이 몇개이며 정당화 시도를 했나요? 그냥 사람 하나 자르면 끝이고 본 기업이 생각하는 주요 고객들에게만 잘보이면 된다는 논리가 안통한다는거 이제 알아차릴 때도 되지 않았나… 다 떠나서 그냥 비도덕적이고 비겁합니다

7222	진짜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 묻고싶다. 일부 남성들이 제기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시끄러워지기 싫으니 그냥 그들 편한대로 해주자 이 생각인가? 그들의 진짜 생각이 궁금하다
7223	해외에 번역되어도 괜찮은 입장문을 내세요. 이게 무슨 나라 망신.
7224	정신차려요. 할 일 되게 없나봐.
7225	정말로 이 사안이 어떠한 집단의 음모이며 모두가 사람들을 속이고 손가락으로 남성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교육과정을 받고 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게나 집게손모양애 집착하실 거라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도 잘라내시죠. 실수로라도 그 손모양을 하시면 본인이 못 참으실텐데 어찌 사실려고요? 그냥 마음 편히 잘라내세요.
7226	게임 업계 및 귀사의 문제를 혐오 장사로 때우려 하지 마시오. 페미니즘 혐오 몰이 규탄한다.
7227	트집잡기에 질질 끌려가며 좋은 사례를 남긴 회사가 한 군데라도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게임은 특정 성별만의 향유물이 아닙니다. 부디 현명한 대처를 바랍니다.
7228	여러분 인간이 되십시오
7229	남성 중에서도 일부 여성혐오자 인셀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게임 이용자 남성 중에서도 과대표되어있을 뿐 아니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더더욱 큰 리스크일 뿐입니다. 전혀 세계적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내부의 여성 직원 뿐 아니라 여성 유저, 그 외 총체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불링을 중단해야합니다.
7230	여자도 고객이다
7231	페미니즘은 상식이다. 노동자를 보호하라!
7232	사상을 근거로 노동자를 핍박하지 말라
7233	인셀남들 이야기 그만듣고 여성인권 탄압하지 마라!
7234	정말로 단순히 엄지와 검지가 평행이 되는 모든 제스처가 특정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정신 아닌 집단 망상을 잠재우긴 커녕 더 커지라고 장작을 던져주는 짓은 그만 좀 하시길 바랍니다
7235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7236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237	게임업계는 사상검증을 통한 부당해고를 멈춰라
7238	어차피 페미 묻었다고 게임을 더는 안할 텐데 계속 말을 들어주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7239	정신차려라......넥슨이 아니어도 돈 쓸곳은 많다..
7240	확실하게 증명되지도 않고 일방적인 혐오와 착각이 만연한 일부 유저들의 징징거림에 피해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일이 그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7241	그럴거면 손가락부터 자르세요 억지논란 일으키지말고
7242	창조 여혐을 멈춰라
7243	여혐이나 하지 마라. 말도안되는 요구나 민원에는 대응 하지말고 무시해라.
7244	말도 안되는 떼를 들어주지 마세요
7245	여성 유저는 공짜 ATM 인가요?
7246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기업답지 않은 작태였다

7247	같잖다
7248	일부 유저의 근거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여성 창작자의 노동권을 뺏는 탄압을 멈춰라
7249	사이버 스토킹으로 개인의 sns 를 열람당한 노동자에 대해 보호는 못 할 망정 사이버 스토커들의 협박과 요구에 고개를 조아리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다니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쥐고 흔드는 저열한 스포츠를 보여주어 고객을 유치하는게 게임회사의 일인가? 진정으로 사람이라면 당사와 업계의 대처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의 생계로 포르노를 제공하지 말아라.
7250	게임은 사람을 위한 유희거리가 맞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유희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편협한 일부의 시선으로 인해 고통받는 제작자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7251	편하게 게임하고싶어요 유년기가 비어버릴것만같아요
7252	터무니 없는 요구에 순응하지 말고 최소한 상식의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7253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7254	2016 년도부터 이어진 작금의 사상검증 사태는 넥슨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게임업계는 더이상 악성 유저들의 억지를 들어주지 마세요. 게임업계가 악성 유저들 편에 서며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제발,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7255	혐오를 대놓고 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분들 자랑입니까? 평생 방구석 도태남들만 안고가세요
7256	제발 저런 말도안되는 민원은 무시하세요
7257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여성혐오를 일삼는 남성들에게 동조하는건 본인들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위해 노력하라!
7258	억지논란에 손들어준 게임업계는 반성하고, 페미니즘을 혐오의 일환으로 보고있는 게임사는 사과하라
7259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넥슨. 그리고 전 세계로 게임을 유통시킬 예정인 한국 게임사들은, 오로지 한국에서만 게임을 유통시킬 것입니까?
7260	일부 남성에 상응하여 집게 손가락에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게임업계는 ‘대중’이 아닌 저열한 남초 집단만을 게임 이용자이자 소비자로 상정하고 있는가?
7261	언제까지 인셀들의 억지논리에 놀아나려는 건지 모르겠다. 중심과 소신을 갖고 게임운영에 임했으면 좋겠다. 무시하면 어련히 사라질 것을.
7262	남자들의 집게손 떼쓰기를 받아줬다가 몰락한 선례가 몇개월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행동을 할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7263	여자혐오에 가담하는 현재 상황를 부끄러워 하길 바랍니다.
7264	한국게임을 거를 선례들을 만들지 맙시다.
7265	하극상이라 하셨는데 외주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시는건가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도 의미가 굉장히 컸을텐데요

7266	게임업계도 바보가 아니라면 억지 주장으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시키려는 놈들의 목적을 모르지 않을테지요. 집게손이 남혐도 아니지만 설사 남혐이라고 치더라도 말로만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고 하고 여혐은 방치하고 남혐만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 비겁하고 추합니다.
7267	게임계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7268	일베라고, 지역 혐오를 한다고 방송사 및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도 전부 여성의 출연을 막고,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는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인터넷 페미니스트 사냥 같은 건 정말 맥락을 읽을 줄 모르는, 사회 물정 모르고 그저 일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무개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거부하는데 '이퀄리즘'은 동의한다? 또 패밀리즘이던가요, 뭐던가요. 페미니즘이 이퀄리즘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양성평등이 그냥 페미니즘이라고요. 당연하고 건전한 사상을 래디컬(극단주의) 쪽으로만 엮어 6.9, 자들자들, ⊠등 자극적인 방향으로만 취사선택해서 뜻을 퇴색시키고 마녀사냥으로 낙인찍는 세태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애당초 이런 불쾌한 래디컬의 행보도 디씨갤, 일베의 여혐 미러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남녀 인구 수로 비율을 따졌을 때 여성 래디컬의 비율도 한참 적고. 혐오는 즐겁고, 단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효능감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이 참 착잡하네요.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죠? 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그저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재미있으니까? 하나 찾아내서 논란을 만들고, 개척자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그게 사람 하나 왕따시키듯 낙인 찍고 괴롭히는 부분이란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발전적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지메. 아무리 우리가 오타쿠라지만 인터넷 밖을 삽시다, 살아가야 하고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안 그래도 여성들은 부조리한 임금 인상 결렬 및 성과급 미지급, 직장 내 차별과 유리천장으로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7269	여자 캐릭터 성상품화를 멈추세요
7270	말도 안되는 트집을 들어주는 넥슨 회사 게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본 유저들에게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7271	게임문화 속 마녀사냥을 규탄합니다.
7272	한 줌 인셀이 전체 소비자를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7273	억지 민원의 편에 서는 짓을 그만 두십시오
7274	제발 모두가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7275	사상검증 억지논란 부당해고
7276	어떠한 경우든 부당해고는 부당해고다 마녀사냥 중단해라

7277	당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솔직히 억지라는건 알고있잖습니까.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으로 '그 동작은 그 의미' 라는것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내리고, 하청업체가 반역했다는듯 대하고(라이브방송에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사과문을 쓰고,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7278	노동자의 사상을 검열하고 블랙컨수머들의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를 규탄한다. 해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휘두를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니다
7279	결코 제작 과정 중에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결과물에서 억지스러운 '남성 혐오의 의미를 가진 상징'을 찾아내 선동하여 당사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회사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이며, 게임업계를 비롯한 모든 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7280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런 억지를 들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7281	누군가를 혐오하며 만들어진 게임을 단호히 거부한다.
7282	1) 게임 업계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페미니즘을 양성평등 주장이 아니라, 여성 우월 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제대로 된 사전적, 사회적 정의를 찾아봤나요? '내가 보는 사이트의 유저들은 여성 우월주의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 너네가 사려야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우기면 해결되듯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2) 여성 유저는 유저가 아닌가요? 여성 직원은 직원이 아닌가요? 실제로 여성을 차별할 생각이라면 그냥 국제적으로 '우리 회사를 비롯한 한국 게임 업계는 페미니즘, 즉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운동을 부정한다.'고 성명 발표 하시죠? 그렇게 당당하다면 뭐가 두려우시죠? 3) 애초에 집게 손의 정의가 뭐죠? 정확히 어떻게 생긴게 남성을 혐오하는 사인의 집게손인거죠? 본인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면서 쓸데없는데에 시간 빼고 있죠. 검수도 못하고요. 이젠 손이 아닌 것도 얼추 집게 모양이니까 혐오 사인이 들어간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넘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감당하실건가요? 4)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회사의 게임 운영 능력 부족 때문에 유저 불만이 쌓인 걸 마녀사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거잖아요. 제대로 운영 좀 하고 재밌는 게임이나 만드세요 이상한 거에 힘빼지 말고요. 개발 능력 다른 나라에 추월당한지 오래고, 새로 나오는 게임은 거의 실패하고 있고, 이미 있던 게임은 새로 낸다고 하면서 서버 종료했다가 고스란히 망했고... 솔직히 게임 경영진들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고 무능한거 뻔히 보이거든요? 게임 개발에 투자해야하는 시간에 커뮤니티나 하면서 이상한 의견들이나 읽고 있으니까 개발도 망하고 유저 마음 읽기도 망하고.. 한심합니다. 이번에 집게 손 사태 진행되는 도중에도 일러스트 한장한장, 영상 프레임 단위로 조사하는 와중에도 직원들은 블라인드에 불평불만 올리고 구경할 시간은 충분하던가 본데요. 정상적인 기업행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쟁력 올리고 기술력 올리는데에나 시간 쓰시고 이상한 커뮤니티 좀 그만 보세요. 직무에 걸맞는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728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7284	정신 좀 차리십시오.
7285	여성이 어떤 사상을 가졌든, 여성이 페미니스트라고 한들 그것이 여성이 공격당하고 위협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서 작업물을 검열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여성을 공격하고 짓밟는 게 남자들이 바라는 게임 문화라면 게임 업계는 사라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여성은 대체 언제까지 이 사상검열을 당해야 하고 폭력에 노출되어야 하고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봐야 합니까. 이것이 진정 한국의 게임 업계입니까?
7286	세상이 극우화되어갑니다 혐오주의자들에게 휘둘리면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도 영향이 가고 혐오는 계속됩니다 어른이라면 아닌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지 무지한 사회초년생에게 휘둘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7287	진짜 한심함 으휴...
7288	그 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서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유래되었는지. 알고있는가? 그것이 페미니즘을 뜻한다면, 페미니즘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들의 고집에 굴복하는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상이 일을 하는데에 있어 이제껏 어떠한 피해라도 주긴 했는지. 일부의 주장으로 한 사람의 생존권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박탈되는게 옳은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왜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야하는지. 회사는 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부의 이야기에 굴하여 당장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회피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가락의 형태와,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여성인권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글에 관련하여,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일종의 인권운동일 뿐인데. 왜 남성 혐오라 일컫는 일부의 발언에 동조하여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게임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사회의 문제이다. 여성도 사람이다. 생존권과 직결된 회사의 일에 침해 받지 않아야하고, 회사는 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회피성으로 쉬쉬하여 사태를 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아야한다.
7289	정신차리십시오
7290	일부 개인의 선택적 의미 부여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멈춰라
7291	인셀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아세요
7292	말이 되지 않는 1 프레임으로 노동권 인권 탄압하는 넥슨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당장 사퇴하라

7293	게임업계에, 특히 좋아하던 넥슨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록 남초업계일지라도, 그 속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차츰 개선해나가고 싶다는 목표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이후로는 "변화", "개선"과 관련해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게임업계의 행보는 퇴보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동자의 인권 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믿고 게임업계에 발을 들일까요. 이번 사건을 수습한다 해도 끝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논란과 억지에 휘둘려 점점 게임업계는 미래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회사와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대처를 보였으면 합니다.
7294	차별주의자들
7295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매우 얼토당토않은 억지이며, 이를 인정하고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노동권 위배 사항입니다.
7296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7297	괜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억지논란을 생산해내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다보면 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해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게임에 여성 유저는 없나요?
7298	게임 내 커스컴 및 코스튬으로 선정적이게 만든 후 유저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스템 만들어주십쇼
7299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제발
7300	인셀남들이 대중은 아닙니다
7301	피해의식 그만.
7302	페미즘을 나치와 같다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넥슨과 게임업계도 그리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7303	넥슨과 게임업계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그만 부리고 여성들을 존중해라.
7304	억지 논란을 멈추고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하라 게임업계 사상검증 중단
7305	이런 억지주장으로 사과를 하는 메이플과 넥슨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게임 업체와 애니업체가 안좋은쪽으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또한 김창섭 디렉터는 모두가 차별없이 즐길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했지만 김창섭 디렉터가 한 사과 역시 인벤사람들을 위한 사과고 여성유저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여성유저들을 배제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7306	넥슨코리아의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방침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7307	좋은 선례를 남깁시다.
7308	억지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7309	진짜 혐오와 사상검증이 어느쪽 이었는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7310	여성혐오규탄

7311	페미니스트의 관심은 성평등이지 성기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가 타인을 혐오하고, 타인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다면 그것 또한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와 모욕입니다. 반페미니즘 세력은 페미니스트를 늘상 페미년이라 부르며, 오늘 시위에서 칼부림을 예고하였고, 얼마 전에는 숏컷을 한 여성에게 페미니스트라며 묻지마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포르노 사이트인 폰 허브에 대놓고 집게 손과 스몰 딕이라고 조롱한 베너에 대해서는 불매 가기엔 너무 큰 신세를 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불매와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애플과 구글도 그렇고요. 결국 만만한 국내 기업에게만 억지 논란을 주장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래도 계속해서 사과와 피드백을 반복하고 싶으신지요? 이번 사태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된 직원도 페미니스트 탓을 하더군요. 정작 페미니스트들은 집게 손 논란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집게 손이 나치의 상징과 같다는 그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페미니즘의 상징하는 손 모양은 주먹이지 집게 손이 아닙니다. 조만간 주먹 쥔 캐릭터들의 손가락을 다 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페미니즘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안타까워 글을 남깁니다.
7312	무엇을 위해 불링을 용인하는지 모르겠으나 전체 업계를 위해서는 중지해야만 합니다.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말합니다.
7313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정치 견해가 아닙니다. 게임업계에 남성만 있는 것도 아니며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여성뿐 아니라 많은 청년이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주세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요..
7314	생업을 경시하지 말라
7315	여성고객은 고객으로 생각도 안하는 그 놀라운 판단력 대단합니다. 게임업계의 말도안되는 사상검증 OUT
7316	나의 권리는 죄가 아닙니다
7317	한국게임계는 여자지우기를 멈춰라
7318	'집게 손' 마녀사냥을 멈추고 페미니즘 혐오에서 비롯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마세요

7319	애니업계 종사자입니다. 소수 이용자들의 극단적인 의견(심지어 프레임 한장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성하기 위한 동화 하나를 가지고 생성해낸 창조논란급 트집)만 듣고 상세사항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작업자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빠른 대처를 한 우수기업' 인척 하는 거 정말 우스워서 못 보겠습니다. 솔직히 그림을 따로 떼놓고 봐도 그 한 장이 문제라는 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고작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진 짤 한 장일 뿐이잖아요? 이게 이만큼의 논란이 될 일입니까? 문제를 제기한 극소수의 유저분들도 그 의견을 진지하게 들은 여러분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상대로 쉐도우 복싱 중이신 게 아닐까요? 옆에서 보면 우스꽝스럽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먹질이요. 그 동작에 대체 무슨 숭고한 의미가 있으며 그 동작에 대체 무엇을 자극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라면 이 며칠 사이 일어난 일 또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봐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손동작이 특정 사이트에서 퍼트리는 남성혐오 표현이며 그 한 장을 굳이 필요없는데도 캐릭터의 움직임에 넣어 은밀하게 남성혐오적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란 게 이번에 넥슨 측이 비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feat. 살면서 동화 한 장 그려본 적 있는지부터가 의문인)의 주장인 셈인데, 넥슨 측에선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해당 사상을 주장하는 사이트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그러한 의도가 정말로 작업자에게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보긴 하셨을까요? 살다살다 이렇게 날림으로 처리하는 거 이 업계 10 년째 일하면서 처음 봅니다. 방송 하루 남겨두고 최종편집 쳐야하는 스케줄 막장 애니메이션도 이런 식으로 일처리 안 해요. 그냥 인정합시다. 그저 시끄러워질 거 같으니 하청, 더 나아가 일개 애니메이터 몇 명의 탓으로 치고 조용히 묻어버리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안됐네요. 더는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오셨습니다. 세이브 포인트 다 날리고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던 회사 이미지는 손해 보는 엔딩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그 근거 없는 주장, 트집에 매달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하신다면야 알아서 하세요. 넥슨 게임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여성 유저들의 수+그 동작을 혐오표현이라 생각지 않는 정상 유저들의 수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일개 몰상식한 유저들보다 더 많을 거란 사실은 부디 간과해 주시고요.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현명한 판단 하시라곤 도저히 말할 수가 없네요. 진지하고 이해가는 해명? 더는 기대 안 하고요. 그저 잘못된 일처리에 대한 대가 치를 준비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20	게임을 비롯한 한국 서브컬쳐업계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사상검증은 사라져야합니다.
7321	놀랍게도 여성들도 돈을 내고 게임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합법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요.
7322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다
7323	넥슨은 인셀남 양성을 멈추고 건전한 게임 문화이 기여해라! k game 쪽팔린다
7324	시대에 뒤처진 억지 사상검증을 무시 못 할망정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7325	넥슨은 혐오조장 당장 중단하라
7326	이상한 근거를 들어 서로를 혐오하게 하는 말들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페미니즘은 혐오와 적대감이 아닌 배려와 존중을 원합니다.
7327	멍청하고 부당한 불만과 고집에 끌려다니는 행위를 멈춰라

7328	억지 논란에는 무대응이 필요합니다. 페미몰이로 사람을 자른 이후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7329	정신차려라
7330	말도안되는 음모론적 집단 히스테리를 소비자의견이라는 이름아래 자꾸 받아주면 이런 사태가 반복됩니다.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친화적으로 경영을 하고, 뿌리스튜디오와 직원들에 대한 마녀사냥 동조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7331	20-30 대 남성의 억지 논란 받아주지 마세요. 버릇됩니다
7332	똑바로 하시오!!
7333	인셀 여성혐오 집단의 말도안되는 억지주장 들어주지 말아라
7334	불합리한 요구에 수응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7335	작금의 조치가 넥슨 본사의 명백한 양성평등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며, 사측은 문제의 본질을 떠나 언제든 외주/협력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행위를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7336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337	왜 의미부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각종 매체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손모양으로 남자혐오다라고 생각하는건 지극히 망상에서 나오는 거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건 자체적으로 혐오에 동의한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손모양이 남자혐오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당신들 행동에서 나오는 그 손동작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스로에게 남자혐오를 한다고 드러내는 것과 다를바 없지 않은가? 쓸데없는 인터넷 유저들 선동과 날조 우기기에 편을 들어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편을 들어주는건 커뮤니티에 찌들려 사회와 현실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유저들과 다를 바 없다.
7338	게임업계의 뿌라깊은 여성혐오를 규탄합니다.
7339	다 터졌으면 좋겠다. 이따위 업계는 망하는 게 더 낫다.
7340	정신차려라
7341	시대착오적임
7342	남성게이머 편향을 넘어선 음모론을 가진 남성게이머들의 행태만을 수용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7343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하고 페미니스트를 색출하며 성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게임업계를 두고 과연 우리나라를 게임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7344	여성 노동자로서 슬프고 끔찍한 마음입니다. 프로젝트 문의 입장문, 넥슨코리아의 대처를 보니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논리로 개인을 참담하게 짓밟는 것을 목도하는 듯 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결단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345	현업 종사자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7346	한 사상을 가지고 인재를 거르는 것은 기업에게도 안좋은 일입니다.
7347	말도 안되는 일을 키운 게임업계도 발작하는 이들과 똑같고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7348	억지 민원에 자사 직원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7349	이런 식의 차별 속에서 운영을 해나갈 거라면 앞으로 게임 시작 전 화면에 문구 기재 부탁드립니다

7350	김자연 성우를 지지합니다 여성 평등을 지지하며 사상검증을 반대합니다 모든 아티스트는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중단하고 아티스트 보호하라
7351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억지들을 받아줌으로써 많은 여성 유저들을 내쫓고, 그리고 여성혐오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7352	대체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것에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신가요?
7353	누군지도, 몇명인지도 모르는 익명성이 짙은 커뮤니티 하나에 벌벌 떨며 특정 사상에 치우친 억지가 가득한 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유저들이 평소에 게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때 눈과 귀를 막으며 배짱이란 배짱은 다 부리던 그 호승심은 대체 어디 갔나요? 이런 식으로 누군지도,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경우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정말 예상이 안 가시나요? 바로잡길 바랍니다.
7354	정신좀 차리길
7355	그 어떤 경우에도 성별이 노동탄압과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7356	같잖은 것들이 뭐라고 그 말에 귀를 귀울이시나요? 한국게임산업이 세계화되고 유명해지려면 그들만 버리시면 됩니다.
7357	게임 내 재화 가격 변동이나 캐릭터 리마스터 개선안 등 정말로 유저 의견을 들어줘야 할 땐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애니메이션 동세 연출을 위해 필요한 상식적인 손가락 자세와 세상에 남녀 성차별이 존재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으면 안된다는 상식적인 말을 남성 혐오라고 여기는 헛소리를 24 시간만에 빠르게 수용하는 모습이 정말 역겹습니다. 진정 혐오를 누가 하는지 스스로를 관철하십시오. 이런 사람들로 가득찬 한 게임업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7358	게임업계는 제정신 좀 차리고 각성하라! 자회사 직원의 안위를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외부의 시선에 촛불 흔들리듯이 줏대없이 휘청대며 애먼곳에 선택적인 분노를 자처하는 작태가 한심하다. 우리나라 게임사의 최고봉이라 일컬여지는 넥슨 외 다수의 회사들은 노동자가 귀한줄 모르는 이들 뿐인가? 발전이 아닌 퇴보만을 자청하고 있으니 한탄만 나온다.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길 바란다.
7359	세상 반이 여자인데 그중 반도 게임을 합니다. 차별주의자가 된걸 축하합니다.
7360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멈추세요
7361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7362	대체 언제까지 억지주장에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계를 위협할 것 인지 넥슨사는 소위 디씨인사이트, 일간베스트, 루리웹 등 남초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직원을 자른적이 있는지 검열한 적이 있는지 SNS 검열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지. 이에 대해 왜 직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에 대해 알고싶네요
7363	치졸하고 역겹다. 일개 노동자의 신상을 털어 부당해고까지 이루어내는게 말이나 되나요?
7364	이렇게 사상 검증이야말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7365	지금 논란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대화를 나눈 분, 그리고 대다수의 남성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성들은 천룡인이다. (대접 받으면서 산다.)‘ ’한남이 군대에서 피해본 거 방치하고, 무고죄인 분을 여성들이 비웃었으니 그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여성을 자르고 싶었다.‘ ‘손가락 억지논란인 거 안다. 근데 그냥 괴롭혀도 되지 않냐.’, ‘나는 백인(천룡인과 비슷한 뜻)과 어울리기보다는 백인의 대가리를 깨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남초 게임에 여자가 들어왔고, 여자는 백인인데 남초 겜 하는 여자는 쓰레기다.‘ 이는 특정 커뮤니티를 하는 남성들의 왜곡된 인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여성의 약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거부하며, 그 약자성을 빼앗고 싶어하고, 진정 무고죄가 있는 남성들이 많다면 그것에 대한 운동도 하지않으며 여성을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여성들끼리 하는 연대에 대한 질투심도 보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며, 페미니스트를 특정 음모 세력으로 격하시키려고 합니다. 심하게는, 지역 갈등까지 부추겨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묶기도 합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우리가 보고있는 개좆같은 전라도찌꺼기새끼들이 그옛날 일본애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스펙트럼의 원본버전을 잘 간직하고있는거임." "쉽게말해 현대 일본인의 열화판이자 저 인종혈통의 단점이란 단점들은 다 처모아놓은 질나쁜 프로토 타입이 바로 전라도인임.- dc ApP "현대 일본인들이야 지들끼"리 죽고죽이고 피를 피로씻어대는 개지랄을 했으니 강제로 규율이 잡혀서 그런대로 예절바르고 괜찮아 보이는거지, 좆같이 구는새끼는 애진작 옛날에 다 칼맞아 뒤졌으니 전라도 왜놈낙오자들이 저짝새끼들 프로토 타입맞음. 웃는얼굴로 기만질 이지매 전체주의 고로시 통수 배신 뻔뻔까지." - dc App "전라도는 적이 맞다. 단지 총칼들고 싸우는거보다 이 1 인 1 표 체제하에서 선동과 이간질로 온나라를 찢어발기고 책임없는 1 표를 받아내 세금에 손 댈 권한만을 탈취해 이나라사람들을 약탈하겠다는 적들이고 전라도민족이라는 민족단위의 침략자들이다"-dc ADD 말도 안되는 이 논리를, 특정 커뮤니티를 하는 대다수의 남성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말을 듣는 기업의 판단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7366	좀 하지마
7367	넥슨 및 게임업계는 악성이용자들에게 휘둘려 여성직원을 사상검증하고 해고하는 마녀사냥행위를 즉각중단하고 직원보호를 위해 힘써라!
7368	넥슨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인지...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지 말길
7369	너무한심하다
7370	넥슨이 시작한 사상검증 넥슨이 끝내세요
7371	넥슨은 고개를 들라
7372	이대로 간다면 국내 게임업계는 퇴보한다. 단순 재미로 개인의 SNS 를 뒤적거려서 의혹을 재기하고,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주장하는 집게손 억지논란을 게임사에서 그대로 들어주는건 게임이 문화라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다.

7373	게임 업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업계에서 이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 및 자연스러운 연출에 제약이 심합니다. 일부 억지 유저들의 요구에 그만 동조하고 마녀사냥을 멈추길 바랍니다.
7374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쓸 시간에 핵이나 잡으세요
7375	마녀사냥좀 그만했으면
7376	여성 혐오 가담하는 게임 업계는 반성하라
7377	근거 없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만의 글을 맹신하여 편견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행위 강력 규탄한다!
7378	손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부여해서 뭐라하는거 작작했으면 합니다
7379	억지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7380	일부 모자란 유저들에 휘둘리지 마시길
7381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에 대한 사과로 페미니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임업계들은 열심히 반성이나 하세요
7382	억지논란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신들에겐 영원히 향하지 않을것이라 착각마라. 무너진 도미노는 시작됐다.
7383	덕분에 이 나라의 게임업계에는 미래도 없고 절망과 나락길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응원은 없을 예정이며, 쇠퇴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부디 더 나은 미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7384	그 자체로 거대한 인셀커뮤니티인 한국 게임업계가 디씨일베이대남들을 끌어안고 다같이 폭사하길 선택했으니 선택에 대한 업보를 확실히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7385	그냥 빻은 유저일뿐입니다
7386	참담합니다.
7387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받아주지 마세요
7388	애초에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투쟁이고, 귀찮고, 힘듭니다. 굳이 생계로 진행하는 일감에까지 그것도 몰래 드러낼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면 말했지... 억지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
7389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390	억지논란을 받아주는 넥슨이 문제입니다. 손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때입니까? 한국 게임산업 하락해가는데 발전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후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차리세요.
7391	게임산업내 여성혐오, 여성차별 규탄한다.
7392	혐오몰이를 멈춰주십시오
7393	사상검증으로 일어나는 불상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394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임신 대상으로 보는 소아성애자, 즉 범죄자를 일러레로 고용하면서 왜 페미니스트 일러레는 해고하는 건가요? 메이플 사태 때 윗선은 '하극상'이라 치부하며 엄벌을 처할 것을 생각하고 있던데 그건 곧 집게손가락을 더러운 페미니즘으로 동일시한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한 꼴 아닌가요?
7395	먹금할 필요가 있는 곳에 반응하지 말라

7396	다음 세대는 무조건 현 세대보다 나아가야 한다. 쇠퇴와 추락이 아니라.
7397	해외에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왜 갑자기 레딧이며 트위터며 난리가 났냐고요. 설명을 해주려니 쪽팔립니다. 이모지 하나에 저렇게 반응하는거라고요. 한국인이라는게 쪽팔립니다. 친구들이 '한국 남자 만나면 그 앞에서 이 손모양 하면서 놀려야지' 이런 소리 할때마다요. 왜 아무것도 아닌거에 이렇게까지 반응합니까? 왜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이렇게까지 합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정말로?
7398	소수 인셀남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게임업계 전반의 여성 구매자를 등지는 것임을 알아주세요
7399	직원보호 해주세요
7400	게임업계, 더 나아가 사회에서 몰아치고 있는 이 광풍을 멈춰야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넥슨과 같은 기업은 겁먹고 꼬리를 자르는 데에만 머무를 것입니까? 앞으로 전체 게임업계 종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항변할 권리조차 없다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7401	최근 '림버스컴퍼니'라는 게임도 말도 안 되는 억지 페미니즘 논란에 회사가 사과하며 논란에 휩싸인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있었다. 사측은 오로지 '일부' 남성 이용자만을 위한 선택을 했고 이는 회사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은 많은 여성유저와 남성유저들의 이탈을 초래했다. 수많은 유저의 이탈로 매출은 급락했고 현재는 게임의 퀄리티조차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 게임 뿐 아니라 여러 게임들이 그러한 '일부' 남성 유저의 억지 페미니즘 논란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그 '일부' 남성들의 억지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이는 여성 유저 뿐 아니라 그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남자 유저들마저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보고도 배우지 못 한것인가? 그렇다면 한국 게임업계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 '일부' 남성 유저만을 끌어안고 그들이 제시하는 억지 논란을 계속 해명만 하다 자멸하라.
7402	게임업계가 타업계에 비해 신업계인데 갑작스럽게 확 크다보니 노동자인권 교육을 안받았나 싶네요
7403	억지 창조논란을 일으키지마라
7404	김치 찢어먹을때 엄지 검지 안쓰면 인정요
7405	지금까지 방치되는 바람에 잘못된 방향으로 경도된 게임업계의 그른 관행이 도를 지나치게 된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갑질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던 모든 여성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7406	페미니즘 혐오를 중단하라!
7407	노동자 인권 탄압도 탄압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여성혐오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게임하는 여성 유저들이 많은 게임사에서 이런 일은 이제 척결되어야 합니다.
7408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면 집게손을 넣은 사람만을 잡을게 아니라 '공평하게' 지금 현재도 인터넷에 여성혐오 표현을 쓰는 직원들도 징계하셨으면 합니다. 집게손이 정말 동세를 표현한 것이 아닌 혐오를 조장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7409	근거없는 여성혐오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는 제가 한국 게임업계에 발 들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7410	당장 눈앞의 이익을 고려하는 결정보다는 미래의 아이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할 수 있게 결정을 내리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려 되돌릴 수 없는 선택하지 마세요.
7411	디시 등 인셀남들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7412	되도 않는 소리 들어줄거면 사업을 하지말고 정치를 하던가 자원봉사를 해라
7413	한심함. 상식이 통하지않는 회사가 아닌 업계전체라는 점에서 망해도 이상치않음
7414	일부에서 찡찡대는것 좀 작작 들어주세요..
7415	글로벌 기업으로서 정상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416	억지사상으로 노동권을 위협하는짓을 관둬라
7417	사람이라면 생각을 좀 하세요......쓰잘데기없는 억지나 들어주고있고 한심하다
7418	모든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7419	억지 논란으로 업계 내 사상검증, 여자 일거리 뺏는 모든 행위를 규탄합니다
7420	말도 안되는 억지에 언제까지 죄송하다고만 할건지...? 그냥 사람 죽이기에 재미들인 사람들의 억지 주장을 계속 들어주니 논란 안될 것도 논란 되는 데 문제. 원신이나 다른 게임들 보면 안경을 잡던가 뭘 잡는 모션 할 때 무조건 그러한 손동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건 어떻게 논란이 안되는지?
7421	게임업계는 날조된 혐오집단에 머리를 숙이고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7422	세상의 반을 구매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수익의 안정성이 그 모양인 것이다.
7423	딱봐도 말도안되는 거지같은 논란을 받아주는거 보니 시간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진짜 웃겨서 그럽니다.. 페미니스트들도 모르는 페미니즘표식이 존재하다니
7424	그간 게임 속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여성혐오에는 눈감았으면서 이제 와서 혐오를 지양한다는 핑계대지 마세요.
7425	너네 회사 다니는 여직원들 남직원들 전부 쪽팔려 죽겠다.. 정신좀 차려봐
7426	시대착오적 여론에 탑승하기 위해 인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7427	노동인권 지켜달라 외주계약 갑질이 떳떳한가?
7428	디시펨코인셀들의 기분권을 위해 여성들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7429	폭력을 멈추세요
7430	집게손☒이 '남성혐오' 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들의 간악한 목소리에 굴복하여 여성 게이머들을 배제하고, 죄 없는 직원을 부당해고 하는 넥슨 및 다른 게임 업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라. 당신들의 앞날이 더 비굴하고 옹졸해질지, 아니면 떳떳하고 당당해질지 두고 보겠다.
7431	반사회적 성차별주의자 세력의 집단적 착각을 용인하면서 굴복하면서 이 같은 사태를 키운 넥슨코리아의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방침을 엄중히 규탄한다

7432	사회부적응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받아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7433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마치 정말 실제하는 어떤 범죄인 것처럼 구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유치한데 너무 악의적이고 한 사람의 커리어를 막는 꼬라지를 더는 못봐주겠네요
7434	규탄한다 규탄한다
7435	유구한 강자의 억지 논리와 착취를 멈추십시오. 부끄러움을 아는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436	게임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떳떳하다면 글로벌한 대형 게임사인만큼 서비스하는 나라의 언어로도 영상 단 1 프레임 동화로 들어간 손가락이 페미니즘적 사상과 의미를 담고 있는거 같아 의심이 되어 아무런 사상과 의미를 담을 수 없게 모든 자사 게임의 작업물들을 도라에몽 손으로 갈아 엎겠다고 공지 올리세요. 사상을 넣어서 작업했기 때문에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시고요. 손에 힘만 빼도 나오는 평범한 손포즈를, 페미니즘을 불온한 사상으로 취급하는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게임업계분들은 죄다 엄지나 검지 하나가 없으신가보네요^^
7437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사이에서 직원 간, 고객 간 혐오 범죄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별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회사가 올바른 윤리와 교육을 가져야 한다.
7438	페미니즘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사실 여부를 떠나 정당한 작업물을 검열당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부당하게 해고 및 징계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7439	안티 페미 양산은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세계적인 게임사가 되고자한다면 다양한 젠더 그리고 생각들을 존중해라.
7440	억지논란, 어거지로 우기는 특정집단들의 말을 굳이 들어줄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억지논란 제발 멈추세요
7441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7442	혐오 금지

7443	게임업계가 타당한 민원과 그렇지 않은 민원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애니메이션의 아주 짧은 순간을 캡처해 집게 모양 손을 넣었다며 페미니스트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업체를 찾아내어 그 SNS 에 악플로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민원이 정당하다 한들, 떼거리로 몰려가 악플을 다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애초에 인셀들의 주장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식을 보면 아예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집게손가락이 한국 남자들의 성기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하지만 제작한 업체인 스튜디오 뿌리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를 작업한 스태프는 앞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작업한 작업물을 수정하겠다고 입장문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의도는 없었지만 이를 작업한 사람은 자르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스튜디오 뿌리만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외주 작업을 맡기고 게임 업계에서도 큰 입지가 있는 넥슨이 빠르게 인셀들의 민원을 받았고 하청 업체로 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떠넘겨진 스튜디오 뿌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잘못하면 더는 외주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생계와 경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외주를 받아 충실히 제 일을 하던 한 애니메이터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어느 업계든 변하는 세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 구성원을 지켜야 하지만 넥슨과 이전에 있었던 프로젝트 문을 보면 터무니없는 인셀의 요구를 들어주고 구성원을 그 제물로 바치듯 지켜주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이번 넥슨의 대처로 타 게임들 또한 집게손가락이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어째서 악성민원으로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당해야 합니까? 넥슨은 추후의 안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곧장 그 영향이 나타날 만큼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남성혐오인 집게손가락이 들어갔다고, 구성원 개인의 신상을 뒤져보니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는 민원에 반응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니, 무고한 사람들을 묻고 싶은 인셀들에게 크게 이바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한국 게임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잘못된 것인가요? 왜 잘못된 것인 양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셀들은 페미니즘이 사회악인 양 행동하지만, 이번 사건만 봐도 인셀과 페미니스트 중에 누가 악독한가요? 정신을 차리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인셀들이 정상인들이라면 짧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캡처해 한국 남자 성기 비하한 것 아니냐는 소리는 나올 수가 없고 나아가 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무시해도 될 걸 받아줘서 빠르게 대처한답시고 하청 업체에 책임이나 떠넘기고, 결국 인셀들만 좋을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 게임이지, 이번 사태를 보고 여성 유저들이 안 떠나게 생겼습니까? 언제까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뒤떨어져 있다면 게임업계의 장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구성원을 지키고 터무니없는 요구는 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책임 좀 지세요. 말도 안 되는 악성민원 받아줬으면 구성원 개인이나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자' 본인이 책임지시라고요.
7444	어딘가에서는 한국인으로든 무언가로 나와 한 무리로 묶여 보일거란 점이 몸서리치게 싫고 부끄럽다.
7445	혐오 동조해서 사회를 흐리지 말아라
7446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억지적인 이유로 게임을 망치고 유저를 갈라치며 단순한 사상 하나로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막아주십시요
7447	안티페미니즘을 척결하지 않으면 평생 불매하겠습니다.

7448	시대착오적 시각과 발상에 동조하여 여성을, 일하는 자를 억압하고 혐오하는 일을 멈추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곧 망하게 될 것.
7449	쌉소리 들어줄 필요가 없음.
7450	억지로 몰이하는거 멈춰주세요
7451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7452	넥슨은 큐모가 큰 회사인 만큼 모든 사안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7453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ㅋㅋ 뭔 다 큰 남자들 찡얼대는 소리를 들어주다가 국제적 망신이냐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745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7455	전 세계가 쓰는 손동작 하나를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죄없는 사람들을 몰아갈것인지? 그리고 이런 억지에 언제까지 일일이 반응할것인가? 이게 정녕 게임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7456	언제까지 죄없는 사람들 꼬리 자르기나 할 건가요?
7457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도록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혐오이자 차별입니다.
7458	여성혐오에 동조하지마라!
7459	쓸데없는 혐오에 힘 빼지말고 게임 업계 처우에 힘써라.
7460	정신차립시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앞날을 가리고 있습니다.
7461	부당대우 그만
7462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 어이없고 근거없는 주장의 손을 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7463	가짜혐오때문에 진짜혐오하지마세요
746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7465	게임 산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뿌리뽑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슨이 그 발판이 되어주셨네요.
7466	페미니즘 혐오 몰이 규탄
7467	요즘 한국 게임들 여성 캐릭터는 전부 헐벗은데다 성적대상화는 지나치게 심각하여 너무 유해하고 세계적으로 창피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엔 문제의식이 없으면서 고작 손가락 모양 하나에 말도 안되는 이유 갖다대며 논란을 일으키는 일부 유저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넥슨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7468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들어주는 것을 중단하고, 게임업계 내 성차별이나 해결해라!
7469	엄한 사람 잡을 시간에 게임 내 채팅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세요
7470	더이상 억지 논란으로 피해입는 여성들이 발생하지않았으면합니다.
7471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들의 억지에 손쉽게 누군가의 직업을 없애는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7472	인터넷에서 소수가 명확한 근거없이 펼치는 주장으로, 현실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7473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는게 한심합니다
7474	억지논란에 편승한 직원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7475	남초 입맛 맞추느라 여캐 벗기고 하는 것도 작작해라 한국 게임이 제일 야겜 같다
7476	게임 운영, 마케팅에 있어 유저 즉 소비자들의 의견과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 과연 플레이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같은 게임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이번 사례와 같이 게임을 위한 의견을 빙자한 것인지 생각해주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7477	넥슨 게임 평생 안합니다.
7478	페미니즘은 당신들이 갖고놀수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7479	사상검증을 휘둘러 기업의 이익을 얻지 마세요.
7480	상식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손모양은 일상생활에서나 애니메이션 연출 기법으로나 자연스러운 손동작 입니다. 그 예시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기업이나 단체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이 손동작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손모양이 과격한 페미니스트 사상을 담았다는 주장은 억지스러울 뿐 더러 이를 가지고 기업과 직원들에게 과도한 비방과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게임업계와 넥슨은 더이상 이 근거없는 억측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장 게임업계엔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알고 자정하고자 하는 물결이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이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고 직원 보호와 억측을 끊어내는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7481	그렇게 근시안 적인 사고로 잘도 사업하겠어요 한국 게임이 우물안에 머누는 이유 정말 모릅니까
7482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진 신념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그것이 차별에 반대하는 것일 때, 혐오를 재생산하는 쪽의 편을 들어주는 건 더욱 나쁜 일입니다. 넥슨 및 게임 업계는 남초의 억지 땡깡을 그만 좀 들어주고 제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7483	힘든 세상 손가락만 보고도 고달파서 어떻게 사냐?
7484	집게손가락 가지고 발작을 이르키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해보이고 여러모로 아픈 사람같은데 그 사람들땜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거 같다.
7485	시대착오적인 넥슨 운영진은 반성하라! 겁쟁이처럼 노동자 탓으로 피하지 말고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라! 유저의 고혈로 벌만큼 벌었으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7486	직원보호 좀 해라.
7487	일부 진상 유저들이 부리는 말도 안되는 억지는 들어줘봤자 게임이나 게임사에 좋은 영향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버릇만 나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게임사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걸 보고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여 또 다른 곳에서도 행패를 부리길 계속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들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488	여성혐오를 멈춰라
7489	모니터뒤에 숨은 자들이 하는 말 무분별하게 수용한 대가를 치루었으면 합니다.
7490	부디 이 말도안되는 논란을 규탄해주십시오ㅜ
7491	혐오는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해보세요
7492	여성혐오적 행보 OUT 여성 일자리 그만 잘라라

7493	제발 집게손가락으로 억지부리는 것좀 그만 들어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뇌에 고추밖에 없는지 뭐만 하면 다 지들 고추만 생각하는줄 아나
749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7495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사상검증으로 직원을 보호하지않고 내치고, 하청업체(스튜디오뿌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주제에 사상에 관련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고싶다고 헛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앞뒤가 안맞습니다. 인셀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말하는 손모양이 페미의 증거다 + 페미는 사회악이다 이런 말은 헛소리고, 해외나가면 헛소리 취급받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다못해, 타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행을 그만두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7496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어주면서 여성 노동인권 탄압하는 수준 낮은 대처 잘 보았습니다. 잘 되기는 글렀네요. 전세계 언론에도 알려져 망하길 바라겠습니다.
7497	제발 억지 주장 들어주지 마세요 저는 모든게 금시초문입니다 그게 페미를 뜻하는 건지도 처음 알았네요
7498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7499	제발 게입업계를 비롯해 이상한 오해와 사상에 사로잡힌 분들, 실체도 없는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혀 사회를 혐오로 몰아가지 마세요.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공통의 목표를 가질 뿐입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비정상적인 마냥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7500	이젠 사상검증이 아닌 현대판 마녀사냥에 불과합니다.
7501	억지 창조논란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멈춰라.
7502	불매
7503	정신차리세요
7504	페미니즘 혐오 규탄.
7505	현 사태를 똑바로 인지하고 행동하세요. 되도 않는 요구 다 수용하다가 망하는건 당신들 기업입니다.
7506	애먼 피해의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사과하길
7507	멍청한 몇몇 X에게 휘둘리지 마!!!
750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7509	망해라
7510	여혐을 놀이처럼 하는 문화 근절바람
7511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지금 이 현상이 망상에서 비롯된 집단광기라는 걸 왜 지적하지않고 받아주고 수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7512	진짜 가지가지하세요..
7513	시대착오적 사상검증과 무논리적 주장에 의한 넥슨 게임문화 퇴화를 멈추세요
7514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 한심합니다.
7515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앞으로 국산 게임은 할 일도 없겠어요. 외신에 널리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7516	피해망상 인셀과 함께 나락으로 가시기 전에 국가보조금은 뱉어내고 가시길
7517	정신 좀 차리십시오
7518	정신차려요
7519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520	기업 본인도 알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게임 내 주류세력이란 이유로 혐오세력에 굴복해 마녀사냥을 하며 허상을 저격하는 모습을 보니 말도 안되는 집게손, '페미'논란이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밥줄을 언제든 끊어지게 할 수 있으며 이건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혐오세력의 을이 되기를 자처한 찌질하고 멍청한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가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7521	일부 남성들의 찌질함을 왜 여성들이 받아줘야하는건지 부당하다
7522	제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대응해주지마세요, 그래도 업계 대기업이라는 기업이 뭐하는 짓입니까? 기업 윤리에 맞는 경영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7523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에 진지하게 응대하는게 진짜 바보같습니다.. 페도필리아 디자이너나 어떻게 해보세요
7524	진정으로 게임업계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525	무지성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넥슨과 게임업계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경썼으니 넌 자본주의자야 같은 논리로 수백만명을 잡아죽였던 중국 역사의 홍위병이 생각나네요. 당신들은 인터넷에 있는 홍위병 꿈나무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요. 수많은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무지성을 용납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돌아옵니다. 결국 당신들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7526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포함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 공격을 멈추세요.
7527	별 같잖은 핑계로 여성혐오하기를 멈추세요
7528	페미에 집중한 나머지 여성차별을 방조 하는 게임 업계는 망할겁니다.
7529	말도 안 되는 억측에 공식대응 했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공식입장문을 올렸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억측에 동감한다라고 생각되어 믿을 수가 없고 현 세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식입장문 철회나 수정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7530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억지 논란에 발맞추는 행위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여성캐릭터의 과도한 노출도 삼가했으면 합니다.
7531	망해봐야정신을차리지
7532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힘을 실어주니 틀린줄도 모르고 끝없이 나대죠.
7533	인셀들 억지 집게손 논란은 들어주고 불법촬영반대 리트윗한 여성은 해고하고 소아성애자는 고용하는 넥슨
7534	페미니즘 혐오를 중단해라.
7535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작으니까 개난리구나

7536	1 초도 되지 않는 장면으로 남성 혐오라고 우기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억지 부리기이자 이성적인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이다. 당신들이 대처랍시고 취한 행동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가져다 주는지 눈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7537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사상검증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이다. 페미니즘은 혐오가 아닌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넥슨 및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7538	어휴 그만해
7539	집게 손가락 망상에 빠져계신거 같은데 정신들 차리세요 여혐기업 넥슨
7540	한심하고 답답하다
7541	창피하지도않나요?
7542	유저가 남자 밖에 없나요? 그리고 그런 요구 계속 들어주면 후에는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계속이어질텐데 그게 당연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7543	어처구니 없고 상식이 결여된 주장에 맞장구치는 기업을 뿌리뽑아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피해보는 선량한 여성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7544	솔직히 스스로도 억지라 생각하지 않나요? 0.1 초 지나가는 손동작이 거슬린다고 그 난리라니 특이한 손동작도 아니고 일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손동작인데 혹시 뭐 페미가 그런걸 노리고 일부로 그런 손동작을 만들었다 우길건 아니죠? 그렇게 모든걸 다 의심하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7545	이게 현실인가 싶을정도다. 넥슨 및 게임업계의 뇌는 게임속에 존재하는건지 정상적인 현실세계에서의 사고가 가능한건지 묻고싶다.
7546	유구무언입니다.
7547	적당히 하시오, 집게손이 뭐라고. 집단 정신병같아 기괴합니다.
7548	개인의 사상규제를 멈추십시오
7549	좋냐?
7550	작작해라
7551	그들의 억지에 칼을 쥐여주지 마십쇼
7552	인간이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7553	저런 쓸모없는 억지를 받아주기 위해 사상검증의 형식을 취한다면 그거야말로 게임 업계의 추락이다.
7554	혐오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게임기업. 제발 정신 좀 차려라
7555	억지혐오 무시하고 노동자 보호하세요.
7556	비상식적인 혐오몰이에 비상식적으로 대처하는 넥슨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성들과 연대합니다.
7557	여성 유저 또한 게임업계의 정당한 소비자임에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는것은 옳지않다. 넥슨은 이 사태를 똑바로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7558	유저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으면 게임이 유지될 수 없음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의견이 게임과 모두를 위함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저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 개인들의 의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당당한 문화로써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7559	일본처럼 오타쿠가 이끌어가는 게임문화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넥슨이 되어주길...
7560	몰지각한 일부의 의견을 사실인냥 받아들이며 사회를 저해시키는데 앞장선 넥슨 정신차리세요. 어처구니 없어서 엄지랑 검지를 자르고 사시던가요.
7561	억지 의견에 동참하며 성차별적 행위를 더 부추기지 마라
7562	대기업이나 된다는 분들이 말도 안되는 피해망상 인셀들 말을 들어준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7563	매번 일어나는 억지논란에 반응하지말기를 바랍니다.
7564	넥슨 어리석습니다
7565	같잖고 근거없는 주정을 들어주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7566	성인지감수성을 가지세요
7567	되도 안한 억지 부리는 것을 수용해주는 넥슨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겠지요? 게임 속 여혐 요소나 없애고 큰 소리 치세요.
7568	정신좀 차리시길
7569	상장회사면서 남성 유저의 목소리만 듣는 넥슨 너무 한심하네요.
7570	일부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받아들여 업계를 혼돈의 구렁텅이에 넣지 마라
7571	이미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는 고칠생각 안하면서 페미니즘 악마화와 집게 손가락 억지논란에만 앞장서는 업계는 반성하라
7572	한국 인셀들의 피해망상에 근거한 혐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7573	억까 똑바로 규명하고 사과하세요 남자 유저만 유저입니까? 여성 유저 배척 제발 그만 여성 유저는 언제 챙겨 주시나요
7574	자르라고 하는 놈이나 받아주는 놈이나 똑같네
7575	집게 손 뿐만 아니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및 여성 혐오를 규탄한다.
7576	여성 혐오에 동조한 업계 행태에 비난한다
7577	혐오를 위한 창조 논란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7578	한심한 선동에 동참하는 게임업계도 공범입니다
7579	인셀들의 안티페미니즘에 동참해서 인권운동에 역행하고 노동법을 어기는 바보짓은 그만두세요.
7580	아동포르노작가나 내쫓고 사상검증을해라 페미니즘은 합법이지만 아동포르노는 불법이다
7581	여성혐오의 온상지, 끝판왕 넥슨.
7582	진심으로 한심하고 세계적으로 쪽팔리고 넥슨에 다니는 여자 직원들 불쌍함
7583	아동성애자나 해고하렴 ㅠ
7584	가장 영향력이 큰 게임업계의 대형회사인만큼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똑바로 대처 하길 바랍니다.
7585	넥슨은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7586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에 동참하는 기업은 사실 사과라는 포장 안에 나도 너희 뜻에 동의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기이하고 어이없습니다.

758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회사인 넥슨이 성차별 주의자들이 호도하는 주장을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는 지금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 여성혐오주의자들의 말도안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넥슨은 여성혐오집단이라고 명명해도 되는건가? 엄지 검지는 손가락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손가락인데 다들 손가락 없이 사나보지? 여성혐오자들은 졸렬한 주장을 하기 앞서 본인들의 엄지 검지 손가락을 셀프로 절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말도안되는 주장을 받아들여 납작 엎드린 넥슨의 결정권자들도 머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쪽팔린 일이다.
7588	2023 년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589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거시적 시안을 가지시기바랍니다.
7590	운영 그딴 식으로 하지마세요
7591	인간이 가진 자유로운 상상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임업계야말로 개개인의 사상을 그것이 불법의 영역이 아닌 이상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개인이 가진 사상을 이유로 노동자를 온라인 사찰하고 사적 공간에 개제한 게시글과 0.1 초짜리 프레임을 거짓 논란으로 엮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개인의 성적 지향성, 정치적 입장 등을 해고의 이유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넥슨과 게임업계가 이끈 이번 사태에, 한 기업의 노동자로서의 나의 권리 또한 나의 생각, 관념, 사상에 의해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7592	이제까지 넥슨의 여성혐오적 캐릭터 부터 없애라.
7593	그냥 망하는 게 환경을 위해 낫다.
7594	규탄합니다
7595	여성혐오 멈춰라
7596	억지논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처가 놀랍습니다.
7597	전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게임하는 한국 남자. 그걸원하는거라면 축하드립니다.
7598	더이상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에 여성 노동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7599	사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이든 아니든, 일부 급진적 남초사이트의 의견으로 시작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노동자 보호에 힘쓰십시오.
7600	한심한 짓 그만해라 진짜
7601	억지논란을 멈춰주세요
7602	게임 일러계에 지금까지 이런 규제가 있었던가요? 남자를 벗겨 대상화 했다던지 성적 모욕감을 준것도 아닌 1 프레임의 손가락때문에 이 시태가 빌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7603	정신차려라
7604	집게손 억지를 공식적으로 받아드리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7605	어릴때부터 최근까지 메이플을 즐겼던 과금유저로 앞으로는 메이플을 즐길 수 없을거라 판단하여 넥슨 전체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606	말도 안 되는 페미니즘 혐오에 동조하는 넥슨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알기 바랍니다.
7607	부끄러운 줄 아세요.
7608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7609	혐오 논리에 휘둘려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길...

7610	억지 사상을 강요하는것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길
7611	별같잖은거가지고 발작하는 놈들이나 그거 들어주는 게임사나 쪽팔려 뒤지겠습니다 본인들도 은연중에 그 손가락 할텐데 엄지검지 손가락 자르고 평생 새끼손가락으로 독수리타자치시길 바랍니다
7612	여자들은 어디 나가서 집게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이슈를 누가 만들고 있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논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우린 바뀌지 않는다 라고 기업이 나서서 얘기하고 무시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손모양이 집게손가락인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지 이런 일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미안하다가고 설설 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련하고 바보같아서 다신 돌아보고싶지도 않을 지경이죠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7613	블랙컨슈머들에 의한 노동과 인권 탄압에 반대합니다 회사는 악덕 소비자들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614	상식이 통하는 게임회사면 좋겠습니다.
7615	알아서 자멸하세요 넥슨
7616	정신차려라 넥슨
7617	미소지니에 동참하지 마세요.
7618	넥슨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인셀남들의 현대판 마녀상황을 받아주는 아둔한 짓을 멈춰주세요.
7619	삽질하지말고 회사운영이나 똑바로하시길
7620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갑질하는 일부의 목소리만 신경쓰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망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7621	논리적인 입장 보여주길.
7622	이상한거에 꽂히지말고 본업무나 잘하세요
762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624	말도 안되는 억지로 여성을 핍박하지 마시오
7625	여성혐오의 만연은 모든 산업에서의 정치적 실패다.
7626	과도한 가챠로 유저의 돈을 착취하는 기형적인 게임업계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회사에 떼를 쓰는 인셀남들의 횡포를 더 보고싶지 않습니다
7627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에 매몰되지말고 페미니즘 공부하길
7628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629	악질적인 차별 기업 넥슨은 하반신에 휘둘리기를 멈추고 인간답게 살아라
7630	혐오중독에 걸린 인셀과 한몸이 된 넥슨

7631	아무 의도 없이 표현한 손 모양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 가려는 남초 커뮤니티와 그것을 받아주는 게임업계가 혐오스럽습니다. '집게손가락'을 실제 남성에게 비하 의도를 담아 사용했다면 모를까, 엄지와 검지가 ㄷ자 모양을 하고 있기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게손가락은 작은 물건을 집을 때 등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손 모양이며 손에 힘을 빼고 내려놓고 있거나 다른 동작 전에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모양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동작 연결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페미라느니, 패널의 과거 일상 게시물까지 찾아내 몰아가기를 하는 게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패널이 사용한 '포궁'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여성 생식 기관의 하나. 골반 안쪽에 있으며, 수정란이 착상하여 분만 때까지 태아가 자라는 기관이다.=자궁."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포궁이 페미 단어라고 선동하는 이 상황이 어이없습니다. 포궁이든 자궁이든 쓰고 싶은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로 사상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직원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직원, 패널을 나몰라라 하고 남초 커뮤니티의 말만 들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대응한다면 그 누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려 하겠습니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과연 누가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남초 커뮤니티 유저만 유저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번 일을 통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갈 다른 유저들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째서 게임 업계는 매번 남초 커뮤니티의 터무니없는 얘기를 눈치까지 보며 귀 기울이시는 겁니까.
7632	게이머 쪽팔리게 하지마라
7633	부당한 사상검증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7634	억지논란에 여혐 적극 옹호하는 기업 불매합니다.
7635	그들의 억지 논란에 굽히지 마십시오.
7636	꼭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7637	게임 유저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남성 유저 눈치 좀 그만 봐라!
7638	언제까지 이런 억지요구에 끌려다닐지 한숨만 나옵니다.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걸 좀 알아주세요 게임 좋아하는데 한국 게임은 점점 도태되는것같아 화납니다
7639	다 떠나서 페미니즘은 남녀평등 사상입니다.
7640	억지논란에 장단맞추지 마세요
7641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7642	남성차별이 아닌 여성차별이나 다름 없는 억지는 그만 받아주세요. 집게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스처입니다.
7643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한다면 먹금 하세요 어차피 게임 못 끊어요 걔네

7644	지금이 5 공시대인건지 억지 사상검증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까? 인문학을 포기한 it 기업인증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네요
7645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7646	쓰레기
7647	진짜 적당히 해라 한남들아
7648	규탄합니다
7649	본인들이 만든 논란에 본인들이 기분 나빠하고 있음..북치고 장구치고 그만해!
7650	억지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것은 학생들도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구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51	그간 억지를 들어주고 부당해고당한분들께 사과했으면 함.
7652	여성혐오를 멈추고 남성유저의 안일한 생각에 동조하지마라
7653	어릴적의 추억을 쓰레기같은 후회스러운 기억으로 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7654	억지스러운 남혐보다 적나라한 여혐 부터 개선하세요.
7655	단순한 집게손,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규탄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페미니즘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 단순히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 기업에서 그것도 대기업에서 이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에 고개숙여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성들의 분노 표출에 왜 여성들이 혐오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아야 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인권이 돈보다 중요시 될 수는 없습니다.
7656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말고 과금유도하는거 절반만큼만이라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뻔뻔하게 대해봐라
7657	인셀남들의 억지 받아줘봤자 돌아오는 건 매출 증대가 아닌 더 심한 억지논란이니 받아주지 말고 잘 처신하십시오
7658	인셀남들 이야기 들어주지 마세요
7659	말도 안되는 커뮤니티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세요
7660	날조로 혐오조장을 하는 '일부'남성들의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들어주고 게임업계와 관련 여성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게 만든 넥슨 및 게임업계들은 더이상 '일부' 혐오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준것을 철회하고 한국 게임업계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국내 게임업체중 유명한 기업인 넥슨이 앞장서서 이런 한심한 일을 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7661	본인들은 평소 집게 모양 손가락을 안하고 사는지 묻고싶다.
7662	사상검증으로 밥줄이 끊길거면 일베같은 놈들은 진작에 굶어 죽었어야해요.
7663	모든 혐오 및 사상을 지양한다면 여성뿐 아니라 업계의 남성 직원 모두 공정한 사상 검증을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분별한 여성 사상 검증 및 부당해고를 멈춰야하는게 정상인겁니다. 똑바로 바라보세요. 소수의 남성 유저들에 휘말려 어느쪽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지.
7664	손가락이 뭐라고 오바하는지 이게 기업이냐 남성만 사는 나라냐 정신차려라

7665	일부 유저분들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사과하지말고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이번에 잘못된건 그런 요구사항에 맞춘거가 잘못된거인데 두번다신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손동작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건 그사람들이 멋대로 생각하는거고 애니메이션 만드신 작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현명히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7666	여자가 그리 무섭드나
7667	손가락 모양이 왜 문제 되나요? 여자들 밥줄 끊기게 하지말고 2030 남성들이 문제라는것을 인식하시오
7668	일부의 억지를 들어주다 수많은 유저를 잃는 것 만큼 바보짓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7669	연대합니다.
7670	하란대로 다 해줄거면 평소에 밸런스 패치 요청등등도 들어줬어야한다고 본다. 정당한 요구, 요청엔 귀막고 나이 이십삼십 먹은 청년들이 나이 다섯 먹은 어린 아이같이 구는 생떼는 우는 아기 분유 먹이듯 달래고 있는 꼴을 보자니 정말 헛구역질이 난다
7671	남자들이 주고객이라서 들어주는거라고 되도 않는 핑계대지마라 걔네가 죽으라면 죽을거냐? 정신 차려라
7672	창조논란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7673	여성혐오로 인한 여성의 생계위협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7674	억지논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7675	이성적 상식적으로 행동합시다
7676	넥슨 그러다 처망한다 여자 지우고 잘 살아보렴
7677	이미 너희는 남자들 눈밖에 났고, 여자한테라도 잘해야 산다. 여자만큼 후하고 관대한 집단이 어딨냐?
7678	여자가 사람답게 살고싶어하는 걸로 회사를 쫓겨날순 없습니다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7679	유저 의견에 귀 기울이는것은 좋지만 억지를 무시하는 뚝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유저는 당신들의 소비자가 아닌가요? 왜 자꾸 여성을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쓸모없다고 욕하는 발언에 힘을 실어주나요? 여성 유저의 소비는 소비도 아닌가요?
7680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혐오로부터 자사 직원과 관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상검증과 그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직원과 관계자를 보호해주세요.
7681	편협한 시선에 멈춘 사상검증을 멈춰라
7682	넥슨 화이팅! 진짜 몇 십년간 믿고 맡겼던 외주가 이런 짓을 버리다니... 마음 아플 것 같지만 기다리겠습니다
7683	집게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7684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성평등 교육을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685	최근의 림버스컴퍼니 사태에 이어 넥슨의 사과문 발표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고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 조와 21 조를 침해한다.
7686	부당해고 작작해라

7687	게임 내 재화 및 패키지 구매 등에 대한 유저들의 애로사항 및 게임 관련 이의제기는 굉장히 늦은 대응과 무시가 일상이던 분들께서 이번 억지에는 어쩜이렇게 열심히 대응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사면 게임사답게 인게임 버그나 수정하던지 소비자측의 불만제기를 귀담아 들을 것이지 헛소리는 칼같이 귀 기울여듣고 행동으로 이행하네요.
7688	게임 그림 그리는데 프레임 자연스럽게 하려면 들어갈수밖에 없는 동작인거 알면서 저렇게 징징대는 것들 무논리로 지껄이는거 다 받아주는게 얼마나 멍청한 집단들이 게임만들고 있는지 잘 알게 됐네요 앞으로 해외게임만 하기로 맘먹음
7689	분탕질에 휘둘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7690	억지 논란으로 억지 사과를 한 일러스트레이터 보호 및 아청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아성애자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시키세요
7691	억지 그만부리고 세상을 좀 보세요
7692	당신들은 당신들이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는 집게 손가락과 영원히 역사를 함께 할 것 입니다.
7693	응원합니다
7694	넥슨 제정신이냐?
7695	그런 억지를 들어주면 안 된다. 선례 또한 있지 않는가.
7696	일부 몰상식한 유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당신들이 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7697	상식적이고 지성있게 대처하세요. 나라 망신입니다.
7698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할 내용을 수용해줬어야지 않을까요? 얼토당토 않은 부분을 수용해주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7699	본사가 고용한 여성 노동자를 이상한 억지로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헐뜯는 무개념 유저들 때문에 사지로 모는게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의 정책이라면 그런 회사는 노동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더해 윤리 의식마저 퇴색 된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넥슨이라는 회사를 윤리의식과 노동자의 보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로 보고 앞으로 넥슨과, 넥슨과 같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게임업계와 관련된 어떠한 상품이나 콘텐츠도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7700	페미니즘 혐오몰이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억지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업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7701	덜떨어지게 굴지말고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7702	게임 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7703	한명의 게이머로써 넥슨의 대응에 크게 개탄합니다.
7704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라
7705	말도안되는요구들어주다가 망하지 맙시다
7706	사회의 흐름을 못읽으면 반드시 도태되기마련입니다. 약자를 혐오하며 이득을 챙기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7707	억지 논란으로 마녀사냥을 멈춰주세요
7708	여성 인권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더이상 당할수만은 없다.
7709	정신차리길
7710	게임 운영의 주권을 일부 유저에게 넘기는 책임감 없는 행위를 멈추고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길 바란다.

7711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재고 부탁드립니다.
7712	끼리끼리 남겠네~
7713	이렇게 국내 게임 기업의 쇠락을 보고 있자니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7714	별 그지같은 말 다 들어주지말고 줏대있게 행동해 평생 유저들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주고 단물 다빨리고 버려질래?
7715	제발 정신차리세요
7716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7717	반여성주의에 기반한 억지 마녀사냥 규탄한다. 사회의 암적인 문화에 동조하고 부당해고하는 게임업계 반성하라. 넥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를 악화하고 있다. 반성하라.
7718	제발 정신 좀 차려라
7719	특정 손동작이 페미니즘의 표식이라는 사실무근한 주장을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여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진정 글로벌 게임회사 넥슨의 인사관리법입니까? 타당한 근거도 조사도 없이 뜬소문에 기대어 부당하게 직원을 해고한 담당자에게 응당한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7720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을 규탄한다. 집게 손은 작음, 섬세함 등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상징이다. 흔히 볼 수 있으며 일상 생활 중에도 자주 취하는 이 손 동작을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일부러 집어 넣었다는 억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페미니즘은 없을 뿐더러 그런 페미니스트도 없다. 또한 집게 손 동작은 동화 작업 시 원활한 손의 움직임을 위해 필요한 동작이다. 이를 이유로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개인 SNS 를 검열하는 게임 업계를 강하게 규탄한다!
7721	개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넥슨을 규탄합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닌것에 더 분노합니다.
7722	인셀들의 억지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직원을 보호하라.
7723	별 같잖은 손모양에 정신팔려 마녀사냥에 나서는 자들 의견좀 고만 들어주십쇼. 같은 남자로서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볼 수 조차 없습니다.
7724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집단 떼쓰기에 한 사람의 커리어를 우습게 중단시키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업계와 귀사가 성별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밖생각들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이에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지 않는한 귀사의 모든 창작물은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또한 공론화에 적극 앞장설것입니다. 한 집단의 일방적인 우기기에 즉각 반응해 고개숙였던 어이없는 행동을 결국 반대급부로 나라의 반인 성별 전체에
7725	한심스럽습니다 억지논란에 부추기기 그만하세요
7726	넥슨은 여성혐오를 멈춰라
7727	이런식으로 게임 사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사 망해요
7728	정신차리고 노동자 보호하세요
7729	성별 상관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아 일하고 싶습니다.
7730	진짜 기업이미지 깎아먹는 행위같다
7731	언제까지 말같지도 않은 논란에 대기업이 이렇게 휘둘리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7732	소위 겜창이라 하는 하드 게이머였는데 국내겜 접고 외국겜이나 할랍니다 ㅂㅂ
7733	여성에 대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차별을 멈춰야합니다.
7734	게임 내에서 여성혐오 언어 사용에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735	무엇이 옳은지 정녕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길이 쉬워보이셨나요?
7736	세계적인 최대 인셀 게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7737	부끄러운줄 아세요
7738	여성혐오를 이용한 마녀사냥을 규탄합니다.
7739	게임업계가 억지주장을 수용하고 남성만 과대표하여 혐오의 피해자로 두는 것은 해당 업계 결정권자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게임 하지 않겠습니다. 비이성적인 당신들 덕에 한국의 인구소멸은 한 발 짝 가까워졌습니다.
7740	악성 진상에 무대응 하는 법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동화(애니메이션)의 프레임 단위를 쪼개서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프로로서의 면모가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7741	집게손이 뭐라고 참;;
7742	🍆🍆
7743	대처가 참 한심합니다
7744	커뮤니티에 휘둘리는 정도로 줏대 없는 게임사인 줄 몰랐습니다 번창하실 거 같네요
7745	사상 검증? 억지스러운 인셀남들 요구 들어주는 꼴이 너무 어이없어서^^ 서명합니다. 넥슨 게임 종종 하지만 다시는 할 일 없겠네요
7746	정신차리세요
7747	쯤쯤
7748	있지도 않은 남혐, 손가락 문제 따위를 들먹이며 양성평등을 폄훼하는 짓거리 당장 멈추십시오
7749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게임 소비자들 및 그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게임업계를 비판한다
7750	페미니스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게임업계의 페미니스트 혐오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7751	남성유저와 지지고 볶고 잘해보세여
7752	어렸을때 바람의나라랑 메이플스토리로 게임에 입문했고, 게임업계에서도 일했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소비 안하겠습니다.
7753	여혐 조장하는 기업의 행태를 즉각 수정하고 사과하라
7754	정신차려라
7755	제가 지불한 돈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에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7756	생각을 하고 살자.
7757	넥슨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반성하고 개혁하라.
7758	쓸데없는 억지 생떼 좀 들어주지 마세요. 제발 발전 좀 합시다. 제발 퇴보 좀 하지 말라고요. 대한민국 어디까지 퇴행할 생각입니까?

7759	게임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전부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이기에 그 무엇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부당하지 않도록 예민하고 세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사태를 보고 어떤 것을 배우겠으며 잘못된 사상도 쪽수로 밀면 받아들여지는구나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다른 논란 거리가 생기면 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매번 있지도 않은 잘못들에 대해 사과하실 겁니까. 만약 그러겠다 하신다면 대체 이 업계에 누가 지원하고 꿈을 꾸며 열정을 바쳐 일하고 싶겠습니까.
7760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 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 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7761	억지 핑계를 대며 사상 검증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7762	페미니즘을 혐오로 조장하여 혐오 분위기에 동조하는 넥슨은 그냥 망해라
7763	여성혐오를 멈춰라
7764	사람 손가락 검열할 시간 있으면 아동 포르노 잡지 트레이싱하고 여아 대상 성인물을 그리는 일러레이터들부터 퇴출시키세요
7765	이게 게임사를 위한건지, 아니면 인셀들 기분상해죄를 위한건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7766	정신차리세요
7767	어린아이가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바닥에 누워 떼를 쓰듯,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기업에 실망했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조차도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멈추십시오.
7768	소아성애는 냅두고 페미니스트 사상검열하는 넥슨 규탄한다
7769	규탄에 동의합니다
7770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에 반응
7771	집게손의 시초는 남성들의 음모론인거같은데 왜 애꿏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나요, 고통스럽습니다.
7772	게임업계는 각성하고 정신차려라
7773	말도 안되는 주장 받아주지마시죠. 버그나 잡아라
7774	망상을 멈춰주세요
7775	어리광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7776	본사 직원 관리 요망 +사과
7777	말도 안 되는 유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
7778	되도않는 억지주장을 들어주는 것은 말도안되는 일이다.
7779	정신 좀 차리고 여성 유저도 고객 취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7780	여성혐오 문화를 규탄한다
7781	정신차리세요
7782	너무 말도 안되는 논란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무마시키는 것에 급급해서 무고한 사람을 몰아세운다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끊임없는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란이 정말 타당한 근거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세요.

7783	실존하지 않는, 심지어 아주 특징적인 문양조차 아닌 혐오의 상징으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오용을 멈추십시오. 남녀 평등과 남성 혐오는 명백하게 다른 일입니다. 여성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과 남성을 혐오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7784	시대착오적인 사고만 했다간 망합니다
7785	넥슨 사원들은 다 큰 어른들이실텐데 진짜 목적이 뭔지는 모르나 억지에 불과한 집게손 주장에 손을 들어주시다니 실망입니다. 바보같은 싸움을 그만두세요. 다들 엄지,검지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진심으로 집게손을 고의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프레임에 짜넣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보이는데 젠더갈등을 본인들 사업수단으로 이용해서 페미니스트를 향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별로 차별하지마세요.
7786	부당한 마녀사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원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시오
7787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함과 게임성이지 정치와 관련된 것을 게임성이라 우기는 것이 아니다
7788	말도 안되는 사안으로 창작자를 위협하지 마세요. 주소비층이 누군지 생각하시기를.
7789	여성혐오를 멈춰라
7790	특정 집단과 사상에 대한 혐오를 서회에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고, 혐오에 기반한 폭력을 휘둘러도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옹호되는 사회도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이건 아니건간에 어떤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걸러내고 혐오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넥슨측은 잘못된 행위를 당당히 해냈다는 것처럼 공식입장을 내었고, 자신들의 직원을 지키고 진실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닌 혐오집단의 폭력에 직원을 내몰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혐오에 가담하는 행위라거 생각하므로 넥슨을 규탄합니다. 넥슨을 싫어합니다. 혐오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아가는 회사와 사회분위기를 규탄합니다.
7791	명백한 여성차별을 이제 중단하라!
7792	넥슨은 정신 차려라
7793	말도안되는 일로 이런 사단을 낸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7794	더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쯤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7795	집게 손' 억지논란이다! 장단 맞추지 마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796	남자 혼자 사용하는 게임인가요 남성유저만 생각하는 회사인가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이런식으로 억압하는게 정상인지 생각해보세요.
7797	오직 괴롭히기 위한 억지 논리에 진짜 사람의 인권을 짓밟지 마세요
7798	쪽팔려
7799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쪽은 당신네 회사인데도요.

7800	그놈의 손가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고추길이를 비하할 생각이 없는데 하도 뭐라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엄지랑 검지로 물건을 잡는게 조심스럽습니다. 일베 손은 억지로 손을 꼬아대어 부자연스럽기라도 하지, 메갈손이라는 손동작은 일상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쓰는것입니다.
7801	정도것해라 사람이라면
7802	논란이 아니라 여성혐오이자 폭력입니다. 당장 폭력을 멈춰주세요
7803	도대체 저런 생각을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집게손이 대체.... 그럴거면 집게발이 달린 게도 먹으면 안되겠네요ㅜㅜ 남성혐오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만들어냈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일관성과 의지를 보여주세요. 의지박약도 아니고 몇 몇 사람과 단체가 욕을 하니 바로 인정해버리고 사과하는게 굴욕적이지않습니까? 언제까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겁니까? 너무답답하네요.
7804	여성혐오 게임회사 개같이 망했으면
7805	제대로된 음식이 옆에 떡하니 있는데 응 안먹어 하면서 똥을 퍼먹고 앉아있네
7806	중립에 서거나 중재를 하진 못할 망정, 남녀갈등 조장에 앞장서는 게 기업이 할 짓입니까? 암만 남성 유저 비율이 높다한들 여자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도, 잘 지켜봤습니다. 그 손모양이 진짜로 혐오를 내비추는 거라고 믿으며 같이 화내는 꼴이 우습네요. 앞으로도 그런 모자란 게임운영 지속하길 바랍니다.
7807	넥슨은 여혐기업인가? 이에 동조해서 여성혐오자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준 넥슨은 여혐 범죄의 판을 깔아준 기업이다. 앞으로 일어날 여혐 범죄에 대해 넥슨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너네도 가해자다.
7808	백번 양보해서 페미라 한들, 프레임 단위로 뒤져보는 게 악의며 상식이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본인들도 이제는 인정해야한다. 20 대의 이쁜 여자의 가슴과 비키니 없이 여캐를 못 내는 당신들이 심지어 소아성애자이기까지 한 것을.
7809	이젠 슬슬 멍청이 경쟁을 멈춰
7810	개소리는 좀 무시할 깡을 챙기십시오 사실 그런 개소리 본인들의 의견이 아니면
7811	페미니즘은 반사회적인 사상이 아니며, 일부 게이머들의 악성민원을 핑계삼아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7812	상식을 갖고 좀 살아라
7813	죄없는 사람을 해고 시키는 일은 회사 자체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일입니다.
7814	한국 게임 업계가 더 이상 여성 고객 지우기와 노동자의 개인 사상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7815	21 세기의 마녀사냥이라니.. 본인도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는걸 알지 않은가? 내 평생 다시는 넥슨게임을 할 일은 없을거다
7816	지금이라도 현명히 대처한다면 좋겠습니다.
7817	Cut the crap! Stop the bullshit witch-hunting, take back the decision to lay off women employees.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당신네 업계와 회사야 말로 도태되어야 한다. 얼토당토 않은 집게손 논란을 집어치워라 이젠 들어주기도 힘들다. 여성 사원 당장 복직시켜라!!!!!
7818	사상검증과 부당해고에 따른 법의 철퇴를 맞으라

7819	퇴행적 무지한 행동을 멈추라
7820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건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7821	이상한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라
7822	공부라도 좀 하세요
7823	여성혐오를 멈춰라
7824	여성혐오 OUT
7825	남성 혐오를 가장한 여성 혐오로 여성에 대한 2 차 가해까지 간 당신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자리 잡은 게임 기업이 인셀들의 편을 들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는 국가를 넘어 세계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무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여성들은 이 거대한 폭력에 짓눌려있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무지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그 혐오를 버티고 당당히 일어나겠습니다.
7826	이 건은 명백한 혐오범죄다.
7827	불의에 굴복하지 마시길
7828	그저 한심합니다.
7829	사상을 기반으로 사람을 잘라야한다면 성평등주의자를 잘라야하는가, 성차별주의자를 잘라야하는가? 이번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넥슨의 대답을 보여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생계가 걸린 일에 심사숙고하지않고 일을 처리한 넥슨의 지난 행보를 규탄합니다.
7830	여성차별은 당신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짓입니다.
7831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든 논란을 문제 삼는 넥슨은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게임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성차별주의자들을 위해 아무 잘못없는 이들의 생계와 신변에 위험을 주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제 3 자가 본다면 성차별주의자들의 의견은 이해가 안되는 것들 뿐인데 어디서 문제점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넥슨은 한국에서도 꽤나 큰 게임업계라 보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 게임업계의 한계이고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평등을 지지하는 기업은 절대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7832	인터넷 인셀들의 한심한 억지에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833	넥슨게임을 즐기고 있던 여성유저로서 이러한 넥슨의 행보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다. 불매할 것.
7834	어떤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여성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폭력 < 남성에게 집게손가락(심지어 스스로 만들어낸 심볼) 넥슨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나요? 제발 현실을 살아.. "일부" "한국" "남성"만 타겟으로 게임을 만들고 판매할 예정이신가요? 외국에도 게임은 팔아야 할 거 아니야...
7835	정신차려라
7836	억지논란에 놀아나는 꼴이 우습다
7837	기업의 매출만이 성공의 지표는 아닙니다.

7838	당신들이 돈때문에 굴복한 그 혐오세력들이 결국 당신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양심 챙기고 직원 챙기고 제정신으로 영업하기 바랍니다.
7839	제발 일부 유저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유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게임의 중심이 되는 유저들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기를.
7840	불합리하고 부당한 넥슨 사의 행각 철저히 규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841	남성혐오 stop
7842	어떻게든 페미니스트들 족쳐보려는 작당이구만 그거에 그렇게 동조하나요?
7843	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동작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에 순간의 장면을 짚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다
7844	언제까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여성을 단두대에올리는 행위를 하실건지요?
7845	여성혐오, 고인모독(노무현 전대통령) 문제는 아무리 제기되어도 조용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니, 여혐, 약자혐오 정서가 팽배한 디시 커뮤니티에서 논란되니까 바로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는 말, 쓸 자격도 없습니다.
7846	부당해고 여성혐오 기업 넥슨 망해라
7847	제발 사람들 동심 망치지 말고 기업이면 기업답게 정상적인 처신하고 인셀들 의견에 그만 귀 좀 기울이세요
7848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닙니다. 평등적 이념을 범죄행위로 낙인찍는 것을 멈추세요.
7849	말도 안 되는 무논리에 굴복하지말고 상식적으로 운영합시다.
7850	게임업계에서 여성차별적인 부분(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성범죄 암시, 여성 게임유저에 대한 성희롱 등)은 경각심 없이 이루어지는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남성차별적인 부분(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손가락 논란 등)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넥슨에서도 혐오적인 부분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번 논란의 일러스트를 수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과연 남성차별이 아닌 여성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대응을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일부 남자들의 반페미니즘 기조에 휘둘리는 게임업계가 있는 한 게임은 건전한 취미나 문화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7851	제발 억지논란에 회사 차원에서 굽히고 대응하지 말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주장해주세요 너무 피곤하고 지겹습니다.
7852	억지논란에 힘 실어 주는 대기업의 횡포에 반대합니다.
7853	다른것과 틀린것. 옳은것과 그른것을 인식하고 실행하라
7854	증명되지도 증명 할수도 없는 음모론을 수용하여 노동자를 퇴출시키는 행보는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음모론이 불거지고 이를 수용하여 계약직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계약파기, 종료 등으로 대응하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게임업계의 다양성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컨텐츠는 결국 대중성을 잃어 소수만이 향유하는 대상이 되며, 이는 곧 게임 컨텐츠 업계 전체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여성 게이머로서, 한국 게임업계에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게임업계가 변화하길 바랍니다.
7855	억지논란에 굳이 왜 사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856	평등과 혐오에 대한 본사 전체 재교육

7857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귀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 보호 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지키십시오.
7858	억지주장하는 진상고객 대응하느라 무고한 노동자가 초과노동하거나 일자리를 잃지 않기를
7859	모든 인간이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7860	페미니스트는 죄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도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멈추어주세요.
7861	손가락 애니메이션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마녀사냥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게임회사의 대표격인 넥슨에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줌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마세요
7862	일부 유저의 증거도 불명확한 악의적인 의견에 반응하여 직원을 자르고 악의적인 그들을 품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전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디 업계분들의 사고가 인식이 퇴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7863	공정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라
7864	나는 당신들이 '집게손'을 정말 '혐오표현'이라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상식인이라면, 이 사태가 얼마나 말도안되는 비합리적인 사태인지 모를 리 없을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유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당신들이 이번 사건에 이렇게 대처한것은 이런식의 일처리가 회사의 매출이던 유저들의 민심을 얻기위한 방법이던 어떤식으로든 회사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애니메이터가 '페미'로 의심된다며 sns 계정을 뒤져내 과거의 발언을 억지로 끼워맞추어 마녀사냥하는 인셀들을 위해 당사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해당업체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내리고, 주말 새벽에 직원들을 회사로 출근시켜 외주 애니메이션을 초단위로 살펴보게 하고, '집게손' 이 잡힌 장면을 캡쳐해 나열하여 공지를 띄웠죠. 그 결과 당사가 아닌 다른 게임사들도 검열에 동조하는 공지를 올렸고, 외주업체는 해당 애니메이터를 작업에서 제외시킨다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사가 얻은것은 무엇인가요? 금방 불타올랐다 금방 사그라드는. 이 사태를 그저 스포츠로 여기는 일부 인셀 유저들의 민심? '페미니스트'를 처치했다는 정의감과 효능감? 혹은 이 무엇도 아닌 다른 무언가? 하나 확실한건,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으며 앞으로의 서브컬쳐 업계에 더 집요한 검열과 사이버불링이 지속될것입니다. 당신들은 한국의 게임업계를 책임지는 대기업으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보다도 떼쓰는 일부 유저들의 '비위'를 맞춰주는것이 더 중요합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유저로서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것이, 누군가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일에 동조하게되고, 그런 집단에게 돈을 쥐어주고,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업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유저들, 노동자들이 실망했을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생계에 위협을 받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굴리기 시작한 스노우볼을 잊지 말고 현 사태에대해 책임지십시오.
7865	게임 업계에 애정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노동권을 무시하고 과대표되는 소수의 트롤러들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서 매번 게임의 질이 낮아지는 패턴이 지겹습니다. 상식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한국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7866	페미니즘 검열=민주주의의 퇴보
7867	게임산업에 먹칠하지 마세요
7868	어이없을 정도로 억지를 부리는 집단을 기업들이 단체로 동조해주는 꼴을 보고있자니 정말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해준다면 지금 상황이 여성을 향한 단순한 혐오와 폭력, 가스라이팅, 횡포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릇된 짓들을 끊어내고 당장 옳은 방향으로 고쳐놓지않는다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엉뚱한 낙인따위로 성별이 여성일뿐인 인간을 세상이 쉽게 억압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869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현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해 나서주시는 조합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870	되도 않는 사상검증 그만하고 게임이나 잘 만드시오

7871	적당히 하십시오. 전세계인이 비웃는다.
7872	최근 넥슨게임 자체 ip 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굿즈 상품들, BTS 와의 콜라보등등으로 여성유저 유치에 힘쓰셨다가 해당사건으로 전부 엎어버린소감이 궁금하네요.
7873	근거도없는 무작위적 혐오놀이에 왜 대응해주는가?
7874	이게 진지하다는게, 회사차원 방송 사과한다는게 정말 코미디네요
7875	당신들이 들은 척도 안 할거라는 것을 16 년도 부터 깨달았다. 다시는 쳐다도 안 볼것이고 인셀들과 함께 몰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들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7876	노동권을 지켜라
7877	더이상 그들이 만들어낸 억지상징을 혐오의 상징으로 프레임화해서 사상검증당해 생계에 위험을 겪는 이런 일련의 연쇄고리가 끊겼으면합니다
7878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일을 사상검열이니 죄없는 사람을 쫓아내고 업계미래를 망치는게 정녕 그대들이 바라는 일입니까? 일부 극성 남성향 커뮤니티에 매몰되어 여혐콘텐츠로 가다보면 결국 마리텔,개콘,클로저스 꼴 나는거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상황을 만든게 과연 페미니즘 탓일까요? 누구도 뭐라 안했는데 지레 찔린 일부 커뮤니티 남성들의 떼쓰기때문 아닙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누군가를 죽였나요? 극심한 피해를 입혀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망가뜨렸나요? 잘생각해보면 그반대라는걸 뉴스기사 몇개만 찾아봐도 보일것입니다. 일부 그남성들의 기분상해죄 말고 페미니즘의 어디가 잘못된건가요? 페미니즘은 누군가를 그저 조롱하기를 위한게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서 하나의 성별이 차별당하는것에 분노하고 불공정한 대응에 항의하여 나아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 입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논리적인 근거가 존재할까요? 아마 이것을 기점으로 게임업계는 근거없는 진상들같은 검열에 계속 시달리게 될겁니다. 지금이라도 게입업계를 정상적인 대응으로 바로 잡고 싶다면 입장을 바꿔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7879	상식이 상식답게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7880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특정 커뮤니티 혐오몰이에 편승한 주장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7881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7882	이렇게 혐오표현에 엄중하고 예민하다면 게임 내 채팅의 혐오표현, 고인비하, 성희롱은 왜 방임했습니까?
7883	인간의 노동력이, 바쳐온 시간이 의미없는 한 손짓으로 쉽게 사라질 수 있는겁니까?
7884	정신차려

7885	당신들의 행동이 무슨 파장을 가져올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지금까지의 근로노동법을 위해 쌓아올린 모든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한 행동이라는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논란으로 어거지를 부리고 사상검증을 하며 혐오를 대놓고 들어내는 혐오단체의 행동은 불쾌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억지를 알기에 일부 비정상의 행동으로 무시할수있죠 하지만 게임업계는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오히려 사과하고 작업자를 배체하고 해고를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영상에 손가락모양이 일부러 넣은것 같나요? 그 손가락모양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나요? 페미라고 sns 에 올린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손가락모양이 문제라면 사과한 회사의 모든 손가락모양을 다 수정할건가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걸 모르나요? 그로인한 작업의 양이 늘어나고 금전적 손해가 있고 노동법을 어기는것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말 묻고싶습니다 왜 사과했나요?
7886	제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 좀 멈추시고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의 SNS 을 염탐하고 사상검증을 하는 등의 스토커 같은 짓을 하는 게이머들의 의견을 의견이 아닌 '여성혐오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회사라면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게이머가 회사에 직접 연락까지 하고 회사 까지 찾아가 해당 일러작가분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는 상황에 회사라면 그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7887	악성민원에 굴복하다보면 업계가 망가질겁니다. 해외시장에서 더더욱 조롱받게될거구요
7888	억지 좀 그만 부리시고 게임을 만드세요 게임을
7889	이런 억지논란에 휘둘려 마녀사냥을 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7890	유저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잘 걸러 들을 줄 아는 것이 노동자를 지키고 게임업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본 사태로 인해 노동인력을 새벽에 출근시키고, 무의미한 노동(집게 손가락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찾는 등)을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와 창작물에 대한 사상검증을 멈추십시오.
7891	21 세기 보편적인 인권 국가에서 한 성별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또 기업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할짓없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상식과 자본주의 현대사회 속에 한 주축이 되는 기업이 그러면 안되죠 넥슨의 이번 행태에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넥슨은 당장 외부의 부적절한 공격으로부터 자사 여직원을 보호하세요
7892	메이플은 최근 몇년간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대응 멘트로 ‘추억’이란 단어를 자주 꼽았다. 현재 메이플이 억지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은 여성 유저들의 ‘추억’을 파괴한 행동임을 명심하라.
7893	이 세상은 남자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7894	넥슨 사과해
7895	페미니즘은 여성학 학문입니다. 페미니즘이 범죄인가요? 당신들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정신차리세요.
7896	더 이상 여성혐오와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7897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게임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7898	노동자 상대로 사상 검증, 갑질하는 게임업계 그냥 망하세요
7899	그렇게 엄지와 검지가 싫으시다면 제발 엄지와 검지를 자르세요.
7900	넥슨은 이 선례가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업계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7901	억지 논란으로 혐오 몰이를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며 해고까지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명백한 갑질입니다.
7902	여혐을 멈춰라
7903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7904	귀찮음에 기반한 편리한 해결, 그 하나를 위해 개인에게 거짓된 문제를 거들먹거리며 모든 책임을 전가한 뻔뻔함에 놀람
7905	정신좀차려라
7906	반사회적 인셀집단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라. 하청업체에 대한 폭력적 갑질행위를 중단하라. 편의에 따른 노동자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7907	억지 주장을 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문제이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향되어야하는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한다.
7908	페미니즘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정당한가요? 일부 남성유저들의 주장을 듣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 떠나는 여성유저 다수는 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7909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랑 같이 했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말로 보기 힘드니 차라리 사라져주세요.
7910	별 의미 없는 손동작으로 한 노동자를 몰아가더니 페도필리아 성향이 짙은 그림을 그리던 남자 노동자는 여전히 고용중인 넥슨은 무슨 생각인신지
7911	무엇이 중요한지 똑바로 바라보고 사세요
7912	이 작은나라에서 성별나눠서 싸울시간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7913	무식하면 답도없다
7914	미성년 캐릭터 성적대상화부터 근절하기를 바람
7915	몸매를 부각하고 성적대상화하는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고작 손가락.. 그것도 억지 논란을 이슈로, 사회 문제로 키우며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너네들의 모순은 끔찍하고 혐오스럽다.
7916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지하는 운동입니다.
7917	시덥잖은 억지 논란을 일일이 상대해주며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지 말기 바랍니다
7918	말도 안되는 억지 혐오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운영이나 잘해라

7919	10 년후엔 맥심이나 넥슨이나 이용자층이 비슷할거같네요
7920	그냥 황당할 뿐입니다 ☒☒ 이게 뭐라고
7921	그들하고 같이 망해라
7922	도태되는 사상에 동조하는가, 아니면 그 사상 자체인가?
7923	당장 급한 불만 끄시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봐주세요
7924	억지 논란으로 무고한 여성를 실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7925	이참에 그냥 시원하게 망하시길. 더이상 자정도 안될만큼 썩었다는거 너무 잘 아니까. 정작 진짜 문제인 승부조작 논란엔 입닫으면서 손가락 모양따위 창조논란에는 바로 머리 숙이는게 ㅋㅋㅋㅋ 이젠 웃기지도 않고 현실공포임. 한국이 이런걸로 해고당하는게 가능한 나라였나? SNS 로 대놓고 자기 본명 걸어놓고 여성혐오 발언하는 남자들은 해고당했다는 얘기 들어본적도 없는데 여자들은 손가락 모양 따위 궁예 관심법 창조논란으로 잘만 해고되네요? 진심으로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됩니다. 무고한 여성 직장인들 제물 삼아서 인셀남들한테 갖다바치고 실제 논란은 피해가려는 그 게임기업의 역겨운짓 잘봤습니다. 어거지 땡깡 피우면서 여자들 상대로 직장 잃게하는데 재미들린 인셀남들한테 굽신대면서 힘실어주고 여성혐오 나서서 하면서 스타트 끊은 넥슨과 계임업계가 안그래도 바닥인 출생률 더 바닥치게 만들었다는거 잘 알고 가시고 공산당마냥 사상검증에 부당해고까지 하면서 노동법 어긴것까지 법의 철퇴를 제대로 맞길 바랍니다.
7926	진지하게 임하라!
7927	억지스러운 요구 좀 들어주지 마라
7928	정신좀 차리세요
7929	노동권을 침해하는 미친 회사, 사용자 실명까고 나와라
7930	페미 사상검증 하지마세요
7931	페미니즘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인셀들의 말을 들어주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넥슨은 여성유저들을 유저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류 넥슨에서 게임을 내도 하고싶지않습니다.
7932	억지 논란은 이제 그만
7933	일똑바로해라
7934	여성 캐릭터의 신체부위를 기괴하게 강조하거나 어린아이 체형의 여자아이(인간 종족이 아니므로 문제없다?)를 헐벗기더니 오히려 림버스 컴퍼니때 노출을 최소화 시킨 여성 캐릭터를 보고 원화가를 마녀사냥했었죠. 남성 원화가로 밝혀지자 애꿎은 다른 여성 스태프를 찾아 해고시켰습니다. 이제는 엄지와 검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동작까지 의미부여하면서 찍어 누르네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받아주는 회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게임 내 채팅 및 커뮤니티에 만연한 여성 비하 표현과 성희롱은 그대로 두면서 집게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억지는 바로 수용하는 한국 게임업계가 한국 사회에 매우 유해합니다. 게임업계는 각성하고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페미니스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7935	남자 우쭈쭈 그만해라.
7936	페미니스트의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동작이 성별에 대한 혐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페미니스트와의 어떤 연관점인지 궁금합니다.

7937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 사람들 비위 맞춰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 하지 마세요
7938	세상이 어쩜 이리 블랙 코미디가 되었나요. 하지만 최소한 기업의 공식적 입장은 일부 유저들의 무맥락 혐오 생산과는 달라야죠. 말도 안되는 떼쓰기 들어주는게 노동권과 인권보다 앞서다니요.
7939	쓸데없는 소리엔 먹금 좀 하시오
7940	언제까지 여성의 밥그릇이 남성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좌우돼야 합니까? 게임에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손가락 모양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사상이 담겼길래 이런 꼬라지를 또 봐야 합니까?
7941	비이성에 휘둘려 남는 게 무엇일지 한발짝 멀어져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7942	페미니즘을 방패 삼아서 사측의 이익 추구한다는거 게임업계에 일말의 도움 안됩니다. 계속 이렇게 대처한다면 넥슨은 한국게임 개발의 상징이 아니라, 몰락의 상징이 되겠죠.
7943	디씨인사이드나 일베 활동 전적이 있는 직원이 크게 회자되거나 근무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나요?
7944	남자들 몇마디에 벌벌 떨며 0.1 초의 손모양을 사과하는 넥슨 정말 치졸하고 꼴불견이네요 넥슨 게임 좋아했는데 이젠 진짜 떠날때인가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7945	사상검증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만 합니다. 개인이 사상을 갖는 것은 자유이며, 그것을 기업에게 검증 받을 이유는 없죠. 더군다나 블루아카이브에 페도필리아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한 넥슨이 누군가의 사상을 검증할 처지는 못 된다고 봅니다. 아동 그라비아 잡지를 트레이싱한 범죄자와 같은 인간을 고용하다니... 이런 곳이 게임계의 대기업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7946	혐오 그만!
7947	한국에 큰 기업들이 아무 이유없이 여대 다닌다는 이유로 서류심사 탈락시키고 여자라는 이유로 독박쓰고 해고당한다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길 바라는건 너무 오만한 생각인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로 여자를 괴롭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와 연애를 하고 싶겠습니까? 현대판 마녀사냥이나 다름없습니다.
7948	제발 말같지도 않은 억지를 들어주는 것은 그만두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비정상인들은 그저 자신의 말에 기업이 반응하고 따르는 것을 즐길 뿐이며 터무니없는 없지를 들어주는 것은 후에 나쁜 선례로 남아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7949	페미니즘을 하던 디시펨코를하던 그 어떤 이유로도 개인의 사상을 빌미로 해고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7950	게임하는 놈들이 다 그렇지, 라는 말 듣기 싫으면 상식적인 편에 서세요.
7951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7952	혐오자들의 억지 선동에 휘둘리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혐오문화 유포에 동참하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반성하라!

7953	저 역시 메이플스토리를 즐겼던 여성 유저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수 없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여성으로서 손가락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애니메이터를 해고하는 것 역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넥슨은 근거없는 억측에 기반해 원청으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하청 업체인 스튜디오를 압박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사상검열과 그로 인한 부당해고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7954	페미니즘을 혐오, 정치사상이라고 왜곡하며 사회의 구성원인 여성을 핍박하고 일터에서 내쫓는 행위에 입장서는 넥슨이야 말로 특정 사상에 매몰되어 혐오 행위를 저지르는 뒤떨어진 기업 아닙니까. 넥슨이 게시한 입장문의 논리대로면 본인들이야 말로 업계에서 가장 먼저 퇴출 당해야 합니다.
7955	멍청한 티 그만.
7956	억지 요구를 들어주는 게임 회사들 모두 역겹지만 마치 일러바치듯 손가락 영상 프레임들을 직접 세어 올린 던전앤파이터(네오플)의 행보는 특히 역겹다. 넥슨은 자사 면접 중 김자연 성우의 목소리 삭제건에대해 면접자에게 묻고, 성우의 작업물이 부당하게 지워졌다는 면접자의 답에 대해 대해 이런 일을 겪게 된 넥슨이 불쌍하지 않냐며 비아냥 거린것으로 알고있다. 정말 집게 손가락 모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길 바란다.
7957	떼 쓰면 다 들어주니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닌가? 그냥 망해버리던가
7958	그들의 선동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라
7959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좀 하세요 인간들아....
7960	억지 부리지 마라 여자가 바보로 보이냐
7961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망상환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기 위해 인권과 노동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7962	집게 손 이모지가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도 전부 페미니스트이고, 퇴출당해야하는가? 여성인권이 높다면 왜 최근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례가 있는가? 강자가 맞고 다니는가? 강자가 성폭력을 당하는가? 외국에선 오히려 집게 손 모양에 발작하는 남성들을 보고 한국 남성들은 소추소심이냐고 비웃는 중인데, 자랑스러운가? 또, 이 상황 때문에 잘못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말이 되는가? 디렉터 본인 또한 집게 손 모양을 한 전적이 있는데 사퇴할 것인가?
7963	일방적인 혐오를 기반으로 무고한 개인을 사이버불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964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지 말아주세요. 문제 삼은 손가락 동작은 전혀 페미니즘과 관련 없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이며 만약 그게 페미니즘과 연관이 있다 해도 무슨 상관인가요?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입니다. 전혀 문제 될게 없지요
7965	페미니즘이 뭐가 잘못되어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페미니즘이 뭔지는 아십니까?
7966	관련업계 취직 희망자로서 노동자를 보호할수있는 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7967	여성 소비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7968	일부 유저층의 억지 주장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마십시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교묘하게'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7969	억지논란부터 해고까지, 이 모든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창피하다.
7970	그렇게 계속 도태되실 건가요? 앞으로 평생 집게 손가락 안 쓰고 살아 보시죠
7971	진심으로 대기업이라면... 많은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한쪽의 편만을 들어야 한다면 차라리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
7972	자신의 직장에서 남성의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그림을 그려 작업물에 끼워넣는 여성 또는 페미니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성을 '참교육' 하고 싶을 뿐인 남성 게임 유저들의 억지를 받아주고 여성에게 사상검증을 하여 피해를 보게 하지 마세요.
7973	그래.... 잠정적인 소비자층을 나몰라라하겠다는거군요... 아무런 생각없이 지껄이는 말에 대해 후루룩 그 말 듣고 행동하는 태도에서 업계측은 정말 아무런 논리도, 생각도 없는 업계라는걸 느낍니다. 그런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를 해봤자 도움되는건 하나도 없는데... 한국 게임업계부터 애니메이션 쪽까지 다양한 업계의 행동수준에 식겁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7974	더이상 억지 논란으로 인해 여성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7975	한 여성의 일자리가 그저 몇 게임 유저의 억지로 인해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업계는 억지스러운 사상 검증을 그만둬주시길 바랍니다.
7976	앞장서서 되도 않는 발언에 여성 성별탄압을 멈춰라
7977	정신차려라 여성유저들은 인간도 아니냐? 여혐넥슨 적당히해라
7978	블루 아카이브 외주를 맡긴 일러스트레이터가 페도필리아, 즉 소아성애자인거 알면서 외주를 맡기신건가요? 심지어 집에 소아성애 외설잡지 같은거 몇개 있다는 사람을? 당신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건지 참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합니다.
7979	일부 유저의 억지 시비에 귀기울이느라 정작 순수하게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린 게 유감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사과한 채로 그대로 지나보낸다면 도태되는 건 시비를 거는 일부유저와 당신들이다. 똑바로 생각해라.
7980	사상검증으로 생계를 위협하지 마세요.
7981	게임 이용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근거가 빈약한 주장만을 수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깊습니다. 회사는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7982	왜곡된 윤리관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혐오와 낙인 찍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7983	사상검증 그만하고 노동자 보호해라
7984	진정 게임유저는 남성 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억지논리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7985	노동법은 지켜야지요?
7986	고작 손가락으로 덜덜떠는 업계는 사라져야합니다.
7987	일부 남성들의 억지 논란에 사과하고 페미니즘을 매도하는 한심한 모습 기억하겠습니다
7988	같은 그룹이라고 동조하지말고 기업이라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7989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7990	망하길.
7991	방구석도태남들은 현실에서도 똑같이 티내고 다녔으면 좋겠다 알아서 거르게.
7992	혐오나 조장하는 일베 같은 기업 반드시 망해야하는 기업 사회의 악 사라져주세요.
7993	일부 유저의 억지 창조 논란으로 인해 페미니즘과 하등 상관없는 사안을 페미니스트들이 일으킨 남혐인양 몰아가며 한국 페미니즘을 깎아 내리다못해 또 한 명의 억울한 여성이 직장을 잃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7994	애니업계인으로써 억지 논란에 굴복하는 되돌릴수없는 선례가 남은것에 유감입니다
7995	한심하다 이놈들아 산소가 아깝다 이것들아 정신차려라
7996	넥슨 팔자 넥슨이 꼰다. 하늘에 계신 창업주가 개탄할듯요.
7997	정신 좀 차려라...
7998	억지페미몰이에 놀아나고 페미니즘 죽이기에 동참하는 넥슨은 몇년도에 살고있나요?
7999	억지스러운 그들의 요구에 왜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스트가 관련이 되어있든 아니든 멀리서 보았을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들텐데 왜 그것을 맞다고 해주며 무고한 사람의 생계를 끊어내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유저도 똑같은 게임 유저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의 억지스러운 요구에만 장단을 맞춰주는 걸까요. 커뮤니티 글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합니다.
8000	직원보호는 회사의 의무 아닌가요? 이번 사태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8001	게임도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입니다.차별과 혐오와 억압은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게임업게가 인정받고 나아갈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8002	의무적으로 직급 상관없이 페미니즘 및 인권감수성에 대해 설명해주실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듣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감시와 강사 보호를 위한 직원을 선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003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으로 노동자나 노조가 무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04	없는 혐오를 기업에서 대응하여 사태를 확대 시킨 것 그리고 직원 개인의 사상을 집게 손에 담았는지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기업이라는 초거대 집단이 규탄과 압박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게임, 애니 업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보인 태도로 인해 다른 창작자들 또한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경우 행해질 보복과 공격에 정당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창작자이자 여성으로서 억지 논란에 굴복하여 작품에 제약을 받고 없는 논란에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8005	불분명한 사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8006	특정사상과 혐오라는 표현으로 페미니즘을 더럽히지말고 본인들부터 여성혐오를 멈춰라.
8007	사회가 이룩한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마라
8008	기업 이익에 눈이멀어 사회 질서를 상식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8009	페미니즘 혐오를 규탄한다.
8010	진상은 호구가 만든다
8011	그냥 망하세요-
8012	여성유저 차별 멈춰
8013	덕분에 넥슨 게임 끊었음 그지같은 애국마케팅 안 사요 이제
8014	Shame on you
8015	남성이란 이유로 도를넘은 아동의성적인 그림을 그렸던 남성직원은 보호하면서 여성은 개인 sns 까지 뒤져가며 페미니즘 사상으로 부당해고하는 기업을 규탄합니다 아청법보다 페미니즘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는거 자체가 기업에서 일어날수있는일인가요?
8016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017	말도안되는 논란이 끝났으면좋겠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억지와 논란으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8018	21 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게임업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8019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쉽게 자르나요;; 그동안 온갖 음지문화는 받아드리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자르는게 말이 되나요?
8020	펨코라는 남초사이트에서 시작한 집게손가락이 남성혐오라는 창조 논란, 음모론에 일일히 대응하고 사과하면서 효능감을 키워준,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있는 모든 기업과 관계자들은 정신차려라. 집게 손으로 남자들이 대체 무슨 혐오를 당했고 피해를 입었냐? 여성들은 매일같이 살해당하고 실재하는 범죄와 성차별로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체도 없는 남성혐오라는 망상에 작작 힘 실어줘라. 나라가 거대한 집단망상에 빠져있는 꼴이다.
8021	넥슨은 정신차리고 여성혐오를 게임업계에서 지워내라
8022	페미니즘 없이는 게임산업 발전도 없다
8023	집게 손 찾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억지이며 무분별한 공격임을 인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유저들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문제제기임에도 이를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여주는 반응에서 힘을 얻습니다. 조금만 제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본다면 알 수 있는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사의 직원을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줄도 모르며 도리어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회사가 과연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지금으로선 무능력하거나, 일부 유저층에게 동조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미지보다 중요하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직원과 작업물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심판대에 오르고,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할 노동자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집단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점이 정말 문제인지 재고하십시오.
8024	게임이나 잘만드세요 억지논란에 반응좀하지 말고요
8025	수많은 사용자가 보낸 게임 내 문제에 관한 문의글들은 여러 차례 매크로 답변을 취하면서 이번에는 왜 매크로 답변을 보내지 않았나요?
8026	남자들만 게임하는거 아닙니다. 남자들만 당신들 고객이 아니란 말입니다.
8027	무시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을텐데
8028	이런 말도안되는 사상검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8029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억지 논리에 힌을 실어주지 마세요
8030	넥슨은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8031	넥슨 정도 되는 게임회사가 기본 윤리가 없으면 게임업계의 윤리가 무너집니다. 작은 회사들은 또다시 회사건물에 직접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는 악성게시판 사람들에 의해 회사원들이 위협받을 것이고, 회사원들은 언제든지 정말로 별 것 아닌 본인이 쓴 글 하나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혀서 제물처럼 직장에서 짤리게 될 것입니다. 제발 본인들의 체급을 생각하여 악성민원인들의 말을 무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32	정신차리세요
8033	더이상 이런 무의미한 인터넷 선동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8034	앞으로 집게손가락 금지사항을 넣어 발주할지 궁금합니다
8035	사상검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8036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8037	부디 이번 기회에 넥슨과 일부 유저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38	쓸데없는 의미부여와 망상으로 조직원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세요
8039	게임내만연했던 피싸개(여성을 멸칭하는 혐오표현), 망자조롱(노무현 전대통령 비하 일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아무말없었던 분께서 이제와서 혐오표현을 규탄한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에대한 대기업갑질을 하다니 글로벌게임업계와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에 대해서 브리핑부탁드립니다.
8040	먹금좀 해라
8041	게임업계의 오랜 사상 검증 행각을 규탄합니다
8042	이제는 인셀들에게 먹이를 그만 줘라
8043	몰지각하며 비상싱적인 판단으로 한국의 게임 예술 문화 업계의 수준을 퇴보 시키지 말아라
8044	2016 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국내 게임을 소비해온 소비자로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줄곧 불만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오직 여성만 어떤 정치적성향이나 불온사상따위 일절 포함하지 않은 성평등주의인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불링 등 신변안전에 위협을 당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수년간 게임업계에선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고 있고 이게 문화이자 풍조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 게임업계의 뿌리 깊은 병폐가 사라지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8045	과자 어떻게 집어먹으세요?
8046	평등을 표방하는 사회에서 남성유저들 비위 맞추느라 여성 직원들 부당해고하는 회사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변화할 게 아니라면요 넥슨 및 게임업체 여러분 능력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널렸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성차별하는 회사가 아니고 지지받는 게임사로 존속하고 싶다면 20 대 남성만이 아닌 모든 다른 세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이 회사 존망의 기로입니다
8047	먹금 좀 하세요

8048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는 여성유저 많은 Rpg 게임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행보가 많이 아쉽습니다.
8049	손모양에 일일이 반응하는건 그것이 진짜 컴플렉스임을 드러내는건데
8050	겨우 집게 손가락 가지고 사과문 남발에 페미 뿌리를 뽑겠다느니 유난떠는 짓 정말 진지하게 개멍청이 같으니까 업계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 여성 유저들, 가만히 있는 페미 머리채 좀 그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051	넥슨 및 게임업계들은 지금까지 여성혐오발언들을 지속하고 묵인했으면서 남초의 떼쓰기식 몰아가기를 받아주는행위를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8052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준수와 성차별주의 및 여성혐오적인 만행에 그만 동조하고 재생산하라
8053	혐오의 탈을 쓴 젠더폭력을 멈추십시오. 허구적 협박에 못이기는 척 여성 노동자를 핍박하지 마십시오.
8054	사상 검증에 대해 반대합니다.
8055	사상검증 멈춰라
8056	넥슨 및 게임업계의 여성 노동자 괴롭힘을 규탄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8057	그 알량한 우물안에서 피해망상에 빠진채로 썩어있을거면 소리도 내지말고 무너져라
8058	저질 게이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오
8059	클로저스 사태에서부터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넥슨이 시작한 첫 삽질의 결과물입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논란을 만들고 자신들의 망상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사상검증하며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현재진행형으로요. 여태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피해망상은 정말 지겹고 역겹습니다.
8060	억지주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멈춰라
8061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게임에서 여자 벗기는 것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8062	넥슨과 게임업계는 사상검증을 빙자한 혐오와 여성노동자 탄압을 멈춰라
8063	기업이 고객의 의견을 수용 하려는 자세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 쪽을 향한 편파적 의도를 가졌으며 혹은 혐오적 이슈를 이용하기 위함이라면 너무나 큰 모험이다. 지금 당장에야 큰 이슈로 뜨고 주목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의가 아닌 악의를 가진 의도의 행동은 언제가는 귀하들의 기업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말에 놀아나는 기업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며 낮춰 보여질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게임 회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당장 내부 부터 이간질을 선동하는 특정 사이트 이용자들을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한다.
8064	게임 내 채팅엔 고인 모독 및 일베의 혐오 표현들이 만연한데, 현재의 게임업계는 해당 표현들은 무시하고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 부리는 행위를 수용하는 모순적인 행보는 전세계에서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윗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글로벌한 반응을 살펴보고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8065	첫 시작도 넥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까지 오는 동안넥슨에게는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게임을 해보면서 여성혐오를 당하거나 보아온 일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전무하다 시피했습니다. 아무리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을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해도 여성유저도 엄연한 고객이고 한 계층을 무시하는 이런 대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응당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꿔야함이 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넥슨을 비롯한 많은 게임회사들은 앞다투어 반페미임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눈앞의 이익(인지도 명확치 않은)을 위해 반사회적인 입장을 연달아 밝히는 게임업계는 사회의 공동체로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이로서 피해를 받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미안하지는 않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을 뿐이네요.
8066	말도 안되는 특정혐오세력이 주장하는 쌩떼로 인해 발생된 부당해고를 멈춰라 당신들은 지금 여성혐오의 사상에 동참하는것이다
8067	억지 논란인거 알면서 다 받아주는 한통속인 게임 업계 언제까지 우물 속 개구리로 살 것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8068	말도 안 되는 트집에 휘둘리지 말고 게임의 질을 올리고 게임이 진짜 문화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게임업계의 중진이자 대기업으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노동조합도 있는 회사이니만큼 하청기업의 노동인권에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8069	모자란 남자들의 망상에 어울려주는 것을 멈출 때도 되었다
8070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동조한 귀사의 선택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8071	본 게임은 혐오 집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회원가입 때 동의사항에 추가해두기를 바람.
8072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은 없습니다 뉴비친화적이면 '점핑'에 불만을 갖는 고인물이 나오고, 고인물친화적이면 재화로 무마하기에 부담스러운 격차에 포기하는 뉴비가 나오죠. 허나 악성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업계에서 없애라고 요구하는 건 그런 현실적인 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페미라면 차라리 페미하고 만다' 소리를 하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의 먹고살기 힘든 문제에 대해 한탄하는 소리를 내면 그걸 페미라고 우기는 악성민원인이 등장합니다. 그걸로 근무처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분노 안 할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걸 또 엮습니다. 공감한 글만으로도 자기네들끼리도 이유가 부족하니 그 사람 작업물에서 어떻게든 흔하게 볼 수 있는 손동작을 은밀한 사인이라고 우깁니다. 우기니까? 게임사가 받아줍니다. 게임 운영이 불만이라면서 머리채잡는 건 결정권없는 실무자들이고 그걸 잘라서 제물로 바치면 게임에 대한 불만을 잠깐 접어주니까요. 또 불만 생기면 다음 희생양을 찾아 마킹하고 우길 거리를 또 가져옵니다. 운영에 대한 불만을 불쌍한 직원 마녀사냥으로 잠재우니 좋으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8073	정신차리세요. 그들은 진정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다른 업계에까지 이런 영향이 퍼진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회사입니다.

8074	너무 억지인거같습니다. 다 큰 성인이 공과사도 구분 못하고 이스터에그마냥 그런 제스쳐를 끼워넣을 생각을 할까요.. 그냥 빨리 마감할 생각만 했을거같은데요. 커뮤니티 여론이 중요한건 알겠지만 여론 때문에 한 업계/기업에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건 21 세기에 사는 지성인으로서 너무 뒤떨어지는 행동이 아닐까요?
8075	억지논란으로 여성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8076	매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징징거리면서 한쪽 성별을 배제하는 행동을 하는 건 한국 게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거 겠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긁어부스럼^이라는 말만 생각납니다. 어느 도태집단이 지들끼리 발끈한걸 대기업이라는 넥슨이 우쭈쭈하면서 받아주니 가라앉을 일도 터지는 모습.. 어릴때 10 년 넘게 메이플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에겐 메이플스토리는 추억의 게임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남자들이 하는 이상한 회사 게임입니다.
8077	올바른 기준을 세워 직원을 보호하세요. 부끄러운 오점을 더는 남기지 마세요.
8078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에만 반응하는 것 잘 보았습니다. 영상을 나노단위로 뜯어보면서 억지로 부여하는 것에서 제발 빠져나오세요.
8079	노동권을 보장하라
8080	페미사냥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 반드시 엄벌할 미소지니의 행태이며, 그게 전부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의 정당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반인권적 행태를 옹호하고 동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면서 세대와 성별을 언급한 메이플스토리 온라인 간담회 담당자의 발언이 매우 끔찍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들이 하고있는 일은 얼마 전 일어났던 편의점 폭행 사건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8081	여타 다른 논란에 대해선 한없이 느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작 0.1 초 말도 안 되는 손가락 억지에는 즉각 엎드려 대응 하는 것을 보니 엄청난 회의감이 듭니다. 더불어 그 논란의 이유가 너무나도 말도 안되고 유치하고 억지스러워 헛웃음만 납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는 남성의 억지라면 무조건 빌빌거리며 눈치보기 보다 이성적으로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한국남자가 아닌 제 3 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알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벌써 외국에서는 이게 뭐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넥슨은 글로벌 기업이니 만큼 페미니즘을 무지성 사회 악이라 주장하는 일부 멍청한 집단의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성별 평등)을 공부하고 오히려 억지 부리는 세력들을 가르치고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앞으로 "한국 남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스 하고 끝낼건가요? 국내 시장, 더 나아가 해외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마당에 페미니즘에 반하다니 말이 됩니까. 공부좀 하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나 기업 이미지가 깎이고 있는지 생각 하십니까.. 이번에 실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8082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083	착각속에 빠져사는 인간들의 말을 들어주다간 끝없이 바라는 인간들에게 질릴겁니다
8084	게임업계의 유구한 여성혐오를 시정하지 않으면 무지성 유저들과 함께 도태될 일밖에 없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8085	언제까지 억지스러운 손가락 논란따위에 놀아나며 여성유저를 무시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의 행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86	단순 손가락 모양이 성기의 크기에 대한 남성혐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페미니스트가 가지는 정신과 행동도 맞지않고 가장 중요한건 무엇보다 남성의 성기 크기에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역차별로 여성을 공격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하는 게임사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손가락 뿐만아니라 여자 캐릭터 가슴을 드러내는 옷을 입히지 않는다고해서 공격하는 건 건전한 피드백인가요? 세계 게임시장에서 가중 뒤처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 수준에 놀랍습니다
8087	정신 차리고 억지 논란에 맞춰주지 마세요
8088	부끄러운줄 알길바랍니다.
8089	여성혐오 무기를 든 노동권 침해 규탄한다
8090	일부 유저가 일방적으로 과대대표되어 게임과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일상적인 손가락 동작에 집착하고 의미를 붙이는 사람이 정상적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업계 내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효용성 있는 의견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대처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지 말아 주세요.
8091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보세요...
8092	인간의 기본권과 노동권이 언제부터 기업의 이익이래에서 유린당하고 희생양으로 내몰리는게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로 역행하기만 하는 기업은 범과 사회질서의 심판을 통해서 노동자에대한 보호와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한다.
8093	근로자의 지위와 생존권을 보호하라
8094	게임 업계는 언제까지 여성을 유저이자 고객으로 취급하지 않을지, 나아가 언제쯤 사람으로 대해줄 지 궁금합니다
8095	도태남들 투성이구나
8096	사이트(인벤등등)의 유저들 말만 듣지 말고, 모든 유저들의 말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8097	페미니스트 혐오를 멈추시오. 이 사태를 책임지시길..
8098	죄없는 페미니즘을 이용한 사상검증과 신상털이 금지를 촉구합니다
8099	페미니즘 검열 및 탄압 멈춰라!
8100	꼭 게임업계 내의 사상검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8101	진짜 작작해라
8102	헛소리는 걸러듣는 판단력을 기르길
8103	법 위에 사규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인셀들의 억지에 힘 실어주는 게임 업계 규탄합니다.
8104	제발 상식적인 운영 부탁드립니다.
8105	넥슨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외국 유저를 위해 반드시 번역문을 올려 본게임사가 페미니즘을 배척하는 회사임을 꼭 알리길 바랍니다. 부디요.

8106	보아하니 게임업계는 이미 모니터 속 세상 논리에 절여진 것 같던데..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란다
8107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신장운동이지 남성혐오가 아닙니다.
8108	이런 말도안되는 논란에대한 대응이 이정도여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8109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없는 소비자 바짓가랑이 붙잡겠다고 정당한 합의하에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모인 직원들 등에 칼 꽂지 마세요. 큰 목소리, 공격적인 어투로 단체로 떠든다고 논리와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8110	정신차리세요
8111	디씨펨코인벤남 말에 휘둘려서 게임 운영 좀 하지마시길.. 그쪽들 기준으로 여성유저는 유저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일이 대체 몇번째인지..
8112	실체조차 불분명한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주말에 긴급하게 직원을 불러모아 한다는 게 고작 영상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며 또 없지? 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는 점은 외면한 채 피드백이 빠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8113	한 때 한국을 주름잡았던 넥슨은 억지스러운 논란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크게 동하니 그 행태가 우습기 짝이없었다 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
8114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입니다
8115	그러고 살지 말고 여성유저 좀 존중하며 재밌고 사상검증 안하는 겜이나 만들어라. 안 그럴거면... 손가락에 과대망상하는 남인셀남들이나 끌어안고 그들의 한심한 논리에 매몰된 망겜으로 섭종이나 하시길 바람.
8116	고작 손가락 가지고 강자에 벌벌떨고 약자에 떳떳해하는 비겁한 행위는 그만둬라
8117	산업의 질을 스스로 낮추지 마십시오
8118	고정관념과 집단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외부인, 제 3 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복기해 보세요. 현재 게임 업계의 논리는 자가당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블랙 컨슈머들의 악의적 여론몰이에 호도되어 사안을 왜곡하고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제하고 대응해야 할 대상은 이들 블랙 컨슈머입니다. 부디 상식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8119	페미에 관심 없던 여성유저들까지 등 돌리게 하셨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멋져요!
8120	집게손가락은 집게손가락일 뿐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계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121	규탄하고 지지합니다
8122	여성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 회사는 페미니스트를 배제하고 남녀평등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게임이라고 하시든가요
8123	의미없는 손가락 모양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게임 업계의 만행을 반성하고 사과해라
8124	사상검증으로 사람 짜르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각성하라
8125	찌질한 짓 그만하세요

8126	16 년도 클로저스에서 변한게 없으시네요. 23 년도인데 이번 기회에 세계의 트랜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8127	게임회사라면,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충은 아실거라 생각하는데 왜...
8128	앞뒤안맞는 말을 들어주니까 나대잖아요 걍 쌩무시를 해야되는데
8129	악성민원과 다를바 없는 실체없는 사상검증에 힘을 실어주어 노동권 탄압 및 성차별에 기여한 넥슨 및 게임업계 강력하게 규탄한다
8130	사실검증도 되지않은 사실을 커뮤니티의 말만 듣고 해고하고 책임을 묻다는 게 통탄스럽다 여자 캐릭터들 벗겨놔서 성희롱 당하는 것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오히려 권장하면서 그 손가락이 대체 뭐라고. 여자들이 하는 페미니즘은 여자라서 차별받지 않게해달라 여성이란 이유로 죽지않게 해달라 라는 의미를 담고있는데 고작 그 사실확인도 되지않은 손가락 모양이 기분나쁘다고 하는 남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임사업계의 대처에 한숨이 나온다
8131	실체도 없는 논란에 힘쓰기 보다 여자 캐릭터들 성적 대상화나 멈춰줘요.
8132	억지논란을 쳐낼 결단력이 없거나, 혹은 억지의견에 동조하여 결과적으로 직원과 하청업체를 검열하고 굴종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끔찍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8133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8134	마녀사냥 그만해라
8135	일부 남성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동조해 '사상 검증'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성 직원을 부당 해고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한 행동이다.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넥슨은 회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8136	게임 내 노출된 혐오 표현을 지우겠다는 핑계로 오히려 본인들이 나서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현 실태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8137	이건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8138	나치임.
8139	넥슨은 억지 논란에 넘어간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문명인으로서의 수치를 알고 폭력과 비이성의 옹호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을 창피해 하라.
8140	악의적인 창작자의 사상검증과 부당해고, 일부 소비자의 억지요구를 빌미로 공식에서 마녀사냥 행위를 한 넥슨의 만행을 규탄한다
8141	말도 안되는 억지 떼 들어주지 말라.
8142	대체 왜 이렇게 한국 남성들 예민한건가요? 혹시 참을성이 적어서?
8143	음모론에 힘을 더 해주고 있는게 누구인지?
8144	알량한자기만족을 위해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8145	제발 보편적 인류의 상식선에 맞는 대응을 하라.

8146	또 말도 안되는 판례를 만드셨군요, 앞으로 많은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거지같아요, 최대한 비속어를 제외하고 말합니다. 게임은 모두를 위하고 애니메이션도 모두를 위한겁니다. 어떻게 특정 목소리만 듣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들도 플레이하는 게임, 그리고 모두가 사랑하는 게임을 만들던 분들이... 부끄러운지 아시고 평생 지옥같이 사시고 반성하시길.
8147	규탄에 진지하게 답하고 올바르게 시정하길 바랍니다.
8148	넥슨은 페미니즘을 반대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8149	논란을 멈춰라
8150	게임회사의 넘버원 답게 올바른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8151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여성의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다니 지금이 몇년도인지 모르겠네요
8152	사리분별 좀 하세요!
8153	언제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짓을 계속하실겁니까? 진정한 게임 내 논란은 나몰라라 하더니 같잖은 이슈는 헐레벌떡 사과 공지라니 유저로서 기만받은 느낌입니다. 넥슨의 사과 철회와 반성, 그리고 추후 올바른 대처를 촉구합니더.
8154	언제까지 억지와 징징거림을 받아주어야 하는가. 여성을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는가 약자를 억압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 억압은 오롯이 본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8155	사람이라면 생각을 좀 하고 사시길.. 멀쩡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엄지검지 신경도 안씁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는 여성들과 손가락이 기분나쁜 남성들이라는 현실이 참 기가 차네요
8156	있지도 않은 사실로 셰도우복싱하지말고 현실을 사세요. 지금 밖에서 당신들 집게손 찾는거보면 진짜 이상해 보입니다
8157	블랙컨슈머의 억지스러운 지적을 한번 들어주면 그것으로 사태가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프로젝트 문의 사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8158	여성 차별을 멈춰라
8159	일부 유저층의 그릇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일은 앞으로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160	노동자부터 꼬리 자르다가 인재는 해외로 전부 떠나고 한국 게임 퀄리티는 갈수록 떨어지고 유저가 떠날까봐 걱정이네요ㅠㅠ 자본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IP 는 일본에게 밀리고 인적자원마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가챠에 돈을 쏟아부어주는 헤비유저들이 있는만큼 국산 게임의 밝은 앞날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8161	집게손 공포증 치료를 권합니다
8162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대응, 수치를 모르는 기업
8163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기분만을 위해 특정 성별의 사상 검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당 하지 않고 근거 없는 얘기만을 듣고 직원, 하청업체 등을 매도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8164	정신차리자
8165	노동법을 위반하며 성차별에 앞장서는 악덕기업 넥슨을 규탄합니다
8166	무지는 죄입니다

8167	조롱과 배제 목적의, 비합리적인 집단 혐오에 가담하는 기업을 규탄합니다.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그린 노동자를 마녀사냥하고, 일자리에서 내몰고, 직장내괴롭힘을 서슴지 않는 범법행위도 규탄합니다. 부디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8168	집단적 피해망상 증세에 탑승한 넥슨과 게임업계 그리고 유저들
8169	넥슨 본인들이 하는건 여성에 대한 과도한 차별과 노동자에 대한 과민한 처사 아닌가요 ? 이렇게 사이버 불링하고 일개 유저들이 헛소리 하는거 다 듣는것또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요
8170	망상자들에게 휘둘리는 넥슨은 각성하라.
8171	여성게이머로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셀들의 발작으로 인해 게임업계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당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저들은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고 우위에 서고 싶은 것 뿐이지 페미니즘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못할 멍청이들인데 왜 인터넷 속 일부 인셀도태남에게 회사가 휘둘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8172	밥그릇을 본인 손으로 부수니 좋으시덥니까?
8173	의미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혐오라고 몰아가는 쪽이 누구인지 제대로 바리보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은 성별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넥슨은 인셀들의 생떼를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옳은 일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8174	이번 일로 인해 또다시 페미니즘이라는 정확한 뜻, 의미도 모르고 해외에서도 알듯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다는게 나라망신 국가망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8175	성차별적인 행위를 반대합니다.
8176	이유없는 혐오를 멈추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세요
8177	넥슨에는 젓가락으로 과자 먹는 사람들만 있나요? 집게 손가락으로 과자 먹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래서 넥슨은 집게 손가락으로 과자 먹는 사람들을 전부 페미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와, 페미 되기 정말 쉽다!
8178	넥슨은 여성을 혐오합니까? 넥슨은 성평등을 반대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8179	혐오에 휘둘려 더 큰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하라.
8180	실제게임은 유저의견묵살하더니 이딴 몰이는 바로 피드백하십니까? 이럴시간에 게임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저들 의견을 들어주세요
8181	인셀얘기 다 들어주다 자멸하지 마세요
8182	억지 논란에 대해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는 것이 게임에 대한 기타 불만사항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8183	인셀들의 목소리를 듣다간 회사가 망할꺼에요

8184	남성유저 눈치만 보지말고 여성유저 눈치도 보세요. 게임은 남자만 하나요? 억지 논란 만드는 그 성별들 요구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을텐데 그걸 왜 모르는지.. 그 억지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 했어도 그 성별은 게임 불매 절대 못합니다. 전에도 타게임으로 갈아탔다가 금방 돌아오는거 못보셨나요? 왜 당장 닥친 상황 수습하기 급급해서 더 큰그림은 못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억지논란에 사과하고 수정하는거 진짜 추하고 없어보입니다.
8185	여성차별적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게임앞에 쳐박고 게임 운영하세요 ㅎㅎ 인셀남들 이야기 들어주는거부터가 이미 글러먹은 회사 수준이 똑같으니 그들얘기 들어주면서 사상검증 하는거겠죠? 국내대표게임회사 답습니다 국산게임 망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대표적인 회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뒤떨어진 젠더감수성 여성차별적인 생각과 사상검증으로 직원들을 해고 시키고 일러레들 해외로 나간뒤에야 후회하지마시구요 그래놓고 물량때문에 중국게임에 밀린다는 명예로운 죽음당한척 하지마십쇼 당신들이 국내게임사업 망하게 한겁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중임을 명심하세요
8186	그렇게 도태되어 망하세요
8187	부당해고 마녀사냥 사상검증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래왔나요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대입니다
8188	말도 안되는 무논리를 펼치는 유저들의 입장만 들어주는 게임업계의 한심함이 통탄스럽다.
8189	떼쓴다고 다 들어주지 마세요..
8190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191	특정 사상을 "지지"하지 않고 "차단"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 생각했겠지만 가장 어렵고 복잡한 해결 방법을 선택한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8192	여성혐오를 멈추세요
8193	게임업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페미니즘 혐오와 여성혐오로 실제 여성근무자들에게 협박과 해고가 일어나는데 그 혐오몰이에 힘을 실어주고 일조한 넥슨을 규탄한다.
8194	쓸데 없는 거에 신경쓰지 말고 게임이나 잘 만드세요
8195	시대를 역행하는 혐오에 동참하는 부끄러운 짓에 대기업이 앞장서지 맙시다.
8196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8197	남초집단이 아이처럼 때쓰며 징징대는 헛소리를 전부 받아주고 수용해주면 게임업계의 상황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않으면 배척하고 비난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게임업계에 이득을 가져올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8198	게임업계는 생트집 잡아서 여성 부당해고 하지 말고 법을 지키면서 운영이나 제대로 합시다.
8199	진짜 정신차려라 가상의 적을 가지고 징징되는 돈키호테 편들어주면 걔들만 키워주는꼴이다 니들 때문에 이대남 칼부림 일어나는거야 부추겨서
8200	페미니즘이 왜 혐오대상인가요?
8201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202	정신 좀 차리세요

8203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당신의 개인 sns 와 인터넷 활동을 역추적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와 신분을 추적하고 퍼트립니다. 당신의 신변이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 인터넷에게 위협받고, 당신의 생계인 직장을 잃습니다. 해고당하고 신변만 퍼트려진 당신은 이런 대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여성 혐오를 한다고 해서 당신은 직장을 잃나요?
8204	억지 몰아가기로 여성 직원 밥줄 끊는 악습 멈춰라
8205	게임업계는 하루빨리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8206	일부 유저들의 억지 주장에 어울려 다른이의 생계수단을 빼앗지 마세요. 대부분의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인것 같습니까? 대다수는 불난곳에 부채질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8207	정신차리세요 제발
8208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가 아닙니다.
8209	열등감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는 헛소리를 들어주지 마시오
8210	억지도 정도껏
8211	시대를 역행해가는 한국 게입업계는 각성하라
8212	정신 차리세요
8213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이 아닌 성평등을 뉘한 것이라고 고직 손가락모양 하나도 여성들의 직장을 잃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214	페미니즘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목표이지 혐오 사상이 아님을 깨달아라. 뒤쳐져 도태되지 말고 앞을 내다보길 바란다. 개인에게 억지 화풀이를 하는 블랙 컨슈머 집단에게 동조한다면 같은 하급이 될 뿐이다.
8215	21 세기 마녀사냥 이다.
8216	16 년도에 일어난 모 게임의 성우 교체 사건을 이후로 게임 전공에서 발을 뺀 게임 그래픽 지망생이었습니다. 이번년도에 줄줄이 잇따른 한숨 나오는 상황을 보다못해 글을 남깁니다. 페미니즘을 떠나서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정녕 이런 방향성을 원하셨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게임이 남성층의 전유물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들이 줄줄이 특정 커뮤니티의 난동을 두려워해 사과문을 썼다는 것 마저...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덕분에 16 년도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리 없다.라는 불안감에 빠르게 진로를 바꾸고, 현재 다른 분야의 직장을 다니고 있군요. 매년 느끼곤 있었지만 이번년도는 유독... 국내 게임판을 떠나길 잘했다고 생각되는 한 해입니다.
8217	별같잖은 거에 휘둘리는 수준이라면 그냥 사업 접으세요
8218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상태인거죠? 창피한줄 아세요
8219	내부에 있는 성차별주의자를 색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8220	무슨 집게손 모양이 페미니즘이라는둥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사람을 해고하고... (사람은 전부 손이 있고 움직이다 보면 집게손 모양은 한번씩 하지 않나요?) 노동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8221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상검증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8222	정신차려라
8223	정신 차려^^
8224	기업이면 좀 기업답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직원을 챙기세요.
8225	도태되는 한국 게임산업에 어울리는 사고방식이다. 빠르게 망해라.
8226	억지 마녀사냥 멈춰라
8227	쓸데없는 논란이나 만드는 남성 게이머들한테 놀아나지말고 일 처리 똑바로 하세요.
8228	어리광을 자꾸 들어준다고… 그 아이 버릇이 좋아집니까? 맞는 것 맞고… 니가 아무리 우긴다고해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8229	계속 이럴거면 그냥 망하세요
8230	게임업계에 대한 사상검증 및 특정 커뮤니티의 행태는 블랙컨슈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발언권을 준다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 전반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넥슨사의 대처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악성 민원 및 블랙컨슈머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31	본 사안에 대해서 글로벌 공지로 페미니즘은 사회 악이라고 크게 부탁드립니다!
8232	페미몰이 그만
8233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지시길
8234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침해에 일조하는 대기업 넥슨! 규탄하라
8235	메이플스토리 직업군 일러스트를 보면 팬텀, 제논, 윈드브레이커 등 집게 손가락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과거부터 앞으로 나올 모든 일러, 애니의 손가락을 전부 교체할 건지? 메이플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란 대체 뭐길래 이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8236	그냥 재미로 여자 죽이기 억지논란인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면 본인들 손부터 절대 굽히지 마십시오. 그냥 같은 인간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8237	여캐 벗기기 온갖 성상품화는 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손그림 대해 명확히 해명도 하지 않은채 의혹에 맞춰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제법 웃긴건 알 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유저만 잡고 가겠다는 그 마인드가 한국 게임시장의 현주소이고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보여주네요.
8238	말도 안되는 요구에 말도 안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것입니다. 갑작스런 논란에 놀란 것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저 말도 안되는 논란을 만드는 그들과 이 회사가 똑같은거였네요.

	앞으로 넥슨 뿐만 아니라 이 논란에 그들에게 머리 숙인 회사들의 컨텐츠는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8239	사상을 검증하는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240	소탐대실
8241	넥슨 원래 불매해서 더 할게 없는게 원통하오
8242	있지도 않는 논란과 의도를 무논리적이며 악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부 사용자들의 의견을 무차별하게 수용하는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의 인권, 나아가 전체 노동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사상 검증과 검열의 행동이며 이는 80 년대 군사정권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2023 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8243	넥슨처럼 큰 게임회사가 성차별을 하는것이 말이되나요? 왜 남성유저의 발언에만 귀기울이는지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8244	니들이 사람이냐? 이건 애니에 대한 모욕이다
8245	사상검증 마녀사냥 반대합니다
8246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8247	내 게임 영업에 가장 큰 장애물이 겜사인 거 실화냐 다들 접고있잖아 어쩔거야
8248	차별과 괴롭힘을 오락으로 즐기는 행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8249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250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편을 들어주며 여성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8251	페미니즘은 혐오하기 위한 사상이 아니러 권리를 외치는 운동이다. 피해자는 작업물에 사상을 드러내지 않았을뿐더러, 애초에 페미니즘 지지로 인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8252	게임업계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8253	이 일을 해외로 알리십시오. 게임업계는 자정작용이 불가한 진흙탕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외신의 지적으로 개선한다면 더욱이 좋겠지요.
8254	사람들의 마음을 이딴식으로 배반하고 재단하고 계산하는게 게임업계 탑이라면 한국은 아마 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률과 함께 망해가는 대한민국 게임시장점유율도 함께 망해가는 입장에서 구경하기 유쾌하네요. 더 자폭쇼 해주실거면 우리가 여태 질렀던 돈 정도는 여성민우회에 기부하고 계속해주세요.
8255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줌으로서 당신들은 인권 퇴보에 보탬이 됐으며 이런 선례가 타업계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생각 좀 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8256	세상은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성의 권력이 공고해야 한다고 믿는 아집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8257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으로 직원을 사상검증하고 쉽게 해고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8258	그저 편협한 시선과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 덜떨어진 사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회사라는 것도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8259	시대 흐름 좀 파악하자 제발
8260	게임 업계와 악성 커뮤니티가 한 몸인것을 숨기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을거라면 어떤 게임이던간에 사회에 유통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몹시 유해합니다
8261	옳고 그름을 판단할때, 한 쪽의 이야기만 듣지 마세요. 생각하기에 한 쪽이 압도적이 잘못있다고 판단될지라도 의견을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며 게임문화를 선도하고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8262	여성인권을 추락시켜 남성들의 기분권을 챙겨주는 게 글로벌 기업의 행동이라니 ^^ 어이가 없습니다.
8263	게임이나 잘만들어요
8264	노동 탄압과 성차별을 그만둬라아!!
8265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집게 손 이모티콘이 정말 남성혐오 목적으로 게임 일러에 그려졌다 생각하는지? 해외 반응은 보고 있는지? 일부 남성 유저들의 주장과 넥슨의 기업 기조는 결이 같다고 보면 되는지?
8266	인셀에게 고개 숙여봤자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규제만 더 심해질텐데 잘 처신하십시오
8267	페미몰이 위에 노동법 있다는걸 깨달았음 좋겠네요.
8268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모든 임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받도록 사규를 도입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8269	성차별 반대
8270	페미니스트면 안되나요?
8271	실무자는 기획안이 나온대로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회사에선 최종 컨펌까지 정성스레 마친 작업물일테고, 사실상 공동 작업일겁니다. 그런 작업물을 일부 블랙 컨슈머의 억지에 맞춰주느라 내리고, 한 명을 콕 짚어서 희생시키고, 야근해서 사과문을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억지스러운 항의에 많은 재화가 낭비되고, 근로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넥슨의 명예 또한 '블랙 컨슈머에게 납작 엎드리는 비굴한 회사'로 훼손되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부디 회사 내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마시고, 온갖 '논란'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머리 쓰지 마셨음 합니다. 지금이 그렇게 돌려온 결과 중 하나이니까요. 지금 또 하던대로 넘겨버리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억지를 부릴까요? 넥슨정도의 대형 게임 회사에서 한 일은 전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게임의 인식이 더 추락할 것이며, 그건 다른 게임 회사에게도 민폐가 되는 짓입니다. 작업자가 게임을 즐겁게 만들 수 있길, 그리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미래가 되었음 합니다. 그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8272	정신차리세요
8273	메이플 스토리를 오랫동안 사랑해온 유저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대기업다운 대응을 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로 과대해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8274	오늘의 일은 언젠가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 입니다
8275	인셀무리의 어이없는 요구를 그만 들어줘라
8276	남성 유저들의 피해의식과 억지때문에 오늘도 한 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
8277	억지 의견보단 한 사람의 사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278	게임업계는 인셀 남성들의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것을 멈추고 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라
8279	집게 손 논란이 생기기 전에 제작된 집게 손이 포함된 과거의 애니메이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들은 미래를 알고 그린 페미인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프레임입니까?
8280	당사자가 의도하기 힘든 사항을 억지 짜깁기하여 트집을 잡은 악성 유저, 소위 인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실제 직원에게 악영향을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하십시오. 또한 페미니즘은 성평등과 동의어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터부시되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8281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 말하지만 남성 유저의 성희롱과 여성 멸시적 욕설, 게임 내 여성 혐오 컨텐츠는 외면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창조 논란에만 반응하는 모습이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혐오를 하는 쪽은 어디인지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8282	시답잖은 헛소리에 갈대마냥 흔들리는 모습이 기가 찹니다. 유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으나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게임을 만들기 바랍니다.
8283	한국 게임의 대명사격인 귀사에서 논란의 정당성과 사실관계 증명조차 하지 않고 그저 일부 남성 커뮤니티의 말에 화들짝한 꼴이 유감스럽습니다 귀사의 명예는 더이상 모래 한알보다 무겁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악수로 인한 책임을 부디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8284	게임업계에 만연한 부당해고 문화가 근절되길 희망합니다.
8285	한국의 게임업계 전반은 페미니즘에 대한 탄압을 하루빨리 멈춰라!
8286	한심한 인셀남들 편을 들어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들어주는 멍청한 짓을 멈추세요.
8287	말도 안되는 억지를 수용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긴것에 유감이 크다.
8288	제발 일부 혐오 커뮤니티 일부 의견에 따라 여성의 당연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그만두세요. 그들은 진짜 페미니즘에 대한 투철한 생각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통제권을 갖고 싶을 뿐입니다.
8289	게임업계의 사상검증에 반대합니다
8290	페미니즘은 사회전반의 모든 인간을 위한 사상입니다. 부적절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임직원들을 보호하십시오
8291	말도 안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유저들은 떠날게 분명한데 왜 들어주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829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묻는 행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은 원래 그렇게 생겼고 지금 하는 행위는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임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8293	무식하면 부끄러운줄 정도는 알았으면 합니다
8294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한다.
8295	거기 고학력에 스펙좋은 사람들 다니는곳 맞는거죠??
8296	블루아카이브 일러스트레이터중에 소아성애자 옹호하고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것은 검증안하는겁니까?
8297	여성에게 부당한 노동환경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개인에 대한 대기업의 소위 '사상검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범법행위조차 아닌 개인의 '생각'을 '사적'sns 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작업물이 사라지고 커리어가 중단되는 일이 왜 남성에게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 그 어디에도 소위 남성의 '작은 성기를 비하하는 상징을 만들고 홍보하기' 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관절 여성에게, 페미니스트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성의 권리 신장과 차별 철폐 그 무엇에도 도움되지 않는 하등 생산성 없는 행위를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리가 어떠한 남성 집단에게는 이해조차 안 될 어려운 말이라는 것이 그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일로 피해입은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조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8298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8299	글로벌트렌드에 역행하다못해 반하는 한국 게임계는 미래가 없다. 이제는 망해도 그만입니다
8300	넥슨 내의 진짜 범죄자들이나 잘라주세요.
8301	지금처럼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인셀들의 억지논란에 힘을 보태기만 한다면 넥슨은 대중게임회사가 될 자격이 없다
8302	본인들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제발 자각하길 바랍니다.
8303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넥슨은 이미 요까지 깔았으니 앞으로 넥슨 게임은 인셀 소굴이 되겠네요
8304	언제부터 개인의 SNS 를 사상검증하면서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림버스 사태를 비롯하여 이번 사태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블루아카이브 게임에서는 소아성애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를 고용하기도 했었죠. SNS 에 글을 올린것과 소아성애 그림을 그려 유포하던 사람 둘 중 누가 더 잘못 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회는 누구를 비난중인가요?
8305	억지 논란과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8306	마비노기부터 던파, 최근 카러플까지 넥슨 게임을 즐기던 유저입니다. 이런 미개한 일을 업계 대기업에서 벌이다니 그 수준 처참하네요. 한국 게임계 안그래도 나락가는 중인데 더 나락가세요😉 이런 사태 일으킨 결정권자들은 부디 인문학적 소양 좀 기르시길. 철학이 빈곤한데 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8307	넥슨은 무분별한 사상검증을 중단해야 합니다. 손모양의 의미는 남성들 본인들이 자의로 해석해 여성들을 낙인찍고,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으로 여성들을 찍어눌러 일부 남성들의 기분과 눈치만 살피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8308	창조논란으로 발화된 억지 주장 속 허상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공격하는 행동은 병증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사리분별 없이 자성의 소리없이 병증에 동조하고 '여성' 직원만 마녀사냥하는 이 행태가 정말 기이합니다.
8309	게임 문화 속 여혐 문화를 규탄합니다.
8310	좀 상식적으로 굴어주세요
8311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아래 행해지는 물리적, 사회적 폭력을 대체 언제까지 받아줄 것인지? 넥슨같은 대기업이 선례를 남기면 다른 회사들도 그 선례를 따라가는게 보통이고, 사실상 현재 사회현상인 남녀갈등의 원인도 넥슨 게임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클로저스 성우 부당 해고 건) 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8312	노동법 준수하라
8313	누가봐도 다짜고짜 우기는거 알고있으면서 남자랍시고 그저 떼쓰면 다 들어주는 멍청하고 머저리같은 업계라고 광고하는 꼴이 참 우습다.
8314	게이머가 곧 개발자가 되는 게임 업계 특성상 넥슨 및 게임계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남성들과 사상검증을 요구한 유저들은 동일한 군집이라고 봐야 한다. 사상검증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진 좁은 시야를 설명한다.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게임업계는 절대 주류가 될 수 없으며, 주류가 되어서도 안 된다.
8315	넥슨은 무지성 여성혐오를 중단하라.
8316	넥슨망해라
8317	페미를 핑계 댄 부당해고와 여성혐오는 반드시 멈춰져야 합니다
8318	게임 문화를 퇴행시키지 말아주십시오.
8319	올바른 신념으로 기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8320	이번 행태는 합의된 노동과 고용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을 함께 살아가는 타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일부의 망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과연 페미니스트만이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8321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오 논란에 응하면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나 여성 성우 등 여성을 검열하고 일방적으로, 마땅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하는 행위를 그만하세요. 이러한 악질적인 일이 벌써 여럿 선례가 있었고, 게임업계에 거의 악습으로 자리를 잡은 수준입니다.
8322	안일한 대처로 기업이 망하는걸 보는게 소비자로써도 좋은건 아닙니다. 게임은 제작자와 유저 모두가 재밌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8323	성차별 멈춰
8324	게임을 제발 하고싶다 근데 왜 자꾸 터트리는 것이냐 ㅡㅡ. 왜 여성 유저는 사람이 아니냐? 너무하다
8325	악성민원 무조건적 수용으로 사내 여성 직원에게 위협을 주면 안됩니다. 직원을 보호해주십시오.
8326	상식을 지켜주세요
8327	한심하고 찌질해요

8328	아직도 곳곳에 퍼져있는 여성 혐오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적 없으면서 일부 유저의 억지 논란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기 위해 해당 포즈를 취하지 않음. 손가락만 멀쩡하게 붙어있다면 일상 생활에서도 수없이 취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포즈에 불과함) 에는 빠른 속도로 대응하는 모습에 황당할 따름임. "여성" 유저의 의견은 듣지도 않는 게임 업계의 실태를 잘 보았음.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무조건 페미니즘이라고 비난하며 되려 여성을 혐오하는 한국 게임 업계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따름임. 해당 대응으로 인해 해외에까지 일부 악성 유저와 게임 업계의 수준 낮음이 널리 퍼져 부끄러움.
8329	과도한 여혐몰이에 휩쓸리지 마시길!
8330	넥슨이 대응한 행동은 돌이키기에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저열한 회사가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언급하고 기사가 나왔으니 넥슨이 갈피를 잡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억지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부당 해고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 페미니즘 사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 몰이해와 무지는 대한민국의 게임을 지탱하는 대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임을 지각하였으면 합니다. 넥슨의 게임들은 늘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희망 끝에 선의가 화답한다는 점. 20 년이 지난 메이플스토리 역시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메시지를 이야기로 풀어내어 여러 아이들을 올바른 어른으로 키웠던 넥슨이 무지와 안이로 스스로를 부수지 말았으면 합니다. 상생과 사회공헌을 이념으로 삼는 넥슨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8331	성평등을 지지하고 억지 논란을 멈춰라
8332	시대에 뒤떨어지는 페미니스트 검증 사상 그만두길
8333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대한 혐오를 멈춰요
8334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8335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8336	유저 핑계를 대며 노동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8337	업계의 이번 결정이 진심으로 일러스트에 있는 '집게손'이 '위험한 페미사상'을 표출하고 있다고 믿어서인지 혹은 논란을 만든 이들의 억지주장임을 알면서도 주요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인지 내부 사정까지는 모릅니다. 전자라면 업계에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말밖에 전할 말이 없습니다. 후자라면 기업윤리까지 따지기에는 업계의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낮은 상황 속에서 당장 현실적인 이익만 따져도 억지주장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대응책이 결국 패망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 유저도 떠나고 현실감각이 남아있는 남성 유저들도 떠나고 나면 당신들은 고객층으로 점점 더 대응하기 힘든 상대를 보유하게 될 뿐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억지논란에 사과하고, 필요도 없었던 추가 업무에 지장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의 끝없는 반복이겠지요. 이전에도 페미니즘 관련해 말도 안되는 억지와 함께 비난받았던 기업들은 많았으나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기업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기업들 뿐입니다. 당신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페미를 고용하고 게임속에 페미표식이 있음에 대해서'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노동자를 부당해고하며 일을 이 지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페미묻었다'고 남초 커뮤니티에 선동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하는 소수 인간들을 대상으로 초장에 강경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나름 알려진 국내 기업들이 수준낮은 억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에 솔직한 감상으로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고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8338	모두가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본질에 집중해주길
8339	멍청하고 한심스러운 생떼를 언제까지 들어줄건가!!! 그 생떼에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멍청한 짓을 하니까 그 어리석음이 지속되지 않는가! 넥슨도 공범자다!
8340	여성 혐오몰이, 괴롭히기를 중단하라
8341	게임업계를 비롯한 모든 업계에 묻고 싶습니다. 이 동작이 남성기 비하 발언이 될 수가 있는지, 무언가를 집으려는, 어쩌면 '한 꼬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위가 어떻게 남성 차별 발언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반응함으로써 의미를 심고, 비대한 남성 카르텔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애초에 부당한 대우를 안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8342	이런거 호들갑떠는거에 일일이 대처하지맙시다 모양빠지게
8343	페미니즘은 정치 사상이나 혐오 사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하게 해야하는 성평등주의입니다. 제발 여성들의 투표권을 막는 과거의 남성들처럼 자신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여자의 임금이 남성과 동일한 금액으로 늘어나 남여 평등한 임금을 받는 걸 이기적으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언제까지나 여성은 차별받고 남성만 대우받는 성차별 시대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인간으로써 마땅한 인권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
8344	근거 없고, 비논리적인 혐오 선동에 경도되지 말고, 업계와 업무에 충실히 임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8345	누구나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일부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꾸 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8346	넥슨은 억지논란으로 여성 노동자를 이미 수차례 해고하였고 그 이유는 그 노동자가 '페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라 듣고 황당했습니다. 0.1 초 지나간 손가락 컷=페미 인지 따지는건 둘째치더라도 설령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업을 잃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페미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사상검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21 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태라는걸 누가 믿겠습니까.
8347	그렇게 혐오를 배제 하고 멀리하길 원한다면 악하고 멍청한 남성 게이머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 것
8348	여성 개발자 다 빼고 만들던가요. 그냥 회사에 여자를 두지 말아보세요ㅋㅋ 그리고 여자유저들 돈도 벌지 마시구요
8349	한심하게 굴지 말고 좀 세상을 넓게 보세요
8350	차별을 멈춰주세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8351	사람 손의 모양이 이럴진데 왜 억지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지 궁금합니다.
8352	디씨, 아카라이브, 인벤 등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각종 혐오발언은 전부 무시하고 개인의 sns 를 뒤져 혐오발언이라고 우기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의 말을 이루어주는 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게임회사인데 게임 운영 이슈, 과금 이슈, 확률 이슈 등의 처리는 늦으면서 페미니즘 논란에만 그날 당일 입장 표명하는 거 정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8353	왜 스스로 하남자임을 자청하며 창조논란을 일으키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리고 제발 숲을 보세요.
8354	트집잡아서 여성을 죽이는일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8355	페미니즘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그래서 집게 손가락이 남혐이라는 억지도 들어주는 거라고. 직원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검열하기 바쁘다고. 언제까지 애매한 단어로 회피하실 겁니까?
8356	여성혐오에 비롯된 사상검증 및 부당해고를 반대합니다.
8357	정신차리세요
8358	넥슨과 한국 게임계는 답이없다.
8359	부끄러운 줄 알아라
8360	일부 남성의 의견은 중대사안이고, 거기서 노동하는 여성과 다수 여성의 의견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까? 이번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권 침해 사태에 책임 지길 바랍니다!
8361	몇년이나 지난 페미니즘 혐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도 그저 지나가면 될일을 굳이 그걸 쉴드처럼 싸고 도는게 화가납니다. 여성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꾸역꾸역 사상검증을 계속 확인하여 결국 어떻게든 일자리를 없애려는 남성(갤러 유저)들이 쌩때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업계는 그 남성편에 들어준게 너무나도 화납니다. 고작 성평등 하나만으로 꼬리가 잡혀 여성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8362	혐오몰이에 동조하지 마세요.
8363	인터넷상 일부 유저들의 억측과 논란을 그대로 수용해서 같은 회사의 가족을 해고하는 행위를 제발 멈춰 주었으면 한다. 또한 익명의 다수가 플레이 하는 게임인데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게임사에서, 마치 '페미니즘'이 사회악인 것처럼 입장문을 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페미니즘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딘가에 있을 페미 뿐만 아니라 한 종류의 유저를 배제 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

8364	일부 남성들의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멀쩡히 일하던 직원을 함부로 자르는 블랙기업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으며 사상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허지 않는 악덕 기업
8365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워하는 사회 분위기일지라도 그것에 휩쓸려서 '넥슨'이라는 게임산업의 대기업마저 줏대없이 흔들리는 모습에 정말 기가찹니다. 게임 업계는 그 동안 여성혐오를 마음껏 표현했고 성차별적인 캐릭터 디자인, 여성혐오적인 문구 사용, 여성차별적인 게임 내 스토리를 이어오며 그 동안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으나, 이런 작디작은 소란에 즉각 반응을 하다니…그동안 여성 유저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듣지도 않았다는게 명백히 들어나는 상황입니다. 남자들끼리 모인 구성원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에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예로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자고 외칩니까? 또한, 게임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군입니다. 이런 창의성을 되도 않는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게임을 발전 할 수 있습니까? 게임에 있어서 더 이상 창의성이 없는,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넥슨의 미래가 어떨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20 년동안 즐겨하던 넥슨 게임을 떠나는 유저로써 전합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주세요.
8366	노동자 보호에 힘 쓰시기를 바랍니다.
8367	진짜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8 년도부터 지금까지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공인도 아닌 그저 방구석 인셀들로부터의 억지공격에 머리를 박고 있는 실정이라뇨. 지조도 없고 모럴도 없고, 업계 직원 하나도 커버하지 못하는 게 회사입니까? 게임업계가 인셀들의 농간과 횡포로 얼룩진 이유는 18 년도 당시 넥슨의 대처가 그만큼 안일했고, 형편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커져버린 스노우볼, 이제 당신들이 되돌려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8368	솔직히 클로져스가 망한 이유를 눈치 못챈게 놀랍네요. 페미 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게 영화제작해놓고 pc 때문이라 하는 헐리웃이랑 같아서요.
8369	게임의 발전을 원한다면 머리부터 뜯어고치십시오
8370	논란에 쫓기느라 현명하게 대처못할지언정 진실을 호도하진 맙시다
8371	사상검증하는 회사는 망해야한다
8372	무논리 피해망상자들 의견으로 남의 밥줄 끊는 행태 바로 멈추십시오
8373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8374	1. 밥먹듯이 페미하기 2. 시대가 이럴수록 더욱더 페미니스트 선언을 3. 정지시켜야 마땅한 계정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한국남자 줄임말 에만 버튼 눌려서 칼같이 정지시키는 트위터 코리아 각성하라 4. 불법촬영 무고 소재 쓴건 진짜 실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더 많았다 시즌 3 기대하겠어요 JJY 티빙결제? 절대 연장 5.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 좀 했다고 SNS 계정 막혀서 몸 사리고 다닌적은 있어두 페미 그만둔적은 없다 ㅇㅇ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해줄게 문제가 된다는 작업자 계정의 발언의 수위는 이정도였습니다. 디씨인사이드의 유저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조롱하며 피싸개, 바나나따개, 똥꼬충, 두창, 운지 등의 발언을 일삼습니다. 넥슨에서는 정말 문제가 된 작업자의 발언이 디씨인사이드 유저들의 발언보다 수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뿌리 스튜디오는 입장문에서 해당자가 원화 애니메이터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물에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지 못할 환경인건 협업자인 넥슨 측이 더 잘 알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시간에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유저들이 메갈리아의 심볼이라 주장하는 집게손의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좁히고 나머지 손가락은 죄다 쥔 모양입니다. 문제가 되었다는 손가락 모양들은 C 자 모양, 나머지 손가락을 편 집게 모양 등 죄다 다르지 않나요? 싫어하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그게 손을 올리는 동작이었던, 안경을 고쳐쓰는 장면이었던 맥락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최근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 버스터에 관련한 업데이트로 유저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민심을 돌리기 위해 억지 논란에 불 지펴 퍼포먼스를 보인 것은 아닌가요?
8375	사상검증이라 할 것도 없고...여성 노동자 혐오가 만연한 게임업계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넥슨은 대기업인데ㅋㅋ게임하던 옛정도 다 없어짐
8376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동조하여 여성혐오 하지 마라
8377	본 사안은 여성 혐오에 근거하여 발생했으며, 귀사의 대처는 게임 운영상의 문제를 여성혐오 시류를 이용해서 무마한 안일한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해당 분야의 여성 종사자들과 해당 직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멈추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8378	왜 같이 동조하는지 궁금합니다
8379	정신좀 차리세요.
8380	성별을 이용해 혐오를 조장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와 사상으로 논란을 만들어 그것을 즐기는 일부집단에 기업이 나서서 동조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381	아니 결정권자가 떼쓰는 그분들과 같은 신념을 가지신건지.. 시대흐름 좀 읽고 공부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8382	여성을 향한 성차별과 혐오는 심각한 범죄이며 한국사회는 이를 오랫동안 묵인하였다. 한국 게임업계의 자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하며 해고 당사자들에게 깊은사죄를 요구한다.
8383	정신차려.

8384	멍청한 마녀사냥 그만하고 인셀들한테 힘 좀 얹어주지 말라고 전하고 싶네요.
8385	억지주장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일어난지 불과 몇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8386	넥슨은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중단하라!
8387	말도 안 되는 일부 남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8388	여자들은 정작 집게손으로 남자를 혐오한 적도 없는데 인셀들이 자기들끼리 부들거리는 집게손에 반응해주고 받아주는 넥슨 및 게임업계가 한심합니다. 이러니 국산게임이 발전이 없는데 느끼는게 없는지 심히 궁금하네요 ^^
8389	올바른 대처를 하시오
8390	계속 니들끼리 그렇게 운영하세요
8391	한국 게임에는 미래가 없다
8392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억지논란 이제는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8393	노동법 위반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루길
8394	일부 남성 유저들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화두에 오른 장면들이 진심으로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음모를 갖고, 사상을 담고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8395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어주며 컴퓨터 속에 숨어 혐오놀이를 하는 자들과 한편이 되는 기업들을 규탄한다.
8396	‘페미니즘’을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혐오세력으로 만들어서 여성 전체를 불순한 사상에 물든 사람들로 취급하고, 여성들의 저변을 좁히려는 짓은 그만둬 주십시오. 아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이 오히려 억지인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특정 손가락 모양을 통해 사상을 은근히 드러낸다는 발상 또한 남초의 억측에서 시작된 게 퍼진 것일 뿐이고 그 어떤 확실한 정황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8397	여성 노동자를 향한 불필요한 사상검증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십시오.
8398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8399	손몬양이 마음에 안들면 아예 손을 없애세요. 말에 힘을 싣는건 긍정입니다 타사에서 ㅂㄴ ㅆ같은 범죄단체를 신경쓰지 않으니 아무도 범죄로 여기지 않는것처럼 당신들이 굳이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조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8400	클로저스에서 시작한 업보를 돌려받길 원합니다
8401	악성 유저의 의견에 휩쓸려 더 이상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내쫓지 마라. 게임업계의 현 행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알아라. 왜 노동자들이 과거 행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 어떤 선진국도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는다. 오직 한국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이상하게 여길 때가 아니냐?
8402	부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휩쓸려 무고한 직원이 강제적으로 일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403	본인들이 한국의 페미니즘은 오염됐다고 여기더라도 그것이 사상검증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않으며, 본인들이 일으킨 사태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8404	애초에 이 모든 사상 검증의 시작은 2016 년 7 월 18 일 넥슨의 클로저스 성우의 한 티셔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작 민원 몇 줄에 남의 수입을 끊어 놓았던 것이 여지껏 이어져 곧 10 년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스타트를 끊은 기분이 어떠신지?? 고작 손가락 모양에 자기들끼리 의미 부여 하는 피해망상을 하고 있는 가까운 악성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외주 작품을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약 7 년동안 프리랜서 및 외주를 담당하는 개인이 이런 "사상검증"이라는 것을 당하며 별것도 아닌, 개인의 사상에 따라 그사람의 신상이 팔리고 일반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던 일이 왕왕 있엇음에도 그 어디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하나 만들어주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8405	그저 한심 세상 흐름 좀 읽으세요 나라망신 개망신
8406	페미는 아니지만 이제 집게손으로 과자를 집어도 욕먹을까봐 남깁니다...ㅜ 뭔진 몰겠지만 제발 그만해주세여
8407	지금까지 게임업계가 망해가는 수순을 밟고있는데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고싶은 것인지.
8408	노동권은 생존권이다. 남초 커뮤니티의 같잖은 행패에 농락당하며 여성의 생존권 위협하지 마라.
8409	생각들 좀 하고 삽시다.
8410	노동자는 기업의 고기방패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노동자 개인이 다수에게 노출되어 사과해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8411	말도 안되는 여성탄압 그만하세요.
8412	그들이 하는 일들이 되려 혐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413	2023 년 마녀사냥 규탄한다
8414	한남들이 만드는 억지 페미몰이. 말도 안되는 페니니즘을 이용한 마녀사냥 작작해. 인셀한남들 말 좀 그만 들어 똑같은 놈들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성차별을 찬성하는게 쪽팔리지 않아? 남혐이라고 몰이하지마. 옛나부터 꾸준하게있는 여혐은 안보여?? 이게 겜회사야 디시씨야? 일비야? 안쪽팔려 ??
8415	페미는 혐오 사상과 무관합니다. 억지 논란을 멈춰주세요. 검지와 엄지를 사용한 핸드사인을 혐오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 혹은 여성은 이러한 억지 논란이 창조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핸드 사인을 집어넣는 행위를 통해 페미니스트가 얻는 것도 없을뿐더러 논란을 위한 논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며 혐오 사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러한 페미니즘을 거르고 색출하는 행위가 혐오에 찌든 사상과 편견은 아닌지요? 페미니즘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나요?
8416	이상한 억지논란에 하나하나 반응하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라
8417	전세계에서 한국 게임 업계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 배경에 넥슨이 있다. 언제까지 도태되는 걸 알면서도 상식 이하의 혐오론자들의 스피커가 되어 본인들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인가. 기업이 착하지 못 하면 이익 판단이라도 잘 해야 하는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머저리 같은 짓만 해대는 게 통탄스럽다.
8418	스스로 천박하고 구차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용인한 폭력을 사회 전체가 감당케 하지 마십시오.

8419	남자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8420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8421	억지논란 생성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8422	페미니스트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존권, 노동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려 "페미니스트"가 남성의 작은 성기 따위를 지칭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는 착각은, 무지를 넘어선 무식의 수준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성의 작은 성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8423	지켜보기 힘들어요
8424	억지논란 이해가 안된다
8425	집게손이 페미니즘 사상의 상징이자 남성혐오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번진 지 어언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중 2 인 저로서도 이제는 이 거짓된 상징에서, 일상을 자유로이 보낼 수 없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자칫 실수로 손짓을 해버린다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루머가 퍼져 버립니다. 저는 그들의 뇌리에 한순간에 남성혐오자로 변모해 각인됩니다. 피싸개, 페미년, 쿵쾅이, 보지년. 온갖 혐오표현과 욕설, 모욕에 시달립니다. 그런 폭력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사이다인 것처럼 일상에 받아들여집니다. 언제부터 집게손이 남성혐오를 드러냈습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온갖 매체에 집게손을 숨겨 남성혐오를 표출했습니까? 남초 커뮤니티의 일부 유저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누명 씌우기로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다 못해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고 또 온갖 사이버불링을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만이, 남성들만이 당신의 고객이고,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까? 왜 우리의 분노는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꺼리십니까? 더이상 그들의 짜내기식 주장을 믿고, 사죄하고, 책임자를 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묻고, 사상을 검증하고, 폭력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집게손을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단정짓는 데 일조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한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8426	인셀의 혐오적 트롤링에 휘둘리기 전에 생각이란걸 좀 하십시오
8427	성별 간 조장 갈등이 아닌 일방적 여성 혐오를 멈추어라. 여성 혐오적 컨텐츠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라.
8428	게임 업계의 일명 '사상검증'은 클로저스 때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한 명의 여성이자 게이머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성만 일부 유저의 억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왜 게임 업계는 일부 유저의 억지를 수용합니까? 페미니즘 혐오, 나아가 여성 혐오를 규탄합니다.
8429	먹이 금지. 무시하면 되는 인셀들 오냐오냐해주니 더 재밌다고 헛소리하면서 날뛰는 것 아닌가
8430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8431	사상검증을 멈춰라
8432	환불 사태로도 안 사그라지던 게임 욕구를 단숨에 없앤 너네들 정말 재주도 대단하구나

8433	좀 토론거리라도 될 만한 사안을 놓고 얘기합시다. 치졸하고 유치한 트집 잡기로 헌법도 법률도 없는 사람들처럼 구는 생떼를 언제까지 받아줄 것입니까? 이것은 페미니즘이냐 아니냐의 문제조차 되지 못합니다. 지성 있는 시민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8434	그놈의 사상검증 좀 그만하세요. 그럴거면 일베랑 디씨 사이트도 싹 다 검사하시죠.
8435	여자도 게임하고, 여자도 돈 씁니다.. 저 메이플에 오백만원은 질렀는데… 뭐 빚내서 천만단위까진 안썼어도.. 당장 1 년동안 몇백단위로 쓰는 MVP 대리작하는 게 아닌 직접 돈써서 하는 유저인데 남자유저만 보이십니까 1 초도 안되는 장면에 무슨 혐오글을 적어놓은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장면에 아주 찾아보기도 힘든 손짓을 억지로 캡쳐해서 욕하는 건 아주 저급합니다. 회사가 그 손을 들어준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이제까지 그런 움직임을 본인손으로 한번도 안해보셨는지요… 앞으로 꼭 주먹 쥔 거 또는 핀거 외에는 그 중간 과정 없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지 생각좀 해보십쇼.. 그 잠깐만 생각을 해도 안된다는 걸 아는데 아무리 게임계에 있고 컴퓨터만 보더라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바깥바람좀 쐬고 좀 현실을 바라보세요 커뮤좀 그만보고
8436	집게 손가락은 시작부터 남초인셀들의 억지, 망상으로 시작된 결과물이며 페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상적인 손짓이었을뿐입니다. 손짓 하나에도 페미라며 낙인찍고 마녀사냥 하는 현 사태에 대해 규탄합니다
8437	남초 인셀과 넥슨이 내놓은 증거가 0.1 초 프레임에 불과하다면 그게 억지가 아니고 뭘까요? 설령 외주 업체의 직원이 SNS 에 올린 글이 있다고 해도, 그 증거가 저 억지스러운 손동작일 뿐이라면 그건 남초 인셀의 과대망상에 과도한 무게를 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438	아무것도 아닌 일에 피해의식 좀 버리세요. 피해의식으로 사상검증하는거 독재정권같아요.
8439	그놈의 손가락이 뭐가 그렇게 거슬리는지 진심을 말해주십시오.
8440	한국 게임업계라면 3N 인데 그중 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싶다면 그 답게 대표 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줬으면...
8441	부끄럽지 않습니까
8442	2015 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인지도가 올라간 이후 한국 게임업계에서 마녀사냥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것이 2016 년의 클로져스의 김자연 성우 교체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넥슨에서 시작된 일이니 이 수라장의 끝맺음도 맡아주길 바랍니다.
8443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
8444	바람의 나라, 크레이지아케이드,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등 넥슨이 만들어준 온라인 게임 속 세상에서 성별과 나이에 구애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맘껏 교류하며 행복한 어른으로 자란 30 대 여성입니다. 자라나는 딸들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445	근거 없는 억지 주장과 스토킹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23 년까지도 진행중인 마녀사냥을 멈추고 업계의 여성혐오적 관행과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다름없는 게임물의 양산이나 검열하라.

8446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불쾌함,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그렇다고한다면 게임업계는 성차별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상검증으로 여성직원을 부당해고 하고 페미니스트를 혐오집단으로 낙인찍어 이런 말도 안되는 권리를 행할 것이라면 게임업계는 사전에 남초커뮤우호적, 성차별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해당 기업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에 이용등급표시 마크와 같이 전부 표기하세요. 그런줄도 모른 유저들이 소비한 과금액을 다 환불해주실겁니까?? 여성직원을 내치고 여성유저들을 배신한. 여자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게임사! 국내게임계는 어리석게도... 해외게임에 비해 매출이 떨어진다며 징징거리기나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영리하게 대처해 유저들 챙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남초커뮤니티에 벌벌 떨기나 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어떤 유저들만 챙기려는 게임계는 서비스니 운영이니 그럴 자격없다.
8447	당산들은 썩어빠졌습니다 이제 국내 하청업체들 다 중국/일본 기타 해외 업체 안건만 하고 해외 하청업체한테 체면 구겨가며 질질 매달리는 짓거리 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가나 봅시다 한국어는 할 줄 아는 사람도 적은 고립어인데 같은 언어가 통해서 세세한 지도와 요청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 모르고 멍청한 짓 계속 하는 것도 참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디자인 원화 다 여초라고 생각나서 업신여겼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능을 영어로 보는 나라입니다 국내 업체 안 받고 해외로 튀죠 뭐 이 쓰레기 자식들아
8448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람
8449	타당한 이유조차 되지 않는 억지 행패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8450	이 문제는 비단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그림이 사용되는 모든 업계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상검증, 그리고 부당해고는 게임, 즉 여초 직군이라고 불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직군마저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수차례 일어나고 있으며 각 상업예술문화 업계가 서로 연결되어 협업하는 일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게임회사와 협업한 웹툰 작가 역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gs 편의점 사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디자인도 예외가 아니였으며, 이번 스튜디오 뿌리 사태가 일어난 애니 업계, 그리고 영상 계열에 속해있는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저 집단적 사이버 볼링을 겪는 등 이러한 그림계통 예술 작업자에게 10 년 이상이나 걸쳐서 행해지는 비이성적인 구조적 차별에 대해 이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 사태를 그저 관망한다면 앞으로도 한국이 K-예술을 주도하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8451	그냥 망하세요
8452	21 세기에 여성 사상 검열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만드시다니.. 대단합니다
8453	억지 논란에 답변해주지 마세요 좀;
8454	계속 이러면 게임 망하는 거 시간문제
8455	페미니스트는 나치가 아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행위가 사상검증의 안건이 될 수는 없다
8456	일부의 큰 목소리에 휩쓸려 시대를 보는 눈을 감지 마십시오.
8457	손가락으로 난리법석 떠는 OO 들 이야기 들어주다 망하게 될겁니다.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아시는지?

8458	책임자나 직원들이나 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 하고 싶은 말도 없다... 넥슨을 비롯한 다른 게임회사들은 해외 진출 생각 없는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티페미짓 받아주는 나라 우리나라 뿐입니다
8459	흔히 사용하는 손가락에 의미부여를 멈춰주세요.
8460	고작 손가락 동작 하나에 발작하는 걸 보니 얼마나 빈약한 자아를 가진건지 정말 하찮기 그지 없고 인간 대 인간으로 참 참담할 만큼 한심합니다.
8461	솔직히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ㅎㅎ할 말이 없네요. 한 나라의 대기업이면 기업답게 행동해주세요
8462	당신들이 누구보다 여성을 혐오하고 있다는걸 언제쯤 깨달으실까요????
8463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자기의 위치가 낮지 않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8464	비정상적인(집게손가락이 자신들의 성기를 비하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민원을 언제까지 수용할건가요?
8465	티셔츠사건 몇년이 지나도 똑같고 갈수록 가관임 니들은 회생불가다 망하는게 답
8466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혐오 행위를 규탄합니다!!!
8467	당신들이 그런다고 모두가 그럴거란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8468	극단적인 유저들의 "의견"이 아닌 "테러"를 지지하는 게임 업계는 반성하라
8469	말도 안되는 노동자 사상검증으로 불법 해고 규탄 핲니다
8470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게임업계뿐입니다. 과로사로 이슈가 되었던 게 몇 년 전이었습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주범인 게임업계는 각성하십시오.
8471	게임업계는 예전부터 여혐범벅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셀의 틈바구니에서 안락함을 느끼려하다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8472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473	부끄럽고 추잡한짓 제발 그만합시다
8474	이번 넥슨의 행보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며,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에 휘둘리지말고 상식적인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8475	먹금좀해라
8476	이런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을 하다간 끝이 없습니다. 제발 유저와의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세요.
8477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478	억지논리에 굴복해서 사회 망치는데 앞장서지마세요.
8479	게임 만드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시대 의식이란건 없는 건가?
8480	혐오하고 배척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회고해주세요.

8481	집게 손가락에 '페미니즘'과 '남성기 비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피해망상에 빠진 일부 남성과 그런 남성들의 항의를 받아주는 멍청한 기업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을 받아준 몇몇 기업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뜻으로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도 모두 페미니스트라서 그렇다고 할 건가? 일부 남성들이 스스로 전세계에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가 작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이 현실이 우습다.
8482	일부 유저들의 억지논란에 넥슨이라는 큰 게임회사가 이리도 무능한 대처를 하다니 놀랐습니다.
8483	아직도 남성만이 주 유저층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시장의 절반을 미리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할 컨텐츠 산업군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에 매몰되어 후퇴를 선도한다면 이보다 부끄러운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넥슨으로 대표되는 게임업계 전체는 어떤 것이 더 부끄럽고 옳지 못한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484	인셀들의 헛소리는 잘만 들어주고 여성게이머는 유저로도 안 본다는거 잘 봤습니다. 성차별의 선두주자 16 년 클로저스때부터 유구했군요? 고작 손가락 따위에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전히 '페미'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나요? 온갖 언어로 한국인이 비웃음 당하는 이유는 망상에 빠진 인셀들의 말을 들어주는 넥슨 여러분 덕입니다. 한국인 남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손가락 따위에 일을 키우면 키울 수록 한국인남성=손가락 이라는 뜻밖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두세요
8485	창조 논란에 더이상 동조하지 말아라! 애니메이터들 작업물을 프레임 단위로 검열하려 들지 말아라!
8486	적당히 해라... 페미니즘 사상검증 웃긴다. 게임에 정치색 이념 점검하지 말고 적당히 찌질한 주장 받아줘야지 장난하냐
8487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아닙니다. 김창섭 메이플 디렉터의 라이브 방송에서의 대처에 강경 반대합니다.
8488	손가락에 그만 집착하고 먼 미래를 보고 발전하시길
8489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셀 대표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8490	현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고 진짜 문제점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8491	억지논란을 멈춰라.
8492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혐오세력이아니다
8493	억지 주장에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8494	억지 논란이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층이 남성 유저이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추세요
8495	제발 이딴 사삼검증이 중단되길, 또 회사에서도 사상검증을 단호하게 거부하길 원합니다.
8496	부당하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신머리를 단단히 잡았으면 좋겠다
8497	그렇게가다간 쉰내나는 결말로 갈거에요 잘들 생각하십쇼
8498	정신차려라 겜업계
8499	거짓페미선동에 휘말려 멍청한짓 그만하라

8500	넥슨은 말같지도않은 남성들의 억지요구를 들어준 이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라. 페미니스트가 무엇인지 공부좀 해라!!
8501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8502	그 인셀들의 권능감과 위압감을 위해 다른 사람을 너무 손쉽게 희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얄량한 감정들을 왜 사람들 억지로 희생시켜서 풀어야 합니까? 그들은 "은근슬쩍 스리슬쩍" 하나를 걸고 넘어가 마치 모든 악행들을 정당화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쓰고 있습니다. 애초에 메갈 손가락을 넣었다 한들 그렇게 온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야 하는 것도 아닌 것 뿐더러 설사 메갈 손가락을 넣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저런 손가락들이 나온 이유로 훨씬 더 좋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명분만 댄다면 그들의 다른 사람한테 권능감을 드러내고 전근대시절마냥 폭력적으로 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굽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당신들도 공범인 겁니까?
8503	손가락가지고 난리네요
8504	넥슨의 오래된 여성혐오는 이른바 '사상검증' 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성차별적인 악습입니다. 사상검증이라는 추잡한 단어로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 일어나사는 안됩니다.
8505	인셀테러리스트한테 지지마세요..
8506	넥슨 및 게임업계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8507	페미니즘을 지지한 것이 어떻게 정치 성향인가요? 또한 페미니즘은 남성혐오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과 피해를 보는 직원이 생겨나면 안됩니다. 집게손이 페미 표식이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에 피해를 보는 일은 더더욱이 없어야 합니다.
8508	이런식의 마녀사냥은 그만둬라 다른 업계까지 손대지 말라
8509	어불성설에 가까운 유저들의 피해망상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본사에 함께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지키십시오.
8510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 꼭 영어로도 해명방송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시장도 관심 많으실텐데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손가락때문에 기분 나쁜 남성 유저들 때문에 사과문 올렸다고 꼭 말해주세요.
8511	한심합니다
8512	한국의 대표적인 E 스포츠 선수 '페이커' 이상혁 씨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점이 있기에 게임도 스포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게임문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을 게임 문화로 남기고 싶다는 것이 넥슨 및 현재 한국 게임업계의 방향성입니까?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8513	그렇게 살지 마세요
8514	또 한 명의 여성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네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 입니다.
8515	여성 혐오를 지지하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8516	성숙하지 못한 발언에 귀 기울이는 일을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억지주장에 맞추어주는 게 도대체 업계의 어디에 도움이 될지 생각이란 걸 하세요.

8517	당장은 이 문제를 쉽게 잘 해결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절대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8518	말도 안 되는 징징거림 언제까지 받아줄건가요?
8519	넥슨은 미끼를 물었다
8520	정신 좀 차려...
8521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여태까지 게임 내에서 일반 채팅은 물론, 아이템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모든 유저들이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각종 혐오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왔는데 일부 유저들이 주장하는 '집게 손' 억지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직원들을 주말 출근까지 시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넥슨이라는 게임 업계의 대기업이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8522	정신차려요
8523	게임이랑 상관없는, 유저에 휘둘리는 운영 그만
8524	억지논란을 받아주면 더 많은 억지논란이 생겨납니다.
8525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상한 선동에 휘말리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보니 탄식만 나옵니다.
8526	기가막히네요
8527	혐오는 대체 어디가 하고 있는 것인지 고심해주시길
8528	여성혐오를 중단하라
8529	업계와 기업이 발전하는 길은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가는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권, 평등, 자유, 올바름, 선의, 타당함, 배려, 협동, 상호적 지지의 편에 서는 게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8530	여성혐오(미소지니)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고통을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531	정신차리고 상식적으로 운영해라 진짜로
8532	옳은 판단을 하시길
8533	천박한 정신과 과분한 애정
8534	혐오 세력에 동조한다면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8535	억지논란을 받아주지마라
8536	이번 기회로 게임업계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에 보장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법에 대한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화학 회사 근무중인데 저희 회사에는 노동부가 직접 와서 근무 환경등에 대해 점검하는데, 업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업계는 제대로 노동법이 지켜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보호를 받길 바라며 업계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업계에 동일하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8537	여성 게임 유저가 남성 게임 유저보다 돈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538	그저 트집잡기에 불과한 악성 유저들의 억지요구에 한 사람의 창작자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당연하게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8539	업계 주류 사람들 수준보이니까 적당히 하고 정신차리세요

8540	억지스러운 특정 일부남성유저들의말을 바로 들어주기 위해서 공식이 직접 일일이 영상을 멈추고 프레임 하나하나 본 이유가 무엇인지, 공지문에 부당한 일이라고 써있던데 외국유저들을 위한 공지는 왜 안올렸는지 궁금하네요
8541	부조리함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기를
8542	건전하고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업계가 됩시다.
8543	여자한테 받은 돈 다 뱉어라
8544	억지논란에 동조할 수록 한국 게임시장은 고립됩니다 이미 고립되어 해외 유머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8545	이젠 정말로 세상을 돌아보고 정신차릴때입니다.......
8546	넥슨은 소아성애 남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보호하는 반면 하청업체의 여성 애니메이터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8547	페미니스트가 뭔지는 아시나요? 페미니스트가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성이 남성과 차별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용어좀 제대로 이해하고 욕을 하던 뭘하던 하시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혐오발언들에 대해서 생각좀 해보세요 저는 여성이 왜 피싸개이고 여성은 왜 남성보다 급여가 낮아야 되고 차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었보다 남자 고추에 관심 없어요;;; 아니 일명 메갈손은 평소에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손인데다가 진짜 메갈손이라고 해서 님들이 받는 피해는 무었인가요? 여성이 숏컷만 해도 때려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셀들인데 정작 자신들이 받은 피해는 없다니까요? 기분상해죄에요? 여기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넥슨은 진짜 혐오가 뭔지 다시 생각하시고 혐오없는 게임을 만든다는 말은 하시지 마세요. 이미 당신들의 행동으로 메이플과 기타 게임들은 혐오게임임이 증명됬습니다. 아니 남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소수의 디씨 인셀들이 문제인건데 이걸 왜 받아준거고 그걸로 몇명이 피해를 보는겁니까...
8548	그 어떤 사상을 지녔더라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먹잇감이 되어 물어 뜯기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정녕 이게 21 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마녀사냥인가요? 이러한 선례가 남게 되다니 앞으로 한국 게임이라면 믿고 거르는 인식이 박히게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남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적인 벼슬이 아닙니다. 직원의 신상을 털어가며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법적으로 대응하여 직원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피해 직원에게 사과문을 올리게 압박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사상을 부정하게 만들며, 부당하게 해고를 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의 구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넥슨 측의 대응에 정말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8549	작작하세요 대기업이 뭐하는 짓입니까
8550	진심으로 손가락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안되는 논란에 회사 리소스 쏟지마시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8551	왜그렇게 멍청한 사과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8552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 조성해라! 인셀만 게이머냐??
8553	인셀들의 비위를 맞추는게 게임 개발과 관리보다 중요하십니까?
8554	여성유저는 소중한 유저가 아닌가요? 남자유저의 억지와 징징거림만 소중한 게임따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여성유저가 존중받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미래는 어두울 겁니다.

8555	블랙컨슈머들의 억지논란에 넘어가 한 사람의 생계를 빼앗는 행위는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떳떳한 운영을하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업계에 이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8556	집게 손가락은 단지 집게 손가락일 뿐입니다. 이것을 당신네들을 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세운 것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그것에 통감하며 페미니즘을 단순한 남성 혐오 사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페미니즘의 실제 의미부터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게 손가락 제스처를 행한 캐릭터나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남성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보이는지 어떤지 당신네들이 어떻게 아세요? 무슨 독심술이라도 쓰시나요? 누가봐도 남성들이 억지를 부리는 건데 무시는 못할 망정 해당 애니메이터 일자리를 자르게 하고 손가락 모양은 전부 삭제하시겠다고요. 타국의 애니메이션 작화부터 좀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작품들도 전부 다 남성 혐오 작품이던가요? 남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성 유저들이 욕먹는 것은 그리도 두려워하면서 여성 유저들이 욕먹는 것에는 상당히 관대하시던데 그런식으로 하실거면 처음부터 당신들의 고객층에서 여성을 제외하지 그러셨나요. 실제로 남성들의 손가락 억지와 악플때문에 여성이 목숨까지 잃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또 저희 여성들만 기억하는 일인가 봅니다. 기분권으로 남의 생계 가지고 장난질하지 마십시오, 국제적 망신입니다.
8557	실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마녀사냥으로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게임 업계가 겉으로나마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8558	제발요
8559	억지 논란을 만들어 여성의 생계를 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악습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560	사회와 정반대로 가는 말도 안되는 걸 들어주는 회사는 망하는 게 맞다.
8561	성차별이 만연한 그쪽 산업군 언제까지 가나 보겠다
8562	어느 한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은 지양해야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쓰이는 동작에 대해서 스태프가 페미니즘을 지지하니 혐오 표현이라며 단정짓고 그 동작이 들어간 모든 창작물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과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베에서 자주 쓰는 말투인 '~노' 라는 말투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베를 한다고 단정, 그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검열하고 그를 일선에서 배제시킨다는건 단순 마녀사냥에 불과합니다. 또한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가 아니며 검열 받아야할 사상이 아닙니다. 만약,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숏컷 머리를 했다고 해서 숏컷이 곧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되고, 숏컷이 들어간 모든 매체가 곧 남성 혐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넥슨은 이 또한 받아들일 건가요? 얼마전 숏컷을 한 여성을 페미니스트라며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편협한 사고로 혐오라고 단정지으며 한 개인을 낙인찍는 행동이 이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넥슨의 행보는 이 사건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8563	비대한 자아를 직시하세요.
8564	억지를 다 들어주는게 능사가 아닐텐데요

8565	게임회사는 노동법 밖에 있는것 처럼 행동하는것에도 질렸습니다. 페미니즘을 반사회적 사상으로 호도하는 동시에 여성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업계를 규탄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남성들의 마녀사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들에게 혐오를 공개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기회를 준 것을 비판합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루머와 인신공격, 성차별적인 혐오 표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여성 노동자를 화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일부 여성 노동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상검증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sns 에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혐오 표현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개인 sns 의 정치적 발언이 권고사직의 이유가 되는것이 끔찍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 업계가 2023 년을 살아가는것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절대 이번 일을 경시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사상검증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연대를 표합니다.
8566	블랙컨슈머에게 항복하는 것은 악습입니다.
8567	용사님들의 인터넷 속 개소리에 현실사는 여성의 일자리를 강탈한 넥슨 및 게임업계는 현실에서 많은 비난을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8568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여성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그 말을 수용하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8569	질이 안 좋은 남초 커뮤니티 유저의 억지 의견을 수용해서 여성의 생계를 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21 세기이고, 넥슨은 위치에 걸맞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8570	대기업으로서 이런 선례를 남긴게 부끄러운줄 아세요. 이 행동 하나로 앞으로 관련 업계에 얼마나 큰 제약이 걸릴지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해외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8571	몇년째 게임 운영 원칙도, 밸런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단순한 자극적인 여론 선동으로 유저들을 갈라치기하며 시선을 돌리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8572	있지도 않은 논란을 억지로 만드는 일부 유저들의 말에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과 성차별로 직원을 해고하고 하청업체에 갑질을 부리는 행위가 역겹다. 시대에 벗어난 행동은 그만 두고 정신 좀 차려라.
8573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것을 스포츠처럼 즐기는 일부 남자들과, 페미니즘 혐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기업 결정권자들을 규탄한다.
8574	정신 좀 차려라..
8575	넥슨과 게임업계는 억지 논란과 사상 검증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를 구제하라!!
8576	과거 메이플스토리는 여성 캐릭터를 통해 수많은 여자 아이들에게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강한 힘을 지니고 싸울 수 있으며, 용사로서의 자격을 남성과 평등하게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보는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그와 같은 꿈과 희망을 얻었던 여성들을 배반하고 수치스럽게 할 뿐입니다. 넥슨은 더 이상 여성의 추억을 더럽히는 페니미즘 규탄 행위를 멈추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8577	정신 좀 차려라

8578	게임 내에 여성유저에 대한 온갖 성차별적 표현,성희롱,고인모독 등은 방치하고 그것으로도 모잘라 성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한 메이플 유튜버들을 크리에이터로 선정해 그들에게 혜택까지 제공했으면서 '타인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메이플 게임을 유린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게 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진짜 혐오와 남성차별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마우스를 쥔 손모양도 스마트폰을 쥔 손모양도 전부다 집게 손인데, 넥슨 및 게임업계의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숨쉬듯 혐오 표현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8579	여자는 사람입니다. 페미니즘은 동등하게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580	정신차리세요
8581	혐오가 없는, 성별과 나이에 제한 없이 모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나가고 싶다면서 정작 혐오가 만연한 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터무니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제발 세상 밖의 목소리를 듣고 건강한 게임업계를 만들어주세요.
8582	기업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8583	게임업계는 지속적으로 여성유저 및 여성개발자를 배제해왔다 이런 폐쇄적인 남초 문화의 자정대신 여성 길들이기를 택하는 지속된 행태는 퇴보이디
8584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점인 비판적 사고능력을 잃는다면 동물과 다를바가 무엇인가? 문제점을 못 느끼고 징징거리기에 바쁘다면 도태되어 마땅하다. 여성들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로 보여줄 것을 장담하는 바이다.
8585	부디 일부 키보드워리어들의 혐오놀이에 휘둘려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의를 읽고 직시하세요.
8586	말도 안되는거로 트집 좀 잡지마세요 대기업씩이나 돼서 일부 단체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휘둘리는꼴이 참 한심하네요
8587	이번 일을 빌미로 규탄을 하게되면 앞으로 모든 업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집단적 착각의 억지를 들어주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도록 바랍니다.
8588	이번 기회에 넥슨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 사상검증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8589	게임업계는 어처구니 없는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페미니즘은 범죄가 아니다.
8590	진짜.. 대화는 인간이랑 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8591	최소한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592	집게손가락 모양이 남성혐오라고 착각하며 우기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에 장단 맞춰주는 기업들로 인해 여성 창작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을 받으며 언어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특정 손가락 모양이 남성비하라는 주장은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사실이고 사실무근한 일이나 기업들이 억지 주장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여성혐오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개발자, 여성 창작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전인 10 월 중순에서 11 월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공식 오프라인 2 차 창작 행사인 '던파 플레이마켓'에서 공식 측이 참가 유저들의 SNS 를 수집하여 검열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자신의 SNS X(구 트위터) 개인계정에 행사 진행에 관한 비판을 하며 일러스트의 수정된 손가락 모양(현재 이슈와 같습니다. 집게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모인 이미지가 손을 편 형태로 수정됨.)에 대해 의문을 표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며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글을 올린 유저는 게임 내에서 다수의 유저들에게 차단을 당해 비매너 유저임을 표시하는 게임 내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이 칭호를 가진 유저는 게임플레이에 지장이 생기는 패널티를 받게됩니다. 게임 내에서의 비매너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게임 외부에서 페미니스트 혐오몰이를 당해 게임 진행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 뿐만이 아닌 게임을 즐기는 유저 역시 혐오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기업이 일부 유저들의 목소리에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힘을 실어준 탓에 자사 직원과 유저들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문의 림버스컴퍼니 일러스트 중 수영복 사건으로 일부 유저가 회사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회사가 외부인을 흔쾌히 사무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겐 보안상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습니다. 선례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일부 유저가 닫힌 스튜디오 뿌리 사무실에 방문하는 연속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진이 SNS 글에 첨부되는 등 직원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여성혐오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몇 번이고 발생할 것입니다. 직원을 비롯한 유저의 안전도 더욱 위협받고 위태로워지며 혐오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 여성인권 역시 악화되기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초래한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8593	비굴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8594	억지 논란을 수용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거나 개인의 사상을 억압하는 일을 규탄한다
8595	뻔히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하는 펨코남들의 억지 주장이란 걸 알면서도 그것에 동조하는 당신들의 책임도 크다. 넥슨 게임 10 년 넘게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패드립, 여성 혐오 발언, 여성 관련 성추행 쌍욕들은 묵인했으면서 루저 남성들의 망상 억지 떼쓰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동조한 넥슨은 평생 불매뿐이다.
8596	검증도 없이 헐레벌떡 사과문 내는 모습을 보니 게임업계를 떠났던 과거의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일 없게 못 박아준 넥슨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양성평등주의를 위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후퇴시켰으며,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특히 게임업계에서 재능을 펼칠 꿈을 꾸던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생각의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8597	역겨워서 업계를 떴습니다. 게임업계 내의 자정작용은 필수입니다.

8598	사상같은거 관심도없고 일 끝마치면 조용히 좋아하는 게임만 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별거아닌 사건 하나로 모든 게임 게시판에서 남자들은 여자가 혐오스럽다느니 잠재적 페미라느니 , 게임업계는 게임을 많이 즐기는 [남성]유저 들이 불매할까봐 사과문에 라이브 방송에 ... [여성]유저는 그냥 100% 페미니스트에 무과금이니까 아예 불순물 취급하는건가요? 손가락이고 뭐고 혐오고 뭐고 그냥 다들 조용히 서로 좋아하는거 하고 살면될텐데 왜 가만히있는 사람도 덩달아 욕을 들어먹어야하는건지 왜 저는 [유저] 취급도 못받는건지 ... 왜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된건지.. 제가 이제껏 질렀던 돈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 대형게임사에서 이런식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대처했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8599	근거없는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를 이유로 사상검증을 실시하고 노동자를 부당해고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도 부족한 회사가 발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투표권 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정 집단을 차별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본인이 차별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8600	단순 수익구조나 논란중재의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자각했음 합니다.
8601	말도 안되는 사상 검증을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동참하는 넥슨 및 게임업계님들 제발 좀 정신차려라
8602	정신 좀 차리세요.
8603	들어줄 가치가 없는 징징거림을 굽신거리면서 들어준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8604	게임업계내 여성혐오 stop. 억지논란을 규탄한다
8605	개인의 인권을 지켜줘라

8606	혐오'도 참 별 게 다 혐오랍니다. 그렇게 함부로 쓰일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손모양이라도 여러 문화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니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그건 단순 특정 집단의 '오역'과 '억지'와 '기분'에 맞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혐오"로 다가가 상처 받고 피해를 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페미니스트 집게 손이요? 하물며 한국 남성의 성기의 모양이 작다는 것을 희화화한 페미니스트들의 혐오 표현이요? 때와 장소 세계를 막론하고 누구나 써왔고 쓸 수 있는 동작입니다. 분명 당신들도 그래왔지 않던가요. 집게손 논란이 처음 수면 위로 대두되기 전에는 단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제와서 혐오를 위한 혐오를 내걸며 그런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무도하게 짓밟고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서야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저 평등하게 살겠다는 생존 의지마저 혐오이며 규탄받아야 할 사상이라 정의내리면, 당신들에게 평등이란 대체 무엇으로 정의됩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항의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핑계를 내걸고 지금껏 무고한 여성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모셨습니까? 사상 검증 따위가 필요했다면 입사 전에 한 번 물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이 참에 아주 정치적 성향도 잘 맞는 남성만 갖다 뽑으시지 그러셨습니까.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혐오를 가하고 있는 건 어느쪽입니까? 애초에 시작한 건요? 페미니스트는 왜 생겼습니까? 이 사달을 내고서는 아직도 페미니스트가 문제다 싶으십니까? 소비자를, 여성을, 당신들이 모르는 세계를 물로 보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십시오. 당신들의 혐오가 일을 어디까지 키웠는지.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8607	대기업은 말도 안되는 억지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먹금이라도 하란 말입니다.
8608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굳이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8609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당신들이 모른체하고 무시해봤자 외국이 알고 세계가 알고 우리가 안다. 여성들은 아무리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여태 그래왔듯 일어서서 악습을 뒤바꿀것이다.
8610	사상검증 및 혐오몰이를 그만하라.
8611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앞으로의 게임과 애니메이션 업계의 미래를 생각하여 일부 유저들의 억지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8612	여성인 만큼 단 한순간도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란 여성인 내 자신을 사랑하며 성평등주의와 같은,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가 페미냐 물어도 당연한거 아니야?라고 바로 답할 정도로 페미니스트란 생각이 있지만, 남성의 성기를 비하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페미가 그런게 아니다 혹은 그런거라도 여성을 깔아뭉개야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가 된다고 믿고 금번 사태를 일으킨 넥슨 및 그런 사상이 만연한 한국 게임업계 관계자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것이란 기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진지하게 일반적으로 쓰여서 심볼인지 아무도 모를 손 모양을 비하의 심볼로 삼았다고 믿겠습니까. 일베 손모양 정도 되어야 인식을 하지 손에 힘만 빼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손모양으로 뭘 드러냅니까 남들이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데요. 집게손이 성기크기를 조롱한다는 의미를 갖는것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누군가는 썼다고해도 페미니스트의 99.99999 퍼는 알지도못했던 겁니다. 그게 정말 비하의 상징성을 띄었다고 알려진 것은 일베 손동작을 문제삼는 여성들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남성들이 선동하는것에 일부 기업이 반응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임업계분들이 진짜 그 사실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면서도 본인 자신들의 혐오와 차별사상을 표출하며 여성의 설 자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일텐데요. 스스로 자신들을 조롱받을 위치로 몰아넣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페미니스트들을 키우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8613	혐오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고민해보세요.
8614	제발 제발 인셀남들 찡찡거림 더이상 들어주지 말았으면.
8615	한국 게임 망할 것이다
8616	여성혐오와 사상검증 그만 좀 하세요 추합니다
8617	개인 sns 에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해고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지만, 이번 논란은 아예 사상을 표현한 문제도 아닌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사람 손을 옆에서 보면 당연히 엄지와 검지만 보이는 형태가 많고 그렇기에 메이플과 같은 sd 일러면 주로 그 손을 그리게 되는데 엄지와 검지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레임 한컷만으로 불온한 사상을 표출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연필 잡는 모양이나 마우스 잡는 모양도 뭐라하실 셈입니까? 엄지와 검지를 쓰지 않고 창을 쥐거나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번 결정사안은 앞으로 모든 일을 더 번거롭게 하고 해도 되지 않을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영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총괄 디렉터마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라이브로 입증한 것마저 무척 안타깝고 현명하지 못했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8618	여성의 사상만 검증 하지말고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8619	진짜 대기업 맞나요?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8620	부디 직원을 보호하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사람과 사람,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책임이자 도리를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8621	니들이 그 정신나간 집단을 꾸역꾸역 받아준 결과다. 이 상황이 마음에 드냐?
8622	국내 3 대 기획사로 불렸던 넥슨이 왜 아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겠다.
8623	넥슨 수준이 이정도였구나.

8624	눈앞의 컴플레인에 급급해하지말고 제발 무엇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주세요.
8625	피해망상이 대단들 하시고요... 여성유저 버리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8626	게임 업계의 여성혐오 문화를 규탄한다.
8627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합니다
8628	한국에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넥슨에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떼쓰기에 가까운 행태에 사과를 하며 옹호하는 행위 매우 꼴사납습니다.
8629	제발 어이없는 이유로, 억지주장으로 사람 밥줄 끊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8630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규탄한다.
8631	뭔 말같지도않은걸로 페미니즘몰아가고 그걸 게임사에서 잘못했다고 공지올리는게 제대로된 대처인가요??
8632	인권과 기본권을 위한 움직임을 막기위해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페미니스트의 음모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차별이다, 음모가 맞다며 받아들이고여성의 사상을 검증해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이라는 여성차별적인 행보를 보여주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8633	제발 말도안되는 헛소리좀 그만 듣고 사건의 근원지인 그 커뮤니티(인벤)에서 떠들어대는 더러운 성희롱이나 좀 제지해주세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글 몇개만 읽어도 혐오라는건 이런걸 혐오라고 하는거구나 느낄 수 있을정도 단어선택이 많이 저급합니다. 그렇게 억지부리는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임들은 여성혐오로 가득할거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커뮤니티에 이미 속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말들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건 처참하네요 ㅎㅎ
8634	여성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8635	손가락 모양에 성별 정체성에 위협을 당하는 멍청이들 의견에 휩쓸릴 시간에 더 좋은 게임(기대할 수 있을까 싶지만)을 만드는 데나 더 집중해주세요. ..
8636	작업자로서 굉장한 탈력감이들고 이대로라면 한국 게임업계는 망할거라는 확신이 들어 제 주변에도 탈업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양질의 작업자는 모두 빠져나가고 후퇴한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침몰할겁니다.
8637	대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회사들의 얼토당토 않은 논란 만들기에 어이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개인의 사상(심지어 현재 논란이라고 나오는 사안들은 다 억지임)으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만 현 사태를 만든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8638	성평등이라는 당연한 가치을 지향하는 페미니즘을 혐오행위로 왜곡하고, 바로 그 혐오행위를 하는 목소리 쪽에 응수하고 심지어 확장하며, 협력사에 압박을 가하고 가장 약한 일개 직원의 해고를 유도하여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하는 넥슨의 행보에 크게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8639	억지논란 및 혐오몰이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8640	사상검증으로 인한 여성 차별을 그만해주세요
8641	상식이하의 요구를 받아주다니 부끄러운줄 알아라.페미니즘은 핑계일뿐 당신들이 하는짓은 망상과 집단 괴롭힘일 뿐이다. 기업이 개인을 괴롭히는데 앞장서지마라!

8642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게이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임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랍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느냐 망치느냐는 한끗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643	여성 유저도 사람으로 봐라
8644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한다
8645	국내게임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즘을 한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에게까지 사상검증을 하며 압박하는것이 옳은일이라 보십니까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에 넥슨의 여러 게임도 즐겨 했던 유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형이 된 것은 넥슨의 게임을 하면서 난무하는 여성혐오 표현들이 보기 괴로워서였습니다.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는 방관해 오다가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에 남성혐오를 갖다 붙여 갑질 하는 행태가 OECD 가입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것이 놀랍고 과거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성우를 해고한뒤로 전혀 발전하지 못한 기업이란것에도 경악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들이 전세계에서 반응 얻는 반면 왜 게임만 성과가 미미한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업계만 시대의 흐름에 타지 못하고 역행하는데 해외에서 성공할리가요. 게임 강국인 일본의 한 회사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인종차별 및 성차별 등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더군요. 업계를 리더하는 능력이 없다면 흐름을 따라가려는 눈치라도 보는것이 회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글로벌화를 거부하고 국내의 일부 충성층만 잡는 것이 설마 넥슨의 모토는 아닐것 아닙니까
8646	혐오를 조장하는 게 누구인지 어떤 집단인지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8647	논리도 없는 어거지에 그만 휘둘렸으면 합니다.
8648	넥슨의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있던 여성유저로써 실망이 큽니다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8649	나는 그냥 게임이 좋은 여성유저일뿐이다. 당신들이 인셀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들어줄 때마다 게임을 좋아하고 싶은 나는 이렇게까지 게임을 좋아해야하나 회의감이 든다. 남자는 유저고 여자는 유저가 아닌가?

8650	악성 민원을 만든 사람들은 집게손가락이 실제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작업물을 검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외재적으로, 그 손동작에는 페미니즘적인 상징성이 없습니다. 메갈리아는 수년전 메르스 전염병이 유행되었던 단시간 운영된 후 폐쇄되었기때문에 로고 또한 구색일뿐 사이트가 있을 적 그 손동작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표출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영상작품의 내재적으로도 그 손동작 자체가 혐오의 의미를 내포하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동작이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다른 수많은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작임에도 하필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문제의 본질이 손동작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sns 를 사찰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시작된 꼬투리잡기식 보복성 테러임을 시사합니다. 직원의 sns 가 선행되어야하는 사건의 전후관계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넥슨과 스튜디오 뿌리는 악성 민원에서 작업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토요일 주말에 시작되었음에도 넥슨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가 이미 강경한 수준인것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판별할 수 없이 고여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후 스튜디오 뿌리의 2 차례의 걸친 사과문과 작가의 처우에서 해당 문제로 가해지는 내외부적인 압력이 통감됩니다. sns 에서 네티즌들이 '한국게임은 엄지와 검지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저주에 걸렸다'는 우스개소리처럼, 표현의 자유마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창작자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할것이고, 이렇게 생긴 경직된 분위기는 향후 산업의 생산성마저 저해합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이며, 업계 외부에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8651	끼리끼리 사이언스. 현실을 살아라.
8652	말도안되는 억지논란에 부랴부랴 사과하고 애꿎은 사람들 잡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8653	북한에서나 할 법한 사상검증 그만하고 겜이나 잘 만들어라
8654	이러한 게임업계의 논란 수용 방식이 억지와 조작이 아니면 여성을 밀어낼 수 조차 없다는 남성의 무능력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655	일부 유저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들어주기 위해 노동자를 잘라낸다는게 말이 되나요? 한국 게임 업계에서 희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명에 참여합니다.
8656	중국도 아니고 사상때문에 해고한다고요 23 년이 맞나 심히 의뭉스럽습니다 그리고...안작으면 될일...아닌가요..?
8657	여성도 사람이고 고객이고 소비자다. 갖은 이유를 다 대어가며 여성혐오를 정당화하지 마라.
8658	무분별한 혐오몰이와 여성차별을 규탄한다
8659	일부 여혐론자들이 펼치는 억지논란에 편승하지말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8660	흔히들 '먹이 금지'라고 하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견(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주장)에 아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는걸까요.

8661	평생 말도 안 되는 궤변 들어주다 망하세요.
8662	억지트집으로 인셀들이 난리치는거 그대로 따라가는거보면 결국 그나물에 그밥인거겠죠. 성인지감수성도 최하, 게임에 도박적 요소 집어놓고 확률조작하기 유저기만 겜오류건의 하는건 잘만 무시하시더니 이런것만 골라서 신경쓰시네요 뭐? 혐오를 배제를해? 게임하는 여자들이 겜속에서 겜밖에서 남자들이 무슨욕을 들어도 제제안하더니 인셀이 그냥 여자하나 매장하겠다고드는건 화들짝 놀라서 남혐은 나쁩니다! 그래서 저거 놔뒀자나요하면 그제서야 모든 혐오는 나쁩니다하는 거보는거도 하루이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유저 떨어져나가면 맨날 여자가 겜하는거 신기하다고하고 여자는 겜 안한다고하고 여자는 겜에 돈안쓰고 남자는 겜에 돈쓰고 남자는 겜한다고 하지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가세요 있는 서버도 다 부숴트리기전에
8663	본인들이 만든 열폭 신기루에 쉐도우복싱 헛발질 그만하고 이제 현실 인생을 사세요. 님들이 두려워하는 "페미"들은 그런 은밀한 상징놀이나 할만큼 한가하지 않답니다.
8664	피해의식에서 비롯한 진심인지, 그저 놀이처럼 즐기는 마녀사냥인지.. 페미니즘이 누군가를 혐오한적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당신들 마저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손모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억지로 논란을 생성하여 그저 ‘여성’에 한정지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게 납득이 된다면, 자신의 수준을 돌아보기시 바랍니다.
8665	노동자들 사상검증 및 신상 캐내기를 멈추십시오. 지금은 21 세기 입니다.
8666	억지로 만들어진 논란에 그만 장단 맞추시고, 여성 유저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8667	페미니즘은 분명 그저 여성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일일 뿐인데 애니메이션에 정말 잠깐 잘 보이지도 않는 프레임에 나온 손가락이 페미니스트 애니메이터분이 그렸을수도 있으니 분명 혐오적인 메세지일거라는 의심을 인정해주고 페미니즘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설명하지 않은체 혐오와 동일시 하며 애니메이터 분을 잘라내며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하는 인간들의 손을 들어줬다는게 너무 화납니다.
8668	비정상적인 사안을 비정상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느 현실에서 남성들이 작은 성기로 놀림받고 혐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논란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논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떠한 근거로 집게 손가락이 작은 성기와 연관이 되고 그 손짓으로 어떤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669	논란거리도 되지도, 될 필요도 없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업계 중 하나인 넥슨이 진지하게 대응한다는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8670	무려 환불사태때조차 유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트럭시위를 보내고 나서야 간담회를 열었던 메이플. 집게 손가락(1 초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짧은 순간, 그 후의 동작을 위해 사람이라면 필수로 들어가는 포즈)이 혐오표현이라며 해명하라는 억지는 하루도 아닌 단 몇 시간만에 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추억이 가득한 게임은 이토록 이상하고도 추잡한 게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불법" 촬영 반대 글을 공유 했다는 것이 직장이 잘릴 정도의 일일까요. 오히려 이 사람은 "불법"을 반대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집게손가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집게도아님)로 사람을 자른다는 일이 어떻게 2023 년에 일어나나요? 집게손가락이란 이유로 자른 사람들은 앞으로 팝콘을 먹을 때도 작은 물건을 집을 때도 집게손이 아닌 손가락으로 음식을 관통시켜 꽂아 드시길 바랍니다.
8671	넥슨은 여성 직원을 혐오로부터 보호하라
8672	사업접으세요
8673	다른 성별도 사람이고 국민이고 유저고 노동자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라 입맛대로 대처한거겠지만요
8674	사상검증이란 불확실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멋대로 갈라치기하지마세요
8675	페미니즘을 오독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집게 손가락이 페미니즘의 상징이라는 조작된 선동에 놀아나서 부당해고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안티페미니즘은 성차별에 동의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성혐오가 만연하고 여전히 차별적인 시야를 견지하는 게임업계야 말로 내부 자정을 통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8676	현재 게임업계의 반응은 타당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논란을 확대, 점화시킬 뿐만 아니라 진짜 혐오로 판을 키우고 있다. 시정하라.
8677	1. 여성 노동자들은 일베 사상을 가진 이들처럼 본인의 작업물에 자신의 사상을 넣지도 않을 뿐더러 남성의 성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손가락 모양을 그런 혐오적 의미로 소비하는 것이 불쾌합니다. 2. 의도가 담기지도 않은 손가락 모양 때문에, 흔히 사용되는 집게 손가락 모양에 여성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닌 남녀평등주의 입니다. 일베처럼 고인, 지역 혐오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주의를 외치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손가락 모양은 페미니즘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의 성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8678	사상검증 어쩌구 하지말고 정신좀 차리시길
8679	말도 안 되는 창조논란, 억지논란으로 업계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을 멈춰라. 본인들의 피해의식이 문제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라.
8680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8681	앞으로 모든 캐릭터는 손이 일자로 뻗어있나요
8682	시대착오적인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8683	망상적 악성민원에 휘둘려 비이성적인 운영을 일삼지말라는 충고를 남깁니다.
8684	이용자는 말도 안되는 떼쓰기를 할지언정 기업은 기업이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와 기준, 법이 있습니다. 기다렸다는듯 두 팔 벌려 피드백하는 것은 기업의 체신을 내다 던지고 저 의견에 동조라는거라 봐도 무방하겠죠?

8685	응원하던 회사였지만 커뮤니티 의견에 휩쓸리는 태도에 실망했다.
8686	할 말이 많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그 어떤 사유라도 범죄가 아닌 이상 부당 해고는 있어선 안 됩니다.
8687	소모적이고 유해한 특정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정은 이제 그만 두어야할 때입니다.
8688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게임업계의 여성혐오가 근절되고 성은 평등하다는 의식이 제~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8689	그냥 무시하면 아무일도 아닐걸 사서 키우시네요. 집게 손 모양은 아주 오래전 부터 사용한 모양인데, 그걸 페미니 남성혐오니 왜 ,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무슨 이유로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는 이 없는데 그걸 페미니 어쩌니 ... 직원들 사상검증은 왜 하는겁니까. 노동법은 왜 무시하나요. 사상이 이런들 저런들 그게 나치와 견줄만한 사상인건가요? 한심합니다
8690	남성들의 억지논란으로 일개 직원에게 사상검증을 요구하며 해고를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차별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691	부당해고 규탄한다
8692	게임문화 속에서 여성혐오를 멈추고 페미니즘 몰이를 그만하세요. 손가락 모양이 남성혐오라는 말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들의 혐오 주장에 계속 반응하는 것은 더 일을 키우는 것 같네요
8693	말도 안되는 억지논란에 사과하지말고 동조하지도 마라
8694	사행성 규제하는만큼 선정성도 규제해라ㅡㅡ
8695	일부 유저의 창조논란, 떼 쓰기에 사과할 게 아니라 그 말도 안되는 창조 논란으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정당한 노동자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8696	남혐에 반대한다면서 페미니즘을 혐오로 둔갑시키는 넥슨 및 게임업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8697	게임업계를 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무너진다. 앞으로 말도 안되는 것으로 노동인권이 말살될 것
8698	뭣이 중헌디
8699	게임업계 여성혐오를 규탄합니다
8700	여자들이 일상생활 살기도 바빠죽겠는데 누가 뭔 남자들 성기 크기에 그렇게 큰 관심 가진다고 (자아감이 지들 비만율마냥 비대해서는) 일일이 창조 논란 만들어서 악마화하고 마녀 프레임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상이 문제라면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향한 성희롱적 시각이나 고칠 것이지, 수많은 게임에서 여캐는 거의 헐벗겨놓고 모른척하는 주제에, 고작 집게손가락 하나에 들고 일어나는 꼴이 너무 하찮고 기가 막힙니다. 저걸 사상몰이하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8701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게임업계는 여성 직원만 골라내 사이버린치를 가하는 집단에 굴복하지 말고 노동법을 준수하십시오!
8702	일부 남성들의 억지주장에 선동당해 여성직원만 공개처벌하는 행위로 뭘 전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행태억 반대하는 여성유저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시나요.
8703	페미니즘이 대세다!
8704	집게손이 진심으로 남혐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나..?

8705	여성 게임 업계인입니다만, 여자라는 이유로 페미니즘 이슈에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에 대한 면접질문을 받았고 이래서 여자는 안된다는 식의 면접관의 태도를 몇번이나 겪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게임업계에 만연한 혐오몰이 중 하나입니다.
8706	사상검증은 반드시 범위를 좁히고 좁혀 모두의 안위를 위협할 것이다. 강건너라도 옮겨 붙는 불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
8707	일부 남성 회원들의 억지 논란으로 휘둘려 한두번도 아니고 창조 논란 논쟁으로 번진다는게 우스워보입니다
8708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에 놀아나는 기업이 너무 우습고 그에 따른 노동자 차별을 멈춰주세요
8709	망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8710	2016 년, 첫 사상검증 공론화으로부터 7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자를 쉽게 버림패로 삼는 게임 회사들, 이제는 그 안일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8711	멍청한 짓 그만하고 업계에 민폐 그만 끼치세요
8712	정신 차려라
8713	너네가 책임못지는거 힘없는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지말고 적당히 해라
8714	넥슨 및 게임업계는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추고,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동참하지 말아야한다!
8715	현 사태를 보며 지금이 2023 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 알고 있었는데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성평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일어났다는 게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을 들어주는 기업들이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8716	사상 검증 할 거면 법적 대가도 치르길
8717	책 좀 읽고 삽시다.
8718	이러한 일이 생길 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익명으로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글에 반응해서 주말 새벽 할거없이 근무하게된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8719	억지논란, 징징글 들어줘서 피드백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갔으면서 엄한 여자들 욕이나 하지마세요
8720	망해버리세요
8721	터무니없는 일로 여자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8722	상식을 가지고 삽시다.
8723	그릇된 사상검증과 부당한 갑질 및 해고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구제와 보상을 해라
8724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8725	제정신이 아닌거같아요. 저 말도 안되는 주장에 동의했다는거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게 아닌가요.
8726	극성 유저의 어그로성 분탕에 놀아나 게임업계 노동권을 훼손하고 서브컬쳐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가게 한 당사의 노고에 심히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8727	앞으로 만드는 모든 캐릭터는 검지와 엄지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빛이나 연기의 모양이 불행하게도 집게 모양을 가지게 될 수 있으니 모든 이펙트도 제거해주세요 넥슨처럼 한국게임을 이끌어가는 회사가 이정도 요소들을 제거한다고 게임을 못 만들지는 않겠죠?
8728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하던 사소한 손동작이 논란이될거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이번기회에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이 논란이될수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729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게임' 을 표방하며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수많은 여성 창작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없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에 앞장 선 모순적인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부당하고 거짓된 의견만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임업계는 결코 길게 이어질 수 없다.
8730	넥슨은 앞으로 망할것이다.
8731	투명페미 패는짓은 멈추고 자기 할일이나 잘들 하시길
8732	힘겹게 게임 문화나 사업을 대중화시키면 뭐합니까. 넥슨을 비롯한 대기업 3 사가 다 망쳐놓는데. 인식 나쁘게 만들고 후발주자 및 중소기업 괴롭히기도 모자라 본사 직원까지 억지로 해고시키고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8733	사람답게 삽시다
8734	말도 안되는 떼쓰기 좀 들어주지마세요.. 직접 작업한 사람들이 더 잘 알텐데 상식선에서 회사가 운영 되어야지요?
8735	실체없는 허위담론을 멈추고 세상의 발전을 위해 나아갑시다.
8736	일부 악성 민원에 저자세로 대응하며 직원과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업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된 해당 장면은 악의적이지 않은, 애니메이션의 동화 한 컷이었음에도 넥슨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스튜디오는 해당 작업자의 퇴사를 처리해주는 등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남성 혐오 세력들은 남성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습니까? 실존하는 무고한 여성들은 사상검증으로 인해 직장을,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잃고 각종 모욕을 당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보장받아야할 헌법이 존재함에도 자신의 성별로 인해 이러한 대우를 받는것이 타당합니까?
8737	여성탄압그만
8738	인터넷 유저들의 단순 물타기로 인해서 한 직원을 부당해고 시키는 부끄러운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8739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손가락이 뭐라고 자기들은 평생 그 포즈 뛰어넘고 손 구부리고 필건가. 진기명기에나 나가던지... 애초에 페미니즘을? 혐오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이 인권 차별주의자라는게 자랑스러울 일이 아닐텐데 말이에요.
8740	적당히 좀 하쇼 그렇게 징징대는거 다 받아주니까 버릇을 못 고치지
8741	해당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8742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사생활이 뭐가 중요하고 사상 검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8743	아니 개인 sns 뒤져서 일자리를 짜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8744	억지 논란 멈춰주세요
8745	사과해라

8746	진상들의 쓸데없는 소리만을 귀기울여 들어주면 기업의 이익구조와 운영, 노동자, 소비자,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도 추락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8747	집게손 망상 좀 멈춰라.
8748	특성 성별 혐오의 표현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의 혐오 표현입니까 또 그 표현이 혐오라고 정의한 곳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특정 성별 혐오 표현을 수정하기까지 이렇게 빠른 넥슨은 사내에 장애인 사원은 몇명이나 있으면 직원의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왜 모든 국민의 평등을 위해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나요?
8749	말도안되는 의견 다 수용하는 척 여성 혐오에 동참하지 말고 근로자를 존중하세요.
8750	최초의 원흉 모든걸 짊어져라
8751	말도안되는 영역에서의 휘둘림 그 시작이 되지 말아주세요.
8752	씹을거면 양쪽 의견을 씹으셔야지 한쪽만 씹으셔서^^
8753	이제부터 한국게임 하는 인간은 피할려고요 전부 진상인셀일텐데
8754	사내에서 직원들이 평소 마우스를 붙잡고 일할 때의 손 모양을 알고 싶습니다
8755	별것도 아닌 작은걸로 큰일을 만들지 맙시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손가락모양이 도대체 왜 혐오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쓰이던 일상적인 표현을 왜곡하는 무리등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들이 스피커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을 겁니다.
8756	언제까지 노동법 위에 남자들의 기분과 심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공과 사는 구분도 못하며 전체 중 여성이 16%인 극도의 남초 업계에서 직급이 낮고 만만한 여자들만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본인들의 게임에서 터지는 사행성, 운영 문제보다 어린 여자 하나 내버리는 게 쉬우니 그런 건가요? 정작 페미니즘을 실천중인 여성들은 관심도 없는 메갈 일러, 그들만의 스포츠처럼 자신들이 창조하는 논란거리. 근 7 년동안 잘린 여성들의 일자리가 고작 저런 것들로 사라졌다 하니 통탄스럽고 분개할 뿐입니다. 해고 당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는 정작 저 작업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건 개인 sns 염탐으로 불거졌다 하니, 더더욱 허탈함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당신들의 고객조차 아니라는 거죠.
8757	정신차려라
8758	머리 좀 비우고 현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작 집게손이 무서워 발악하는 남자들 말 들어주느라 멀쩡한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8759	이상한 인간들한테 휘둘려서 사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에 일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8760	여성 및 아동의 성대상화나 여혐은 조장하면서 이런 억지 논란에는 악착같이 대응하시네요. 여성을 상대로한 성대상화나 그만두세요
8761	실질적으로 모욕을 당한 바도 없으면서 단지 작업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껀수를 잡아 매도한 극단적인 일부 유저의 성화에 너무나 손쉽게 일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휴지조각마냥 취급한 넥슨은 사과하고 시정하라!

8762	넥슨은 게임업계의 대기업으로서 일부 악성 유저의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받아들여 노동자의 생업 수단을 짓밟는 것에 부끄럼을 느껴야 한다. 이 악성 유저들은 정말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기업이 순응하고 사과하는 악질적인 성취감에 빠져 있을 뿐이며 이를 용인하는 것은 그 행위를 강화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악성 구성원을 퍼트릴 뿐이다. 정말 그들의 억지로 누군가가 직장을 잃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처사는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결국 넥슨 내부에 불신과 불안을 심을 것이다.
8763	마녀사냥 멈춰라
8764	애니메이션의 동화에 대한 무지에 따른 억지 주장을 믿는 것이 지금 2023 년의 최대 게임사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8765	사상검증을 통한 불법 고용해고를 중지해주십시오. 손동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손모양만을 가지고 특정 의도를 느낀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8766	당신들이 원하는 사회가 이런 곳입니까? 여성들이 무시받고 사상 검증 받으며 폭력을 당하는 사회가 이런겁니까?
8767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무언가를 집어먹을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다면 당신도 페미니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는거겠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당신들의 손에 엄지와 검지가 필요할까요? 잘못하면 '페미'로 몰려서 마녀사냥을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8768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769	대한민국에는 노동권이 없습니까?
8770	이번 억지 논란에 동조한 넥슨 및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그냥 살면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지 마시오. 물건을 집을 때는 페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발가락을 쓰시오.
8771	여성혐오가 만연한 게임업계가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8772	뭐하십니까?
8773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멈춰주세요
8774	정신차려라
8775	억지
8776	이렇게 일부 집단의 의견만 들은채 한 사람의 직업을 그만두게 하고, 개인의 믿음, 종교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8777	말도 안되는 억지 의견에 쉽게 수긍하고 사과하는 넥슨이 이해가 안갑니다
8778	그만하십시오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억지에요... 그만..
8779	인터넷 프레이밍에 놀아나지 마라....
8780	이번 집게손 논란에 대한 넥슨 및 게임업계의 대응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캐릭터의 노출정도와 가슴과 엉덩이 크기에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의 비정상적인 요구(집게손에 대한 검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한국게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유저가 있어야 헤비 유저도 유지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매우 당연한 상식입니다. 노출과 엉덩이, 가슴에 집착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게임이 과연 대중적인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8781	지금이 어느 시댄데 여성혐오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

878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 중 하나로써 사상검증이라는 여성혐오 마녀사냥을 지지하는 모습이 달갑지 않습니다.
8783	개인의 사상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입니다. 특히 직원의 개인사생활을 염탐하고 옳고 그름을 기준없이 판단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짓입니다. 넥슨에서는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하고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능욕하는 일러스트를 지금도 그리고 관련된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집같은 것을 소유하여 불법을 행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데 당신들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범죄자인 성범죄자를 옹호하며 고용하고서 법이 존중하는 개인의 사상을 제멋대로 잘못으로 규정하여 아무 문제없는 직원에게 사실상 주홍글씨를 새기는 짓을 하면서 유저들이 남아있길 바랍니까?
8784	일부 몰지각한 의견에 끌려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785	대체 언제까지, 또 어떻게 해안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를 들어주며 유저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8786	해명글에서도 억지논란인거 안다면서 왜 그들의 반응에 대응하고 그 직원을 잘랐나요? 손가락 하나에 발작하는 사람들이 게임유저여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8787	세계적으로 망신살에 끼고싶다면 무한피드백에 갇히시길
8788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것은 성차별주의를 지향한다는 뜻인가요?
8789	인셀들이 이끄는 게임업계를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인벤및 디씨의 수많은 여성혐오적 발언은 문제삼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혐오의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강약약강의 운영을 그만두세요.
8790	악성민원인들의 폭력에 동조하여 직원을 근거없이 처벌하는 문화가 집단 히스테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8791	창세기전 시리즈부터 게임을 즐긴 여성 유저이며 여성 게이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런 제가 유저가 아니고 게이머도 아닌가요? 아니라면 뭔가요? 머릿수 채우기 중 하나인 머리, 혹은 뽑아먹기 쉬운 ATM 기 인가요??
8792	억지논란에 응해주는것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의 사상이 의심스럽네요.
8793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떼쓰기를 받아 주다 다른 노동자들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8794	인셀들 눈치좀 그만보세요. 어짜피 소비집단도 아닌데ㅋ
8795	여성차별하는 업체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8796	비이성적인 유저의 떼쓰기에 굴복하는 척 편승하여 하청업체에게 갑질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넥슨 규탄한다. 앞으로 넥슨에서 만드는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부적절한 표현과 그림에 대해 전국의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사사건건 민원을 넣을것입니다.
8797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이며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이 주장하는 집게손가락은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표식도 아니다. 자신들의 집단적 착각에 갇혀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나아가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몰상식한 행동이야말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8798	바뀌어라 좀.
8799	평등사회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억지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기업에 끼칠 영향을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8800	말도안되는 말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걸 그걸 고대로 받아줘서 사건 더 키우는 짓 하고계시는 안타까운 기업
8801	여성도 고객입니다.
8802	도대체 언제까지 억지논란에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게 정말 나치급의 전쟁범죄와 동률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8803	손가락 모양이 남성혐오라는 뜻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사상검증을 시도하고 거기에 동조하여 노동자 탄압을 정당화하는 기업들을 규탄합니다. 절대 힘을 실어줘서는 안되는 노동자 사이버불링과 테러행위임에도 그에 동조하는 기업들의 입장이 빠르게 정정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혐오집단의 여론에 휩쓸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검열행동에 기업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페미니즘과 성평등의 의미가 오염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8804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게임업계의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업계 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번복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8805	제발 정신차려라. 노동자 위에 대체 뭐가 더 있냐. 인셀은 사회악이다...
8806	억지논란, 사상검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8807	그 집단이 얼마나 오만하면 사태를 이정도까지 키우게 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요.. 두터운 자아비대적 사고가 뇌 틈새에 굳은 기름처럼 덕지덕지 끼어서 온갖 장면이 다 자기 성기 얘기하는 거 같고 온갖 상황에 자신의 자랑스러운 성기에 맞춰 돌아가는 거 같다는 아주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고정관념을 세상에 떠벌떠벌 알린다는 게 참 부끄럽지도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걸 또 받아주는 넥슨은 신념이 없습니까? 뭐든지 일단 집단의 의견이니 받아주면 사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매우 단순무식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대기업에서 절대 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다 큰 어른도 아닌 어린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또한 아이가 감정 이상의 떼를 부리면 오구오구 받아주는 게 아닌 아무 반응 없이 아이의 진정을 유도합니다. 만약, 오구오구 받아주면 아이는 떼가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거 이하의 투정은 더이상 부리지 않습니다. 바로 심한 떼를 쓰죠. 지금 상황이 저 말대로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으로 보나 이건 제대로 잘못된 관념이며 그들의 떼가 더 심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추잡해져 더 이상 무엇으로라도 추스를 수 없게 되기 전에 알아서 제발 알아서 올바른 사상을 주장하시고 단호히 행동하세요. 지금 이 상황, 이대로 끝날 거란 생각은 절대 추호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초석일 뿐. 받아주면 무엇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만드실 겁니까?
8808	클로저스 성우 티셔츠때부터 해서 넥슨의 페미니즘 낙인찍고 고용된 직원 짜르기는 계속되어왔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그런 갑질적인 행태를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이 깊지않고 저열한 무리에게 어디까지 휘둘리며 추락하는지 참 볼만합니다.
8809	진짜 말같지도 않은 주장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모습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남자들의 억지를 왜 다 받아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억지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는 대응이 아닌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8810	해고되거나 제외되었던 분들에게 악플 등으로 2 차 피해를 가하는 유저들에 대해서도 게임 업계들이 창피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 유저들을 내버려두는 것조차 결국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811	억지 논란에 휘둘려서 불합리한 사상 검증을 멈추기 바란다
8812	심한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추행 및 성폭력은 일상이자 현실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거슬립니까? 여성도 사람답게 살고싶다고 말하는 페미니즘이 왜 정치적으로 혹은 남성 혐오로 해석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겁니까? 일부의 떼를 쓰는 남성 유저들 외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요. 제발 여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세요. 혐오를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혐오를 계속 생산하지 않도록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8813	원래부터 "a little bit/조금"을 나타내기 위해 쓰던 몸짓인데 이게 언제부터 남성 비하의 의미가 되었나요? 처음부터 여성이 그 손짓을 폄하의 의미로 쓴 적이 없습니다. 생식기에 집착하는 건 대체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게임 업계에서는 이렇게까지 유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대체 언제까지 돈도 많이 쓰지 않는 인사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게임업계의 분위기, 경쟁력, 사업성 그 어느 것에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일례로 "마녀의 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현재는 steam 에서 정식으로 게임을 낼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넥슨 측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림버스"는 남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매출률이 떨어진 이유가 정말 남성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미 페미겜이라고 낙인 찍은 남성들은 게임을 안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여성 유저들의 입소문을 통해 상승한 매출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들어준 게임을 향한 불매로 이어져 수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여성들은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들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마인드를 한 번 더 확인한 계기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는 게임업계도 달라져야합니다. 넥슨은 게임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업계의 정상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면 그 이하의 기업들 도 그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미 다른 업체들 또한 사상검증을 시작했답니다. 모두가 힘들어지기만 하는 상황을 묵과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당장 멈추로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8814	노동자 사상검증, 신상털이를 부추기는 행위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815	게임업계 내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근거없는 불특정다수의 사이버불링 및 특정 노동자의 신원 추적, 과거 SNS 크롤링 등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8816	불법해고 멈춰주세요
8817	억지주장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의 삶에 되돌아올 것 입니다.

8818	예스컷으로부터 단 한가지의 규범도 배우지 못하다 못해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후퇴하며 야만적으로 굴고있는 넥슨 및 게임업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인셀의 심적 육체적 안위를 어버이처럼 보살펴 사회의 악다구니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면서, 자기 손으로 씌운 굴레를 서로서로 왕관이라 여기는 행태를 수치스러워 못하는 이 행태가 극에 달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야만적으로 굴지못해 안달인 자신들의 위치를 절절히 깨달아야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략을 꾸미는 주인공, 시원하게 한탕해내는 악당같은 캐릭터를 자신의 얄팍한 자아로 내세운, 현실앞에 하염없이 초라하고 옹졸할뿐인 쉬운길만 걸어온 겁쟁이에 비겁자라는것을요.
8819	정신차려라. 남부끄럽다. 외국에서 놀림당하고 있는 건 알고 있나? 넥슨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사리분별도 못해서 무슨 글로벌 장사를 한다는건가. 데이브만들면 뭐해. 말도안되는 손가락 모양가지고 검열이니 뭐니 하는데 스스로 이미지 나락시키네. 제발 기업이면 사리분별 좀 합시다!!
8820	헛소리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텐데 여기까지 왔네요.
8821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사과하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8822	정신차리세요… 분명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프레임을 늘리고 동작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넣은 장면일텐데 억측에 휩쓸려 사과를 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인정하는 꼴 입니다… 앞으로의 게임 업계는 계속 해서 무고한 일에도 사과하고 고개 숙이게 될 겁니다.
8823	1) 남녀평등이 곧 페미니즘인데, 이를 나치와 동일선상에 두는 사람들의 집단적 착각을 이해할 수 없다. 2) 그들이 말하는 '사상검증'은 반사회적증오심표현일 뿐이다. 3) '페미=범죄자'로 동일선상에 두고 집단적 사이버불링, 더 크게는 고용해고까지 이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막무가내에 편승하여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8824	그저 여성유저라는 이유만으로 닉네임을 알아낸 후 각종 sns 에서 사이버스토킹을 하며, 메이플인벤에 제 개인정보를 박제하고 유출했습니다. 그들은 제 게시글을 보며 성희롱하고 평가하며 비웃어댔습니다. 소속된 길드의 길마에게도 테러는 마찬가지로 이어졌으며, 게임 내에선 아이템 고성능확성기로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결국 오랫동안 해왔던 메이플스토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현재도 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이 오고 있습니다.

8825	아동 성착취로 논란된 블루아카이브건은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문제 장면만을 수정했으면서,, 고작 페미니즘 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징계 및 해고시키는게 올바른 일인가요? 애초에 회사가 직원의 개인 사상을 검열하는건 위법행위입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여성혐오와 남성혐오 아동혐오 모든 것을 검열해주세요.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을 위한 운동이지 남성혐오를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을 혐오사상마냥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하는것에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일부"남성들이 주장하는 여성혐오의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블루아카부터 한국게임계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사상을 회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멈춰주세요. 오랜세월 노동계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피땀흘린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8826	억지논란을 만들어내는 유저보다 들어주는 게임업계가 더 실망입니다.
8827	진짜 이러고 살지는 맙시다
8828	창조논란에 대응해서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8829	여성유저도 사람취급 해주세요 ^^ 페미 처단 하기전에 메이플에 즐비한 일베충부터 처단하세요 김창섭 디렉터님
8830	방구석 루저들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수준이하의 회사
8831	무차별적 여성혐오 약자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것 같다 스스로를 절대선 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폭력적인 사람들에 동조하고 이러한 현상을 더 확산시키는 꼴을 만드는 넥슨과 게임업계는 무슨생각인가?
8832	말도 안돼는 쌩억지를 부리는 집단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동조해주는 집단 모두 환멸이 납니다
8833	페미니즘은 정치성향이 아닙니다. 공부좀하세요
8834	인셀남들의 집단적 피해망상 때문에 노동법을 어기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덕기업 넥슨 및 이에 동조하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8835	집게 손가락에 그런의미가 있는줄도 모르고 어리적 재롱으로 게춤 출때 집게 손가락했는데 절 페미로 만드네요.
8836	여성의 연대는 강하다
8837	2016 년부터 넥슨은 해당 만행을 지속해오고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업계를 꿈꾸는여성 유저 굉장히 많습니다. 더이상 게임산업은 남성커뮤니티위주가아닙니다. 페미니즘을 혐오집단으로 왜곡하여 자신들의 혐오행위를 정당화 하지 마세요.
8838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심이라도 갖길 바랍니다.
8839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대응하지 마세요.
8840	넥슨은 인셀 남성을 배양하고 여성혐오를 독려하며 한국 게임 문화를 오염시킨 책임을 져야합니다.
8841	한 여성이 스스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소리칠때까지, 결국 부당 해고를 당할때까지 게임 업계는 뭘 했습니까. 페미니즘이 무엇이건데 이토록 경계합니까?

8842	하던게임에서 사상검증이 일어난게 이제 몇번쨀까요..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8843	문제가 된 해당 영상에서 그 모양은 단 1 프레임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느리게 집중해서 보지 않는 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집게 손가락은 맥도날드의 트위터 트윗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며, 애플 워치 광고에서도 나오며, 심지어 '던전 앤 파이터'에서 수정된 일러 'I want you for DnF'는 'I want you for U.S. Army' 오마주 내지 패러디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된 미국의 육군 홍보물도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참고로 그 홍보지는 1 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홍보물입니다. 설마 그 시대의 홍보물이 페미니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여성 인권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하 블랙컨슈머) 말하는 손가락들은 여러 매체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펜싱과 이외의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와 같은 서브컬쳐 문화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물론 은밀하게 집어 넣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가 쓰는 손가락을 검열한다는 것은 여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검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불만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부당한 선례는 남겨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8844	모든 사상검증, 부당해고에 반대합니다.
8845	넘나 억지라고 생각해요.
8846	페미니즘이 테러 혹은 폭력의 일종으로 이야기되며 해당 행동과 관련된 노동자와 게임캐릭터의 변경 불이익을 그만두어주길 바람
8847	성차별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앞으로도 넥슨은 제 인생에 함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8848	더이상 유저의 악성민원으로 타인의 신변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합니다.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하거나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상이 아닌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 억압을 근절하려는 운동입니다.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공격받아서는 안되며 기업은 이에 강경대응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넥슨은 2016 년 티셔츠게이트 사건으로 게임업계 사상검증의 시초가 된 바가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특히나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게임업계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종사자분들이 안전한 일터를 보장받길 바랍니다.
8849	블라인드에서 회사명 넥슨을 달고 씨발년 무슨 년 혐오 표현하는 것에 대한 징계는 없고 애니메이팅 과정에서 들어간 한 픽셀에 대한 사과 공지는 즉각 올리시는 게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과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자꾸 증거 타령을 하면 대체 뭐가 나아진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후 작업물을 게시하겠다도 아니고 대처가 전혀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상의 후 상식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돈 많이 쓴 유저들 다 잃고 떡락하시든가요.
8850	여성혐오를 주장하며 피해망상으로 억지를 부리는 인셀 집단의 이야기를 더는 들어주지 마십시오. 넥슨 및 게임업계의 대처는 그저 여성혐오를 위해, 여성유저를 지우고 여성을 누르는 행위를 가담할 뿐입니다. 사상검증 부당해고를 멈춰주십시오. 여성의 직업을 빼앗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8851	게이머 중의 하나로써, 부당해고를 무기로 삼는 파시즘에 반대합니다. 게임은 더 자유로워야 합니다. 게이머의 이름으로 파시즘을 부흥시키려는 이들에 굴복한다면 게임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8852	억지논란에 휘둘리는 기업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8853	제 소중한 추억의 메이플을 여성혐오로 얼룩지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말같지도 않은 무논리에 괜한 불씨를 키워 무상식적인 행동을 상식인것처럼 대하는 행동 역겹습니다
8854	추합니다. 넥슨.
8855	말도안되는 사상검증과 여성 해고 멈춰라
8856	사상이나 하물며 의견이라고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에, 넥슨이라는 규모의 기업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일부 유저의 망상에 의해 이처럼 일터 밖으로 내몰려서는 안 되며, 그것이 성평등이라는 기초적인 가치를 지지했기 때문이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8857	본인들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조작하고 덮어씌우는 음해행위로 누명을 씌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실제로도 무고죄에 포함되는 악랄한 죄목입니다. 범죄와 사상을 구분짓지 못하고 단체로 죄없는 여성을 악인으로 몰아 업계에서 없애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넥슨은 뭇 남성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처이자 혐오의 유토피아로 꾸려대는것에 동조하는 범죄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렇게 잘려나간 여성들은 언제나 당신들을 개인대 기업뿐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성과 같은 사람이지 여성 위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현실과 주제파악은 현대인에기 필수요건 입니다.
8858	누구나 태어날 때 손가락 잼잼은 해봤을텐데 그걸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짓은 단순한 트집이자 괴롭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8859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를 멈춰라.
8860	고작 손가락모양으로 트집잡는 악성민원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말아줬으면
8861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회사라는 집단이 일처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8862	디씨 인벤 등 게임 커뮤니티 그리고 게임 내 채널 전체 채팅으로 여성을 멸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뜻의 닉네임을 하고 있는건 방치하면서 여성 게이머를 동등한 게이머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성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8863	페미니즘 혐오몰이 규탄한다
8864	부끄러운 줄 아세요
8865	말도 안되는 논리로 여성직원 해고하는 개임업계 제정신인가 정신차려라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다
8866	정신나간 사람들의 말로 트집잡아 부당해고하는걸 멈추십시오. 이 논란 자체가 우스워서 해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수치스럽습니다.
8867	단순하게 직원보호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868	여성의 부당해고, 직장 내 불이익을 멈춰라
8869	다른 업계지만 창작업종인데 제발 좁은 시야로 팀킬 좀 하지 맙시다.

8870	페미니즘은 세상 그 누구도 성별로 인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인간이라면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누구도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자유, 평등, 인도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신념의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편중된 사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페미니즘을 남성혐오 동일화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대기업이 작은 손 모양 하나에 까지 의미를 두며 직원을 해고 하도록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별이자 노동권의 침해입니다.
8871	누군가를 타겟삼고 조롱과 혐오를 일삼는게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묻고싶네요
8872	단체로 이상한 거 같아요. 보니깐 디렉터들도 대화 하다가 그 손가락 쓰던데 그 분들은 왜 안짤리죠?
8873	억지 논란을 멈춰주세요.
8874	집게 손 억지 그만해라
8875	손가락은 죄가 없다.
8876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여성 직원을 해고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혐오입니다
8877	게임업계는 전세계적 자유, 진보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상검열을 즉각 중지하라!
8878	게임업계에 만연한 여성에대한 사상검증과 부당해고, 이제는 정말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생떼와 패악질을 옳은것인냥 수용하고 성차별을 일삼는 게임업계는 전체적인 물갈이가 필수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8879	유구한 여성 차별엔 입 다물면서, 쉐도우 복싱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요.
8880	말도 안되는 사상검증 중단하고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라.
8881	사상 검증이라는 그럴싸해 보이는 명목으로, 당신들의 혐오를 정당화 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8882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해고를 당하는건 정말 듣도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게임업계는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8883	여성인권신장에 반대하는 혐오세력에 굴복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게임사들이 방향과 합일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과 장기적으로 이런 혐오세력의 여구에 응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저들에 대해 해당 게임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대답을 촉구합니다.
8884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마녀사냥하는 남성 유저들의 억지를 듣지 마세요.
8885	다 같이 사람답게 삽시다. 언제까지 뭐에 쫓기는 동물마냥, 귀사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고 제 기분만 중요한 폭도들에게 휘둘리고 업계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하는 게임인데 어째서 사람을 공격하고 없애려고 합니까...
8886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8887	한심하다
8888	성차별반대에 동의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그들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페도필리아 등 성 착취물을 직접 그려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함
8889	본 회사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글로벌 공지 올리고 감당하기를 원한다
8890	사상검증에 의한 노동자 탄압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사 게임 내의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쟁점을 피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넥슨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8891	억지논란에는 무대응 무관심이 답입니다. 집게손 모양이 도대체 무어라고. 제작자가 어디까지 설설 기어야 하나요?
8892	과연 누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가. 누구보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하는 업계에서 현실을 읽지 못하는 게 통탄스럽다.
8893	근본부터 잘못된 처사를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경영을 멈추세요
8894	손가락 하나 가지고 지랄들을 하시느라 바쁘십니다
8895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이라 말 못하는 넥슨은 혐오장사를 멈추고 정신차려라
8896	허황된 착각과 피해의식을 엄청난 여론인 것처럼 받들어 모시며 피드백을 하는 행위부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사과를 함으로써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되찾고, 노동자 개인을 몰아세우며 자승자박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8897	게임업계 정신 좀 차려라
8898	꾸준히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이머입니다. 특히나 넥슨 게임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보니 누군가를 차별하고 짓밟고 선 곳에서 쌓은 추억이었습니다. 아닌걸 알면서도 무의미한 꼬투리잡기에 응해주다니 실망이 큽니다. 이게 귀사가 만들고 싶었던 즐거운 세계입니까? 넥슨 및 게임업계는 성차별에 찬성하고, 마녀사냥에 가담한 것을 사과하십시오. 적절한 후속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귀사에서 만든 게임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귀사를 끊임없이 규탄할 것입니다.
8899	억지논란 조성하는 집단들에 휩쓸리지말고 무시하는 게 답
8900	상식적인 대처 좀 하길
8901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손 모양에 특정 계층만 화를 내고 특정 단체에게 혐오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과로써 최종 피해를 받는건 여성 사원들입니다. 정말로 손모양이 무언가를 비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믿나요? 이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모든 캐릭터에 손 대신 촉수나 곤충다리를 달 것이 아니라면 의미없이 여성을 일터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8902	망상을 거들면서 시대에 역행하지 마세요
8903	지금은 2023 년입니다. 제발 세상이 어떤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8904	어처구니없는 남성들의 투정에 귀 기울여주지 마십시오. 문화콘텐츠 강국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빚어도 되는 건가요?

8905	무엇을 위해 이사단을 만든건지 그런 논란을 키우고싶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건지, 기어코 여자들이 게임을 못하게 만드신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십년간의 게임을 이렇게 접으려니 허탈하네요
8906	너네 때문에 나까지 창피해
8907	본인이 가진 사상이 그릇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고 조리돌림을 당하며 인터넷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이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쉽게 누군가를 내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을 혐오할 수 있는 사회기에 쉽게 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현명한 조치를 취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8908	일부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안타깝습니다. 자정하세요
8909	페미니즘의 정의가 뭔지는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8910	억지 논란을 수면 위로 끌고와 이토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상황을 수용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넥슨의 행태에 정말 분노하며 비참한 감정을 느낍니다. 손가락 집게 모양을 가지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남성 혐오감을 느꼈다는 사실에 제가 다 부끄럽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재기의 가능성 또한 열어놓는 넥슨이라는 회사의 지속가능성 또한 의심됩니다.
8911	여성노동자 인권 존중해라
8912	남초 커뮤니티의 잔인한 놀이문화나 다름없는 여성 노동자/창작자 사상검증 및 탄압을 멈추고 상식을 지키며 게임을 운영하십시오.
8913	곧 2024 년입니다. 쓸데없는데 사과할 시간에 게임업계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고민하세요
8914	말도안되는 남초사이트의 무지성 집게손 공포증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것이 정상인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8915	현직 종사자인데, 당장 오늘도 큰 일이 터졌다며 현 상황에 대해 페미 근절이라는 방향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장동료(남)들의 대화를 같은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듣고있어야했습니다. 이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러다 나도 우연히, 별것 아닌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럴줄 알았다 꼴페미년' 하며 온갖 욕을 먹고 부당해고 당하는건 아닌지 두려워 심각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장동료로서 나름대로 돈독한 친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도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악성민원인과 다를 바 없구나', '거리를 두고 싶다' 같은 생각만 듭니다. 나와 똑같은 성인들이 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건지...... 게임을 사랑하고 즐기는 유저들과 멀쩡하게 잘 살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왜 과대표된 남초 집단의 말도 안되는 억지 생떼부리기를 들어주고 있어야하나요? 정말 피곤하고 지긋지긋합니다.
8916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나 보편타당한 가치와 사회도덕적 가치를 해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편향적인 소수와 그 주장을 주류로 만드는 것을 멈추고 그들에게 휩쓸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8917	말도 안되는 억지로 부당하게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페미니즘을 변질시키고 혐오하는 게임 업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8918	이제는 말도 안되는 논란은 없어져야합니다.

8919	성평등의 퇴보는 노동권의 후퇴를 불러오며, 혐오를 묵인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혐오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혐오에 단호히 맞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응원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8920	신빙성도 없는 오로지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조성된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보다도 우위에 있습니까? 업계의 치부를 덮을 수단으로 불합리한 대우와 처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8921	팬보이들의 멍청한 요구에 휘둘릴 시간에 게임운영에나.신경써라
8922	왜케 남자들 눈치 많이 보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발 좀.
8923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8924	이제 슬슬 이 뻔한 짓 관둘 때 된 것 같습니다. 손가락 표시, 그것도 충분히 당위성 있는 장면의 자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몇몇 게임 주요 직원들의 커뮤니티 내 부적절한 활동들. 왜 후자는 문제 삼지 않나요?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게임에 돈 갖다 바칠 남성 고객들을 잃을 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의 징징거림을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십시오. 찌질이처럼 위선 뒤에 숨는 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니, 이건 위선도 아닙니다. 이 사태 어디에 선함이 있단 말일까요. 동의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검지와 엄지를 제거한 채 지내셔야 하는 게 아닐지.
8925	개인의 가치관이 해고를 당할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926	마녀사냥하여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자를 불지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넥슨 및 게임업계는 불속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절규는 들리지 않고 혐오 덩어리인 남성의 환호만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8927	인셀들의 피해의식과 여성혐오에 절은 억지 발언을 지지해주고 하청업체에 대한 억압 및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로 성평등에 반대하는 반인권주의 기업은 각성하라
8928	여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방관하고 동조하는 게임업계의 행보에 참담한마음입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동조하지말고 게임을 사랑해 이곳에 서있는 동료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8929	페미가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무슨 망상에 휩쓸려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8930	황당무계한 요구에 반응하며 여성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에 앞장서는 넥슨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8931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야근하세요
8932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 땐 늦습니다.
8933	언제까지 사회부적응자들의 어리석고 떼쓰기로만 가득한 논리를 참아내고 감당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억지와 꼬집어내기를 자신들만의 놀이이자 스포츠로 이용하면서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현실에서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는 현실이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르인 게임이라는 생태계를 이 이상 어지럽히고 더럽히며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이 더는 용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934	저 외국에 사는데요 이 뉴스 볼때마다 쪽팔리고 어이없어 죽겠어요. 외국 유저들 반응은 조사 안하세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스스로/한국과 한국 남자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인지 생각 좀 해보세요.
8935	말도 안 되는 인셀들 억지에 동조해서 열심히 일하는 외주업체, 넥슨 직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가상의 페미니스트 만들어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전가하지마세요.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상이고 게임업계가 정신 제대로 박혀 있다면 성평등은 정치사상이 아니란 걸 알겠죠
8936	개인의 사상검열을 멈추십시오.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정치사상으로 치부되어 숨김의 대상이 되고 지탄받아야 할 사상이 되었습니까?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8937	시대를 역행하는 페미니즘 혐오사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셀말 들어주는 한국기업들 정말 부끄러운줄 아세요.
8938	정신들 좀 차리세요
8939	페미니즘은 규탄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일부 남성유저들의 요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임업계에 황당할뿐입니다. 동시에 성적 이미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여성 캐릭터들이나 게임 내에서 성 차별적 이슈에는 침묵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8940	온세상이 당신들을 조롱합니다
8941	억지 몰이에 쉽게 굴복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셨으면합니다
8942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8943	현재 사회에 '변질되어버린' 페미니즘 사상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는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게 손'이라고 불리는 손동작은 단순 액팅 동작에 불과하며, 일부 유저의 발언 하나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에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언제부터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이 생긴 건가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944	억지논란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8945	게임속 여성 캐릭터 성적대상화 및 몰상식한 유저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성 언어, 행태등에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아무런 의도도 없는 집게손가락모양에 화들짝 놀라서 사과하는 행태를 보니까 개그가 따로없네요. 제정신 아닌놈들 비위맞춰주려고 줏대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니까 게임산업이 수출을 못하고 국내에만 머물러있는거겠죠
8946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8947	한국게임 이용자가 남성이 지배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억지주장에 휩쓸려 저자세로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 넥슨은 많은 인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을텐데 (아무리 영리기업이라 하여도ㅜㅜ)그저 이용자들을 달래고 이탈을 막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고, 앞으로 업계 직원들에게 가해질 억지스러운 사상검증만 심화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ㅠㅠ 하청업체들은 오죽할까요? 그들은 넥슨을 등에 업고 영상을 제작한 스튜디오를 악질기업으로 낙인시켰습니다. 넥슨이 하청업체들 까지도 함께 죽였다고 봅니다.
8948	게임을 오래 플레이했고 사랑했던 게이머로서, 일부 악성 이용자들의 억지에 넘어가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949	여성 유저, 여성 직원은 존중하지 않고 소수의 남성, 게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디시갤발 근거없는 주장을 들어주어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임업계, 나쁜 선례를 만드는 넥슨은 강력하게 교정이 필요합니다.
8950	근거없는 혐오 논란을 거부하고 여성차별을 멈춰달라
8951	일부 악성 유저의 억지를 들어주기보다 본사 직원을 보호하세요. 사상검증을 하고 싶으면 일베부터 검증하세요. (일베와 페미를 동급에 놓는거 아님.) 일베디씨발 여성혐오/약자혐오적인 밈들은 잘만 써놓고 이제야 혐오 운운하는건 그냥 게임업계가 페미니즘이 변질됐다는 핑계로 여성/약자혐오를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8952	억지에 진지하게 반응하여 혐오에 동참하고 노동권을 우습게 취급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8953	한국에서 사업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산업이 되십시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온다 한들 지금과 같다면 절대 장사치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겁니다.
8954	규탄합니다.
8955	한시간동안 열내서 쓰다가, 도저히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 내용을 줄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억지 논리를 펼치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당 업계에 연관된 타 업계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당신들이 얻는 이익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페미니즘 혐오몰이 관련 문제가 이번 한두번이 아닌 것을 압니다. 대중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잘한 문제들? 단순히 게임업계만이 아닌, 비슷한 이용자층을 공유하는 게임 스트리밍 관련업계까지 합한다면 정말이지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업계 내의 작은 사건이라며 덮지도 못할만큼 커져버렸네요. 내심,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 문제들이 업계 밖의 사회에 밝혀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업계는 원래 이러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라고 하실겁니까? 정말 저 한문장으로 모든것이 이해될것이라 생각하나요?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을 계기로, 관련 게임사 및 '일부'게이머들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당신들만의 사회 밖으로 나오기를,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8956	이건 21 세기 마녀사냥입니다 죄없는 여성노동자에게 누명을 씌워 일자리를 뺐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 입니다.
8957	사회 영향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거대 집단인 만큼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넥슨의 처신은, 넥슨을 제외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8958	일부집단의 망상에 동조하여 상식적 성평등과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에 앞장서는 행태를 멈추길
8959	집게손을 통해 연대하는 페미니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대상이며 이는 근거 없는 일부 커뮤니티 회원의 갑질일 뿐입니다. 게임업계는 이런 진상들에게 휘둘릴 뿐이므로, 잘못된 선택으로 업계인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8960	제발 정신좀 차리자구요 쪽팔리게 뭐하는겁니까 단체로 약먹었어요?

8961	정신 좀 차려요
8962	한국 게임이 문화가 아닌 인셀들 집합소로 가고있습니다. 세계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해서 동조하고 계신분들, 서서히 도태되고 잊혀질거에요.
8963	게임은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산업이지만, 한국 게임은 과거를 꿈꾸며 쉼없이 도태 중이다. 그 사실을 너희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도태의 증거다.
8964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받아 주니까 더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8965	한국 게임업계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앞으로 한국게임은 믿고 거르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 여자도 게임을 하는데 말입니다.
8966	되도 않는 억지에 휩쓸리는 대기업이라니 제가 다 창피할 따름입니다. 줏대 있게 운영해 주세요. 넥슨 회원은 남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 유저 무시, 기만을 그만해 주세요.
8967	제발 본인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페미니스트'라고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사전적 정의를 직접 찾아보길 바람. 그리고 직원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가 업무 수행에 지대한 영향이 정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시고 채용공고에도 명시하시고 하시던가요. 그리고 유저 한 명 한 명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줄 거 아니면 지금 행보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것 알고 계신지요. 감 놓으라고 하면 감 놓고 배 놓으라고 하면 놓을 건가요? 여지껏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극히 일부 유저의 요구에 사과문까지 내면서 고쳐달라는대로 다 고쳐주고 하지말라는대로 안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본인들이 한 작업물에 당당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그들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8968	넥슨 및 게임업계가 억지 논란을 지지하고, 직원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969	얼토당토 않은 여성혐오 및 여성 노동자 괴롭히기를 멈춰라
8970	해당 사태를 단편적으로 파악하여 일부의 목소리에 굴복하여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971	진짜 법적으로 문제되서 신고, 소송 걸어야하는거 말고는 반응하지 마세요. 제발.
8972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은 그동안 쉬쉬했던 비정상적인 여성혐오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 가시화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행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대에 나왔다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게임의 주이용자가 남자일 수도 있지만 여자들도,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왜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들어주고 사과하고 정작 여자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이러니 주변의 많은 여자 친구들이 더이상 한국 게임은 안한다고 떠나더군요.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한국에서는 일 못하겠다고 합니다. 손가락 집게모양이 대체 무슨 혐오표현인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근데 그걸 또 들어주고 헐레벌떡 사과하고 직원을 부당해고 까지 하는 회사까지... 이 나라에서 여자로 사는게 참 무섭네요.
8973	정신 좀 차리세요
8974	게임업계 내 억지 논란과 그에 따른 여성혐오 중단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물고늘어질 겁니다

8975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 모여 단체가 되어도 잘못된 건 바로 고쳐야하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8976	여자돈으로 메이플스토리 장사하면서, 말같지도 않은 얘길 해대는 집단의 얘길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여 여성인권 하락시키는 넥슨...정신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도태뿐이라고 전합니다
8977	무엇이 중요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8978	일부 사이트의 의견에 지나치게 기울지말고 성급한 판단도 하지말고 중립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8979	여성 창작자와 동료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8980	여성혐오를 규탄한다
8981	휘둘리지말고 가던 길을 가세요. 거긴 막다른 길입니다.
8982	인셀남들의 억지를 들어주는 넥슨과 게임업계의 행보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983	누가봐도 뻔한 억지논란인데 왜 기업들이 자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영업자를 향한 진상 손님들의 과분한 요구, 교사를 향한 진상 학부모들의 갑질 모두 같은 선상 아닙니까? 억지 손가락 논란을 펼치는 사람들은 저 논리를 사회에 나와서 당당히 펼치지 못합니다. 왜 그림자 뒤에 숨어 음침하게 억지부리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면서, 정작 일터에서 멀쩡히 일하는 노동자는 왜곡된 페미니즘의 희생양이 되어야합니까?
8984	할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8985	있지도 않은 논란을 만들어가며 없는 혐오에 대해서 강력대응한다는 넥슨은 사과해라!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방식은 넥슨이 가지고 있다. 젠더갈등을 일으키는건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라 생각하지도않고 무조건혐오라고하는 억지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넥슨이다 양측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혐오에 대응한다는 넥슨은 반성해라 거기다 대기업같지도 않은 일처리...말도안되는 여론몰이로 어떻게 부당해고를 하는지!! 이건 노동법의 ㄴ도 모르는 거다 사과해라
8986	말도안되는 억지 그만 들어주고 페미몰이 및 혐오 좀 그만해라
8987	유감입니다
8988	지긋지긋하다 어차피 중국 게임에 밀려서 업계 전망도 암울한 주제에 스스로 폐업을 가속하는구나
8989	이 사안은 남성혐오가 아닌 여성혐오다
8990	다 떠나서 고작 커뮤니티 반응하나에 대기업이 과잉대응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8991	억지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대응 뿐 아니라 그 대응 방식이 명백한 갑질 행위로 보여 앞으론 넥슨 게임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8992	페미니스트가 왜 혐오인지, 차라리 명확하게 밝히시길. 말이 안되는거 아니까 두루뭉실하게 혐오를 조장.... 진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군가요? 애니메이터로서 저 짧은 애니메이션에 얼마나 많은 작화가 들어갔음을 알기에 더욱더 참담합니다. 엄지 검지로 만드는 제스쳐 모두에 애초에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워서 논란을 만들고 여성 작업자를 해고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반증아닐까요? 대체 어떤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직업을 잃습니까? 넥슨의 전적, 그리고 이번 일. 차라리 안티 페미니즘이라고 명명백백 공시하세요. 수치스럽다. 넥슨.
8993	사상검열 반대!
8994	이렇게 찌질한 회사는 처음본다
8995	집게 손이 혐오표현 이라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당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대체 왜 광고 내내 집게 손가락을 보여주는 애플과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혐오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폰허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나요? 당신들이 이 억지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이번 한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이 억지를 받아준 후에 앞으로 끊임없이 검열 당할 생각인가요? 부디 이 얼토당토않는 주장들을 무시해주세요.
8996	페미니즘을 혐오 사상이라고 지칭하는 한국 게임업계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국 게임을 즐겼던 여성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업계의 피해자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8997	집게 손가락이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쪽팔린 일인줄 아세요. 정상인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있는지 알텐데 오히려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현재 당신들의 수준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물건을 집을때 엄지와 검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동작을 위한 과정에서도 '그 손모양'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프레임 하나하나 문제삼은 것과 같이요. 잘못된 근거를 굳게 믿어 무고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었으면 적어도 본인들은 스스로의 신념을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집게손가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게손가락이 작은 성기에대한 조롱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애초에 어떤 정신나간 인간들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며 온라인에서 민원을 넣기 시작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덕분에 이젠 전세계가 집게손가락 이모지의 기의에 작은 성기의 의미를 추가하였네요. 축하드립니다.
8998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측에 국가의 차원에서 강력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치한 국가는 책임을 지고 지속적인 감사와 처벌, 대책을 마련하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8999	사상검증의 시초를 만든 기업으로서 책임을 지십시오.
9000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여성 혐오 문화가 이 기회에 타파되길 바랍니다
9001	대기업에서 계속 오냐오냐 하면 앞으로 그림그릴때 손 없는 캐릭터들만 그리시던가 인체에 있는 신체를 그리는건 당연한건데 왜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받아주냐 그렇게 화가 나서 꼴도보기 싫으면 본인 손도 자르세요 넥슨 윗대가리 여러분. 왜 집게 손가락이 있는 손을 달고 살아가며 꾸역꾸역 쓰시는거죠?
9002	페미니즘에 대한 억지논란 만들어서 스포츠처럼 즐기지 마시고 현실을 좀 살아보세요

9003	말도안되는 의견을 들어 남혐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진행 중인 여혐이나 인지하세요.
9004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을 빌미로 여성을 차별하는 업계를 규탄한다
9005	사상검증에 지치신 여성직원분들 응원합니다
9006	와 정말 감탄 나올만한 대응이었습니다... 20 년차 게임 죽순인데 죽을 때까지 넥슨 게임은 안할 것 같네요
9007	정신차리세요
9008	별의 별걸 다 받아주고, 뭐가 잘못 된 건지 파악도 못하다니 통탄스럽습니다.
9009	정신들 차리길
9010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9011	인셀들의 주장에만 치우쳐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짓을 멈춰라
9012	억지 생떼 부리는 악성민원인들에게 휘둘려 소중한 충성고객층을 잃지 마십시오.
9013	페미니즘을 향한 한국남자들의 수준 이하 폭거는 더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그 선봉장에 선 넥슨 및 게임업계를 규탄한다.
9014	클로저스 사태가 오래전인데 그이후로 전혀 발전하지 않은 태도에 탄식이 나옵니다. 한국게임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인권을 조금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9015	인셀들의 억지 주장과, 개인 사상검증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내용을 직원을 해고하면서까지 들어주어 이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9016	마녀사냥을 멈추세요. 페미니즘은 사회악이 아닙니다.

9017	한국 게임업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무시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엄하게 대처하지는 못할망정, 페미니즘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자르다니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해고된 노동자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페미니즘에서 '집게 손'은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린 '집게 손'은 남성 비하의 표현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에서 애초에 남성의 성기 크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피력하기 위해 굳이 '집게 손'을 심볼로 삼을 이유도 없고, 작업물에 '집게 손'을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집게 손'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억측과 추측에 불가하지만, 노동자가 그린 손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정황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저는 넥슨과 게임업계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게임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를 페미니즘을 빌미 삼아 쫓아내고 싶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여성 노동자를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넥슨과 게임업계는 여성 노동자를 제물로 자신이 소비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만족감을 채우고 악성 문의를 해결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비겁하게 외주 회사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힘없는 개인을 꼬리 자르기를 한 것입니다. 넥슨과 게임업계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들의 한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소수자들과 약자에게 멸칭을 붙이고, 그들을 깔보고 욕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며, 페미니즘을 향한 악의적이고 망상적인 광신을 반복하며 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정 사상'을 '지지'하므 노동자가 잘리는 선례는 이미 있었고, 이번 일을 기점으로 노동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언젠가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성별, 재산, 종교, 신념을 이유로 문제없이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자신의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당한 일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넥슨과 게임업계가 여성 노동자에게 보여준 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을 막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 시민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나라의 미래와 제가 좋아하는 문화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혐오적이지 않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페미니즘이라는 성평등적인 이념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며 탄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일상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멸칭을 붙이고 욕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노동자의 노동권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9018	정신 차리세요...
9019	성실하게 일하는 누군가의 몫을 방구석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에 박탈당하게 하지마세요 이 상황에서 실체 없는 혐오에 고통받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9020	가상의 적을 향한 무의미한 공격을 멈추시오 추하오
9021	제발 억지논란에 넘어가지 마세요.
9022	엄지와 검지를 잘라야 속이 시원하겠니?
9023	자신들의 게임 내외적으로 혐오발언을 일삼는 악성유저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논리점프로 만들어낸 억지논란에는 적극대응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9024	마음 속 깊이 지금 하는 짓이 스스로는 이해가 되는 짓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긴 하는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9025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9026	집게 손 공포증'에 도덕 윤리를 갖다버린 한국 게임 산업이 심각하게 걱정스럽습니다.

9027	집게 손’ 모양이 ‘남성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라는 반사회적인 여성 세력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며, 페미니스트 직원을 해고하라는 헛소리를 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한남 인셀들의 주장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음해일뿐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페미니즘은 인류가 갖추어야할 최저선의 인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대체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게 왜 혐오입니까? 한남 인셀이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가 혐오입니다. 인셀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사상 검증을 하여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는 노동자이자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 이상도 되지 못합니다. 넥슨의 이런 차별적이고 혐오동조적인 행태는 넥슨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불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는 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9028	인셀들의 억지 그만 들어주고 똑바로 판단하세요.
9029	전세계가 남여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게임계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백래시가 이뤄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9030	여성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사상검증 중단하라
9031	억지논란, 프레임 입히기는 멈춰줘야 하고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것을 직접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9032	부끄러움을 알라
9033	근로자가 어떤 생각을 하든 사상을 가졌든 그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 밖의 노동권침해입니다. 정신좀차리세요.
9034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 그에 대응한 넥슨. 손가락만 달려도 난리치더니 이제는 구름 모양도 문제라 하네요. 얼마나 더 검열하고 싶습니까?
9035	여성도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싶습니다
9036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집게손가락을 정말 페미들이 남자들을 조롱하는 데 쓴다는 걸로 믿고있다면 그들은 왜 함부로 할 수 없는 외국 대기업 '애플' 광고 속 집게손가락에 침묵합니까? 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포르노 허브'라는 불법 사이트 광고 속 집게손가락은 '지은 신세가 많다'며 넘어갑니까? 본인들도 지금 이 사태가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논란이 생기고, 그 억지 논란을 기업들이 받아주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논란이 더 알려지고, 사과한 기업들과 페미니즘의 이미지만 우스워졌다는 걸 알 것입니다. 이 억지논란 만들기는 단지 한국의 페미니즘이 잘못되었다고 기업의 입을 통해 공식화하고 싶은 그들의 한낱 스포츠이고 재미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다 알면서 말도 안되는 사과들을 해댄거겠죠 그 우스운 스포츠에 동참하고 싶으니까요
9037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sns 에서 문제를 찾은 게 더 이상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인지 회사 내규를 포함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9038	세상에 참 불편한게 많네요
9039	그냥 있으면 지나갈 일을 굳이 만들어서 키우냐

9040	그저 떼쟁이에 불과한 도태남들의 헛소리도 의견이랍시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게임 업계의 현실이라니 참 통탄스럽습니다
9041	본인들도 피곤하시지 않나요? 속어로 '병먹금'이란 말이 있는데, 굳이 피곤하게 왜 말도 안되는 논란에 손뼉을 쳐주시나요.
9042	넥슨측 본인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억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응한 방법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받은 직원분에 대한 회사에서의 보호와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043	사람 한 명의 생계를 끊는 것도 모자라 여성혐오에 앞장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트럭을 보내야 간신히 말 좀 들어주던 작자들이 이번 집게손 논란에는 새벽같이 라이브를 키시더라고요 피카츄전광석화인줄.
9044	본인들이 불러온 사태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성별 갈라치기와 여성혐오가 전보다 더 심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045	더 이상 혐오를 낳는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9046	인셀의 말도안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게임업계의 유구한 여성혐오를 규탄합니다. 실제가 아님에도 페미니즘적 요소를 표현했다는 핑계로 불합리하게 작업물을 삭제당하고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9047	한국 사회를 퇴보시키는 억지 논란에 장단 맞추지 말고 현실을 사세요.
9048	당신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회자될 것이다
9049	유구한 사상검증 마녀사냥 이제 슬슬 수면위로 드러날 때 되지 않았나요? 페도필리아 소아성애 범죄자도 직원으로 품는데 사상검증하고 자르는거 너무 추해요ㅎㅎ
9050	성평등은 혐오가 아닙니다
9051	그냥 망하시길
9052	프레임 사이의 동화에 관한 억지의견을 사과하고, 담당직원을 일에서 고의적으로 배제, 자진퇴사 종용을 하는 행태에 실망함
9053	여혐몰이를 멈춰주세요
9054	노동법을 준수하라!
9055	상식을 벗어난 기업 업무 방해를 주시하지 마시오.
9056	노동자의 권리 지켜주세요.
9057	개인 SNS 를 통한 무분별한 마녀사냥과 그에 따른 부당해고라는 몰상식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십, 수백 년 세월을 거쳐 간신히 찾은 권리를 멋대로 후퇴시키기 마십시오.
9058	비상식적인 시대를 더 비상식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작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후퇴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비평등에 앞장서는 넥슨과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9059	편향적인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9060	정신차리세요. 이 게임을 사랑하고 돈을 써왔던게 쪽팔립니다. 제대로 생각하세요.
9061	넥슨은 혐오몰이 즉각 사과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9062	해당 손 모양은 페미니즘의 상징이 아니며, 설령 이가 맞다 하더라도 페미니즘을 사유로 유저들을 기만할 수 없다.

9063	예전부터 참 한결같고 여전하네요 옛날엔 저도 즐겨 게임하고 현질도 하던 유저였는데 수준이 점점 낮아져서 과거에 넥슨 게임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항상 남성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사과하고 남성들의 반응만 살피고 남성들의 비위만 맞추세요 파이팅!^^
9064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업계가 여성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으면 합니다.
9065	이상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일이나 좀 잘해라
9066	상식적으로 사세요.
9067	억지를 받아줘서 회사에 도움된 것이 무엇이 있나? 1. 먹금했다면 그들 알아서 잦아들었을 일이고 2. 아닌 밤중에 직원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찾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3. 실력 좋은 애니메이션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이어가 모두가 기대했던 게임캐릭터 홍보도 문제없이 이뤘을 것이고 4. 결국 남성과 여성 게이머들 모두에게 수익을 냈을 것이고 이런데도 남성게이머들의 전혀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으로 시작된 트집잡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던 성차별반대주의 페미니스트를 탓한다면. 귀사의 운영능력이 심히 부족하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노동법상 범법에 문제의식을 못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9068	같은 남자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9069	기업이 성차별을 하네요 이게 맞는 행동인가요
9070	다른 혐오에는 가만히 계셨으면서 오직 말도안되는 남초 커뮤니티의 억지만을 수용하여 모든 게임업계에 부담을 안겨준점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억지 논란은 만들지 않으며,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본사 게임의 수요층을 얕잡아본건가요? 어느것 하나 이해되는게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겉잡을 수 없으니 정정이라도 잘 해주시길 바라요.
9071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전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업계에서 여전히 게임이라는 문화가 특정 성별이 점유하고있는 문화라고 인식하여 일으키는 사상검증과 부당해고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처분하여 개인의 사상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9072	도대체 왜 자신들의 성기 크기가 작음을 조롱하는거라 주장하는 피해망상 환자들의 목소리를 한국남자들의 평균인것처럼 대변해주고 있는건지 의문
9073	일러그리신 분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9074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9075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게임을 통해 나타내면서 정작 이 현실에서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너무 모순적입니다
9076	클로저스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게 없는 넥슨은 물론이고, 한국 게임업계 전반에 자정능력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반페미니즘에 동조하고 노동권을 부당 침해하는 등 기본적인 경영윤리도 갖추지 못한 주제에 무슨 글로벌 시장을 노려 트리플 A 급 게임을 만들고 고티를 받네 어쩌네 한단 말인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게임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제대로 지킨 다음에 거창한 얘길 해라.
9077	게임업계의 주류가 여성이 아닌 점을 이용해 여성혐오 음모론을 만들어 페미니스트를 악의 축으로 낙인찍는 일부 누리꾼과 그런 우매한 사람들에게 휘둘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며 혐오에 동조하는 게임업계가 안타까울 뿐이다.

9078	한심하다
9079	게임문화를 선도해야할 거대기업이 넷상 인셀들의 사상검증을 편들어줘서 오히려 위축,후퇴 시키고있다. 모든걸 스스로 바로잡고 사과해라!
9080	무엇이 문제인지 잘 파악하세요
9081	가짜 논란에 힘을 실어준 성차별기업, 성차별업계!
9082	걍 미쳤음 다 돌아버림
9083	성차별적 음모론에 동조해 동료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괴롭힘에 적극 동참한 기업과 결정권자들을 규탄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보호할 의무를 책임지고 행하십시오
9084	페미니즘은 집게 손가락을 상징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대신, 여성과 연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소비자를 표방하며 억지스러운 요구로 노동자와 사측에 짐 지우는 인터넷 여론에 휩쓸리지 마세요. 한 번의 피드백이 억지스러운 페미니즘 논란을 만들고, 회사 측에도 장기적 검열이라는 큰 손실을 입힙니다.
9085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9086	일부 남성 유저들이 만들어낸 억지 논란을 수용하지 마십시오.
9087	21 세기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088	한 사람의 밥줄을 이다지도 쉽게 끊어내는 짓이라는게 얼마나 몰상식한지, 지금 당신들이 바닥에 내다꽂은 노동자의 권리가 어떤 피와 눈물로 세워온 것인지 이번에 똑똑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9089	말도 안되는 억지 논란이 여기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네요. 집게 손은 세계 어디서든 그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손 모양입니다.
9090	일부 소비자의 악질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계와 개인의 의견, 프라이버시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9091	명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에서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씀, 다가오는 2024 년에서는 너무 쪽팔립니다.
9092	앞으로 인구 감소하고 게임이랑 경쟁하는 컨텐츠들은 많아져서 다른 글로벌 겜사들은 어떻게든 유저층 늘려볼려고 다인종, 다문화, 퀴어, 페미니즘 요소 넣으면서 발악을 하는데 당장 젊은 남자유저들 비위맞춰서 빨아먹을려는 근시안적인 경영철학 한심하고요 이 나라 게임업계는 너네같은 버러지들이 다 망쳐놓은 것 같네요. 중국게임보다 자본력 인재풀 부족하다고 징징대지말길ㅋㅋ 컨텐츠 만들 능력은 없고 가챠형 상품만드는데만 오만 정력 쥐어짜는 님들네 정신머리가 문제임~~~~~~
9093	넥슨과 게임업계는 이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정말 타당한 근거와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하고 동조하는 중인지, 작금의 사태 속 본인들 행동에 진정 부끄럽지 않은지, 해외언론에도 자신들의 사과문과 대처에 대해 당당히 인터뷰 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너무나 궁금합니다.
9094	넥슨은 확률조작사건은 오랫동안 숨겨놓고 모르는척 하더니, 한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고 조롱하는 일에 왜 그리 발빠르게 대처하는가.
9095	페미니즘이 어째서 혐오이며, 진정한 혐오를 하는 자들의 트집은 정당한 의견으로 받는지 의문입니다.

9096	억지를 자꾸 들어주니 억지가 점점 커지는겁니다.
9097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 그저 남녀평등을 싫어하는 남자들이 만들어 낸 가짜 페미니즘이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098	정신차리세요
9099	언제까지 말 같지도 않은 억지 논란에 휩쓸려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을건지 묻고 싶습니다. 논란을 만드는 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고작 '일상적인' 손가락 형태에 열 올리며 분노하는 남성들 아닙니까?
9100	고용인에게 특정 사상을 검열할수 없으며 페미니즘은 검열해야할 불온 사상이 아닌 정당한 양성평등을 지향합니다. 후진국같은 행보에 앞장서는 넥슨을 불매하지 않도록 여성 플레이어를 존중해주세요
9101	대기업이 너무 멍청하십니다.
9102	넥슨 사는 날조된 논란으로 인해 매장될 창작자의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성 또한 넥슨 사의 고객임을 잊지 마십시오
9103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인셀들의 요구 같지도 않은 요구 들어주는 건 그만두십시오.
9104	규탄합니다
9105	말도안되는 사상검증 그만하시길
9106	환생의 불꽃 확률 조작 사건 이후로 메이플 측은 유저들의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면서 유저들에게 휘둘리는 게임이 되었네요. 맹목적인 혐오를 즐기는 문화를 반대하신다면서 퐁퐁섭, 단퐁회라는 혐오 표현이 들어간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남성 유저와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처가 없었고 메이플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단퐁회를 언급하며 유쾌하단 식으로 가볍게 넘어갔으며 그런 크리에이터들에게 후원과 콜라보까지 진행하지 않았나요? 또한 이러한 남성 유저들의 비율이 높은 커뮤니티의 반응만을 메이플 유저 전체의 의견처럼 받아들이는 점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게임치고는 굉장히 한심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유저들의 피해 망상으로 인한 손가락 모양 논란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사과한 메이플 측은 앞으로도 남성 유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전반적인 게임 운영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의 손가락, 스킬 이펙트의 집게 모양, 몬스터의 손발 모양 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시면서 억지 논란에도 하나하나 정성껏 대응하는 쓸데없는 노동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9107	페미니즘=남성을 타깃으로 한 헤이트 범죄사상이라는 그릇된 관념부터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및 사회 각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넥슨 및 게임업계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젊은 남성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에 급급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허상의 집게 손 논란에 부화뇌동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넥슨 등이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페미니즘/페미니스트 검열을 중단하고 과거 건 역시 소급하여 부당해고를 원상복구하길 희망합니다.
9108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9109	프로젝트 문 사태를 보고 느끼는게 없나봐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9110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9111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동시에 소아성애자, 아동학대범은 감싸는 것이 옳습니까?
9112	게임 업계에서 자행되는, 실체하지 않은 음모에 대한 사상 검증은 이제 구시대의 악습으로 사라질 때입니다. 이 사건이 강력한 본보기가 되어 노동자, 특히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그로 인해 정체되고 고인 게임 업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9113	정부에서 게임 업계에 대한 지원및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워 하고 있었는데 게임 업계의 대처방안을 보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 방송국의 남피디(이름 있고 방송국 내에서 파급력 있는 피디라서 언급합니다)는 여성 작가 스탭들을 영입하고 풀을 늘리면서 확장되고 여러 컨텐츠를 기획하고 사람들에게 환영 받더군요 그런데 게임업계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일 게임업계가 하향길로 가고 있다면 그건 게임 업계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9114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는 페미니즘을 대한민국의 도태남성들은 나치와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들은 페미니즘이 아닌 ‘약자에 대한 혐오’ 즉, 여성에 대한 혐오가 나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남성들의 비이성적 행동을 같이 규탄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에 그러는 모습이 자격지심과 다를 바 없고 이를 받아주며 실질적인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업계 역시 비정상적입니다. 수준 이하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탄압하고 이를 사회가 지지할수록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페미니즘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작 해당 손가락 모양을 한 구글, 해외축구 구단엔 한마디도 못하는 대한민국 남성인셀들을 보며 대한민국 업계들도 느끼는 게 있길 바랍니다.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9115	넥슨은 여성혐오에 동참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하라!
9116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해당사태에 관한 공지도 영어로 번역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9117	빈번히 여성 혐오가 일어나는 게임 업계에서 성차별 사상 검증을 하는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사상 검증을 하려거든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와 이에 동조하는 사상 또한 검열해주세요
9118	얼토당토 않은 일부 유저의 억지에 편들어주지 말고 여성 직원들에대한 말도안되는 노동권 인권 탄압 당장 멈추십시오.
9119	본인들도 억지인 거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여론을 생성한 사이트는 평소에도 이용자들끼리 여론을 생성하고 그걸로 싸우고, 누군가를 매도하며 누군가가 추켜세워지는 사이트입니다. 그저 억지라 판단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평소와 바를 바 없이 또다른 '유희거리'나 찾아 해소되었을 텐데 반응을 하고 고개 숙여 준 결과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그로 인해 다른 여성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등 업계 사람들 또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한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그 무게를 알고 평생 짊어지고 가길 바랍니다.
9120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인권검수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임업계를 규탄합니다.

9121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더이상 퇴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머무르는건 자랑이 아니다. 진화를 위해서 노오력이란걸 좀 해라.
9122	대기업답게 행동하시고 구멍가게식 운영 멈추세요
9123	무분별한 사상검증과 억지논란, 페미니즘 및 사회적 소수자 차별 · 혐오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9124	당신들의 게임을 한것을 후회합니다.
9125	여자를 인간으로 봐라
9126	넥슨 및 게임 관련 기업들은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힌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는 태도를 철회하라
9127	기업의 영업이익을 크게 높이는 방법은 기존 소비자의 지갑을 더 여는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잠재고객인 여성의 지갑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성을 혐오하는 게임회사의 제품을 여성들은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블랙컨슈머에게 대응하기위 혐오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은 매우 클 것 입니다.
9128	10 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좀 변했으면 좋겠다.
9129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언젠가는 망할 테니까
9130	여자가 사람으로는 보이는 거냐?
9131	넥슨 그 중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는 유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한 대처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회사의 대처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쉽습니다.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일련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문화와 몰래 사상을 드러내는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하셨을때 느낀 참담한 심정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넥슨의 대응으로 스스로와 수많은 기업들의 근거없는 자기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지 걱정이 앞서서 여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132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관두어라. 회사는 외부의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9133	혐오에 동참하지 말아 주세요
9134	게임 업계를 꿈꾸는 많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진정 특정 성별의 불매가 두려운게 맞나요? 단순 가성비 넘치는 유저 달래기는 아닐지요
9135	손가락 논란을 떠나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
9136	억지스러운 페미니즘 혐오를 멈춰라
9137	페미니즘적 입장을 가진 여성을 몰아내기 위해 제시하는 억지스러운 의미부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조하고, 그들을 달래고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작업자 개인의 사상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일에 크게 실망했으며 게임 업계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9138	왜 이런 말같지도 않은 어리광만 잘 들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게임에 대한 의견은 무시하시더니...
9139	그렇게 계속 사시던가요. 정상인들한테 피해는 주지 마시고.
9140	말도안되는 대처로 게임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9141	집게 손 논란이 말도 안되는 억지임을 인정하고, 혐오의 독약을 더는 사회에 풀지 마시오.
9142	정부 규제에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그만. 전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성 노동자 차별, 소아성애적 일러스트, 성상품화 등 약자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표출하는 넥슨 및 게입업계는 세계시장에서 영영 도태될 것임.
9143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걸 다 들어주고 있는 게 답답하다.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란다.
9144	유저와의 소통 핑계로 아무말이나 다 들어주지 마십쇼 게임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래선 안됩니다. 스포츠화 되어버린 억지 검열을 통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극구 반대합니다.
9145	게임 업계에 독 탄 책임을 져라
9146	유희적 여성 학대에 동조하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한국적인 신비겠지요...
9147	남성들의 억지논란에 놀아나지 좀 마세요
9148	헛짓거리하지말고 그냥 회사 접어라
9149	정신차려라
9150	대중이 문제삼는것도 아니고 온갖 혐오와 조롱을 즐기는 일부남초집단인 펨코와 디씨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혐오 억지주장에 정상적인 기업이 이런 반응한다는게 믿기질 않습니다
9151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9152	일부 악성민원인의 만행을 핑계삼은 여성차별행위를 멈추세요!
9153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좀 큰 시각으로 세상을 보세요!
9154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마녀사냥하지 마십시오
9155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9156	원래 이랬다란 변명은 안 통한다
9157	게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넥슨 코리아에서 일부 유저들의 억지논란 때문에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행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넥슨의 짧은 판단으로 인하여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의 사상검증이 당연시되는 시기가 올까 걱정될 따름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현재 넥슨의 대응 방법에 대해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집게 손 억지 논란 옹호를 멈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158	부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러스트나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한컷의 손가락 모양이 의심된다는 억지주장을 받아들이는 게임업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9159	진상 손놈들한테 먹이 주지 마라 좀
9160	정말 허무맹랑한 남초 집단에서의 억지 주장에 넥슨이라는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머리를 숙이는 것은 아주 좋은 선례로 남겠네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게임과 작업물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손동작을 찾겠다며 눈에 불을 키고 쫓아다닐 인터넷 방랑자들과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란 하나하나에 반응해주는 이런 착하고 빌빌 기어가는 기업은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작업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억지 주장을 펼칠텐데. 참 대한민국의 게임업계는 진보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9161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면 그게 가려지나?
9162	정신차려라

9163	이런 식으로 자꾸 인셀남들 억지 부리는 소리 다 받아주면 국내 게임업계는 진짜 망하는 길만 걸을 거다.
9164	말도 안되는 행패고, 사회적인 큰 파장을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9165	게임 개발이 아닌 성인지감수성 개발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9166	일부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이상한 집착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게임업계까지 동참하지 말아주세요
9167	그들에게 놀아나지 말자
9168	넥슨의 행동이 정말 창피하네요
9169	억지논란떼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9170	유저의 의견을 듣는 것 또한 게임사가 응당 해야할 일이지만,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9171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여성혐오적인 언어 및 행동, 성적대상화는 당연시하면서 왜 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건가. 직원은 일을 했을뿐이고 개인의 사상을 개인의 장소에 표현했을뿐인데 왜 밥줄이 끊겨야 하나. 그래야 한다면 왜 다수의 남성 직원은 멀쩡히 일을 하고 있는가. 업계는 왜 자정이 필요한 곳은 자정을 안하고 쓸데없는 오락과도 같은 혐오에 동참하여 약자를 검열하고 심지어는 억지논란의 책임을 떠넘기는가.
9172	더 이상 한국 커뮤니티 남성들의 별같지도 않은 짜집기와 징징거림을 받아듣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9173	페미니즘의 뜻을 왜곡하는 이들에게 휘둘려서 훗날 부끄럽게 기록될 행동을 하지 말라
9174	실체 없는 페미 혐오를 당장 멈춰라!
9175	내 인생의 반 이상을 게임이랑 함께 했는데, 업계에서 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니
9176	겨우 애니메이션의 동세프레임과 혐오와 관련없는 집게손모양으로 페미몰이 및 작업자의 신상털이와 일자리 뺏음 등의 일을 더이상 보고싶지않습니다. 제발 직원 보호 좀 해주십시오.
9177	당신들은 허위의 혐오를 만들어내서 호소하는 블랙컨슈머들에게 반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가 수많은 여성유저들과 동종업계에 저지른 일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길 바랍니다.
9178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사상검증은 이제 그만 자행되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 이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9179	그냥 절망스럽습니다 뭐라도 된 줄 아는 인간들이 밥줄을 끊습니다
9180	제발 상식을 알아라!
9181	돈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
9182	이 일은 게임업계의 여성인권과 노동인권을 동시에 떨어트린 사건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점점 더 착취 당하고 소모재가 되어 갈려나가고, 여성 유저들은 한국 게임을 갈수록 찾지 않게 될겁니다. 떠나는 건 여성유저만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들은 떨어져나가고 논란에 불씨를 더하는 걸 즐기는 이들만 불타는 광장에 남을 것입니다. 요구하는대로 쥐어준 들 게임에 남아있으려 하지도 않을거구요. 다음 희생양을 찾아 금방 떠나버리고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해외 여론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게임사라는 인상은 남겠네요.
9183	내가 지금까지 넥슨에 쓴 돈 환불해줘라

9184	억지 요구를 들어주지 마라!!! 노동권을 보호하라!! 여성혐오를 근절하라!!! 게임 업계는 각성하라!!!
9185	무엇이 혐오인 것일까요? 도대체 애니메이션 움직임 속 무엇이 혐오인건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가요? 게임내 혐오가 즐비되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실재하지도 않는 남성혐오를 이유로 개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여성혐오적 행태들에 힘을 보태기까지.. 아주 잘 보았습니다. 집단적 피해망상과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에 동조한 것을 보아하니 게임업계 기업들의 내부도 얼마나 한심한건지 잘 알 것 같네요.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9186	별 말같지도 않은 애들 억지 다 들어주는건 거기에 동조한다는 뜻이죠?
9187	게임업계는 남성 고객층만이 고객층으로 본다는 사실이 믿기어렵네요 실제로 게임 진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입문하는 사람들은 남성에 의해 패드립, 여성혐오적 발언을 들어가면서 굳이굳이 더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시스템에 따라 신고 후 처리만 했을 뿐 나아지지도 않았으면 여전히 이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도 게임에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 잘 아실텐데 지금 행동은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넥슨에서의 이 대처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여성혐오적인부분은 관심도 주지 않고 남성혐오적인 부분에서 초첨에 두는것인지 (저는 이게 남성혐오라고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너무 억지같아서) 반페미적인 성향을 드러낸것인지 오로지 돈을 위해 주 고객층인 남성의 의견을 들어준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9188	게임업계는 페미니즘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대로 알고나 까는 건 어떤가요??
9189	제정신인가요?
9190	창조논란 그만
9191	언제까지 헛소리를 들어줘서 게임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려는건지요. 한두번도 아니고 그들이 단순 주장하는 손모양가지고? 그렇다면 실제 논란이되고있는 여성성상품화는 왜 수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평하게 처리하던가
9192	정말 성별을 가르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을 지피고 논란을 키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9193	진상들 말을 떠받들며 들어주니까 진상들이 본인들이 진상이 아닌줄 알잖습니까 외국서도 한국남자들을 밈으로 쓰기 시작했던데 나라 망신좀 적당히 시키세요
9194	이런식의 억지 논란을 이용한 페미니즘 혐오는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나요?
9195	억지논란에 때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9196	게임과 관계없고 그저 논란만 야기할뿐인 일에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저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캐릭터의 손 동작 하나에 실제 사람의 권리가 짓밟히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요? 넥슨은 직원보호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가요? 게임 유저와 제작사와의 입장과 선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9197	소비자와 근로자 어느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이기적인 넥슨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9198	지금이라도 한국 게임 산업을 살리고 싶다면 정신 차리세요
9199	일부 비상식적인 혐오집단에 굴복하여 정당하게 일한 여성 노동자를 배재하며, 혐오집단의 기세에 날개를 달아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9200	부당해고 작작하고 돈벌이 금지
9201	작업자 개인을 향한 다수의 악의적 괴롭힘에 회사는 보호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9202	악성 유저의 억지스러운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죄없는 업계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건 있어선 안되는일입니다.
9203	그 잡게손가락에 왜 타격을 받았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 왜??? 그게 뭐라고???
9204	더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사는 개인의 사상까지 간섭할 권리가 없고 블랙컨슈머로부터 마땅히 직원을 보호해야합니다.
9205	세상에 21 세기에 이런걸로 차별이?
9206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9207	게임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9208	이런식으로 계속할꺼면 차라리 한국 게임업계사는 망햇으면 좋겠다. 모두가 스팀겜이나 하자.
9209	왜 몇몇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자꾸 세상과 반대로 가나요.
9210	게임업계는 페미검열과 여성혐오를 중단하라
9211	2023 년에 생길 수 있는 일인가 의심스럽다. 이런일로 부당하게 해고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9212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신경써야 할 부분과 아닐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입니다. 현재의 넥슨 및 게임업계는 해당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9213	7 년동안 정말 애정하고, 열심히 해온 게임이 한순간에 쳐다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여태 쏟은 돈과 시간과 애정이 아까워요. 계정 정리만 하면 탈퇴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라고 생각해왔고 발전해나가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해온 게 바보같네요...
9214	쉐도우복싱짓 그만하고 정신차려라.
9215	회사의 사원을 먹잇감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9216	억지 그만 받아주시죠? .. 추합니다
9217	선택적 사상검증을 멈춰라
9218	사상검증이 게임업계에 만연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선 넥슨 영원히 기억할겁니다. 참담함을 느끼지만 여성들이 연대해서 바꿀수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9219	다양한 유저층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진취적인 운영 부탁드립니다. 혐오성 발언을 주로 하는 유저층의 손만 들어주다가는 게임사 또한 그 유저층과 동일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인식되어집니다.
9220	이번 사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9221	억지 논란 만들지 말고 정신좀 차리세요. 방구석 인셀들 얘기를 왜 들어줍니까?

9222	한심해
9223	그나마 있는 유저 떠나면 해외에서 들어오나요?
9224	공식적으로 안티페미인게 충격적이네요
9225	게임, 애니메이터 업계 내 검열과 페미니즘 혐오, 여성 혐오를 멈춰주세요
9226	억지논리 받아주지말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9227	과도한 눈치 보기, 비위 맞추기 멈추고 노동법이나 잘 지키면서 회사 굴리세요
9228	유아차 보세요. 핑계고에서 먹금하니 인셀남들 깨갱하면서 조용해졌잖아요? 그리고 여성유저도 많이 하는데 언제까지 인셀남만 안고 갈 겁니까? 여성유저와 정상남성유저도 생각 좀 하십쇼.
9229	말도 안되는 건으로 항의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그것은 고객의 의견이 아닌 흔히 가게에 보이는 진상입니다. 진상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들어주지 말아주십시오.
9230	당신들의 그 하찮은 신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객수는 딱 대한민국의 도태된 일부 남성입니다. 게임성의 발전이 아니라 그들 상대로 뽕을 뽑아 연명하겠다면 옳은 선택이지요. 중국의 호요버스는 시대에 맞춰 여성들도 잡아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들은 표절 아니었으면 저렇게 성공 못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다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9231	이성을 찾아라 개소리는 무시하는게 상책
9232	허황된 논리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약자인 하청 업체를 제물로 바칠 것이 아니라 임원이 사임하던지 해라.
9233	여성혐오에 찌든 소위 이대남, 인셀의 악성민원에 대응하지 말라. 악성민원인의 효능감을 채워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온 사회가 감당해야하는데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는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분화, 개선되지 않는 성차별, 인셀들의 묻지마 흉기난동은 그 동안 수 차례 기업들이 그들의 징징거림을 받아준 결과라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
9234	억지 논란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하청 기업에 ₩대한 갑질은 지금껏 쌓아온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지가 계속 받아들여진다면 게임 업계에서 인권은 점점 후퇴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상으로 인한 해고는 말이 안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이번은 실제로 그 사상에 대해 확인이 된 것이 아닌 추측 뿐입니다. 게임업계가 하는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악영향만 줄 것입니다. 누구보다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추구해야하며 인재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임업계는 편협적인 판단을 멈춰야합니다
9235	여성혐오를 규탄합니다 민우회의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9236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9237	대체 왜 몇년째 이런 억지논란에 손을 들어주며 유저를 성별로 차별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위법한 행위(부당해고 등)를 저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업계 또한 집게손에 자아를 의탁하여 저런 악성 시비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바깥 공기도 마셔보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9238	몽매한 자들이 생떼 부리는 걸 들어주고 사과까지 한다는 건 넥슨의 수준이 그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회사의 수준을 낮춘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회사의 앞날이 끝없는 내리막길일지 더 큰 세상일지는 당신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9239	게임 기획을 꿈꾸고 공부해온 입장에서 대학시절부터 간간히 보이던 다른 동급생의 잦은 혐오발언들을 떠올려봅니다. 현재 억지 논란을 받아들이는 게임 업계의 모습이 혐오발언이 교정되지 않고, 커뮤니티에 동일화된 채 사회인이 된 이들의 현주소가 되었다고 생각해 절망과 이 길을 가고 싶어 공부했던 제 스스로 좌절과 슬픔이 늘어나는 날들입니다. 세상에 사상이 들어있지 않은 게임이란 없습니다. 어떤 매체이든 그것을 작업하는 이들의 생각을 품고있고, 함유량의 차이만 있기 마련입니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커뮤니티 속 고정된 페미니즘에 대한 선입견과 혐오들을 품은 게임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아무리 상상 속 세계에서 자유와 희망을 추구한다고 해도 현실 속 인간들에게 혐오를 표현한다면 플레이어들이 그 세계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게임이 문화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면 이에 대한 고민을 멈춰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9240	혐오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가해에 동참한 이번 사건을 대중들이, 모든 여성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9241	노동법을 준수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해치지 마세요.
9242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 어떻게 남성혐오가 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억지논란으로 여성노동자를 괴롭히는 본인들의 행태야말로 여성혐오임을 알길 바랍니다.
9243	일부 악질 커뮤니티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하며 집게 손 억지논란에 동참한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언제까지 여성들은 이런 억지논란에 희생양이되어 목숨, 일자리 등이 위협받아야합니까. 페미니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창한것이아닌 그저 여성들또한 남성들과같은 기회, 임금 등 성평등을 위한 인권활동일뿐입니다. 시대는 진보해나가는데 언제까지 이 수준에 머물것입니까?
9244	계속되는 그들의 가성비 마녀사냥 놀이를 멈춰주세요. 아무런 희생도 노력도 없이 그저 의문을 제시하고 몰아가기만 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납작 엎드리는게 정말 맞는 걸까요?
9245	혐오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습니다
9246	말도 안되는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당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여성혐오를 심화할 뿐만 아라 업계에도 일절 도움될 것이 없는 행위에 동조하지 말길 바랍니다.
9247	페미니즘은 인권운동. 인권에 반하는 기업 넥슨 기억할게.
9248	한국 여성 죽이는 안티페미니즘적인 행태 추접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사상이 당당하시면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지도 함께 올리시죠. 그건 또 진짜 망할까봐 못 하시겠죠?
9249	안타깝다는 말 이상으로 실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고싶어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을 보호하고 존중해야하는지에 대한 갈피도 없이 상식을 벗어나는 돌진을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누구와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건가요?

9250	피해망상에 자꾸 화답해주니 그들의 망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망상에 동참하여 실체 없는 허상과 싸우지 마시고 불필요한 검열을 멈추십시오. 페미니즘은 결코 창작물에 손가락 그림 몰래 삽입하기같은 찌질한 행위로 대표될 수 없는 인권 운동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트로서 그런 행동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시간도 없고, 결과물을 보고서 몰래 히죽거리거나 기뻐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여성 인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게임사들의 이상한 대응으로 인해 페미니스트가 그런 집단으로 규정되는 것이 매우 싫고 염려됩니다.
9251	슬프네요
9252	정신차리세요 남자들 어리광 받아주지말고
9253	타인의 생계를 이어나갈 재원이 되는 일자리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개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9254	선택적인 의견 수용을 멈추고 억지 논리가 아닌 게임과 관련된 제대로 된 비판점들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9255	우물 안의 개구리, 한 치 앞만 보고 사시네요
9256	여성을 먹이로 삼아 회사의 외부 불만을 잠재울 의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포기한 넥슨을 규탄한다. 그와 동시에 옳지못한 행위에 우르르 동참하며 차별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국게임업계 역시 부끄러움을 알고 인간으로서 얼바른 길을 가야할것이다. 도저히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면 속히 한강에나 뛰어들길바란다.
9257	몇 분 조차 되지않는, 재생 시 확인도 어려운 손동작을 해당 부분만 캡처 후 악의적으로 남혐이라며 되도않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니요. 넥슨측과 게임업계는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면 안됐습니다. 정말 논란이 잠잠해질거라 생각하셨나요? 애초에 이렇게 된 것도 말도 안되는 걸로 여론몰이를 시작한 사람들이 시발점입니다. 왜 마녀사냥을 좋아하는 그들의 말만 믿고 행동하시나요 결국 끝이 좋았나요? 그냥 대응조차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9258	메이플 디렉터측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집게손 관련 글이 올라오고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진행된 사태 수습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 이 갈등에 더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일부 유저들은 페미니즘 사상이 욕먹어야 마땅하며, 넥슨도 그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며 게임사를 등에업고 맹목적으로 페미니즘과 여성을 비하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지금도 인벤,dc 인사이드 등 남초 커뮤니티의 화제글은 여성 유저들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페미로 치부하며 맹목적으로 비하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내용은 맹목적인 혐오 표현과 문화를 게임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고 게임을 그로부터 지킬 것이라는 등의 전혀 반대의 내용이었지만, 특정 커뮤니티의 글로 인해 벌어진 사태이고 이러한 사태를 수습해준다는 차원에 있어서 그 라이브 방송과 대처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옹호하고, 동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처로 인해 이제 남녀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만이 결과로 남았습니다.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 볼때, 게임사의 위치와 입지는 매우 크고 높습니다. 이 간극을 줄여보고자 라이브 방송을 급하게 진행하신 것도 이해는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대처로 인해 여성 뿐만아니라 남성 유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259	블루아카 일러스트레이터는 심각한 수준의 소아성애 그림을 그려왔는데 왜 문제삼지 않나요? 이분 과거 그림과 발언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손가락 이모티콘과는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전에 블루아카가 온갖 언론으로부터 소아성애로 지적받았을때는 끝까지 변명하고 또 이에 대한 징계 언급도 없었으면서 페미니즘은 저런 손가락 하나로 차별과 혐오를 운운하면서 여성직원의 과거발언과 개인적인 사상까지 검열하겠음을 합리화 시키다니요.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의 인권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페미니즘이 남성혐오라는 일부 남성들의 주장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 불철주야하는 직원과 소비자 또한 여성이 존재함을 잊지마세요. 한국의 게임업계가 후퇴한건 여자탓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만드는 게임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일본 등 옆나라 게임기업들은 pc 지침까지 만들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본인들의 무능력을 여성탓으로 돌릴건가요?
9260	제발 그만하고 정신차리세요!!
9261	노동자가 페미니스트이든 아니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며 트집에 가까운 집게손가락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악성민원인들의 의견을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 하나 허락하다보면 업계종사자인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게임의 질 역시 하락할 게 분명합니다.
9262	사상검증이 아니라 여자 노동자를 아무 이유없이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9263	이건 아니다 각성해라
9264	지역혐오, 여성혐오는 방관하고 남성혐오(일부 유저들이 착각)에만 즉각반응하는 메이플의 대처가 말도 안됨.

9265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성 우월사상이라 멋대로 이름짓고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 집게 손, 오조오억 같은 단어들이나 여성의 숏컷이 페미니즘을 상징하고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혐오표현이 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집게 손과 오조오억이 그들의 남성성을 비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랬던 예시를 든 적은 없으며 커뮤니티에서 문제없는 표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혐오표현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글들과 작업들이 여전히 온라인 상에 남아있음에도 말입니다 숏컷이 왜 페미의 상징인지는 더더욱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이 피해망상같은 집착증때문에 숏컷의 여성들이 공격당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양궁선수가 인터넷상에서 공격받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한 여성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폭행을 했던 이는 말리던 중년 남성에게 왜 남성인데 내 편을 들어주지않느냐면서 그 또한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내 편' 이것이 단순 사이버불링을 넘어선 폭행으로 현실에서 그들의 피해망상을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이 어이없는 촌극을 본인들 스스로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서 내 편은 단순히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인터넷상의 이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넥슨 및 게임업계와 그 이외의 다양한 회사들이 이들의 피해망상적 요구를 들어주고 이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내가 정당한 일을 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페미니즘 혐오몰이는 더 심해졌고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은 부당한 당일 해고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첫 시작은 여성캐릭터에게 비키니를 입히지않고 해녀복을 입혔는데 반대로 남성캐릭터는 단추 푼 셔츠를 입혔기 때문에 일러스트 그린 이가 페미니즘 사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캐릭터가 무엇을 입고 벗었느냐가 페미니즘과 연관되었다는 것인지 그 논리를 도무지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그렇게 시작된 몰이가 결국은 해당 일러스트를 그린 남성과는 상관없는 여성의 당일해고통보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논란의 일러스트를 그린 이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해고당한 여성이 이전에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시위에 공감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누가 혐오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함에도 여전히 본인들이 혐오를 당하는 가련한 피해자라 믿으며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gs, 프로젝트 문, 넥슨 등의 많은 기업들이 이들의 마녀사냥을 더욱 부추기고 그 결과 노동권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법보다 더 고귀하다 믿고 행하는 페미니즘 혐오몰이에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넥슨과 같이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한 이 혐오몰이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온라인을 넘어 나의 일상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넥슨을 비롯한 게임업계와 그들에게 동조한 수많은 기업들 그 망상과 착각을 공유하든 하지 않든 착각에 빠진 이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원만할지 궁금합니다 현실이 아닌 본인들이 만들어 낸 상상 속에 사는 이들의 요구는 그만큼 끝도 없이 많을테지만 그 요구를 얼만큼 들어줄 인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붙잡고 미래로 달려가야 할 시기에

	하염없이 시간을 허비하겠지만 그것 역시 당신들이 선택이니 조용히 점점 뒤쳐져가더라도 억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266	개인의 사상을 표현했다는 증거는 인터넷에 올라온 근거 없는 모함뿐일진대, 수시간 안에 일어난 일로 수년간 일해온 근로자의 직분을 결정하는 것은 사측과 노동자 중 그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평소에 성평등주의에 관한 사상을 개인 sns 에 표현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업계의 다른 종사자들을 겁박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9267	디씨인사이드/일간베스트 측의 입장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국의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배제하고도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면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게임사의 역할입니다.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왕에게는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을 하는 간신이 아니라 뼈아픈 쓴소리를 하는 충신이 필요하듯, 유저가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 이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 넥슨 및 기타 게임사에서 디씨인사이드/일간베스트 측의 '집게 손 남성혐오 표현' 주장이 사실이고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해당 게임사들의 게임을 일절 소비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인 만큼 자신들의 대처가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268	게임산업의 대기업으로서 올바른 일을 해주세요
9269	지성인으로서 살아갑시다.
9270	게임 외 이슈에 신경 쓸 정성을 게임에나 더 부었으면 좋겠다.
9271	손모양으로 억지부리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마이크를 주지 마세요.
9272	페미니즘은 혐오가 아닙니다.
9273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다. 페미니즘을 불온사상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라.
9274	말도 안되는 커뮤니티 억지의견에 매번 벌벌떠는 게임업계 솔직히 답답하고 안쓰럽습니다
9275	그냥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꼴 못 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든가
9276	빨리 한국을 뜨고 싶을 뿐입니다
9277	자승자박이다
9278	여성이 일하기에 안전한 게임업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9279	저는 그저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여성 유저일 뿐인데 생계와 생활의 위협까지 느껴져 이제 한국 게임은 플레이하려고 건드리는 것조차 너무 두렵습니다.
9280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9281	한 산업 전체가 트롤에 휘둘리거나 트롤로 가득 차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통탄스럽다. 한심하다
9282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논란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않고 사는것같습니다.
9283	각성하세요
9284	페미니즘은 죄가 아니다 올바른 가치이다
9285	어린여자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는걸 잊지말라 넥슨 성우 부당해고를 보고 큰 내가 있다.
9286	제발 여성 업계인들 마음 편하게 자정이라는 걸 좀 시도해주시길...
9287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9288	한사람의 생계를 말도안되는 억지논란으로 끊기게 하지 맙시다. 넥슨게임 초딩때부터 좋아해서 20 년이 넘었지만 갈수록 추레해지네요
9289	말같지도 않은 논란으로 이지경까지 온게 웃기다
9290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1 유저입니다. 메이플이 서비스한 기간에 비해서는 짧지만 나름 오랜 시간 즐겁게 플레이해왔고 메이플 만의 캐릭터, 스토리 그리고 유저 간의 소통을 좋아했기에 이번 사상검증 사태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넥슨과 메이플스토리는 스튜디오 뿌리, 그리고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된 모든 매체를 내리고자 한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내 입을 떠난 말 한마디는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의 사상을 혐오로 단정짓고 많은 유저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만 줄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9291	나라 망신 제발그만..
9292	집담적 착각의 페미니즘 혐오를 멈추고 인간으로 돌어오라
9293	멀쩡한 남자들까지 피해가 막심함

9294	페미 몰이 제발 그만합시다. 지쳐요.
9295	넥슨 코리아에서 행한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노동법 위반을 규탄하고 처벌을 받길 강력하게 원하는 바입니다.
9296	정신좀차려요
9297	억지 논란 통해서 영세업체랑 사용자 맘대로 쥐락펴락하는것같아서 좋았나요? 사상이 올드한데 어떻게 새로운 게임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부디 더이상 도태되지 않길 바랍니다.
9298	편향된 주장에 답변하지 마세요
9299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요? 언젠간 꼭 역풍을 맞게 되어서 침몰할 겁니다.
9300	일부 유저들의 말도 안되는 트집을 들어주지 마라
9301	올해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Claudia Goldin 교수는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한국의 사회제도와 문화가 뒤쳐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히 기업 문화와 노동구조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기업들이 탐욕스러운 노동구조를 바꾸도록 남성들이 함께 압력을 넣어야 하며, 특히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Nexon' 사태는 실제 한국의 기업들과 노동 구조가 오히려 성차별과 불공정을 일삼으며 끝도 없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여성혐오적인 행태는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침해 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라는 인식에 적극 동의하며 같이 연대합니다.
9302	폭염에 복면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부터 '한국. 게임. 망해라!' 포함 외
9303	비이성적인 발언에 비상식적으로 대응하지마십시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시대를 거스르는 행보임을 깨닫고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로서 사태를 바로 잡으십시오
9304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9305	그렇게 살지 말아라
9306	억지논리로 한 사람의 직장을 빼앗는 게임업계는 사과하고 반성해야된다
9307	게임업계의 일부 유저층의 억지 사상검증에 동조하여 이뤄지는 모든 폭력과 부당해고를 규탄합니다
9308	정말실망입니다
9309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그만하세요
9310	불법인 아동성애는 되고 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건 안된다? 혐오와 차별은 본인들이 자행중임
9311	사람 손 가만히 놔두어도 기본적으로 집게 모양이 되는데 그게 남혐이라고요? 말이되나요? 그리고 남자차별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왜 여자 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9312	자칭 인셀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가치관념이 한쪽에 치우치다못해 생각하길 버린 분들께서, 사회에 어떤 부정적이고 억지와 타인을 탄압할 수 있다는 오만을 입과 행동으로 내뱉고 보여주신것에대한 대가를 잘 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업계에 차별이없다구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임애니문화산업 업계에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있는 무수한 여성분들에대한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력들이 그걸 증명하고있는걸요.
9313	인셀들의 억지 땡깡을 왜 일일이 들어주고 있습니까? 왜 내가 재밌게 했던 게임에 대한 추억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겁니까?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게 기업이면 기업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저 인셀들이 자신들의 열등함을 표출하는 단계에서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멀쩡한 직장인을 잘라서 노동계에 이따위 선례를 만듭니까
9314	기업은 외부의 힘에 갈대처럼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9315	성급한 조치로 인해 일어나게 된 이 사건에서 자신들이 불러 일으킬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코 앞의 유저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결론을 내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9316	기업은 악덕민원으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9317	그냥 싹 망했으면 함. 의견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9318	대체 페미니즘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9319	우마무스메 게임의 경우 해당 침묵했는데 잠깐 떠들썩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들어주니까 어? 들어주네? 하면서 더 억지 부릴 텐데...
9320	남혐이 아닌 페미니즘은 처단 대상이 아닙니다. 뿌리깊은 여성 차별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노력을 단순히 남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폄하, 비하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는 그저 억지 논란 조장일 뿐입니다. 이런 일에 선동당하고 마녀사냥에 앞장서다니 정말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9321	여성직원에 대한 여성혐오 성향을 가진 남성유저와 회사의 무분별한 성차별적 린치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9322	대체 누구 맘대로 평범한 집게 손이랑 페미 손이랑을 판별해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하는건지
9323	페미니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알고 운영해주세요. 또한 직원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하는 것 또한 멈춰주세요. 앞으로도 이와같은 사태에 이번과 같은 미흡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9324	여성 노동자를 향한 부당한 사상검증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9325	그들만의 세상. 북 치고 장구 치고 지랄을 한다

9326	회사 프로젝트 문에서 여성 직원을 부당 해고했던 사건이 있은지 채 1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뉴스와 기사에서 부당 해고, 사상검증의 사례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다시, 논리적이지 못한 혐오세력의 말에 누군가의 직장이 사라지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이어야 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이 동작이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직원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업계들을 보고 있으니.. 지금이 2023 년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저 손가락은 그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동작입니다. 하물며 해당 직원이 정말 페미니스트라고 한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페미니스트는 평등을 원하는 집단이지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말.. 언젠가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싶네요. 2023 년에 이게 왜이렇게 이루기 어려운 소망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327	현대판 마녀사냥 치졸한 넥슨
9328	손가락 하나 검열할 시간에 게임이나 제대로 만드시고 유저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타법도 페미 소금 집어도 페미라고 우기시는 꼴이 가관이시네요
9329	게임업계는 더 이상 여성 혐오에 동조 하지 말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주세요
9330	집게손가락이 남혐이라는 인셀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사과하지 마십시오 페미가 사람을 죽이고 폭행합니까? 오히려 페미 몰이하며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요 넥슨과 게임업계들도 폭력에 동조하고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9331	제발 좀 그만.. 어디까지 못나질건가...
9332	이 사태에서 누가 진정으로 타인을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고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에서 누가 오락거리 삼아 마녀사냥을 거행하고 있는지 똑바로 파악해 주십시오. 타인을 향해 가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혐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그런 문화가 곁에 있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측이 또 다른 혐오에 적극 가담하고 그러한 문화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혐오를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희열로 삼는지 재고하여 주십시오.
9333	제정신인가요
9334	확증편향에 휩쓸린 인간들 말에 대기업 게임사가 휘청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생각보다 별 거 아니네요 넥슨도~
9335	고의가 아니지않습니까
9336	인터넷에 도는 유언비어의 대응으로 죄없는 회사 직원을 자르고 사과 하는 짓은 강도에게 칼을 쥐여주는 것과 같다. 공격을 받고 있는 직원을 감싸기도 모자란데 무대응은 커녕, 구매력 없고 위협적인 진상고객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대기업의 꼴이 우습다. 본인들은 물론이고 동종업계 타사 직원들까지 그들의 위협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본인들이 위험 밖에 있다해도 구매력 있는 고객층까지 회사에 실망하고 떠나가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알고 있는가?
9337	잘못 대응을 한 대가를 치루세요

9338	메이플스토리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쥐잡듯이 페미니즘 잡는 꼴 보니 더러워서 못하겠네요
9339	사상과 철학을 이유로 징벌적 해고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9340	아무 의미없는 손가락 모양에 혐오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어주며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한국 게임업계 분위기는 정상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끝 없는 검열과 여성을 향한 위협만이 예견될 뿐이다. 여성도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 여가 시간과 금전을 게임에 투자하며 즐길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지속되고 문제점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여성들은 단지 취미로 게임 하는 것만으로 끝 없이 스스로의 사상(페미니즘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을 증명 해내야만 한다. 앞으로도 국내 게임업계의 위협적인 분위기가 자정이 안된채 지속된다면 여성들은 앞으로 국내 게임을 할 수 없다. 게임업계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없다.
9341	남자만 살아남길 바라나?
9342	부디 일 처리를 하실때에는 맥락과, 공평성을 제대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은 블랙컨슈머의 항의와 게임의 발전을 위한 항의를 구별할 줄 아는 넥슨과 게임업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9343	우리나라의 게임이 여성 혐오의 산물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9344	게임 속에서 만연한 여성혐오적 요소도 똑같이 바로잡아주시길
9345	본인들도 웃기죠? 남자들 말만 들어주는 집단
9346	메갈손이라는 검증되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억지 논란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것이고, 이런 혐오 행위에 넥슨은 마땅한 불이익을 받아야합니다.
9347	여성인권 노동인권 무시가 어떤 몰지각하고 무지성한 행동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9348	남녀평등을 위하는 사상을 남성혐오로 오독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과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9349	이 사건이 여성혐오로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똑같은 디씨인셀일베입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면 영문 일본어 중국어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돌리세요.

9350	집게 손가락은 사람이 손을 움직이며 가장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많이 취하게 되는 손동작입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애플워치 광고로 엄지와 검지를 두드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플은 페미 회사이고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집게 손가락을 문제 삼았던 김창섭 디렉터 본인이 집게 손가락을 취한 방송 화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창섭 디렉터는 라이브에서 음침하게 성차별하는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직접 말한 바 있으니 당당히 사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성차별을 참지 않겠다고 했지만, 선택적 참기 잘 보았습니다. 디씨, 인벤 등 남초 커뮤니티는 물론 인게임에서 전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로 피싸개, 힐싸개, 퐁퐁섭은 물론이고 여성의 신체를 두고 성희롱하는 글이 늘 돌아다녔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을 한 적은 있습니까? 메이플은 큐브확률 조작으로 그렇게나 시끄러웠는데 몇 대의 트럭을 돌리고 나서야 겨우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이번처럼 빠른 건 초움 봤습니다. 큐브 확률 조작 문제보다 남초 컴뮤니티의 집단 망상티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었나 봅니다. 여성혐오 집단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없습니다. 상층부를 닮아 직원도 같은 마인드더군요. 블라인드에는 "페미 때문에 야근한다"는 욕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집단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악성 민원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페미 탓인 것입니다. 대체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남초 커뮤니티의 피해망상적 사고에 어울려 줄 생각이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한들 이게 사업적 이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임 업계를 보며 갈수록 더한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인증과 보수를 요구하겠죠. 이들은 메갈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 제작된 게임 화면을 가져와서 집게 손가락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유아퇴행적 행위를 보이며 이 또한 페미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양산하는 것은 넥슨과 게임업계의 책임입니다.
9351	이참에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네요 디씨도 끊으시고... 어느 나라에서든 사업할 자격도 없음
9352	혐오논란을 피하겠다고 말한 당신들이 정작 일베, 디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네요 그냥 당신들의 스탠스 잘 알겠으니 다신 보지맙시다.
9353	여자 게이머도 게이머다!!! 모든 문화사업 돈을 여성이 쓰는데 그 시장 개척도 안 하고!!! 이상한 착취구조르 소수의 돈을 짜내어 회사 운영을 말아라!!! 여성 혐오로 시장도 잃고 기업 경쟁력도 잃고 있다!! 자신이 담다면 너희 주장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알려봐라!!!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9354	여성혐오인것을 인지하고 사상검증을 멈추세요
9355	이해할수없는 피해망상과 인터넷 분탕글로 지금 말도 안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있다는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 손가락 모양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게임업계에서 사과중이라면 진짜 뒤로 후퇴하는 꼴만되는건데 뭐가 무서워서 벌벌떨며 다들 사과글과 사상검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한거에 반응을 해주니 신나서 더 난리치는데 제발 이상한거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9356	이런식 운영을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부디 남성직원들 sns 도 전수조사좀 해주시고 혐오성발언 발견시 즉각처분 부탁드립니다🙏
9357	명확하지도않은 집게손이 남자에대한 혐오라는 무식한 억지에 괜한 여자만 잡는다는게 참 대기업이 하는짓치고는 너무 유치하고 한심하네요
9358	이성적으로 굴어라 인셀들 말에 놀아나지 말고.
9359	일부 유저가 부리는 억지를 받아주지 마시오
9360	육안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순간의 집게손 그림 한장에 대한 여론몰이 생떼를 받아준 기업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9361	다시는 부당한 사상검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9362	잘못하지 않은 것에 제발 사과하지 말아주세요
9363	정신 차려라. 페미니즘 논란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 억지와 페미니즘 혐오 몰이에 넘어간 넥슨의 부당 조치 논란이다. 사상검증이 아니라 성차별이다. 더 이상 게임 업계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과 혐오 몰이로 성차별과 여성혐오, 페미니즘 혐오에 동조하지 말라.
9364	남성유저들의 억지요구사항을 빌미로 노동시장 및 업계전반에 말도 안되는 억지스러운 일을 더이상 행하지 마세요
9365	이상한 사상을 가진 악성민원인들의 주장은 무시하라.
9366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9367	집게손 제스처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손동작인데 그거가지고 남혐이네 뭐네 하는 디씨일베놈들 들어줘서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을 자르다니 20 세기 말도 아니고 제정신입니까??
9368	페미니즘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언급으로 일자리와 생계를 잃는 일이 2016 년 이후로 밥먹듯 자행되어왔는데 이제 그만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9369	저도 몇 년후에 게임업계에서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볼 때마다 한국 게임 회사에서는 절대 일 안하고 싶고 해외에서 차별 안받고 혹여나 페미니즘을 지지하더라도 그걸 비난하지 않는 사회에서 일하고 내 노동권이 보장받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네요 안그래도 한국 애니메이터들 다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런 행보야 말로 한국 게임업계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가장 큰 게임회사가 이렇게 한 쪽 유저들 말만 듣고 게임 업계 종사자나 애니메이터들 목숨, 밥줄 다 끊어놔도 괜찮은 게 정말 무섭네요 빨리 해외취업하는 게 살 길 같아요 애니메이터 여러분 힘내세요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9370	넥슨은 물론이고 스마게 및 국산겜 다 끊을 예정
9371	게임수출하고 싶으면 페미니즘 이슈에 눈 뜨십시오.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옹호하지않는다는 말은 성차별주의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9372	온갖 혐오 표현의 시발점이 되는 남성 유저 위주의 커뮤니티인 메이플 인벤. 메이플 갤러리 등에서 '집게손' 이 남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메이플스토리 측에서는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빠르게 사과문을 기재하여 일어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주 작가는 과거 개인 SNS 에 페미니즘을 지지했던 발언이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 2.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에 대한 모든 홍보물과 작업물이 내려갔으며 이로 인해 외주업체와 메이플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3. 외주 작가 개인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따라서 메이플스토리의 현재 대외적 이미지는 반 페미니스트들의 억지 의견에 힘을 실어준 대기업이 직업 리마스터 이벤트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주제에 애니메이터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여 2 차 가해를 한 부끄러운 기업이 되었고, 본 사건으로 인해 반 페미니즘 성향을 증명한 메이플스토리는 그동안 신규 유저와 여성 유저를 유입하고자 친근한 이미지로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 홍보 등을 진행한 것은 허울뿐인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메이플에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한 여성 유저로서는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넥슨 측은 게임업계를 제외하더라도 대기업이고,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행동과 판단을 가볍게 하지 말고 간단한 공지 하나라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행동하길 바라며 메이플 측이 성별, 나이, 국적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게임을 지향하는 것치곤 맹목적인 혐오를 즐기는 집단들을 메이플에서 보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메이플이 유린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안일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메이플 운영진의 게임 운영 능력이 의심됩니다.
9373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손들어주는 행동의 결과가, 다른 누군가의 생활 일부를 뺏는 행동입니까? 사상검증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인간에게 검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9374	혐오몰이를 규탄합니다!
9375	왤케 못나게 굴지 간지도 없어
9376	진심으로 그들이 걸어대는 억지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적절치 않을 정도로 얄팍하고 허무맹랑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요? 정말로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싶을 정도로 제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9377	자기 열등감을 억지로 남 까내리며 푸는 집단에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9378	논란이 된 게임 유저로서 실망이 큽니다. 유저들이 억지를 부려도 운영진은 상식적인 사람들일 거라 믿었는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던 말은 허울 뿐이었나봅니다. 실체도 없는 가해 세력을 쫓아낸다는 정의감에 취해 결국 비슷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게임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9379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는 억지 요구를 들어주며 부당해고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않습니다. 페미니즘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9380	한국의 게임업계가 타국에게 언급되었을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9381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9382	사태가 커진 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사상 검증이라는 말에 갇혀 진짜 혐오를 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그 커뮤니티에 절여져서 보기 힘든 것 같지만요.. 이 사태로 메이플은 접습니다. 손가락 모양 하나에 발작하는 방구석인셀남만 남은 게임 알아서 잘 굴려보십시오. 귀엽고 모두가 즐겨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콜라보 마케팅도 싫어하던데 그냥 그 인력 프레임 하나하나 신경쓰는 데에 쓰시고 열심히 빽액거리는 사람들 달래주면서 사세요. 억지 주장을 안 받아줬으면 이렇게 논란 커지지도 않고 저기 구석에서 억지부리는 일부의 외침으로 끝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하나의 헤프닝으로 끝났겠지요. 이건 정말 외주사나 개인의 잘못이 아닌 '잘못된 넥슨의 판단'이 불러온 사태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9383	할말이없네요. 퇴화 그만
9384	이번 일로 한국게임업계의 성인식이 어떠한지 밑천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국산 게임은 할 일 없을거라고 전해주세요.
9385	넥슨은 롱런 원한다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든어택하던 유저인데,이번 넥슨측의 무조건적 사과를 보고 정 떨어져서 회원 탈퇴를 생각중입니다.별 문제 없는 억지 창조 논란에 일일히 다 사과하면 기업 망합니다.기업이 어느정도 줏대가 있어야죠.줏대 없는 게임사 게임은 하기가 싫네요,뱅드림 리듬게임이나 우마무스메 같은 게임도 똑같이 페미니즘 억지논란을 유저들이 일으켰지만 회사측에서는 별 문제 아니라고 여기고 냅뒀었습니다.그 이후 아무 일도 안일어났고요.넥슨에 창조논란도 받아주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9386	넥슨 및 게임업계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나요?
9387	페미니즘은 혐오사상이 아닙니다. 사상검증 멈추세요.
9388	저는 2023 년이 되어서도 최근 7 월달에도 발생한 있는 사상검증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워 해당 게임을 그만두게 된 유저입니다. 현재 피해 직원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계속해서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악성진상요구에 스스로 굴복하려는 게임업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소비자가 아닌 그저 진상을 부리는 악성 소비자입니다. 제발 제대로 생각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직원 보호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소비자라는 탈을 쓴 진상에게 피해 직원을 넘기는 식의 꼬리 자르기는 16 년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려 7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하나 발전하지도 대처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는 모습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렵고 어떤 것을 그리도 이해하기에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손을 들어주는 건가요? 왜 직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가요? 왜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그리도 두려워 하나요?
9389	정말 1 프레임에 해당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델링 및 여러 삽화 등에서 제작을 해온, 그리고 그를 검수해온 전문가분들이 정말 그걸 그 의도로 넣었을 거라 동의하시나요? 게임 제작 작업만 해도 당장 여러 명이 붙어서 겨우 하나를 완성해나가는, 그걸 쌓아가는 과정인데요? 본인들도 과한 것임을 모르시고 하는 말인가요?

9390	게임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의미있는 피드백이 아니라 혐오에 동참하는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회사가 인정함으로써 도리어 문제로 만든다면 게임업계의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위법의 문제입니다.
9391	동화의 자연스러운 동작의 연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장면을 그려야합니다. 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순간적인 곳에 아주 잠깐, 단 0.1 초의 시간에 넣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의도를 넣었다해도 윗선에서 충분히 걸러냅니다. 촬영은 물론이고 각 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까지 보는데 당연히 거기에 장난을 칠 수 없고 친다면 바로 수정이 날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거의 업계에서 일하는 수준으로 프레임을 본다는 것인데, 소비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시에는 오히려 시간을 늘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순간순간에 조롱의 의미로 넣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이런 억지 논리로 인해서 그려진 수많은 그림들이 검열이 되고, 그런 억지 검열을 받아들여서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하여 사상을 탄압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런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 누가 이 회사의 게임을 하고 싶으며, 그리고 그 회사의 일을 맡고 싶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이제 더이상 각자도생으로 살 수 없으며 문화와 엔터테이먼트 사업은 더욱이 서로가 연결되어있습니다. 유저와 회사간의 소통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던 개선해달라 하던 의제들은 여러 핑계로 무시되어왔으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요구에는 즉각적 대응을 하다니 그렇게 된다면 대체 귀사의 게임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귀사의 게임을 하면서 자라나서 당신들이 만드는 게임에 참여하고 싶던 이들, 혹은 그들의 게임을 사랑해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창작을 하는 이들을 위한다면 유저와의 소통에서도 지켜야 할 선을 지켜주십시오.
9392	게임 유저에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깨진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되도않게 징징거리는 인셀남들 의견만 들어줄건지? 그리고 당당하면 제발 우리게임사는 안티페미라고 글로벌 공지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9393	여성차별 혐오에 동조하는 회사는 망한다
9394	혐오가 놀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억지 주장을 받아주지 마세요.
9395	여성 혐오를 멈추시오!
9396	객관적으로 봤을때 저렇게 말도 안되는 난리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거지 부린거 이미 오바 떨면서 들어주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히 피드백 지옥 셀프로 오픈한듯 합니다. 솔직히 억지 들어준 넥슨 업보라서 알 바 아니긴한데 제발 이상한 도태남들이 억지부리는거 들어주지 마세요.
9397	아직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의만 찾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법이죠. 뻔히 보이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돌아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9398	과거의 페미니즘 혐오를 반복하는 넥슨을 규탄한다.

9399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상검증을 해서는 안되며 혐오세력의 "생떼" 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회사의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는 그만둬야한다.
9400	사람답게좀일합시다...
9401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402	집게손가락이 페미라고 하는사람 머리에 표시해줬으면 좋겠음 피해다니게
9403	왜 그러세요?
9404	넥슨은 귀사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9405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슈에 힘을 써야지 헛짓거리에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꼴이 부끄럽다. 루머나 퍼뜨리는 집단이 정상인가
9406	비정상적인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길.
9407	이 노동자가 남성혐오적 표현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그 논리과정이 심각하게 비 이성적이다. 역동적인 그림이 나오는 미디어 물 에서 엄지와 검지가 약간 모아져 있다고 남성혐오적 표현이란 말인가!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궤변이란건 알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람이 과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니 저 그림은 남성혐오적 표현이란것도 논리적 비약이다.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해서 남성을 혐오한다고 도식적으로 이야기 할수 없음은 분명하다. 두번째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렸으니 남성혐오적 그림이 되면은, 저 그림을 똑같이 안티 페미니즘세력이 그리면 갑자기 남자를 옹호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되기라도 하는가? 결국 이것은 넥슨 및 게임업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챙기기 위한 노동 탄압이며, 문제가 많은 게임 소비자들의 사상검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넥슨은 이런 기막힌 사상검증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것이다.
9408	해달란대로 징징징징. 프레임마다 집게손을 유저와 게임사 모르게 집어넣어서 남혐을 한 것이라는 그 말을 믿는 것이라면 멍청, 안믿음에도 무조건 사과한 것이라면 더 멍청…
9409	언제까지 손가락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지적하는 치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계획이십니까?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9410	말도 안되는 인셀들의 억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9411	종이 잡을때, 책넘길때 엄지와 검지로 하는것도 남성혐오입니까? 일상생활에 쓰는 엄지와 검지를 쓰는 모든 행위를 혐오로 받아들이시겠다면 먼저 실천해보시죠. 피켓이나 종이 들 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잡는 행위를 혐오행위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9412	허황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 업계는 한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고 자정하길 바란다. 신빙성도 없는 억측을 마치 사실인냥 인정하며 여성의 권리를 해치는 업계를 규탄한다.
9413	손가락논란은 강제로 만들어진 논란입니다. 억지논란에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9414	노동자의 사상을 검열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직접적인 해를 가하며 이 같은 행위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동조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사원보호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 회사와 게임업계를 비판합니다.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노동자의 주관은 남성에 대한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며, 이에 반해 노동자의 자발적인 퇴사나 축출및 사과 공론화 운동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회사의 억압입니다. 확실치 않은 유저 및 커뮤니티의 여론에 의해 이리저리 의견이 흔들리는 회사를 소비자로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한, 게임내의 여성비하 채팅이나 모욕 언사도 제대로 제지하지 않던 회사가 확실치도 않은 커뮤니티 의견에 쏠려 여성노동자를 자르고 색출하는 행동엔 어떠한 공정성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415	실질적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중요한 것은 알겠으나 넥슨이 나름 국내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이 혐오라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여성들에게 트집을 잡아 혐오하는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로 오히려 부상할 수 있게 보다 어른스러운 태도를 바랍니다. 정말 황당한 논란입니다.
9416	억지인거 아시잖아요.
9417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억지 논란이 생길때마다 논란을 인정하고 직원을 잘라낼건가요?
9418	말도 안되는 일부 유저들의 억지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게임 내 성상품화 문제, 게임 업계 과로 문제, 임금 차별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눈가리고 아웅 하더니 영상을 캡쳐해서 의도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떼쓰는걸 받아주다니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페미니즘이 뭔지 관심조차 없고 남초 사이트의 의견만 받아들이니 한국 게임 업계에 발전이 있을리가 없지요.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고.
9419	김자연 성우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 10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겄만 날로 퇴보해가는 형태가 여간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게임산업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실수를 뉘우치고 상호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도모합시다.
9420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논란을 멈춰라 -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
9421	실체없는 주장에 냅다 굽신거리는 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9422	정신을 좀 차리세요
9423	헛소리에 무시하는 대응이 어려운가? 손가락 모양으로 인해 이지경이 됐으면 블루아카이브 외주처도 잘라요
9424	노동자를 지키십시오.
9425	게임문화 속 여성 혐오와 게임업계의 여성 차별을 규탄한다.
9426	넥슨 정신차려
9427	방구석 도태남들의 억지논란에 장단 맞춰 준 댓가는 피드백 지옥으로 돌아오고있고 지금부터는 그 무엇도 그들의 창조논란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 게임산업계의 퇴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신차리고 지금이라도 수습하세요

9428	한국게임 망하는 이유가 당신들같은 사람들때문임
9429	억지는 한 번 받아주면 계속 받아줘야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릴 때마다 작업을 다시하고, 직원을 해고할 생각인가요? 그럼 어떤 전문가가 이런 업계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지금같이 행동한다면 이런 억지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업계, 이런 기업에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이익이 전혀 없는 악수 중에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도를 넘은 개인의 억지까지 의견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